

CBETA電子佛典集成

CBETA Chinese Electronic Tripitaka Collection
eBook

J36nB348

靈峰蕩益大師宗論

明 智旭著

目次

- [編輯說明](#)
- [章節目次](#)
 - [自傳](#)
 - [續傳](#)
 - [附記](#)
 - [私諡竊議](#)
 - [序](#)
 - [序說](#)
 - [目錄](#)
 - [願文一](#)
 - [四十八願](#)
 - [受菩薩戒誓文](#)
 - [刺血書經願文](#)
 - [書佛名經回向文](#)
 - [為雪航楫公講律刺血書願文](#)
 - [持咒先白文](#)
 - [禮大報恩塔偈](#)
 - [為母三周求拔濟啟](#)
 - [為母發願回向文](#)
 - [持準提咒願文](#)
 - [禮大悲銅殿偈](#)
 - [起咒文](#)
 - [己巳除夕白三寶文](#)
 - [閱律禮懺總別二疏](#)
 - [安居論律告文](#)
 - [為母四周願文](#)
 - [為父十二周年求薦拔啟](#)
 - [結壇水齋持大悲咒願文](#)
 - [為父回向文](#)
 - [楞嚴壇起咒及回向二偈](#)
 - [續持回向偈](#)
 - [願文二](#)
 - [龍居禮大悲懺文](#)
 - [結壇持大悲咒偈](#)

- [結壇持往生咒偈](#)
- [結壇念佛回向文](#)
- [結壇禮大悲懺文](#)
- [補總持疏](#)
- [為父母普求拯拔啟](#)
- [再禮金光明懺文](#)
- [結壇禮懺并回向補持咒文](#)
- [禮大悲懺願文](#)
- [禮淨土懺文](#)
- [西湖寺安居疏](#)
- [前安居日供鬪文](#)
- [自恣日拈鬪文](#)
- [禮淨土懺文](#)
- [禮金光明懺文](#)
- [講金光明懺告文](#)
- [願文三](#)
 - [九華地藏塔前願文](#)
 - [十周願文](#)
 - [持咒文](#)
 - [閱藏願文](#)
 - [完梵網告文](#)
 - [滅定業咒壇懺願文](#)
 - [陳罪求哀疏](#)
 - [為如是師六七禮懺疏](#)
 - [盂蘭盆大齋報恩普度道場總別合疏](#)
- [願文四](#)
 - [鐵佛寺禮懺文](#)
 - [甲申七月三十日願文](#)
 - [佛菩薩上座懺願文](#)
 - [大悲行法道場願文](#)
 - [禮千佛告文](#)
 - [祖堂結大悲壇懺文](#)
 - [占察行法願文](#)
 - [大悲壇前願文](#)
 - [閱藏畢願文](#)
 - [大病中啟建淨社願文](#)
- [法語一](#)
- [法語二](#)

- [法語三](#)
- [法語四](#)
- [法語五](#)
- [答問一](#)
 - [答卓左車彌陀疏鈔三十二問](#)
 - [答印牛四問](#)
 - [代答劉心城又上博山四問](#)
 - [擬答忘所上博山書問](#)
 - [擬答白居易問寂音禪師書](#)
 - [答人問參究初心方便說](#)
 - [答菩薩戒九問](#)
 - [答黃稚谷三問](#)
 - [答陳弘袞二問](#)
 - [答元睿問](#)
 - [答鄧靖起三問](#)
 - [答淨性三問](#)
 - [答淨塵問](#)
- [答問二](#)
 - [答張叔韓問](#)
 - [答敷先問](#)
 - [答庸菴二問](#)
 - [答湛持公三問](#)
 - [壇中十問十答](#)
 - [續一問答](#)
 - [性學開蒙答問](#)
- [答問三](#)
 - [答大佛頂經二十二問](#)
 - [教觀要旨答問十三則](#)
 - [答徐仲弢問](#)
 - [答何二華問](#)
 - [答比丘戒五問](#)
 - [答唐宜之問書義](#)
 - [答成唯識論十五問](#)
 - [答準提持法三問](#)
 - [法華堂第三第四二問并答](#)
- [普說](#)
 - [祖堂幽棲寺丁亥除夕普說](#)
 - [歙西豐南仁義院普說](#)

- [歙浦天馬院普說](#)
- [茶話](#)
 - [荅卓左車茶話](#)
 - [示念佛法門](#)
 - [示念佛三昧](#)
 - [除夕荅問](#)
 - [為大冶](#)
 - [辛卯除夕茶話](#)
- [說](#)
 - [作法說](#)
 - [妙安說](#)
 - [謙光說](#)
 - [孝聞說](#)
 - [洗心說](#)
 - [慈濟說](#)
 - [念佛三昧說](#)
 - [孕蓮說](#)
 - [陳子法名直朗法號自昭說](#)
 - [法器說](#)
 - [聖學說](#)
 - [文最說](#)
 - [藏野說](#)
 - [恥菴說](#)
 - [柴立說](#)
 - [茶毘說](#)
 - [持名念佛歷九品淨四土說](#)
- [文](#)
 - [戒姪文](#)
 - [勸戒殺文](#)
 - [惠應寺放生社普勸戒殺念佛文](#)
- [偶錄](#)
 - [梵宰偶談](#)
 - [偶書二則](#)
 - [閱陽明全集畢偶書二則](#)
 - [偶書二則](#)
 - [山客問荅病起偶書](#)
- [解](#)
 - [致知格物解](#)

- [藏性解難五則](#)
- [書一](#)
- [書二](#)
- [論](#)
 - [參究念佛論](#)
 - [慈悲緣苦眾生論](#)
 - [非時食戒十大益論](#)
 - [念佛即禪觀論](#)
- [辯](#)
 - [戒衣辯訛](#)
 - [法派稱呼辯](#)
- [議](#)
 - [儒釋宗傳竊議](#)
- [記](#)
 - [介石居記](#)
 - [游鴛湖寶壽堂記](#)
 - [端氏往生記](#)
 - [祖堂幽棲禪寺大悲壇記](#)
 - [祖堂幽棲禪寺藏經閣記](#)
 - [明慶寺重建殿閣碑記](#)
- [緣起](#)
 - [毗尼事義集要緣起](#)
 - [靈峰寺淨業緣起](#)
 - [八關戒齋勝會緣起](#)
 - [退戒緣起并囑語](#)
 - [化持地藏菩薩名號緣起](#)
 - [成唯識論觀心法要緣起](#)
- [序一](#)
 - [尚友錄序](#)
 - [廣孝序](#)
 - [長干寶塔放光序](#)
 - [沙彌持犯考序](#)
 - [太比丘持犯考序](#)
 - [刻淨土懺序](#)
 - [雲麓居士持金剛經序](#)
 - [刻寶王三昧念佛直指序](#)
 - [印禪人關台藏序](#)
 - [寓菴序](#)

- [修淨土懺并放生社序](#)
- [聞修社序](#)
- [淨信堂初集自序](#)
- [刻三千有門頌解後序](#)
- [四書蕩益解自序](#)
- [序二](#)
 - [梵網合註自序](#)
 - [讚禮地藏菩薩懺願儀後自序](#)
 - [安居止觀山房序](#)
 - [絕餘編自序](#)
 - [勸持大佛頂經序](#)
 - [勸持梵網心地品](#)
 - [化持大佛頂神咒序](#)
 - [周易禪解自序](#)
 - [大佛頂經玄文後自序](#)
 - [悅初開十千人放生社序](#)
 - [贈衍如兄序](#)
 - [贈純如兄序](#)
 - [刻惺谷禪師筆語序](#)
 - [聞遊集自序](#)
- [序三](#)
 - [入法界序](#)
 - [贈調香居士序](#)
 - [觀泉開十化萬人畢生念佛同生淨土序](#)
 - [能乘所乘序](#)
 - [惠應寺放生蓮社序](#)
 - [重刻破空論自序](#)
 - [楊輔之乞金剛集解序](#)
 - [重刻大佛頂經玄文自序](#)
 - [刻大乘止觀釋要自序](#)
 - [警心居士持地藏本願經兼勸人序](#)
 - [贈石淙掩關禮懺占輪相序](#)
 - [緣居序](#)
 - [蓮漏清音序](#)
 - [重刻成唯識論自考錄序](#)
 - [廬山香爐峰重結蓮社序](#)
 - [勸念豆兒佛序](#)
 - [放生社序](#)

- [刻重訂諸經日誦自序](#)
- [悲華經序](#)
- [成唯識論遺音合響序](#)
- [孟景沂重刻醫貫序](#)
- [淨信堂續集自序](#)
- [序四](#)
 - [贈劉今度序](#)
 - [贈張興公序](#)
 - [金剛經偈論疏註序](#)
 - [金剛般若會義序](#)
 - [西方合論序](#)
 - [台宗會義自序](#)
 - [重治毗尼事義集要自序](#)
 - [重刻寶王三昧念佛直指序](#)
 - [偶拈問答自序](#)
 - [贈鄭完德念佛序](#)
 - [鄭千里老居士集序](#)
 - [江寧紀賵後序](#)
 - [維摩經提唱略論序](#)
 - [楞伽義疏後自序](#)
 - [刻較正大阿彌陀經後序](#)
 - [合刻彌陀金剛二經序](#)
 - [鮑性泉天樂鳴空集序](#)
 - [西有廩餘自序](#)
 - [選佛譜自序](#)
 - [裂網疏自序](#)
 - [幻遊雜集自序](#)
 - [閱藏知津自序](#)
 - [法海觀瀾自序](#)
 - [幻住雜編自序](#)
- [題跋一](#)
 - [題對峰禪師血書受戒文後](#)
 - [刻十二頭陀經跋](#)
 - [血書經品跋](#)
 - [水心持金剛經跋](#)
 - [刻較正梵網上下跋](#)
 - [刻頭陀遺教與梵網同帙跋](#)
 - [寄南開十血書法華經跋](#)

- [雲麓居士持金剛經跋](#)
- [白牛十頌自跋](#)
- [重定授菩薩戒法自跋](#)
- [梵網合註自跋](#)
- [積如開十刻般若照真論跋](#)
- [血書法華經跋](#)
- [蘊謙書法華經跋](#)
- [願彌血書法華經跋](#)
- [達權書法華經跋](#)
- [三學血書華嚴經跋](#)
- [法華綸貫自跋](#)
- [妙玄節要自跋](#)
- [題若水關主手卷](#)
- [題至孝回春傳](#)
- [題獨省編](#)
- [觀泉開十血書法華經跋](#)
- [蓮洲書佛頂經跋](#)
- [題靈異雜錄](#)
- [推古題辭](#)
- [毘舍浮佛偈跋](#)
- [血書金剛經跋](#)
- [題牧牛圖](#)
- [重刻三頌自跋](#)
- [性學開蒙自跋](#)
- [遺教解自跋](#)
- [彌陀要解自跋](#)
- [周易禪解自跋](#)
- [唯識心要自跋](#)
- [書慈濟法友托鉢養母序後](#)
- [題跋二](#)
 - [貝林師書大佛頂經跋](#)
 - [題玉浪施茶冊](#)
 - [憨大師書唐修雅法師聽法華經歌跋](#)
 - [十大礙行跋](#)
 - [唐氏女繡金剛經跋](#)
 - [去病公書大佛頂經跋](#)
 - [四十八願卷跋](#)
 - [張興公喬梓梅花詠借題](#)

- [法華會義自跋](#)
- [占察疏自跋](#)
- [菩薩戒本經箋要自跋](#)
- [金剛經跋](#)
- [題書](#)
- [題邵石生集陶近體三則](#)
- [題鐵心橋冊](#)
- [題之菴凍雲圖](#)
- [恆正上座受持朱元介所書經跋](#)
- [題樂愚尊宿付囑朱本蓮十八高賢卷](#)
- [余一素居士楷書華嚴大典跋](#)
- [西有寢餘自跋](#)
- [較定宗鏡錄跋四則](#)
- [裂網疏自跋](#)
- [吳大年居士書法華經跋](#)
- [書吳孟開居士泊岸卷後](#)
- [書知足歌後](#)
- [疏一](#)
 - [化持滅定業直言一世界數莊嚴地藏聖像疏](#)
 - [造毘盧佛像疏](#)
 - [寫書本大藏疏](#)
 - [刺血書華嚴經疏](#)
 - [永慶寺平治道塗疏](#)
 - [靈巖寺請藏經疏](#)
 - [化念阿彌陀佛同生淨土疏](#)
 - [象巖禪人化齋十萬八千僧疏](#)
 - [募刻校正梵本諸大乘經疏](#)
 - [化鐵地藏疏](#)
 - [五蘊禪人掩關化供給疏](#)
 - [涵白關主禮懺持咒募長生供米疏](#)
 - [玄素開十結茅修止觀助緣疏](#)
 - [刻占察行法助緣疏](#)
 - [萬鉢緣疏](#)
 - [蘊空精舍募建華嚴閣疏](#)
 - [海燈油疏](#)
 - [九華芙蓉閣建華嚴期疏](#)
 - [九華山營建眾僧塔疏](#)
- [疏二](#)

- [募造敬字菴疏](#)
- [淨然沙彌化念佛疏](#)
- [忍草沙彌化念佛疏](#)
- [建盂蘭盆會疏](#)
- [敷先開十守龕助緣疏](#)
- [善生開十飯僧功德疏](#)
- [重修觀音菴疏](#)
- [大悲圓行疏](#)
- [結社修淨業兼閱華嚴大鈔助緣疏](#)
- [募刻憨山大師全集疏](#)
- [廬山五乳峰法雲寺重造大殿疏](#)
- [念苴兒佛疏](#)
- [金陵三教祠重勸施棺疏](#)
- [水陸大齋疏](#)
- [傳](#)
 - [瑞光了一源禪師傳](#)
 - [武林萬安雲禪師往生傳](#)
 - [吳興智福優婆夷往生傳](#)
 - [松陵鑒空寧禪師傳](#)
 - [壁如惺谷二友合傳](#)
 - [誦帚師往生傳](#)
 - [白觀印闍梨傳](#)
 - [妙圓尊者往生傳](#)
 - [蓮居菴新法師往生傳](#)
 - [新安程季清傳](#)
 - [影渠道山二師合傳](#)
- [壽序](#)
 - [壽延壽院新伊法師六秩序](#)
 - [壽莊母道昭優婆夷蘇碩人八秩序](#)
 - [壽陳旻昭居十六秩序](#)
 - [壽張幼仁五秩序](#)
 - [壽優婆夷馬母宋太碩人七秩序](#)
 - [壽車母牛碩人八秩暨次公居十六秩序](#)
 - [樂如法姪四十壽語](#)
 - [祝沈母張碩人節壽序](#)
 - [壽姚廣若居十三秩序](#)
 - [壽新伊大法師七秩序](#)
 - [達源禪宿六秩壽序](#)

- [白法老尊宿八秩壽序](#)
- [預祝乾明公六十壽序](#)
- [塔誌銘](#)
 - [樵雲律師塔誌銘](#)
 - [紫竹林顥愚大師爪髮衣鉢塔誌銘](#)
- [祭文](#)
 - [然香供無盡師伯文](#)
 - [弔不忘文](#)
 - [尊影渠靈隱二兄文](#)
 - [祭顥愚大師爪髮衣鉢塔文](#)
 - [祭在庸維那文](#)
 - [祭了因賢弟文](#)
 - [寄尊新伊大法師文](#)
- [頌一](#)
 - [大方廣佛華嚴經頌一百首](#)
 - [大佛頂首楞嚴經二十五圓通頌三十一首](#)
 - [妙法蓮華經品頌三十三首](#)
- [頌二](#)
 - [白牛十頌](#)
 - [頌仰荅高峰大師六問六首](#)
 - [三觀蓮華頌](#)
 - [北天目靈峰寺二十景頌](#)
 - [自頌法華堂問荅六首](#)
 - [自頌除夕問荅二十首](#)
 - [頌荅如母問二首](#)
 - [禮舍利塔頌](#)
- [銘](#)
 - [梵網室銘](#)
 - [德林座右銘](#)
 - [淨社銘](#)
 - [杖銘四首](#)
 - [淨信堂銘](#)
 - [梵網室銘](#)
 - [方竹杖銘四首](#)
 - [拄杖銘](#)
 - [箸銘三首](#)
 - [王學古座右銘](#)
 - [四無量心銘四首](#)

- [妙嚴室銘為庸庵作](#)
- [戒心戒方銘](#)
- [艮六居銘](#)
- [箴](#)
 - [止觀十二事箴](#)
- [詞](#)
 - [祈雨詞](#)
- [贊一](#)
 - [釋迦牟尼佛像贊二首](#)
 - [阿彌陀佛像贊九首](#)
 - [一佛二菩薩像贊二首](#)
 - [三太子像贊](#)
 - [地藏慈尊像贊五首](#)
 - [普賢願王像贊二首](#)
 - [文殊師利法王子贊二首](#)
 - [普門太子像贊二十四首](#)
 - [阿羅漢像贊二首](#)
 - [布袋和尚像贊三首](#)
 - [寒山拾得子像贊三首](#)
 - [達磨大師像贊五首](#)
 - [幽溪開山始祖融禪師像贊](#)
 - [四明尊者法智大師像贊](#)
 - [紫柏尊者達大師像贊二首](#)
 - [憨山師翁清大師像贊三首](#)
 - [雪浪大師贊](#)
 - [雲棲和尚蓮大師像贊三首](#)
 - [博山無異師伯像贊二首](#)
 - [靈隱兄像贊](#)
 - [誦帚律師像贊](#)
 - [雪航法主像贊二首](#)
 - [鑒空寧禪師像贊](#)
 - [衍如禪兄像贊](#)
 - [覺空老尊宿像贊](#)
 - [宣聖像贊](#)
 - [趙十五像贊](#)
 - [沈母金太孺人往生贊](#)
 - [沈翬薇跏坐圖贊](#)
 - [譚埽菴居士像贊](#)

- [陳旻昭居士像贊](#)
- [張玄超像贊](#)
- [贊二](#)
 - [阿彌陀經塔贊](#)
 - [血書華嚴經贊二首](#)
 - [涵初開十持法華經贊](#)
 - [雨白開十血書華嚴經贊](#)
 - [恆生法主血書法華經讚](#)
 - [卓無量普觀圖贊](#)
 - [西齋淨土詩贊](#)
 - [十八祖像贊并序略](#)
 - [自像贊三十三首](#)
- [詩偈一](#)
 - [將出家與叔氏言別](#)
 - [一筆句](#)
 - [乙丑翻一筆句](#)
 - [結制](#)
 - [解制](#)
 - [丙寅季夏先慈捐世賦四念處以寫哀](#)
 - [解制自弔示諸友](#)
 - [戊辰春刺舌端血留別諸友八偈之二](#)
 - [壽兄得廣參博訪鬪賦贈](#)
 - [和歸一簫兄](#)
 - [惺谷壽得出家鬪，將往博山薙髮二首](#)
 - [次惠安](#)
 - [曹溪行呈無異禪師](#)
 - [贈壁如兄掩關用博山原韻](#)
 - [贈戒珠](#)
 - [攝山](#)
 - [贈澹居大德血書華嚴經](#)
 - [警濠徵](#)
 - [淨土偈十四首](#)
 - [和不我](#)
 - [示智恆字鑑如](#)
 - [示用恆薙髮](#)
 - [示寶所](#)
 - [過樵李東塔見人上堂有感二首](#)
 - [己巳再閱律藏示歸一諸兄二偈](#)

- [贈參己](#)
- [贈若雲](#)
- [警壽兄](#)
- [割股救惺谷兄](#)
- [荅初平發願偈](#)
- [示初平發心](#)
- [聞謗](#)
- [輓惺谷壽兄](#)
- [示存朴](#)
- [示諸四完](#)
- [示涵宏](#)
- [警初平](#)
- [山中三首](#)
- [哭慧濟示權律主](#)
- [托鉢有懷](#)
- [卜居十八事](#)
- [法臣歌為聞道侍者](#)
- [示戒明](#)
- [胡勞歎](#)
- [病中寫懷十偈](#)
- [題夏貞婦卷](#)
- [懷魯仲連](#)
- [示費敬齋](#)
- [別友](#)
- [入山二偈](#)
- [詩偈二](#)
 - [山居六十二偈](#)
 - [遣病歌](#)
 - [病餘寫懷四絕](#)
 - [禮千佛於九華藏樓贈諸友五偈](#)
 - [贈頂瞿師掩關念佛](#)
 - [因拄杖折聯成舊句](#)
 - [夢感正法衰替痛哭而醒寫懷二偈](#)
 - [道過齊雲問訊直武](#)
 - [四十初度](#)
 - [寄懷未能](#)
 - [別玄覽](#)
 - [贈黃可念](#)

- [示持經沙彌](#)
- [游北山](#)
- [巢雲](#)
- [和荅陳鶴岑](#)
- [慰陳弘袞](#)
- [誦帝師五十初度](#)
- [輓如是師](#)
- [槐關](#)
- [彌陀巖六人持非時食戒偈以志喜](#)
- [觀老聃石像有感](#)
- [冬日過虎嶧訪衍如首座](#)
- [世道隆人心瀛野人憫之賦邈矣](#)
- [偶成](#)
- [壽月堂輝山首座](#)
- [贈莊聖西](#)
- [詩偈三](#)
 - [樵李天寧禪堂度歲即事](#)
 - [寄吳西城先生](#)
 - [士民失德亢旱不雨野人憂之賦四月](#)
 - [和荅吳叔雅](#)
 - [中秋後二日群鶴集於靈峰賦靈鳥](#)
 - [用韻題背坐圖二首](#)
 - [和陳非白三首](#)
 - [和張興公二首](#)
 - [和荅宋量公](#)
 - [贈耦西](#)
 - [示偈六首](#)
 - [題謝在之扇頭](#)
 - [贈魏國徐燕超居士](#)
 - [壽劉今度六旬](#)
 - [五戒歌示憨月](#)
 - [示昱巖](#)
 - [示馬光世](#)
 - [施茶偈](#)
 - [楊輔之讀破空論](#)
 - [題旻昭書贈季筏](#)
 - [示君甫](#)
 - [和荅宋量公](#)

- [學道偈](#)
- [河者隱納之深痛也](#)
- [入山四首](#)
- [寄壽幽棲主人](#)
- [知足偈](#)
- [七淨督梓大佛頂經玄文](#)
- [祖堂度歲寫懷二首](#)
- [偶成三絕](#)
- [續夢中句](#)
- [丙戌春幻游石城，隨緣閱藏以僧夙願夜夢塑地藏大士，身首具，手足未成感賦](#)
- [雨窗偶成](#)
- [病中有感](#)
- [閱大智度論畢紀懷四首](#)
- [示庸菴比丘](#)
- [丙戌生辰驟雨初霽偶成](#)
- [壽馬太昭四十](#)
- [和荅張興公二首](#)
- [丙戌中秋懷淨土](#)
- [丙戌重陽同湛公登祖堂山頂](#)
- [悼予正法友](#)
- [輓旅泊大德](#)
- [示陳砥中](#)
- [靈奕生日以偈示之](#)
- [示別兩堂法友](#)
- [詩偈四](#)
 - [示豁一二首](#)
 - [利濟寺禪堂放生念佛社偈](#)
 - [寄示禪關](#)
 - [庚寅自恣二偈](#)
 - [和荅譚埽菴](#)
 - [辛卯季秋重登西湖寺有感三首](#)
 - [阻雨福源用雪竇禪師白樂天韻](#)
 - [和荅王季延](#)
 - [送清源首座返江寧二偈](#)
 - [譚埽菴招同王止菴高念祖游研山，予大病而返，漫賦二首](#)
 - [壬辰仲冬雨窗有感](#)
 - [送用晦還新安兼寄堅密三首](#)

- [病起感時七偈](#)
- [癸巳元旦過秋曙拈花菴四偈](#)
- [吁嗟篇六章](#)
- [西窗自喻步寂音韻三首](#)
- [和寂音尊者達磨四種行偈](#)
- [將遊湯泉示三子三首](#)
- [容溪觀池魚](#)
- [帶雨觀白龍潭](#)
- [登文殊院疾作而返](#)
- [和荅吳瓘如四首](#)
- [坐狎浪樓二首](#)
- [坐西竺菴偶成三偈](#)
- [示寶樹](#)
- [臨塘寺閣埋菴集](#)
- [荅無住生心義](#)
- [寄贈德水法主](#)
- [芙蓉苑](#)
- [題大蘇菴二首](#)
- [入山二偈](#)
- [雨窗偶詠二偈](#)
- [五月二十七日大病初起偶述三偈](#)
- [病起警策偈六章](#)
- [閱藏畢偶成二偈](#)
- [雨窗自喻四偈](#)
- [獨坐書懷二首](#)
- [病中口號](#)
- [病閒偶成](#)
- [大病初起求生淨土六首](#)
- [贈王雪友](#)
- [甲午除夕](#)
- [乙未元旦二首](#)
- [卷目次](#)
 - 1a
 - 1b
 - 1c
 - 1d
 - 2a
 - 2b

- 2c.
- 2d.
- 2e.
- 3a
- 3b.
- 3c.
- 4a
- 4b.
- 4c.
- 5a
- 5b.
- 5c.
- 6a
- 6b.
- 6c.
- 6d.
- 7a
- 7b.
- 7c.
- 7d.
- 8a
- 8b.
- 8c.
- 9a
- 9b.
- 9c.
- 9d.
- 10a
- 10b.
- 10c.
- 10d.
- 贊助資訊

編輯說明

- 本電子書以「CBETA 電子佛典集成 Version 2023. Q4」為資料來源。
- 漢字呈現以 Uni code 3.0 為基礎，不在此範圍的字則採用組字式表達。
- 梵文悉曇字及蘭札字均採用羅馬轉寫字，如無轉寫字則提供字型圖檔。
- CBETA 對底本所做的修訂用字以紅色字元表示。
- 若有發現任何問題，歡迎來函 service@cbeta.org 回報。
- 版權所有，歡迎自由流通，但禁止營利使用。

靈峰蕩益大師自傳(前後有門人私識三則附記一通)

(先大師生平，不曾乞縑素一字。不唯佛法難言，知己難得，亦鑒尚虛名之陋習，而身為砥也。西逝時，誠勿乞言，徒增誑誤。嗚呼，冰操如彼，治命如此，安敢不遵。今刻老人自傳一通。述其意於首。門人靈晟稽首。)

(先師壬辰秋，決志肥遯，縑素遮道不得。請述行腳。冬憩長水營泉寺，念行腳未盡致，復述茲傳。癸巳春，過古吳，有老人二三舊友，或謂傳既寓名，則宗譜法號可弗出。或謂一生心跡可述，夢感等嫌自言，老人一笑，慨然刪改。時從古吳，傳至留都，與長水本數處不同。後堅密子成時，謂傳收著述未盡，請補。於是與古吳本又增數句矣。今同門刻傳，命南酌同異。南思老人一生苦心，唯佛祖知之，餘難知者。至不獲已述傳，令後裔有聞，此四宏法門，三祇誓海，可以古人自作別傳之例例之也邪。允宜從營泉本，照第三番補遺書，閑字不妨互證。僉曰善，錄定本如左。門人照南稽首。)

八不道人傳(老人親筆評語三處附。○取中論八不梵網八不之旨)

八不道人，震旦之逸民也。古者有儒，有禪，有律，有教。道人既蹴然不敢。今亦有儒，有禪，有律，有教，道人又艷然不屑。故名八不也。俗姓鍾，名際明，又名聲，字振之。先世汴梁人。始祖南渡，居古吳木瀆。母金氏，以父岐仲公，持白衣大悲咒十年，夢大士送子而生。蓋萬歷二十七年己亥，五月三日亥時也。七歲茹素，十二歲就外傳，聞聖學，即千古自任，誓滅釋老。開暉酒，作論數十篇闢異端，夢與孔顏晤言。十七歲，閱自知錄序，及竹窗隨筆，乃不謗佛，取所著闢佛論焚之。二十歲，詮論語，至天下歸仁，不能下筆。廢寢忘餐三晝夜，大悟孔顏心法。冬喪父，聞地藏本願，發出世心。二十二歲，專志念佛。盡焚窗稿二千餘篇。二十三歲，聽大佛頂經，謂世界在空，空生大覺，遂疑何故有此大覺，致為空界張本，悶絕無措。但昏散最重，功夫不能成片，因決意出家，體究大事。二十四歲，夢禮憨山大師，哭恨緣慳，相見太晚。師云，此是苦果，應知苦因，語未竟，遽請曰，弟子志求上乘，不願聞四諦法。師云，且喜居士有向上志，雖然不能如黃蘗臨濟，但可如巖頭德山。心又未足，擬再問，觸聲而醒。因思古人安有高下，夢想妄分別耳。一月中，三夢憨師，師往曹谿，不能遠從。乃從雪嶺師剃度，命名智旭。雪師，憨翁門人也。夏秋作務雲棲，聞古德法師講唯識論，一聽了了，疑與佛頂宗旨矛盾。請問，師云，性相二宗，不許和會。甚怪之，佛法豈有二岐邪。一日問古師云，不怕念

起，只怕覺遲。且如中陰入胎，念起受生，縱令速覺，如何得脫。師云，汝今入胎也未。道人微笑。師云，入胎了也。道人無語。師云，汝謂只今此身，果從受胎時得來者邪。道人流汗浹背，不能分曉，竟往徑山坐禪。次年夏，逼拶功極，身心世界，忽皆消殞。因知此身，從無始來，當處出生，隨處滅盡，但是堅固妄想所現之影，剎那剎那，念念不住，的確非從父母生也。從此性相二宗，一齊透徹，知其本無矛盾，但是交光邪說，大誤人耳。是時一切經論，一切公案無不現前，旋自覺悟，解發非為聖證，故絕不語一人。久之則胸次空空，不復留一字腳矣。二十六歲受菩薩戒。二十七歲遍閱律藏，方知舉世積訛。二十八歲母病篤，四割肱不救，痛切肺肝。(既悟此身非父母生，何故又割肱救母，參。)葬事畢，焚棄筆硯，矢往深山。道友鑒空，留掩關於松陵，關中大病，乃以參禪工夫，求生淨土。三十歲，出關朝海，將往終南，道友雪航，願傳律學。留住龍居，始述毗尼事義集要，及梵室偶談。是年遇惺谷歸一兩友，最得交修之益。三十一歲，送惺谷至博山薙髮，隨無異禪師至金陵，盤桓百有十日，盡諳宗門近時流弊，乃決意宏律。然律解雖精，而煩惱習強，躬行多玷。故誓不為和尚。(三業未淨，謬有知律之名，名過於實，此道人生平之恥。)三十二歲，擬註梵網，作四鬪問佛，一曰宗賢首，二曰宗天台，三曰宗慈恩，四曰自立宗。頻拈得台宗鬪。於是究心台部，而不肯為台家子孫。以近世台家，與禪宗賢首慈恩各執門庭，不能和合故也。(時人以耳為目皆云道人獨宏台宗。謬矣謬矣。)三十三歲秋，惺谷壁如二友去世，始入靈峰過冬，為作請藏因緣。三十五歲，造西湖寺，述占察行法。三十七歲，住武水，述戒消災略釋，持戒犍度略釋，孟蘭盆新疏。三十八歲，住九華。次年述梵網合註。四十一歲。住溫陵。述大佛頂玄義文句。四十二歲，住漳州，述金剛破空論，蕩益三頌，齋經科註。四十四歲，住湖州，述大乘止觀釋要。四十六歲，住靈峰，述四十二章經遺教經，八大人覺解。四十七歲，住石城，述周易禪解。是秋，住祖堂。越二年，述唯識心要相宗八要直解，彌陀要解，四書蕩益解。五十一歲冬返靈峰述法華會義。次年述占察疏，重治律要。五十四歲，住晟谿，草楞伽義疏，遷長水而始竟。尚有閱藏知津，法海觀瀾，圓覺維摩起信諸疏，厥願未完，姑俟後緣而已。生平嘗有言曰，漢宋註疏盛，而聖賢心法晦，如方木入圓竅也。隨機羯磨出，而律學衰，如水添乳也。指月錄盛行，而禪道壞，如鑿混沌竅也。四教儀流傳，而台宗昧，如執死方醫變證也。是故舉世若儒若禪若律若教，無不目為異物，疾若寇讎。道人笑曰，知我者，唯釋迦地藏乎。罪我者，亦唯釋迦地藏乎。孑然長往，不知所終。

(先大師示寂，不肖成時謬膺同門嚴命，輯靈峰宗論。輯成，載老人自傳於卷首。因念老人癸巳甲午二年中，行腳還山，并所有著述。及乙未正月，末後一段光明，皆缺然無紀。同門又謬謂不肖侍行腳，知其事為詳，理應附記，辭不獲，合十稽首記曰。)

靈峰蕩益大師自傳，成於壬辰臘月。次年癸巳，老人五十五歲，夏四月入新安，結後安居，於歙浦天馬院，著選佛譜，閱宗鏡錄，刪正法涌，永樂法真諸人所竄雜說引經論之誤，及歷來寫刻之訛，於三百六十餘問答，一一定其大義，標其起盡。閱完，作校定宗鏡錄跋四則。又汰袁宏道集，存一冊，名袁子。秋八月，遊黃山白嶽諸處。冬復結制天馬，著起信裂網疏。次年五十六歲甲午，於正月應豐南仁義院請，法施畢，出新安。二月後褒灑陀日，還靈峰，夏臥病，選西齋淨土詩，製贊補入淨土九要，名淨土十要。夏竟，病愈。七月述儒釋宗傳竊議。八月續閱大藏竟。九月成閱藏知津，法海觀瀾二書。冬十月病，復有獨坐書懷四律。中有庶幾二三子，慰我一生思之句。十一月十八日，有病中口號偈。臘月初三，有病閒偶成一律。中有名字位中真佛眼，未知畢竟付何人之句。是日口授遺囑，立四誓，命以照南等慈二子傳五戒。菩薩戒，命以照南靈晟性旦三子代座代應請。命闍維後，磨骨和粉麵，分作二分，一分施鳥獸，一分施鱗介，普結法喜，同生西方。十三起淨社，有願文。嗣有求生淨土偈六首。除夕有良六居銘，有偈。乙未元旦有偈二首。二十日病復發，二十一日晨起病止。午刻，趺坐繩床角，向西舉手而逝。時生年五十七歲，法臘三十四。僧夏從癸亥臘月，至癸酉自恣日，又從乙酉春，至今乙未正月，共計夏十有九。丁酉冬，門人如法茶毗，髮長覆耳，面貌如生，趺坐巍然，牙齒俱不壞，因不敢從粉趾遺囑，奉骨塔於靈峰之大殿右。(丁酉下四十二字，係戊戌春茶毗後補記。)

嗚呼，痛哉。世閒眼滅，正法幢摧。惡心向佛之魔邪，誰與救正。好心遭毒之男女，誰與扶持。良以吾輩業重，不能感哲人久住故耳。老人傳末云，尚有閱藏知津，法海觀瀾，圓覺維摩起信諸疏，厥願未完，姑俟後緣。又閱藏畢，然香願文中云，一者竊見南北兩藏，並皆模糊失次，或半滿不辨，或經論互名，或真訛不分，或巧拙無別，雖有宋朝法寶標目，明朝彙目義門，並未盡美盡善。今輒不揣。謬述閱藏知津，法海觀瀾二書，儻不背佛旨，乞得成就流通。二者如圓覺維摩彌陀地藏乃至大涅槃經，夙有微願，再加解釋，并僧史寶訓，亦願增修，仰求庇護，令得速成。又定嗣註經目，有行願品續疏，圓覺經新疏，無量壽如來會疏，觀經疏鈔錄要，十輪經解，賢護經解，藥師七佛經疏，地藏本願經疏，維摩補疏，金光明最勝王經續疏，同性經解，無字法

門經疏，十二頭陀經疏，仁王續疏，大涅槃合論，四阿含節要，十善業道經解，發菩提心論解，摩訶止觀輔行錄要，僧史刪補，緇門寶訓，共二十一種。上三處所列，唯閱藏知津，法海觀瀾，起信疏告成，餘俱不可復得矣。雖然，老人著述頗富，識取綱宗，更何所欠，況大用方新，願輪正轉，珍池受記之後，速入娑婆，收拾有緣，喘息未了，公案當可頓完。吾輩現在未來，皆可親近受學，勿以時方形骸不實之相，貳其心可也。但成時受恩最深，負恩最重，又緬想哲人閒出，妙法難逢，又念大事因緣，關繫萬世，雖流通有時，而眾生障難殷繁，爰然香一千炷，捨身洪流，一報師恩，助轉願輪，二供妙法，生生值遇，三轉劫濁，救苦眾生，四代粉軀，滿師弘誓，五懺重罪，決生珍池。嗚呼，知我罪我，唯大地眾生乎。

順治乙未臘月十二日不肖門人成時稽首謹記

附記

靈峰大師入滅八年壬寅七月，門人性旦病逝，先書囑語，面乞不肖成時，并胞兄胡淨廣，粉遺骨，代先老人滿甲午臘月初三日所命。先是成時邀淨侶，禮佛說佛名經，旦就壇然頂燈，以報法乳深恩。至是復有此囑，謹就八月，集眾修行藥王本事七晝夜，而作法焉。於時法弟通玄粉軀，成時說偈曰，無身何必苦摧殘，只為無身故不貪。此意許誰能會得，前三三與後三三。旦出新安績邑胡氏望族，年三十三歲。退居近住。故無夏。不畜徒眾，故無傳。為學精細，少年如槁木死灰。雖性相圓明，而以未悟為恥，以愚拙為懼，故不敢任法道。身孱弱而苦行，不為人敬憚，而愈不文其過。病中初現業相。哀籲於佛，乃見彌陀接引。去時眼耳根離，唯蹲坐微笑不已。著有和西齋淨土詩，及圓覺疏，未行。旦逝之次年四月，道友程從焜感其事，亦力疾念佛西逝，自聞異香越數日，猶趺坐巍然，舉手昂視。焜歎之槐塘人，其近事菩薩兩戒，皆稟於先老人者。癸卯冬，成時稽首附記。

靈峰始日大師私諡竊議

古歙門人成時稽首百拜議

蕩益老人遷化靈峰。門人成時議行私諡。或曰，有典乎。曰，自柳下惠後，有王文中，朱文忠，陶靖節，蕭文元諸人，皆門人為道而

尊師，尊師以明道。由周而來，昭昭也。曰，世閒法耳，出世有典乎。曰，志磐師作佛祖統紀，興道下八世，無師號者，悉立私謚。志之曰，是蓋尊祖之大義也。世出世何閒哉。曰，聞其典，知其義矣，未悉其故，豈無力請於朝，或位不在龍錫之列邪，抑朝有所諱，定論不得不在野邪。曰，蔡邕元結，豈不能為朱穆元延祖乞易名於漢唐之世乎。文忠靖節，載在漢書宋史，功令何嘗拘，聖明何嘗諱乎。然則何故，曰不失其實也。世閒聖賢，有舉世不見其心者，柳下為士師，三黜不去，欲護生於刀鋸鼎鑊閒也。既不能大行其道，以期於無刑，則不羞不卑，隨地救民於死，其和也，所以行其惠也。此意當時不知，唯中饋知之。非惠之一言，而柳下隱矣。一字斷金，柳下之心見，千古聖賢心學亦見。言不失其實者，利澤天下，萬世無疆也。若夫出世宗匠，道為心性，全體大用，心合生佛，慈力悲仰，難知難見，尤甚。然正法猶不為難，末法魔強法弱，正衰邪熾，則誠難。觀行相似以上，猶不為難。具縛凡夫，以肉眼作佛眼用，則尤難。既難知難見如此，不惟嘉號缺然，堪為法道之懼，即過推神聖錫智勇，亦不足發潛德而迪後彥。故從來若及門若遠裔，皆深引為慮，而仁人哲士，亦不得不憫其衷而避其說。不忍概以愚賤斥之也。夫大宗哲匠，淵懿不彰。雖靈山王臣，咸以為恥，百世苗裔，咸以為憂。而其罪不得不屬之及門流亞。門內曹曹，王臣何所採。當世寂寂，曠代何從聞。噫，大矣哉，私謚之所由來也。或人於是懼曰，幸從子聞其典，知其義，復究其故。已之，是不仁也。以愚賤避罪，是不智也。願與聞蕩益老人師號。於是成時謹稽首百拜議曰，佛法之盛也，三學一源。其季也，三學鼎足。其衰也，三學互爭。至其極也，三學內訌，至內訌，一切人皆為破法之人，一切法皆賊人之法。斯時也，非溯其源，曷救正哉。今日支那三學，其內訌也甚矣。先大師生當其世，自號孤臣孽子，力揭三學一源以救之。其於律也，以斷有漏法為宗，洞開遮，會同異，融大小，顯修證，純乳無水，即律即教即禪，一如先佛世尊之律，師未嘗有一行也。稽諸古宣公不逮。若夫恒轉三輪，深契二共，師尚不敢擬雲棲顓愚二師。矧東林天台臨濟諸老，其於教也，以破我法二執為宗，教觀並明，性相互融，權實不二，性修交徹，純乳無水，即教即律即禪，一如先佛世尊之教。師未嘗有一字也。稽諸古荊谿清涼不逮。若夫五品誕登，三因圓發，師尚不敢擬幽谿，矧天台慈恩永明諸老。至師之禪，徹悟心源，深契方便，法法皆通，法法皆備，而無一法可得。即禪即律即教，允為曹谿永明之徒。而師終以戒之定道未深，教之理果未剋，故遂不敢謬膺祖位，墮邇來大妄語之覆轍。蓋唯真實識法，是以真實知懼。豈非名字位中大宗匠之正標榜哉。夫日之方昇也，大地未盡蒙光，而普天

胥旦。濃夢者雖未瞻明，而夜遊伏匿，作務興成，其師之象歟。宜尊稱為始曰大師。謹按志磐法師，諡道興法智諸祖也，曰，他日有能考論懿德，上之清朝，賜以徽諡者，幸當用此定名，庶乎不失其實。先大師貫徹三學，力振頹流，其著述若釋論，若宗論，皆慧命所關，津梁斯在，上考先佛，下俟後聖，當必有乘願大士，受靈山囑者，為之入藏流通。徽諡定名，幸存今議。不敢過，不敢不及也。補傳後一日。

靈峰蕩益大師宗論序

佛法無他，諦而已矣。諸佛說法，常依二諦。二諦即三諦也，即四諦也，即一切諦也，即一諦也，即無諦也。二諦如此，諸諦亦然。自心本具之法，非思議所行境界，皆不可說也。然有因緣，亦可得說。以要言之，無可說之諦，無不可說之諦，如是而已矣。不見此則無教，無教則行無由起，理無由顯，果無由剋。如是而言說，皆臆見也。見此，則為真實覺悟。有教有行理果，如是而言說，皆妙法也。自正像既遠，末世抑何言說之多哉。或見諦未全，則雜。中者如摩尼處瓦礫，不掩其光。不中未免以一言誤天下萬世。或見諦未精則執，與之亦成一家言，奪之則無同異中。見同見異，未免墮分河飲水之覆轍。或見諦未神妙則跡，抑揚建蕩，總不能為人解粘去縛，起必死沈痾。金錚既不在手，言言與日以明，言言增目之膜。至其下者，博而似雜，實全無所中也，戲論也。僻而似專，實非專家也，鬥諍法也。或蛇為龍，襲取神妙。非特跡而已也，罔之徒也。昔魔王害佛不得。誓曰，當於後世，入佛法中，破壞佛法。佛曰，自壞耳。法可壞哉。由是觀之，下者不足論，論其上，若而人自利未入圓門，利他安得無弊。得失恆無端倪，利害潛相倚伏，欲裂大綱，令大地眾生咸歸大處。苟非其人，道不虛行。唯靈峰蕩益大師之以言教也，徹悟心性全體，復深入不思議願輪。一切時一切處，一切事中，悲智雙運，解行互融，實無一法可得，故無峻豎之門庭。實無一法不通不備，故無隔垣之音響。其發明三學，一以全性起修，全修在性為宗趣。全性起修，無實非權。全修在性，無權非實。非實非權。而權而實。其獨契法身向上，以一人開萬古欲絕之學，得非以是歟。嘗論之，師之三學，即一大事也。真律真教真禪，適還吾心之律教禪，適還先佛世尊之律教禪，師未曾有一言也。未曾有一言故無雜也。律既為真律，教既為真教，則何同異，何大小，何律之不即教即禪，教之不即律即禪乎。禪既為真禪，則何分佛祖，何有宗支。何禪之不即律即教乎。是故唯精故不執，無非事事無礙法界，無諍三昧也。夫言不神妙，以雜與執也。不雜不

執，則不自立宗。不自立宗，則縱橫變化，不可方物。是以師之言，盡脫窠臼，頓起膏肓，一歸於堂堂正正。如唐虞三代之禮樂。不俟干戈而天下太平也。識者謂末法以來，建大法幢，擊大法鼓，其味醇平，其道光明，唯師一人而已。師具開演二智，作廣略二說。一四句偈不為少，汗牛充棟不為多。諸疏外稿有七部，今輯為全書，以文為類。原在稿外別行者，亦以次收入。按三藏，凡高僧撰述，悉入阿毗曇論藏。而有二種，專釋一經者，曰釋論。概宗十二部經，自成名句文者，曰宗論。今以釋論收靈峰諸疏，而七部稿總以宗論收之。合十大卷。分三十八子卷。嗚呼，成時不肖，老人在日，不能實學不思議諦，如醉轉屋。今哲人雖逝，遺書尚存，敢不自淑，以報師恩於萬一。亦願凡遇是書者，勿離文字而說解脫，勿即文字而忘真月。但因是見諦，則離即雙超。圓契自心則不雜，圓收萬法則不執，圓說圓泯則不跡。千百世而後，必有其人。成時願先捨此身命以供之矣。抑更有慮焉。凡言之揣摩擬議而得者，亦可揣摩擬議而得之。若夫引商刻羽，不涉思議，非從真聞以起思修，則若雜若執若跡之禍，嘗伏於揣摩擬議之下而不覺。成時願與天下萬世之遇是書者，由博學審問慎思明辨，以階於篤行可也。補傳後二日，門人成時百拜撰。

靈峰蕩益大師宗論序說(有小引)

成時輯 老人七稿成，通序大意。越一日，作序說。其言別，故不入序。不屬科，故不立例。凡十五段。

達磨大師懲專逐名相之陋，力為學者明宗。而不立文字一語，遂為昧宗者所執。執之既久，由狂入癡。故永明大師大開教眼，以明宗鏡。至寂音師，且說文字禪。紫柏大師，寂音再來。而憨山師，直顏其全書曰紫柏集。憨集最富，未傳。紫竹林顓愚師，為憨大師獨契，亦自顏其書為紫竹林集。諸老懲無聞之禍，救不立文字之弊，心良苦矣。竊恐此風既盛，凡沙門稍擅世譽者，皆思以文相炫。夫文盛道亦必衰。試觀唐宋儒，多以文字成名，號稱作者，深為宮牆之辱，可使釋子復覆其轍乎。故雖老人別顏七稿，多自稱集。今不敢以集行，然亦不敢名為錄。何故，今之祖錄遍天壤矣。老人每齒及，則痛心泣血，故亦不敢也。

昔陽明子在日，有傳習錄，附錄數冊行世。公薨，出文錄外集等。後華亭新建諸公，懼學者弗克盡讀也，彙成全書以傳。夫作者，非有意行其言也。閱歲月，涉山川，接人物，幻成文勢，不得不別。其久也，書不全，道亦不彰。言既散，傳必不盛。聖君賢臣，採藏天府，皆無統緒可遵。有會一者，恐失其舊。是故言之始，不得不

分，終不得不合，勢也。今輯七稿為一，作者海印炳現，讀者古鏡全收，庶天朝採錄，無零落割裂之虞矣。

大卷唯十，避繁也。一一卷中，復開子卷，備梵冊也。

文以類出，取便耳，非以文體也。見文則味道，因文則明道，達文則證道。證道，而後知文無體也。

不肖戊子歲，始晤大師。師一日顧予曰，吾昔年念念思復比丘戒法，邇年念念求西方耳。時大駭，何不力復佛世芳規邪。久之，始知師在家發大菩提，願以為之本。出家一意宗乘，徑山大悟後，徹見近世禪者之病，在絕無正知見，非在多知見。在不尊重波羅提木叉，非在著戒相也。故抹倒禪之一字，力以戒教匡救。尤志求五比丘，如法共住，令正法重興。後決不可得，遂一意西馳，冀乘本願輪，仗諸佛力，再來與拔。至於隨時著述，竭力講演，皆聊與有緣下圓頓種，非法界眾生，一時成佛，直下相應，太平無事之初志矣。

佛法有偏痛快。偏精細者，則性快心細之人各偏好之。唯此論。快性者必失羈淺。細心者必失廉纖，縱高明不敢昧綱宗，不敢輕名相。而綱宗只作綱宗會，名相只作名相會，終為俗學。若能知非綱宗非名相，而羈淺廉纖二病頓超者，雖為執鞭，所欣慕焉。

自人不悟圓宗，諸佛願海無能隨順修學者。不知非真實發大菩提心，一切盡成虛解。縱有為生死志，亦必入小乘權曲境界。若並無此志，直成修羅魔外。何疑老人一生於法界三寶前，緣法界眾生殷勤發願。今願文一卷，直顯不思議境界。真無上醍醐也。吾見有憎者。謂為繁瑣。有讚歎者。讀其文惟恐臥。有感動流淚者。然亦未遑直下承當徹悟性修之致。嗟乎，何真法之不易讀若此。小子時，敬然臂香四十八炷，普為法界眾生，等供安養願王。乞吾師願文，於一切世間大作佛事，願遇者興起感觸，徹悟諸佛即自心本性，庶不令一切願王，久淪於異生界也。

淨土一門，真參禪學教持戒者所共趨。夫彌陀寂光，即自心理智，由不悟故，橫生邪慢取笑識者。讀宗論，幸徹底薦取，則無邊法藏，一以貫之矣。棒打石人頭，暴暴論實事。八十翁入場，不是小兒戲。是之謂乎。

學佛僻謬者，皆法外取心。世之本來面目，向上一著是也。計此必成惡取空見，佛目此病，為不可救。圓覺經誠取圓覺，大乘止觀誠先觀真如，諸祖深訶邪禪暗證，意皆在此。今論示第一義心，圓妙明快，千古未有。讀者諦審諦觀，字字從繩，言言破的，或得之。先師自行，不過破流俗知見，於現前一念，了一切法而已。法語中，亦唯以此剖心膽傾腸腹，而發明介爾一念，在續集寢餘尤詳。

蓋鼓兩片皮既久，唯覺此話，大神至明也。雖然，失之亦成話柄，得之不外言詮。吾雖不敢謂有是語，尤不敢謂無是語也。

法語書柬中，諸名公鉅卿，遵大師原稿，但書姓氏，概不書尊稱。以末法，道則僧體日卑，爭務乞靈人爵，俗則我相日重，終難覩破浮雲。兩者皆生死根株，於道何啻霄壤。若非各懋盛德，安能共扇真風。今唯重道誼，以副護法天龍之望。

儒宗隱覆之說，非深契法華三昧，及華嚴事事無礙法界，未易拈提。求曲盡同異之致，匪歸一實，千百世來，大師一人而已。孔子，顏子，文中子，後陽明子，處隱顯閒，蕩益子繼之，大闡開顯之道，緬想時會，應非偶然。今而後庶吾人一實事，會其有極，歸其有極也夫。雖然。蕩益子云，非行之艱，知之尤艱。敢告。

忠孝至佛始極。不知其極，或以愛論俗典揀之，竟成無君無父，全違金口誠言。或以至德要道收之，又墮有漏有為，全乖出世正軌。一大事之乖張僻謬久矣。

讀宗論，但貴用極，不貴株守。守則揀，不守則收。子臣弟友，丘未能一。嗚呼，一大事之彰明會一久矣。

先師著述，除宗論外，其釋論，則有阿彌陀要解(一卷)，占察玄疏(三卷)，楞伽義疏(十卷)，孟蘭新疏(一卷)，大佛頂玄文(十二卷)，準提持法(一卷)，金剛破空論附觀心釋(二卷)，心經略解(一卷)，法華會義(十六卷)，妙玄節要(二卷)，法華綸貫(一卷)，齋經科註(一卷)，遺教解(一卷)，梵網合註(八卷)後附授戒法、學戒法、梵網懺法問辯(共一卷)，優婆塞戒經受戒品箋要(一卷)，羯磨文釋(一卷)，戒本經箋要(一卷)，毗尼集要(十七卷)，大小持戒捷度略釋(一卷)，戒消災經略釋(一卷)，五戒相經略解(一卷)，沙彌戒要(一卷)，唯識心要(十卷)，八要直解(八卷)，起信裂網疏(六卷)，大乘止觀釋要(四卷)，大悲行法辯訛(一卷)附觀想偈略釋、法性觀、懺壇軌式(三種)，四十二章經解(一卷)，八大人覺經解(一卷)，占察行法(一卷)，禮地藏儀(一卷)，教觀綱宗并釋義(二卷)，閱藏知津(四十四卷)，法海觀瀾(五卷)，旃珊錄(一卷)，選佛譜(六卷)，重訂諸經日誦(二卷)，周易禪解(十卷)，闢邪集(二卷)。共四十七種(板俱在嘉興府楞嚴寺)，是為靈峰二論目錄。(大記，明咒行法，四書蕩益解未行。)宗論全部，可取其中讚戒者，別為戒波羅密之書，讚淨土者，別為祕藏指南之書。或合上二者，別為不昧因果之書。儻能盡美盡善，則有大利而無害。未遑別刻，附記於此。

靈峰蕩益大師宗論總目錄

- 卷首
 - 自傳

- 續傳
- 附記
- 私諡竊議
- 序
- 序
- 序說
- 總目
- 第一卷
 - 卷一之一
 - 願文一
 - 卷一之二
 - 願文二
 - 卷一之三
 - 願文三
 - 卷一之四
 - 願文之四
- 第二卷
 - 卷二之一
 - 法語一
 - 卷二之二
 - 法語二
 - 卷二之三
 - 法語三
 - 卷二之四
 - 法語四
 - 卷二之五
 - 法語五
- 第三卷
 - 卷三之一
 - 答問一
 - 卷三之二
 - 答問二
 - 卷三之三
 - 答問三
- 第四卷
 - 卷四之一
 - 普說
 - 茶話

- 卷四之二
 - 說
 - 文
- 卷四之三
 - 偶錄
- 第五卷
 - 卷五之一
 - 書一
 - 卷五之二
 - 書二
 - 卷五之三
 - 論
 - 辯
 - 議
 - 記
- 第六卷
 - 卷六之一
 - 緣起
 - 序一
 - 卷六之二
 - 序二
 - 卷六之三
 - 序三
 - 卷六之四
 - 序四
- 第七卷
 - 卷七之一
 - 題跋一
 - 卷七之二
 - 題跋二
 - 卷七之三
 - 疏一
 - 卷七之四
 - 疏二
- 第八卷
 - 卷八之一
 - 傳
 - 卷八之二

- 壽序
- 卷八之三
 - 塔誌銘
 - 祭文
- 第九卷
 - 卷九之一
 - 頌一
 - 卷九之二
 - 頌二
 - 銘
 - 箴
 - 詞
 - 卷九之三
 - 贊一
 - 卷九之四
 - 贊二
- 第十卷
 - 卷十之一
 - 詩偈一
 - 卷十之二
 - 詩偈二
 - 卷十之三
 - 詩偈三
 - 卷十之四
 - 詩偈四

靈峰藕益大師宗論卷第一之一

古歙門人成時編輯

願文一

四十八願(天啟元年，歲次辛酉，七月三十日，時名大朗優婆塞)

稽首三身圓滿尊，一切真如覺性海。稱彼法界等虛空，種種莊嚴大願海。果因交徹不思議，菩薩一切修行海。亦禮阿彌陀如來，觀音勢至及地藏。我為慈親罔極恩，遍憫一切眾生界。發生如實增上心，修行念佛勝方便。深信淨土攝受門，廣大誓願普皆被。妙戒為

舟智慧舵，方便為帆佛力風。盡未來際渡眾生，終不一念捨五濁。諸佛願海如帝珠，攝於我願重重現。我願亦如摩尼王，諸佛願海悉皆攝。願輪橫遍於十方，亦復豎窮於三際。一切智智之所乘，故我至心勤修習。

第一願，我本發心，上報慈父鍾之鳳生恩。願三寶力，令我無始慈父，咸生淨土，速證菩提，令聞我名者，亦報父恩。

第二願，我本發心，上報悲母金大蓮養育恩。願三寶力，令我無始悲母，咸生淨土，速證菩提，令聞我名者，亦報母恩。

第三願，度法界眾生成佛竟，方取泥洹。

第四願，我姪機身心俱斷，斷性亦無。令聞我名者，永斷姪根。

第五願，我殺害業習，滅盡無餘。令聞我名者，遍生慈力。

第六願，我癡闇謗三寶業滅盡無餘。令聞我名者，正信三寶。

第七願，我諸不善業悉得清淨。令聞我名者，安住梵行。

第八願，我決生極樂世界，速證無上菩提，分身塵刹，盡未來際，度生無厭。

第九願，我生生不忘本願，於五濁世，善化眾生。

第十願，我處處宏通正法，無諸魔障。

十一願，得無量智慧，達一切佛法。

十二願，得無量辯才，開迷降外，一切無畏，如師子吼。

十三願，得無量神通，遍十方國，承事如來，及善知識，一切海會，無不得與。

十四願，我能出種種妙音，盡未來際，讚歎三寶，令眾生知所歸依。

十五願，隨意出生種種妙供，供養三寶，為眾生作大福田。

十六願，隨喜一切眾生所有功德，令成無上菩提。

十七願，十方如來成正覺時，我先勸請，轉大法輪，開示眾生，無上覺路。

十八願，十方如來般涅槃時，我悉勸請，莫入涅槃，常住世間，饒益含識。

十九願，一切海會，推我為大法王子，佛讚我功德智慧，慈悲願力，如觀世音地藏王，等無有異。

二十願，以大悲光，照諸地獄，觸我光者，應時變諸苦事，悉成妙樂。

二十一願，以大悲光，照諸餓鬼，觸我光者，應時捨身得淨土生。

二十二願，以大悲光照諸畜生，蒙我光者，離諸怖畏，捨身之後得淨土生。

二十三願，以大悲光，照諸鬼神，蒙我光者，悉捨瞋心，開悟佛道，捨諸醜陋，得清淨身。

二十四願，以大悲光，照諸苦惱眾生，蒙我光者，疾病消除，六根具足，厄難恐怖，悉皆解脫，無病延年，發菩提意，若臨命終，即生淨土。

二十五願，以大悲光，照有形無形，有想無想，及諸魔外，令其身心，捨諸邪見，通達佛乘。

二十六願，以大悲光，照觸人天，令不迷欲樂，及欣厭定，勤求無上菩提。

二十七願，以大悲光照聲聞緣覺，令捨無為，速趣佛乘。

二十八願，以大悲聲，令一切眾生，決定明悟，不戀三界，不樂餘乘，唯求無上菩提。

二十九願，以大悲神力，隨順眾生，種種所求，俾於我法，生深信心。

三十願，以救度眾生，故於十方現作佛身，或淨土攝取，或穢土調伏，方便無量。

三十一願，救度眾生，故隨類現身，一一類中，種族尊勝，威德自在，令諸同類，敬愛受教，直至菩提。

三十二願，以大悲方便，現於一切，無佛法處，法滅處，佛法不能行處，隱顯大化，為長夜燈，救拔沈冥，出於苦海。

三十三願，恒於眾生饑渴之時，現作飲食，疾疫現作藥草，寒作衣服，熱作涼風，險阻作津梁，一切所須，皆現作之，若服若食，若倚若履，咸得安樂，發菩提心。

三十四願，樂求佛乘眾生，聞我名已，不捨肉身，得佛菩提。

三十五願，莊嚴佛土菩薩，聞我名已，其國踰於極樂，欲現穢土，則得無量方便，善化剛強。

三十六願，令欲見諸佛土，聞法眾生，皆得見聞。

三十七願，令欲往無數世界，供養三寶眾生，一念之間，普得周遍。

三十八願，令欲生佛土眾生，聞我名號，即得隨願往生。

三十九願，令同我誓願眾生，速得無量智慧方便，威德自在。

四十願，令樂小乘眾生，速登聖果，即回心入菩薩乘。

四十一願，十方修行菩薩，聞我名號，直至菩提，永無魔事。

四十二願，十方魔外，聞我名號，即捨邪見，同歸正覺。

四十三願，以大悲心力，使五逆十惡四棄八棄，當墮大獄眾生，知求哀懺悔，隨現勝妙色身，摩頂安慰，令罪根永拔，發菩提心。

四十四願，以平等大慈悲力，能滅謗我法，詈我名者，極重惡障，速趣菩提。

四十五願，我慈眼最極清淨，普視盡虛空界，乃至極苦處，悉令安樂，極惡眾生，悉令賢善。

四十六願，我印手最極莊嚴，於念念中，出一切供養雲，珍寶雲，衣服雲，眾具雲，飲食雲，醫藥雲，三昧雲，總持雲，辯才雲，光照雲遍虛空界，盡未來際，利益眾生。

四十七願，我名號盡十方界靡不周遍，彼法滅處，我名不滅，恒令聞稱，悉得解脫。

四十八願，我色身最極微妙，以不可說不可說佛剎，極微塵數大人相，而自莊嚴，一一相有不可說不可說佛剎極微塵數隨形好，一一好有不可說不可說佛剎極微塵數光明，一一光作不可說不可說佛剎極微塵數色，嚴飾國界，演不可說不可說佛剎極微塵數聲，宣揚妙法，出不可說不可說佛剎極微塵數香華飲食，衣服眾具，普供一切，現不可說不可說佛剎極微塵數化佛，教化一切，一一佛有不可說不可說佛剎極微塵數諸化菩薩，一一菩薩有不可說不可說佛剎極微塵數殊勝莊嚴，一一嚴作不可說不可說佛剎極微塵數廣大佛事，一一事於不可說不可說佛剎極微塵數世界利益眾生，有見一佛事，則得見我微妙色身，見我身者，則能與我平等，則能速得成佛。

受菩薩戒誓文(天啟四年歲次甲子十二月二十二日)

如是戒品，我今於一切三寶前，誓願受持修學，盡未來際不復捨離。假使持戒因緣，百千萬劫恒受困苦，誓不以苦故，退失今日道心。假使破戒因緣，百千萬劫恒受安樂，誓不以樂故，退失今日道心。以此學戒功德，願我及眾生，無始眾罪，盡得消滅。若一切眾生定業當受報者，我皆代受，遍微塵國界，歷諸惡道，終無厭悔，令彼眾生，先成佛道。我所發願，真實不虛。願十方三寶，現為我證，令我道心，日夜增長。文殊智海，念念清淨。普賢行海，念念圓成。命終之後，生諸佛前，證度迷流，同登覺岸。虛空有盡，我願無窮。

刺血書經願文(戊戌)

菩薩戒弟子智旭，刺舌血書大乘經律，先於三寶前，然臂香十二炷，發十二願。願亡父及無始慈父，斷無始我執，生樂土，受佛記。願亡母及無始悲母，斷根本煩惱，蓮華生，佛授記。願現在同行及過去一切真善知識，皆先圓滿菩提。願普與法界眾生，破二執，斷眾苦，得金剛身，淨三聚戒，圓正定，證實慧，發菩提心，得不退轉，歸無上覺。以上發心發願善力因緣，普施法界，同了無二無生，無得無作，永離虛妄，會證常樂。

書佛名經回向文

比丘智旭，書佛名畢，然香發願。三炷供如是三寶，願與法界眾生，紹隆佛種，入智慧藏，登解脫門。六炷懺六根罪，願與法界眾生，常睹佛色，聞法音，嗅法香，宣法味，服慚愧衣，悟如來藏。二炷祈父母親緣，國土人民，入九蓮胞胎，獲三寶福祐。四炷保常住僧伽，和合說戒，淨業善友，嚴淨毗尼，禪堂清眾，熏修大乘。職事諸師，名標蓮蕊。三炷保比丘某某及一切善友，身康祿熾，正向菩提。如是功德，普施含靈，同生安養。

為雪航楫公講律刺血書願文

崇禎己巳春，正月十有五日，菩薩戒比丘智旭，為同學比丘智楫，講四分戒本，然香十炷，發十大宏願。一者願法界一切地獄眾生，同得解脫，永不受果，永不造因。二者願一切餓鬼道，同得解脫。三者願一切畜生道，同得解脫。四者願一切阿修羅，捨憍慢習。五者願一切人道，發菩提心。六者願一切天道，永斷諸漏，七者願一切聲聞，回小向大。八者願一切辟支，發起大悲。九者願一切菩薩，盡無明源。十者仰願一切如來，更增法樂。又願以此功德，令道友智楫，蕩滌流俗知見，拔除籠伺邪思；赤歷歷荷擔正法，不惜身命；真懇懇哀憫眾生，善能度脫。若其從無始來，至於昨日，所有一切惡業，應受報者，智旭悉皆代受，令得解脫。所有一切善業，應受報者，普施法界眾生，同成正覺。從今已去，執持禁戒，塵業不侵，嚴護威儀，蜎飛無損，樹正法之妙幢，作人天之模範。更願智旭，恒於盡虛空遍法界三惡道中，普代眾生，受無量苦，經於不可說不可說微塵劫海，備嘗楚毒，終無厭悔。使法界眾生，無一不成佛竟，我方解脫。以此發心發願功德，仰願諸佛大慈加被，大悲拔濟，令一一字放無量光，一一光照無量國，一念之頃，悉周法界，普施眾生，究竟法樂，情與無情，同圓種智。

持咒先白文

智旭供臂香五炷，願持滅定業真言百萬，觀音靈感，七佛滅罪，藥師灌頂，往生淨土真言，各十萬。次當結壇，持大悲咒十萬。又三炷供證明比丘廣鎬等，鎬各然三炷，隨喜助發。所願如來正法復興，末世弊端盡革，光明壽命，稱性量而無量，福德智慧，等虛空而不空，普與含生，同生安養。

禮大報恩塔偈(同然香者一十五眾)

稽首大悲堅固藏，普現色身妙寶塔。隨求感應不思議，哀愍我等及群生。願舒無畏大光明，令我等除惡道怖，出入遊戲六道中，度脫一切如幻眾。願舒清淨大光明，令我等除破戒垢，毗尼嚴淨最清涼，息諸六道煩惱熱。願舒三昧大光明，令我等除雜亂想，照了法界無分別，起諸無作大神通。願舒智慧大光明，令我等盡無明漏。願舒如意大光明，令我等滿隨心願。以茲啟迪諸群蒙，令皆歡喜發深信。護持正法永不滅，實義熾然昭千古。寧使身碎如微塵，終不退捨菩提願。寧使永劫受眾苦，終不忘失大悲心。唯願三寶及天龍，證知宏誓攝受我。

為母三周求拔濟啟

敬禮十方三寶，阿彌陀佛，及二大士，清淨海眾。復禮現前真實善友，悉同啟請。伏願以慈善力悲救心，為我亡母優婆夷金大蓮，隨意課持經咒。哀令我母未生淨土，決定得生，已生淨土，決定見佛。若已見佛，增長品位。母棄不肖，已經三載。及省己躬，無德可報，實深慚愧，痛自悔責，負世間孝道，乖出世本期，自非眾友提攜，恐貽未來深累。唯願廣菩提心，廣菩提願，廣菩提行，普為法界眾生，經生父母，歷劫親緣，運無緣慈，興同體悲，令一經一咒，功沾沙界，福等虛空。願智旭為最後得解脫人，盡見一切眾生，皆先解脫。仰憑十方三寶，淨土聖賢，現前善友，攝受救護。

為母發願回向文

菩薩戒比丘智旭，一心歸命法界三寶。伏為亡母優婆夷金大蓮，今六月初一日，棄世三周，敬然臂香七炷，供十方三寶，釋迦文佛，文殊普賢等諸大菩薩，阿彌陀佛，觀音勢至等諸大菩薩，地藏大士及十方諸大菩薩，現前清淨，真實善友，普同供養。伏蒙善友，為我母誦種種經咒(列比丘沙彌及諸佛子，共十一人，禮懺二堂，持諸經十六部，諸咒品二萬三千一百，佛菩薩名四十三萬，自持諸經十二部。禮三世三千佛。文不錄)。願母罪因苦果，淨盡無餘，智種福基，具足無減。悟法界藏身，入普賢行海。智旭又為父母乃至歷劫親緣，亦為現前善友，所有歷劫親緣廣及法界眾生，悉為歸依懺悔，發宏誓願，盡法界眾生，無始至今，一切殺罪，願得消除，自今以去，更不復造。若定業應受刀山劍樹等，智旭普皆代受，令彼安住大悲。一切盜罪消除，更不復造。定業應受考逼酬償等，智旭普皆代受，令彼成就大

捨。一切姪罪消除，更不復造，定業應受鐵床銅柱等，智旭普皆代受，令彼圓滿梵行。一切妄語罪消除，更不復造，定業應受拔舌犁耕等，智旭普皆代受，令彼證真實法。一切飲酒罪消除，更不復造，定業應受灰河沸屎等，智旭普皆代受，令彼得大智慧。一切貪罪消除，更不復造，定業應受積寒堅冰等，智旭普皆代受，令彼永獲清淨。一切瞋罪消除，更不復造，定業應受猛火燒然等，智旭普皆代受，令彼發起大慈。一切癡罪消除，更不復造，定業應受盲聾頑鈍等，智旭普皆代受，令彼滿足菩提。一切塵沙等罪消除，更不復造，定業應受種種塵沙苦等，智旭普皆代受，令彼究竟涅槃。以此功德，伏願一切地獄等受安樂，一切餓鬼等獲飽滿，一切畜生等蒙解脫，一切修羅等證慈忍，一切人道等悟無生，一切天道等盡諸漏，一切聲聞等發大願，一切緣覺等起大悲，一切菩薩等滿菩提，一切如來等增法樂。又願現前四比丘，增長壽命，增長大悲，開發深智，昭明慧眼。四佛子，盡一切習，速圓梵行。三沙彌，戒根永淨，捨諸瞋掉。又願智旭，生生處處，常得承事供養一切善友，善友成佛，為影響眾，盡未來際，不念疲勞。仰唯法界三寶，大慈覆護，大悲拔濟，令我所願，疾得滿足，普與含生，同圓種智。

持準提咒願文

智旭向以十二願，然香十二炷，散持準提咒一百二十萬。今束為三願，然香三炷，結壇持三十萬。一願毗尼實義，昭揭中天，教觀禪那，盡除流弊，靈山共睹儼然，淨土同期托質。二願修治大藏，昭佛祖之慧命，救贖眾生，普法界之慈緣。三願學無邊法門，窮正覺心源，竟法海涯底，折舉一廢餘之魔見，導萬有不齊之群機。讚戒讚聞，無人不秉真說。宏禪宏淨，無處不轉正輪。如此三願，不為自圖名利安樂，出生死，證菩提，普為法界眾生，同具如來十號，證涅槃四德，至究竟安隱處，超二種生死苦，圓四智菩提果，居上上寂光土。仰唯法界三寶，大準提王，速如所願，盡未來際，行普賢妙行，披地藏誓鎧，眾生不度盡，不取般涅槃。

禮大悲銅殿偈

稽首圓滿大悲尊，慈心普覆虛空界。陀羅尼力妙威神，誦者隨求皆獲願。我本仰承咒力生，我父夢中曾覺悟。我幼持齋甚嚴肅，夢感大士曾相召。我以無始惡業緣，盲無慧眼從邪教。破齋毀佛誦大士，大士於我恒憐憫。無非妙德冥加被，令我終獲堅固信。我今已發菩提心，誓忘身命持正法。憾我障重惑業深，恒與大士

悲相隔。三漏三垢常熾然，三德三身恒覆蔽。我今哀懇發深誠，願求大士恒悲救。我雖具有無邊罪，大士能令悉消滅。我雖無有勝善根，大士能令悉具足。我然臂香滿十炷，供養大士十界身。誦持神咒滿十萬，懺除無始十惡業。願我永斷十惡業，願我究竟十善業。大土地藏之宏誓，十方菩薩微塵願。我皆隨順普修習，大聖威神攝受我。

起咒文

歸命法界三寶，護咒神王。願展慈威，俯垂折攝。智旭向持種種神咒，柰障緣深厚，煩惱重濁，仍紆雜想，每犯威儀，克己省躬，實增慚懼。由是重生悲切，再展真誠，易慮洗心，懲前創後。然香七炷，供七伽陀。十一月初一日始，日誓持大佛頂首楞嚴咒七遍。復以次持滿諸咒，次香三炷，先供地藏真言諸咒，俟時次第供養，將此哀忱，必求加被。伏願戒根永淨，定慧圓明，廣化眾生，咸歸淨土。

己巳除夕白三寶文

菩薩戒比丘智旭，第三閱律藏畢，敬然臂香三炷，供本師釋迦牟尼三劫三千諸佛，一切毗柰邪為首，及一切尊法，彌勒菩薩，優波離尊者，及西天東土宏律大師。又三炷，代同學某等，供養三寶，伏念諸佛滅後，以戒為師，唯有如說修行，名為正法住世。丁茲末運，競驚虛名。別解脫經，罕知端緒。秉羯磨法，罔識範模。文字法師，狂妄禪客，同為師子身蟲，形服沙門，孺羊持律，並致魔軍侵侮，爰發勝心，誓勤守護。仰願諸佛菩薩，應世聖賢，以本願大悲，救拔折攝。令我等永杜因循苟且之心，速奏挾持匡濟之力，再補第一義天，重浴尸羅法日。曜三塗而息苦，覆六道以常安。淨治三業，契會寂光，圓證五身，遍遊塵刹。

閱律禮懺總別二疏(庚午)

某等歸命三寶，及現前同行。伏念以戒為師，最後明誨，因戒生定，無漏初基。憫世競裂其綱維，慶我猶逢於正教，爰發勝懷，同心披覽，檢閱將終，懺摩發願。比丘受籌，然頂香三炷，臂香十四炷，智旭然臂香二十八炷，性泓然臂香十炷，道援然臂香四炷，及某等各為四恩三有，法界眾生，興無緣慈，運同體悲，等諸佛心，發無作誓，殷勤修慈悲道場懺法。仰願大哀曠濟，拯劫濁沈淪，神

力冥資，錫初心福慧，闡毗尼之秘旨，禪那與教觀齊彰，補佛處之宏猷，暗證與依文俱竄，見聞得真隨喜，習學可實修持，合彌陀攝受之符，操淨土莊嚴之券。

稽首毗柰邪，無漏清淨藏。建立及宏通，并如說行者。我今為自身，亦為諸含識，彙釋成集要，唯垂哀攝受。

智旭與法界眾生，無始至今，迷寂滅性，開有漏門，背解脫城，造三業罪，或不知聖戒，或受已不持，辜負佛恩，折損福慧。致使身多病苦，心繞昏愚，生逢末運，世遍魔軍。幸荷深慈，獲睹正教，復承微善，稍達義塗。由是發護法心，立宏通願。又以業重障深，德涼解淺，切懷慚愧，哀望加持。然香三炷，普為國王宰輔，父母親緣，信施檀護，供十方法界，無盡三寶。又二十五炷，供本師釋尊，願正法久住。過去七佛，願戒法流傳。阿彌導師，願同生淨土。琉璃光佛，願圓滿尸羅。逸多慈氏，願常來教授。三十五佛，願遮障消除。及供觀虛空藏經，願戒身成就。毗尼法藏，願過犯永清。及供虛空藏菩薩，願滅除重罪。地藏本尊，願轉我定業。文殊普賢諸大士，願智行圓滿。觀音勢至諸大士，願攝歸極樂。藥王藥上諸大士，願修法供養。金剛藏準提總持王等諸大士，願得大陀羅尼。優波離大師，願得最上律儀。迦葉阿難尊者，及翻譯受持諸大法師，願遊化無礙。兼供達觀可大師，報刊行大藏，重振僧風之德。蓮池宏和尚，報遺規私淑之恩。憨山清師祖，報初緣發心，夢中攝受之德。雪嶺峻師，報剃度之恩。古德賢法師，報證明學戒之德。無異議禪師，報勸讚付梓之緣。壁如鎬兄，歸一籌兄，報參訂商確之力。及現在六師，未來一切同行善友，願並扶法運。季賢獻師，淨空妙師，外護知識等，願同入法流。伏願一切眾生，悟圓通門，證王三昧，破二十五有輪，顯二十五我性，共入蓮邦，齊成佛道。

安居論律告文

稽首真如清淨性，具足圓滿無減修。學無學地諸功德，及我同欣梵行人。願興同體大悲心，愍此沈淪迷倒世。直昭正法善毗尼，遍破眾生惑業苦。

弟子智旭，普為法界眾生，求於諸佛無上菩提正法輪故，專心披閱毗尼藏，彙輯要詮，便諸學習。又以業重福輕，障深慧淺，染心易熾，淨德難成，性罪僅持，遮罪多犯，言之似易，行之實難，自淑未遑，利人奚望。是以專自慚愧，徹底策新。然香四炷，供三寶善友，發十種增上誓願。盡法界眾生，有一未捨婬業，未忘婬法，未絕婬緣，未斷婬因，我終不取正覺。有一未捨殺盜業，未忘法，未

絕緣，未斷因，我終不取正覺。有一未捨妄言，兩舌，惡口，綺語業，未忘法，未絕緣，未斷因，我終不取正覺。有一未捨貪瞋邪見業，未忘法，未絕緣，未斷因，我終不取正覺。唯願法界三寶，以本誓願力，證知哀憫，令我黑業永除，善法增長，克偕善友，淨滿圓成。

為母四周願文

稽首大孝尊，孝順至道法，及一切三乘，同修孝道者，我以哀懇心，為母重發願，願法界師友，咸垂哀護持。

智旭自惟，居家多染，世孝非真，捨慈母以披緇，擬克果而廣濟。無奈惑業障深，慧行福淺，未盡三心，罔遵二利，既虧就養無方，復忍負債受用。是以重增慚愧，再瀝丹忱。因慈母棄世四周，修稱性無作四誓，啟善友同體之悲，作淨土增上之行(列比丘沙彌淨人十五人，共持諸經部卷三百三十六，咒品二萬三千四百十四，佛名五十一萬六千，禮千佛名經一部，其文悉不錄)。智旭仍向十方三寶，及一切善友，然香九炷，要九界以同歸。以此功勳，悉回向我父母，及無始親緣，並證寂光，速躋正覺。又願現前十大比丘，圓行輪，明戒體，離偽因，破俗見，滋慧命，普慈心，遠魔事，脫情染，邪正了辨，戒乘俱急。三沙彌戒身早復，折慢幢，祛邪見。二淨人護威儀，離惡友。又願諸友，生身父母，歷劫親緣，同遊四德之城，悉入二嚴之地。又願智旭恒與諸友為影響眾，諸友成佛，請轉法輪，請久住世，滅後護持正法，末季重使昭明。乃至一切未發心者令發，已發心者令熟，已成熟者令證。盡眾生界成正覺，我始自取般涅槃。仰願三寶，證明攝受。

為父十二周年求薦拔啟

智旭泣血稽顙，同修淨業，上善勝友座下。伏為先嚴捐世，已十有二年。負債出家，方自救不了。十一月初五日，爰屬諱日。預於六月二十九日，對三寶前，然臂香三炷，供善友知識。啟請廣運慈悲，同垂濟拔，佛名神咒，經律懺悔，隨意樂為，悉資淨業，功沾沙界，果極法身，無任哀祈，肅茲遍叩。

結壇水齋持大悲咒願文(十一月初五日)

智旭自惟障緣深厚，慧力衰微，行濁言清，始勤終惰，負生我重恩，背慈尊明誨。四十八願，僅托空言。一十二求，罔希實果。悠

悠歲月，病與業俱增。罔罔胸懷，志與形並邁，捫心扼腕，驚慮悽神。重策舊圖，思收新益。言念智旭，七歲斷肉，未知出世正因。十二學儒，乃造謗法重業。賴善根未絕，每潛轉默移，一觸念於自知之序，次旋意於寂感之譚，禮藥師妙典，知佛與神殊。聞地藏昔因，知道從孝積。既懷喪父之哀，復切延慈之想。書慈悲懺法，矢志尸羅，聽大佛頂經，決思離俗，捨母披緇，剋期取果。無奈夙因力弱，現行惑強，觸境多乖，反躬無似。又復喜談人過，鮮克己非，每忽人長，不知己短。雖時時發願，亦數數廢忘。或猛厲自訶，復紆回自弛，身汨浮沈之浪，云何度他。心纏愛見之絲，云何脫彼。是以再瀝丹忱，追補昔願。自己巳春，已立誦持之誓，及仲冬月，又新懲創之功。於今咒數雖完，心仍未淨，豈不愈堪慚愧，更可悲哀。敬對三寶大悲菩薩，然香十炷，結七七壇，謹服水齋，至心持大悲圓滿神咒十萬八千，以此功德，必求加被。願從今去，戒根永淨，遮性無虧，定慧齊彰，寂用自在，三塗息苦，九品蓮敷，共睹須彌毫相，同圓法界藏身。

為父回向文(日月同上)

歸命無上尊，及以寂滅法。解脫眾僧海，同垂哀護持。智旭二十喪父，已萌孝感之懷。廿四出家，未紆男女之業。本期普利塵沙，奚止願超九世。所憾業障深纏，克果莫就，追思罔極，遺憾終天。今集自他經咒(列諸佛菩薩名七十八萬八千，諸經部卷一千四百九十一，咒品十三萬八千五百二十，懺一部，自持諸經七部，咒品七萬，佛名諸菩薩名二十三萬，文不錄)，然香三炷，供法界三寶。伏願鍾之鳳，速昇淨界，早悟寂光。又願過去父母親緣，永離妄緣，咸會常樂。現前善友同行，共報慈恩，同合悲仰。恭惟三寶，證明攝受。

楞嚴壇起咒及回向二偈(辛未)

稽首大慈悲，救護末劫者。我念末劫苦，破戒為第一。我思救苦方，無越毗尼藏。毗尼若住世，正法永不滅。行成果斯剋，教不屬空言。或因持戒力，速成淨滿尊。或因淨尸羅，嚴淨諸佛土。或因別解脫，作獨覺聲聞。或因善戒力，生禪及天道。亦作人中勝，福樂好名稱。如是差別果，皆由戒所得。近果說差別，究竟歸一乘。如是勝妙法，願為我昭明，普度長夜中，無依無怙眾。故以一百日，棲身清淨壇。持於圓滿咒，具足十萬輪。又增持一萬，滅定業五萬。共回向菩提，同生極樂國。唯冀三寶尊，證明哀攝受。

歸命明行足，顯密清淨輪。種種勝修持，學無學功德。我慚愧發心，入壇持神咒。數足心尚雜，威儀亦未淨。內倍懷憂懼，願發事難濟。故然香十炷，懺我十惡根。其增持一萬，滅定業五萬。亦然臂六炷，加被願如心。又為十一友，持滅定業咒，共計九十萬。供臂香七炷。又為報恩繼志心，追薦已往度脫心，勸請轉法隨喜心，代除邪謬悲救心，為諸友朋宏濟心，為諸檀護宏法心，從來緣會慈念心，欲持三百二十萬。故然臂香復七炷，令我七心皆得成。

續持回向偈

稽首善逝尊，無上顯密藏。三乘賢聖眾，地藏滅業咒。我以大菩提，最初清淨心。續為善友眾，持四十八萬。若有禪思士，善入諸三昧。不起增上慢，恒修勝法忍。持經者達義，如說得修行。營福者隨心，畏罪嚴佛乘。住戒者增明，已汙速歸真。未住秉威儀，尊重正法教。或有毀重禁，願令發深慚。拔除罪犯根，速達無生理。今我然香炷，供養三寶尊。願我及含識，滅除一切業。又然香三炷，悔三業諸惡。從今誓永斷，起無作善根。敬依占察經，擲輪決疑惑。亦以此妙法，流通益世間。我誓以身心，奉上地藏主。隨於剎塵劫，永處眾苦中。普代眾生苦，令得先成佛。劫石或可移，此願終不改。我所修福業，懺悔發宏願。種種勝善根，體性同法界。一一皆回向，普施諸含識。悉願證真常，同歸寂光土。

靈峰蕩益大師宗論卷第一之一

靈峰蕩益大師宗論卷第一之二

願文二

龍居禮大悲懺文(壬申)

歸命勝威德，勇猛人師子。不共力無畏，大悲救世者。歸命照世燈，真實出要法。顯密不思議，破愛見網者。歸命眾生父，慈願無比尊。帶果示行因，住不思議者。歸命降魔外，忿怒大明王。真實勝慈悲，調伏難調者。我今發宏願，誓斷惡修善。然頂香四炷，陳白自深心。

弟子智旭，自惟障緣深重，過罪多端，惑染既殷，業累斯積。未歸信前，已造無邊邪謗。雖學道後，尚纏無量愆尤。四誓秉懷，固欲並乎往哲。七支身口，每負墮於前賢。內因力微，外感復亂。野犴

爭鳴於大地，羶羊遍處於域中。不唯乳雜水而飲者增病，方且毒為食而嘗者喪命。是以痛心疾首，哀告慈尊。一期方便，三七熏修。願錫群盲，速圓福慧。勿壞如來正教，勿摧出世寶幢。願我同行，以及檀那，外護諸賢，見聞大眾，各秉深志，共策玄猷。清性遮而畢淨，嚴篇聚以無虧。悟無諍之真源，除微細之法執。作師子吼，滅戲論愚。又願現前眾等，遍及含靈，資生眾具，學道因緣，罔不隨心，悉能滿願。化三毒為三脫，轉六道為六通。觀淨土於目前，證菩提於當念。性修不二，具種種行門。事理交融，興重重法化。印彌陀之願璽，滿自在之悲心。

結壇持大悲咒偈

歸命施無畏，大悲救世尊。神妙祕密輪，及一切三寶。我業深如海，努力勤禪定。半身感楚酸，實由三毒根。今慚愧剋責，然臂香三炷。結一七淨壇，持大悲一萬。誓當勤精進，護佛法正輪。不惜身命財，唯宣一乘教。我今以身心，奉上三寶尊。唯願平等悲，究竟垂加護。

結壇持往生咒偈

稽首無量壽，拔業障根本。觀世音勢至，海眾菩薩僧。我迷本智光，妄墮輪迴苦。曠劫不暫停，無救無歸趣。劣得此人身，仍遭劫濁亂。雖獲預僧倫，未入法流水。目擊法輪壞，欲挽力未能。良由無始世，不植勝善根。今以決定心，求生極樂土。乘我本誓船，廣度沈淪眾。我若不往生，不能滿所願。是故於娑婆，畢定應捨離。猶如被溺人，先求疾到岸。乃以方便力，悉拯瀑流人。我以至誠心，深心迴向心。然臂香三炷，結一七淨壇。專持往生咒，唯除食睡時。以此功德力，求決生安養。我若退初心，不向西方便。寧即墮泥犁，令疾生改悔。誓不戀人天，及以無為處。仰願大威神，力無畏不共，三寶無邊德，加被智旭等。折伏使不退，攝受令增長。

結壇念佛回向文

稽首阿彌陀，諸佛護念法。淨土諸聖賢，唯垂哀護持。智旭無始來，迷常住理，失智慧明。背自性而枉受輪迴，取妄心而永違真境。善根雖發，投正教以捨家。宿習偏濃，熏三昧而罔就。矢心淨域，誓出苦輪。機感不專，聖應莫顯。悠悠歲月，罔罔襟

期。可痛可悲，無洲無渚。今依釋迦誠訓，七日持名，用投無量慈光，一生求度，棲身淨壇，專稱洪號，若定若散，有記無記，仗佛悲輪，功無唐棄。願以功德，及諸善根，悉共眾生，回向安養。所冀現生魔障消除，捨報正念決定。一剎那頃，生如來前。受菩提記，滿本願輪。

結壇禮大悲懺文

智旭與眾生，自迷覺性，恒處昏蒙。眼隔圓常，耳違微妙。未知出要時，枉役聽聞之用。既思求道後，反虧聰利之功。聆法語則乍憶還忘，展經典則遺前失後。遂使無上醍醐，莫由染識，圓明珠體，弗克映心。觀行難於奏功，豈能自利。辯才短於章句，安望利他。是以捫躬知過，稽顙求哀。諦信大士悲心，歸命總持神力。然頂香三炷，供大悲三寶。願以智慧光，灌我頂門。以聞持水，洗我心垢。使速離暗鈍，蚤獲開明。遙聞諸佛轉妙法輪，永無遺失。常讀三乘甚深法藏，過目不忘。等與眾生，同開佛慧。性修交徹，頓證圓常。

補總持疏

敬禮慈尊地藏王，神咒善能滅定業。普救無邊五濁苦，紹隆三寶種不斷。

智旭與法界眾生，迷本淨心，已造定業，無明所覆，不自覺知。故於今日，同嬰苦報，遠隔正法，遭遇魔邪，倒說大乘，誣毀了義。逐後世微勸，忘教主典型。設宣實道，反被譏訶。雖解真乘，仍虧智斷。歎同修之落落，嗟外護之冥冥。果豈他尤，因原自造。惟捫心內悔，悲仰求哀。恭念地藏大士，無上醫王，滅業真言，無邊神力，定能拔三障苦，施三德樂。是以專心持誦，速望冥加。向持三百二十萬，一百萬，四十八萬竟。今復為某等(廣列比丘，沙彌，居士等，不錄)，各各有差，至心共持一百四十萬。伏願一切比丘，增長福慧，成就聖根，斷世愛網，摧我見山。一切沙彌，志慕大僧，克臻淨行，增修戒慧，棄捨幻緣，期許誓同先哲，舉止不類時流。一切檀護，明識是非，了達邪正。以願作眾生之眼，將身為佛法之城。又願各信淨土玄猷，共勗樂邦妙行。具諸戒品，讀誦大乘。深信因果，解第一義。常為人說法藏遠因，彌陀現果。令諸有情，咸脫苦輪，畢獲安樂。又願智旭與諸知識，互為主伴，恒轉法輪。誓滅三塗定業，妙暢安養真詮。恭干三寶聖尊，同體攝受。

為父母普求拯拔啟

不肖智旭，生於萬歷己亥。是時嚴慈，並年四十，止一子，撫育倍殷。旭年二十，先嚴捐館。未展一日孝養，徒切終天痛憾。嗣聞佛法，稔知世孝非真。廿四捨母逃逝，本期剋時取果，總報四恩，詎謂業重障深，久滯凡地。至廿八慈母復棄，而旭於出世大孝，反躬無似，倍嬰罔極之悲，終墜憂虞之網。出家十夏，白業無成。扼腕捫心，可慚可懼。明歲六月一日，為先慈金大蓮七周。十一月五日，為先嚴鍾之鳳十五周之期。自力既微，應乞恩於師友。法施為最，豈祕吝於庸愚。藉同體大悲，作無緣與拔。智旭儻此生解脫，誓處處同為影響，或今身沈淪，願永永代受眾苦。又自持滅定業真言二十萬，金光明空品二千，梵網上卷一千，為我父母，耑懇同仁，互為增上勝因，並入彌陀願海。

再禮金光明懺文

歸命能仁福慧尊，最勝金光明性海。信相功德大吉祥，同賜慈悲垂攝護。

智旭等(列六人不錄)，普為眾生，求滅罪障，轉正法輪。如法建金光明經吉祥妙懺，至誠咨請十方三寶，功德大天，普願圓慈，速垂妙應。伏念自迷金光明性，備起貪瞋癡業。著我，我所，橫生是非。障智慧之真源，妄求世智。喪聖財之法樂，妄愛俗財。致使瞋因味果，藐法欺心。感報墮三塗劇苦，餘殃使百務無貲。今始覺悟，痛改前非。翹五體以投誠，瀝一心而悔罪。願我等無始至今，三業六根，所作重障，煩惱惡業，花果報殃，以金光明海三寶功德，及吉祥大天本願威神，於一念間，悉皆消滅。顯發自性慧輪，成就本來福聚，紹隆三寶，普利塵沙。又願智旭身無眾病，心悟總持自證法門，清淨演說。某痛念娑婆，深求大法。身心一致，福慧並修。某明了正法，剖斷狐疑，懲流俗心，希先哲行。某猛省無常，力除瞋慢。反躬自勵，不念人非。某廣發大願，善學古人。某永離掉舉，成就深因。某開發蒙憤，增長信根。又願執勞運力，隨喜見聞。同植勝因，等沾殊利。乃至法界含識，均藉經威。仰資懺力，頓空二死，並證三身。恭惟金海聖天，見知證攝。

結壇禮懺并回向補持咒文

智旭及眾生，於同體法，幻成十界之殊。向真常境，謬作三世之異。既隔遮那妙體，罔知正法要津。正轉像，像轉末，誰思砥柱中

流。輕成重，重成定，誰達緣生無性。我今仰藉觀音大聖，地藏慈尊，真實圓悲，始蒙覺悟。信三無差別之理，十界不離一心。解佛性常住之宗，三世不移當念。由是發廣大心，修真言行，誓滅自他定業，重興正法毗尼。曾持大悲咒十萬八千，加被毗尼集要，流通益世。今復六時行道，一七熏修，然香三炷，回向佛乘。唯願千手千眼，真實勝慈。專憫剛強，速垂折攝。使如來正法，再顯支那。末運迷津，重歸至化。汙道生慚愧之心，不淪空見。孺羊獲聞思之慧，不囿凡愚。又為緇素等，補持滅定業真言一百四十萬已竟，并然香三炷，總申回向。伏願三塗息苦，八難除災。竭業海之波濤，摧惑林之根蒂。五住圓消，三輪同淨。悟戒體而果極法身，達性遮而行同淨滿。泯大小偏圓之執，普會一乘。深浮囊草繫之思，範圍法界。證宗說二通，禪教不二。修事理一致，因果同符。覲彌陀於安養，輔彌勒於龍華。情與無情，咸臻常樂。

禮大悲懺願文

頂禮無邊際，三寶威德尊。觀世音地藏，同垂哀護持。智旭與眾生，自迷性德，恒造業緣，障於覺體。不了法因，能所熾然，自他橫隔。沈淪六道，困頓三塗。乃至劣得人身，仍遭諸障。投躬正教，未識妙津。良由業重，致此坎坷。復念生死根株，愛染第一。潛伏藏識，難斷難除。我雖密承大士三寶加持，有生不習無慚穢行。而無始惡習，時與念俱。身貪諸觸，口喜惡言。三業六根，罪實無量。己躬未淨，何以導人。扼腕論心，誠堪愧恥。今於大悲淨壇之次，日課梵網戒經一卷，修行四十八願，念阿彌陀佛千聲，持金光明經空品一卷。復總持大悲咒萬遍，佛頂咒千遍。以為斷惑方便，及為過現某等各持經咒，耑申回向。建壇日然頂香五炷，今完滿日，復然臂香二十一炷，供盧舍那佛，釋迦牟尼，阿彌陀佛，千光王靜住佛，九十九億殑伽沙佛，正法明佛，十方三世諸佛。供梵網經菩薩心地品，大般涅槃經，大悲心陀羅尼，悉怛多般怛囉神咒，滅定業真言，顯密一切法藏。供觀世音，地藏菩薩，大勢至，總持王，日光，月光，寶王，藥王，藥上菩薩，華嚴，大莊嚴，寶藏，德藏，金剛藏，虛空藏菩薩，彌勒，普賢，文殊師利，十方三世一切菩薩。供摩訶迦葉，優婆離，阿難，一切聲聞緣覺賢聖僧。供初來震旦摩騰竺法蘭，初往西乾法顯尊者，淨土教主遠公尊者，求見舍利康僧會尊者，禪宗初祖達磨尊者，天台智者大師，相宗玄奘法師，清涼澄觀國師，會歸宗鏡永明大師，重振僧風達觀大師，及私淑戒法雲棲宏和尚，現夢接引憨山清師祖等，如是一切三寶師僧，我供養已，投地披肝，作如是白，願我三業，究竟清

淨，身不犯纖塵，口無諸掉失，意永離愛見。願父母及無始父母眾等，同生淨土。願同行比丘(九人)發深悲願，披堅忍鎧。願外護比丘某等(列名者八人)，深愛正法，曲體眾僧。願隨喜比丘某，成就忍力，密荷法門。願某等(列名者三人)痛懲時弊，力追古風。願同盟比丘某，平等大悲，愍念剛惡。願某深開教眼，精曉毗尼。願某成就開智，廣達真宗。願某等(列名者七人)克除習氣，深入法門。願某痛念無常，深思出要，永除諂誑，成就真因。願外護沙彌及行人某等(列名者十人)成就深因，希求實果。願某等(列名者九人)精求出要，矢志蓮邦。願某等(列名者八人)三學兼修，二嚴等備。願破戒闡提某等(出四名)從緣警悟，頓革邪心，深信因果，早求滅罪。願檀護某，以圓通慧，修稱性福。願某等(列名者十六人)成出世法，脫愛使纏。願亡故比丘(十一人)，沙彌某等(列名者六人)處士某，俱脫幽塗，徑歸樂土。願亡故往生淨土優婆夷盧智福，蓮開上品，果記一生，以如意通，廣度含識。以上然香發願功德，上報佛恩，下挽劫濁。願一切持律者，實洞開遮持犯之源，深悟定共道共之法。不以積訛自私，不以習陋滅法。常補佛處，不類羶羊。一切演教者，解行雙修，教觀並舉，精嚴律檢，通達禪思，不同說食數寶，善能隨文獲證。一切禪思者，明識是非，了別邪正，不墮暗證坑，不起增上慢，真參實悟，信戒信聞。一切修淨業者，信即事之玕，悟即佛之心，不撥相而高譚自性，不輕視而認作退休，披菩提誓鎧，合法藏願輪。一切習瑜伽者，深達顯密圓宗，清淨三輪施化，革除戲習，守護禁儀，不妄教授，不輕舉行，蒙諸佛矜憐，免鬼神瞋罰。一切營福業者，深信罪福，嚴持因果，遠離世法，興揚正化，回有為業，趣無漏乘。又願以前諸願，悉嚴淨土，總向西方。臨命終時，更無他念。親睹慈尊，聖眾接引。應時化生，旋聞妙法，隨證無生。成就十種身輪，廣度法界含識。唯觀音大士，地藏慈尊哀愍覆護，令我願不退不沒，不失不忘，滿菩提行。

禮淨土懺文(癸酉)

比丘智旭等，曠大劫來，至於今日，既迷本性，恒在輪迴，三業六根，無惡不造。五趣八難，無苦不嘗。暗識相傳，曾弗覺悟。死生浩漫，解脫何期。茲值大乘，得生微信。快聞淨土，宜速知歸。勤精進而已憾其遲，更怠緩而擬將何及。爰發懇心，共期三昧，修往生之願儀，矢七日以無雜。六時行道，四威攝心。仰叩圓悲，必垂妙應。願深求正法，不染情塵。行與志齊，道追古聖。盡捨緣務，痛念無常。八風不動，四誓莫移。乃至外護行人，並植深因，同歸淨土。師僧父母，歷劫親緣，法界靈蠢，過現有情，蒙法藏之願

光。承阿彌之慈力，三障頓除，四土等淨。以此發願功德，總報三有四恩，同圓種智。

西湖寺安居疏

一心歸命，梵網教主盧舍那佛，極樂世界阿彌陀佛。菩薩心地品，毗柰邪藏，三乘十二分教，一切尊法。觀音勢至，文殊普賢，地藏彌勒等，一切菩薩。優波離，迦葉阿難，西天東土，一切聖師。願展慈光，同垂悲濟。伏念諸佛滅後，以戒為師。三無漏學，以戒為首。秉羯磨而如說修行，名為正法住世。依律藏而和合共學，斯令僧寶不漸。深嗟末運，罔識良模。持犯總自不知，源委何嘗略討。或恣行非法，或癡若啞羊，或離事談空，或執相迷旨。致使覺皇巧便，埋沒湮沈，邪見稠林，蔓延滋茂。既忝如來之胤，寧無離黍之悲。爰發勝心，糾我同志。結期蘭若，討論毗尼(敘外護緇素回向，皆不錄)。伏願外魔不擾，內障不侵。紹隆僧種，圓證佛乘。悟開權顯實之旨，合扶律談常之印。以淨戒真因，登淨土極果。津梁劫濁，摧伏魔邪。報釋迦之深恩，滿阿彌之大願。

前安居日供鬻文

崇禎癸酉前安居日，菩薩戒比丘智旭然香十炷，奉供遍一切處淨滿大覺，示滅雙林，真實常住，本師慈父。一體三寶，極樂世界，阿彌陀佛，十方三世一切諸佛。梵網尊經，毗柰邪藏，十方三世一切尊法。地藏彌勒，兩土二侍，金剛藏，虛空藏，藥王，藥上，玄通華光主。華光王大智明等，十方三世一切菩薩。優波離，迦葉，阿難，馬鳴，龍樹，一切僧寶。願以大慈悲力，折伏剛強力，攝受善根力，現前證明。智旭，本謗法人。幸聞地藏尊經，發心救苦，書慈悲懺法。復斷酒辛，聽大佛頂經，決志出家。閱憨山方便語，矢心參究。捨母逃逝，誓明大事。既多障緣，仍悲法亂。因思誠訓，以戒為師。俯仰斯時，誰堪作範。乃棄衣單，千里陳情。雲棲塔前，頂受四分戒本。一載後，求菩薩律儀。遂檢全藏，輯錄要略。但圖自利，未暇化他。不意事成，漸至流布。然既再三翻讀，深知時弊多端。不忍隨俗淆訛，共蝕如來正法。而自受具，心雖殷重，佛制未周。爰作八鬻，虔問三寶。若智旭比丘戒，從心感得，十夏行持，當得作和尚鬻。若得戒前，輕犯未淨，當得禮懺作和尚鬻，先行懺法。若未得不成遮難，或已得未堪作範，當得見相好作和尚鬻，禮懺求相。若不成難而未得，當得重受鬻，如法秉受，更滿十夏。若成盜難而通懺，當得禮懺重受鬻。若已成難，當得菩薩沙彌

鬪。若不許沙彌法，當得菩薩優婆塞鬪。若一切戒法悉遮，當得但三歸鬪。嗚呼，不敢師心者，此生之出處。不可忘廢者，曠劫之弘誓。但進退語默，弱識豈能自知。逆順與奪，正覺自然隨器。仰對三寶，剝瀝一心。若得作和尚等三鬪，誓忘身命，護持正法。寧受劇苦，作真聲聞。不為利名，作假大乘。若得重受等二鬪，敦弟子職，誓不藐法。若得菩薩沙彌鬪，誓尊養比丘，護持僧寶。若得菩薩優婆塞鬪，誓以身命護正法，終不迷失菩提心。若得但三歸鬪，誓服役佛法僧間，種種方便，摧邪顯正。我以質直心，殷重心，護正法心，度眾生心，伏魔外心，除巧偽心向一體三寶，供如是鬪。發如是願，從今日迄自恣日。現前大眾，日持大悲咒一遍，自修梵網懺法日一時，以求加被。願三寶大眾，護法天龍，同垂哀鑒，重復說偈曰，

三寶護一切，同體無差別。我悲劫濁苦，法亂邪風熾，願續正法燈，照世開迷惑。內護及外護，未卜當安從。救世大悲者，知我夙世根。應以何等位，自利及利他。願扶律談常，從境而發諦。徹悟聲聞法，同歸無上印。終不作對待，隔別諸邪見。我哀迷惑者，觸事生執著。律昧持犯源，唯事衣與鉢。教失觀行旨，但著名句味。禪道迷綱宗，流入一機境。或但尚工夫，或專求向上。或強鑿悟門，或并棄正解。執藥反成病，戲論妨實詣。淨土圓頓法，多視作權機。不發菩提心，但作偷閑法。不修淨戒因，空希淨妙果。密部大威神，翻成世流布。穢雜不堪聞，幾同兒豎戲。如來無量劫，修習最殷勤。得此難思法，度我諸含識。云何至今日，衰替不忍觀。我本具縛人，自哀哀一切。以何方便力，重顯正法輪。仰學至誠心，深心回向心。然香表無盡，待命無他向。

自恣日拈鬪文

稽首法界淨滿覺，正法毗尼淨性海。權實聖賢常住懺，一體證知垂攝受。

智旭無始至今，迷三寶之本性，淪六道以往還。僻稟邪宗，恒違出要，妄希捷徑，不了真乘。尚幸夙因微善，獲聞正法毗尼，於前安居日，供鬪陳志。今三月告終，僧將自恣。復供頂香六炷，三炷求鑒根機，授我明決，唯聽聖命，心無適莫。三炷隨鬪，皆發三誓。若得三歸鬪，盡未來際，誓不離佛，誓不離法，誓不離僧。得優婆塞沙彌鬪，誓不忘菩提心，誓作外護，助興正法，誓供養如法比丘。得二重受鬪，誓不違奉師之則，誓五夏依止，誓十夏未滿不為師。得相好鬪，誓忘身修懺，誓不違願先畜弟子，誓未見相不講演，除結伴清淨法施。得餘二鬪，誓不濫度人，貽羞法道，誓不改

人法名，誓與同志如說行，不逐名利涉世事，但秉正法，以俟後賢。三寶龍天，必垂哀攝。

禮淨土懺文

敬禮能仁無量壽，二土法寶教行理。觀音勢至海眾僧，無邊三寶咸加護。

菩薩沙彌智旭，與法界眾生。迷真起妄，背覺合塵。惑業無窮，苦果不息。無始至今，從未覺悟。雖逢出要，罔識進趣。由是往還六道，沒溺三塗。廣造惡因，備嬰劇苦。今以夙時微善，獲遇真乘。無柰染習偏強，淨功莫剋。違出家初志，負佛祖深慈。扼腕論心，慚天愧地。爰立勝志，七日為期。修行淨土懺儀，願成念佛三昧。六時行道，一意持名。叩佛圓悲，必垂妙應。然香三炷，供二土三寶。願三心圓發，三障頓除。又十四炷，拈十四種鬘。一決行藏有四事，二定占察行法之時有三種，三至十定占察行儀有八事，十一決金光明懺有三種，十二定誦滅定業之時有七種，十三決般舟三昧有五種，十四定註經前後緩急有十八種。是中詳悉，佛自見知，願賜洪慈，除我疑惑。伏願分毫之善，等施含生。稱法性以無窮，乘願輪而自在。見聞隨喜，惡滅善生。契會寂光，同歸常樂。盡法界有情，無一不生極樂。而極樂不增，盡法界微塵，無一不現極樂。而極樂不減，徹悟無生，而熾然往生。了知不去，而確爾求去，大闡彌陀法化。廣破隴侗邪宗，深符釋迦願輪。力挽支離淺學，度五濁於九品，淨四土於一心。虛空可隕，我願不灰。願佛法僧，證明攝受。

禮金光明懺文(甲戌)

智旭自念，生逢法亂，不遇真乘。內因既微，外緣亦薄。魔障數侵，淨業罔就。觀人省己，愧慮驚心。幸值最勝經王，吉祥妙懺，更幸清淨僧眾，如法行持，爰發虔心，然香供養。一奉供釋迦文佛，阿闍佛等，一切世尊，願與一切眾生，速發菩提心，紹隆佛種。二奉供大乘金光明海十二部經，願與一切眾生，速得深廣慧，悟入法海。三奉供信相菩薩，金光明等一切三乘聖眾，願與一切眾生，速證入解脫，同登法流。四為梵釋八部聖眾供三寶，願增長威神，護持梵行。五為第一威德吉祥大天供三寶，願不違本誓，示我吉祥。六至十一，奉供某師(列六師并願語不錄)。十二至十四，奉為恩師某供三寶。懺假稱悟道妄評公案之罪，妄造懺法謗毀先聖之罪，損剋大眾錯因味果之罪，諸如此罪，願悉消除。或不可除，願皆代

受。令現前病苦，速得痊安。若大限莫逃，竟登安養。十五至十七，奉為外護沙彌(列名者六人)，檀越(列名者三人)行人眾等供三寶。十八至二十，奉為比丘某知友(列五居士)，亡友(列名者三人)供三寶(上願語俱不錄)。二十一普為見聞若不見聞，及十方三世無窮無盡，一切眾生，供三寶。願皆頓悟金光明海，永斷惑業苦輪，唯願三寶，證明攝受。重復至誠，五體投地，然香三炷。一奉為比丘某供三寶，願堅固忍力，不弛弘願。二奉為震旦國主兆民供三寶，願常享太平豐樂，不遭離亂饑荒，魔外潛蹤，正法昌熾。三為自身供三寶，願憫凡愚，必加哀護，從今以後，淨業日增，夙習煩惱，心心伏斷，脫愛見輪，證寂光境，念念不違慈父，時時得睹樂邦，普與含生，齊成正覺。

講金光明懺告文(乙亥)

智旭與法界眾生，自迷法性，幻作塵勞。貪瞋癡慢，日夜熾然。姪盜殺妄，長時不息。致使三塗鼎沸，八苦交煎。災異頻仍，饑荒沴至。干戈搔擾，魔外縱橫。悲同分妄見，長夜難開。痛循業自招，出離無助。茲遇邀請功德大天，發心專求拯拔。講補助懺儀一卷，日隨喜行法一壇。於圓滿日，然香二十一炷。一二三，奉供本師寶華琉璃四方四佛等，盡金光明經中一切諸佛，大乘金光明海十二部經，信相菩薩盡經內一切聖眾。四五，奉為大梵帝釋護世四王等，第一威德成就眾事大功德天供三寶。伏願增長威神，令此國中風祥雨順，物阜時雍，干戈永息，疾疫消除。聖主播仁慈之化，群臣竭忠盡之良。六七八，自懺身口意業供三寶。伏願慈威，折伏攝受。九至十二，奉為四師(列四師名，不錄)。十三至十五，奉為懺師外護隨喜供三寶(上願語俱不錄)。十六，奉為結伴同修諸友供三寶。願各秉遠志，共集真猷。十七，奉為護正法輪發弘誓願某等(列五居士)供三寶。伏願各增福慧，自離障緣。十八，奉為緇門實德有志賢人道震照渠等供三寶。伏願解行齊修，二嚴克備。十九，代為惡魔眷屬外道流裔某某某某某某等供三寶，深求懺悔，伏願三寶威神，愍彼見濁。或默示感通，令反邪歸正，還度群迷。或速彰黜罰，令消除退散，莫惑凡愚。若罪惡障力，決不能悔悟消融。智旭願皆代受，若善根斷盡，終不可速救者，智旭願以無始至今，所有一毫之善，皆施與之，令其速悟。二十二十一，奉為十戒闍黎，出家闍黎，及某等覺靈亡父母及一切親緣眷屬供三寶(願語俱不錄)。以此然香發願功德，悉施法界眾生。願皆悟入金光明海，以清淨業，感吉祥天，擁眾常護。皆能以財以法，攝化一切，各各改惡從善，反邪歸正。皆能修身修戒，修心修慧。皆知鼠即鳥空之解為非。皆知佛法自有

真脈，非可僭傳。皆知聰明穿鑿鬼家活計，徒增謗法之愆，不療生死之苦。皆能忘身捨命，專求正法，自利利他。由能應念修行一切供養，奉供三寶故，心常清淨無染著。由能了達一切法空故，不捨莊嚴佛土，成就眾生。由能了達淨穢平等故，熾然求生極樂世界。由能深信心佛眾生三無差別故，精修念佛三昧，不作無佛無眾生想。由能徹證持犯性空故，以三聚淨戒，攝化一切。由能遠離聲聞辟支佛意故，受持比丘清淨戒律，常能演說戒即摩訶衍。由能了知法性無增減，進退故，方便增進一切善根。由能深入大定故，恒普現威儀。由能究竟無相智慧故，不捨一切諸相。由能悟入離文字法故，不離文字談解脫相。由能證徹無依無住大般涅槃故，數示生滅，於三界中廣作利益。由能念念遍知一切法界眾生界事故，不捨方便，示學一切法門。由能遊戲生死故，而無染汙。由能深觀涅槃故，而不取證。由能了知煩惱生死即菩提涅槃故，不作一想，不作二想。由能念念沐浴法流故，不捨作法取相之事，常能演說一一法，一一相，皆即法界當體無生。已發如是大願竟，廣大如法界，究竟如虛空。恭唯金光明海，同體三寶，成就眾事。大功德天，速如所願，滿菩提願。

靈峰蕩益大師宗論卷第一之二

靈峰蕩益大師宗論卷第一之三

願文三

九華地藏塔前願文(丙子三月)

稽首慈悲大願王，本源心地如來藏。善安慰說真救世，現聲聞相護法者。願承本誓度眾生，鑒我微忱垂加護。

智旭夙造深殃，丁茲末世，雖受戒品，輕犯多端。雖習禪思，粗惑不斷。讀誦大乘，僅開義解。稱念名號，未入三摩。外睹魔黨縱橫，痛心疾首。內見煩惱紛動，愧地慚天。復由惡業，備受病苦。痛娑婆之弊惡，歎沈溺之無端。由是扶病入山，求哀大士。矢菩提於永劫，付身命於浮雲。臂香六炷，三炷供忉利勝會，化身無數，大集勝會，現聲聞相，六根聚會，善巧說法地藏菩薩摩訶薩。一炷悔三業重失，生來殺業姪機，謗三寶罪，口過惡念，乃至舊歲染疾後，種種不盡如法，如是等願盡消除。一炷為求四願，律儀清淨，斷惑證真，長康無病廣作福事。一炷為決疑網，若先禮懺，求淨律儀。若先習禪，斷除煩惱。若先閱藏，以開慧解。若先立行，以廣福緣。唯願救世真士，大智開士，一切知見者，於諸眾生得不忘念者，必垂哀鑒，開我迷雲。我復於大慈悲父前，瀝血銘心，作如是

願，如一眾生未成佛，終不先自取泥洹。儻夙業因緣，牽入惡道，願菩薩弘慈，常覺悟我，使我念念憶菩提心，令菩提心相續不斷。若夙障稍輕，願大士威神，令我早成念佛三昧，決生阿彌陀佛世界。乘本願力，無邊剎海，化度有情，盡未來際，無有疲厭。

十周願文(六月初一日)

稽首釋迦大聖尊，十方克盡人倫者。真實至孝真實忠，真實禮誼真師友。所說究竟真實法，真實如法修行僧。我今哀請垂護持，願賜慈悲同作證。

智旭生逢末世，福慧並微。蒙二親獨養深恩，罔知攸答。始則違親教命，造謗佛誹法重愆。既而稍解真乘，棄生事死葬俗典，雖欲剋期取果，頓捨家緣，實乃夙障偏多，久滯凡地。追初志而涕泗慚惶，念未來而痛心酸鼻。世出世法，均資未得。生後世報，嬰苦無疑。由是自持經咒(列經三千卷，咒二千萬佛名號一萬，俱不錄)，然香三炷，匯諸善友所持經咒(列比丘沙彌優婆塞三十八人，共持諸經律四千八百零七部，背經論各一部，偈一百萬，諸咒品二百二十萬零三千五百九十六，又持一字大輪真言七日，佛菩薩名七百一十五萬禮佛三萬拜，俱不錄)，以此薦父鍾之鳳，母金大蓮，伏願決生淨土，速證無生。蒙授記於十方，度含靈於五濁。又香三炷，轉為緇素善友，乞恩三寶。伏願比丘某，痛念正法之衰，某克證真實之法，某等(列名者四人)圓修定慧之業。沙彌某某，發深固志，成忍辱力。某等(列名者四人)戒德日懋慧性開朗。優婆塞某，離諸障緣，成就二利。某某了悟塵緣，增長信力，捨惡住善，堅固菩提。又願智旭病消障淨，所有誓願，無不圓成。所有著述，允可佛意。所有佛事，速辦無難。所有開化，悉皆領悟。興釋迦正法於支那，作彌陀輔弼於樂土。紹地藏家業，入普賢行門。以勢至念佛三昧，自度度他。以迦葉結集深心護法護眾，俾邪魔外道，遁影藏蹤，使教戒禪那，日昭月朗。恭唯三寶垂慈，滿菩提願。

持咒文

智旭夙生業重，現世罪深。豈但不能剋期取果，普報四恩，亦且不能傳修聖道，弘範三界。悠悠歲月，放恣因循。致使他緣逼迫，惡疾纏身，眩累緇素，供養護持，反躬內忖，何德堪消，靜言思之，實增慚懼。爰屏他緣，結壇專誦二總持，奉報外護。九炷臂香，供養三寶，及地藏自在愍眾生者。願比丘某正見卓然，能轉時流，不被流轉。沙彌某某內外一如，始終一致。山房某等(列名者十人)於世

法中，增長信根。優婆塞某身心永安，智慧如海。某了知恩愛，猶如桎梏，自然伏斷煩惱罪根。某某即求子之凡心，成真善之聖行。沙門某等(列名者三十六人)慧命堅固，成就道果。優婆塞某(十人)，及信女某等(列名者五人)欲行惡法皆不成，欲修善業速成就，關閉一切諸惡趣門，開闡人天涅槃正路。又願智旭病苦消除，福德生長，速完閱藏之願，早遂斷惑之志，著述開人天眼目，字字皆懸契佛心，與諸緇素，同生樂邦，世世生生，為影響眾，直至道場，永無隔礙。又決疑拈鬪供香一炷，願所拈鬪，決定靈應，從此一意行持，無疑無悔，自利利他，功無虛棄，滿菩提願，廣度眾生。

閱藏願文

歸命法界大醫王，種種應病妙法藥。觀音地藏看病母，願賜慈悲同哀護。

智旭與眾生，背一真性，起諸幻疾。三惑為眾罪根元，四大為百病窟宅。保妄念而塵劫不肯捨離，受毒身而輪迴無有窮絕。幸獲人倫，仍嬰眾苦。叨成僧相，尚纏惑根。禪那教觀，徒有虛名。戒律總持，咸無實義。致使魔軍得便，障難頻侵。身則眾病交煎，心則他緣逼迫。欲行善事，每不能成。是以深生慚愧，諦信因緣。歸命觀音地藏二大慈尊，求哀懺悔，懇賜護持。為療惡瘡，持完大悲章句二百七十堂，而瘡漸愈。然香三炷，供養三寶。願與眾生，離病因緣斷病苦報，身心安樂，真性現前，發起大心，行諸妙行。復然三炷，今日為始，暫減恒課，續閱藏經。願此番決無障緣，從始至終，字字明解。外則事事豐饒，行人和順，毫無片節擾心。內則精義入神，隨聞入證，決得聞持勝力。普與眾生：開頓悟門，成正修路；摧魔外邪幢，奪權小僻執；沈痾立起，枯槁旋生。恭唯慈覆。

完梵網告文(丁丑)

歸命華臺盧舍那，千華上佛千百億。梵網契經心地藏，玄通華光大智明。亦禮彌陀大願王，觀音勢至大海眾。及我地藏勝慈尊，同賜哀憐垂拔濟。

菩薩戒沙彌智旭，竊念梵網尊經久秘龍藏，下卷雖有義疏，古略多含，人罕妙解。上卷則兩家草創，皆隔門牆，致使修證要塗，千秋貿貿。旭以宿因微善，得遇靈文。再四潛心，宛如故寶。不辭鄙拙，合註斯成。敬然臂香二十一炷，回向真乘。一二三奉供三身一體盧舍那佛，梵網心地教行理經，玄通華光主，華光王大智明，及文殊，普賢，藥王，藥上，金剛藏，虛空藏，彌勒，金剛手等，盡

梵網海中發趣長養金剛十地菩薩摩訶薩。伏願智旭，無始至今，身口意不善業，謗毀僻謬種種罪惡，皆得消除。一切善根，皆得堅固。四供極樂世界阿彌陀佛，依正宣揚，二侍眾海。伏願智旭，捨此幻身，定生極樂，華開見佛，滿大願輪。五供地藏慈尊，伏願智旭大智開明，大悲增上，離諸煩惱，廣度眾生，滅諸罪障，廣代群苦。六供靈峰藏經，願早莊嚴。七八為父母亡屬，及請主先亡供三寶，願仗良因，同生淨土。九為剃度十戒兩師，道友某等(五人)供三寶。願滅除罪垢，得宅九蓮。十為在俗邪正兩師供三寶，願邪捨邪見，不受邪報，正增正信，成就正修。十一為請主道昉比丘供三寶，願成千古真品，作末世藥樹。十二十三為比丘(四人)沙彌某等(列名者七人)供三寶，願令破除習氣，成就剛骨。十四為一切隨喜結緣眾供三寶，願深植善根，永為道種，脫離塵網，趣向菩提。十五至十七為菩薩戒優婆塞(二人)居士某等(列名者七人)供三寶，願令轉父母親族之邪心，離盜賊奸雄之害意。十八奉為虛空法界一切曾受菩薩戒者供三寶，願令戒品堅牢，細過無犯，定共道共以同彰，攝善攝生而圓證，由三十心，登體性地，速成正覺，滿足法身。十九奉為虛空法界一切受菩薩戒有毀犯者供三寶，願令罪障消除，戒品復淨，重輕故誤，一切蠲除。二十奉為法界含識雖未受戒曾聞梵網名者供三寶，願仗良因，同生覺悟，發心秉受如法修持。二十一奉為法界含識，雖具梵網真常佛性，從不聞此名者供三寶，願以大慈悲力，不思議力，同體法性真實威力。令從今去，咸聞此微妙法門，正信正解。離三塗，超八難，決登戒品，並事真修。展轉誘化，同證菩提。若惡障所纏，不能自拔，昏迷倒惑，不能覺悟者，願三寶究竟大功德智慧慈悲力，阿彌陀佛無邊願力，地藏菩薩勇猛誓力，令速覺悟，盡拔苦輪。設其定業，決應受報。願智旭早生淨土，隨乘願輪，普于十方，不可說不可說世界海，阿鼻等獄中，代其受苦。令彼眾生，先證菩提。假使法界，唯一眾生，未成正覺，智旭甘于無量獄，代受楚毒，盡一切劫，無厭無疲。智旭今日誓願，悉同三世佛菩薩所發，悉是一切佛菩薩所加。若智旭無始惡業應墮大苦趣中，神識昏迷，違今日大心大願大行者，仰望舍那慈父，釋迦本師，彌陀願王，地藏悲母，哀我護我，覺悟于我，令于苦中憶今本願，不捨于苦，而度眾生。又願以今然香發願功德因緣，令正法重昭于震旦。邪風絕扇于恒沙，持律者洞明持犯，善識開遮。習教者深知義理，了達性修。坐禪者擴悟心源，不遭魔外。念佛者事理圓融，自他不隔。又願一切法門，人皆通達，永無鬥諍堅固之愆，盡革門庭施設之見，念念紹佛祖心燈，法法匯梵網性海。情與無情，同圓種智。

滅定業咒壇懺願文

稽首業性如虛空，滿分解脫滅障者。我今持誦祕伽陀，願滅自他諸定業。無邊福慧互莊嚴，成就希有勝功德。見聞隨喜發菩提，心地性藏同圓證。

婆伽婆佛陀(妙覺者無上地) 摩訶一和沙(無相無垢地) 阿訶羅弗(明行足法雲地) 阿那訶(慧光妙善地) 阿尼羅漢(變化生不動地) 阿羅漢(過三有遠行地) 阿那含(薄流現前地) 斯陀含(度障難勝地) 須陀洹(觀明燄地) 須陀迦(流照明地) 須阿伽一波(道流離垢地) 鳩摩羅伽(逆流歡喜地) 達磨邊伽 波羅提弗陀 波訶諦 師羅叉伽 羅叉必 佛度阿 法必陀 必白伽 羅曇沙 羅羅諦流沙 度又一婆 度佛阿 度阿訶 度沙必 度生婆諦 度利他 度和差 度只羅 度安爾 度伽阿 流山迦 必阿羅 必叉伽 阿毘跋 毘跋致 安婆沙 流摩阿 流羅伽 流諦伽度 流伽度

信念進定慧戒向護捨願一切菩薩摩訶薩。唯願大乘三寶，若聖若凡，同加護念，同作證明。聽智旭今日至心懺悔，滿今日廣大願輪。胡跪合掌，瀝膽剝肝，作如是白，智旭自迷真性，枉入妄流，隨逐無明，增長惡業。無始至今，曾未覺悟，所積罪障，無量無邊。賴遇地藏菩薩滅定業咒，既勸同仁共持十萬萬，兼復自勵，專持五百萬。十日方便，百日正修。結如法淨壇，受一食勝行，仍于道場將畢，默課行法助成。恭然臂香三炷，供法界三寶。仰祈占察壇法，早獲流通。又念種種定業，由身口意三，廣造十惡。惡法既成，如弦發箭，勢須遠到，理無中止。雖大士悲心，真言神力不可思議，亦須新殃永斷，方可故愆俱亡。而撫躬內省，慚悚彌增。我實姪機，盜意，殺習未除，云何使人永除身三惡業。我實妄言，綺語，惡口，兩舌種現未消，云何使人永消口四惡業。我實貪瞋癡起現不停，云何使人永停意三惡毒。嗚呼，檢點一身渾是短，驚惶半世已成虛。扼腕痛心，號天慟地。更然三炷，深自悔責，亦為法界眾生求哀悔過。伏願從今已後，十惡消，三業淨。不造因，不受果。又香一炷，供五臺妙峰老師，及雲棲和尚，憨山師祖，紫柏大師，密藏尊者，一切真善知識。願以福慧力，同加覆護。令我九華銅殿之願，速得滿足。又香五炷，一為九華二寮持二十萬，二為藏樹普塔及助成緇素持二十萬，三為聽法及結緣眾持十萬，四為往來流寓持十萬，五為某某舊持五十萬，及每日大悲咒十四遍。今加持真言十萬，上五臂香，供養三寶，悉代彼地藏真子，皆紹我地藏願王。又為沙彌某某舊持百萬，今加五萬。供香一炷，願令培福壽基，離作輟習，立躬如泰山喬嶽，矢志必函乾蓋坤。又為沙彌(三人)各持五萬，供香一炷，願令從事入理，成就五根，發明五力。向為比

丘某每日持三百，十夏為期，及別持悲咒，每日七遍，成器為期。曾為某某各持五十萬，今共加持十萬。供香一炷，願某捨攀尋枝葉之習，悟直捷根蒂之功，析義如庖丁解牛，得理如鵝王擇乳。某專求己過，毋責人非，知將就苟且難出生死牢關，信驚駭顛蹶，不可橫超淨土。猛策新猷，莫仍故轍。某慎思明辨，沈細精微。痛革浮氣驕心，未會先會。專求深造自得，若無若虛。悟文字三昧，似獨繭以抽絲。能入理深談，必敲骨而取髓。又為沙彌某舊持百萬，某今持十萬，某每日別持悲咒七遍，成器為期。今共加真言五萬，供香一炷。願某折伏貢高，斷除我慢，深培福壽，專務思修，省己之短，慕人之長，下學上達，即事鍊心。某戒根永固，某藩垣頓剖。又為比丘某某持十萬，供香一炷。願某莊嚴大藏，速得圓成。某名心霧散，覺意日明，莫念鼻孔撩天，但願腳跟著地。又為比丘(二十人)持二十萬，供香二炷。願某等煩習永斷，荷擔正法。某等勤修出要，永離妄因。又為一切禪者，學者，持律者，念佛者，瑜伽者，及邪命雲遊務農者，絀是著如來衣，現僧伽相，踐伽藍地，冒出家名，盡三天下所有緇流，共持三十萬，供香三炷。伏願狂誕狐禪，盡轉而為宗說俱通之龍象。鑽紙蠅學，盡轉而為隨文入觀之獅狔。孺羊戒子，盡轉而為定共道共之律麟。狼狽蓮宗，盡轉而為猛智慧行之角虎。優倡瑜伽，盡轉而為三昧授受之神僧。禿頭商賈，盡轉而為六度萬行之導主。雲遊賊住，盡轉而為頭陀勝行之芳標。農事僧民，盡轉而為法界園田之靈種。又為菩薩優婆塞某日持悲咒七遍，脫難為期。今加真言五萬，為某某舊持二十萬，某等(列名者五人)今持十萬，共供香二炷，願各增正信，長悔心。乳不與毒同食，福不與罪並行。永作金湯，進趨覺路。又香一炷，供地藏慈尊，將此持咒然香功德，并向為父母，及法界有情，共持三千萬。為一切師友，同學弟子，檀護怨親知識等，所持若九十萬，三百二十萬，四十八萬等，乃至延生薦亡，悔過除災。若自為，若為他。所持若多若少，至心散心。又普化緇素持十萬萬，若化未化，完未完，過現未來一切功德，今皆攝取現前，普同回向。深心信解，真言威力，不可思議。一一字圓具法界無邊功德，一切字亦如是。以此重重無盡不可思議功德威神，令我一切得如所願，滿菩提願。又香四炷，供法界三寶，及地藏大士。求占第三輪相，或依占察法，先悔罪障。或住阿蘭若，先修禪定。或著述弘經，先修觀智。或植諸善本，行眾三昧。懇乞大慈分明指示，令我此生，不致浪死。又三炷供淨土三寶，以此功德，悉皆迴施法界眾生。願共捨此一期報身，決定同生極樂世界。永離苦因苦果，速證菩提涅槃。

陳罪求哀疏(戊寅)

稽首大孝能仁父，孝順為宗梵網經。地藏日連達孝尊，修證孝慈諸聖眾。今然香炷懺前愆，願賜慈悲哀拔濟。

假名菩薩戒，汙道沙彌智旭，泣血稽顙，敬白常寂光土，一體三寶，耑懇大慈大悲，俯垂感應。言念罪旭，少年主張理學，妄詆三寶，過犯彌天，應墮無間。然世間忠孝，根於至性，罔敢或忘。後蒙三寶密加，返邪歸正，頓發出世心，圖其遠者大者，祈究竟報我君親，意謂剋期取證，決定無疑。詎料於今十六年，竟成虛度。修行至道，仰彌高而鑽彌堅，翦除惑業，根益深而枝益茂。死期將至，初志何成。扼腕撫心，厥罪曷罄。始願出家後，即能度脫歷劫親緣，今母逝十二年，父亡二十載，而天眼未開，茫然不知生處，是第一大負，負我生恩也。始願出家後，即能戒律永淨，定慧圓明，今根本戒外，違犯多端，雜亂散心，全無正定，名字聞慧，不登五品，是第二大負，負我性靈也。始見假善知識，亂宗門正印，願出家後，福慧莊嚴，遍降魔外，今但能自識邪正，而孱無道力，空言何補，是第三大負，負我宗門也。始見末運，僧體日卑，願以一身，力振其頹，今德薄行荒，不足為人天表率，是第四大負，負我僧相也。始見末運，僧無律行，願以一身為其倡始，今自檢律行，缺誤尤甚，不足為他師範，是第五大負，負此名位也。始閱律時，稔知末世種種非法，誓集同志五人，若過五人，如法共住，令如來正法復興，而自既障深業重，不克與比丘列，復失方便，乖我良朋，是第六大負，負正法輪也。始見外寇猖獗，饑疫洊臻，國政乖張，元氣侵蝕，願修成道力，興隆正法，默扶皇運，今自救不了，坐視內寇邪魔，付之莫可如何，是第七大負，上負帝主弘護深恩，下負普為眾生所發菩提心願也。嗚呼，負茲莫大七罪，復淹淹殘喘，九死一生，半體酸楚，已經十有餘年。三日惡瘡，更纏三年之外，儻地獄前茅邪。抑過惡雖重，而一線菩提願力，護法苦心，稍感寂光悲智，令轉重報於生前，俾輕受邪。展轉慚惶，未知攸底。悲形夢寐，歎徹庭闈，僅賴一線心願未忘，而杯水欲救焚車，益增恐懼。然諸佛誠言，菩提心寶，不可思議。如少金剛，能穿大地，少獅乳，能徹海乳，一息苟存，敢不痛自努力。今值先嚴諱日，敬捐衣鉢微資，營供常住三寶。然香七炷，懺七大負。復四炷，啟請菩薩比丘沙彌(四人)同心修禮慈悲水懺。以此功德耑申回向，伏祈鍾之鳳，暨大蓮優婆夷金氏，早敷淨土之華，頓悟惟心之旨，惑業冰消於片念，苦輪永斷於未來。次祈比丘某深信微塵中之法界經卷，篤志專心求剖出，斷除識田內之沈細愛見，剛毅敏達建法幢。某直信觀心法門，真發菩提大願。沙彌某於一切事中，悉見第一義諦，一切時中，不忘無上道心。某入無邊無底之法海，超久習久染之凡情。次祈災亂冰消，邪說鼠竄，皇仁蕩蕩，佛化暘暘。

次祈智旭，病苦消除，戒身清淨，福德成就，止觀圓明，襄盛世皇猷，護如來正法。又復以此功德，普施一切眾生。願盡除一切煩惱罪根，斷一切有漏雜業，捨一切生死苦報，離一切惡魔惡友，歸一切大乘三寶，見一切諸佛世尊，生一切莊嚴淨土，開般若一切種智，證不可思議解脫，成無上清淨法身。如是法界眾生，畢獲如是究竟勝利益已，智旭乃當克證無上菩提。

為如是師六七禮懺疏(己卯)

菩薩戒沙彌智旭，一心歸命釋迦慈父，三世千佛，極樂導師阿彌陀佛。梵網經菩薩心地品，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千手千眼大悲觀世音菩薩，大勢至菩薩，清淨大海眾菩薩，二十五圓通諸大菩薩，大阿羅漢，文殊師利菩薩，金剛藏王菩薩，地藏菩薩摩訶薩，及十方三世無窮無盡一切三寶。願展慈光，同垂哀鑒。伏為菩薩戒比丘道昉身故，雖正念分明，往生可卜，而福慧未滿，華開未期，敬邀同行，禮三千佛，恭然臂香六炷，供養千佛，及法界三寶。一者以此禮佛功德，回向道昉，願乘此心開，於一念中悉見十方三世一切諸佛，得一切時中不忘念法門。二者以今著述大佛頂經，及前合註梵網心地功德，回向道昉，願無始諸罪悉銷鎔，所有善根悉圓滿，斷微細愛根，破人我瞋習，決增上慢水，豁暗鈍癡雲。戒體圓成，性業與遮業皆淨。定力深遠，昏昧與掉舉並亡。慧性開明，實智與權智齊顯。護心善巧，未學與有學等觀，乃至得記不越一生，華開不移當念。三者合上功德，代道昉資一切覺靈(列名三代)，願同登淨土。四為孝徒某等頂禮三寶，願永無乖諍之心，不犯獅蟲之誡。五為湛然寮中一切檀信頂禮三寶，願於剃髮者作導師想，於染衣者作賢聖想，乃至於諸行童凡足履伽藍地者，一切皆作未來佛想，確遵十輪嚴訓，長為三寶金湯。六者代道昉轉伸酬謝同行某等，願因懺過而頓顯無過之體，因度他而密悟無他之宗。恭惟兩土法界聖賢，證明攝受。

孟蘭盆大齋報恩普度道場總別合疏(己卯)

智窮實相，冥法界而融絕千如。悲極無緣，稱同體而普攝十界。惟能所之俱寂，乃感應以圓彰。智旭歸命祇園教主，大孝大慈之世雄，貝葉傳持，即事即理之妙典，啟教日連尊者，三乘十聖眾僧。願展慈光，同垂昭鑒。某等建孟蘭盆道場(敘晝夜經懺等不錄)普供大齋，用饗十方三寶一切僧伽。以此功勳，專伸奉薦。各各七世父母，歷代親緣。若在三塗八難，永脫苦輪。人道天仙，倍增福樂。

已育蓮臺，當下花開見佛。曾奉聖主，速蒙授記度生。又復以此功德，普施法界含識。伏願豎窮橫遍一切眾生，若怨親，若非怨親，若見聞，若不見聞。以同體法性力故，無緣慈悲誓故，令其皆得妙益，地獄息苦，餓鬼離饑，畜生無驚，修羅捨鬥。人免八苦，天脫五衰，二乘出枯寂坑，菩薩拔無明箭。又復以此功德，莊嚴無上菩提。伏願豎窮橫遍法界含識，不求人天偽樂，亦不希求偏真涅槃。不貪權位因果，亦不別緣事外理性。惟發廣大菩提心，速趣究竟等正覺。又復以此功德，當體融入不思議理。伏願懺文宣處，即作法，即取相，即無生，三障圓消於片念。佛號稱時，即假名，即報化，即法身，四德圓顯於剎那。於食等者，於法亦等，十界同飽醍醐。如行說者，亦如說行，教行同歸理性。了知自他，從來惟一真如。徹悟果因，始終罔非實相。又願我等，于事事念念中，具修如上三種大回向已。所生功德，仰冀四海享太平之休，六合沾出世之化。從今以去，盡於未來。紹隆三寶，使不斷絕。弘通大乘，令無壅蔽。折攝無私，慈威並運。於善不善，平等濟度。日照海納，地載天涵。情與無情，同圓種智。

靈峰蕩益大師宗論卷第一之三

靈峰蕩益大師宗論卷第一之四

願文四

鐵佛寺禮懺文(壬午)

菩薩戒沙彌智旭，自惟障重不逢盛時。目擊時艱，倍增愴愴。斗米幾及千錢，已歎民生之苦。病死日以千計，尤驚業報之深。良由同分惡緣，感此非常幻相，了知心外無法，何容坐視漠然。茲遇盂蘭道場，然香五炷，供養法界三寶，發五種願。一願當今皇帝，寬裕溫柔，尊賢容眾。視臣猶如手足，膏澤徹於寰區。用慈心三昧，降伏魔軍。以無作四弘，紹隆佛種。二願檀越道府某某，廣及當朝宰輔，海內群臣，各得仕學無虞，明威有實。三願苕溪境內，震旦國中，疾疫消除，刀兵寢息，風雨順時，穀稼豐稔，廣興法化，同出苦輪。四願我等各各師僧父母，歷劫親緣，善惡知識，同學眷屬，造寺檀越，十方信施，無不超越四流，圓證三德，自利究竟，利他遍周。五願盡虛空界，抱識含靈，等悟真因，咸成妙果，空九界之夢幻，歸一心之本源，塵塵物物，無非寂光，法法頭頭，顯發妙行，遍微塵國，不聞魔外之名，盡未來時，不起愛見之濁。恭惟法界三寶，證知護念。

甲申七月三十日願文

歸命能仁無上尊，大孝大慈真法性。三乘權實眾威神，願賜哀憐垂攝受。

弟子智旭，自惟夙障，纏此幻形，復以深愆，丁茲劫濁，三寫烏焉。悲佛法之衰亂，五逆橫作。痛國步之艱難，朝野無改過之心。緇素爭覆轍之踐，良由共識相種，惡業同牽，同分妄見，眚緣共起。徹底思惟，決無心外實境。由衷悔憾，須勤體內溫和。爰與同行，并集檀那，普為國王帝主，父母親緣，土境萬民，法界含識，頂禮慈悲道場懺法，供養歷代知識道容，然香三炷，供常住三寶。又三炷，奉供幽冥教主，地藏慈尊。伏願大行皇帝，滅燬像之重尤，解殺戮之積怨，頓蒙解脫，速悟無生。今日主臣，進賢遠佞，發真實悲救兆民之心。捐利去名，竭真實不顧身家之愆。次願我等各各生身父母，歷劫親緣，師友知識，眷屬檀護等，已命過者，長辭八難，托質九蓮。今現在者，不受兵祲，永離驚懼。又願執勞運力助營福業者，一念無私，共轉國家之禍亂。三輪不昧，等消君父之愆亡。又願見聞隨喜，廣及法界眾生，普植良因，等成妙種。空五濁之幻染，證三德之性真。盡虛空界，悉悟圓常。智旭乃當，成等正覺。

佛菩薩上座懺願文

頂禮十方大威德，五分嚴身慈勇王。以不思議本誓願，同賜哀憐拔濟我。

弟子智旭，敬然頂香三炷，供養十方法界，去來現在無窮無盡一切三寶。剖瀝肝心而自責曰，嗚呼，從古解超佛祖之前，行落凡庸之後，殆未有甚於罪旭者也。智旭，於未識佛時，未識法時，未識僧時，誤聽邪師，妄以千古理學自任，造無量謗三寶罪，應墮阿鼻大地獄中，具受阿僧祇劫劇苦。蒙觀音地藏二大士力，種種感觸，拔我邪心，令得歸向佛法，正信出家。不謂出家後，仍被夙業所障，僅發解慧，不沾法流。復因損己利人，遂致心欲定而反亂，念欲淨而偏染。二十餘年，略無實詣。今者反躬無似，內省多愆。念及生死事大，無常迅速。真堪慟地號天，追思剃染初心，離俗本志，何啻斷腸裂膽。外無化他之實，內妨自行之功。在世既溺邪見濁流，出家又為法門汙道。進退失措，慚憾何窮。竊思向年力詬大士，大士尚自哀憐。今已深信三寶，三寶寧弗攝受。祇由無始障濃，自隔同體悲應。然障無實法，惟心所生。既從心生，還從心滅。而理障必須理除，事障應須事遣。自惟多生以來，急乘緩戒，薄事尚理，

久墮三塗，偶獲暫出。所以一聞宗教，徹底知歸，力學毘尼，偏多違犯。圓頓妙理，無精細而不入。相好觀門，雖少分而罔成。既揣病源，理須良藥。曾聞造像功德，最能滅罪除愆。禮拜懺摩，實可洗心滌慮。爰發虔誠，集資改造一佛二菩薩像。仍發誓願，恒禮占察行法。不論年月，常祈純善輪相。眾生雖垢重，諸佛不厭捨。必以大慈悲，哀愍度脫我。使我從今以後，心無掉舉，身得輕安，護口過而勿出綺語惡言，淨意地而不起雜思欲覺，速得清淨三輪。克臻自他二利，普化眾生，同生淨土。

大悲行法道場願文(乙酉五月初三日)

頂禮真實大悲心，究竟分證二覺者。我無始來墮虛妄，循環生死靡暫停。失本性樂枉受苦，今欲與拔自無力。願大威神同體緣，不捨本誓垂哀濟。

弟子智旭，自惟曠大劫來，言不顧行，口與心違。今雖幸廁縉流，仍不能忘故轍。簡點一生，有六大罪，而小過蓋無數焉。明知向上一路，而不能親到佛祖真受用處。明知圓頓教觀，而不能登五品以淨六根。明知大小毘尼，而不能清淨性遮諸業。明知殺業是刀兵劫因，而殺機尚未永忘。明知偷盜是饑饉劫因，而偷心尚未全斷。明知姪欲是疫病劫因，而姪機尚自熾然。是以別業資乎同分，現行感於共種。睹三災之沴臻，悲四生之無賴。徒懷曠濟之心，反受俱溺之害。捫心自憾，血淚何裨。今幸遇濟生禪院大悲心咒行法道場，發心隨眾熏修。願滌自他塵垢，適值母難之辰。敬然頂香六炷，供十方法界佛法僧寶，極樂教主阿彌陀佛，大悲心咒，總持祕要，千手千眼觀音大士。發六種願，一干戈永息，二五穀豐稔，三兆民正信三寶，四靈峰古剎復興，五六智旭多生惡習，速得剋除，煩惱脂消，功德圓滿，及永無意外逆順二緣，早完閱藏著述二願。又燃臂香十炷，供十方三寶，發十種願，一期主淨障。二同行成器。三香燈侍者事理齊修。四外壇同行戒乘俱急。五常住一切職事執勞運力助緣營福者，不落有漏。六一切護法宰官捨財檀越，深悟解脫。七一切見聞隨喜，若緇若素遇影蒙塵，功無虛棄，永為道種，速證圓常。八靈峰住山沙門，及某等早得清淨輪相，圓成福慧二嚴。深念苦空，專求出要。九三塗息苦，八難超昇。蠕動蜎飛，均沾勝益。十以前功德，回向西方，普與含靈，同生淨土。

禮千佛告文

弟子智旭，與法界含識，自從無始至於今生，昧我法本空，起遍計情執。具迷事迷理二種無明，作分段變易二死根本。貪瞋癡慢，邪見紛紜，殺盜姪欺，飲啖顛倒。依於三業六根，廣造五逆十重。致使三塗鼎沸，八苦雲攢。乃至幸獲人身，仍遭劫濁。疾疫饑荒沴至，已足寒心。干戈兵革頻興，尤堪喪膽。父母妻孥莫保，骨肉身首分離。百骸潰散，誰思一性常靈。萬鬼聚號，肯信三緣自召。悠悠長夜，淚與血而俱枯。漠漠荒郊，魂與魄而奚泊。哀哉同體之痛，慘矣切膚之悲。憾道力未全，徒懷悽愴。思拯援無策，祇裂肺肝。爰鳩同志，五體投誠，代為大地被難眾生，頂禮三劫三千諸佛，臂然香炷，心發菩提，仰願大悲拔苦，大慈鑑機，大智慧光，爍群盲之積闇。大神通力，出苦海之沈淪。令今日海內海外，江北江南，已命過者，速脫九橫之城，徑超九蓮之土。未命過者，即離驚竄之怖，永享太平之安。又願諸佛菩薩，興慈運悲，憫此劫波，來膺眾許。又願遇影蒙塵，蜎飛蠕動，廣及法界一切有情。從今已去，乃至菩提，常知警悟，不構惡緣，永滅三塗，頓消八苦。即同居而橫徹寂光，不僧祇而圓登妙覺。

祖堂結大悲壇懺文

頂禮大悲尊，及法界三寶。不厭垢眾生，始終垂哀拯。智旭自惟，無始來至於今日，積惡逾於須彌，招苦浮於大地。雖蒙諸佛菩薩，種種提攜，薄解真乘，無柰夙業煩惱，淵淵深厚，時牽現行。蓋無論未歸信前，厥罪無量，即追思既出家後，愆累尤多。如大悲行法道場，業五與勝會，乃雜亂障垢，終不與三昧相應，虛消檀信脂膏，辜負人天屬望。撫心扼腕，慚懼何窮。茲又恭遇幽棲禪寺，建清淨壇。施主竭供養之誠，期主極殷重之憫。智旭以下劣凡夫，沙門汙道，不惟叨陪法席，兼復謬主行儀。反躬無似，驚悚彌增。爰於方便結界之始，敬然臂香三炷，奉供大悲同體三寶。又三炷，供九位同行懺師。伏願同體三寶，憫智旭之沈淪，速垂拔濟，同行九人憫智旭之不逮，咸賜匡扶。俾一期中，內障外擾以潛消，理觀事儀皆成就。智旭又於十方三世三寶前，現在同行九人前，胡跪合掌，剖肝瀝血，作如是白。智旭從無始來，至於前世，所有種種煩惱惡業苦報，無明覆故，已不自憶，今悉懺悔，願盡消除。智旭少年謗三寶業，今尚憶知，誠心懺悔，願盡消除。智旭出家已來，挂菩薩比丘虛名，不能如法行持，所有性遮諸罪，若憶不憶，無量無邊，今悉懺悔，願盡消除。智旭於四十六歲，自反多愧，退作但三歸人，勤禮千佛萬佛，及占察行法。幸蒙諸佛菩薩大慈大悲，於今年正月元旦，錫以清淨輪相，稍自慰安。無柰夙習根

深，不能自拔，出壇後又起種種身口意業，乃至濟生菴修大悲行法，然香懺悔以後，默簡長夏初秋，仍復多諸違犯。嗚呼，佛稱二種健兒，一自不作罪，二作已能悔。夫作已能悔者，必悔已不更作，故可稱健兒也，數數悔，又數數犯，豈健兒乎。智旭，今猶墜廁人，身口耳鼻，皆陷糞中，獨明信因果，不謗大乘，清淨正眼，未沒溺耳。設諸佛菩薩，現前善友，不乘此時力拯拔之，正恐淹漬日久，清淨正眼，并從淪隱，可不哀哉。智旭反覆自思，本以真實為生死心，決定大菩提心。絕不來帶利名，亦不牽染恩愛，如法出家，因地頗正，胡為墮落至此，久滯凡地，不預聖流。即欲逃名晦跡，獨往深山，筋力漸衰，不堪行邁，且愛見慈悲，漫縈纏於婆和學侶。致使枉尋直尺，擔麻棄金。如此痛傷，惟諸佛菩薩能知，亦唯有諸佛菩薩能救耳。且向年力詆三寶，惟有罪障。諸佛菩薩尚自矜憐，今日宏通大乘，亦有微善，諸佛菩薩豈反終棄邪。是以披揭愚衷，仍求加被。願我煩惱脂消，功德肉肥，三學圓明，二嚴滿足。捨此幻軀，決生極樂。盡未來際，廣度群迷。又願同行九人，各各剋除習氣，成就總持。自利利他，棟梁法廈。又願期主福慧增長，檀越信行堅固，乃至隨喜緇素，執勞運力，見影聞聲，悉悟顯密圓通，咸了性修不二，直至菩提，不遭岐曲。又願風調雨順，物阜民安，干戈息而烽火無驚，疾疫除而醫藥無用，菽粟如水火，陌路猶至親，挽末劫頽風，不異正法住世，超娑婆濁惡，同歸安養蓮胎。

占察行法願文(丙戌)

歸命慈威無等尊，拔苦與樂真出要。定力能除三劫災，救世真士垂悲拯。

弟子智旭，痛念劫濁難逃，刀兵競起。雖云同分妄見，實非無因誤招。往業莫追，來事可諫。爰偕同志某等(十人)各捐淨資，營修供養，三日方便，七日正修，如法結清淨壇，頂禮占察行法，六時行道，五悔鍊心。哀籲同體大悲，懇乞無緣拔濟。伏念眾生障垢，雖至重至深。三寶洪慈，終不厭不捨。苟一念知改過，必隨許以自新。況釋迦本師，勇猛稱最。地藏大士，誓願無忘。子幼弱父愛偏強，兒不肖母憐益甚。憫茲匍匐入井之愚，賜以身手衣衾之用。俾毫光照處，消兵戈為瑞日祥雲。法雨霑時，轉邪弊為道芽靈種。所願風調雨順，國泰民安，正教流通，魔邪竄絕。次祈比丘智旭，身無病苦，心脫結纏，定與慧而等持，戒並乘而悉淨。期主某法社雖復三年，攝護願如一日。某等各各真為生死，發菩提心，剋除習氣，臻修法門，三學圓成，二嚴克備，續佛慧命，普利人天。又祈

外壇隨喜緇素，悟知一實，開顯三因，二觀圓修，三忍圓證。又祈外護助緣，廣及法界含識，若見若聞，若不聞見，等植良因，均霑勝益。又祈江北江南，乃至震旦域內，近日遭兵難者，種種債負消除，一一怨嫌解釋，脫幽冥之劇苦，胎蓮萼以超昇。恭千法界三寶，地藏聖師，真實證知，真實攝受。

大悲壇前願文

歸命頂禮十方常住三寶，大悲觀世音菩薩，地藏菩薩摩訶薩。伏祈同賜哀憐，俯垂拔濟。切惟智旭，向於九華拈得閱藏著述一鬮，遂復安心。重理筆硯，適於祖堂輪現，所患命盡之語，理應併意，徑馳樂邦。獨可痛者，閱藏未完，則私願未滿，教觀無繼，則法輪無傳。且梵網佛頂，雖已竭一隙之明，如塵培嶽，而楞伽唯識，猶復錮繁言之障，如霧迷空。自非假我數年，何以了茲陳債。自非洪慈庇護，安能不擾他緣。敬然臂香十炷，供養十方慈父，大悲觀音，地藏本尊，法界三寶。伏願智旭，從今以去，永離違緣，決定閱完大藏，得成閱藏知津，法海觀瀾二書。決能撰述成唯識論觀心法要，及相宗八要直解，決能解釋楞伽尊經，及占察十輪度世要典。決能闡明無量壽會，彌陀賢護，淨土津梁。決能發暢大般涅槃，扶律談常，最後垂範。又願學侶，乃至現在未來諸有志者，決能戒根永淨，福慧圓成，壽命延長，解行雙到。又願智旭，煩惱冰鎔，智慧火熾，十惡根枯，六情性露。又願萬民無三災之苦，四姓伐邪見之林。又願以此功德，普施法界眾生，臨命終時，決定得生阿彌陀佛極樂世界，親承供養大悲觀音，得無量無邊三昧神通，總持智慧，同地藏慈尊，普入法界諸大地獄，救度一切苦惱眾生，乃至分形散體，橫遍豎窮，十界現身，三輪施化。如一眾生未成佛，終不於此取泥洹。

閱藏畢願文(甲午九月初一日)

敬禮無邊際，去來現在佛，等空不動智，救世大悲尊。弟子智旭，敬然臂香四炷，供養盡十方三世一切諸佛，一切尊法，一切菩薩，一切聖賢。痛念智旭，年三十幻寓龍居，第二閱律，遂復發心遍閱大藏，於一夏中，僅閱千卷，旋以事阻。至三十三歲，甫進靈峰，結冬時山中無藏。癸酉春藏至未裝，丙子季春遁跡九華，於彼抱病，閱千餘卷。壬午山中藏裝成，癸未結制，簡閱僅千餘卷，又被他緣所牽。幻寓祖堂，及石城北，共閱二千餘卷。己丑歸山，因註法華，占察二經，改治律要，未遑展閱。壬辰秋，擬進

山畢茲夙願。又值幻緣牽至長水，借閱千卷。直至今甲午春，方獲歸臥林泉。又以一夏病緣居半，乃於仲秋月畢，僅獲完滿。竊計發心看藏，已經二十七年，出入茲山，亦匝二十三載。凡歷龍居，九華，漳州，泉州，祖堂，石城，長水，靈峰八處，方獲竣事。於中前後閱律三遍，大乘經兩遍，小乘經及大小論，兩土撰述，各止一遍而已。嗚呼，緬想法緣不易，可勝涕泗滂沱。今幸仗三寶力，已畢微願，是以然香更求加被。一者竊見南北兩藏，並皆模糊失次，或半滿不辨，或經論互名，或真偽不分，或巧拙無別。雖有宋朝法寶標目，明朝彙目義門，並未盡美盡善。今輒不揣，謬述閱藏知津，法海觀瀾二書，儻不背佛旨，乞得成就流通。二者如圓覺，維摩，彌陀，地藏，乃至大涅槃經，夙有微願，再加解釋，并僧史寶訓，亦願增修，仰求庇護，令得速成。三者大殿半傾，前殿盡倒，觸目傷心，實難為力，今以付與天龍，願蚤成就。四者念此荒野之地，久不聞佛法名，實賴大楫法主，大粹靜主，大願期主，以創其端。至於請藏，則戒周首發大心，道晉，如源等，助成其美。印刷則受籌之功。裝潢則心見之力。苦守不墜，則成瓊為最。助緣成就，則善信是資。伏願已上過去者，以今然香功德，三障頓消，四生永脫，蓮開上品之華，佛授一生之記。現在者道心堅固，福德增長，壽命延長，智慧開發。又願學人(六人)，及堂內堂外上下靜室一切法眷，各各剋除習氣，趣向菩提，戒定慧以增明，福壽康而如意。又願智旭，從今以去，病苦消除，煩惱冰釋，不遭逆順兩魔，恒得安心著述。以茲法施功德，回向西方淨土，普與法界眾生，同生極樂世界。

大病中啟建淨社願文(十二月十三日)

甲午十二月十有三日，菩薩戒弟子智旭，一心歸命極樂世界阿彌陀佛，觀世音大勢至清淨海眾，及十方三世一切三寶。痛念智旭，本為生死大事，二十四歲出家，絕無半點好為人師之念。不意幻緣所逼，謬為人師，二十餘年，雖有弘法微善，而虛名所累，觀行荒疏，弗能折伏煩惱，以登五品。今病患纏身，心雖明了，力不自由，痛哭號呼，罔知攸措。幸仗佛慈，殘喘未絕。設非急勗淨業，何以永脫苦輪。爰發虔心，敬就靈峰藏堂，邀同志法侶(十人)及外護菩薩沙彌(五人)和合一心，結社三載。每日三時課誦，稱禮洪名，二時止靜，研窮大藏，教觀雙修，戒乘俱急。願與法界眾生，決定同生極樂。智旭從今以去，誓不登座說法，除同志執經問義，不敢倦荅。若敷文演義，自有照南，靈晟，性旦略可宣傳，誓不背佛平坐，除稍偏及對像坐。誓不登壇授戒，若授戒學律，自有照

南，等慈可以教授。誓不應在家人請齋，除寺院靜室中。仰乞三寶證明攝受，令智旭諸緣未盡，早就輕安，大限難逃，徑歸安養。生則念佛兼著述，死則不墮亦不退。又願同行法侶，無論旭存與否，堅志同修，有始有卒。又願外護沙彌，無論旭存與否，誠心營事，勿懈勿失。以此殊勝淨因，回向無上極果，普與含生，咸歸祕藏。

法語一

(示印海方丈)先開見地，後可言修證。欲開見地，不得姑待異日。夫決擇身心，無過師友商確，經論尋討。今商確僅作言談會，尋討僅作文字會，必待冷坐，方名工夫成片。縱得成片，動靜依然兩橛，況動既不能隨處體會，靜又安保成片哉。真工夫不然，無論世法、佛法，動靜順逆語默，但發慧眼，鎔習氣，磨礪身心，增益我所不到者，即實工夫。只期本分相應，更無動靜之別。儻不向本分會取，徒謝絕人事，枯守蒲團，敢保驢年無相應分，況塵緣無盡邪。應以猛切心治姑待心，常念時不待人，一蹉便成百蹉，以殷重心治輕忽心，一言有益於己，便應著眼銘心，以深廣心治將就心，期待誓同先哲，舉措莫類時流。三若缺一，學道難矣。

(示法源)念佛工夫，祇貴真實信心。第一要信我是未成之佛，彌陀是已成之佛，其體無二。次信娑婆的是苦，安養的可歸，熾然欣厭。次信現前一舉一動，皆可迴向西方，若不迴向，雖上品善，亦不往生。若知迴向，雖誤作惡行，速斷相續心，起殷重懺悔，懺悔之力，亦能往生。況持戒修福，種種勝業，豈不足莊嚴淨土。只為信力不深，勝業淪於有漏，又欲捨此別商，誤之誤矣。但加真信，一切行履，更不須改也。

(示初平)人知宗者佛心，教者佛語，不知戒者佛身也。盧舍那佛，以戒為體，惡無不止故淨，善無不行故滿。儻身既不存，心將安寄，語將安宣。縱透千七百公案，通十二部了義，止成依草附木無主孤魂而已。

(示陳受之)聖賢皆以同體大悲，為學問綱宗。儒謂萬物皆備於我，釋謂心佛眾生三無差別。推惻隱之心，可保四海，極大悲之量遍周法界，故曰天地之大德曰生。儻殺戒不持，豈名一日克己復禮，天下歸仁乎。願即向儒門實究，必能奮然頓決於一日，位天地，育萬物，取諸片念而有餘矣。

(示羅性嚴)剃髮染衣，會有良時。歸戒聞修，不勞諷日。非歸戒無以為出要之本，非聞修無以開出要之門。佛法染神既深，解脫機緣自湊。否則前牽後引，歲復一歲。淨信初心，漸至牯亡，非丈夫所以自奮也。

(示沈驚百)世出世固不可判作兩橛，亦不可混作一事，蓋儒佛下手同要歸異。雖從真儒下手處下手，學道有基，不向真佛要歸處要歸，

真性不顯。東坡學佛，然後知儒，以宣聖出春秋世。眾生根性機緣未熟，一往且就倫常指點，五乘格之，僅屬人乘，閒露極談，終不彰著。復被宋儒知見覆蔽，遂使道脈湮埋。非藉三藏十二部教，求開眼目，不唯負己靈，宣尼亦受屈多矣。

(示沈清彥)人不知本地風光，天地萬物俱成芻狗，位育事業，徒有虛名。凡夫如井蛙夏蟲，豈信大海非誑，永劫不誣。欲入此信門，應觀現前一念。前不得其始，後不得其終，現莫窮涯際。設追尋，絕無蹤跡，言其無，不可斷滅。禪家謂之淨裸裸，赤灑灑，尚冤不少，況紫陽謂虛靈不昧。稟得於天，非戲論妄想邪。急從良師友，快讀了義經，薦取本來面目，掀翻流俗知見。勉之。

(示范明啟)三寶深理，非庸儒所知，大智丈夫，乃能諦信。余少時亦拘虛於程朱，後廣讀內典，稍窺涯畔，莫窮源底，方知有真實心性之學。唯以超方眼，觀究竟理，庶不墮井蛙夏蟲之誚也。

(示王稚炎)喻義喻利，在心術不在形骸。果聖賢自期，功名亦道德之用。儻志在目前，不求上達，雖駕言理學，止富貴之媒而已。今以孝父母和兄弟致君澤民三種心，持準提咒，豈非大乘願力。精勤一致，始終不渝，君子喻於義，利亦化為義矣。

(示無雲)舉手低頭，皆成佛道。開示悟入，妙在不別覓玄奧。無相不離有相，解脫不離文字，究竟不異初心。若以生滅心觀一切法，設有一法過涅槃者，亦是生滅數。若以不生滅心會一切法，是法住法位，世間相常住。豈得漫云塔是土木，經是紙墨邪，急薦取可也。

(示夢西)欲坐斷凡聖情解，頓明佛祖心源，不可絲毫夾雜。然所謂夾雜正不在看經尋論，乃在世間利名煩惱我慢慳嫉放不下。嘗見主宗乘者，動以經論為雜毒，反置習氣於不訶，豈知古英傑凡情先盡，故但埽其聖解。今人濁智流轉，不向痛處加錐，云何出得生死。且如婆子燒菴公案，須向自己腳跟下理會。可笑世人欲代轉語，望婆子供養，面皮厚多少哉。須不欺心，的的覷破那僧及婆子落處，即自己落處，便是出生死真實路頭。切不可向解路卜度，失卻自己鼻孔。其二六時中，用心方便，妙在從緣薦得，不宜固守枯寂，塞妙悟門，直拶碎虛空，再來理會。

(示方暉元)浩然之氣，人皆性具。雖云集義所生，實非有生。但念念以聖賢自期，則本性日顯，氣自充矣。若一念餒，便名自棄。所貴豪傑之士，無待而興也。

(示攝三)聽講不得徒事口耳，先應諦思，佛為何事說經，我為何事學經。若知佛所為何事，則不耽著文言，若知我當為何事，則不貪逐名利。不逐名利，則杜外謗，不著文言，則善悟理。悟理則本立而道生，杜謗則德孚而物化，可以自利，可以利他。不然，學問愈多，去道愈遠，學人愈盛，法門愈衰。師蟲之記，良足畏也。

(示律堂大眾)流俗知見，不可入道。我慢習氣，不可求道。未曾先會，不可語道。宴安怠惰，不可學道。顧是惜非，不可謀道。自信己意，不可問道。捨動求靜，不可養道。棄教參禪，不可得道。依文解義，不可會道。欲速喜近，不可悟道。隔小於大，不可見道。執穢為淨，不可知道。厭常喜新，不可趨道。樂簡畏繁，不可明道。將就苟且，不可修道。得少為足，不可證道。惟超群拔俗，謙己虛心，忍苦捍勞，親近知識，觸處體會，以教印心，廣大悠久，事理雙備，棲神淨域，履蹈典型，博通古今，特達勇銳，深心無極，誓窮法海源底，乃真實男子，出世丈夫。

(示存朴)夫比丘者，體預僧寶之尊，職紹佛法之種，須超群拔俗，迴脫流俗知見，方無愧厥名。儻故轍不改，則一舉一動，罪案如山。一旦業風吹去，袈裟下失卻人身，苦中之苦。人閒五十年，四王天一晝夜，有何實法可戀。若不急尋出要，寧唯一錯百錯。塵沙劫數，未有了期。血性漢子，能勿悚然在念乎。

(示真學)真學以解行雙到為宗趣，非開解無以趨道，非力行無以證道。而解行又有大小、漸頓不同。若但求一出生死法門自度脫者，小解小行也。若遍通一切法門自利利他者，大解大行也。若先解後行者，漸也。若知解行同時，隨文入觀，不離語言而得解脫者，頓也。如兵卒習一伎，可殺一賊，取一賞，糊數口。又市醫僅知一方，可療一病，取一直，資厥身。則聲聞緣覺是也。若任大將，作大醫者，必盡知韜略，遍達方味，然後向無不克，治無不驗。圓頓行人，通達萬法，圓悟一心，自行則無惑不破，化他則無機不接。今欲遍通一切法門，雖三藏十二部，言言互攝互融，然必得其要緒，方能勢如破竹。為聖賢者，以六經為楷模，而通六經，必藉註疏開關鑰。為佛祖者，以華嚴、法華、楞嚴、唯識為司南，而通此諸典，又藉天台、賢首、慈恩為準繩。蓋悉教網幽致，莫善玄義，而釋籤輔之。闡圓觀真修，莫善止觀，而輔行成之。極性體雄詮，莫善雜華，而疏鈔懸談悉之。辨法相差別，莫善唯識，而相宗八要佐之。然後融入宗鏡，變極諸宗，並會歸於淨土。以此開解，即以此成行，教觀齊彰，禪淨一致，遠離擔板之病，不墮數寶之譏，可謂慶快生平，卓絕千古者矣。

(示萬韞玉)受一非餘，固為魔攝。無端泛涉，不入聞持。既知心學淵源，工夫次第，則隨閱一書，必徹頭徹尾，巨細畢明，庶無擇不精語不詳之患。仍須捨盡舊時知見，方有格外新得。唯道集虛，虛乃心齋。儻陳見橫於意中，一芥翳天，一塵覆地矣。

(示王簡在)有出格見地，方有千古品格，有千古品格，方有超方學問，有超方學問，方有蓋世文章。今文章學問不從立品格始，品格不從開見地始，是之楚而北其轅也。嗚呼，習俗移人，賢知不免，

狃一時耳目，忘曠劫因緣。非以理奪情，以性違習，安能洞開見地，使文章事業，一以貫之也哉。

(示王心葵)法華一經，殷勤稱歎方便。須知有世間方便，布施愛語，孝悌忠信等是也。有出世間方便，苦空無常，無我不淨，數息因緣，遠離知足等法門是也。有出世上上方便，十波羅密，四攝四辯。八萬四千三昧，總持等是也。有不思議勝異方便，信自性中實有西方，現成佛道之彌陀如來，唯心中實有莊嚴之極樂世界，深心弘願，決志求生。不唯上上方便，是其資糧。將世出世一切方便，無非往生左券，此法門中點鐵成金手段。不歷僧祇，頓階不退，名絕待妙法也。

(示廣戒)無量法門，不出三學。一往戒定屬緣因，慧學為了因，實三學之中，三因圓具。又次第則因戒生定，因定發慧，後後勝前。推本則戒無定慧猶剋善果，定慧無戒，必落魔邪。思之思之。

(示慧含)習氣不除，無出生死分。然習氣熏染，非一朝一夕之故，不痛加錐拶，何由頓革。須猛念身世無常，幻緣虛假，人道難生，佛乘難遇。失此不求度脫，千生萬劫何期。便將是非人我，體面界牆，身見慢幢，愛染情性，全體放下，不復躊躇。將如來出世要法，徹底承當，愛樂受持，精勤趨向，自然福慧增長，日造深微。而出要無奇，正在平常日用閒。切不可離事覓理，捨麤求精，厭動求靜，喜順惡逆。或鑽他故紙，認指為月，或枯守蒲團，釘椿搖櫓，此近世禪講學人，膏肓痼疾，習氣最惡毒者。設不深自省察，力加剋除，愈趨愈下，無救無歸。當知此輩，若劣有微福，必作魔家眷屬，萬行若荒，直感三塗劇苦。吾人暗識相傳，長夜不曉。今得人身，不值正法，魔外充斥，無從問津。幸善根未絕，獲聞遺教，何容更悠悠視作等閒。生大慚愧，嘗膽臥薪，一念便應決斷，想道不由別人也。

(示定西)儒者民胞物與，盡此身命，尚不可不弘毅，況塵刹不隔毫端，十世不離當念者乎。夫真弘者，聲聞緣覺，權乘果位，猶不足挂懷，安問世間名利。真毅者，百劫千生，不生一念退失，安問現在境緣。今時釋子，只圖作宗法律師，設無出頭一著，雖頓超佛地者，亦不顧矣。本發心，原非為菩提大道，曠劫遠猷，故一受戒，兢兢鉢杖表相，一聽講，孜孜消文為事。一參禪，念念機鋒是務，至應期禁足閉關等，皆百年活計。人世公案，本分事千萬重矣。彼於微妙佛道，僅從經本上依稀聞解，未嘗親知灼見，終屬半信半疑，於眼前活計未嘗諦觀三界空苦無常，終覺放他不下。雖學成語，陵駕佛祖，實一時高興，或初生牛犢不畏虎，或童豎戲劇自稱天王，未嘗以佛祖自期也。閒有發勝志者，不能到底唯為菩提一

事，或被名利改節，雖云漸變初心，仍是因中夾帶，不可不慎思而痛勵也。

(示一念)不可不趨向者，中行之道，不可稍夾帶者，鄉愿之心。然狂狷似與中行遠，而實不遠，鄉愿似與中行近，而實天懸。良以學道所最嚴者，在毫釐心術之辨。佛法中，亦有狂狷中行鄉愿。創自凡夫，始聞妙法，直下以諸佛自期，乃至權乘小道，亦所不願，是名真狂。既趨佛乘九界事業，皆所不屑，是名真狷。了達心佛眾生，三無差別，以心即佛故。上求無厭，與大智相應，以生同佛故。下化無疲，與大悲相應，念念悲智隨四悉檀，善自護，亦善護他，是名真實中行。儻名關未破，利鎖未開，藉言弘法利生，止是眼前活計。一點偷心，萬劫纏繞，縱透盡千七百公案，講盡三乘十二分教，興崇梵剎如給孤獨園，廣收徒眾如無相好佛，無明業識不斷，俱為自誑自欺。況一知半解，沾沾自足，是望鄉愿為極果，僅成鄉愿真因而已。

(示元白)學道一要真為生死，二要具足剛骨，三要開發見識。無真實為生死心，饒你有志氣力量，只作世間豪傑，斷不能為出世聖賢。無真實剛骨，饒你要出生死，決被情欲牽，熟境迷，利名移奪，魔患埋沒去。無真正見識，饒你怖生死，勇猛直前，必被邪師惡友引誘，輕安少得縈惑。或墮光影門頭，或坐知見窠臼，乃至或以味禪為功德，或以空寂為家鄉。極勝亦流入二乘權曲境界，無由直趨菩提。良由眾生心性雖與佛等，無始迷妄積習深厚，欲返本源殊非容易。果能念念觀察世間苦空無常無我不淨，下從地獄，上至非非想，總非究竟安寧地。儻不誓求出要，三界流轉，有甚了期。生不知來處，死不知去處，茫茫苦海，言之痛心，豈容為生死心不切。既生死心切，視世間一切事，那件出得生死，那件稍有真實，便痛發省悟，向千纏萬繞中努力一踴，直得殺父姪母，他家活計，將無始恩愛眼前活計，盡情割斷。如悉達初出家即誓云，設骸骨枯腐，不盡生老病死之源，終不返還。如此志氣，方不被一切業境奪去，方名具大剛骨。既離愛網，專求出要，必應甄別邪正，洞明權實，了悟頓漸。若不遇真師匠，唯應讀誦大乘，深求至理，不依文解義，不離經穿鑿，法法會歸自己，處處體認心性，自於真宗，漸堪趨入。儻遇明師良友，不問聖凡，但具正見知如來祕密藏者，即可依之人，放下身心，不惜體面，不辭勞苦，不畏饑寒，乃至不吝身命，畢生服役，咨稟法要，自然福至心靈，感應交徹。如螟蛉克肖，時雨化生。以得親近善知識故，則能親近最上妙乘，以得習學上乘法故，則能出生廣大圓滿智慧。切莫高推聖境，自處凡愚，戀剎那幻境，忘曠劫遠猷，自暴自棄，非才之罪也。重說偈曰，

佛性眾生性，一性無二性。迷之沈六道，悟之為三乘。迷雖無量惑，厥病唯有三。一者戀世間，不知世間苦。二者雖知苦，苟且自因循。三者雖勇猛，得少便為足。以此三病故，長夜在生死，或復出生死，亦墮權小乘。我依諸佛語，為設三妙藥。一者怖生死，對治根本病，念念如救頭，莫復存餘想。二者奮剛勇，降伏愛見魔，五欲不能牽，八風不能動。三者開正見，遠離諸邪曲，根選擇圓通，現生成正覺。此三或自具，或復藉餘緣，唯有明師友，名為真實救。策發生死心，鍛鍊純剛骨，開示真實乘，令行稱性修。修性不相離，斯名正覺印。迷性言修習，修墮有為功。廢修談法性，自然外道同。是故佛與祖，垂訓咸雙顯。雖或性奪修，而非不修習。雖或不言性，而性在修中。性非修不顯，修非性不立，但以生死心，勇猛不退心，廣大弘遠心，親師習正法，必能親悟入，知我言不誣。

(示法雨)悲智相應，名菩提心。發此心已，方得無作戒。又須二六時，常自省察。念念相應，即念念成佛，稍不合，便於菩薩戒得失意罪，在慎思而力行之。

(示西瞻)有三障，能敗戒德，使信心退沒。一瞋恚，橫於自他而生惱害，二我慢，於諸僧寶而生輕忽，三懈怠，於諸妙法不肯學習。三法有一，牽入惡道，忘失信心。

(示費智瀾)學不難努力自修，難親近知識，不難高談名理，難實踐躬行。蓋單恃己靈，錯修多端。尊師取友，熏習成性。空談玄妙，畫餅不益饑腸。剋實行持，觸處無非緣了。願以放生寡欲為要，長壽之因，養身之道，能達無緣大慈，成清淨梵行。以此銘心，久久自成法種。

(示慈門)達磨一宗，超情離見迥出格量。近世各立門庭，競生窠臼，認話頭為實法，以棒喝作家風，穿鑿機緣，杜撰公案，謗讟古人，增長戲論，不唯承虛接響，且類優人俳說。言之可恥，思之可傷。唯憨翁具金剛眼，鑒時流弊，說方便語，作救病藥，寧註經造論以觸時諱，終不據曲盃木，弄鬼眼睛，使狂穢藉口。噫，此大菩薩護法苦心也。開士侍大師，又遊雲門博山間。夫識取綱宗，本無實法，藥非定藥，病非定病，善用諸方短處皆成長，不善用大師長處亦成短。學人不具參方眼，纔除一病，一病旋生，須脫流俗窠臼，的向腳跟下打透，真禪真教真律，方不負為大師親侍也。

(示彭雙泉)既具生死心，參方眼，不可不及時努力，隨事著眼，從緣薦取。夫本地風光，雖沈埋，而處處迸露，只為眼遲腳慢，錯過多端。能向塵勞輕輕覷破，菩提涅槃正在煩惱生死中全身顯現。若的見菩提涅槃正因真性，便能稱性起緣了二修。今於緣了二因，拈出最要二種，為出生死方便。一發菩提心，受菩薩戒。二熾然作福，

於正因拈出最實一事，為歸趨之方。所謂淨土，以二要行，趨一實地，隨觀行淺深，任運淨於四土。至三惑盡，二死亡，則究竟寂光上上品也。

(示象巖)如來謂出家三種事業，坐禪，讀誦，營眾福業。隨修一種，皆超生脫死。成就菩提，而修必隨機。藥病不投，徒增穴結。或一門到底，或展轉助成，然自無道眼須善友教。如重病者，須信良醫。若信己意，應服不服，應忌不忌，小疾尚致死，痼疾寧有瘳。今時喪心病狂無恥禪和，影響竊掠，聽其言超佛祖之先，稽其行落狗彘之下。復有一輩怯弱之人，我相習氣放不下，名利關鎖打不開，希望討一適性便宜的路頭，不肯徹底向一門中透去。禪不禪，教不教，律不律，行門不行門，依稀彷彿，將就苟且，混過一生，毫無實益，百千萬劫，依然還在生死。若的確求出生死證菩提，先將近時禪講流弊，盡情識破，自己從來杜撰主意，盡情放捨，軟煖習氣，盡情打掃乾淨，夢幻身命，盡情拌得拋得。種種惡逆境界，盡情看作真實受益之處。名利聲色，飲食衣服，讚譽供養，種種順情境界，盡情看作毒藥毒箭。能如此降伏，不坐一炷香，看一句經，保出生死有分。儻不痛處加錐，欲向法邊起見，假饒坐斷八萬四千劫，通盡三藏十二部經，只好向無事中過日。一遇順緣，依舊牽去。一遇逆緣，依舊打失。一不覺察，依舊落在無記，如何出得生死，到得西方，成無上菩提。圓覺經云，末世眾生，無令求悟，唯益多聞，增長我見，但當精勤，降伏煩惱。須知坐禪讀誦作福，皆可增長我見，可降伏煩惱，但審自己何事最切近，最對病根。今在汝數年作學問不成，一旦願齋僧而就便，是夙緣有在。又身見重者，宜苦行消之。貪愛強者，宜苦境鍊之。人我山高者，逆緣挫之。體面心重者，忍辱治之。一意向此門打徹，自能游戲百千三昧，通達無量法門，較枯守蒲團，呶呶章句，不可同劫語矣。

(示韞之)討究佛法，第一要務。諸佛所師，所謂法也，況弟子乎。雖勝義法性，貴在親證。儻非黃卷赤牘，作標月指，示真實修行出要，何由得證勝義。試觀外道，亦出家求出生死，不知正法，求昇反墜，故不留心教典，饒勇猛精進，定成魔外。脅尊八十出家，晝觀三藏，夜習禪思，乃有濟。有謬云，年少力強，宜習教典，年衰力弱，只堪念佛。豈年少不必念佛，年老不可習教。將謂如來教法，僅同舉子業，博名利於半生者乎。一歷耳根，永為道種，大士所以捨全身求半偈也。今佛法流布，賴迦葉阿難二祖，徹底悲心，人皆視作等閒，殊不知恒沙世界，無量劫中，妙法名字不可得而聞也。

(示閱藏四則)一須體如來說法本意，要人超生脫死，非為口耳活計，句句消歸自心，如說修行，方不受說食數寶之誚。(其一)

一學問之道，貴下學上達，所以如來施教，必有次第。今人空腹高心，但圖圓頓之名，無力飲河，詎能吞海。必先閱律藏，稔知佛世芳規，深鍊為僧要務。次閱四阿含，了正因緣境，為圓妙三觀之本。次留心台教，深知如來說法所以然之妙，及四悉檀巧被之致，然後將此法界匙鑰，遍開不思議經論之鎖，勢如破竹矣。(其二)

一閱律，首四分，次僧祇，次十誦，次根本，次五分，次及善見毗尼母等。諸家傳受不同，各有源委線索，須細尋之，無執一非餘，亦無猶豫兩楹，在得意善用，大意如問辯所明，莫謂此小乘法不足久久留心，當捨之別參上乘，是末世癡人邪慢惡見，牽人墮惡道深坑，不可信也。(其三)

一大小經律論雖字字明珠，言言見諦，然各就習氣所重，對治所宜，或隨時弊不同，救拯有異，不妨摘出要語，期自利利他。如雪山無非藥，採者期於對病。寶山無非寶，取之先擇摩尼。只此成錄，足驗手眼。(其四)

(示朗融)萬法本融，由迷情執而成礙。如一指能蔽山岳，認漚必遺大海，不惟埋沒己靈，亦冤屈六塵境界。詎思六塵非能惑人，人自妄惑，根根幻馳，識識紛動，仔細推求，塵既不居其咎，根亦豈職其愆。識寧獨當其罪，三科分析，既無真主，縱令共合，那有實法。而於此虛妄法中，著我著人，分取分捨，猶如捏目，亂華發生，更欲分別花相，妍醜大小，不益惑乎。惟將身心世界全體放下，作一超方特達之觀，譬如為天下者不顧家，則智眼昭明，一切境界，無非真實受用處矣。

(示三止)惺惺寂寂是，無記寂寂非，寂寂惺惺是，妄想惺惺非。此四語，叢席爭誦，然悟惺寂源頭，方不墮守精魂窠臼。如儒亦言明鏡止水，豈慎獨便是奢摩他妙修行路邪。祖云，觀者何人，心是何物。此二語，直得遍計妄想百雜粉碎，以此體真，以此方便隨緣，以此息二邊分別，一句中有三玄，一玄中具三要，喚甚麼作獨，將誰去慎，不惟妄想無記無容身，惺寂亦并無處著落。非惺非寂，是謂寂寂惺惺，惺惺寂寂。喚作不二，早已二也，況雙修並運哉。悟此成修，是一心三止。

(示文約)做工夫人，每被昏散所擾，久便退悔。不知昏散根源，全由迷己作物。楞嚴經云，認悟中迷，晦昧為空，乃至昏擾擾相，以為心性。夫昏障慧，擾障定，定慧既障，則睡眠與散亂雜呈。若欲去其根源，須識取心性本體，從來明靜，諸佛證之為定慧，行人修之為止觀。止觀之功，全即明靜之體，惟靜故明，惟明故靜。既非二致，豈有前後。但約對治法門，昏重者觀起之，散多者止息之。然息散之止非無觀，起昏之觀非無止。止觀不二，勤修不息，自然本體漸露，客塵漸銷。者著工夫，不段間斷不得，性急不得。然欲除

昏蓋，直須打起精神，不可貪戀蒲團穩坐。欲除散亂，正不必厭惡妄想，直須覷破妄想無性。僧問巖頭，起滅不停時如何。咄，是誰起滅，此明心見性者第一先鋒也。

(示慧幢) 予讀子輿氏書，至舜盡事親之道，而瞽瞍底豫，見圓頓觀心要旨焉。夫父雖至頑，不可別覓他父。又不可如傲象之順命為惡。現前介爾一念無明頑父，即法性真父。順無明流，造業流轉，則是傲象。捨妄覓真，別觀法性，又成背父逃逝。善惡稍殊，均為不孝。六道凡夫，順無明而為惡者也。藏通別三種行人，捨無明逃逝者也。若知焚廩掩井之瞽瞍，即允若底豫之瞽瞍，則必盡事親之道於己躬，肯作順逆兩法以虧天性邪。所謂盡事親之道者，亦只深信父實生我，除此父外，別無真父。然斷不可從命為惡，須竭怨慕之誠以格之，則頑如瞽瞍，亦可回心，況未必如瞽瞍者哉。觀心亦爾，深信現前一念，全體法界，離波覓水，終不可得。然斷不可隨其生滅，不事觀察。須以不思議一心三觀，深體達之，則惡無記心，尚成不思議境，況善心哉。知一念圓具三德，事理兩重三千，互遍互融，深生信解，名為慕。此境不現，是止觀力微，發勤精進，誓以十法成乘，名為怨。如此努力，鈍逾般陀，發明有日。儻悠悠忽忽，縱利如藍弗，敏過達多，無濟也。

(示未能) 夫幻境侵奪，不惟順流俗而俱化也，即厭流俗而切思遠離，亦名侵奪。以一切境界，全是無明變現。無明變現之性，全即法性，由不達故，橫生欣厭。趨無上菩提者，不得隨順幻境，亦不得厭離幻境，但了幻境即法性，悲長夜之在迷，以悲迷故，起無作二誓，欲拔性德之苦，以了性故。起無作二誓，欲與性德之樂，發此心已，則一切不如法境界，觸目警心，無非助發菩提資糧。起信論云，菩薩見法欲滅，護正法故，發菩提心。有見眾生苦，而發菩提心，正謂此也。

(示慈昱) 佛法大海，信為能入，智為能度。信如堅舟，智如舵師。餘五度萬行，皆舟中器具也。須時時念生死苦，警悟無常，不得沈迷五欲，執著世情。知世情定了我生死不得，五欲定牽入放逸坑，墮惡道苦，此生死長夜中真實信心。發此心已，急求智慧以為導師。第一親近明師良友。第二讀誦方等大乘，非明良決不能益我身心，非大乘決無有出世正楷。人有信心而無智慧，則能增長煩惱。有智慧而無信心，則能增長邪見。故知船及舵師，相須度險，缺一不可，況俱乏邪。

(示迦提) 法華妙旨，惟令眾生開示悟入佛之知見。佛知見，現前一念心之實性是也。現前介爾一念，不自生，不他生，不共生，不無因生。未生無潛處，欲生無來處，正生無住處，生已無去處。心無心相，其性無生。無生故無住，無異，無滅。無生住異滅，即真法

性，橫遍豎窮，不可思議。若於此無相妙心，妄謂有心相可得，則佛知見便成眾生知見，若即妄相幻心，達其本非有相，則眾生知見，便成佛之知見。心性既舉體全空，亦復即假即中。以三諦宛然，故三觀法爾。以法爾之三觀，照宛然之三諦，能所不二，境智互融。於此信解，名為隨喜。解義觀文，名讀誦。轉示他人，名講說。歷事煉心，名兼修正修。有相無相二安樂行，一串穿卻，祇貴篤信力行，別無奇巧方便也。

(示乳生)夫置身海州，而伯牙善琴，其情移也。望似木雞，而餘雞卻走，其神全也。世閒小技，尚非聊爾，況學出世太道，仔肩如來正法者乎。圓頓十乘觀法，必先以二十五前方便，所謂具五緣，訶五欲，棄五蓋，調五事，修五法。就二十五事，各具表法，及觀心法門，然後正助合行，事理雙備，足目並運，安隱入清涼池。後來禪士講徒，率情任意，逞一得之見，罔達大方軌則。以此蔑裂學問，求世伎術，戛戛乎難之，投足宗教兩塗，思自利利他，誠奚望也。真正學人，必先移夙情，則神自全。情之所牽，雖萬別千差，總不出色聲香味觸五種。神之所虧，雖受病不等，總不外貪瞋睡掉疑五種，急須訶棄，則聖賢可階梯而至矣。

(示懸鏡)奮發之心，人皆有之，不能不藉於外緣。羞惡之心，人皆有之，不能不汨於惡習。嗚呼，善友罕逢，惡緣偏盛，非咬釘嚼鐵，刻骨鏤心，何以自拔哉。

靈峰蕩益大師宗論卷第二之一

靈峰蕩益大師宗論卷第二之二

法語二

(示靖玄)自他不二之體名玄，自利利他之行名靖。能悟玄體，性本自靖。能為靖功，玄體可會。此性修不二之真旨也。見思靖，方知真諦本玄。塵沙靖，方知俗諦本玄。無明靖，方知中諦本玄。三玄既會，方知眾生三惑亦本靖也。佛頂云，狂心頓歇，歇即菩提，一人發真歸元，十方虛空悉皆消殞。法華云，如來如實知見三界之相，無有生死，若退若出等。噫，可悟性修交成矣。

(示玄闇二則)古云，明時無暗，暗時無明，此相傾奪義也。又當明中有暗，當暗中有明，此性無傾奪義也。佛頂云，明能破暗，此以真融妄，全妄成真，無破無不破而論破也。須知無傾奪性，全體在傾奪相中。而傾奪妄相，全體不離無傾奪性。知性相二而不二，不二而二者，則知非破非不破，而論破矣。非破非不破，性也。破者，全性所起之妙修也。破即無所破者，全修在性也。故明生時，暗無所去。闇無去，則明無所來。無去無來，則不生不滅。如禪人未聽

經時，心性無減，而妙義茫然。已聽經後，慧解頓開，而心性無增。知無增減，則知六而常即。知茫然與漸開不同，漸開與圓悟圓證定不同，則知即而常六。請以此為造修方便。(其一)

小水常流，則能穿石。吳江一行人，學法華，半日不能一句，晝夜不捨六年，而全部成誦。法友熏習已多，所以未淪浹者，不切心故耳。誠切心則法味津津現前，既得法味，欲罷不能。患不時習，不患不悅也。有忘食之憤，後有忘憂之樂。幸將所聽之法，溫習勿忘，日久功深，豁然開悟。既得法喜之樂，便是超脫之緣矣。(其二)

(示惟淡)世法惟恐不濃，出世法惟恐不淡。人惟淡故，其交恆，道惟淡故久而不厭。時習之悅朋來之樂，不知之不慍，皆淡中滋味也。欲界情淡，得離生喜樂。初禪情淡，得定生喜樂。二禪情淡，得離喜妙樂。三禪情淡，得捨念清淨。三界情淡，得寂滅涅槃。似道法愛淡，證中道常寂滅性，是故三世如來，究竟此淡者也。十方菩薩，分證此淡者也。聲聞緣覺，得淡之一隅者也。老子莊子竊淡之影響者也。欲深入淡字法門，須將無始虛妄濃厚習氣盡情放下，放至無可放處，淡性自得現前。淡性既現，三界津津有味境界，如嚼蠟矣。僧夢虎，驚寤喜曰，匪夢幾被虎食。既悔曰，知是夢，何不做一人情。噫，可醒三界之戀幻質，不知淡性者矣。

(示惟默)孔子曰，予欲無言。佛云，吾四十九年不曾說一字。然六經四書，三藏十二部，果何物哉。如以杜口為默，凡瘖啞者，皆聖與佛矣。詎知諸法無性，言語本空，終日言未嘗有言，終日不言，未嘗無言。故又曰，天何言哉，四時行焉，百物生焉，天何言哉。尊者無說，我乃無聽。無說無聽，是真般若。推此致也，塵說剎說熾然說，三世無間斷說，亦若是已矣。苟未達說默之源，說是覺觀生相，默是覺觀滅相。既墮生滅情見，則說默俱非，若妙契寰中。說能開悟，默能密喻，是說默無非善說也。說無說相，默無默相，是說默無非善默也。善說者謂惟說可，善默者謂惟默可，皆法界故。法界不二，說默不二，不相借，不相成，不相破，亦不相亡，不相礙，亦不相融，當體清淨，絕待離微。夫諸佛解脫，即於凡夫心行中求。觀心無心，說默何有。說默無性，說默俱妙，是頓悟緣起無生，超彼三乘歷劫修證者也。

(示晦涵)莎伽陀不能誦一偈，而調息豁然。阿那律多失雙目，乃修三昧，觀大千界如掌果。人正不以多知多見為貴。法友既於了義未深解，但篤信企慕，禮拜持誦，使淪骨浹髓，功深力到，忽發旋陀羅尼一品，親見靈山勝會，便與智者把手共行矣。

(示未一)聖學究竟處，決無滿足下手處，決不委靡。孔子十五志學，此即不可奪之志也。志立然後以無厭足心，期盡性命之源。蓋自期

遠大，簡點必嚴。簡點嚴則惟日不足，不肯半塗自安。堯舜猶病，禹拜善言。湯有慚德，望道未見，寡過未能。聖仁豈敢，皆深知性命源底，非大覺不能究竟也。一究竟一切究竟，子臣弟友，丘未能一，愈不能愈無息肩地。不然，夜郎自封，區區自得。如貧獲一金，志驕意滿，何以階大道哉。

(示汎如)孟子曰，人能充無受爾汝之實，無所往而不為義也。此與無我人眾生壽者相，修一切法之旨略同。夫爾汝之名，亦何足恥。爾汝之實，真不宜受。見思斷，則不受生死之爾汝。塵沙斷，則不受枯寂之爾汝。無明斷，則不受變易之爾汝。誠能充無受爾汝之實，則盡大地是箇自己。盡大地是箇自己，則將修一切善法，以利益大地眾生。豈復以爾汝之名，與世爭哉。

(示庸菴)教觀譬膏火，終始相需。故離教觀心者闇，迷心逐教者浮。浮則茫無歸著，闇則愈趨愈訛。此末世禪教，所以名盛而實衰也。須知一切了義大乘，諸祖公案，皆我現前一念註腳。說來說去，總不離我一心。我今此心，全真成妄，全妄即真。若不能當下反觀，則靈知靈覺之性，恆被一切法所區局。縱慧成四辯，定入四空，依舊迷己為物，認物為己。若能直觀現前一念，的確不在內外中間諸處，無體無相，無影無蹤，但有一法當情，皆心所現，終非能現。此能現者，雖云量同虛空，亦無虛空形相可得。若有虛空情量，又是惟心所現之相分矣。一切時放教歷歷明明，空空蕩蕩，亦不認歷歷明明空空蕩蕩者為心。以心體離過絕非，不可思議故。了知一切惟心，心非一切，忽然契入本體，一切語言公案，無不同條共貫矣。

(示密詣)爾祖誦帚公之與余交也，尋余疊冰積雪中，不恤三千里之勞。故余亦攜病來趨，不肯食一言之諾。逮示疾，一提其西方本願，遂能萬緣放下，怡然坐逝。豈非生平視師友如饑渴，故得享其報於臨行邪。爾祖既寂，至今思其冰霜凜烈之苦操，樂受鉗錘之虛志，猶足令人痛心酸鼻。繼志述事，責在爾躬，念之哉。世事虛幻，人命無常，當擴其眼界，勁其神慮，苦其身，毋墮宴安鴆毒坑。策其志，毋循將就苟且塗轍。汰奢窒欲，積行存誠，惜福延壽，以期於大成。爾誠靜坐默思，只此現前一念見聞之性，本非內外方隅，亦非有無情量，云何被此虛妄形質所局。虛妄形質，生必有滅。千般保愛，不能令其不朽。而所作幻業，如影隨形，從劫至劫，不肯相離豪傑之士。先須覷空，身形非我，不過假借四大所成。心亦無相，不過因於情塵，妄見生滅，便頓捨情塵，專心辦道，兼律兼教，助顯心源。但得悟心，萬法何有。萬法俱息，萬法俱備矣。

(示元印)立身行己之道，志欲剛，氣欲柔。志不剛不足成千古品格，氣不柔不足陶多生習氣。夫眾生所以淪苦海者，無他，任情適意，好順惡逆，不深求出要故也。書云，言逆汝，必求諸道。言遜汝，必求諸非道。為君尚然，況出世丈夫者乎。出世丈夫，以佛祖自期，以四弘為券，以六度萬行為家常茶飯，以自利利他為的。發一言，不足自利利他，勿言也。舉一步，作一念，不足自利利他，勿舉也，勿念也。事苟益身心，裨法化，必黽勉為之。雖劬勞困苦，勿恤也。否雖有浮名幻利，弗屑也。凝神定志，拓度虛懷，人皆可以為堯舜，滿街都是聖人，謂我不能成佛，是自棄也。知可成佛，而不肯力行佛行，是自暴也。不自棄則志剛，不自暴則氣柔。志剛則本立道生，氣柔則深造自得。志剛可上求佛道，氣柔可下化眾生。志剛可荷負眾生，氣柔可承事諸佛。易曰，天行健，君子以自強不息。用九，見群龍無首，吉。剛而柔也。地勢坤，君子以厚德載物。用六，利永貞。柔而剛也。剛柔合德，定慧力莊嚴，此世出世法之正印也。

(示念日)顯密圓通，皆以解行雙進為要。解者，達我現前一念心性，全體三德祕藏，與諸佛所證，眾生所具，毫無差別。十方三世，顯密契經。惟為發明此一念心性，達此一念心性，即顯密二詮之體，從此起於顯密二行。顯行依經修觀，廣如二十五圓通法門，略則惟心識觀，真如實觀，二種收盡。二十五境，各具二觀。且約耳根言之，先從徵心處破妄，惟心識觀也。圓解既開，即於聞中入圓通常流真如實觀也。密行亦具二觀，達字字句句無非法界者，真如實觀也。心無異緣專持此咒，悟知音聲如響，能持之心如幻者，惟心識觀也。由惟心識，進真如實密行成，顯行亦圓滿矣。

(示非幻)人能痛念生死事大，覷破一切世情，若順若逆，總虛妄不實，過眼便是空花，獨一念持戒禮懺，篤信三寶之心，生與同生，死與同死。而又專求己過，不責人非，步趨先聖先賢，不隨時流上下，庶幾信心日固，智慧日開，而生死可永脫耳。

(示本光)顯密二詮，理體無殊，功用亦等。須信五會真言，一字一句，無非全體三德祕藏。現前能持之心，介爾介爾，無非橫遍豎窮之性。乃至楮墨筆腕，一一無非法界。法界性不可改，即大定體。法界理不可昧，即不動智光。若念念與此定慧相應，便可謂常持如是咒百千萬億遍。若念念讀誦書寫此咒，便與性定本智相應，所以天龍矢護，菩薩常隨。今禪人發至誠心，刺血書咒，緣因誠非淺淺。緣因之體，即是正因。達正因者即名了因。三因不一不異，不縱不橫，大佛頂性，徹底現前，大涅槃果，元吾家故物矣。

(示淨禪)聽法須觀心，書寫須解義。然解義正不必強加穿鑿，亦不徒循章摘句。但至誠讀誦，展卷如對活佛，收卷如在目前，千遍萬

遍，淪骨浹髓，寤寐不忘。緣因既深，一十二千七百，無不一串穿卻也。得此消息，便知吾言不誣。

(示漢目)大佛頂首示真心，隨勸修直心。直心有事有理，理則正念真如，事則四威儀一切行中毫無虛假是也。末世禪和，不為生死大事，裝模做樣，詐現威儀，不真實學禪教律，徒記兩則公案，辨幾句名相，受三衣一鉢，以為佛法盡此矣。嗚呼，此何心哉。今止觀此一念假借佛法之心，出得生死否，成得佛祖否。又觀此念為在內外中閒諸處否，為從自生，從他生，為自他共生，為無因生。若一念虛假之心，既無生無體，無方隅處所，則妄想顛倒寂滅，而常住真心宛然呈露矣。是謂由事直心，以合於理直心也。其深思力研之。

(示毓悟)世人談及生死，鮮不悚慮，往往不能真為生死者，眼前活計放不下耳。然所以放不下者，祇不曾徹見生死之苦。以從來為俗為僧，皆向順境中捱過，故畏三界心，自然發得不真切。儻以遠大慧眼，曠觀無始輪迴，痛念此生，果從何來，死後當至何趣，前際茫茫，後際墨墨，饒鐵石心腸，必為驚怖，然後依正教，開圓解，起圓行，敢保十人有五雙到家。最懼因地不真，道眼昏暗，或為世味所牽，或為邪師偽法所誤，袈裟下失卻人身。此予所以俯仰時流，而寤寐永歎也。

(示解天)具參方志，尤須具參方眼。具參方眼，還須不忘參方志。參方志者，不為虛名，圖體面，博一知半見，發無上大菩提心，遍學一切法門，無厭無足。參方眼者，末世師匠，邪正難分，今自卓立，不論宗教，但與出生死相應，名利不相應，大菩提相應，眼前活計不相應者，則為正，反此則為邪。正則依，邪則捨。具眼不忘參方志者，本求無上菩提，雖邪正分明，不妄生憎愛，善吾師，不善吾資，但隨緣觸境，增長道心智眼而已。此本分中最要緊事，其餘叢林粥飯習氣，萬萬不宜沾染，亦不必厭惡也。

(示元賡)愚魯恐不精明，伶俐恐不篤摯。道雖從智慧領悟，尤從澄定體合。必向身心切近日用動靜閒沈細思察，方有真實開豁，當下受用。若於一切行門，不能作助修想，必捨煩取靜。方理經典，又於一切經典，不能隨文入觀，必掩卷趺坐。方理身心，一件事分作三項，不可語至道明矣。從緣薦得相應疾，就體消停得力遲。大乘法門，貴行住坐臥語言施為時薦取，見色聞聲嗅香嘗味覺觸知法處理會。薦取者薦其本自天成之性真，理會者會其出障圓明之妙體而已。性真妙體，不即一切法，不離一切法。試看只今語言動靜者，讀經看教，打坐思惟，妄想昏沈，惺惺寂寂者，畢竟是箇甚麼。咄，切勿認賊為子，切勿撥波求水，切勿作水中鹽味色裡膠青會。直恁麼薦取理會去。

(示緒筌)三界惟心，萬法惟識二語，人能言之，觸境逢緣，仍被境緣所轉。若實達惟心惟識，豈有心識外之境緣哉。且縱不達惟心惟識，境緣決定不離心識。如夢中妄計夢境為實，起欣起怖，而離夢心決定別無夢境。學人先須了達三界萬法種種境緣，實無心識外之別物。次推究此心此識，畢竟有何體性相狀。若現前心識實無體性相狀者，惟心所現三界萬法，又豈有少許體性，相狀可得也。心識不可得，名心寂三昧。心寂則色自寂，境緣不可得，名色寂三昧。色寂則心亦寂，心色俱寂，則無煩惱亦無菩提，無生死亦無涅槃。無凡無聖，一味平等，是謂心佛眾生三無差別。然後全性成修，企自心本具之佛道，度自心本具之眾生。如知水性冰性，同一溼性已。不於水外有冰，不於冰外覓水，而方便融冰成水，則念念常觀，即心即佛，而不起上慢，時時上求下化不倦，而總名無作妙德，無功用行矣。若捨此別商方便求工夫，乃至覓玄妙，是演若怖頭，醉兒索食也。或初心散亂多者，用數息法，如童蒙止觀所明，須了知息出息入，來無所從，去無所至。此息當體全空，舉體即假，仍非二邊，即是中道。所謂圓人用偏法，偏法亦成圓。又昏蓋重者不宜貪坐，須方便調停減雜事，減飲食，令神清氣定，則觀慧漸漸增明，昏散漸漸退舍。又學道如調琴相似，大緩則無聲，大急則弦絕。生死之心常切，求效之心莫生，先難而後獲，庶幾近之。若欲體達現前心識無體性相狀者，不出四性四運二種推法。四性推者，謂現前一念，設自生，不應藉緣生。既藉緣，心無生力。心既無生，緣亦無力。心緣各無，合云何有。合尚叵得，離云何生。故知心識實無生也。四運推者，觀此一念未生時潛在何處，欲生時何緣得生，正生時作何體相，為在內外中間邪，為方圓長短青黃赤白邪。生已無閒必滅，滅又歸於何處。三際覓心皆不可得，柰何於本空寂，妄計內心外境，起惑造業，枉受輪迴邪。然畢竟覓一能起惑造業受報者，元不可得。如醉見屋轉，屋元不轉，但吐卻一向妄計無明之酒，惑業苦三，當下永息。設口談空，無明不吐，如醉見屋轉，硬言不轉，併此不轉，亦醉語耳。且道無明酒作麼生吐。咄，要知端的意，北斗面南看。珍重。

(示映竺)超生脫死法門，不可以聰明湊泊，不可以意氣承當，不可以情見夾雜，不可以羴疏領會。先須專求己過，無責人非，見賢思齊，見惡內省，法法消歸自心，時時警策自心，將定盤星認得清楚明白，然後看經可，坐禪可，營福可。如眼目未明，存心未篤，則看經必墮口耳活計，坐禪必墮暗證深坑，營福必成魔家伴侶。縱福慧雙修，教觀並進，而我心未忘，能所日熾，其為修羅眷屬無疑，所宜慎思而密察也。

(示鏡衷)履三寶地，具出世儀，皆多劫善種，況聞正法乎。寧國一老者，種福五十餘年，求來世作燒火僧不可得，而聽經白鴿，轉身為戒環禪師，聞法功德超勝如此。人生幾何，少壯忽老，老忽烏有。且盛年夭橫者無數。一息才斷，孤魂無侶，生平惡業，無不隨身。何不趁早放下幻夢塵勞，勤修戒定智慧，息心達本源，乃號為沙門。不然，堂堂僧相，多劫勤修而得之，一旦藐視而失之，能無懣哉。

(示遙集)不能頓盡者，塵緣之累。不可暫忘者，出世之心。待無累而修行，何如藉修行而脫累。且塵勞逼迫，正可警悟苦空，磨礱情性。每見人冗中偷閒，吟詩習字，作種種清課，豈不能偷閒玩大乘，息心學定慧邪。彼於詩字得少幻味，未嘗於大乘定慧得真法味也。然縱不得味，亦為無上菩提而作種子。且幼時詩字，亦向不得味中來，安知佛法漸熏習，不於現身得受用邪。嗟嗟，人之精神，用之詩字，吾見右軍李杜，不出生死，用之佛法，吾見散亂豔喜，愚癡特迦，大事已辦。

(示沐苑)發心應學二事，一智慧，二慈悲方便。欲學智慧，莫若讀誦大乘方等經典，深解義趣，隨文入觀，不墮嚼木之譏，不招數寶之誚。又數近明師良友，討究決擇，不可師心自是。欲學慈悲方便，須深信一切眾生皆有佛性，定當作佛，見僧俗造惡者，勿生輕慢，須憐憫愛念，種種善巧而迴護接引之。儻恃己修，見不修行，便生忽慢，自持戒，慢破戒者，自讀誦大乘，慢無聞者，自解義，慢愚魯者，自觀心，慢口說者，人我山高，勝負情重，畢生勤苦，止成修羅法界，去菩薩道遠矣。

(示郭太爵)位別業殊，有不別不殊者在。君子素其位而行，以富貴貧賤夷狄患難，皆唯心所現。全攬法界為體，全體即是法界。法界橫遍豎窮，無少事少理趨過。所以無入而不自得也。佛頂二十五門，無一門非圓通，華嚴入法界品，無一法非解脫，各可就路還家，不勞取一捨一，故曰素其位而行，不願乎其外。一塵法界，即無邊法界，法界本來無外故也。雲搏之法界不大，蜩鳩之法界不小。以此解易，舉凡十界十如，權實之要，五時八教，施設之方，總入一卦一爻。卦爻之法界不少，界如權實之法界不多。故孔子曰，假我數年五十以學易，可以無大過矣。孔子傳千古聖賢心學，全以內自寡過者，為趨吉避凶之門，所謂無入而不自得也。箋釋者，固不必盡殉舊說，亦不必盡廢舊說。但虛其心，體其言外之旨，疏其文字之脈，始信宋儒之循行數墨，公輩之索隱立異，皆非孔之所謂學也。晦菴早富著述，晚乃悔，欲追泯之不可得。居士當讀韋編，至於三絕，必大有進者，更作一番筆削，不閱而知，其可行遠也。如切如磋，如琢如磨，請三復斯語。

(示靖開)三界之中，無非牢獄。暫時快樂，終歸無常。眾生燕雀處堂，罕思出離，惟逆境當前，庶幾生遠離之心。故佛稱八苦為八師，非虛語也。公冶長在縲紲而非其罪，聖賢不以為恥。世出世求無忝己躬而已。素患難行乎患難，婆藪仙人在地獄，化無量獄眾，發菩提心。遍融達觀憨山三大師，坐刑部牢時，勸牢中無量人，歸敬三寶，持齋念佛，或藉現生脫苦，或藉永出輪迴。惡因緣是好因緣，莫謂囹圄非自利利他地也。歸依三寶，奉持五戒，自念佛，勸他念佛，自斷十惡，勸人莫行十惡，自修十善，勸人同修十善。此十善法，雖下品為神因，中品人因，上品天因，而上上品則為羅漢支佛菩薩如來之因。黽勉修持，久而不替，不惟現災可脫，而無始三界牢獄，亦將從此永離矣。

(示靖聞)香山參鳥窠，直告曰，諸惡莫作，眾善奉行，三歲兒說得，八十翁行不得。從上諸祖，指點出生死法，最簡易明白，正不必金剛圈栗棘蓬為玄妙也。後世學人，偷心益多，祖庭方便益變。方便既變，而偷心又與之俱變，佛亦未如何已。馬祖初年，但云即心即佛。果知即心即佛，自然諸惡莫作，眾善奉行。果能諸惡莫作，眾善奉行，便知即心即佛。故知欲悟即心即佛，須是持戒念佛，戒持得淨，佛念得切，塵垢自除，光明自露。偈曰，

持戒便是平心，念佛便是直行。參得箇點玄關，不向鉢盂討柄。

若更者也之乎，失卻佛祖性命。

(示郭善友)佛法大海，信為能入，智為能度。若信心而乏智慧，未有不泣岐兩端者。佛言末世門諍堅固，億億人學道，罕有一人證果。惟依念佛求生淨土，可以橫超苦輪。昔有祖師，初但至誠禮法華經，拜至冀字，遂悟法華三昧。有誦法華人來壽昌禪師處請益，叱云，邪見眾生，不識好惡，法華便是禪，那別有禪可參。其人服膺而去，竟以持法華悟道。若深信念佛禮拜是佛祖真因，確乎不被時流所轉，便是大智慧光明，超登淨土，永無泣岐之患矣。

靈峰蕩益大師宗論卷第二之二

靈峰蕩益大師宗論卷第二之三

法語三

(示新枝)溫故知新，可以為師。所謂故者新者何物邪，天下莫故於現前一念之心，亦莫新於現前一念之心。惟故故隨緣而不變，惟新故不變而隨緣。若能頓達吾家故物，便可斬新條令，以菩提悲智為幹本，以六度萬行為新枝矣。

(示潘拱宸)三教聖人，不昧本心而已。本心不昧，儒老釋皆可也。若昧此心，儒非真儒，老非真老，釋非真釋矣。且喚甚麼作本心，在

內外中閒邪，過去現在未來邪，有無亦有亦無非有非無邪。果直知下落，百千三昧，恒沙法門，不啻眾星拱月。如或不然，堅持三歸五戒，以為緣因，時節若到，其理自彰。

(示惺白)佛法之衰也，名利熏心，簞鼓為事，求一真操實履者，殆不可得。有能持戒精進，讀誦大乘，不馳世務，縱道眼未開，亦三世諸佛所歎許也。況了必藉緣，非持戒讀誦，何處得有道眼。今講家多忽律行，禪門并廢教典，門庭愈高，邪見益甚。開士既精非時食戒，勤讀方等大乘，但於戒教二門，深造自得，鑿井不已，必得及泉，鑽木不息，必得出火，無勞更覓玄關也。觀經謂具諸戒行，讀誦大乘方等經典，皆上品上生。操此券以往，吾當攜手珍地華池，斯時憶及今日得悟不得悟之疑，當不勝破顏大笑矣。

(示宋養蓮)自性彌陀，惟心淨土二語，世爭傳之，不知以何為心性也。夫性非道理，無所不統。故十劫久成之導師，不在性外。心非緣影，無所不具。故十萬億剎之極樂，實在心中。惟彌陀即自性彌陀，所以不可不念。淨土即惟心淨土，所以不可不生。今有譬焉，北京聖王，即惟心之北京聖王也。然行道濟時者，必北上覲王。儻囂囂呖畝，縱伊周可治天下乎。故無論已悟未悟，皆要求生淨土，求見彌陀。未悟如童蒙之求師，已悟如孔子之求仕。上自文殊普賢馬鳴龍樹，下至蜎飛蠕動羽族毛群，唯此一事。此事第一要信得及，二要時時發願，三要念佛工夫不閒。三事具，至愚亦生。三事缺一，雖聰明伶俐亦不生也。其有謗此者，即謗三世諸佛菩薩。毗盧頂上，翻為阿鼻最下層矣。哀哉。

(示陸喻蓮)超生脫死，捨淨土一門，決無直捷橫超方便。而生淨土，捨念佛一法，決無萬修萬去工夫。近世盲禪，妄謂彌陀不必念，淨土不必生，儻伺鶻突，墮塹落坑。夫夜臥之頃，枕席不安，猶必安置，以三界火宅。而不思出離可乎。若漫云悟心之士，此閒即寂光。何不曰惡罵是稱讚，惡打即供養，糞穢即栴檀，塗炭是天宮寶殿乎。儻未能噉糞臥炭，則淨土決不可不生。設果能，亦豚豕雞犬耳。何若老實念佛，導之以信，要之以願，徑登九品蓮臺，與觀音勢至海眾為眷屬。迴視空頭惡見邪禪，博一時假祖師之虛名，墮萬劫拔舌犁耕之實苦，何啻雲泥也哉。莫論散心定心，只剋課程，終身不缺，日勤日切，淨土華蕊，晝夜增榮矣。

(示彙宗)世閒學問，義理淺，頭緒多，故似易反難。出世學問，義理深，線索一，故雖難仍易。線索非他，現前一念心性而已。古云，立一心為宗，照萬法如鏡，能觀心性，則具一切佛法。且如此心，不在內外中閒諸處，亦非過去現在未來，亦非自生他生共生無因緣生，豈非即空。而十界十如，三千性相，炳然齊現，無欠無餘，豈非即假。心外無法，法外無心，於其中閒，無是非是，豈非即中。

迷此一念即空，則為六凡。迷即假，則為二乘。迷即中，則為別教。惟悟現前一念，當下即空假中，則十界無非即空假中，不於九法界外別趨佛界，亦不於佛界外別有九界，是謂三千果成，咸稱常樂矣。向此薦取，方知千經萬論，咸非心外施設。勉之。

(示可生)佛法不出唯心真如二觀。蓋一切色心，依正假實諸法，無非仗因托緣而生，皆是依他起性。不了依他，妄計實我實法，即名遍計執性。了其如幻，有即非有，體惟一心，即名圓成實性。今唯心識觀，於依他達其遍計本空，而真如實觀，祇二空所顯理性而已。大佛頂最初七處徵心，乃直破遍計，明其本空也。次十番辨見，廣歷陰入處界會理，乃就依他起上，破其遍計餘執也。次定耳根為所觀境，明其本圓通常，乃就依他起上，顯其圓成本具也。然設不向前文破執開解，則圓通常性甚易而甚難。故南嶽大乘止觀，誠初心不得即觀圓成實性。惟以四性簡責，深達遍計本空，依他如幻，一念觀成，轉令餘念自然契實。實心繫實境，實緣次第生，是則前念為能觀，後念為所觀，故能坐斷妄源，無以波逐波之失耳。

(示素風)學不難有才，難有志。不難有志，難有品。不難有品，難有眼。惟具超方眼目，不被時流籠罩者，堪立千古品格。品立則志成，志成才得其所用矣。末世競逐枝葉，罕達本源，誰知朝華易落，松柏難彫。才志之士，柰何甘捨大從小哉。莫大於現前一念，誠能直下觀察，知其無性，則決不妄認四大為自身相，六塵緣影為自心相。身心二妄既消，不真何待，然後以此真解歷一切法，俾盡淨虛融，無塵影垢習可得，還淳復素，道風豎窮橫遍矣。但一念未瞥，使百年活計縈懷，眼下虛名惑志，吾恐天真日漓，負美才好志不淺也。

(示行恕)儒以忠恕為一貫之傳。佛以直心為入道之本。直心者正念真如也。真如無虛偽相，亦名至誠心。真如生佛體同，亦名深心。真如遍一切事，亦名回向發願心。此三心者，即一心也。一心泯絕內外謂之忠，一心等一切心謂之恕。故曰心佛眾生，三無差別。果達三無差別，欲一念自欺自誑不可得，欲一念自私自利亦不可得，欲一念自分自局尤不可得矣。

(示吳而上)性靈不可以有無求，斷常取。由無始妄認四大為自身相，六塵緣影為自心相，所以耽著有常。及聞非有非常，又轉計斷無而生恐怖。不思恐怖斷無者，畢竟能斷無否。又恐怖者，念念生滅，無體無隅，畢竟可喚作常有否。由是觀之，終日在妄之性靈，即終日恒真之性靈。一向迷己為物，認物為己，曾未覺耳。試思假借四大以為身，則身非實我。心本無生因境有，則心亦非我。無始妄計之身心既俱非我，更有何物可為我者。此超常有邪見也。而知此無我者，畢竟不可斷滅，此超斷無邪見也。然但除常有我執，則不斷

不無之性靈法爾現前，更不勞以心覓心。如以眼覓眼，設可見者，決非己眼，設可得者決非己心。但盡凡情，別無聖解。有除翳法，無與明法也。

(示淨堅優婆夷)極聰明人，反被聰明誤，所以不能念佛求生西方。而愚人女子，反肯心厭娑婆苦，深求出離。當知彼是真愚癡，此乃大智慧。好惡易分，莫自昧也。每見儻侗瞞肝大言欺世之假善知識，遇著老實念佛的樵夫農婦，亦教參禪，推來拽去，自供撫掌。此輩老實人，認作誠實，破壞善根，究竟參又參不來，念又念不熟，腳跟不穩，心事徬徨。噫，亦可慘矣。吾勸汝咬釘嚼鐵，信得西方及，切切發願，持戒修福，以資助之。無禪有淨土，萬修萬人去，但得見彌陀，何愁不開悟。此千古定案，汝不須疑。彼無恥邪師，敢誣先聖，輒肆翻案，祇益露其惡見耳，何嘗翻得古人定案哉。

(示徐仲弢)居士習氣，不在名利，但心羶氣浮為累。果觸事十思，深入菩薩微細智網，不患不能出世也。

(示方爾階)念佛法門，雖該羅八教，圓收無量百千三昧。而下手之方，又最直捷痛快。蓋凡念相好念法門念實相等，固先開真解，然後下手，萬無夾帶疑情之理。只今持名一法亦止驀直持去，不用三心兩意，深信淨土可生，發願決定往生。以持名為正行，以六度等為助行，萬修萬人去，斷斷可保任者。若一點好勝之心，涉入參究，謂為向上，則腳跟不穩，禪淨兩失之矣。智者不可不決定其所趨也。

(示王思湖)菩提種子，人人有之。因自暴自棄自畫，使無量功德善根，枉作人天生死資糧。摩尼寶珠，貿一衣一食可惜也。吾人與三世諸佛同一心性，同具六根，何有分毫欠缺。但肯一念發菩提心，誓成佛道。則今所作所為，無非稱性功德，不必改弦易轍後謂修行。祇須恁麼信去，漸積功德，成佛無疑矣。

(示張子歲)今人畢世咿唔於致知格物之旨，曾未究心，可謂好學邪。孔子亟稱顏回好學，唯以不遷怒不貳過兩語為之寫神。此了心外無境，深達唯心識觀者也。儻見心外有一物可當情，則物不格，知不至。而過之貳，怒之遷，必已甚矣，安有不遠之復。

(示夏恕菴)諸法如夢，妄計為實，而生苦樂，所以歷劫自縛。然正憶時，不必強令不憶，祇返觀此憶念心，畢竟是箇甚麼，看來看去，看得一場懣懣，無始恩愛，不知何處去矣。著眼。

(示自若)佛法盛時，人爭務實。逮其衰也，眾咸競名。實，故超生死證菩提，名，必增人我長魔業。志士不可不熟審也。現前一念心性，在凡不減，在聖不增。然迷之則為凡夫，悟之則為聖人。其人迷，縱稱為聖，何救於迷。其人悟，縱貶為凡，何損於悟。虛名不足重輕明矣。善學道者，先觀毀譽紛然，而迷悟自若，則不以毀譽

二其心。次觀迷悟條然，而心性自若，則不以迷悟惑其見。不被迷悟二字所惑，於本分事稍有相應分耳。

(示巨方名照南)諸法無性，盡隨心轉。心為名利，一切趨名利。心為菩提，一切趨菩提。故曰地獄為法界，乃至佛為法界，是趨不過也。善財發菩提心，廣歷百城，隨其所向方盡稱南。定盤星正，無往非南方耳。惡王姪女，苦行弄沙，世人觀之，何嘗不作惡法會。今未嘗無暴虐王，豔異女，炙身婆羅門，聚沙諸童子。若以善財眼視，非即真善知識哉。所以真正發心人，觸境逢緣，待人接物，一切作佛色佛聲佛香佛味佛觸佛法想，則念念與薩婆若海相應，不必商量修證工夫，而妙在其中。若捨目前佛境界，別問蒲團上觀心法要，含元殿裏更覓長安，身在海中反致渴死，由不達妙止妙觀，取諸左右逢源故也。請以此根本智光，照方盡南，始信一一微塵，各具大千經卷，塵塵皆巨方矣。

(示聞覺)現前一念聞性，本圓通常，祇不自覺耳。誠向靜居，聞十方時，識取本圓，隔垣聽音響時，識取本通，聲生聲滅聞不生滅處，識取本常，則信吾人現行業識，即諸佛不動智光。耳根既爾，餘根亦然。六根既爾，塵識亦然。塵塵法法，罔非圓通常。是謂耳門圓照三昧。豈離吾人現前一念，別有觀音所證法門哉。怎麼覺得，則三十二應，十四無畏，四不思議無作妙德，一皆性具力用。貧女寶藏，本自有之，非外得也。但諦思而深會，無邊法藏，列祖機緣，同條共貫，無岐指矣。

(示爾階)四念處者，佛法之總綱，偏圓權實靡不由之，出生死要路，成菩提通塗也。一身念處，二受念處，三心念處，四法念處。身受心法，指果報五陰，即苦諦也。不了虛幻，妄起常樂我淨等計，即集諦也。了了觀察，知其不淨苦空，無常無我，亦如幻化，亦惟假名，亦即法性，即道諦也。不起常樂我淨四倒，不招分段生死，不起無常無樂無我不淨四倒，不滯偏真涅槃，不起亦常亦無常，亦樂亦苦，亦我亦無我，亦淨亦不淨雙四倒，不招真常流注，不思議變易生死，即滅諦也。故勤修四念處，則見四四諦矣。觀身不淨等，見生滅四諦。觀身如幻等，見無生四諦。觀身假名無性緣生遍造十界等，見無量四諦。觀身法性即實相等，見無作四諦。故維摩云，觀身實相，觀佛亦然。毗舍浮佛云，假借四大以為身，心本無生因境有，前境若無心亦無，罪福如幻起亦滅，諦信審觀，不患不立地成佛也。

(示世聞)禪教律三，同條共貫，非但春蘭秋菊也。禪者佛心，教者佛語，律者佛行。世安有有心而無語無行，有語而無行無心者乎。今之學者，不惟分門別戶。縱發心遍學，曾不知其一以貫之。所以一入律堂，便將衣鉢錫杖為標榜。一入講席，便將消文貼句為要務。

一入禪林，便將機鋒轉語為茶飯。迨行腳十廿年，築得三種習氣飽滿，便思開一叢林，高踞方丈，自謂通禪通教通律，橫拈豎弄，七古八怪，騙惑愚迷，牢籠世智。及以真正佛心佛語佛行覈之，鮮不公然背者。此無他，最初參學，既不具正眼，又不具真正大菩提心，又不具真正為生死心故也。不為生死，決不能發起大心。不發大心，決不能開發正眼。欲真為生死，別無他術，須識三界無非是苦，現在身心便是苦具。不知苦故，重造苦因。今以四大觀身，四蘊觀心，了知無我我所，祇緣迷惑，枉受輪迴，深生慚愧，猛求解脫，此即真實為生死心。而又了知心佛眾生三無差別，諸佛已悟，眾生尚迷，我今既知此理，誓與眾生，同證正覺，此即真正大菩提心。發此心已，又知設有一事不合佛行，一言不合佛語，一念不合佛心，則不足自利利他。三千威儀，八萬細行，皆磨礱真性之具，斷不在衣鉢錫杖閒。便應洞明作犯止持，及開遮方便，方成佛行。十二分教，三乘聖典，皆指點心性之詮，斷不在名句文身閒。便應痛究偏圓權實，及體宗力用，方解佛語，拈花豎拂，種種機緣，皆點鐵成金方便。斷不可落識情卜度邊，便應直下覓心，了不可得，不於心外商量古人公案，方契佛心。夫佛心己心，豈有二哉。觀現前一念心了不可得，不復誤認緣影為心，方知一切諸法，無非即心自性。既知一切法皆即自心，則佛心亦即自心。既知佛心即是自心，則佛語佛行，何獨非自語自行乎。不於心外別覓禪教律，又豈於禪教律外別覓自心。如此則終日參禪看教學律，皆與大事大心正法眼藏，相應於一念閒矣。豈以枯禪默照為觀心哉。

(示未學)一切諸法，本自不有，不過自心所現。眾生迷惑，妄起計著，究其大病，祇因迷己為物，又復於中認物為己。所謂妄認四大為自身相，六塵緣影為自心相，此即無始生死根本也。邇來稍解佛法者，縱知四大非身，全不知緣影非心。不思緣影便是一物，何能靈妙常知哉。然正認緣影時，緣影元非心，而妄認緣影者，元未嘗不靈妙常知，離諸戲論也。但覷破一切所知境界，無論真妄有無，皆自心相分。而能知之體，究竟了不可得。如眼決不自見其眼，亦決非無眼。心不知心，亦復如是。由眼故見一切物，由心故有一切法。一切法皆不是心，而離心無一法如微塵許可得。但恁麼體達去，無有一法是心，更無一法非心，久久純熟，便到心法一如境界，亦無能到所到。思之思之。

(示智可)生死大事，人皆有之。惟顛沛患難中歷過，倍應親切。乃有歷苦難而生死心仍未切者，虛妄我執，情計深厚，埋沒本有智光故也。然本有智光，豈可埋沒。日用動靜，嘗在我執情計中。躍躍欲露，人不肯冷眼一覷破耳。誠向虛妄我執中，努力冷覷，畢竟何物是我，何人計我，覓我於四大五蘊中，既不可得，覓一能計我者，

於四大五蘊外，又不可得，能計所計不亦當體空寂也與。唯其當體空寂，而橫生計著，所以背覺合塵。若知正橫計時，仍未始不當體空寂，豈不當下背塵合覺。嗚呼，迷則全覺成塵，悟則全塵歸覺。塵之與覺，其性不二。背無可背，合無可合，非背合而論背合，不深於教觀者不知也。然非念念反觀身心理性，亦決不能深入教觀。或有聞無慧，執火自燒。或有慧無聞，操刀反割。真為生死者，放下眼前活計，痛除無始惡習，以心印教，而不為虛言。以教印心，而不為暗證，雙超禪教兩弊，為智人所可已。

(示字泊)宇宙無非旅泊，而泊宇內者，畢竟是甚麼人。五蘊身心，邸中幻物，喚作自己不得。然離身心，又喚何物作己。謂無豈不斷滅，別有與神我何異。經云，見與見緣，并所想相，如虛空花，本無所有。此見及緣元是菩提妙淨明體，透此雙超斷常二見，便知現前一念，離過絕非。便知宇內外一切物，泊今一念妄想心中，猶浮雲之在太虛，是謂不被物轉，便能轉物。回視妄認四大為身，緣影為心，復生厭離，必出此三界乃歸家者，何啻日劫相倍而已。偈曰，

宇宙泊在吾心，吾心本無所泊。一任亂想昏沈，本有靈明如昨。

彩雲端見仙人，豈被手扇遮卻。不遮卻，耆婆童子空摸索。咄。

(示恒慈)慈之名一，義有三，生緣慈，法緣慈，無緣慈也。慈之義三，體惟一，謂佛性也。佛性體恒不變，生佛不殊。達此佛性，便成三慈。有人於此。起惑造業，破戒犯法。菩薩見之，了知善惡從因緣生，如幻而有，既造幻因，必招幻果，誓拔其幻因幻果之苦，與以幻滅之樂，是生緣慈。又知此善惡法既從緣生，便無實性，當體本空，不了本空，枉受輪轉。今自了本空，亦令他覺了本空，拔不了苦，與了空樂，是法緣慈。又知此善惡法，緣生無性，無性緣生，其體不二，即是實相。不了實相，妄墮二邊。善了二邊，罔非實相。拔其非邊計邊之苦，與以即邊即中之樂，是無緣慈也。說雖次第，行在一時。常不輕菩薩所行法華三昧，乃恒慈三昧也。

(示七淨)大佛頂經云，眾生生死相續，皆由不知常住真心。性淨明體，用諸妄想。此想不真，故有輪轉。試問妄想畢竟是箇甚麼，在內邪，在外在中間，乃至一切無著邪。若七處徵窮，都無是處，非楞伽所謂妄想無性邪。妄想既本無性，如何而可用邪。既無妄想可用，又云何有流轉邪。果即現前一念妄想，痛究其源，究至當下無性處，便知離真心，別無妄想可得，如水外無波。離妄想別無真心可覓，如波外無水。但破遍計，則依他起上，即顯圓成。開口處討得清楚，十卷文義皆清楚矣。豈效群盲摸象，展轉訛亂哉。

(示蕊幢)人知種種光明蕊香幢，安住無邊香水海中。亦知香海住太虛，太虛住吾人一念妄想心中乎。妄想不生，虛空何有。虛空消

殞，香海安存。香海本空，喚甚麼作蕊幢。咄咄，切莫作斷滅會，切莫作海印炳現會。待汝真打失鼻孔時，再來蕩益道人手裏領痛棒。

(示達心)經云，三界無別法，惟是一心作。畢竟心是何物，能作三界諸法邪。若是一物，既成一物，何能遍作諸物。若畢竟非有，自既無體，又何能遍作諸物哉。如無水決無波，然水既舉體作波矣，捨波別覓水體可乎。於波中分別何波是水，何波非水，又可乎。亦如幻事，無巾則無兔馬，然巾既舉體作兔馬矣，捨兔馬別覓巾體可乎。即謂兔馬為巾，又可乎。更謂兔馬本無，并巾亦無，又可乎。心法不一不異，亦復如是。自其不變隨緣者言之，心既舉體為依正，為名色，為凡聖矣。依正名色凡聖法外，別覓心性如毛頭許，胡可得也。依正名色凡聖法中，別認如毛頭許以為心性，亦胡可得也。指諸法為即是心。胡可得也。諸法為非是心。亦胡可得也。說依正名色凡聖諸法無量差別。心亦無量差別。胡可得也。心無差別。諸法亦無差別。又胡可得也。說依正名色凡聖諸差別法。不即無差別心。無差別心。不具諸差別法。胡可得也。說心外實有依正名色凡聖諸法。胡可得也。諸法俱非實有。心亦非有。又胡可得也。此皆不變隨緣之理。當下離過絕非者也。自其隨緣不變者言之。既舉心性全體幻成依正名色凡聖諸法。於中隨舉一法。無不仍是心性全體大用，如舉水作波，無一一波非水之溼性。舉金作器，無一一器非金之堅性貴性。又如舉日輪全體，光射一隙，無一一隙中不具見日之全體大用者也。由此言之，事事無礙法界，原在吾人日用閒頭頭爾，法法爾。豈必高推聖境，謂凡夫絕分哉。只此妄謂凡夫絕分之情見，亦仍不可思議，亦是法界全體大用。以不在內，不在外，不屬過去現在未來，不可謂有，不可謂無故，如燒糞埽火，即燒栴檀火，亦即遍燒大地之火。故知凡夫情見，即出世智慧之體，亦即諸佛根本不動智體。設無此情見，亦無出世智不動智矣。情即智體，業即解脫，苦即法身，亦復何疑。如拳即手，冰即水，華即空，蛇即繩，繩即麻，如是了達，方名達心，亦名達一切法，亦名無達無不達，雙照達與不達。如是達得，便能特立千古，決不被眼前活計所區局矣。

(示劉今度)上品上生三種人，首云慈心不殺具諸戒行。蓋戒為萬行總都，而慈心不殺，又為戒行先務。以此圓發三心，何土不淨哉。三心者，直心正念真如，名至誠心。顯法身德，樂集一切功德，名深心。顯般若德，弘誓無盡，名回向發願心。顯解脫德，戒亦有三，攝律儀戒，無惡不斷，即成法身。攝善法戒，無善不滿，即成般若。饒益有情戒，無生不度，即成解脫。慈亦有三，生緣慈，不殺生緣，觀一切眾生皆我父母兄弟六親眷屬也。法緣慈，不殺法緣，

觀一切地水是我先身，一切火風是我本體也。無緣慈，不著我緣，觀現前一念佛性，無所不遍，十方三世有情無情，同一覺體，無二無別也。念念修此三慈，即淨三聚。三聚戒淨，三心即具，上品上生無疑矣。又觀行三心，能生上品凡聖同居淨土。相似三心，生上品方便有餘淨土。分證三心，生上品實報莊嚴淨土。究竟三心，生上品寂光淨土。永嘉誰無念，誰無生，若實無生無不生。金剛應無所住而生其心。一切賢聖皆以無為法而有差別，此之謂也。

(示穎生)大慧禪師禮觀音文，最有靈驗，妙在行之密而且恒。若不密不恒，雖至聖亦何由無感輒應也。凡頂禮之法，靜夜時，先於像前燒香供養，精持大悲神咒三五遍，以淨壇。次合掌對像讀讚觀音文一遍。次至誠頂禮千手千眼大慈大悲觀世音自在菩薩摩訶薩，三十二拜，乃跪誦觀音文回向。如此行去，勿與人知，三年不輟，必得靈應。隨其根行，所發戒定慧三品，各各有上中下不同，將藏中法華三昧修證之相，細自簡察，庶不墮魔事。

(示馬堯都)世衰道微，由聖學不明。聖學不明，由功利惑志。不有豪傑振其頹，吾恐孔顏真脈不墜地者，幾希也。豪傑，不過念念以聖賢自待，見賢思齊，知過必改，訥於言而敏於行，友直友諒友多聞，樂節禮樂，樂道人之善，樂多賢友，發憤忘食，樂以忘憂。如此用心，而不優入聖域，吾不信矣。下手直捷方便，莫如致良知。夫知善知惡，猶眼知色，鼻知臭，非不學而知哉。知善而不能如好好色，知惡而不能如惡惡臭，非不致其良知哉。有良知而不肯致，則為自欺，自欺即自暴自棄。若能如惡惡臭，如好好色以致之，即是自慊，自慊即意無不誠。意無不誠，欲不謂之大聖大賢不可得矣。故曰，欲誠其意，先致其知。誰謂致良知外，別有誠意功夫也。然致知又在格物，故陽明云，為善去惡是格物功夫。至於如惡惡臭，如好好色，則可謂格物而物格，物格而知至意誠矣。昔張子韶未悟物格之旨，大慧師曲示之迺悟。蓋三界因果，一切惟心，心外無物，故名物格。非大慧不能曲垂方便，暗擊旁敲。非子韶不能因指見月，頓領深旨。儻向此薦取，則不負靈山親囑。亦如孔子之於春秋，孟子之於戰國，不必得君行道，而萬世聖學絕而復續，豈非豪傑本分中事哉。堯都堯都，勿以予言為河漢也。

(示玄著)佛知佛見無他，眾生現前一念心性而已。現前一念心性，本不在內外中間，非三世所攝，非四句可得。只不肯諦審諦觀，妄認六塵緣影為自心相，便成眾生知見。若仔細觀此眾生知見，仍不在內外中間諸處，不屬三世，不墮四句，則眾生知見，當體元即佛知佛見矣。儻不能直下信入，亦不必別起疑情，更不必錯下承當。只深心持戒念佛，果持得清淨，念得親切，自然驀地信去。所謂更以

異方便，助顯第一義也。此棒打石人頭，曝曝論實事。若要之乎者也，有諸方狐涎在，非吾所知也。偈曰，

眾生知見佛知見，如水結冰冰還泮。戒力春風佛日暉，黃河坼聲震兩岸。切莫癡狂向外求，悟徹依然擔板漢。

(示爾先)仁者先難而後獲。夫欲明明德於天下，最先格物，格物非事之最難者邪。乃大慧示子韶，但知格物不知物格，舉斬像落頭事，子韶乃悟。噫，古人但知格物之難，而不知物格之易也。今人但知物格之易，而不知物格之難也。請更以一事證之。皋亭永慶寺有化主明澈，往海岸一菴，與彼主人共榻。主夢賊至，大呼撲賊，明澈被打，驚呼助撲，鄰聞急來救，則二人各謂打賊，結手不放。既見火光，大笑而臥。此格物邪，物格邪。知此義者，則知大慧所點子韶所悟，物格而後知至，乃至天下平不難矣。

(示清聞)剷除習氣，莫若三業行慈。三業行慈，則無十過。十過既除，十善斯在，而五乘之本立矣。然後以實相印之，法法皆歸佛道。古有行之，常不輕菩薩是也。初隨喜品，便淨六根，何俟誦說，方名深觀。果能以慈修業，自能善入佛慧。不然，學問愈多，我慢愈熾，習氣愈長，去道愈遠。惟益多聞，增長我見，可懼也。

(示松石)佛種若有，何勞從緣方起。若本無，緣又何能起之。設謂亦有無，豈不相違。縱謂非有無，終成戲論。假使離卻四句，又墮第五不可說句中，作麼生是入道之機。不見道，恁麼也不得，不恁麼也不得，恁麼不恁麼總不得。雖然如是，不得一向。苟知不可說句之非，則知有因緣故亦可得說。謂有可，如鏡有像性故。無可，鏡中元無像故。亦有無可，鏡像緣至則現，緣去則無故。非有無可，鏡像現而無實，無而能現故。識佛種圓離四句，而圓照四句，從緣起處，不辨自明矣。古有熟讀三千部之勤，後收曹溪一句亡之效。迷時法華轉，即悟時轉法華之緣也。苟懲依文解義之迷，便離文字別求解脫，加於迷一等矣。

(示蒼牧)二死大海，戒為舟楫。欲受戒品，尤以發菩提心為本。蓋菩提心，正出世戒體。大小律儀，則菩提心之相也。發出生死心，降伏愛見，是聲聞戒體。發上求下化心，自調調他，是大乘戒體。發生佛體同平等普度心，是最上乘戒體。既發心已，專精護戒，微細無虧，即三乘正行也。持戒不發心，止得世間樂果。發心不持戒，難免三塗苦輪。故須本末兼舉，始終一致，方能保任解脫，名波羅提木叉。不然，有目無足，有足無目，何能速到清涼池哉。

(示聽月)學問之道，求其放心。心是何物，求者何人。覓心了不可得，祖許云，汝安心竟。即能推者為心，佛咄云，此非汝心。宗教釋儒，一邪異邪，同邪別邪。於此瞥然會去，正好向山僧座下讀上大人。如或不然，不免再下註腳。中論偈云，諸法不自生，亦不從

他生，不共不無因，是故知無生。諸法者，廣言之百界千如，略言之佛法，眾生法，心法也。雖心佛眾生三無差別，但佛法太高，生法太廣，初機之人，觀心為易。但諦觀現前一念介爾之心，若自生何藉境，若他生何關自。各既不生，合云何有。合尚叵得，離何能生。仔細簡責，心之生相安在。心既無生，豈非覓不可得。心不可得，豈可喚作一物。心既非物，求豈有人。無物無人，何收何放。盡大地是箇自己，心外更無別法。方知萬物皆備於我，十方虛空悉消殞，皆不得已而有言，言所不能盡也。

(示自天)真為生死，固不得遠師友妄自師心，亦不得單恃夾持，不深自操履。必有善財之志趣力量，方能收百城知識之益。有常啼之堅固勇猛，方能受法上菩薩之經。苟無出格超方手段，但欲如葛依松，蠅附驥。正法時或可濟事，丁茲末運，鮮不空過一生者。況葛可依松，松不能俯就於葛。蠅可附驥，驥不能停待於蠅。進退深思，宜如何努力。以無負此為生死心也。儻必謂力弱膽怯，不堪致遠，更聽一偈，晝夜彌陀十萬聲，畢生莫起宗教想。直送心歸極樂邦，蓮蕊珍池立地長。任他笑我是愚夫，行尺從來勝說丈。他年驀上願王舟，善財常啼同撫掌。

(示日唯)世出世法，皆解行相須。解如奕棋眼，行如奕棋子。有子無眼，著著皆死棋。有眼無子，喚棋盤作眼可乎。孔子曰，吾道一以貫之。曾子曰唯。此指活棋勢也。曾子忠恕二字，此於一局活棋中，指點做眼之高著也。金剛般若，指活棋勢云，應如是住，如是降伏其心。唯然世尊，又於一局活棋中指點高著，一則云，有持戒修福者，於此章句能生信心。一則云，以無我人眾生壽者，修一切善法。此忠恕之旨，而學般若者，於心枰中下手方便也。當知五度如子，般若如眼。有五度無般若，恕而不忠，棋死矣。錯認般若而廢五度，則不忠不恕，破壞心枰，無處下手，安問般若智眼哉。

(示開一)儒云吾道一以貫之，又云執一賊道，舉一廢百。內典云，達得一，萬事畢。又云，是一非餘，是為魔業。嗟乎，一豈有定法哉。得鳥者網之一目，不以一目廢眾目。收功者棋之一著，不以一著廢眾著。一切法莫如法華妙，而法華能妙一切法，不離一切法別為妙也。一切法莫與般若等，而般若能等一切法，不離一切法獨無等也。末世祇圖鼻孔撩天，不顧腳跟著地。祇喜說妙說玄，高提向上，全無真操實履，下學工夫，言居佛祖先，行落凡愚後。既未知為實施權，權是實家之權，又烏知開權顯實，實是權家之實。法友鑒此，向一實地中，廣開三學萬行，所開雖廣，無一非實也。

靈峰蕩益大師宗論卷二之三

靈峰蕩益大師宗論卷第二之四

法語四

(示曇生方丈)境緣無好醜，好醜起於心。愚人除境不除心，至人除心不除境。心既除矣，境豈實有。達境本空，便能素位而行，不願乎外。以所歷位，無非無外之法界也。知皆即法界，自無入而不自得。稍或未然，則富貴能淫之，貧賤能移，夷狄患難能屈之矣。孟子論素位而行，則曰，居天下之廣居，立天下之正位，行天下之大道。其在吾門，則曰，入如來室，坐如來座，著如來衣。要之皆不為物轉，方能轉物也。

(示智林)大般若云，三十二相無別因，皆由持戒所得。若不持戒，尚不能得野干之身，況復佛身。大佛頂云，因戒生定，因定發慧，則名三無漏學。縱有多智禪定現前，若不斷婬，必落魔道。若不斷殺，必落神道。若不斷偷，必落邪道。若不斷大妄語，如刻冀為栴檀，欲求香氣，無有是處。戒之關係大矣。

(示旭生)一切罪中，疑罪為最。一切功德，信為其首。信則不疑，不疑則直下承當。直下承當，則不自暴棄。不自暴棄，則不敢暴棄人。此常不輕所以通禮四眾，速淨六根者也。便恁麼信去，譬如日出先照高山，何俟四十年淘汰，方入佛慧哉。

(示明一)達得一，萬事畢，一果何物哉。設以事物為一，事物且紛然不齊矣。設離事物而別談一理，理復安在。若謂如空，亦是物也，非理也。若謂非事非物亦非虛空，不幾龜毛兔角乎。故知真明一者，事事物物，何莫非一。苟迷事物之源，妄計別有一理，此理亦事物影像而已。計事物者，一重虛妄，別計事物影像為一理者，乃妄重加妄，謬之謬矣。諸佛哀之，特與道破曰，妄想無性。祖師悟之，特與發明曰，覓心了不可得。此明一者之晨鐘也。

(示屈遠)一心三觀，必以空為初門。以無始妄認六塵緣影為自心相，未有真知妄想無性者。尤以戒為基。人無遠慮，必有近憂。勿如火燒眉毛只圖眼下也。

(示大觀)登泰山而小天下，觀海難為水，此世閒大觀也。反觀父母生身如海一漚，起滅無從，十方虛空生心內，猶如片雲點太清裏，此出世大觀也。善財入普賢毛孔，一念舉不可說步，一步過不可說剎，經剎塵劫，不得毛孔中世界邊際，一毛孔一切毛孔亦如是。且道世閒邪，出世閒邪，大觀邪，小觀邪。咄，逢人切忌錯舉。偈曰，

大觀小觀，剎海毛端。兩箇五百，元來一千。恁麼會去，畢竟可憐。

參。

(示幽若)十界差別，無多差別也。正因理體同，了因解性同，緣因業用同。不同者，幾希之一念耳。一念背覺合塵，法身般若解脫即苦惑業。如暗觸寶，傷皮破骨，豈寶之罪哉，但庶民去之耳。一念背塵合覺，苦惑業即法身般若解脫。如善用寶，四事豪適，乃顯妙寶之功。故曰，君子存之。顧念惟緣生，豈有實法。達緣生一念，性空無體，是謂真存，總不離乎幾希者近是。

(示石友)念佛求生淨土，乃一門圓攝百千法門，非舉一廢百也。但必一門深入，念佛為正行，餘一切戒定慧等為助。正助合行，如順風之舟，更加板索，疾到岸矣。念佛之法雖多，持名最為簡便。持名之法亦多，記數尤為穩當。真操實履之士，豈求異愚夫愚婦哉。

(示無己)無始來妄認有己，何嘗有實己哉。識得妄己本無，則淨土不期生而自生，淨戒不期持而自持。此先悟後修之旨也。或未頓悟，亦不必作意求悟，但專持淨戒，求生淨土，功深力到，現前當來，必悟無己之體。悟無己，即見佛，即成佛矣。

(示卓飛)聿彼飛隼，先卓然自立，後奮然高鶩。卓者可與立之謂。飛者可與權之謂也。吾門則先自利，而後利他，戒定慧三學是已。三學具足，不期喻人，人已孚化，動之以禮，其身正不令而行也。然尤以戒為初基。持戒者，非三衣一鉢之標榜，錫杖皂襪之混淆也。貴精明開遮持犯，使性遮二業，悉如冰霜，然後六情不馳騁於六塵，而念處可思修耳。身受心法名處，不淨苦無常無我等觀名念。以念緣處，即定之慧。以處繫心，即慧之定。定慧具足，方稱妙戒。由此言之，戒不惟初基，復該究竟三乘。七眾律儀，隨一真修，皆二利之具。不必高掛菩薩比丘之名，而後為尊勝也。

(示止生)心性照而常寂名止，寂而常照名觀。故稱性而修止觀，全修在性，非造作也。末世不能通達文字，被文字縛，如癡狗吠聲，才聞止觀二字，便謂是工夫，不是本體。詎思離本體外，那有工夫。離工夫外，那顯本體。本體工夫，不一不異。寂照定慧，何性何修。況諦觀一念昏散之性，畢竟是誰昏散。則終日昏散而未嘗昏散者，即終日圓覺，而未嘗圓覺者也。未嘗昏散而終日昏散者，即未嘗圓覺而終日圓覺者也。夫昏擾擾相，與寂照違，猶不離本體，止觀可云非本體乎。

(示恒素)時人有二患，一作輟有始無終，二矯飾外美內弊。然外美者誣世，是尤足患也。夫二既是患，則恒與素，真良藥矣。互古今而一如曰恒，統十界惟實相曰素。由素而恒，此又入手最要之門。一洗假宗假教假律之弊，千古有一人知其解者，旦暮遇之矣。

(示見徹)法法頭頭，無非至道，人見不徹耳。今受根本五戒，祇須住於戒中，明見佛性。五戒之體，固是無作法身。五戒之相，一一無

非法界。慈良清直，正見昭明，念念圓滿無上功德。奚必吹毛拈拂，方稱向上哉。

(示淨鄉)四不壞信，尤從戒始。蓋昏塗寶炬，示人以何路可行，何路不可行，何路超生脫死，何路墮坑落塹。凡發心起行，親師取友，擇法眼目，看教指歸，工夫要訣，巨細精麤，無不從學戒而辨。故從上佛祖，雖教觀有偏圓權實種種不同，未有不以戒為初基。以戒辨邪正者，清淨明誨，的是樂邦左券。此信不可壞也。

(示劉詣昭)學道不難伶俐，難於慎重。發心不難勇銳，難於堅久。涉世不難矯俗，難於自持。作事不難敏達，難於深忍。研義不難領解，難於精確。夫豪傑者，聖賢之基址也。聖賢者，佛祖之階梯也。不能為豪傑，而能為聖賢，吾所不信。不能為聖賢，而能為佛祖，吾尤不信。然真豪傑，決不以豪傑自局。真聖賢，決不以聖賢自滿。真佛祖，豈復以佛祖自命哉。

(示朗然)世情淡一分，佛法自有一分得力。娑婆活計輕一分，生西方便有一分穩當。此事祇問心，不必問知識也。知識亦勸淡世情輕活計，專修出要耳。天平一頭低，一頭必昂。雖巧識強捻，不得腰纏十萬貫，騎鶴上揚州，漢武秦皇，不能扭作一句，況下者乎。

(示如白)學道莫若專精，有分嗜利，智亦罕能詣法源底，況中人哉。吾人無始來，於三界六道中，何事不歷，何藝不習，獨不曾修四念處，明四諦理，證四果及四智耳。已歷已習者無救生死，奚勞更歷更習。而脫苦法要，茫未有得。三年艾，安得不從今日畜邪。念處慧熟，聖諦理明，然後出真照俗，遊戲百千技藝，非為分外。若不向根本討線索，饒法法專精力學，學到百千萬劫，術術巧妙，仍是生死岸邊事。一隨業轉，旋歸廢忘，豈非枉用心機。思之擇之，無俟朽人之苦誡矣。

(示莫允臣)世出世事，莫不成於慈忍，敗於忿躁。故君子以慈育德，以忍養情。德育，天地萬物皆歸我春風和氣之中。情養，乖戾妖孽皆消於光天化日之下，然後以之自成，則為淨滿自尊。以之成物，則為慈力悲仰。儻一念瞋起，百萬障生，小不能忍，大謀斯亂。況今刀兵劫濁，不過積患所招，世局土崩，皆無遠慮所致。士生斯世，宜何如努力，以障狂瀾也。

(示朝徹)佛法中行佛法，非難也。世法中行佛法，乃為難事。又佛法，仍不壞世法，名難中之難。然第患認佛法不真不親切耳。世法佛法，何嘗不同一緣起哉。讀世主妙嚴品，及入法界品，可悟如來境界矣。

(示雪林)學道與學好不同。學好祇得世間虛名，學道貴得出世實益。學好只顧眼前局面，學道須明塵劫遠猷。塵劫遠猷，不離眼前，而戀卻眼前頓味塵劫。惟達士直觀眼前一剎那性，非生滅無去來了不

可得，安有身世自他可拘可戀，然後觀同體積迷，興無緣弘誓。苟不足自利利他者，舉世趨之弗屑為，果能自利利他，世共非之弗敢怨，是謂學道，亦真學好者矣。

(示王亦含)修身以俟，不計近功，此造命之術也。惟後天而奉天時，始先天而天弗違。小水長流，則能穿石。鑽木未熟，火難可得。是以學道不難一時勇猛，難永久弗替。觀世音菩薩求男得男，如因病求得仙丹，兼得輕身遐舉。吾願居士，因求子而力行眾善，惟廣惟大，愈久愈堅，則證入一子地，視法界眾生，皆是吾子，振振麟趾，不待卜而可必矣。

(示六度)眾生無始來，不知一切惟心，妄計六塵緣影為自心相。故佛頂約七處徵之，中論約四性推之，智者約四運觀之，無非破緣影妄計而已。但不執緣影，則現前介爾一念，本自離過絕非，清淨周遍，百界千如，海印炳現矣。欲破緣影妄執，或就七處遍徵，或就四性橫簡，或就四運豎破，皆可。隨病服藥，法無一定。思而修之，存乎其人。

(示養德)學道之人，骨宜剛，氣宜柔，志宜大，膽宜小，心宜虛，言宜實，慧宜增，福宜惜，慮宜遠，思宜近，事上宜虔，接下宜謙，處同輩宜退讓，得意勿恣意奢侈，失意勿抑鬱失措，作福莫如惜福，悔過莫如寡過。應念身世苦空，切莫隨流逐隊。衣取蔽形，莫貪齊整。食取克餒，莫嗜美味。嘗省此世，前生作何功行，可坐享檀施。十二時恒簡點身口意業，善多邪，惡多邪，無記多邪，堪消四事邪，不堪邪。如此慚愧覺悟修省，自然習氣漸消，智光漸露。祖意佛意，顯於一念清淨心中矣。

(示予正)研真窮妄名之為學。蓋能深造自得，則左右逢其源。故愈博而愈約，否則愈博愈無頭緒，去道亦愈遠矣。古人發心出家，必矢志參學。由痛念生死事大，無常迅速，此身不向今生度，更向何生度此身。所以三登九上，百城煙水，不憚其勞，念念了當大事，豈肯著相計名，尋行數墨，附葉攀枝，以徒資口耳哉。末世不然，名為欲續如來慧命，撐如來法門，而不知痛為生死，惟積學問，廣見聞，冀可登座揮塵而已。嗟嗟，不與菩提大心相應，云代佛揚化，吾不信也。不與為生死心相應，云大菩提心，尤不信也。勝負情見不忘，僅成阿修羅法界，名利眷屬意念不忘，僅成三塗魔羅種子。隨其所見所聞而起法執，不能捨棄名言習氣，不達如來說法旨趣，不知種種四悉因緣，僅成凡外戲論窠窟。學問益多，害心益甚，學人益盛，正法益衰。吾所以每一念及，未嘗不夢寐痛哭者也。

(示庸菴)千里之行，始於一步。一步未足，不名到家。謂千里只一步，可也。謂一步即千里，可乎。夫以佛道為千里者，戒是最初一步。從此至成佛總不出此一步，而決不容守而不進。蓋進則此一步

念念保全，止則此一步當下衰息。然進步之法，不過捨無始故步。故步各有偏滯，而最障道，莫若瞋慢。一念瞋心起，百萬障門開。慢如高山，法水不停。又非理瞋羶而易除，執理瞋細而難斷。慢過慢顯而易見，增上慢卑劣慢隱而難知，知所難知，斷所難斷，是謂能離退緣矣。

(示明西)出三界火宅，有橫豎兩塗。以自力斷惑超生死者，名豎出三界，事難功漸。以佛力接引生西方者，名橫超三界，事易功頓。遠祖云，功高易進，念佛為先。經云，末世億億人修行，罕一成道，惟依念佛可得度脫。如趁船渡海，不勞功力。夫能篤信西方捷徑，至誠發願，一心念佛求往生者，真大丈夫矣。儻信不真，願不切，行不力，佛雖大慈為舟，如眾生不肯登舟何哉。

(示謝在之)吾人現前一念心性，過去無始，未來無終，現在無際，覓之了不可得，而不可謂無。應用千變萬化，而不可謂有。三世諸佛，一切眾生，從無二體。十方虛空。剎塵差別，皆吾心所現之相分耳。是故四種淨土，皆不在心外，乃名唯心。謂極樂不即唯心，則西方豈在心外，而吾心豈局東方者哉。人謂諸有為法，皆如夢幻，不知心性，不可喚作有為，不可喚作無為，因迷故即無為成有為。有三界輪迴因果，喻如夢幻泡影露電。若返迷歸悟，則又即有為成無為，如夢得醒，幻復本，泡歸水，影歸質，露不異溼性，電不異常光。今念佛求生淨土，正返迷歸悟，至圓至頓。概以夢幻埽之，可乎哉。今人於夢幻妻子家緣，不能當下割捨，夢幻功名富貴，不能當下遠離，夢幻苦樂寒暑，不能當下覷破，乃至夢幻詩文機鋒轉語，不能當下唾棄。獨於夢幻西方，則不求生，亦大惑矣。夫依對待而論，娑婆活計，添夢者也。求生淨土，醒夢者也，不可不求生也。依絕待而論，惑業感於三界，惡夢也。念佛生於淨土，好夢也，亦不可不求生也。惑者又曰，當下即是淨土，何必西方。問曰，當下即飽暖，何必喫飯穿衣。當下即富貴，何必貨殖科甲。當下是學問，何必讀書。當下是帝京，何必北上。既世閒法毫不可廢，何獨於出世法而廢之。苟深思此理，淨土之生，萬牛莫挽矣。天如大祖師云，悟後不願往生，敢保老兄未悟。釋迦復起，不易斯言。

(示眉慧)學道貴有品格，有識量，而文字記問不與焉。有品格無識量，不足曠超千古，猶無品格也。有識量無品格，不足砥柱中流，猶無識量也。品格識量既具，則不被眼前活計所局，時流習氣所遷。縱鈍若般陀，而拂塵除垢四字義熟，便堪證沙門果，發無礙辯，況本解文義者哉。嗚呼，法門之衰，至今日，不忍言矣。剝必復，否必泰。若要梅花香撲鼻，還他徹骨一番寒。豪傑之士，宜何如動心忍性，以無負己靈也。

(示不岐)十方如來一門超出妙莊嚴路，不過了妄想無性，悟常住真心，性淨明體而已。欲悟真性，貴直心正念真如。欲作真如實觀，先修惟心識觀。強觀諸法無實，惟心所現，則心外無法。次觀心無心相，覓之了不可得，則法外無心。既心法兩亡，能所性絕，不謂之真如實觀，不可得矣。設不正念真如，妄計有心有法，有能有所，則自生岐隔，墮委曲相。只此委曲，亦無別體，元攬真如為體。如狂花以空為體，波浪以水為體。故曰此想不真。知想不真，則不隨虛妄生死相續，而佛祖傳授心法，極盡於此。以此心法，往印千經萬論，列祖公案，不啻閉門造車，出門合轍。若不向此門打徹，別商學問工夫，總之多岐亡羊，非大佛頂首楞嚴三昧。欲修三昧，尤須事理並進，顯密互資，除助因，剷正性，違現業，誓於現生取辦可也。

(示爾介)介爾有心，三千具足。此圓人稱性而觀，稱性而悟。彈指超無學，一路涅槃門也。今有志之士，不能一超直入者，祇由妄認六塵緣影為自心相。不肯直下諦觀介爾之心，本自了不可得故也。如肯直觀，則知心無心相。既不認緣影為心，則虛空山河大地，咸吾介爾心中所現物矣。能緣既無，所緣安有。一空一切空，而非斷滅。所現窮互，能現亦然。一假一切假，而皆如幻，不可以空名，不可以假名，強名為中。中亦不在空假之外。空假無體，全以中道為體。言空則三千悉空，言假則三千並假，言中則三千並中，故得互互具足，無欠無餘。如此則一塵中剖出大千經卷，有何正像末之可分別。此則不唯為佛祖出氣，亦可為予一洗句讀先生之恥矣。

(示夏蓋臣)聖賢固不擇地，不擇時生，然往往生於山谷亂世者。蓮出汙泥，珠生濁水，非苟然也。蓮在泥泥不能染，珠在濁濁不能混。聖賢之在山谷亂世，山谷豈能局之，亂世豈能易之。夫山谷不能局，亂世不能易者，寧唯聖賢有之，聖賢能勿喪耳。堯舜心法，不過危微二字。操則存，捨則亡。伯玉寡過未能，子路聞過則喜，孔子五十學易，文王望道未見，皆危微心印也。是故不求放心為學問，而徒事口耳，異乎聖賢所謂學問矣。顧心是何物，云何名放，云何而求，若放則馳散六合，求則還歸一腔，此緣影耳，風大耳。過去未來現在，心不可得。設有可得，與雞犬同是一物，而心豈一物哉。真求放心者，必須覓心了不可得。惟心了不可得，方知天地日月山河國土，皆妙明心中所現物，亦無能現所現之分，是謂天下歸仁，是謂明明德於天下，是謂山谷所不能局，亂世所不能易。故陸象山云，東南西北海，有聖人出焉，此心此理同也。悟此決不更問天地何所窮際。以心外無天地，天地止是心之相分耳。楞嚴云，十方虛空，生汝心內，猶如片雲，點太清裏，況諸世界，在虛空

邪。知此則儒與佛，均不足以名之。一任名儒與佛，無所不可。努力求焉。

(示蔡二白)天地萬物，皆有始終，有形象，有方隅，有分劑，唯心識無始終形象方隅分劑，故曰覓心了不可得。心了不可得，而天地萬物無一不唯心矣。然我法二執不破，則唯心唯識之理不彰。心識之理未明，則因果感應之妙，不能如指諸掌。故華嚴云，應觀法界性，一切唯心造。觀經云，深信因果，不謗大乘。夫心猶金也，十法界因果，猶種種莊嚴器具也。然天下容有不造器之頑金，斷無不造十法界之頑心。縱一念不生，仍造成無想外道矣。故大智慧人，深悟唯心，必勤念佛，所謂是心作佛，是心是佛。此唯二白居士可承當之。

(示李剖籛)善學聖人之道，貴得其神，不可泥其跡。神也者，妙萬物而為言者也。故曰聖而不可知之謂神。然神豈迴在跡外哉，特不泥於跡耳。不泥跡故，堯舜揖讓，湯武征誅，武周治世，夷齊高隱，比干諫死，微箕奴去，孔不俟駕，孟不可召，泰伯斷髮文身，曾子啟足啟手，禹稷過門不入，顏子簞瓢陋巷，不唯並行不悖，亦可易地皆然。如以跡而己矣，則子莫執中，不幾濫大舜之用中乎。嗟乎，盈天地間，凡可睹聞，何莫非跡。惟視之而弗見，聽之而弗聞者，乃為神。而求道者，往往局視聽所及，鮮能求於不睹不聞之真源，其何以當吾世而見知，越百世而聞知。故曰，顏子沒而聖學亡，良足悲已。顧聖學雖亡，有不可亡者。特患仁者見之謂之仁，智者見之謂之智，百姓日用而不知耳。王陽明奮二千年後，居夷三載，頓悟良知，一洗漢宋諸儒陋習，直接孔顏心學之傳。子年二十時所悟，與陽明同，但陽明境上鍊得，力大而用廣，予看書時解得，力微而用弱。由此悟門，方得為佛法階漸。今於佛法所窺，較昔所悟，猶海若之於河伯。而佛法海中，尚未盡一滴之量。道之無窮，其致若此。儻不剖開人世藩籬，何由到此海闊天空境界。孔子荅善人之道，謂不踐跡。又云善人吾不得而見。甚矣，不踐跡之難也。下學而上達，斯不踐跡而入室者乎。上達為君子，下達為小人。汝為君子儒，毋為小人儒。當知四科六藝皆跡，而三綱五常亦跡也，天地日月兩儀太極無非跡也，皆形而下者也。神而明之，存乎其人。形而上者，乃謂之道。中人以上，可以語上，非剖籛是望而誰望。

(示石耕)佛法之盛衰，由儒學之隆替。儒之德業學問，實佛之命脈骨髓。故在世為真儒者，出世乃為真佛。以真儒心行而學佛，則不學世之假佛。何謂假佛，立門庭，尚施設，取悅耳目，不究極於心源，以衣鉢為持律，消文貼句為演教，機鋒偈頌為禪宗，名利存懷，偷心見刺，魔王長歡，大聖永歎。壞周室者齊桓晉文耳。何謂

真佛，破我法二執，觀二空真如，自見其過，憫他犯過，舉心動念，舉足動步，皆為自出生死成菩提，亦令眾生同出生死成菩提。是故持律，則開遮持犯，洞了分明，性業遮業，誓求清淨。閱教則辨體明宗，識用知相，若權若實，深達指歸。參禪則截斷偷心，直明本性，識取綱宗，不存軌則。雖三學圓明，仍能不知不慍，決不炫玉求售，決不執己律人。惟隨順物宜，應病與藥，溫和般若，雙照並行，斯乃不負堂堂僧相，堪稱出世丈夫。佛恩既報，則宣聖之恩，君父檀信之恩亦報矣。

(示語幻)法門之衰，已非一日。而致衰之故，由因地不真。今人發心參學，罔不以扶持法門為志。及察其所謂扶持者，不過曰開叢林，建梵剎，攢指五千一萬，災梨殺青無虛日，嗣子皆才華名世，美丰神，座下戒子，鉢杖圍繞數十匝，薙度徒眾，環里市而處如錯星。乃至紫綬金魚，乘高車肥馬，往來山林間，絡繹不絕而已。故下手時，便從世諦流布中著眼，便向門庭施設處安排。而佛祖真命脈，遂為此等人埋沒殆盡。五霸者三王之罪人，諒哉，何謂佛祖真命脈，破我相，蕩法執，剋除習氣，涕唾利名，時自簡點過失，決不一言一事欺心，師正法不師像法，學古人不學時人，自己死盡偷心，然後能死學人偷心，自己透盡佛祖心奧，亦不輕以佛祖心奧強示於人。何故，中人以上，可以語上。中人以下，不可語上。不憤不啟，不悱不發。民可使由之，邈世不見，知而不悔。如釋尊之脫珍御敝，能為下劣忍於斯事，四十餘年，久默斯要，不務速說。凡佛祖聖賢出世，止循循誘眾生，非賣自己風光，何須汲汲炫其所長，惟恐門庭或卑，名位之或下邪。才有一念爭門庭，分高下心，便是生死根本。以此撐持，則法門日陋，直至不可復救而後已。痛哉痛哉，予於此夢寐永泣，無可輕與言者。法友或能信此，為一拈之。

(示聖可)千經萬論，求之語言文字，則轉多轉遠。求之現前一念，則愈約愈親。蓋一切經論，不過現前一念心之註腳，非心性外別有佛祖道理也。然心性難明，故藉千經萬論互相發明。今捨現前心性，而泛求經論，不啻迷頭認影矣。真明心性者，知經論是明心性之要訣，必不棄捨。但看時知無一文一字不是指點此理，就所指處，直下從身心理會清楚。如破我法二執，的的破盡，不留分毫，辨種現根隨，則使自心種現根隨，歷如指掌，不使家賊作祟，是謂不離文字，而得觀照，不作文字解，不作道理解，便是真參實究。不論年月生劫，將三藏十二部，都盧作一話頭，看來看去，人一能之已百之，人十能之已千之，看到牛皮穿破，眼睛突出，忽然無心契悟，方知與麻三斤，乾矢橛，同是敲門方便。那時若不透盡千七百公案，不攝盡十方三世一切佛法，無有是處。

(示證心)證心大德，問心要於予。予曰，心要莫若念佛。壽昌云，念佛心即是佛。蓋現前一念之心，無性緣生，緣生無性者也。惟其無性緣生，故念名滿腔是名，念利滿腔是利，乃至晝所為，夜所夢，無不趨歸於一念之專注，而十界昇沈從此出矣。惟其緣生無性，故熾然造集善惡之時，驀地放下，則一切法了不可得。然設向此了不可得處坐定，則墮無為深坑，不能證法界無障礙體，不能起法界無障礙用。故須念佛求生淨土，方是大乘不可思議圓頓法門。夫念佛者，豈有他哉，以此緣生無性之一念，念彼無性緣生之佛名耳。佛名既是無性緣生，則緣生亦仍無性。是故念一聲，有一聲佛名顯現。念十百千萬聲，有十百千萬佛名顯現。而不念時便寂然矣。念性既是緣生無性，則無性不礙緣生。儻不念佛，正恐又生種種雜念。縱不生雜念，亦恐墮在無生窠臼。故必以佛號生我之念，使我念念不離佛號。此乃心外無佛，佛外無心，是心作佛，是心是佛。謂之以佛證心可也，謂之以心證佛可也，謂之以佛證佛以心證心亦可也。至直捷穩當，至圓頓了義，不可思議，不可將餘一切法門比量。果如此信得及，直下念去，則諸佛出廣長舌相以證之。若人專念彌陀佛，號曰無上深妙禪。至心想像見佛時，即是不生不滅法。金口誠言，可不信哉。

(示靈奕)壽者，福之本也。福者，慧之基也。念念思警策者，慧之萌，而福與壽之源也。故曰常想病時，則塵心漸滅。常想死時，則道念自生。夫病死正現前時，有何我相可恃，五欲可貪，有何名可戀，古董之可攜去。不恃我相，我見伏矣。不貪五欲，煩惱降矣。不戀虛名，體面可放下矣。知古董之不可攜去，則不越分以求之。縱先有者，亦可捨之以作福矣。苟能離我我所，見執煩惱，則視縑素靈蠢無一非未來佛。既所見無非未來佛，則凡可以供養恭敬未來佛者，無弗為也。凡可以損惱忤觸未來佛者，無弗止也。如此而福不增，壽不永，蕩益舌當墮落。儻不能一切時念未來佛，則不能一切時積集福慧。福慧不積，雖僥倖活至百年，亦終與草木同腐而已。

(示講堂大眾并註)一切(通指八心王五十一心所)相分，皆是心影(喻如鏡像)。一切見分，皆是心光(喻如鏡明)。一切自證分，皆是心體(喻如鏡質)。一切證自證分，皆是心性(喻如鏡銅，此四並是依他起性)。光影妄，則體性亦妄(此妄含兩重義，一若於光影計有實我實法，則為遍計所執性。既執光影為我法，則并體性亦為我法，是四分皆成遍計也。二雖不妄計我法。猶見光影二分之異。不了唯是一心。則墮依他起性，不惟光影是依他，并體性亦是依他，所以四分皆為依他性也)。體性真，則光影亦真(此真不是離依他四分而別有真，祇達得光之與影，實非有二，惟是一心，云何於中有是非是。則不但體性即圓成實，而光影亦圓成實，故四分無非圓成實性也)。譬如計繩為蛇，則麻亦成蛇(亦如計

鏡像為實人，既迷依他之相，必迷圓成之體)。了繩即麻，則蛇亦是麻(亦如了像與明，總只是鏡。既悟依他非有，自知遍計本空)。是故見蛇者，不見繩與麻(此喻一切凡夫外道)，是謂一遍計一切遍計(十界皆為所遍計境)，而非無繩，非不即麻也(可見遍計不離依圓，故空觀但空遍計，而依圓元不可空，縱除滅三性，入三無性，乃名一空一切空，亦只是除其定有三性之執，仍但空彼依圓上之遍計執情耳)。見繩者，不計蛇，亦不見麻(此喻三乘權智)，是謂一依他，一切依他(十界無非依他起性)，而未嘗不即麻，亦未嘗礙彼礙者之計蛇也(可見依他，亦不離遍圓，故假觀，但立依他，而遍計無可立。圓成不須立，縱成立三性緣起，乃名一假一切假，亦只是約悟名圓成，約迷名遍計，仍但發明三性無非依他起耳)。見麻者，了知非蛇，亦非繩(此喻圓人實慧)，是謂一圓成，一切圓成(十界無非圓成實性)，而不礙愚者之計實繩實蛇也(計實繩，是三乘愚，計實蛇，是凡外愚。可見圓成亦不離遍依，故中觀但顯圓成，而遍依元無可顯，縱圓統三性，乃名一中一切中，亦只顯彼遍依無體，體即圓成，仍但顯彼遍依，統一圓成實性耳)。但能如是觀察自心境界(一切境界皆惟心現，皆即是心，故名自心境界)，不著語言文字(聖賢造論，隨意取譬，以曉蒙童，原無死法，且如鏡可譬於依他四分，亦可加一，認有實人，而譬三性，謂鏡即圓成實性，像即依他起性，愚小無知，計有實人，即遍計執性也。又如繩可譬於迷悟三性，亦可除卻妄計為蛇而譬四分，謂繩二股，可譬見相二分。麻可譬自證分，四微可譬證自證分也。以喻通喻，理最易明，若死死執定，不知變通，是謂依文解義，三世佛冤矣)，亦不背語言文字(華嚴偈云，文隨於義，義隨文。古人云，離經一字，即同魔說)，則若宗若教，一以貫之矣。又復應知，眾生起過，只由見相二分，決不由自證及證自證分。以內二分，終日在妄，終日恒真，且眾生日用不知，無由起過，故相宗明其皆是現量，皆是挾帶。只因舉體成用，用既依他，體必同成依他，故四分皆屬依他，不許單立見相為依他性，以用外別無體故。若了知全用即體，則體既圓成，用亦當下圓成，故四分皆即圓成，不許單立內之二分為圓成實，以體外別無用故。今人不達，若執四分皆是依他，於四分之外別立圓成實性，而云真如與一切法不一不異，是猶捨彼已成繩之麻，而別求未成繩之麻，與繩相對，乃云不一不異也。但不一耳，豈真不異也哉。嗚呼，毫釐有差，天地懸隔，不變隨緣隨緣不變之旨，幾為蝕書蠹魚之見所亂，吾安能已於辯也。

靈峰蕩益大師宗論卷第二之四(終)

靈峰蕩益大師宗論卷第二之五

法語五

(示王夢回名淨醒)心性意知夢具也，天地萬物夢境也，古今治亂夢所幻現也。惟能做夢者，終日在夢，終日不壞。夫做夢者，不惟不可喚作古今治亂，天地萬物，且不可喚作心性意知。通此者，通乎晝夜之道而知矣。

(示范得先)惟得天下之最後者，能得天下之最先，惟知天下之最先者，能得天下之最後。故曰，乾知大始，坤作成物，豈自強載物有二體哉。顏子沒，聖學亡，知行分張，朱陸競異，參以功利之心，雜以人我之見，飾以掠虛捕影之禪，而天下無真儒矣。顏氏有不善，未嘗不知，可謂知其最先。知之未嘗復行，可謂得其最後。然孔子極力發明，惟不遷恕不貳過六字而已。無恕無過心之體，有恕有過意之動，知恕知過是良知，不遷不貳是格物。向此薦得，真得先矣。

(示葉天紀)有心而後有天地萬物。聖賢傳授，不過以心印心，故曰，人心惟危，道心惟微，惟精惟一，允執厥中。心豈有二哉。迷其本一，故人心惟危，如水成冰也。悟其無二，故道心惟微，如冰還成水也。返迷歸悟，故名惟精，如湯消冰也。迷悟性空，故名惟一，如冰水同一溼性也。熾然迷悟，體元不屬迷悟兩端，故名厥中，即惟一之體也。從迷得悟，一悟永不復迷，故名允執，即惟精之功也。堯以此心學立其極，了知心外別無天地萬物，所以天與之，人歸之，草木瑞應之，梧桐紀閏，蓂莢紀月，豈離心性外別有感應乎哉。唐虞三代雖往，而吾人心性元未嘗往，春秋之時有孔顏，六朝之末有王通，宋有陸象山，明有王文成。後之學者，苟契於心性之源，謂堯舜孔顏至今未亡可也。然堯舜孔顏不過達心外無法，故物格而良知自致，知至而意誠心正，修齊治平，不勞功力，何嘗以八條目，三綱領亂此一以貫之之傳也。周濂溪發悟於東林總，欲薙落，總公囑以扶植儒學，遂為宋儒鼻祖。吾於天紀，有厚望焉。

(示巨方)天台接龍樹聞知之傳，闡鷲峰開顯之妙，權實同彰，教觀並舉，如三代禮樂，超卓萬古，非漢唐雜霸雜夷之治，能彷彿萬一也。後世逐流忘源，漸成繁蕪。而矯枉過正者，又復束置高閣，適令諸侯之惡其害己者，益無忌憚，公然以疏抗經，祖抗佛。噫，可悲甚矣。妙峰老人，出月亭之門，而力弘台旨。紹覺老人，私讀大覺遺籍，而遍演三宗。紹師雜無的傳，妙師專傳無盡師。於是世閒復知有台宗名字，逮今日又未免名盛實衰矣。予本宗門種草，因感法道陵夷，鑒近時禪病，思所以救療之者，請決於佛，拈得依台宗註梵網圖，始肯究心三大五小，愧無實德，不克以身弘道，然於古之妙，今之弊，頗辨端的。蓋台宗發源法華，法華開權顯實，則無所不簡，無所不收。今之弘台宗者，既不能遍收禪律法相，又何以成絕待之妙。既獨負一台宗為勝，又豈不成對待之麤。是故台既拒

禪宗法相於山外，禪亦拒台於單傳直指之外矣。夫拒台者，固不止於不知台者也，拒禪與法相者，又豈止於不知禪與法相而已哉。寧學聖人未至，不願以一善成名。噫，果不以一善成名，聖人亦無不可學至之理矣。

(示蒼雲)學道別無實法，變化氣質，剷除習氣而已。氣質變，品格不期超而自超。習氣除，佛法不求透而自透。金以鍊而精，鏡以磨而淨也。今之學者吾惑焉，任鹵莽之質而不知革，益驚外之習而不知返，投鉛鐵於真金，求斤兩之多，不知其雜偽不堪也，用白墀塗鏡，欲光明潔白，不知其埋沒愈甚也。真有志聖賢佛祖之學，必先易眾人所難，緩時流所急，師於古，不師於今，考於人，不信於意。說我過者如良醫，譽我善者如鳩酒，千古道脈期我者，為明師良友，眼前活計誘我者，為惡友魔黨。看一經，思與身心當下相應。睹一事，思與本分有何損益。見賢思齊，見不賢而內自省，是賢與不賢皆能益我矣。儻見善不能隨喜修學，見惡輕慢毀侮，是善惡皆能損我矣。嗟嗟，善取益者無往非益，甘自損者無往非損。故曰，智人治心不治境，愚人治境不治心，柰何不深思哉。予生過失最多，未能寡過，安能策人，然法友果能自策，予之過，即法友藥也。予惟實無片長，故無可自炫。今法友縱有長處，亦當學予之不炫。予自省，真不如一切人，故斷不敢輕一切人。今法友縱勝一切人，亦斷不可輕一切人。予惟無所不師，故無偏師，今法友縱偏師予，亦宜學予無所不師。至若專研教觀，事懺摩，送想安養，不求名聞，不志利養，皆本分當然，無一可表異者。儻一念表異，只此一念，便與教觀不相應，亦與懺摩不相應，安養不相應，亦是名根，亦是利藪。此予所以念念自訟，的知寡過之難，未審法友果能自訟，能寡過否也。嗚呼，世衰道微，師資誼喪，相縻以名，相羈以勢，誰復知有出生死成菩提事。口云為生死，培生死者有之。口云求菩提，背菩提者有之，總由不破我法二執故也。然此二執，潛伏藏識，遊戲諸根，日夜流注，曾無閒斷。捨此不究，而別究教觀，捨此不懺，而別修懺摩，捨此不淨，而別求淨土，豈自覺覺他之道哉。

(示朱震暘)金剛般若，不出應住降心二問，而非兩事也。能降伏，則能如所教住。住六塵，則為不降伏心。是故西土菩薩，以四心釋降伏，義無不盡。一廣大心，謂所緣境遍，不隔三界四生，降伏無始區局六塵之心。二第一心，謂所發誓深，令得無餘涅槃，降伏無始於下劣六塵喜足之心。三常心，謂眾生即自心，心外實無眾生得滅度者，降伏無始於六塵隔越妄計彼我之心。四不顛倒心，謂達無我人眾生壽者四相，降伏無始於虛妄六塵計我我所之心。當知念念與四心相應，即為如所教住。儻一念住六塵，即為非住，以色聲香味

觸法區局不廣大。下劣非第一，遷變非真常，顛倒非正智，故不住六塵，亦不住於不住。故云應無所住而生其心。蓋住六塵，固名凡夫外道，住於不住，祇名聲聞緣覺，仍住出世微細法塵，不名真正無住，故亦為區局下劣遷變顛倒，而非廣大第一真常正智。惟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之大菩薩，了知現前一念心，本自廣大第一真常，本無顛倒，是以住於廣大第一真常正智，而修六度萬行，不同凡夫之住有，二乘之住空也。吾人見此，便可直下修行。儻起一念，若區局心，若下劣，若隔別，若顛倒心，即以廣大心第一常正智心而降伏之，亦復不取廣大乃至正智之相，以四心本非色聲香味觸法境故。如此功夫，甚痛快，甚直捷。盡未來際如此應住，如此降伏，可謂以不生不滅為本修因，然後圓成果地修證者矣。

(示西池)經云，得遇道，興信心難，既信心，發菩提心難，既發心，無修無證難。嗟乎，此至言也。然不達無修無證之體，不名真菩提心，不發真菩提心，亦不名真信。信豈易言哉。馬鳴立論，直名起信，三祖作銘，直名信心。不似後世，妄以信解修證，強分淺深次第也。西池賢者，同子妾女俱出家。昔龐居士，夫婦同居，男不婚，女不嫁。且云，但願空諸所有，切勿實諸所無。其契無修無證之旨不甚明白邪。今近住戒，正無修無證妙法，儻不向此著眼，擬於何處覓玄。且如不殺殺業空，不偷盜業空，不婬相生業空，不妄語相惱業空，不飲酒癡暗業空。然不殺不取長壽報，不盜不取富饒報，不婬不取梵世報，不妄不取信重報，不飲不取聰利報，豈非但空所有不實所無之妙行乎。以此清淨三業，普與眾生同歸寂光真性，豈非無修無證大菩提心乎。若不能於戒中徹見性修不二宗旨，何名真信。故三祖曰，信心不二，不二信心，言語道斷，非去來今。馬鳴曰，自心起信，還信自心也。

(示何德坤)善學佛法者，不難通文難達義，不難達義難入理，又不難入理難忘情。夫情苟未忘，所入理決不瑩徹。理不瑩徹，所達義，決不無礙。義未無礙，所通文決非總持。是以性相分河，宗教別戶，末法之蔽，非情為之累乎。然情非僅色聲香味觸法牽動六根已也，非僅富貴功名道德羈繫生平已也。縱全體放下，渾身拶入，而學天台者，有天台當情，學賢首慈恩者，有賢首慈恩當情，參曹洞者，有曹洞當情，參臨濟者，有臨濟當情。一法當情，便成理障，理障則義局，義局則文脈死矣。文脈死尚不可為文宣子孫，況迦文真胤乎。故吾每謂真不負己靈者，須盡翻近時宗教窠臼，方可遍入古來宗教堂奧。夫堂奧豈有他哉，不過發明吾人本有心性而已。心性無法不具，無法不造。而所具所造一切諸法，皆悉無性。明此無性之法，一一皆非實我實法者，謂之慈恩宗。明此諸法無性，一一皆能遍具遍造者，謂之法性宗。直指現前妄法妄心，悉皆無性，令

見性成佛者，謂之禪宗。是故臨濟痛快直捷，未嘗不精微。曹洞精細嚴密，未嘗不簡切。唯識存依圓，未嘗不破遍計。般若破情執，未嘗不立諦理。護法明真如不受熏，未嘗謂與諸法定異。馬鳴明真如無明互熏，未嘗謂其定一。乃至教乘，雖借語言，未嘗不契實相之體。禪宗雖埽文字，未嘗或墮暗證之愆。良由古人真能忘情，所以入理。今人多分泥理，所以添情也。

(示念佛社) 吾人從無始來，直至盡未來際，決無不起念時。縱心慮灰凝，入無想定，仍墮八萬四千枯稿亂想。但念地獄則地獄界人，念餓鬼則餓鬼界人，乃至念佛則為佛界人耳。此理至明，故宗鏡云，一念相應一念佛，念念相應念念佛也。若更問念佛是誰，頭上安頭，騎驢覓驢，明眼為之噴飯。而近代無知狂悖之徒，反以話頭為奇特，名號為尋常，棄如意珠王，競取瓦礫。可哀矣。晟溪諸善友，獨能結社念佛，盡一日中，出聲一炷香，默持一炷香，循環無間，必以一心不亂為期。此簡巧之行，須深信勿疑，久久勿替，自當圓超五濁，圓淨四土，更莫向含元殿裏問長安也。

(示閔周埏) 信願如目，眾行如足。信願如牛，眾行如車。信願如棋之有眼，眾行如棋之有子。故信願行三，雖缺一不可，而尤以信願為主為導也。蓋信願既專，凡種種諸善，皆淨土資糧。縱萬不幸，誤作諸惡，誠心懺悔，斷相續心，亦足為往生妙行。苟無信願，則戒感人天，定感色無色界，慧剋二乘權果而已。

(示閔六飛二則) 佛法貴精不貴多。精貫多，多不能專精，故提綱挈領之道，不可不急講也。綱領者，現前一念心性而已。心性不在內外中間，不屬過現未來，不可以色聲香味觸法求，不可以有無雙亦雙非取。心性既爾，一切法性亦如是。故曰，因緣所生法，即空即假即中。中者性體，空者性量，假者性具也。迷此性量，名見思惑，迷此性具，名塵沙惑，迷此性體，名無明惑。三惑皆迷中翳妄，非有實體，故三觀起，三惑隨消。由吾人迷有厚薄，致如來教有頓漸。是知頓漸諸教，皆為了悟心性而設，若了心性，教綱在我不在佛矣。然須先破我法二執，是故唯識初二卷言之獨詳。學者果能隨文會理，將無始名言戲論我法習氣，當下鏟除，則真空理顯。此之空理不當有無，有無自爾。無者無彼遍計，有者有彼依圓。圓成實者，唯識實性，名中道第一義諦。依他起者，唯識假相，名為俗諦，此二皆非實我實法，但眾生遍計執情名為我法，我法本空，名為真諦。三諦不一異，不縱橫。真中為理如水，俗諦為事如波。藏通二教，僅詮真理，以六凡為俗。別圓二教，正詮中理，以十界為俗。先於現前一念心性，達三諦已，則知一代教法或頓詮此心性，或漸詮此心性，或詮心性少分，或詮心性全體，不啻持一鑰開眾鎖也，豈於千經萬論興望洋之歎哉。(其一)

般若非他，現前一念心性而已。心性本自豎窮橫遍，故廣大。妄認四大為自身相，六塵緣影為自心相，則狹小矣。本自微妙寂絕，故第一。妄貪三界有漏因果，二乘偏真因果，則下劣矣。本自生佛體同，故常，亦名愛攝。妄計內外彼此不同，則厭怠矣。本離我法二執，故不顛倒，亦名正智。妄計我人眾生壽者諸相，則顛倒矣。然雖迷此心性為狹小下劣厭怠顛倒，如水成冰，實廣大第一愛攝正智之體，依然如故，毫無缺減。如冰之溼性，仍即水之溼性，苟遇煖緣，未有不應念成水者也。故善學般若菩薩，莫貴觀察現前一念心之實性。此心體本離過絕非，不墮諸數，至尊至貴，名實相般若，譬如金剛，為無價寶。此心覓之了不可得，靈明洞徹，泛應曲當，名觀照般若，譬如金剛，堅利不壞。此心炳現根身器界，百界千如，森羅昭布，名文字般若，譬如金剛，普雨眾寶。祇此一心，即三般若，三世諸佛，不能增一絲毫，蜎飛蠕動，不能減一絲毫。但迷之舉體為惑業苦三障，悟之舉體為般若解脫法身三德。三德如水外無冰，故云三千果成，咸稱常樂。三障如冰外無水，故云三千在理，同名無明。如此達得，則但有泮冰法，別無覓水法，有去翳法，無與明法。但願空諸所有，切勿實諸所無。所以熾然諸惡莫作，眾善奉行，乃至布施持戒，忍辱精進，修行五悔，習學諸禪，廣學多聞，研究法義，皆泮冰去翳。空諸所有，至冰執盡消，幻翳盡去，所有盡空，適復本有一念心性之全體大用，而別無心外一法可得。故曰，入於如來妙莊嚴海，圓滿菩提，歸無所得。又曰，以無我人眾生壽者，修一切善法，即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又曰，法法皆通，法法皆備，而無一法可得，名最上乘。此即金剛正印，佛祖傳心要訣也。三藏十二部，千七百公案，乃至天台三大五小，皆發明此理而已。此理不明，徒學佛法，徒參公案，竟有何益。此理既明，一切宗教皆吾心註腳，豈異說所能簞鼓。以此圓解，淨除無始妄惑種子。若觀行淨，則同居土淨，相似淨，方便土淨，分證淨，實報土淨，究竟淨，寂光土淨。故曰，隨其心淨，則佛土淨。當知華藏莊嚴無邊剎海，皆我淨心所感依報，皆第八識所現相分，豈別有心外之土，又豈別有土外之心也。

(示戒心)欲使悲智恒得相應，必須諦觀現前一念。此一念心，不在內外中閒，不在去來現在，非青黃赤白，非長短方圓，欲言其有，毫無朕跡，欲言其無，不可斷滅。三世諸佛所證，證此也，一切眾生所迷，迷此也。證時不增，迷時不減。故曰，心佛眾生，三無差別。然證雖不增，恒受法性真常之樂，為求此樂，故名為智。迷雖不減，枉受顛倒輪迴之苦，為拔此苦，故名為悲。非大智不運大悲，非大悲不圓大智。一念觀心，即一念返迷歸悟，念念觀心，即念念返迷歸悟。返迷是即智之悲，歸悟是即悲之智。即智之悲，所

以遊行四方，即悲之智，所以承事諸佛。佛及眾生，總不出我現前一念心性。持戒者瑩，治此也，作福者，莊嚴此也，忍辱者，體達此也。精進者，顯發此也。坐禪者，映徹此也。看經者，照了此也。見佛菩薩善知識者，印契此也。立大願行，盡未來際，度脫有情者，完滿此也。觀一念心中十界假名，而興與拔，為平等生緣慈悲。觀一念心中十界五陰而興與拔，為平等法緣慈悲。觀一念心中十界體性而興與拔，為平等無緣慈悲。一切時中觀心為主，讀誦了義大乘而助顯之，勤修種種福德而資發之。勿令此心墮在無記不善境界，勿貪世間文字詩詞而礙正法，勿逐慳貪嫉妒我慢鄙覆習氣而自毀傷，日新其德以詣於成。一生如此，則生生亦復如是，得生淨土，永無退轉。百劫千生，大事因緣，只在現前一念。此念若正，無不是正。此念若邪，無不是邪也。

(示吳景文)無法不從心造，無法不即心具，識取自心，佛祖道盡矣。心造者，即理恒事也。心具者，即事恒理也。即理而事，謂之百法，即事而理，謂之大乘。百法是理家之事，全事即理，故云一切法無我。無我即二空真如，欲不謂之大乘，不可得也。大乘是事家之理，全理成事，故以止觀所依等五番建立，攝盡三千性相，百界千如，欲不謂之百法，不可得也。故欲透唯識玄關，須善台衡宗旨。欲得台衡心髓，須從唯識入門。未有日用尋常分劑頭數，尚未了了分明，而漫擬玄妙者。法華諸法如是相，如是性，乃至如是本末究竟等，相最在初，以其攬而可別故也。設現前心起之相，尚不知是王是所，是善不善，有覆無覆，於三量中為是何量，於三境中為緣何境，彼若性若體，乃至果報，何由洞然明白。設於事造一界十如，尚未能了，又何由即事造而達理具之百界千如，又何由即事造之理具，遂洞照了達即理具之事造百界千如。嗚呼，台衡心法不明久矣。彼蓋不知智者淨名疏，純引天親釋義故也。疏流高麗，莫釋世疑，而南嶽大乘止觀，亦約八識辨修證門，正謂捨現前王所，別無所觀之境。所觀既無，能觀安寄。辨境方可修行，止觀是台衡真正血脈，不同他宗泛論玄微。法爾之法，道不可離。彼拒法相於山外，不知會百川歸大海者，誤也。

(示如母)道不在文字，亦不在離文字。執文字為道，講師所以有說食數寶之譏也。執離文字為道，禪士所以有暗證生盲之禍也。達磨大師以心傳心，必藉楞伽為印，誠恐離經一字，即同魔說。智者大師九旬談妙，隨處結歸止觀，誠恐依文解義，反成佛冤。少室天台，本無兩致，後世禪既謗教，教亦謗禪，良可悲矣。予二十三歲，即苦志參禪，今輒自稱私淑天台者，深痛我禪門之病，非台宗不能救耳。柰何台家子孫，猶固拒我禪宗，豈智者大師本意哉。憾予為虛名所累，力用未充，不能徹救兩家之失。但所得名字位中圓融佛

眼，的可考古佛不謬，俟百世不惑。願如母但學予解，勿學予之早為人師，庶法門有賴乎。

(示用晦二則)弟之從予遊，啟之者松蘿令師，成之者，如母乃兄也。令師謂弟堪作法廈一椽，蓋謙詞也，亦實語也。然材之大小何可定。雖有大木，匠人斲而小之，則不勝其任矣，拱把之桐梓，能善養之，則漸成合抱矣。今天下之匠，未有不以名利斲人者也。汝固能不受其斲，所以善自養者，不可不急講也。曾子曰，士不可以不弘毅，任重而道遠。夫法界含生為己任，任乃重矣。盡未來際無已時，時乃遠矣。任雖重，不可他諉也。時雖遠，不可中止也。知不可諉，不期弘而自弘。知不可止，不期毅而自毅。以此自養，雖天魔外道不能斲令小也。陰涼大樹，深為弟望之。(其一)

法身之性，本無差別，佛異眾生，修德有功而已。修德亦皆性具，眾生日用不知者，癡愛異見，為之障也。欲彰修德，莫先除障。修德有二，一般若，二解脫。欲證般若，須勤聞思修三慧。欲證解脫，須勤施戒心三福。施除貧乏，得大助道，戒除垢染，成就法器，心除散亂，能引實慧。所以福慧二輪，不可暫廢，廢則法身流轉五道，名曰眾生矣。嗚呼，末世求真修福慧者，厥唯艱哉。或師心任意，或縱恣宿習，或精勤不得其門，唐捐苦行，或知路不肯舉足，坐待日暮，或甫欲入路，外魔內障，順逆境緣，紛紛競作，有志不展，可痛哭流涕者，不止一二事也。彼發心不真正，志願不遠大，誓力不勇猛者，俱不足論。且如朽人，二十四歲出家，父未葬，母乏養，毅然薙髮染衣，作務雲棲，坐禪雙徑，住靜天台，心真正，志遠大，誓勇猛。將出家，先發三願，一未證無生法忍，不收徒眾，二不登高座，三寧凍餓死，不誦經禮懺，及化緣以資身口。又發三拌，拌得餓死，拌得凍死，拌與人欺死，終不出一言理是非，競得失，何況有報怨復仇之事。故數年行腳，不敢亂走一步，輕發一言，動大眾念頭。特因少年，稍通文墨，未幾為道友所逼，輒為商究佛法，遂致虛名日彰，於三願中違卻不高座願。又因初出家時，急要工夫成片，不曾依薙度師作務三年之訓，始意工夫成片，仍可作務，豈料虛名所誤，竟無處可討務單。一蹉百蹉，福輪欠缺。三十年來，自利既不究竟，利他又無所成，雖種種著述，僅與天下後世結般若緣，而重興正法之志，付諸無可柰何矣。豈不大可慟哉。汝志兼修福，甚慊予願。但汝資雖穎，質雖誠，志雖正，而稟氣柔弱，短於人情世故。既柔弱短智，莫若一筆勾倒，作一癡呆漢好。若不能涉入，又不能勾倒，反多一種，不覺福慧俱受傷矣。孔子謂邦家必達者貴質直好義，察言觀色。此雙修二輪之祕訣也。夫質直者，正念真如也，好義者，樂集功德也。二者皆以察言觀色為進修方便。蓋修此二輪，必須親近知識，儒所謂親仁也。

必須隨順眾生，儒所謂泛愛眾也。夫親愛之道，非察言觀色，則我法熾然。我法熾然，不唯不能升堂入室，竭力盡誠，恐不至深獲戾於仁眾不止。良由智光未露，則福德全傷，福德全傷，則智種滅沒，是修惑業，非修福慧也。汝欲修此觀察妙法，請從一筆句倒始，內不見有我，則我無能，外不見有人，則人無過。一味癡呆，深自慚愧，劣智慢心，痛自改革。逮積福多，善根淳厚，只此癡呆漢子，卻能如水之隨處流行，泛應曲當。若坐立去來，悉不逆前人意，如須菩提是相似癡呆，亦相似察言觀色。若觀十法界眾生，稱汝名者之音，令彼前人悉得解脫，如觀世音，是分真癡呆，亦分真察言觀色。若外道婆羅門懷善惡心而來，莫不悅可其意，乃至隨緣赴感靡不周。如釋迦牟尼，則究竟癡呆，亦究竟察言觀色。身證二嚴，號稱兩足，邦家必達，義極於此。嗚呼，鴛鴦繡出從君看，不把金鍼度與人。梓匠輪輿，能與人規矩，不能使人巧。一箇荔枝，殼剝了，核去了，放在你口裏，只代咽不得。用晦其深思之。

(示明記)佛法衰由出家人見地不明。見不明，又由因地不真。使發心真為生死大事，定知三界生死無不是苦。既知三界總是苦諦，決不起三界內心，是謂斷集知苦。斷集之智，便是道諦，更無二道。修道永斷苦集便是滅諦，更無他滅。自苦如此，他苦亦然。故發誓云，眾生無邊誓願度。自集應斷他亦然，故發誓云，煩惱無盡誓願斷。自須修道他亦然，故發誓云，法門無量誓願學。自期證滅他亦然，故發誓云，佛道無上誓願成。此之謂因地真，見地自明白也。今人不然，才說為生死，便置法門於度外，惟思獨善。才說為法門，便置生死於度外，惟競世情。夫思獨善者，不失為人天二乘種子，競世情者，鮮不墮修羅魔外窠臼。撐法門者益多，而正法益壞，可勝悼哉。予別無長處，但深知菩提大心，決與為生死心不二。今特為汝徹底道破，能信此語，則念念與四諦四弘相應矣。

(示馬太昭)予向拈周易禪解，信無十一，疑逾十九。嗟嗟，我誠過矣。然察疑者之情，謂儒自儒，佛自佛，欲明佛理佛經可解，何亂我儒宗。易果有禪乎，四大聖人豈無知者。易果無禪乎，爾何人斯，敢肆異說。噫，予是以笑而不答也。昔陸象山始疑天地何所窮際，逮豁悟後，不過曰，東海有聖人出焉，此心同也，此理同也，南西北海有聖人出焉，此心此理，亦莫不然。更不復談及天地。豈非以無窮無盡之天地，總不出此心此理，故不復生有邊無邊諸戲論哉。易曰，範圍天地之化而不過，曲成萬物而不遺，通乎晝夜之道而知，故神無方而易無體。夫易既範圍曲成矣，何無體。既無體矣，以何物範圍天地曲成萬物。噫，試深思之，可謂易無禪邪，可謂聖人不知禪邪。且聖人明言，陰陽不測之謂神，又言神無方矣。後儒必以乾陽配天配君，坤陰配地配臣，則廣八卦所云，乾為寒為

冰為瘠馬等，坤為吝嗇為文為黑等，果何謂邪。聖人明言，易無體矣。後儒必以易定是易，尚不可推諸詩書禮樂，況可推三寶四諦十二因緣六度萬行。是四聖之心邪，非四聖之心邪。至動莫若乾，晝反奇，恐動或非動也。至靜莫若坤，晝反偶，恐靜或非靜也。艮山兌澤，皆不動之物也，何得稱咸也。巽風震雷，皆不停之象也，何反稱恒也。坎中男也，何水至冷也。離中女也，何火至熱也。水降滅火也，火然竭水也，何以稱既濟也。水潤得所也，火炎上而順性也，何以稱未濟也。故曰不可為典要，惟變所適。胡後儒之執為典要，不知變通也。馬太昭自幼留心易學，獨不以先入之言為主。客冬聞台宗一切皆權，一切皆實，一切皆亦權亦實，一切皆非權非實之語，方知周易亦權亦實，亦兼權實，亦非權實。又聞現前一念心性，不變隨緣，隨緣不變之妙，方知不易之為變易，變易之終不易。夫所謂不易者，惟無方無體故耳。使有方有體，則是器非道，何名神，何名易哉。又不達無方無體，不惟陰陽是器，太極亦器也。苟達無方無體，不惟太極非器，陰陽乃至萬物亦非器也。周子曰，太極本無極也。亦可曰，陽本無陽也，陰本無陰也，八卦本無卦也，六爻本無爻也。故曰，陰陽不測之謂神也。陰陽設有方體，安得名不測也。論云，諸法無自性，無他性，無共性，無無因性，無性亦無性。無性之性，乃名諸法實性。噫，此易邪，禪邪，亦易亦禪邪，非易非禪邪。居士必能默識之矣。

(示六正)戒者佛身，律者佛行，禪者佛心，教者佛語。有身行，無心語，木偶傀儡而已。有心無身語，無主孤魂而已。有語無身心，風鳴谷響而已。又有身心無語，嬰孩孺子而已。有身語無心，鸚鵡百舌而已。有心語無身行，癩人賣藥而已。由是觀之，三宗果可分乎。然自行斷不可分，化他又不必合，迦葉未嘗不持戒精嚴，博通佛法也，以禪名。阿難未嘗不深證六通，嚴持妙戒也，以教名。優波離，未嘗不廣解佛法，深入禪思也，以律名。又此土律師，如曇無讖等，何嘗不備禪教。法師如智者荊谿清涼等，何嘗不備禪律。禪師如六祖南嶽百丈為山等，何嘗不備教律。末世不求其實，求其名，識短智闇，志小慮近，既乏大菩提種，又無真實為生死心，一味隨波逐浪，爭趨百年活計，做成一律師法師宗師，哄愚夫愚婦禮拜供養，苟且混過此生，豈復思有塵劫大事。其根稍利者，欲遍襲禪教律皮膚糟粕，妄謂能集大成。殊不知為三教帽子，反不如專一法者，尚有小受用也。嗚呼，欲速則不達，見小利則大事不成，人之患在好為人師。眼前名聞利養，不啻白駒過隙，乃不能全體放下，深求出要，欺人只成自欺。吾所以目不忍見，耳不忍聞，惟畢命深山，早生淨土耳。六正數千里來，求示三學不一不異之旨，必已知生死大事，的確可痛，律師法師禪師虛名，的確不出生死，反

增長生死。從此便應埋頭苦志，力學三法，一一徹其源底，勿更覆時轍哉。

(示清源)乙酉，紫竹林顓愚大師，遣七人來學，清源容闔梨而為上首。丙戌顓師逝。庚寅，紫竹林萬白公去世，命延清源繼主戒場。僧使捧緇素簡至靈峰跪懇，予亦勸駕。清源痛哭，辭欲作他方萍梗。予及僧使，並鑒其誠不敢強。嗚呼，近世輕薄少年，毫無實德，好為人師，稱律主法主宗主者遍域中，誑彼生盲，以耳為目如清源識法者懼，豈初生牛犢所能企哉。清源充此不敢謬為人師一念，養至極純粹，俾三學圓明，萬行具足，發菩提心者，以未來際為一剎那，豈似短見人，惟圖眼前活計，將來三塗劇苦，一總不顧，不亦大可哀哉。成佛作祖，墮坑落塹，所爭只一念閒。故儒云，人心惟危，道心惟微。惟聖罔念作狂，惟狂克念作聖。欲知舜與跖之分無他，利與善之閒也。所以一般受戒學律，聽教看經，參宗坐禪，但夾帶利名心，便是三塗種子，但執著取相，便是人天魔外種子，但一味出離生死，便是二乘種子，但具真實自覺覺他心，便是菩薩種子，但從自覺聖趣，光明發輝，徹其源底，共迴向淨土，普與眾生同登極樂，便是無上菩提種子。故曰，一切法正，一切法邪，清源信此，但向現前一念討取禪教律源頭，不墮今時禪教律流弊，亦不因咽廢飯，妄埽禪教律法門，則不負顓師命汝從予遊之盛心矣。

(示九牧法主)台宗云，研真斷惑名之為學，真窮惑盡名為無學。儒者云，學問之道無他，求其放心而已。心者覓之了不可得而非無，豎窮橫遍而非有。本離四句，如何可放。本無可放，如何可求。以不達離過絕非之體，妄認緣影，或肉團為心，如認一浮漚，棄百千大海，名之為放。若能四性四運推簡此心，觀其無生無住，名之為求。是故無生無住之體，究竟現前乃名真窮，肉團緣影之執，究竟蕩盡，乃名惑盡。未登佛地，皆名學人。學不求心，徒增虛妄。千經萬論，少室天台，真實指歸，唯此一事而已。觀此者，名觀不思議境。發此者，名發真菩提心。安此者，名安圓頓止觀。但向此中破一切惑，即塞成通，自然道品調適，事理悉備，不被名利所牽，得少為足，自當心心流入薩婆若海也。

(示吳允平)佛祖心印，超情離見，不落窠臼，謂之向上一著。可心思擬議，道理湊泊，是向下非向上矣。般若如大火聚，四邊皆不可觸，觸則被燒。分明不離教乘，教乘決收不得，故名教外別傳。夫如來聖教，尚收不得，世閒典籍，可比況邪。堪嗟末季，正見衰微，每有竊據祖位妄稱知識者，敢於訶詆佛言，偏欲牽合儒典。其詆佛言，是諸侯惡王制害已，而去其籍也，其牽儒典，是儀衍投時君之好，而以順為正也。不思達磨以楞伽印心，五祖以金剛印心，

安公讀楞嚴悟道，普菴閱華嚴合論悟道，則佛言豈可詆乎。無心猶隔一重關，儒乃妄認六塵緣影為心，謂有存有亡，有在不在，何啻迷頭認影，則世典可牽合乎。欲了當大事，須真參實悟，徹底打破情識意見道理窠臼，如大死再甦相似。又將了義大乘，一一印過，始不墮邪曲蹊徑也。

(示吳勉菴)五戒即五常，不殺即仁，不盜即義，不邪淫即禮，不妄言即信，不飲酒即智。所以在天為五星，在地為五嶽，在時為五行，在人為五臟。天有五星，地有五嶽，時有五行，方生育萬物，人有五臟，方成立色體。然五常祇能為世間聖賢，維世正法。而五戒則超生脫死，乃至成就無上菩提，以儒門但總明戒相，未的確全示戒體故也。何名戒體，謂吾人現前一念良知之心，覺了不迷為佛寶。佛者，覺也。儒亦云明明德，而未知明德，即現前一念本覺之體，明明德即現前一念始覺之智，依於本覺而有始覺。以此始覺契乎本覺，始本不二，名究竟覺，故此心性即佛也。吾人現前一念所知之境為法寶。儒亦云，範圍天地，曲成萬物，而未顯言，內而根身種子，外而山河國土，天地虛空，乃至百界千如，種種差別，皆是現前一念所現。故此心相，盡名法也。如此心外無境，境外無心。於其中間，無是非是，心境和合，從來不二，名和合僧也。儒亦云，萬物皆備於我，而未了物我同源。故此三義，皆未的確，況圓顯無剩哉。十方三世一切常住諸佛，無不徹證我一心三寶而成正覺，所說一切常住法藏，無不詮顯我一心三寶而成真軌，所化一切常住聖賢，無不觀察我一心三寶，而成二利。一心是理，常住是事。一心是性，常住是修。性修不二，理事不二，三寶圓顯，的示知歸。一心既彰，五戒斯具。所謂現前一念，能緣一切正報。而悲愍仁慈即是佛，所緣之正報即是法，心境不二即僧，故不殺，方為歸依三寶也。現前一念，能緣一切依正，而奉公守義即佛，所緣之依正即法，心境不二即僧，故不盜，方為歸依三寶也。現前一念，能緣一切正報而清心寡欲即佛，所緣即法，不二即僧，故不邪淫，方為歸依三寶也。現前一念，能緣一切正報，而誠實無妄即佛，所緣即法，不二即僧，故不妄語，方為歸依三寶也。現前一念，能緣一切旨酒，深恐昏迷即佛，所緣酒即法，不二即僧，故不飲酒，方為歸依三寶也。若以歸望戒，三歸為能持，五戒為所持。若以戒望歸，三寶為所歸，五戒為能歸。念念之間，圓顯法身向上，如如不動，則端拱太平，若動著則禍生不測矣。蕩益道人，已為勉菴徹底拈示了也，還信否。信則穩步歸舍，疑則一任別參。

靈峰蕩益大師宗論卷第二之五

答問一

答卓左車彌陀疏鈔三十二問(原問附)

(問，華嚴雖二乘盲聾，亦兼攝聲聞，以含無量乘故。此經雖二乘種不生，乃道品大小互通，正與華嚴四聖諦品不異，故有生彼經劫方證小果者。大智度論云，彌陀亦以三乘度生，自應二藏五教總攝，何云不攝小乘。且既通雜華，復不能通雜華所攝無量乘邪。)

答，疏主判經，以頓通圓，不以圓攝頓。又約道品即小成大，小果暫有終無之義，謂不互攝，豈一句彌陀，不橫羅諸教，圓契五宗，不全體華嚴，全攝諸乘也。

(問，餘門豎出，念佛橫出。餘門正指教中觀行，故禪稱別傳，淨云徑路，皆以超越觀行故。今云觀即是念，念即是觀，直以台觀當之，不反鈍置念佛邪。)

答，此之橫豎，約自力他力斷惑帶業而論，不約境諦觀智。故念佛圓收圓超一切法門，亦不可以參禪為例。若論諦智，四教觀行，有析空體空次第一心之不同。謂前三豎出三界則可，謂非橫非豎之一心三觀，亦為豎出可乎。況觀經以如來勝異方便，攝眾生性具觀門，同宗一心，同歸淨土，觀念相即，何名鈍置。但辯持名，不惟散善，非妙觀便不捷徑也。別傳之旨，尤不容剩言滯句。末法之中，有名無義，果令四教不收，便成離經魔說，烏在其為超越也。

(問，天台三觀，得攝法界觀否。)

答，華嚴法界，生佛同源。以收機不盡，不免現權隱實。則阿含乃至涅槃，皆華嚴闔外，所以驅率土盡令臣服也。法華實相，本跡同印，以說時未至，不免為實施權。則般若乃至華嚴，皆法華前茅，所以會旬荒同令執玉也。一名從本垂末，一名攝末歸本，非一心三觀，何得事事無礙。非事事無礙，何名一心三觀。

(問，合論判極樂淨土是權，淨名唯心淨土是實。然菩薩成佛，眾生來生，明言攝受往生之事，與彌陀無二。疏言此指事一心者，豈事一心，便不名唯心邪。)

答，合論以不斷惑生同居，乃如來權巧之力，非謂法藏四十八願，莊嚴淨土，亦非實也。淨名心淨土淨，正同法藏往因。至於菩薩成佛，眾生來生，何妨從實垂權。若念佛人，因事入理，又何妨即權即實。權實事理，總屬一心，雖分不分。古人判釋，皆當作如是觀。

(問，觀雖十六，言佛便周。何故鈔只通普觀，為助因邪。)

答，念佛觀佛，歸趣同，入門異。初心行人，雜則不成三昧，故唯稱萬德洪名，便為多善根。然正助兼修，本無定法，如行舟然，揚帆扯纜，撐篙搖櫓，各隨其便可也。

（問，大本言生彼國者，皆當一生遂補佛處。然中下胎生，豈等覺菩薩邪。）

答，非等覺，而可稱一生補處。以不更歷生死，必圓無上菩提故。小本眾生者，皆是阿鞞跋致，亦指此生必補佛處而言，不以常塗三不退論。下又云，其中多有一生補處，則別指現證等覺者，亦以此生必補。故得云，其中多有也。所以極樂凡聖同居土，與常塗教意迥別。常塗不過暫時同居，此與一切等覺，同淨寂光，故云得與如是諸上善人俱會一處。諸上二字，不概指無量聲聞菩薩，單指多有一生補處而言。又常塗約感應，及聖者過去有漏業，得與權實聖人同居。此則同一無漏不思議業感生，俱會一處。故又云，不可以少善根福德因緣得生彼國。少字揀至別教地前，并豎揀至圓教住前。以住前皆仗自力登住，入同生性，方蒙諸佛護念故。吾每謂淨土大教，圓收一切教，超出一切教，正謂此也。

（問，單念佛人，不修餘行，得波羅密，即是多善多福。今念佛所證，止素法身邪，已具萬行莊嚴邪。）

答，三身一體，普賢行門，不外毘盧性海。是以初心雖不修餘行，令三昧易成。而三昧既成，三因圓顯，豈有已證法身，莊嚴終缺。亦何須未證法身，預恐不具足邪。然或一門深入，或餘行助成，未許執一。一行三昧，一即是多。萬善同歸，多即是一。

（問，念佛的是誰，與別則公案無二。鈔云，體究念佛，與舉話頭下疑情意極相似。然四種念佛，未列體究一法。經文本無此意，不應入淨業門。今兩路雙徵，若參此不悟，亦不失往生。此為參門留一退步，正墮偷心。若此疑不破，便不得生。此為念門啟一疑情，卻成異說。智徹慈炤天奇毒峰諸師，皆主此說，何所本邪。雲棲若祖諸師，何不直拈誰字。若只相似而已，願聞不全是處。）

答，因念佛人不見佛性，偷心不死，故以此語昭告之，令直下相應，即於一念中圓見三身。圓淨四土，階理一心，此一門深入一心不亂之前茅也。後人聞此誠言，無論悟與不悟，便可死心念佛，更何用參此段公案。直須如此了得。當知昔人下此語時，絕無禪淨之分。後祖收之，但入本宗，非入淨業。何以故，公案現在故。今疏主收入淨業，仍為禪宗。何以故，救有禪無淨土之病故。然則若信得及，以悟為則，以淨土為歸，真實不欺，不留退步，即此似處，即已全是。若信不及，死我偷心，而偷心轉甚，正好實念。而念反狐疑，只此似處，即全不是。故曰，學道須是鐵漢，著手心頭便判。有疑則參，雖罷參而不能。無疑則念，欲起疑而何自。如是則直念苦參，亦無非往生正行也。

(問，如子憶母，必想儀容。今但念聲相續，不取相貌，易馳散否。或依出入諸息，得非小乘法邪。)

答，子之憶母，或善想儀容，或呼號血淚。觀經云，彼人苦逼，不遑念佛(此指觀想)。善友教言，汝若不能念彼佛者，應稱無量壽佛(此指稱名)。夫三界無非劇苦，何止臨命終時。以畏苦心呼號求救，馳散何從。否則攝心調息諸法，亦自不惡。圓人受法，無法不圓，豈有定屬小乘者。試問記珠定香鳴魚擊磬等，大乘邪，小乘邪。

(問，大本有一念定生彼國，疏中不及。豈以此經七日入定乃生，故揀去剎那生滅之一念邪。若釋一以義不以數，大本不應擊十念後。若止如經文，作一念喜愛，何不動如來佛剎，不以愛戀得生。)

答，按寶王論，利根之士，元只一念往生。鈍根之人，臨終十念脫苦。一念者，一心不亂之一念也。當知十念，七日十日七七九十九日等，究竟亦唯一念。此一念，斷非剎那生滅之散心，亦不必四禪四空之禪定，故云一念喜愛。阿閼經喜戀心，本指欲染。

(問，七日後，若永不復亂，不應只名七日。若更亂者，已經退轉，何能感佛。)

答，前此若無真實意樂，則七日決不能一心不亂。後此若無真實受用，又安見七日功成邪。

(問，鈔謂，理一心為觀力成就，則體究全屬觀門。然前言妙觀難成，故顯持名殊勝。今又通觀法，不仍觀勝持邪。若參誰字是體究，又全屬宗門。正參話時，不應有如智不二，寂照難思等理路可傍。)

答，事理二塗，混不得，分不開。疏主一往以稱名為事持，體究為理持，仍云機亦互通，不必疑阻。謂不假方便，自得心開，事持能成就理一心也。又謂體究之極，於自本心，忽然契合，名理一心。則未契時，體究無閒，止名究理，正是事功。然體究一門，與近時禪宗相合，實與台宗妙觀不同。台觀必圓解了了，全性起修，隨舉一觀，無非不思議境。體究以未明心性，鞫其根源，契合之後，達如智不二，寂照一心，方與台宗圓解吻合。非正參話時，有理路可傍也。初學妙理既未精通，不可彷彿相傍，心羈境細，妙觀難成，以此。

(問，疏鈔大意，全重理持，則所明持法，最為要害。今既持名，復云理觀，既是理觀，復拈話頭，禪淨止觀，三法混淆。行人念不歸一，將何為宗。與一門深入專修無閒之旨，何復不侔。)

答，疏主欲即事入理，非以理奪事。當知持名是正行，理觀是所通，話頭是持名轉局也。序云，著事而念能相繼，不虛入品之功，執理而心實未明，反受落空之禍，亦未專重理持。所以處處明理者，恐狂罔謗為凡愚之行耳。後裔無知，反執理輕事，以遭落空之記。哀哉。

(問，疏言，一心，即達磨直指之禪。又云，六祖斥無，乃門庭施設不同。假使纔弘直指，復讚西方，則直指之意，終無由明。既言即是直指，復言為門不同，是少林曹谿亦不同邪。)

答，心地法門，包含無際，總不外一心。門庭施設不同，一心旨歸不異。今一心即直指之禪，言其指歸也。六祖斥無，是老婆罵婢子，只圖齒切耳。非謂但是宗門，便須撥淨土也。永明云，有禪有淨土，猶如戴角虎。中峰云，禪者淨土之禪，淨土者禪之淨土。豈贊西方，直指便不明邪。若言六祖定作是語，莫謗六祖好。

(問，疏指至心念佛一聲，滅八十億劫生死重罪，屬理一心。又釋佛名經，一聞佛名，滅無量劫生死之罪。云一聞，不待憶念，無量，不但八十億劫，則何獨理一心也。又此經聞經聞名，皆得不退，事邪理邪。)

答，觀經十念，除罪往生。由怖苦心切，善友緣強，一念猛利。過百年悠悠，非必有究理之行，然勝於尋常事持。疏主或借顯事功極者，即不違理乎。若佛名經所言，以彼佛具無量威德願力，故聞者獲如是益。聞不信，亦獲無量罪。要非少善根福德眾生，所能得聞也。不退亦不一等，隨聞證者。有位行念三不退，僅歷耳根者，如食少金剛，究竟不消，為遠因終不退也。

(問，棗柏言，華嚴一乘大道，非往生菩薩境界。何故華嚴長子，十願導歸極樂邪。生公說，闡提有佛性，則後出涅槃為證。今後出行願，全與棗柏不符，宗旨竟將安歸。)

答，淨土豎該橫遍，寂光惟佛土，實報乃法身大士所居，方便攝三乘權位，同居則凡夫皆與。合論指大心凡夫，回心羅漢，出五濁，生同居方便二淨土，未悟毘盧性海，入因陀羅網法界也。普賢十願導歸極樂，正不思議解脫境界。徹果徹因，通凡通聖。聖全法界入一塵，凡從一塵通法界。棗柏但言一乘大道，非往生菩薩境界，不謂往生菩薩，非一乘大道法門也。若云華藏大，極樂小，大小之見未忘，未夢華嚴法界在。

(問，既以事持屬定，理持屬慧，而云，事持未能破妄，利根徑就理持，將事不顯理，慧不由定邪。)

答，三無漏學，後必具前。故理一心，或從體究，忽然契合，或從念佛，自得心開，皆由定來。今重悟理，不止除散。雖體究無閒時，便可名事一心，亦有定力，而仍屬慧門。實則定慧二門，各有利鈍，疏主略未言耳。

(問，決志求驗，正在平時，經胡止言臨終佛現。)

答，行人見佛，隨淨業淺深。經明往生，故言接引耳。今只在執持名號處努力加鞭，無論見與未見，但得信願行成就，往生自可無疑，慎勿生僥倖退息心也。

(問，心不顛倒，故能預知時至。乃云死時何苦欲先知，何邪。)

答，不貴預知，正欲令其心不顛倒。頗有因欲先知而愈重其顛倒者。

(問，大本十念，不言臨終。此與觀經，為同為別。)

答，大本云，志心信樂，乃至十念。觀志心信樂，何等深切。不必在臨終時，實與臨終同一猛利。後世祖師，因立晨朝十念行門，畢生不缺，亦決往生。

(問，文殊亦發願往生，何反揀去勢至。鈔言，耳根不攝念佛，念佛能攝耳根。

又何邪。)

答，法無優劣，機有抑揚，無煩戲論。觀音六根中，從耳根入。勢至七大中，從根大入。論入門，耳根此方獨利。論收機，淨念三根普通。又圓人法法貫徹，耳根淨念，互攝互融。初機耳唯一根，念乃都攝，亦可抑揚。

(問，用攀緣心為自性，如煮沙成饌。今念佛心，是攀緣邪，非攀緣邪。若是，則一切覺觀思惟，皆生死根本。若非，又何言念性生滅，因果殊感邪。若生滅即不生滅，何云煮沙。此與波水之喻，當自不倫。波即是水，沙非是饌。然法華若人散亂心，南能不斷百思想者，又非即用此生滅心邪。)

答。錯不在用攀緣心，在以之為自性，所謂認驢鞍橋作阿爺下頷，便成沙饌之喻。若識得攀緣心，本無自性，則能用攀緣。不被攀緣用，所謂家賊難防時，識得不為怨，便合波水之喻。況勢至一門，本屬根大。意根為主，五根從之，故曰都攝六根，淨念相繼。意根即第七識，七識無始來，念念執我。今以妙觀察智力，令直下念佛，甜瓜換苦瓠，非尋常攀緣心比。尋常眼識緣色，乃至意識緣法，皆順生死法。念佛時，佛非色非非色，乃至非法非非法。超世間法，離語言道，但可淨念憶持，原非情量所行境界，豈念佛心是攀緣邪。且以攀緣六塵增長生死者，轉攀緣慈父，永脫苦輪，亦自不惡，安得一概論邪。又娑婆根性，唯耳根易顯圓常。念性猶屬生滅。非已悟如來藏性者，終不達念性本圓通也。末世學人，鮮登圓解，耳根入道，亦甚難言。儻不能向佛頂前四卷，痛思深義，窮源徹底，則初於聞中入流亡所工夫，畢竟如何理會。圓頓法門，非小根劣智所能擬議。無米索炊，畫空成繪，反不若因果殊感者，自得心開耳。

(問，經末先言不退，後明往生，正以現生取辦，超乎餘教。何反開少壽多障，不克往生，來世得生一路。)

答，真念佛，決無不生淨土。退菩提者，第恐障深慧淺之流。見自他未效，不罪工力淺，肉眼瞋，反疑佛法無靈，現生退惰。故曲顯勝益，策令現生取辦也。

(問，顯密並圓，何云持名勝準提。)

荅，極準提神力，肉身往詣十方淨土，極念佛三昧，肉眼等見十方如來，誠無勝劣。然約生佛因緣，法門所被，通塗教意，理應獨顯今宗。

(問，參究念佛，謂向上一著，千聖不傳，必從參究方得。既一代時教，皆屬他寶，何禪門公案，便屬家珍。若云禪是教之綱領，何故世尊不說。若云經文亦可參究，又何勞千七百則邪。參話一節，迦文既未拈示，西來亦無此門。若謂門庭既熟，便成窠臼，故換此法，今參話亦成熟路，更換一法何如。)

荅，向上一著，千聖不傳，可云必從參究得邪。然亦一種方便，本無實法綴人，故古稱敲門瓦子，何嘗以公案作家珍。苟昧綱宗，死在句下，謂參話方能悟道，病參話亦成門庭，皆益戲談，何關宗教。當知舉一明三，目機銖兩之士，隨拈一法，透一切法，盡屬家珍，誰為他寶。若緣木求魚，守株待兔，三藏十二部，是拭瘡疣紙，千七百公案，亦陳腐葛藤。法無得失，得失在人。但當因言會心，何得迷心逐語。果契心源，知佛祖皆無一法與人，將以何法換去何法邪。

(問，五逆可以往生，佛何不能滅定業邪。又造業人，若借此自寬，寧不入地獄如箭射邪。)

荅，千年暗室，一燈能破。懺力既殷，業便無定。若頑愚迷津，得船不上，牽裳作筏，抱石為舟，既無迴轉之力，是真定業難逃矣。

(問，涅槃法師，以未誦彌陀經，不得往生。法華云，聞此經，如說修行，命終生安樂世界。何不同邪。)

荅，淨土一門，願為前導，未誦彌陀，即平日願樂不深。若法華所云，是世尊直以妙經為蓮邦左券，勸願明矣。法華即是彌陀，妙經勸願，即是彌陀勸願，即是涅槃勸願，亦即是一切諸經勸願，無不同也。

(問，彼土為人天錯居，為各分九品。佛浴池及菩薩聲聞，為在天上，在人間。既注彼境，應令依正條然。)

荅，淨土純樂，天人豈應迢絕。九品往生，未判人天，或皆九華化生，或天不須托質，皆未可知。大本謂宮殿樓閣，有在池者，在空中者。觀經謂樹上寶網，妙華宮殿，諸天童子，自然在中。然則淨界莊嚴，豈可凡情測量，俾其條然邪。

(問，淨土既宣道品，何觀經止言讀誦大乘。不及小乘。又淨業門，有不禮餘佛不誦餘經者，不併違觀經邪。)

荅，般若每列三十七品。隨結云，乃至一切智智清淨，無二無二分，無別無斷故。道品豈非大乘法門邪。淨業古宿，有一門深入者，乃圓人禮一佛，即禮一切佛，誦一經，即誦一切經。恆沙寶性，無量法藏，一齊委付，一時領知。大乘方等經典，須如是讀誦始得。

(問，一句彌陀，若不通種種法門，莫罄其致。乃云，修餘法門，便屬二心。豈非受一非餘邪。)

答，不知一切法即一法，廣修誠屬二心。若一法中透一切法，專習即是總持。佛行魔行，豈在法也。

(問，英師以兜率近，判內院易生，鈔以論因不論地揀之。後言勝蓮，雖超極樂，然樂邦近，何又論地邪。)

答，皆論因也。勝蓮境界，去博地凡夫甚遠，不同彌陀，近垂方便，十念便可成因。未有不能生極樂，而能生勝蓮者。但深信佛語，入淨土玄閭，極樂未必不即勝蓮。如情生遍計，疑極樂為權施，則勝蓮遠矣。

(問，鈔中蓮臺二義。今金剛臺，紫金臺，為是房臺，是基臺。)

答，汎言二義。若托質金臺，本在花內，基臺非所論也。

答印生四問(原問附)

(問，未得戒時，以何法攝心。十戒有犯，許懺悔否。懺悔後，即許進具否。作何懺法，方名得戒。)

答，得戒須具殷重心，清淨心，希求勝法。懺悔須具慚愧心，決斷心，翻前惡境。即此為攝心法，即此是得戒因。十戒有犯，誓不更造，律許進具。應鄭重，不宜欲速。

(問，一代時教，初心許遍閱否。參禪許看教否。若悟後方看，此生恐難保任，若羈了即參，又恐知解纏繞。)

答，看教貴精不貴多。一部中精研妙義，徹骨徹髓，自然旁通眾典，勢如破竹。欲徹骨髓，必須看時，即是觀心。既曰觀心，功同參悟，原非尋言逐句，有何相礙。教理資神，如膏助火，是在精了其義，不應羈了。未能精了，而曰知解纏繞，何異戰敗之士，咎武藝太多邪。

(問，黃蘗已前無話頭，未審何法得悟。我今當從何入門下手邪。作何主宰，不被境奪邪。何時當見人，何地方究竟邪。幸詳示之。)

答，直下知歸，那有實法。參話本後世方便，死人偷心耳。從上諸祖，但向本分中留心。只今學人，須向本分中下手。一切時，一切處，只為此本分事，自不見有境，豈為所奪。善知識者，時時當見，決擇身心，直至圓滿菩提，方為究竟。是在當人發大勇猛，擴大虛懷，啟迪大智，長養大悲，捨一切愛見，修一切方便，乃不墮外道二乘權教諸境界耳。

(問，參究念佛之說，當得話頭否。既恐今生不悟，來生難保，故用此法，以攝往生。然又恐為參禪開一退步，當作何融通邪。一生參禪，臨終發願何如。)

荅，眾生顛倒，轉說轉疑。吾今徹底道破，亦令當來諸有志者，毋泣歧路。既一門深入，何須疊床架屋，更涉參究。但觀蓮宗諸祖，便知淨不須禪。若為大事因緣，有疑未破，欲罷不能，而行參究，正應殷勤回向西方。但觀永明等諸大祖師，便知禪決須淨。本分中事了然可辨，何須曲為融通也。信則便信，疑則別參。

代荅劉心城又上博山四問(原問博山書附)

(蒙示，即今若有取捨，同之一字，即是妄言。然妙宗云，取捨若極，與不取捨亦非異轍。正謂取捨愈有愈無，斯為圓妙。若無之始無，不落小乘邪。)

荅，極者，謂取至無可取處，捨至無可捨處，恰與不取捨合，非僅以取捨作無取捨會也。正欲極之，不欲無之。若未致其極，便欲無之。且墮惡取，便擬欲同，正屬妄言。

(蒙示，以葛藤埽葛藤，與不絆葛藤者，優劣若何。夫台宗二而不二，不二而二，正爭此葛藤之有無。則教理不廢葛藤，葛藤無非圓頓。)

荅，文字性離，非離文字。未達斯旨，謾云不立。只此不立，便是文字。悟時轉法華，此不絆葛藤也。誰為所埽，誰為能埽。智者九旬談妙，字字從祕藏流出，字字能含攝祕藏。豈似尋章逐句，入海算沙，全墮葛藤窠臼，乃云葛藤埽葛藤邪。

(蒙示，多句不如一句，須得水源。若尋枝蔓，妄云句歸何處，不太蚤計邪。竊聞台宗，專用六識，謂伐樹得根，灸病得穴。既得其本，即蔓是本，既得其源，即流是源。)

荅，定穴定根，所以待灸待伐，故曰須得水源。若培業根而不伐，護膏肓而不灸，則錯認源流，倒置本末，悖台宗奧旨，入生死迅流矣。

(蒙示，一念識心保無失腳，未知用那個心保得。若用識心，隔陰不知宿命。然台宗專用六識，為圓頓無上止觀，懸合楞嚴。楞嚴云，憶佛念佛，現前當來，必定見佛。憶念非用六識邪。教中明用六識，六識明知位次。若能依教修學，教理可作保人。)

荅，台宗觀一念識心，即不思議境者。以圓解之人，既達如來藏性，故即流是源也。若謂專用六識，是以攀緣為自性，乃生死根本，正楞嚴所訶。猥云懸合，不幾謗止觀邪。又勢至圓通，屬七大中根大，故曰都攝六根，淨念相繼，意根為主，五根從之。以根為識，確為有過。台宗云，觀心若起，本跡俱絕。從此方能斷惑證理，安立位次。若六識明知位次，便屬法塵分別影事，何名圓頓法門。既留心台教，藉為保人，未識保人作何面孔，能決定相保邪。果然識得保人，管取亦能自保。

擬荅忘所上博山書問(原問博山東附)

(法久逾衰，非時使然，授受濫觴，不可援耳。且以學人論之，根之利鈍，誰免相生住滅，及流注生住滅。縱不落識情，分別迴絕，相許言斷，流注能截然乎。即使截然，尚名真如流注。夫眾生妄想執著，世尊四十九年鏟刷，令執著遣盡，然後拈花示眾。此一拈花，豈非佛四十九年說的。眾生積劫迷的，以迷則不敢拈，非佛不能作捷徑法，最初了此一大事也。今於善知識棒喝機鋒能如是承當否。復以師範言之，達磨西來，正為此方，名言習氣沸盛，別投一劑無意路還元丹也。至曹谿分衍，仍恐又墮言說。所以五家各立門戶，借賓主君臣玄要，以探虛實。古人於此事，真劍刃上行。乃今之宗乘，又為昔之教法，安得再有一達磨來，藥病俱埽，埽亦不留，面少林九年壁乎。不爾，亦當如趙州黃蘗之大用。其餘又不勝數，要皆以新法勝人也。此新法正是無師智，自然智，佛不能傳，語所不載，如大將軍臨敵，韜略俱捨，以敵亦熟明此法故。然亦離此韜略一字不得，以韜略正載此活法，人自死耳。得之者死語拈來皆活，不得者活句拈來皆死。無法無新，新在自得。語不出人意表，何以解人無始黏縛，點鐵成金乎。)

從上佛祖，本無實法與人。拈花微笑，乃至達磨初來，雖云傳佛心印，豈離眾生心外更有佛心可傳。不過為人解黏去縛，令達妄想無性耳。達得妄想無性，二種生住滅當下寂然。若欲向生住滅處截斷，正恐一番鏟刷，倍增一番執著。且達磨單傳之旨，如畫龍點睛，令其飛去，非離文字，說於解脫。則昔日之教法，本未嘗埽，今日之宗乘，又何用新。謂一切知識皆以新法勝人，幸莫謗知識也。且既知離卻舊法，別無新法，豈不知欲作新法，便成舊法。死語活句，亦復如是。當今學者，濁智流轉，偷心熾然，不思追蹤往哲，但欲奪彩時流。為善知識，正應據先聖之典型，杜其僭竊。不惟棒喝機鋒漸成惡套，即有藥病俱埽，埽亦不留之。達磨來，恐不留，復成窠臼。如波逐波，有何了期。莫若向源頭處討箇脈路，則循規蹈矩，不施一巧，坐致太平。幸薦取本分草料，莫更求格外鉗錘也。

擬荅白居易問寂音禪師書(問在林閒錄)

如來出世，惟為一乘。眾生根性不等，方便說三。雖復說三，究竟歸一。恐不信沒在苦，故須鑒彼當機。恐以三乘作實法會，故云無有高下。夫眾生種種病，只是一病，以不識佛性故。如來種種藥，元是一藥，究竟為一佛乘故。然受病既久，變症多端。醫王用藥，亦須隨宜得所。然則病愈藥除，乃如來本意，藥應病與，乃方便智門，惟達如來設教元由，自得末世利人妙用。為下種者，強毒以大亦可，為熟脫者，善巧說三亦可。若權實之致不明，悉檀之義未

委，豈惟順機說三為妄分別，即一味道亦瞞盱儻侗。故六種經中所有二義，恰恰相成也。五蘊十二因緣者，蘊以積聚覆蓋為義，分名為四，對色成五，只名色一支便具，何得約十二因緣倫次成難邪。十二因緣，約三世因果輪迴，以能生果為因，展轉相藉為緣。是故蘊惟苦諦，緣兼苦集，蘊法約橫，因緣約豎。始從無明，終至老死，一一支中，皆具五蘊。不依五蘊，何得無明，安有諸行。生即五蘊虛妄和合，老即五蘊虛妄變異，死即五蘊虛妄散壞耳。

荅人問參究初心方便說

向上一機，自有祖庭正令，不落方便。既曲為中下，設方便門。有一病，隨有一藥。病既萬端，藥亦千變。良醫合宜而用，砒霜活人，庸醫昧機而施，醍醐傷命。立一法必伏一弊，有一利，必具一害。棒喝機鋒，提持公案，皆藥也，亦皆病也，未可軒輊，亦未可決定執為初心方便。如人行路，不與導師同程，莫若博問路徑。不然，惜一時之躊躇，貽歷年之錯誤，入鬼國，墮深坑，遇蠱毒，逢劫賊，敢保十箇五雙有分在。

荅菩薩戒九問(原問附)

(問，梵網云，於未受戒人前，說七佛教戒者，犯輕垢罪，謂但遮誦時，不遮講時。何意。)

荅，比丘戒法，關係僧輪，為防賊住，一切俱遮。菩薩戒法，普收五道，解義發心，事非所禁。但誦時恐有發露，不合令未受者知，故云不得說也。

(問，戒本四重，梵網十重，詳略不同。梵網犯重，見相更受，戒本但云更受。寬嚴有異，何也。)

荅，戒本出地持，地持合殺盜淫妄名出家八重。善生經列殺盜淫妄酤酒說過，名優婆塞六重。梵網備二經之義，總為十重，纓絡亦同，由被機不等故也。今戒本四重，復有三義。一者，在家出家欲受此戒，必已先受五戒十戒具戒，是則殺盜淫妄根本性重，不須更列，惟列增上戒也。二者，菩薩戒法，逆順無方，為眾生故，容少分現行性罪，此四理無開許，故獨列之。三者，根本四罪，一犯永墮，大乘雖通懺悔，亦必期于見相。今此四法，設有犯者，猶堪更受，恐濫前四，故獨列之。然梵網犯重，必見好相者。釋迦和尚，一往法嚴。彌勒闍梨，輕重開遮，理須詳悉。今准經論參合發明。殺盜等四，隨犯一種，諸戒並失，得見好相，大可重受。而比丘法

中，仍無僧用酤酒等六，隨犯一種，失菩薩戒。具戒以下，不名為失，故殷勤悔過，許其重受。二經互相影略，非相違也。

（問，比丘遮罪難緣乃開。今性罪開而遮罪無文，且逆行凡夫安能利人邪。）

答，遮罪為護眾生，大士皆應同學。難緣所開，已同聲聞，惟性罪一向遮，故須開也。不揀是凡是聖，果能悲心代苦，慚愧不為功，則戒身無恙。儻藉口任情，止成自欺，必虧戒體。莫貪大士虛名，而招長夜苦報也。

（問，受戒羯磨文，若無授者，聽像前自受。梵網自誓受戒，必須要見好相，不見好相，不名得戒。何也。）

答，受戒一事，須論因緣。因是內心殷重，緣是授受分明。修證貴因深，教道藉緣具。是以比丘律藏，嚴住持僧寶之體，專重眾緣。瓔珞地持，開趨向菩提之路，但觀因地。梵網最初結戒，理須二法並扶，故雖許自受，必見相為期也。又復應知，如起信所明，或有眾生以大悲故，能自發心，或正法欲滅，以護法因緣故，能自發心。復有見佛色相，而發其心。今梵網求相，所以使發菩提。地持像前得受，但指已發心者。梵網嚴立法，地持嚴擇人，互表裏也。復次瓔珞經云，諸佛菩薩現在前受，名上品戒，法師相授，名中品，千里無師像前自受，名下品。亦無求見好相之言。然猶約外緣分別。復有論云，發增上心，得增上戒。又心無盡者，戒亦無盡，是約內因分上中下也。今人大須自審，果念念與悲智相應，上荷正法，下憫含生，便遵瓔珞地持。如雖希佛道，悲智未深，則須秉持梵網。或現有明師，心存憍慢，不從求受，別向像求，斯則兩經咸不聽，五悔終不成。既欲遠趨極果，豈容因地不真。豪傑士斷不宜自誑矣。

（問，大乘重內因。今時律師，可知人內因真否。如不真，得戒否。如不得戒，設犯還定罪否。）

答，羯磨文有觀察當機之法，不知內因而妄授，不免無解作師之過。受者不善無記心，雖不發戒，然濫膺菩薩名，自當依法判罪。非比丘戒中，竟以賊住論也。

（問，懺罪羯磨，許向小乘悔過。梵網經，不得向未受菩薩戒者說。尚不向說，可向悔邪。）

答，住持僧寶，堪受懺悔。又聲聞人，雖未識長者是父，實是真子，非餘一切未受戒者比也。至半月說戒，遣之令出，是布薩常規。亦彈斥微旨，然當必有菩薩比丘主之，仍是攝取於僧矣。

（問，梵網有見上座和尚阿闍梨，及請二師之文。又五逆，加弑二師，成七。今授戒，何止一師。）

答，瓔珞地持，並止一師。又梵網受法，傳自什師，載於義疏，亦止一師。其請二師，是請佛菩薩，所云應如法供養二師。及弑二師

成逆，則遍指比丘戒等二師。

(問，重定受戒法，初已發菩提願，何後復令發四弘，招重繁過。)

答，前審因，後秉法；前發心向道，後誓鎧莊嚴；前總後別；前覺悟始因，後要期極果；前一心思惟知識開示，後三寶加持道場剋證。由前故有後，由後以成前，豈云重複。如先請師，像前復請。又如授比丘戒，屏問遮難，僧中復問，亦重繁邪。

(問，既謂機感有殊，授法不一，若簡若繁，俱無乖舛，則直宗一轍，何必會三家成一式。)

答，始予獨遵慈氏羯磨，往往有嫌太略者，乃敢折衷，會三為一。但用經論成言，更不別加文飾。三典並現流通，想是機宜有在，聊順一時之機，匪敢執今非古。可用與否，一任後賢。

答黃稚谷三問(原問附)

(問，佛不能滅定業，地藏菩薩胡為有滅定業真言邪。且既達本來罪福皆空，又何謂邪。)

答，業之與報，皆是自心現量。心空一切皆空，心假一切皆假，心中一切皆中。特凡夫不達能造所造，能受所受，當體三德祕藏，而以殷重倒心，作殷重惡業，必招殷重苦報，名為定業。彼心既定，不可挽回，大覺亦不能即令消滅。故大慈悲巧設方便，令地藏大士說咒勸持，即是轉其定心，漸使消滅也。是故菩薩功能，全是佛之功能。佛既不居，菩薩亦不居。究竟只在當人一念信受持咒之心耳。此正所謂既達本來罪福皆空之旨，原非撥無因果。以罪福因果當體即空，亦復即假即中。迷則滅與不滅，俱非達本。達則滅與不滅，總不礙空也。古人云，如何是本來空，業障是。如何是業障，本來空是。透此二語，便出野狐窠臼矣。

(進問，畢竟佛何不自說，所謂佛不能滅，尚有疑在。)

答，釋此須知三義。一諸佛說法，必係四悉因緣。有聞佛說而歡喜生善滅惡入理者，佛即自說。如楞嚴尊勝諸咒，皆滅定業也。有聞菩薩說而歡喜生善滅惡入理者，須菩薩說。如此咒及大悲等咒是也。二罪不自滅，不他滅，不共滅，不無因滅，而有時唯說自滅。云心空業空，有時惟說他滅。云佛菩薩力，有時說須共滅，雙舉內因外緣，有時說無因滅。云非自非他，皆四悉因緣，否則便成四謗也。三不能滅，約三藏跡佛。能滅，指圓教因人。如華嚴云，初發心時，已勝牟尼，亦其例也。知此三義，一切法無不通達。

(問，萬緣攝時息心休定，覺甚快樂，而攝入之功甚難。若行數息作觀等門，恐多一番作意起滅，如何頓入一念不生境界。)

答，一切境界，本自不生，亦不住滅。迷此理本，皆是生住滅相，妄見萬緣構集，妄生苦惱。又於息心休定境界，妄生快樂，苦惱快樂，皆醉見也。緣集緣散，皆屋轉也。直須酒醒，方知屋本不轉。又須知屋本不轉，迷醉方可醒耳。數息作觀等妙法，各逗一機。欲頓悟境界不生，莫若四性推揀。觀此現前一念，為自生邪，他生共生無因生邪。念若自生，何藉外緣。若他生，何關自己。若共生，應一分有知，一分無知。有因尚不可，況無因生。仔細檢責，覓念生相，實不可得。念既無生，境界安有。二俱不生，不復更滅。一切時中，重重照破，不捨一切法，不住一切法，不厭一切法，不著一切法。作意即非作意，起滅亦無起滅，一門超出妙莊嚴路也。

答陳弘袞二問(原問附)

(問，橫死之說，與業報矛盾。又既有不應死而死，必有不應生而生，推之富貴貧賤莫不皆然。范鎮謂人生如樹花同發，隨風而散，或墜茵席之上，或落糞溷之中，不誠有理邪。)

答，一切因果，從來不爽。橫死之果，的由橫死之因。蓋業有三世不同，謂現報業，生報業，後報業。此三世業力，又各論強弱，互相傾奪。且如有人，前生業報。今應長壽。乃忽起猛惡夭折之因，遂入橫死科中。據現報則非橫死，據夙善即不應死而死。惟業果由心招感，故心能轉業，則定而不定。心被業牽，則非定而定。請為決曰，人生如樹花，隨善業風吹，墮人天茵席之上。隨惡業風吹，墮三塗糞溷之中。噫，安得深達唯心之士，與曠觀業性差別哉。

(進問，因果三世義備矣，儒不信也。易曰積善之家，必有餘慶。積不善之家，必有餘殃，論其身及其子孫而止耳。故德之厚者，必曰宗廟饗子孫保，以斬然無後為德之至薄。佛亦有以此論因果者否。)

答，因果道理，窮深極遠，徹妄該真。尼山大聖，姑就見聞開曉，乃因果一義耳。即此而通之，可信佛法。執此而自是，兼礙儒門。夫積善餘慶，何堯舜無尚子，夷齊無後昆。積惡餘殃，何盜跖永壽，曹馬高爵，此非通于三世，終墨墨矣。由一切無非因果，故窮通壽夭，榮辱得失，雜然互感，事非一轍。乃至父母子孫，皆以同業相召。佛經亦雅言之。然世閒因果，虛幻不實。且如大舜，宗廟饗，子孫保，已不能留至今日。三千年來，彈指已過，何如度脫親因，永超生死，為出世大孝邪。是以儒明因果，非不合佛法，但知一不知二，知近不知遠。此拘虛者之所不信，明達者之所必求也。

答元賡問

真言與佛名，功德平等，機緣不同，各具四益。今勸持咒，與勸持佛名無異。當信菩薩機緣，及吾人願力。各自離過絕非，不可思議。儻謂持名為是，持咒為非，華嚴所謂受一非餘，魔所攝持也。記數之法，普被三根。上根不礙記，下根必須記。故總以數期之。俾利者即此打成一片。而鈍者亦不失緣因善根。儻託言事理一如，不須記數，恐上智少下愚多，不至忘失者幾希矣。

荅鄧靖起三問

禪門流弊久矣，未可力爭也。賴有識之士，用其法不染其病，鑒其失不廢其法耳。凡鍼灸藥石可起病者，無論君臣佐使，皆心上化工也。古人訶坐禪，勸坐禪，勸提話，訶提話，各逗機宜。善用之無非是藥，不善用無不增病。必執訶坐為是，何異執話頭者訶放下也。真到參無可參處，教外別傳，正法眼藏，是甚麼馬屁[土*孛]。

念佛三昧，三昧中王，信不容易。但既三根普被，又不宜一味說難。且七日一心不亂，不可判淺。夜夜伴佛眠，不可判深。蓋一心不亂，有事有理。事一心已不容易，理一心何容強臻。而共眠共起之佛，不過本具性德，蠢動皆爾，非關修證，殊未希奇。若達共起共眠之佛，仍熾然言念無閒，方得名理一心。若未達共起共眠之佛，一味言念他佛，念至打成一片，得見他佛，即頓悟共起共眠之佛矣。勢至云，不假方便，自得心開。十六觀云，諸佛有異方便，令汝得見，此之謂也。故一聲彌陀，無論解與不解，如染香人，身有香氣，念念都是成佛真因。而漫云炒砂成飯，不幾謗三世諸佛大方便法輪乎。

攝律儀戒成法身德，攝善法戒成般若德，攝眾生戒成解脫德，三德即三身極果。戒為法界，一切法所歸趣，一切法所從出。故云，惟佛一人持淨戒，其餘皆名破戒者。又云，若人受佛戒，即入諸佛位。佛頂謂，縱有多智禪定現前，若不斷婬殺等，必落魔道神道。惟以戒攝心，令其生定發慧，方名三無漏學。故知受戒修行，如黃帝堯舜垂衣裳而天下治，不假兵戈也。至別商參究話頭等對治法門，是兵者不得已而用之耳。六祖既悟心宗，出世仍須稟具。清涼華嚴菩薩，十誓凜如冰霜。遠公蓮社始祖，臨終考午後蜜。千古芳規，昭昭具在，何狂禪肆無忌憚，淺學絕不經懷也。

荅淨性三問(原問附)

(問，心外無法，同體之義明矣，如何大心不發而自利。法外無心，法法皆是法界明矣，云何逢緣又生取捨。若云名字位中雖知此理，柰煩惱習氣所使，還捨習氣，不捨習氣邪。)

答，汝之所明者，語言道理而已。法塵妄影，尚不能自利，何況大心。**已**是取捨，何待逢緣。此即是汝煩惱習氣。若果了同體法界，更有何習氣可捨哉。

(問，十界一心，何不相知。若惟佛知，則生佛不同。若名字知，非究竟知，還屬修功。若云不須論修，現現成成，則生佛無別。)

答，妄謂各不相知，便於心外別計十界矣。若知十界唯一心，則心尚不可得，何有各各不相知之十界邪。悟十界唯一心者，假名為佛，如醒人見屋不轉。迷一心計十界者，假名眾生，如醉人妄見屋轉。生佛不同者醒醉，所同者，從來不轉之屋也。就理同處，何須論修。醉人屋非現現成成不轉者乎。

(進問，體同用亦應同，何有十界之異。若體性真實是同，虛妄相狀是異，性相豈有二邪。若云相即無相，相即法界，則地獄何必趣於佛界。若不須趣，畢竟如何成佛。)

答，十界體用，本無不同。迷者謂相異性亦異，體用元不曾減。悟者知性同相亦同，體用亦仍不增。故獄界即法界，元無佛界可趣，獄界可捨。約此實義，假名出獄成佛，柰何終日向假名上分別，忘卻法界真體性邪。不達體性，終日說法界，是極惡名言習氣。

答淨塵問(原問附)

(問，大慧云，光未透脫的，不曾親見法身，到底覺得面前有物，此豈非昭昭靈靈之一物也。此物既從真心而有，全體是真，如此了得，盡大地是個法身，是個自己，云何復說有見不見，透脫不透脫。然如此，為甚觸境逢緣，又用不著。被習氣所使，過在甚麼處。又大慧此旨，與台宗觀心法門，為同為異。)

答，大慧正是拈出禪病，要人討個透脫，親見一回。若實透脫，便不作透脫不透脫想，若實親見，便不作見不見想。今云此物既從真心而有，乃至如此了得云云，全墮見解窠臼。正所謂到底覺得面前有物者也，何必昭昭靈靈而後謂之一物哉。惟坐此見解窠臼，所以說有逢緣觸境用著用不著等。儻實透脫親見，你喚甚麼作緣境，誰去逢觸，你要用個甚麼，又誰去用。只者習氣，從甚麼處來，又誰被使，豈不百雜粉碎，更喚甚麼作法身，作自己。設或未然，大非容易。須將身心世界，及種種名言習氣，乃至平日思前慮後諸般念頭，全體放下。單單用個推檢法，看此能了達的，所了達的，畢竟是個甚麼。此台宗絕妙工夫，與宗門不隔絲毫。若但看麻三斤，狗子無等，一則公案，又是一種方便。下手不同，到家則一。皆須勿

忘勿助，拌命死挨，不論時劫。切忌將心待悟，切忌坐在無事甲裏，切忌作道理商量，切忌性急求速發明，切忌今日張三明日李四，東鑽西撞，空喪光陰。但生死心切，綿綿密密，日久歲深，不計程限，自然或向看經處，或向習坐時，或著衣喫飯邊，或見色聞聲際，驀然拶入，方信從來說的，都是夢話。

靈峰蕩益大師宗論卷第卷三之一

靈峰蕩益大師宗論卷第三之二

荅問二

荅張叔韓問

作善作惡，固皆生死根本。不作善惡者，獨非生死根本乎。天堂地獄，於我何有。獨不曰，作善作惡，於我何有乎。鳥窠諸惡莫作，眾善奉行，與吹布毛之旨何別。若不以斷惡修善為門，但願無善無惡，無生無死。此善星所以毫釐有差，天地懸隔也。

荅敷先問

法華三昧，圓該始終，貫徹凡聖。動靜云為，全在此三昧中。無柰情生智隔，日用不知。縱令不知，理性何減。欲知理性，祇諦觀現前一念心性，為在內外中間諸處邪，為屬過未現在邪，為有青黃長短等方隅色像可蹤跡邪，為竟空無斷滅不可道邪。若心性離四句絕百非，如此從心所現諸法，安得不離句絕非也。又諸法各有名貌，各可指陳。心何名貌，如何指陳。由此言之，法外無心明矣。然設無心，誰知諸法。法現心中，如影現鏡中，雲現空中。既不可分別是心是法，又不可分別非心非法，謂非實相實性可乎。佛界實相，乃至獄界亦實相也。佛界實相。無相無不相，具足百界千如，乃至獄界實相，亦無相無不相，具足百界千如也。十界正報是實相，十界假名國土亦實相也。既無一法非實相，則無一法非法華三昧。不於實相法界，妄起凡夫二乘見解。縱偶起之，隨了此見，亦是實相，亦是法界。如此了達，勿忘勿助，久久打成一片，自然與法華三昧相應。切莫捨此別圖圓頓，亦莫畏此別圖捷徑。此最圓頓最捷徑法也。若事行助成理觀，有智者三昧懺儀在，勤而行之，果證可剋。若不誦一經，不入壇行道，則如常不輕，觀一切眾生決定作佛，觸境逢緣，恆作佛法界觀。由眼所見無非佛色，耳所聞無非佛聲，鼻所嗅無非佛香，舌所宣無非佛號，身所觸無非佛境，意所緣

無非佛法，故得六根清淨，三障圓轉。此所謂能轉法華，不墮說食數寶之譏，亦不招闇證無聞之禍矣。

荅庸菴二問

善惡無性，先須論心。心若迷善，功微而惡罪大。心若悟善，功大而惡力微。以善惡雖皆性具，一順一逆故也。招報隨其念之強弱，亦無一定。學人失念，祇貴覺照。果能覺照，煩惱雖熾，必漸滅矣。覺於臨境貴猛，覺於平日貴密。又貴事理並運，顯密互資。危微精一之功在己，不在人也。

法執根本無明，我執枝末無明。論生起先法後我，論斷除先我後法。然圓人直觀心性，我法本自虛融，何有先後。或開圓解，我執習強者，不妨先作人空觀也。

荅湛持公三問(原問附)

(問，知之一字，妙禍之門。二門同是一知，工夫如何下手。又此知若有所知，

對待成妄。若無所知，何所表而云知也。又用知知於知邪，不起知知於知也。)

荅，知見立知，禍門也。知見無見，妙門也。若不達能所性空，妄計心外有法，此知即名不覺。若達心外無法，能所不二，此知即名始覺，亦名妙觀察智，亦名無塵智。此智從本體起，還照本體，雖復自照，實無能照所照，以達無二體故。名字位中直用此智，念念體達心外無法，法法唯心。不論時劫，不論功用。至金剛後心，永斷生相無明。始覺合本，稱究竟覺。今下手工夫，正要起知，知於知體之外更無餘法。永嘉所謂但知而已。若不起知，知於但知，未有不隨妄能妄所者。大乘止觀三明以何依止中言之頗詳。

(進問，若起知知於但知，恐但知而成所知。起知之知，不無能所。恐用心時，

更落妄想窠臼。如何善用心者，起知知於但知，仍不墮妄能妄所邪。)

荅，非除他物，但取於知也。以知外無法，名但知也。達得但知，則知之一字，亦是強名，原無一物，豈成所知。若有所知，又成一物，非但知矣。下手方便，強觀諸法無實，唯是一心。隨觀心無心相，覓不可得，然後悟入但知法門。前二方便，皆唯心識觀。初除分別性，次除依他性。悟入但知，是真如實觀，證圓成實性也。

(問，摩訶止觀，初以識陰為所觀境。然能觀亦用意識，能所有何辨邪。)

荅，前念為能觀，後念為所觀。由能觀全用一心三觀，便知所起後念，全是一境三諦。既一境三諦，則起即無起，亦不妨無起而起。起無起名為諦，無起起名為觀，是謂諦觀。名別體復同，是故能所二非二也。

壇中十問十答(有引)

病臥深山，力疾商梵網佛頂。乘戒源頭，性修旨趣，圓通本根，常住妙理，和盤托出矣。然根節所聚，竅會所關，無有發一言啟予者。豈未知所以問邪。論畢，予結壇課咒，同志亦仍于此結後安居，每布薩輒一晤言，因設問端十條，同志各答，長短俱露。大約平日依文解義處多，入理觀心處少，故不能遊刃於節閒也。于是更作十答。嗟乎，語言即道，道非語言。此之問答，大似嚼飯喂嬰，他年好惡知端的時，當發嘔耳。然臭腐神奇，善用茹退者，不又為新穀作增上緣乎。

問，戒乘緩急，四句料揀，本出經論。畢竟以何為戒，以何為乘。如大論十戒，則戒即乘。梵網暫離菩提心犯輕垢，則乘即戒。又四教各有戒有乘。須一一知其歸著。然後商其緩急何如。

答，乘戒同依一性，元非異體。故緣了二修，亦常相即，如梵網大論所明是也。但眾生積迷既久，事理二障，各有輕重，致令修時，亦分緩急。此則性遮諸業為戒，念處觀慧為乘。而藏通二教，戒指七眾律儀，乘指生滅無生二種念觀。別圓二教，戒指梵網重輕，并七眾律儀，乘指無量無作二種念觀。各就當教，自有事障重理障輕者，堪修觀慧，易犯性遮，名乘急戒緩。自有理障重事障輕者，堪能護戒，不達理觀，名戒急乘緩。若二障俱輕，則戒乘俱急。二障並重，必戒乘俱緩。此歸著大略也。今既聞皆有佛性，又知戒即全性所起緣因，乘即全性所起了因，仍復全修在性。則急戒即急乘，急乘即急戒。豈肯再歷三塗，方得悟道。又豈肯久滯人天，不歸真際哉。

問，梵網明不受佛戒，為畜生木石。又犯戒人，畜木無異。夫不受戒，虛生浪死，故名畜生，覺悟無期，故如木石也。受戒即入佛位，而犯者仍與畜生木頭無異，則受戒之益毫無邪。

答，永居門外，永棄佛海，厥苦是均。然不受戒，未必盡墮地獄，破戒決墮地獄。一則常處暗暝，固為可憫。一則捨明入暗，尤為可悲。但不受戒，無成佛期。破戒墮落，猶為成佛緣種，此受戒之勝益也。至於未受而發心秉受，誤犯而殷重悔除，木石皆非木石矣。

問，人謂不受戒，雖失大益，而無破戒罪。然則地獄中，更無不受戒人邪。又謂受而不學，則不知不坐罪。戒壇挂名，便可看教參禪。且如暗中踏茄，誤謂蝦蟆，命終墮獄。若據律誤踏蝦蟆，尚不結罪，況復踏茄。則學律者坐罪乎，不學者坐罪乎。若謂彼惟妄計破戒故墮，若無疑畏便不墮，則寶蓮香尼，善星比丘，皆無疑畏，何以均墮邪。若謂性罪不可作，遮罪不學無妨，何以醫羅龍王，損樹葉招劇苦，難提比丘，破根本獲果證邪。

荅，不受戒者，設造重惡，亦墮三塗。毀淨戒者，雖具性遮二罪，設勤懺悔，罪亦可滅。是故必須受戒也。學律者，洞明開遮持犯，未犯知護，已犯能除。不學者，既不知避罪，又不知出罪，過必日積。是故受_已必須學也。夫菩薩於小罪中，恆生大畏，惟不造三惡因，故無惡道怖耳。若硬作主宰，大膽欺心，妄言無罪，寶蓮醫羅，真殷鑒矣。

問，儒云，君子尊德性而道問學，致廣大而盡精微，極高明而道中庸，溫故而知新，敦厚以崇禮，與佛法同邪別邪，亦同亦別邪，非同非別邪。象山重尊德性，紫陽重道問學，互相矛盾，致成大諍，為一是一非邪，俱是俱非邪。且如何超出是非，究竟無弊邪。

荅，儒佛有名同義異者，如德性廣大精微等。一世閒道理，一出世道理也。有名義俱同，而歸宗異者。如問學致盡等，下手無別，到家實分世出世也。然為實施權，儒亦五乘中之人乘。開權顯實，則世閒道理亦順實相。故同別四句，執之皆謗。善用之即四悉檀。象山雖重尊德性，非棄問學。紫陽雖重道問學，非遺德性。得其旨似頓悟漸修兩門，失其意則為狂罔愚劣二病。可謂是則俱是，非則俱非。然廣大精微等，皆德性本具之義。致盡等，皆道問學以尊之之事。原非兩法相濟，孰能偏重偏輕。此則超出是非兩關，永無流弊者也。

問，佛頂明歇即菩提，何藉修證。為盡漏紆疑悔者言也。又明非歷劫辛勤，不能免難，為開悟未除漏者言也。一所知障重，一煩惱障重，故如來因病發藥如此。我輩二障俱重，又未開悟，又未除漏，為先除漏邪，先開悟邪，為二功並進邪。漏云何除，悟云何開，並進云何下手。

荅，二障雖重，非有實體。只徹究圓宗，即以圓解，淨除業習。下手之方，不出十乘觀法。上根惟一，中二之七，下具用十。精勤修之，何障不破。

問，耳門最勝，根勝邪，性勝邪。若根勝，則兼耳與勞，同是菩提。瞪發勞相，豈可依此生滅為本修因。若性勝，則耳之性，應非即是餘五根性。云何說性中相知，及六解一亡。

荅，耳門易顯性故勝。非性有優劣，亦非竟用耳根，但借耳境，以觀真性。性即不生不滅，亦復非一非六。故得一返六皆脫，六解一亦亡也。

問，耳門具三真實義，為根是圓通常邪，性是圓通常邪。若根是，不應云黏湛發聽，聽精映聲，卷聲成根。又不應云離動離靜，元無聽質。若性是，則耳之性為即五根之性，為非五根之性。若非，還如前難。若即，則既觀其性，應兼得其相。若不兼，則性外有相。若果兼，則應於耳中，見色聞香嘗味覺觸。若不能見色等，不名圓

通之性。若云能者，畢竟如何以耳見聞嘗覺邪。若謂六根互用，須待證入，則因果仍不相應。若謂雖未有用，其理確然，如何指點知其不謬。

荅，元以一精明，分作六和合。則六和合之本性，皆圓通常，亦非有二性也。特就迷情揀取，此方耳門易顯真實名利，餘門難顯名鈍，非竟以耳根為圓通常也。初下手時，正欲棄生滅而守真常。所謂入流亡所，尚不許用此耳根，外循動靜二相，柰何責以見色聞香等事。如清水未現，便責以一切變現。設能變現，增其渾濁矣。若不能見色聞香，便疑因果不相應，如濁水未有變現，遂謂中無清水可乎。至於現前指點，則耳自聽法，口問身承，即性中相知義。不能以耳見色等，正用中相背義。將此相知相背二種迷情妄見，一總放下，方許入耳門三昧。

問，天台言善惡皆性具，此義不然。謂性非善惡，不礙善惡可耳。若性實具善，便不容惡，性實具惡，便不容善。如佛頂經，滿慈以水火不相陵滅為難，如來亦但釋云，虛空體非群相，不拒諸相發揮，妙覺明心，先非水火，何不相容。細玩體非群相，先非水火二語，性非善惡明矣。夫七大一往皆無記法，尚須棄相，方得會性。況善惡有記之法，可云同具邪。

荅，若謂性非善惡，不礙善惡，則善惡從何處來，混擾於性。既顯性後，善惡復歸何處。且正現善惡時，非善惡之性，避至何處，為復斷滅。善惡去時，非善惡之性，又從何來，為復更生邪。若謂善惡無性，隨妄緣有，既無其性，誰隨緣者。既隨緣必有能隨所隨，所隨即迷悟染淨，能隨豈非性善性惡。又即彼所隨迷悟染淨之緣，為在性外在性內。若在性外，性不遍常。若不離性，那云非具。詎知無性之性，正善惡實性。設性中不具善惡，縱遇迷悟染淨等緣，決不能現修中善惡。如沙無油性，縱遇壓緣，終不出油。請即就喻以申明之。使空非即群相，相豈從空外來。空現時，相豈出空外去。且正現相時，空避至何方，為復斷滅。相去後空又從何來，為復更生邪。當知虛空無去無來，無滅無生，則知群相之中，空性不動。可例知現善現惡之時，藏性不變。既知正隨緣而即不變，又可例知正不變而即隨緣矣。故達不變隨緣之義，則未起修善修惡時，非無善惡之性。如水火諸相未現，非無水火之性，以性空真水，性空真火故。達隨緣不變之義，則熾然造善惡時，亦無善惡實法。如水火正現，非異虛空之性，以性水真空，性火真空故。迷於相全性即相，妄見傾奪，故云觀相元妄，謂但觀性家之相，相妄性亦妄也。悟其性全相即性，隨拈一相，皆俱即俱非，離即離非，是即非即，故云觀性元真，謂能觀相家之性，性真相亦真也。然則虛空非群相，群相亦非群相矣。空不礙諸相發揮，群相亦不礙諸相發揮。

矣。所以得有俱現之義，又心先非水火，水火亦先非水火矣。先非先後之先，只是元本之義。故不惟未現水火時，水性即火性，火性即水性，決定不相陵滅。雖正現水火時，水元非水，火元非火，亦決不相陵滅。所以有入水不濡，入火不焚，身上出水，身下出火，入地如空，處空如地等事也。彼妄見生剋傾奪，但隨心應量，循業發現而已。故知相外無性，棄相即棄性，性外無相，會性則會相。若棄相方得會性，此大不然。夫棄色相，是空相。棄空相，是色相。棄有情心相，是無情色空相。棄無情相，是有情相。棄無分別之根塵相，是有分別識相。棄分別相，是無分別相。棄根塵識妄相，是覺明真相。棄真相，是妄相。畢竟何相可棄，何性可會邪。經云，棄生滅守真常者，直棄其於真常中妄見生滅之情，守其即生滅處，了悟真常之智耳。試玩七大文中，先以空融地水火風，次以覺融空等五大，次以精融根塵六大，次以知融識等七大，則色空不二，依正不二，見相自證不二，真妄不二明矣。是以不變之性，正由全具善惡，故能舉體隨緣。而善惡二修，正由全攬真性，故復舉體不變。不變舉體隨緣，故稱理具三千。隨緣舉體不變，故稱事造三千。又理具只是具於事造，事造只是造於理具，故雖稱兩重，亦非六千，雖云兩重，即重重無盡也。

問，涅槃明常住佛性，說乳酪子樹二喻。使乳本有酪性，乃至熟酥本有醍醐性者，何藉善巧鑽搖等緣。尼拘陀樹子，本有五丈性者，何藉水土等緣。藉緣之法，即是無常，安得名常。又謂乳有酪性，故鑽乳不鑽水。子有樹性，故種子不種沙。此是當有，非現有，亦不名常。又今見酪中雜水，則不出酥，樹子經火，則不生芽，適為三無二有家作證。彼謂所知障重者，不能克證大菩提故。

答，常非死定之常，性乃不改為義。涅槃既明常住佛性，恐迷者執性廢修，即成天然外道，故明須藉緣了二因。以緣了二因雖屬於修，在因之時同名性德。正因理發，雖全是性，在果之時同名修德。然則無性之性，即是實性。緣生之法，當體無生。二鳥雙遊，喻常無常，厥義若此。若當有不名常，必執凝然不變死定為常，何異常見外道。又乳酪樹子，水火能障，佛性不爾。闍提斷善，終必復生。二乘證空，亦終迴大。故復有佛性雄猛，不可沮壞，猶如金剛之喻。而三無二有，終為不了義說。豈可執片喻難全法哉。

問，天台明理具事造兩重三千，同於介爾心中具足，此亦不然。夫理具渾然頓足，猶之可也。事造則一念起時，必落一界。既落一界，餘九皆伏。縱一界還具十界，亦只一界之十界，非十界之十界也。幽谿云，一界現時，九界冥伏。既云冥伏，則事造三千，不居一念明矣。今梵網玄義云，一界既現，九界齊彰。試觀調達，地獄相現，則佛界滅，下品金蓮相現，則獄界滅。何得齊彰邪。

答，心無形質，無分劑，不可割裂。落一界之一念，即全體之心，非心少分。既舉心之全體，成此一念，亦必舉心之全用。歸此一念，亦必即此一念，頓具心之全體大用。如孔子為乘田，即以聖人之全體而牧牛羊，亦即舉出將人相之全用而歸諸牧牛羊人。亦即於牧牛羊時，問以文事武備，無不能知。安得牧時非孔子全體，無將相全能邪。冥伏或是隨具之義，儻以現對冥，以起對伏，則事造信非一念頓具，那成圓理。今既知一界還具十界，則界界互具，無盡重重，鏡光珠影，更何分劑。謂之三千性相，亦略舉耳。即觀調達墮獄，正在佛前。又舉身下陷，合掌南無。成無根信，便得授記。而下品往生者，即地獄火，化為清風華佛。可見獄界佛界，舉體相即，互遍互融，不可思議。此天台性具之旨，觀心之要，所以真能傳佛心印，遠勝他宗也。

續一問答

問，世之講者，謂初心仰信中道，不能頓觀，先用空假為方便者。性中雖具三因，而不相即，修中雖用三觀，而不同時，故名性橫修縱。又在因次第開發，在果一時同具，故名因縱果橫。惟圓教行人，初心便解三德祕藏，直以一心三觀，進破無明。初信任運斷見惑，見真諦，七信任運斷思，八九十信任運斷內外塵沙，見俗諦。初住分破一品無明見中諦。破惑全用三觀，故非縱，惑斷不次而次，故非橫。今設一難，既全用三觀，次第見於三諦，仍是智橫斷縱，亦為修橫證縱，因橫果縱。設令極利根人，不住十信，竟超初住，乃至妙覺，亦只智斷俱橫，何得非縱橫並別邪。

答，別教諦觀名縱橫並別者，以不達三觀只是一心，三諦只是一境，一心法爾三觀，一境宛具三諦。如君與將相，只是一國，雖只一國，宛具三人。而一君二臣，君臣之義不明，並別之局必立。並則成橫，別則成縱，致使性修隔別，因果不齊。圓人了一心之體，即不思議中。此心能破凡聖情解，即名為空。此心能立聖凡道理，即名為假。了一境之體，即第一義諦。此境本非遍計所執，即名為真。此境本是依他所現，即名為俗。初心解此三德祕藏，直以一心三觀，圓破三惑。而初心斷見惑時，就破惑處名為空觀，見真諦處即名妙假。然未破時全以真諦為見惑，既破後全以見惑為真諦。如水成冰，冰還成水，冰之與水，同一溼性。見惑真諦，亦復如是。體即法界，無可破立，是名中觀，故知非破非立，而論破立，說名空假，正破正立，元無破立，說名為中。如邊方擾亂，猛將出征，兆庶歸投，賢相撫慰，究而論之，只是王土王民耳。所用只一觀而三觀，那得云橫。所見即一諦而三諦，乃即俗即中之真，永異偏

真，那得云縱。十信見俗，初住見中，亦復如是。能破雖全用三觀，而仍以一觀為主，故非並非橫。所見雖任運次第，而一一諦無非三諦，故非別非縱。以例性中雖具三因，然緣了無功，同名正因，故非縱橫並別。如家國無事，非無將相，然將相不顯其能，但聞國主之名也。修因之中，全賴緣了，然緣了威權正因所賜，故亦非縱橫並別。如命將命相，皆由聖主，然聖主不居其功，咸稱將相之力。至果位中，雖三德同時圓顯，然仍以法身為主，亦非縱橫並別。以般若解脫，元法身之所本有，非新得故。如三人同享太平，然將相元是舊臣，仍奉舊主，無伐無施也。又將專武，君相非無武備，故三觀皆破一切法。相專文，君將非無文略，故三觀皆立一切法。主專統御，將相非無君德，故三觀皆統一切法。儻三人各止一德，雖互相統順，仍為縱為別。儻三人不相統順，雖各具全德，仍為橫為並，皆不可喻於圓觀。儻唯一人獨具三德，而無將相，雖總無縱橫並別，不成國法，尤不可喻於圓觀。儻三人各具德，又相統順，而非其境界，妄欲破立撫御，亦不可喻於圓觀。今所破所立所統，皆自心現量境界故，思之思之。又此亦片喻，非全喻也。以堯舜治局九州，中諦統一切法，豎窮橫遍，無少許性相能出中諦外故。又堯舜令民安於至治，不能使人人盡為堯舜。中觀證一切法，無一微塵一剎那不全攬中道全體，不全具中道大用。各各豎窮橫遍，難思議也。儒云，聖人不知不能，堯舜猶病。意顯此道，唯佛能盡。又云道不遠人，下學上達。意顯標心不離此宗，是謂入門同而到家別，教道別而教意同。吾言益不誣矣。

性學開蒙荅問(即壇中第四問廣荅)

儒釋同異之致，性學重輕之關，憤憤久矣。欲釋此疑，須先就儒典消文釋義，以超是非兩關。次就二公決擇是非，以示平心公論。後對佛教細辨同異，以彰權實本跡。

初就儒典消釋者，朱註以尊德性為存心，道問學為致知。以致廣大，極高明，溫故，敦厚屬存心，以盡精微，道中庸，知新，崇禮屬致知。如兩物相需，未是一貫宗旨，所以偏重偏輕，致成大諍。今謂首倡大道，既包下兩節，則洋洋優優同是道，故同稱大。不可謂洋洋但大，不入無閒，優優但小，不極無外。尤不可謂洋洋但是德性，不由問學，優優但是問學，不關德性也。然此大道，全率於性，全凝於德，故名德性。猶釋稱如來藏性，以藏性雖十界所同，惟如來能合之，故以如來藏稱，不稱地獄藏性，人天藏性等也。然則德性二字，已含性修因果旨趣，而廣大精微等，皆德性所具之義趣，致之盡之，乃至崇之，皆道問學者之妙修耳。尊此德性，方道

其問學，道此問學，方尊其德性。否則性近習遠，淪於汙下，猶所謂法身流轉五道，為眾生矣。然德性廣大，謂其洋洋發育也，精微謂其優優百千也，高明謂其位天育物也。中庸謂其不離子臣弟友之間也，故謂其稟自初生也。新，謂其經綸參贊也。厚，謂父子君臣等皆天性所定也。禮，謂仰事俯育等皆人事應爾也。世有廣大而不精微者，如海魚身長若干由旬，蕩而失水，螻蛄得意。有即廣大而精微者，如阿修羅王，變身與須彌齊，復能幻入萬絲孔。德性亦爾，雖洋洋峻極，而復舉體攝入一威儀，隨舉一小威儀，全具德性，非德性少分也。世有精微而不廣大者，如玩器等，微妙精巧，不堪致用。有即精微而廣大者，如摩尼珠，圓明清淨，不過分寸，置之高幢，四洲雨寶。德性亦爾，雖百千經曲，而隨拈其一，皆全具位育功能，非少分功能也。世有高明而不中庸者，如夏日赫盛，不可目視，有即高明而中庸者，如諸佛光明勝百千日，而觸者清涼。德性亦爾，上達即在下學，位天育物之極致，不離庸言庸行之家風。世有中庸而不高明者，如鄉黨善人，可狎可欺。有即中庸而高明者，如時中之聖，溫而厲。德性亦爾，下學全體上達，灑埽應對之節，即具旋乾轉坤之用。世有故而不新者，如衣敝不堪復御。有故而常新者，如上古瑤琴，一番摩撫一番音。德性亦爾，出生一切道德文章經綸事業，不可窮盡。世有新而不故者，如美食不可再列。有新而嘗故者，如春至花開，樹未嘗改。德性亦爾，雖出一切經綸事業道德文章，而體嘗如故。世有厚而非禮者，如牛犢相隨，殷然天愛，而罔知儀節。有厚而即禮者，如孝子事親，冬溫夏清，昏定晨省，出於至性匪由勉強。德性亦爾，雖率其天真，自有禮節。世有禮而非厚者，如六國事秦，勢不得已。有禮而即厚者，如孔子拜下，盡禮非諂。德性亦爾，雖百千經曲，絕非強設。又致廣大而不盡精微者，亦自有博學多聞，與則半是，奪則全非，以既不精微，即於廣大不能致故。盡精微而不致廣大者，亦自謂一門深入，與亦半是，奪亦全非，以既不廣大，則於精微不能盡故。極高明而不道中庸者，亦自謂豁達大度，然離中庸，而別擬高明，便不名極。道中庸而不極高明者，亦自謂言行相顧，然捨高明而安於卑陋，非君子之道。溫故而不知新者，亦自謂守其德性，而德性豈如此之癡頑。知新而不溫故者，亦自謂日有增長，然如溝澮可立待其涸。敦厚而不崇禮者，亦自謂率其本真，未免同人道於牛馬。崇禮而不敦厚者，亦自謂舉止有式，反為忠信之薄而亂之首。故必了知廣大精微等無非德性，皆須道問學以尊之，則全修在性，全性起修，既非二致，那偏重輕。斯為超出是非兩關，全收二公之長，永杜二公流弊者也。

次就二公決擇者。象山意謂，不尊德性，則問學與不問學皆無用，但能尊其德性，即真問學。猶吾佛所謂勝淨明心，不從人得，何藉劬勞，肯綮修證。亦猶六祖本來無物，又即孔子吾道一以貫之也。是將尊德性攝問學，非恃德性而廢問學，故得為名賢也。紫陽意謂若不道問學，雖高談德性，如所謂理佛，非關修證，必道問學，以成至德，方可凝其率性之道。猶吾佛所謂菩提涅槃，尚在遙遠，要須歷劫辛勤修證，亦猶神秀時時拂拭，又即孔子庸德之行，庸言之謹，下學而上達也。是將問學尊德性，非徒問學而置德性，亦得為名賢也。然則悟象山之所謂德性，問學已道，悟紫陽之所謂問學，德性自尊，可謂是則俱是。而象山似頓悟，較紫陽之漸修，當勝一籌。然執象山之言而失旨，則思而不學，與今世狂禪同陷險阨，孔子謂之曰殆。執紫陽之言而失旨，則學而不思，與今世教律同無實證，孔子謂之曰罔，可謂非則俱非。而無實證者，尚通六趣，陷險阨者，必墮三塗。象山之流弊，亦較紫陽倍甚。若就二公之學，以救二公之徒，亦有兩番，一逆救，以象山之藥，治紫陽之病，以紫陽之藥，救象山之病。二順救，執象山之言者，為申象山真旨，執紫陽之言者，為申紫陽真旨。終不若向初義打透，則二病不生，二藥無用矣。

後對佛教細辨者，先須知此五句，有名同義異者，有名義俱同而歸宗異者，又須知對待絕待二種妙義，然後約跡約權以揀收之，約實約本以融會之。庶得戲論永滅，諍論亦消也。

言名同義異者，德性二字，及德性中所具廣大精微等八義，同則同名德性，及廣大等。異則儒以天命為性，修之上合於天者為德，老以自然而然，強名曰道者為性，復歸無名無物者為德。一往判之是天乘，亦未盡天中差別，恐不過四王忉利法門，遠自人閒視之，稱為自然，及無名無物耳。推而上之，夜摩等空居四天，亦以自然為性，以欲界未到諸定及上品十善為德。魔天以命根互通為性，廣化七珍多增寶媛為德。初禪天以出欲為性。離生喜樂為德。二禪天以超出覺觀為性，定生喜樂為德。三禪天以永無喜水為性，離喜妙樂為德。四禪天以不動為性，捨念清淨為德。無想天以一念不生為性，滅心心所為德。四空天以超出色籠為性，微細定心為德。我佛法中藏教以真諦為性，擇滅無為為德。通教以諸法無生為性，體空智果為德。別教以離過絕非中道為性，所證法身般若解脫為德。圓教以不生不滅常住真心，不縱不橫三德祕藏為性，一心三智妙合如來藏理為德。既德性一名，厥義各別，故所具八義，隨此皆異。儒但以洋洋發育為廣大，乃至仰事俯育為禮，如前說耳。老則以生天生地為廣大，杳冥昏默為精微，神鬼神帝為高明，專氣致柔為中庸，長於萬古為故，生一生二生三生萬為新，還淳返樸為厚，守雌

守黑為禮。夜摩等天各以境界倍增者為廣大，受用倍妙者為精微，不假日月為高明，十善攝散為中庸，劫初先成為故，果報變化為新，隨順善性為厚，具善三業為禮。魔天則以統攝欲界為廣大，超化無化為精微，威力自在居欲界頂為高明，不離塵勞為中庸，悟本命元為故，自在化現為新，愛網所攝為厚，眷屬莊嚴為禮。四禪各以捨下苦羶障為廣大，得上淨妙離為精微，安住勝處為高明，十禪支行為中庸，超歷大小諸劫為故，喜樂捨受相應為新，同一定體為厚，王臣民等差別為禮。無想天則以無諸想礙為廣大，體同木石為精微，居四禪上為高明，滅心心所為中庸，初半劫滅為故，後半劫生為新。順無動性為厚，次第令其心慮灰凝為禮。四空天則以體同太虛為廣大，微細心心所法為精微，遍超色縛為高明，不離心想為中庸，報境無有成住壞空為故，受用禪味為新，順無色性為厚，次第證入為禮。藏通二教，各有三乘，雖體析巧拙不同，同以無為涅槃，離我我所，曠若虛空為廣大，超諸斷常有無戲論妄想為精微，遠離三界成一切智為高明，依戒而住依念處行道為中庸，因緣法性無有作者為故，觀諦觀緣出生三乘道果為新，二乘別以警悟無常速求出離為厚，攝身口意解脫業繫為禮。大士別以自愍愍他願皆濟度為厚，三聚淨戒上求下化為禮。別教則以無量四諦十界因果為廣大，中道佛性緣了修證為精微，迴超九界佛眼種智為高明，從因緣境歷修三觀為中庸，本覺無始為故，功德智慧二種莊嚴為新，次第三慈為厚，歷侍諸佛，遍度九界種種儀軌為禮。圓教則以介爾有心三千具足，豎窮橫遍，無欠無餘為廣大，三千性相互具互遍，一色一香無非中道為精微，一心三智照窮法界為高明，無作四念一心三觀為中庸，即隨緣而不變為故，所以一切諸法無非性具，即不變而隨緣為新，所以權實因果施設無方，心佛眾生三無差別為厚，所以上合無緣慈力，下合同體悲仰，而熾然常行與拔，上侍諸佛下應群機為禮。所以性遮諸業，一切皆成無盡戒體，皆名無上道戒。是謂名同而義異也。

言名義俱同而歸宗異者，不論儒老，色無色定，乃至藏通別圓，欲以至德凝道，必道問學以尊之，欲真實學問，必尊德性以道之，欲證德性之廣大，必盡精微以致之，欲證德性之精微，必致廣大以盡之，欲證德性之高明，必道中庸以極之，欲證德性之中庸，必極高明以道之，欲證德性之故，必知新以溫之，欲證德性之新，必溫故以知之，欲證德性之厚，必崇禮以敦之，欲證德性之禮，必敦厚以崇之，是名義俱同。然如此問學，各尊其所謂德性，故儒成人間之聖，與天地參，老成天道之聖，為萬化母，乃至藏通成三乘之聖，永超生死，別教成圓滿報身之聖，永超方便，圓教成清淨法身之聖，方為真能盡性，是歸宗永異。

言對絕二妙者，若以人望天，以欲界望色界，展轉乃至以別望圓，則彼廣大之外更廣大，精微之內更精微，高明之上更高明，中庸之中更中庸，故之前更故，新之後更新，厚亦彌厚，禮亦彌周。若以圓視別，以別視通，乃至以天視人，則彼廣大精微等，皆悉有名無義。故以下望上，傳傳皆妙，以上視下，法法皆顯，此對待明妙也。絕待明妙者，為實施權，開權顯實，若別，若通，若藏，若天，若人，究竟同歸一乘。圓人受法，無法不圓，則法法皆妙。既知此理，方許論揀論收，能融能會耳。

後約跡約權揀收等者，揀之則全非，儒是世法，佛出世故。又此云天命為性，易云太極生兩儀，並屬非因計因，不知正因緣法，見論所攝。夫婦父子等恩愛牽連，愛論所攝。老子天法道，道法自然，是無因論，不知正因緣法，亦見論攝。收之，則儒於五乘法門，屬人乘攝，所明五常，合於五戒。其餘諸法，半合十善，尚未全同金輪王法也。老屬天乘，未盡天中之致，已如前說。究而言之，總不及藏教之出生死，況通別圓邪。然此直約跡約權耳，若約實約本融會者，此方聖人，是菩薩化現，如來所使。大灌頂經云，佛先遣三聖，往化支那，所立葬法，南洲中最。三聖法化若在，如來正教亦賴以行。而列子具明孔子讚佛之語，老子騎牛出關，欲訪大覺，既聞示寂，歎息而返。經史所載，彰明若此，後人不達，紛紛起諍，豈理也哉。然三聖不略說出世教法，蓋機緣未至，不得不然。且如五天機熟，佛乃示生，而初倡華嚴，在會聾啞，不惟須說阿含以為漸始，兼立人天戒善，以作先容。況此地機緣，遠在千年之後，縱說出世法，誰能信之。故權智垂跡，不得不示同凡外。然即此儒典，亦未嘗不洩妙機，後儒自莫能察，及門亦所未窺。故孔子再歎顏回好學，今也則亡，深顯曾子以下，皆知跡而不知本，知權而不知實者也。何謂所洩妙機，如易經繫辭傳云，易有太極，是生兩儀，兩儀生四象，四象生八卦。此語最可參詳。夫既云易有太極，則太極乃易之所有，畢竟易是何物有此太極。儻以畫辭為易，應云太極生天地，天地生萬物，然後伏羲因之畫卦，文周因之繫辭，何反云易有太極。易有太極，易理固在太極之先矣。設非吾人本源佛性，更是何物。既本源佛性，尚在太極先，豈得漫云天之所賦。然不明言即心自性，但言易者，以凡夫久執四大為自身相，六塵緣影為自心相，斷斷不能理會此事，故悉檀善巧，聊寄微辭。當知易即真如之性，具有隨緣不變，不變隨緣之義，密說為易。而此真如，但有性德，未有修德，故不守自性，不覺念起而有無明。此無始住地無明，正是二種生死根本，密說之為太極。因明立所，晦昧為空。相待成搖之風輪，即所謂動而生陽。堅明立礙之金輪，即所謂靜而生陰。風金相摩，火光出現，寶明生潤，水輪下含，即所謂兩

儀生四象也。火騰水降，交發立堅，為海為洲，為山為木，即所謂四象生八卦，乃至生萬物也。名相稍異，大體宛同，順之則生死始，逆之則輪迴息。故又云，易逆數也。亦既微示人以出世要旨矣。老子道生天地，意亦相同，但亦不明言即心自性，皆機緣未熟耳。且易傳寂然不動，感而遂通一語，即寂照無二之體。而乾坤其易之門一語，即流轉還滅逆順二修之關。以性覺妙明，本覺明妙，非干修證，不屬迷悟。而迷則照體成散，寂體成昏，逆涅槃城，順生死路，全由此動靜兩門，是名逆修，亦名修惡。悟則借動以覺其昏，名之為觀，借靜以攝其散，名之為止，逆生死流，順涅槃海，亦由此動靜兩門，是名順修，亦名修善。然修分順逆，性無增減，又雖善惡皆本於性，而道必昇沈。如斯祕旨，豈異圓宗。菩薩現身，信非虛倡，習而不察，過在後儒。又既知宣聖祕密微談，兼秉法華開顯妙旨，即此中庸，便可作圓頓佛法解釋。天命之謂性者，天非望而蒼蒼之天，亦非忉利夜摩等天，即涅槃經第一義天也。命非命令之解，即第八識執持色身相續不斷之妄情也。謂生滅與不生滅和合，而成阿賴邪識，此識即有生之性，以全真起妄，天復稱命，以全妄是真，命復稱天。全真起妄，即不變而隨緣，全妄是真，即隨緣而不變也。率性之謂道者，此藏性中具染淨善惡一切種子，若率染惡種子而起現行，即小人之道，亦名逆修。若率淨善種子，而起現行，即君子之道，亦名順修。道二，仁與不仁而已矣，正合此意，亦合台家性具宗旨。修道之謂教者，小人之道，修除令盡，君子之道，修習令滿，此則聖賢教法，惟欲人返逆修而歸順修，即隨緣而悟不變也。三句合宗，頭正尾正，凡一文一字，皆可消歸至理矣。以要言之，若得法華開顯之旨，治世語言，資生產業，乃至戲笑怒罵，豔曲情詞，尚順實相正法，況世閒理性之談邪。然此是智旭之中庸，非子思之中庸也。如大慧杲禪師，以此三句作法報化三身，亦只是宗杲之中庸耳。儻子思實知宗杲、智旭之中庸者，孔子急當印之。胡顏淵死，一慟傷心，自稱天喪。且追憶之，再歎今也則亡邪。昔孟子歷敘見知聞知之道，結云，然而無有乎爾，則亦無有乎爾。是孟子尚不肯以曾子子思為見知者，何況孔子。彼一以貫之之傳，但的示尊德性之真實問學如此，乃下手發足之方，非到家消息。又跡中權理之一，非本中實理之一也。今約三聖立教本意，直謂同可，以無非為實施權故也。約三教施設門庭，直謂異可，以儒老但說權理，又局人天，佛說權說實，皆出世故也。約權則工夫同而到家異，謂亦同亦異可也。約實則本不壞跡，跡不掩本，謂非同非異可也。惺谷壽禪師云，為門外人說同，否則以為異端，為入門人說別，否則安於舊習，為升堂人說亦同亦別，以其見理未諦，須與微細剖析，令知同中有異異中有同，為入室人

說非同非別，麤言細語，皆第一義，又何儒釋可論。斯言得之，以其次第順於四悉檀故。然細論說法方便，則四句之中，一一皆具四悉，又貴臨時善用，不得固執斯言為死法也。

靈峰蕩益大師宗論卷第三之二

靈峰蕩益大師宗論卷第三之三

答問三

答大佛頂經二十二問(原問附)

(問，阿難登伽，同藉咒力。何登伽先證三果，阿難後獲法身。)

答，如來說法，賢愚利鈍，先後證悟，萬有不齊，此何足疑。若論二人本地，皆大權發起。悟有先後，俱為物作則。若就跡論，登伽欲熾，急者先治。阿難圓解未開，顯說方悟。儻不消欲心，阿難何由得脫。儻阿難先證，大教何由得啟。觀跡知本，亦非二致。

(問，由心生故，種種法生。由法生故，種種心生。若法先，云何心生法生。若心先，云何法生心生。若心法一，云何相由，若二，畢竟孰先孰後。)

答，心法本非一異。非一故妄情得說相由，非異故終無先後，如冰水同一溼性，若問溼與水冰，孰先孰後，終不可得。然約迷妄，可於無先後中強說先後。性覺必明，妄為明覺，心生法生也。引起塵勞煩惱等，法生心生也。故曰，惑業苦三，更相由藉。至妄明不起，則性覺亦不受心性之名。既可名心亦可名法，以是法性法界，法住法位故也。當知心法俱是假名，實無二體。無二而二，不變隨緣，二而不二，隨緣不變。故此二語，雖一往約迷，實顯心外無法，法外無心之旨。蓋迷則不惟妄心妄法似有二別，即全舉真心真法而成二妄，如空成華，水成冰，麻成蛇。若悟則不惟真心真法從來無二，即全舉妄心妄法而歸一真，如華本空，冰即水，蛇即麻也。

(問，阿難自說即能推者，我將為心，如何判其但認所推。)

答，眾生迷己為物，認物為己，皆以所作能，若達能推之性，演若悟頭不狂走矣。文句釋能推為心曰，阿難雖以能推為心，實是所推影子，非真能推者。真能推者，雖是第六意識見分，而此見分，便不在內外中間，本離過絕非。如眼不見眼，何可舉似。而曰即能推者，我將為心邪。故如來訶云，汝執分別覺觀所了知性必為心者，此心應離色香味觸別有全性，明指為所了知性，非能了知性矣。圓覺妄認六塵緣影為自心相，此經謂前塵虛妄相想，皆是物也。阿難云，離此覺知，更無所有，豈非認緣氣為覺知。緣氣是所知影像，非能知能覺之見分，以見分從來無相故也。見分無相，誤為有相，

便成蛇見。若了見分雖妄，實本無相，則依他當下消歸圓成。天台所以專立第六識為所觀境，譬鑽木出火，火即燒木，合于此經識陰本如來藏性，識明知，覺明真識等語，不啻如空合空，水合水。此直指人心，見性成佛，不動一步，久已到家，真無上圓頓法印也。阿難未證初果，全墮凡外無心計心之過。如來種種徵破，不過欲其覓心了不可得而已。

（問，緣心現有其用，如何決不能推。經言汝等尚以緣心聽法，此則亦許緣心能聽。）

答，一切法名色盡之。眼耳鼻舌身，色聲香味觸法，皆色也，受想行識皆名也。名者，但有名字，無色相也。是故八心王，五十一心所，其相分皆色也，其見分皆名也。經云，妄有緣氣，於中積聚，假名為心，見分惟有名，如何可稱為氣，可積聚於中邪。緣氣積聚，則一件物，一件物則是相分。唯識云，相分理無能緣用故。阿難認為能緣，亦如認目有見，浮塵目必不能見，緣影心必不能知。故破云，尚以緣心聽法，正謂緣心是緣氣，亦名風大，決無聽法功能。尚誤為能聽法邪，此從我法音為緣，起於法音影子，非得我所指心性也。古人云，卻是虛空能講。今例云，卻是虛空能聽，何如何如。至此漏逗不少，知我罪我，未審何人。

（問，阿難獲法身，而不解脫，富樓那得羅漢，而有疑悔。若止悟理，豈有理外之事。若但事障清淨，豈有事外之理。設理障理遣，事障事除，互不相攝，何成圓宗。）

答，阿難煩惱障重，滿慈所知障重。由事理不二而二，仍分根本枝末也。如樹根枝葉，同屬大地四微，亦自不分而分。阿難斫根，枝葉尚青，滿慈枯枝，根尚未拔。至理障理遣二語，復通四教，不得直以煩惱為事障，所知為理障。界內界外，各論事理二行故也。

（問，三卷中阿難既獲法身，何更數求開示。四卷中疑惑銷除，心悟實相，而又如旅泊之人，得屋求門，不幾法身在門外邪。）

答，法身亡得失，絕內外，只緣迷悟有殊，曲分修證差別。雖約修證，不礙性真。如虛空非丈尺，丈尺顯虛空。三卷獲法身，約相似解行。四卷請入門，約分證智斷，不相違也。古人云，道曠無涯，逢人不盡。大悟一十八，小悟不計數。此阿難所以番番開悟，處處陳疑，終未足中生滿足想也。堪嗟末世，瞎鍊盲修，於靜境中，稍得一兩番六塵乍息光景，便謂千了百當，自誤誤他。并相似法身，尚未夢見，況親窺華屋門邪。佛法不是者個道理，慎之慎之。

（問，水土二物，性本真空，何必去泥土，取清水乎。）

答，水土不出虛空，喻十界五陰不離藏性。今既以清水喻九界中佛界五陰，以泥土喻佛界中九界五陰，必棄九界濁，成佛界清。若泥

土不必去，則自性眾生不必度，自性煩惱不必斷。若清水不必取，則自性法門不必學，自性佛道不必成。執性廢修，成大邪見。

(問，既以可作法喻十八界生滅相，以虛空喻如來藏不生滅性矣，何又以水土相投，喻阿難等身中五濁，以去泥純水，喻如來常樂我淨邪。文句雖以五濁合可作喻，以純水合虛空喻，然如來何不直依如虛空之藏性為本修因，乃別令澄濁得清邪。)

答，經云，如澄濁水，貯於靜器。器仍喻十八界七大，而器中空，則喻十八界七大皆藏性也。十八界七大皆得為所觀境，喻之以器。境中本具妙諦，喻器中空。能觀境諦之智，喻所貯水也。蓋水喻見分，土喻相分。六凡眾生見分，必取同居土相，二乘眾生見分，必取方便土相，菩薩眾生見分，必取實報土相，故皆濁。唯佛見分直緣真如，不復變帶三土妄相。如貯水器中之空，至明相精純，則八識轉成四智，以根本智無相分故，名去泥純水。以後得智能現相故，名一切變現。雖有變現，仍是無漏，故云不為煩惱，皆合涅槃清淨妙德也。是知以虛空喻不生滅性，證之成無為無漏功德，即是法身，亦即大乘止觀淨分真實性也。以純清水喻佛果四智菩提，證之成有為無漏功德，即是報身，亦即大乘止觀淨分依他性。唯識謂其純無漏，亦可攝歸圓成實性也。以一切變現，喻佛果利他功德，所謂嬰兒行病行等，即是化身，亦即大乘止觀淨分分別性也。如次配三涅槃，三菩提，三德祕藏，皆無不可。佛語巧妙，佛意深遠，豈片言隻義能盡哉。

(問，空喻涅槃，則了因所了，水喻菩提，仍生因所生，豈皆元清淨體邪。又空無邊際，水有涯畔，不幾涅槃理遍，菩提智不遍邪。)

答，清水元非生因所生，以濁水中本具清水性故。澄濁得清，可喻轉識成智。但轉其名無實性，故不同相宗權說也。空水邊畔，此觀相元妄耳。性水真空，性空真水，清淨本然，等周法界。

(問，阿難已獲似位法身，何聞不明自發，語仍疑見聽離塵，畢竟無體，以為斷滅邪。初徵心在迷，此已悟性真，何更指前為例也。)

答，阿難此時見惑已斷，知六根虛妄，無我我所，不執緣影為心，但思惑及無明未斷，故欲棄妄求真，未能了妄即真。夫二決定義，意在定境修觀。譬澄濁得清，不棄濁水，別求清水。阿難執現前濁相，疑無清水性，不知清水性，即在濁水中也。占察云，初心應先習唯心識觀。南嶽止觀亦誠不得即觀圓成。良以圓成之性，全在依他及分別中。離現前分別及依他境，別無圓成實性可得。全水成波，波外更無別水故也。末世禪流，昧定境修觀妙旨，離於事境，高談理性，所計理性，還成分別。所謂未證無為，而辨圓覺，彼圓覺性即同流轉，毫釐有差，天地懸隔。阿難深知此弊，方發此疑也。

(問，龍王河女空神，能聽聞觸覺，不依浮塵，勝義何住。若無勝義，不應是凡，又勝義根有證知處否。)

答，勝義依浮塵，約迷妄言耳。龍以角聽，勝義依角，河神鼻根，亦可例知。空神無業果羶色，有定果色，依之覺觸。然此段文，正顯六根之性，不藉浮勝二根。在凡在聖，其理無二，非謂無勝義即聖，有勝義即凡也。但凡夫迷己為物，又認物為己，故見聞覺知，必賴浮勝二根。聖人背塵合覺，即全塵是覺，故得寄根明發，六根互用。謂聖無六根可也，謂聖方有六根可也。至於凡夫勝義根，但可比知，若無六根，終不發識。如無燈炷，焰則不生，焰但照他，不照燈炷。

(問，如耳根，何者是六識七識八識。又從聞思修，此思在六識，如何用心。又如何辨此七之思八之思。)

答，耳之浮塵勝義二根，俱第八識相分。聞精即第八見分也，八七法爾相緣。依第七復發第六意識，與耳根所發耳識同緣聲相，此八識相緣起也。思修思字，正是諦觀聞性，即空即假即中，不隨聲色流轉。此名雖同遍行五中之思，實與妙觀察智相應，又與別境中慧並起，并與善中信等相扶，故名思慧。若尋常釋思，則以令心造作為性，於善品等役心為業。與第六相應者，同彼遍緣三量。與第七相應者，同彼但緣內我。與第八相應者，同彼於不可知執受處了。此思相差別也。

(問，初心反聞性時，又被色香味觸法牽動，未審當境推破入真流邪，還歸本根入真流邪。)

答，餘塵牽動，只是工夫不得力，見地不清楚耳。果於耳門悟圓通常，以此圓通常觀，歷一一法，皆耳門三昧。故曰，此是微塵佛，一路涅槃門。至於順治逆治，隨樂隨宜，隨治隨理，不可執一。摩訶止觀立十境，初觀陰心，餘界入并後九境，待發方觀。知此例者，修心之要，不泣岐矣。

(問，身心二俱捐捨，將何修入三摩地，寧復別有一身心邪。)

答，執我之心，乃生死根，由此我執，方愛其身。而有身即是我，離身有我，我大身小，身大我小之四別。若謂身即是我，萬無肯捨之事。縱妄計捨則斷滅，更無後苦，仍未達此妄計之心，即是苦本。若謂離身有我，見身多苦，捨令無苦，此正由我見捨身，非能捨此我見心也。惟將此四種我見，一齊放捨，則幻身亦決可捨。二俱捐捨，則二俱妙用，便可入三摩地。故知只此身心放得下，流賊便為良民，放不下，良民便為流賊耳。

(問，初下手時待不得力而後持咒助邪，或持咒與所觀境並進邪。兼二亦名一門深入否。)

答，眾生根性，萬別千差。或顯悟，或密證，或須助，或不須助，事非一等，皆是一門深入。若無障緣，直修境觀。若恐障侵，兼持密印。顯密正助，並須與妙觀相應，方合一門深入之旨。

(問，遠論動源，過在無始。近論只是當念，離當念有無始否。若有，何得一念了卻。若無，何得有今一念。)

答，離當念，別無無始可論。現前一念，即豎窮橫遍之全體。根身器界善惡種子，離現前一念，竟無少許實法可得。故曰，十世古今，始終不離於當念。

(問，既獲法身，復請至何漸次得修行目，詣何方所名入地中，豈法身有差別漸次邪。)

答，法身無差別，差別不離法身，修行無漸次，漸次依於修行。如虛空無遠近，遠近不離虛空，奮飛無漸次，漸次依於奮飛。阿難悟心，即悟無差別性，猶如太虛。所請修行，即是圓行，猶如奮飛。由奮飛遠近，得論漸次差別。若只許無漸次無差別義，則是以性廢修，昧即而常六之旨。且既無差別，亦無無差別可得，無漸次，亦無非漸次可得，如無遠近，亦無虛空。六義既昧，即亦不成。須達全性起修，全修在性，則從始至終，皆以佛知佛見而為修行。圓家之漸，即漸是圓，非漸圓可比也。

(問，固身常住，長不傾逝，且色陰既空，受想行陰都滅。從何起此長想，指何色為身邪。)

答，五陰互相攝屬，色陰未破，五陰皆色也。色破受現，五皆受也。受破想存，五皆想也。想破行顯，五皆行也。今行破識露，則五皆識也。是故生滅雖滅，而於寂滅精妙未圓之中，法爾仍具五陰。只此色受想行，罔非寂滅未圓境界，豈行人至此，竟無色身，亦無苦樂覺觀舉止動靜等邪。良由第六識相應心行，於定境修觀時，如次觀於識陰境界，見識陰之精圓，而生長想。此想即從觀行起，此色即識陰所執受也。

(問，第六外道，圓虛無心，以永滅依為所歸依。註云，令不恆行心心所滅也。功力至此，應俾聖流，而成斷滅，過在何所。既斷滅，又何果可成，種可得邪。)

答，無想定中，雖滅不恆行心心所法，祇由計明中虛，以為方便，則見惑全在。所以下地思惑雖伏，仍堅執無想天之生死妄想，誤為真實，決定不入聖流。過在不曾真實先開圓解。所以觀行位中，見此寂滅境界，不知全是顛倒微細精想，而生勝解也。雖云斷滅，非真斷滅，仍是十二類生所攝。所謂枯槁亂想，無想羯南，故名為種，亦名為果也。

(問，首楞嚴大定，從觀行入，即以觀行為定邪，為有次第有出入邪，畢竟至究竟，方可稱大定邪。)

答，欲知大定體相，須明性修妙旨。眾生本具大佛頂性，即大定之體。如云陰入處界，乃至七大皆如來藏，妙真如性，則皆大定體性也。眾生在迷，但有理即大定，悟此理是名字大定，依佛知佛見而為修行，是觀行大定。觀行功深，相似理發，六根清淨，如鑽火得煙，是相似大定。於頭頭法法中，分證三德祕藏之理，是分證大定。乃至徹證，無欠無餘，是究竟大定。始終理一，名之為性，六位轉變，功在於修。修不在性外，悟性方成修。如弈者得勝，不離棋局，知局方可取勝也。

(問，從破七處，至顯藏性，體用彰，真俗顯，天地同根，萬物一體，無生死可得，無涅槃可證矣。又選耳根為方便，耳根即聞見覺知，熾然成異，乃光影門頭，於常住真心，自相逾越，何從修證入三摩提邪。)

答，不悟妙性，無以成修。不事真修，無以顯性。經初破緣影非心，顯見性非物，會四科以歸性，明七大之遍圓，喻以狂走而頭不失，貧乞而珠自存，皆直指人心，見性成佛，顯圓融諦理，以開妙悟者也。次即依妙悟以起真修，借此方最利之耳根，薦取本圓本通本常之性體，故得名為以不生不滅為本修因，然後圓成果地修證。此真金剛寶劍，何惑不破，何理不彰。若不知耳根之性，即如來藏妙真如性，漫云同一體，無生死，無涅槃，全墮光影門頭相似語句，其不知此經宗趣甚矣。試取擊鐘驗常處一番問辯，沈思細玩，自知所問之非也。

(問，多聞無功，不逮修習，憶持十方如來十二部經清淨妙理，如恆河沙，祇益戲論，積劫聞熏，不能免難。歷劫憶持如來祕密妙嚴，不如一日修無漏業。阿難尚如此訶，今人設持此經，亦何益邪。)

答，阿難病不反聞，非病多聞。經訶一向徒聞，非教無聞。正以今人愚鈍，依教修行，猶恐失足，癡禪暗證，墮落何疑，所以曲隨根性，且令持此深經。利者得以隨文入證，鈍者亦可永為道種，庶免無聞比丘之禍也。

教觀要旨答問十三則(原問附)

(問，三界唯心，萬法唯識，二義同邪異邪。)

答，心識通有真妄，局則心約真，識約妄。唯心是性宗義，依此立真如實觀。唯識是相宗義，依此立唯心識觀。料簡二觀，須尋占察行法，方知同而異，異而同矣。

(問，遍計依他須破，圓成還須破否。圓成不須破，遍計依他亦不須破否。破與不破，乞師細剖。)

答，三性元非定三，亦非定一。言遍計依他入圓成實者，只達遍計本空，依他如幻，即是圓成實性，非別有也。若存圓成實見，還是

遍計，亦須破盡。若知三性即三無性，則遍計依他本無可破。無可破，所以具明淨分三性，須破盡，所以復明三無性也。更以喻明。達繩即麻，則依他非實，遍計安有。謂繩是蛇，則麻性不改，恐怖妄生。迷時全麻是蛇，蛇繩麻皆迷情。悟時全蛇是麻，麻繩蛇皆悟境。儻謂麻即繩，麻非繩，麻亦繩亦非繩，麻非繩非非繩，又謂繩即蛇，繩非蛇，繩亦蛇亦非蛇，繩非蛇非非蛇，乃至展轉互作四句，皆成遍計。若不起性計，深知不變隨緣隨緣不變之理，以四悉檀因緣，巧說種種四句，則三性三無性二義並成。故知非破非立，而論破立，破立同時，破立不二。

(問，三因圓具，方稱圓修。請示現前一念，何為正緣了，及一位中因相差別，令不生上慢退屈也。)

答，性具三因，止現前惑業苦三而已。惑即了因種子，業即緣因種子，苦即正因佛性也。若就行人點三因者，能觀觀即了因佛性，所觀境即緣因佛性。若能若所，若心若法，唯一實諦，即正因佛性。了知此三，依此修習，是名字位相。此觀力深，圓伏五住，是觀行位相。六根清淨，是相似位相。八相成道，三身圓顯，是分證位相。盡無明源，窮覺海邊底，是究竟位相。知一念圓具三因，安生退屈。知道力非可浪階，安生上慢。思之修之。

(問，正觀心時，豎窮橫遍，微塵剎土，一念圓具，如是觀察，契具字法門否。

設起異見，以四運四性推之。設不起異見，止如上念念現前邪，或有他法邪。)

答，祇是虛解，未實現前，還將二種觀道，善巧進修，別無他術。的於一塵中見法界性相始終，方成妙觀。

(問，正觀心時，眼見色如鏡照像，耳聞聲如空中風，乃至意識覓能緣者了無蹤跡。正恁麼時，如何又有時如無事人，有時如知事人，有時如有事人，有時如疑事人，盤結在心，如何併除。)

答，見色如鏡像，聞聲若空風，能緣無蹤跡，皆色陰未破境界。須推此覓能緣者，阿誰能覓。不暫時忘卻四運工夫，即了義正修。如無事時，四運推破，不可坐在無事甲裡，如知事有事疑事時，推此知者有者疑者，如此則盤結自除。不必畏其盤結，立意併除也。

(問，推揀時，心不可得，何有三觀。境不可得，何有三諦。心境總不可得，何有能所。如是契了義否。)

答，心境不可得，為竟斷滅邪。若竟斷滅，只今誰問此法。若不斷滅，心不可得，真是一心三觀。境不可得，真是一境三諦。若總不可得，能所融絕，真是心境不二。虎谿尊者頌云，境為妙假觀為空，境觀雙忘即是中。忘照何曾有先後，一心圓絕了無蹤。唯忘故照，唯照故忘。果然一名不落，則萬別千差名義俱彰矣。

(問，根身器界，達之唯一心建立。此心有邪，無邪，亦有無邪，非有無邪。若在當人密悟，就悟處有淺深邪，正否邪。)

答，根身器界，無論達與不達，從來只是唯心。非心建立法，非法從心立。若有能建所建，不名唯心，以心外無法，故名唯心。唯心則唯色唯香等義，一切俱成。此妙心法，離四句，絕百非，唯以妙悟領之，悉檀說之，的的可於四門入道。但不落四句，而圓照四句，即為正為深。儻離四句，又墮第五不可說句中，即為邪為淺。

(問，集要釋一體三寶云，現在一念，本具三諦。在迷不覺，是為法寶，能覺三諦之智，是為佛寶，諦智和合，是為僧寶。夫眾生念念趣境，不了自心，觸處相違，無能覺智及和合義，豈唯具法寶邪。)

答，眾生趣境，果有心外之境可趣邪，果離覺體外有能趣之妄念邪。即彼能趣妄覺，所趣妄法，果可分別令各在一處邪。若念念趣外，終無外法可趣，亦無離覺體之念，亦無二處可分，則理即三寶煥然。

(問，介爾之心，本無邊畔去來，亦非斷滅。今念念閒策善不敢違，思惡不敢匿，每向三尊前，求哀悔過。如是用心，契正修否。)

答，能策能思之心，與所策所思之善惡，有邊畔去來可得否。若達善惡之性，即是實性，無形像邊畔動靜去來始終生滅，則必修善日增，修惡日損。而增損了不可得，即是正修行路。若見有善可增，有惡可損，成於偏小。若不見有，任其善惡，成於魔外。審之。

(問，持經時，如何即字字句句，當體不思議境。)

答，字句法性，本不可思議，更問如何成思議矣。若平日觀心得力，正持經念佛，不與觀心違，此真如實觀之門。未達者，須用唯心識觀，四運四性推此字句之性。若知其當體即空，舉體即假，亦復即中，則思議心息矣。

(問，煩惱即菩提，生死即涅槃，為約迷約悟，約性約修。)

答，法爾理性，不關迷悟。悟知其即，非悟方即。迷不知即，未嘗不即。惟有此即是之性，方可起即是之修。所起之修，究竟即性，無性外少法可得。

(問，一念不生全體現，一念不生即如如佛。為復惟圓頓邪，亦有偏有漸有邪正邪。)

答，以名定義，萬無一得。以義定名，萬無一失。圓頓之談，隨類各解。外人計緣影為心，如石壓草，制令不生，謂是即如如佛，其實成無想外道。稟藏教人，知根塵為緣，則有念生。遠離根塵，念性永寂，得入涅槃，名如如佛，其實止成小果。稟通教人，了知念無自性，求其生相了不可得，名如如佛，其實止是乾慧。稟別教人，謂生者是妄識，真如凝然不生，名如如佛，亦名素法身，還須智行嚴之。惟有稟圓教人，了知現前一念，即是法界，不變隨緣，無生說生，隨緣不變，生即不生，是故全體顯現，名如如佛，即與三世諸佛體用平等。前三教為偏，惟圓教為圓。後三教俱有頓義，

惟藏教屬漸，四教皆正，外道為邪。嗟嗟，世之乘言滯句者，輒云一念不生即如如佛，曾簡點及此邪。圓頓宗旨，有名無義久矣。

(問，中論一偈，以配四教，為定別配邪。亦隨類各解邪。幸剖實義，以驗教眼。)

荅，偈攝權實事理，罄無不周。天台依立四教，前不具後，後必具前，載在廣文，昭若日月矣。若隨類各解，復各四別。如因緣所生法，有人聞之，便謂諸法仗因託緣，展轉生起，別無梵天微塵等以為因緣，亦非無因無緣而有諸法。又人知因無實因，緣無實緣，生無實生，法無實法，如空華夢物，說名因緣所生。又人知無明為因，境界為緣，出生十界因果差別。又人知一心具足三千性相為因，隨於迷悟具成十界染淨為緣，次即空句。有人聞之，便謂諸法無我，我所故空。又人謂法體自空，非滅故空。又人謂法無實性，體不可得故空。又人謂法法非空非假非中，三諦俱破故空。次假名句。有人聞之，便謂俗諦是有，故稱假名。又人謂諸法如幻，故稱假名。又人謂法法出生十界因果差別，故稱假名。又人謂法法即空即假即中，三諦俱立，故稱假名。次中道句。有人聞之，便謂離斷離常故名中道。又人謂真俗不二故中。又人謂非空非假故中。又人謂法法無非實相實性假空皆中，不見有法異於法界故中。然初一人無我我所之空，生死非即涅槃，空義不成。俗諦是有之假，法法不相融攝，假義不成。離斷離常之中，不證法身應本，中義不成，覈實祇成因緣所生法一句耳。第二人諸法如幻之假，不知幻復作幻，假義不成，真俗不二之中，不知中體不空，中義不成，覈實祇成因緣，即空句耳。第三人非空非假之中，不知中道具一切法，遍一切法，不知法法無非中道，覈實祇成因緣即空即假句耳。惟第四人了知因即法界，攝一切法，更無一法出過於因緣即法界，乃至能生所生，罔非法界。空亦法界，假亦法界，中亦法界。通則具收四句，別則即中一句便足。此智者大師所以棄通取別，直依四句而明四教也。復次因緣所生法，即生滅四諦。我說即是空，即無生四諦。亦名為假名，即無量四諦。亦名中道義，即無作四諦。復次知正因緣境者，生滅無生無量無作皆因緣也，知即空者，皆即空也，知即假者，皆假名也，知中道者，皆中道也。復次知生滅四諦者，因緣空假中皆生滅也，知無生四諦者，皆無生也，知無量四諦者，皆無量也。知無作四諦者，皆無作也。

荅徐仲弢問

中論四句偈，深談諦理，不涉觀照工夫。諦理明白，觀照在其中矣。先分為二，初句舉事境，下三句顯三諦，舉事境，不論色心假

實，皆仗因託緣而生。偏指十界十如，百界千如，三千性相，一一皆名因緣所生法。若謂心為塵因，塵為心緣，窒礙甚矣。此句走卻線索，下文如何著落。況空假中，直就所生法，圓具圓現，不得次第解，尤不得牽帶觀門。教眼精妙，決非羶心浮氣可領。姑俟居士行門成就，轉身拶入耳。略說，但云因緣所生種種事境，無不當下即空假中便了。若細談，雖九句未罄其旨。今即空句，半是半非，假中全然遠隔，可輒厝心動筆邪。

荅何二華問

欲明大般涅槃，須知小乘無餘涅槃之義。小義未了，何由議大。今明無餘涅槃，一祕相而談，二開顯而說。祕相者，佛與耆婆至一荒郊，連舉枯骨，問其在生善惡，男女壽夭，乃至死歸何處，毫無錯荅。佛遙向他山取一骨，耆婆再三彈聽，茫然不知。佛云，此羅漢骨，已忘我相，已斷後有，非三世所攝，三界所繫，汝不能知也。由此觀之，無餘涅槃，已不可思議，況大涅槃哉。莫見此說便作斷滅之解。外道問，羅漢死後有無。佛言，皆是戲論。又問畢竟如何。佛言，積薪投以芥火，燒蔓不絕，展轉投薪，展轉遠熾。設使薪盡，火則隨滅，此火為有去處，無去處，為斷滅，非斷滅。外道言，火無去處，亦非斷滅，此處火滅，非一切火性皆滅。佛言，羅漢亦如是，惑業薪盡，果報火滅，何可言有去不去，斷與不斷。此祕相而談也。開顯者，二乘但斷界內分段生死，猶未永斷界外變易生死，雖凡聖同居土無受生處，猶受方便有餘土法性之身，雖非斷常，仍似有來去也。如來五住究盡，二死永亡，知一切法無非即心自性，不離當處，寂湛圓常。約正報名清淨法身，約依報名常寂光土，約智德名無上菩提，約斷德名大般涅槃。身土不二，智斷難思，以要言之，無一微塵不是如來不思議法界全體大用。故云佛身充滿於法界，普現一切群生前。牆壁瓦礫，清淨法身，一色一香，無非中道。當知眾生生死輪迴境界，盡是如來大般涅槃境界。醉人所見轉屋，即醒人所見不轉之屋，無二屋也。佛成無上覺，親證諸法本來常寂滅相，出出不入，不滅不生，為性淨涅槃。二死因果永斷，名圓淨涅槃。為眾生故，示生示滅，為方便淨涅槃。經謂佛涅槃，即方便淨之相，非彌陀無量劫後，方證大涅槃也。

荅比丘戒五問(原問附)

(問，毘尼之學，人天可保，福盡將如之何。孰若宗教先開眼目，以道共戒為急務，貴見地，不貴行履，詎不然乎。)

荅，毘尼之學，出世正因，戒波羅密，佛地方滿，豈僅人天福邪。宗教開眼，言雖相似，但離戒別談宗教，便墮惡見。為山云，毘尼法席，尚未叨陪，了義上乘，豈能甄別。荊溪云，用前四戒為境，以六觀之，事理相即，當知篇聚，一不可虧。世人蔑事，欲尚深理，驗知此觀孤虛無本，既虧觀境，觀亦無從。宗教誠訓昭然，胡弗思也。無上戒而判屬人天，捨律儀而空談道共，正見已破，行履必荒，惡趣三塗，敢保有分，人天不可得矣。

（問，末世鈍根，只宜要略。四分律藏，世尚畏繁，何不宗四分戒本，略加旁註釋疑。）

荅，固守癡頑，終無釋疑之日。必須博學反約，乃克有濟。戒本旁釋，開遮持犯安能洞然。樂佛法者，既難以通，習懈怠者，仍未必學，進退失措，有何利益。

（問，念佛一門，廣大簡易。一心念佛，自然止惡防非。律相浩繁，已非簡易，果極聲聞，又非廣大，不若專弘淨土之妙也。）

荅，持戒念佛，本是一門，淨戒為因，淨土為果。若以持名為徑，學律為紆，既違顧命誠言，寧成念佛三昧。多纏障垢，淨土豈生。夫如海無涯，豈不廣大，保任解脫，豈不簡易。故一心念佛者，必思止惡防非，而專精律學。專精律學者，方能決定往生。而一心念佛，現在紹隆僧寶，臨終上品上生，法門之妙，孰過於此。只一大事，何得乖張，取笑識者。

（問，罪因譏嫌，制有隨方，此方不譏，何乖聖訓。又時丁未運，外緣不豐，內因微薄，必欲纖毫無犯，而演教弘宗，則佛法不能廣布。完小節而失大益，豈菩薩本心。）

荅，如來一切知見，普為大千眾生而制戒律。六群等亦大權示現，曲體末世情態而示犯緣，正由人情懈怠，不肯輕重等護，致成末運。今欲弘宗演教，必以持戒為本。內因淳厚，外緣自豐，白毫相中一分光明，決非誑語。若以戒為小節，便成謗法，談宗說教，皆是僮侗瞞肝，設獲外緣，總名魔業，何益正法哉。

（問，西乾列祖，三學精通。此間地僻時遙，人罕閒見，唯唐宋來數輩宗匠，蹤跡彰著。然當其水邊林下，則以三條篋一把鋤，為清淨自活。逮其匡徒領眾，則以一日不作，一日不食，為真實芳規。至於揚化接人，則以一棒一喝為拈提向上，俱與律學不相應。好心出家之流，由行腳入山，至登座披衣，所做倣者，無非此等。今還許從上諸祖是真比丘否。若非何紹祖位。若是何不遵律。又今紹祖位者，例輕律學，從上諸祖，亦輕視否。又今紹祖位者，不遵戒而為人授戒，從上諸祖，亦為人授戒否。）

荅，祖有三類，一者嚴淨毘尼，弘範三界，如遠公，智者，左谿，永嘉，荊溪，大梅，永明，高峰，中峰，楚石等是也。古今如此知識，亦甚眾多，所應景仰倣倣。二者丁茲末世，勢不獲已，遵佛遺

命，捨微細戒，住靜則刀耕火種，領眾則墾土開田，然非時食等諸戒，仍自遵行，故晚用藥石，不用粥飯，德山托鉢，亦因視影。而此等知識便不肯為人授戒。所以唐宋以來有禪講律寺，初出家多學律，律有得則以律名家，無得則習講參禪。但捨微細戒，不捨重戒及性戒也。復有徑投禪教者，此即乘急戒緩，然亦護根本五戒，斷無毀重之理，而決不敢自稱比丘，輕視律學，但愧未能，以為慚德。至出世接人，或重登戒品，性遮皆淨，如六祖等。或單提向上，獨接一機，如壽昌等。人問壽昌，佛制比丘，不得掘地損傷草木，今何耕種芸穫。荅云，我輩祇悟佛心，堪傳祖意，指示當機，令識心性耳。正法格之，僅稱剃髮居士，何敢當比丘名。問，設有如法比丘，師何以視之。荅，當敬如佛，待以師禮，非不為也，實未能也。又紫柏大師，生平一粥一飯無雜食，脅不著席，四十餘年，猶以未能持微細戒，終不敢為人授沙彌及比丘法，必不得已，則授五戒法耳。嗟乎，從上諸祖，敬視律學如此，豈敢輕之。若輕律者，定屬邪見，非宗匠也。三者大用現前，觀機利益，破他疑執，不拘恆規。如文殊菩薩執劍逼佛，三處度夏，重勝比丘。與女同坐，令證無生，乃至寒拾之訶律主，歸南之斬貓蛇。譬良醫砒霜治病，大將奇計除賊，而不可為典要。又凡訶佛罵祖，痛棒毒喝，皆不得已而用。所謂兵者，不祥之器，非布帛菽粟也。用得當，跡似違律，實真持律，以得律意故。如經謂末利夫人飲酒救殺，佛讚其真持齋戒，菩薩見機得殺盜等，於菩薩戒無所違犯，生多功德也。若失其宜，將作門庭施設，如優孟之學叔敖。宗既非宗，律又非律，謗大般若，疑誤後學，三塗劇報，何由得免。設亦誘引愚流，作種種福，福力所持，不即墮落，終為外魔眷屬，非佛弟子。末世多此妖邪，誑惑世間，魔所攝助，多得供養，聚眾百千人，眷屬兒孫遍天下，毀戒毀教，破壞如來真正法輪。愚小無知，羨彼名聲，而爭倣倣，令好心出家者，皆墮其黨，求升反墜，哀哉痛心。然由仍以三寶為所緣境，罪報畢時，還藉佛法僧戒之力，而得度脫。魔王語佛，吾於汝末法中，令眷屬食汝飯，著汝衣，破壞汝法。佛言，汝但自壞，法不壞也。今欲不墮三塗，竟登聖果，請必從持戒始。若挂名受戒，又輕視戒法，既不精戒法，又為人授戒，既為人授戒，又不教學戒，且言戒是小乘，不須習學，則決墮三塗，為魔眷屬，自受其苦，無人能代。終亦必皆成佛，我不敢輕之矣。

荅唐宜之問書義(有引)

智及之，即大學格物致知，中庸擇乎中庸得一善也。仁守之，即大學誠意正心，中庸拳拳服膺而弗失之也。莊蒞之，即大學脩身，中庸誠身也。動之以禮，即大學齊家治國平天下，中庸順親信友獲上也。聖人說法，應病與藥。若為智未及者，則云知德者鮮矣。以思無益不如學也，思而不學則殆，此孟子重始條理意也。今責智及之者以仁守之功，正孟子兼重終條理意(中而不至，亦非善射，況不至便不中。巧力俱不可輕，但先論巧，後論力耳)。乾知大始，坤作成物。有坤無乾固不可，有乾無坤又豈可哉。非初步無以為究竟之始，非到家無以結初步之局，此儒門智仁合一之學，與佛門解行互徹之旨相類也。儒不更贅，請言佛氏之學，須分四教，以辨內外小大偏圓。細思之，勿忽。

藏教 知三界苦空無常無我不淨，名智及之。念念與四念處觀相應，不起見思煩惱，名仁能守之。身口意業，恆與三千八萬律儀相應，名莊以蒞之。得不忘念，一切時中，應機設教，名動之以禮。鬱頭藍弗入有頂定，亦似仁守。威儀庠序寂靜，似莊蒞。以自所謂定門，攝化多人服從其道，似動之以禮。由智未及於出世法故，所以守不名仁，蒞不名莊，動不名禮。(鬱頭亦是智及了非非想處，仁能守非非想處者，但非出世間之智耳。)

須陀洹捨戒還俗，是智及之，仁不能守之。舍利弗瞋習，畢陵伽慢習，難陀貪習，憍梵鉢提齧習等，是仁能守之，不莊以蒞之。迦葉目連等神通，作意方有，是動之不以禮。

通教 知三界夢幻空華水月，名智及之。念念與即空觀相應，名仁能守之。莊以二句，並與藏教同。

藏教極果，雖到動之以禮境界，不達諸法本空，不名智及之。智既未及，不名仁守等也。

見地薄地亦有捨戒還俗者，是不能守。已辦地不侵習，是不莊蒞。支佛地習氣未盡，是動之不以禮。

別教 知生死是有邊，涅槃是無邊，真如法性非有非無。依真如乃成生死之有，涅槃之無，名智及之。先以空觀斷見思惑，出生死有邊，名仁能守之。次假觀破塵沙惑，出涅槃無邊，名莊以蒞之。後中觀破無明惑，證中道體，從體起用，名動之以禮。

通教極果，雖到動之以禮境界，不達中道法性，不名智及之。智既未及，不名仁守等也。

十信有退，是仁不能守之。十住自利，是不莊以蒞之。十行未修中道，十向未證中道，是動之不以禮。

圓教 知一切法皆是佛法。法界實相，性相常住。一色一香，無非中道。生死即涅槃，煩惱即菩提。遍能破除一切世出世法，遍能建立一切世出世法，遍能統攝融貫一切世出世法，名智及之。念念與

此圓妙止觀相應，圓伏五住煩惱，名仁能守之。六根清淨，名莊以蒞之。入無功用妙道，名動之以禮。又圓教智仁莊禮，一一圓融，一一互攝，非一非四，而一而四，名字位中，則有名字智仁莊禮，乃至究竟位中，則有究竟智仁莊禮。今以名字智仁莊禮，總名智及之，觀行智仁莊禮，總名仁能守之，相似智仁莊禮，總名莊以蒞之。分證究竟智仁莊禮，總名動之以禮。圓融不礙行布，行布不礙圓融，以無為法而有差別，此之謂也。

別教十向，雖得相似動之以禮境界，未達中道圓融不思議性，不名智及之。智既未及，不名仁守等也。

名字開圓解，未伏煩惱，是仁不能守之。觀行伏五住，未淨六根，是不莊以蒞之。相似淨六根，未入無功用道，是動之不以禮。蕩山大師謂此宗難得其妙，切須仔細用心，乃深歎圓教智及之之難也。可中頓悟正因，便是出塵階漸，生生若能不退，佛階決定可期。此於圓教智及之者，責仁守全功也。

荅成唯識論十五問(原問附)

(問，末那與慧相應，故因中隨第六識轉而為智。藏識不與慧俱，至果方圓，前五既有慧俱，又與善俱，復是轉識所攝。何故不隨第六因中轉，亦至果方圓邪。)

荅，末那之慧即是我見。我見無自體，直以慧為體也。第六識入二觀，第七識二執不得現行，故得轉為平等性智。然第六出法空觀，第七仍起法執，第六出生空觀，第七仍起我執矣。但第七是第六不共親依，故六轉七不得不轉。若前五識雖有慧俱，既無我見相應，則慧甚劣。雖與善俱，由第六善或境界善，暫得相應，無斷惑證理之能。以凡斷惑須在定心，定心中多無前五識故，直至果位。第八識中有漏種盡，轉與大圓鏡智相應，名無垢識。從此淨識所變五根相分，純無漏故，依之發識，亦成無漏。名成所作智相應心品，僅屬果上化他之用，非能自利，不同第七識也。

(問，有我見故，餘見不生，無一心中有二慧故。云何既有我見，又得與慧相應。)

荅，心所有假實，如別境中慧，則有自體。十煩惱中五見無體，惟以染慧為體。今第七相應之慧未轉，舉體為我見法見，已轉舉體為平等性智，故云約義別也。豈一心中有二慧邪。

(問，末那俱之我見，以慧為體，由義別故，仍以慧俱。忘念以念為體，何不亦由義別故，與念相應邪。)

荅，末那有慧故，有我見，與我見俱，即與慧俱也。忘念以念為體者，不遍染心，以癡為體者，乃遍染心。祇於第七識我癡上，明其

無正念，故斥為忘念，無正知，故斥為不正知。皆無自體，約過失邊義，立此二耳。

(問，謂此識緣自所依者，如有後識，即緣前意。儻難云，前五識所依五根，亦增上緣，何獨不許作所緣邪。識相緣之義，乞垂細剖。)

答，第七識唯內門轉，故得所依為所緣。前五識唯外轉，不得所依為所緣，不應為例。

(問，意識依意，具三分別，設依色者，便同五識。第八亦依意不依色根，何但有自性分別，無隨念計度。)

答，前六皆轉識攝，而一依心法，五依色法，故有差別。第八非轉識攝，但是所熏，唯無記性一類恆轉。儻亦具三分別，則有轉易，而受熏持種皆不得成矣。

(問，唯識五觀，與占察二觀，是同是別。)

答，遣虛存實，捨濫留純，攝末歸本，隱劣顯勝，皆從唯心識觀開出。若遣相證性，義仍兩屬。如云俗有真空，仍是唯心識觀。若遣相執，達相即性，乃真如實觀。

(問，思能令心造作。第八識相應之思，令造何等。)

答，爪生髮長，筋轉脈搖，髮白面皺，氣消容悴，及日月稽天，江河競注，滄桑易，春夏更，皆第八所造。

(問，瞋唯不善，則初二果任運所起瞋心，名不善否，與無慚無愧相應否，能發業潤生否。)

答，學人失念起瞋，亦名不善，此念亦名無慚無愧。然已斷見惑，故不發業，善心易起，惡心易滅，不潤生也。

(問，自在位，唯樂喜捨，以諸佛斷憂苦事故。彼金鎗馬麥等報，得名苦否。憂念眾生，得名憂否。又如頭臨白刃，如斬春風，得名無憂苦否。)

答，唯識名義，憂喜苦樂等，各有分劑，唯佛方能實無憂苦。金鎗馬麥，大權示現，原非實事，故非苦憂。念眾生亦不同凡夫迫戚，故非憂也。臨刃斬風，雖無憂苦，仍與佛果未同。以佛果不受害故，至稱性極談。菩薩分證憂苦，諸佛究竟憂苦，是在忘名字相者，方能信之。

答準提持法三問(原問附)

(問，一切能詮之文，必有所詮之體。顯密二詮，其體同邪，異邪。又佛何以顯說，復密說邪。)

答，千經萬論，若顯若密，皆直指人心，見性成佛。除此心外，更無所詮，猶云六經我心註腳也。顯密說者，有因顯說得四益，有因密說得四益。佛智鑑機，能隨施化，良醫因病，藥不爽宜也。

(問，稱體起願，名發菩提，上求下化，不相捨離。今持法中所明發菩提心，皆儒宗世教，與佛法同否。)

答，上古儒宗，皆佛菩薩示現，為師為導，接引迷流。所立世教，無非佛法。後儒拘虛，不能引伸觸長，遂有門庭之隔。剋實思之，聖人先得我心同然，寧非三無差別之旨。樂堯舜之道，若已推而納諸溝中，寧非上求下化之懷，但犬牛人性皆同，告子自不敢承當耳。孟子又謂人禽幾希，豈非習雖遠性仍近之證邪。

(問，顯密圓通，不持齋戒，不忌諷酒，往往獲應。何必別述此法，反令畏難。)

答，大凡持咒，各有攸宗。五部既別，三類亦殊。圓通一書，附會夾雜，非金剛正印也。依持靈應，由人篤信力行所感。設以此而如法奉持，靈應豈止功名男女已哉。況近時持者多而獲應者少，不惟信弗篤行弗力，亦由法未善故也。然今依經所立結壇，持八關齋等法，不過為久積方便，剋期取效者設耳，非謂平日持咒，皆須如此也。

法華堂第三第四二問并答(餘見頌中)

問，三身與三自性，是同是別。

答，三自性與三身，亦同亦別。同者，由悟圓成實性，證會法身，淨依他，成報智身，悟遍計本空，成普應身。別者，三身約果德，約悟顯，三性約境界，通迷悟也。

問，一切法皆可作四句。且如三性，各四句，如何作。

答，遍計所執性四句者，情有故常，理無故無常，情有即是理無，故亦常亦無常，理無即是情有，故非常非無常。依他起性四句者，緣生故常，無性故無常，緣生即無性，故亦常亦無常，無性即緣生，故非常非無常。圓成實性四句者，理有故常，情無故無常，理有即是情無，故亦常亦無常，情無即是理有，故非常非無常。亦可約不變隨緣，隨緣不變而作四句。又單約依他起性辨三性，以明四句者，依他性中有圓成實性故常。如繩有麻，依他性中無遍計所執性故無常，如繩無蛇，雙照故亦常亦無常，雙遮故非常非無常。當知惑業苦三，皆是依他起性，於依他起，並具四句。依他苦四句，即性具法身四句，依他惑四句，即性具報身四句，依他業四句，即性具應身四句。又佛三身即淨分三自性，各四句也。

靈峰蕩益大師宗論卷第三之三(終)

普說

祖堂幽棲寺丁亥除夕普說

諸昆仲欲復本來面目，須破我法二執。欲破我法二執，先懲流俗知見。何謂流俗知見。今人一出家參學，便要做善知識，只此豈非我執。又或以律非教，以教斥禪，以禪藐教輕律，豈非法執。縱使和融，不互相非，亦罕兼善。且律師不問何等根性，概要人持律，法師不問何等根性，概要人聽經，宗師不問何等根性，概要人參禪，豈非我法二執。殊不知禪教律三，皆如來隨機所說，豈有死法。吾今為諸昆仲徹底說破，若真為生死持戒，持戒亦必悟道，真為生死聽經，聽經亦必悟道，真為生死參禪，參禪亦必悟道，真為生死營福，營福亦必悟道。專修一法亦悟道，互相助成亦悟道，以因地真正故也。若想做律師受戒，想做法師聽經，想做宗師參禪，想有權勢營福，則受戒聽經參禪營福，必皆墮三惡趣。故智者大師云，為利名發菩提心，是三塗因，毫釐有差，天地懸隔，錯認定盤星，醍醐成毒藥。今受戒聽經參禪營福之士，口中亦說真為生死，心中未知生死大苦。火燒眉毛，且圖眼下。殊不知無始劫來，頭出頭沒，枉受多少辛酸。即今幸得人身，幸成僧相，亦經過多少艱苦。然猶未肯猛省發心，此與燕雀處堂何異。且如今夜臘月三十，古人以喻大命盡時，何等迫切。今人且歡呼茶飲，曾不思百歲光陰，尚存幾許，豈不痛哉。予出家時，母舅謂曰，法師世諦流布，吾甥決不屑為，將必為善知識乎。予曰，法師是烏龜，善知識是忘八，總不墮此坑塹。舅曰，畢竟何為。予曰，佛且不為，況其他也。舅曰，既爾何用出家。予曰，只要復我本來面目。舅乃歎善。嗟嗟，予初志若此，尚被虛名所害，不滿本志，深以為恥，況初心便要做善知識者邪。假使做得一箇世諦善知識，濟甚麼事。名利日重，正法日衰，壞周室者齊桓晉文耳。又吾眼見耳聞諸善知識，唯紫柏大師一人，已證無生，已得自在。其餘大老，建叢席，立規條，廣大周詳，名滿海內者，臨命終時，俱未免牽纏係戀，反不若我憨翁大師，及幽溪師伯，晚年一味默修，不管叢林中事，皆得脫然坐逝。又不若彼雪庭禪師，靈源法師，一生不拘小節，臨終亦得瀟然。故知門庭施設，不惟無益本分，正復縈絆殺人。吾憾障深力薄，戒品尚多缺略，持名猶屬散心。然既深知生死過患，故決不敢裝模作樣

大膽欺心。今二年聚首，不久擬別，故盡力抖擻屎腸，為諸昆仲，作此最後警策，伏惟著眼珍重。

歙西豐南仁義院普說

諸仁者，生死事大，無常迅速，生不知所從來，死不知所從去，是分段生死苦。念念遷流，剎那不住，是變易生死苦。此二種苦，但是生死枝流，未是生死根源。如何是二種生死根源。不了一真法界，不覺念起，而有無明，妄於平等性中，分能分所，分色分心，分為無為，分漏無漏，分依正，分因果，分善惡，分苦樂，分內外，分大小，乃至種種虛妄分別，便是變易生死根源。不知一切法因緣無性，妄計我人眾生壽者等種種知見，妄起貪瞋癡慢等種種煩惱，便是分段生死根源。此二種根源，總不離現前一念，虛妄無明。而虛妄無明，正眼觀來，不在內，不在外，不在中間，不在過去，不在現在，不在未來，非青黃赤白，非長短方圓，非聲香味觸法，非眼耳鼻舌身意，當下即是真空實相，但由眾生不了，自生迷倒，流轉無窮，所以諸佛出現，祖師西來，直指人心，見性成佛，無非破此二種根源。祇如二祖見初祖云，我心未安，乞師安心。初祖云，將心來與汝安。二祖良久云，覓心了不可得。初祖云，與汝安心竟。只此覓心了不可得一語，大須著眼，莫似鸚鵡禪，但能學語。我且問你，既了不可得，又誰為覓心者。且如現前此身，不出地水火風空識六界。身中堅相是地界，溼相是水界，煖相是火界，動相是風界，骨節毫竅及腑臟疏通處即是空界，見聞覺知分別妄想是心識界。若謂堅相能覓心者，則大地皆能覓心，溼相能覓心者，江河海水皆能覓心，煖相能覓心者，燈灶火乃至劫火，皆能覓心，動相能覓心者，大小風乃至毘嵐，亦能覓心。空界能覓心者，現前虛空亦能覓心。見聞覺知能覓心者，又喚甚麼作見聞覺知。眼如葡萄朵，耳如新卷葉，鼻如雙垂爪，舌如初偃月，身如腰鼓顙，都是色法，如何能見能聞能嗅能嘗能覺。意如暗室見，昏擾擾相，自不明了，如何能知。見聞覺知既不可得，安能覓心。如是地水火風空識六界，皆不能覓心，畢竟誰為能覓心者。若是箇有血性的男子，到者裏，分疏不下，體會不來，決要討箇分曉。拶到水窮山盡處，如銅牆鐵壁相似，老鼠入牛角，直至沒興路頭窮，向有意無意間，忽然打失娘生鼻孔，方知能覓所覓，果然了不可得，方是宗門最初一步。若謂此外別有修行，便是天魔外道。若謂此後更無修行，便當朝打三千，暮打八百，貶向阿鼻地獄。何以故，如二祖半世弘法，將大法付與三祖後，更復混跡塵寰，濫同乞士，以自調心。咄，既覓心了不可得，何故又說調心，終非二祖前後自語相違。當

知此事，大不容易。為山祖師云，此宗難得其妙，切須仔細用心。可中頓悟正因，便是出塵階漸。生生若能不退，佛階決定可期。古來宗匠，於此一大事因緣，何等慎重真切。豈似末世穢濁狂禪，纔得一知半解，便向人前妄開大口，自誑誑他，壞我祖意，貽禍無窮。當知若從了不可得處安心，則更無一物可貪，即是隨順修行施波羅蜜，更無一塵可染，即是隨順修行戒波羅蜜，更無人我是非可論，即是隨順修行忍波羅蜜，更無懈怠夾雜，即是隨順修行精進波羅蜜，更無散亂妄想，即是隨順修行禪波羅蜜，更無顛倒愚癡，即是隨順修行般若波羅蜜。者箇方是應無所住而生其心。除此心性法門外，何處有戒可持，有教可看，有禪可參。況如來所制大小律儀，皆為斷除現在未來有漏，直下安心，本是至圓至頓。如來所說一代時教，皆是破除我法二執，直下安心，亦是至圓至頓。祖師千七百則公案，皆是隨機設教，解黏去縛，斬破情關識鎖，直下安心，亦是至圓至頓。若不能斷有漏法，即不知戒意，不能破我法二執，即不知教意，不能斬破情關識鎖，即不知祖師西來意。既不知戒意教意祖意，縱三千威儀，八萬細行，性業遮業，悉皆清淨，止是人天小果有漏之因。縱三藏十二部，無不淹貫，談說五時八教權實本跡皆悉明了，止是貧人數他寶，身無半錢分。縱公案爛熟，機鋒轉語，頌古拈古，上堂普說等，一一來得祇足長慢飾非，欺誑人天，皆所謂因地不真，果招紆曲，邪人說正法，正法亦成邪。故圓覺經云，末世眾生，無令求悟，唯益多聞，增長我見，但當精勤降伏煩惱，未得令得，未證令證，此之謂也。諸仁者出生死事，大不容易。蕩益道人，二十四歲出家，真為生死大事，真不著一毫意見，真不用一點氣魄，真不為一些名利。只因藏身不密，為一二道友所偏，功用未純，流布太蚤，遂致三十年來，大為虛名所誤。直至於今，髮白面皺，生死大事，尚未了當，言之可羞，思之可痛。所以平生誓不敢稱證稱祖，犯大妄語，誓不敢攝受徒眾，登壇傳戒。邇來并誓不應叢林請，開大法席，蓋誠不肯自欺自誤故也。今玄邃吳居士，普為緇素，特請開示超生脫死法門。蕩益自實未曾超生脫死，如何可開示人。然既同在生死海中，幸於出生死法，頗知真正路頭，故不妨與諸仁者平實商量最初一步。果欲超生脫死，第一不得意見卜度，第二不得氣魄承當，第三不得雜名利心。適閩之南，適燕之北，路頭一錯，愈趨愈遠，此實言言血淚，字字痛心。祇恐愁人莫向無愁說，說與無愁總不知耳，諸仁者還知愁麼。佛言得人身者如爪上土，失人身者如大地土，一口氣不來，便向驢胎馬腹胡鑽亂撞，動經千生百劫，得出頭來，知是幾時。況末世邪師說法如恆河沙，一盲引眾盲，相牽入火坑。故永明大師云，無禪有淨土，萬修萬人去，有禪無淨土，十人九錯路。我憨翁大師又云，今

時若有禪無淨，奚止十人九錯，敢保十一箇錯在。此皆深慈大悲，真語實語。伏願諸仁者，莫墮狂野覆轍，直須痛念無常，信願念佛，求生淨土。此生不向今生度，更向何生度此身。珍重。

歙浦天馬院普說

華嚴經云，若人欲了知，三世一切佛，應觀法界性，一切惟心造。金剛經云，一切有為法，如夢幻泡影，如露亦如電，應作如是觀。當知二偈，旨趣無別，既惟心造，皆是有為，既惟有為，皆如夢幻。然有為有二，一有為有漏，即六凡法界，二有為無漏，即四聖法界，十界聖凡雖別，究竟皆惟心造，而有為有漏如夢幻，有為無漏順法性故，非夢幻也。何謂六凡皆唯心造。若一念與上品十惡相應，則法界舉體而為地獄，一念與中品十惡相應，法界舉體為畜生，一念與下品十惡相應，法界舉體為餓鬼，一念與下品十善相應，法界舉體為修羅，一念與中品十善相應，法界舉體為人道，一念與上品十善相應，法界舉體為天道。此六道者，不但三塗，及下界人天，生死往還，如幻如夢，假饒非想非非想處，不免墮落空亡，皆如夢幻也。何謂四聖皆唯心造，若能知苦斷集，慕滅修道，勤修戒定慧品，得證偏真涅槃，則法界舉體而為聲聞。能諦觀流轉還滅十二因緣，而得覺悟，則法界舉體為獨覺。能以先知覺後知，先覺覺後覺，廣修六度萬行，自利利他，則法界舉體為菩薩。菩薩復有四種，若依生滅四諦，發四弘誓願，三大阿僧祇劫，伏惑度生，即是藏教菩薩。依無生四諦發四弘，先斷正使，扶習潤生，度如幻眾，即通教菩薩。依無量四諦發四弘，不但化度六凡出分段生死，兼度三乘權聖出變易生死，即別教菩薩。若能徹悟現前一念心性，本自豎窮橫遍，眾生迷之舉體為集苦，而此心不減，諸佛悟之舉體為道滅，而此心不增，妙心雖同，迷悟懸隔，遂依無作四諦發無上菩提心，稱性修行六度萬行，自覺覺他，即是圓教菩薩。此四種菩薩所修福智，便名有為無漏。況功行圓滿，同歸無上菩提，則法界舉體而為四智菩提。無漏身土，盡未來際，利樂有情，豈可亦謂之如幻如夢乎。然四聖中，二乘雖出生死，但證偏真，不達心性全體，僅名有為無漏。諸佛菩薩，能證心性全體，故約全性起修，即名有為無漏可也。若約全修在性，即名無為無漏可也。金剛經如幻如夢者，為破凡外二乘我法二執言之。夫夢境雖空，而夢心即是覺心，幻事雖虛，而幻本亦不全虛，泡雖無實，而非無水，影雖無實，而非無質，則知六凡生死往還，雖如幻夢，而佛性亦不斷滅，但日用不知耳。菩薩了知現前一念心性，亙古亙今，本不生滅，上等諸佛，下等眾生，雖欲不上求下化，不可得也。然雖發大菩提

心，無始虛妄。無明習重，觀力輕微，恐易退轉，必須將此圓解，專念阿彌陀佛，求生極樂世界。蓋吾現前一念心性，既本豎窮橫遍，則本具無邊剎海。於我心性無邊剎海中，實有十萬億剎外之極樂世界，實有現在阿彌陀佛，先證心性，慈悲接引一切迷流。我今以此菩提心力，稱彼名號，便與阿彌陀佛如空合空，水合水。故稱名一聲，即一聲一心不亂，稱名十聲，即十聲一心不亂，乃至稱名七日，即七日一心不亂。以正稱名時，更無二心，更無可亂故也。或謂十惡五逆，臨終十念，尚得往生，何必平日矻矻稱名，此大不然。經云，十惡五逆得往生者，必過去曾種菩提種子。若無菩提種子，何能遇善友，縱遇善友勸發，亦何能頓生信願，稱念弘名邪。故凡修心淨業之士，急須薦取妙心，發菩提願，稱念阿彌陀佛。雖不斷惑，亦能帶業往生，橫超三界，乃不可思議法門。十方諸佛，以無量舌，無量音，歎此法門，猶莫能盡，應當諦信而力行之。今篁南聖河吳居士，與堅密法友，特為令先慈成淨優婆夷洪太孺人請說法要，敬為拈出。

茶話

荅卓左車茶話(原問博山啟附)

(上堂則超佛越祖，接眾則權引中下。此流俗宗匠，未悟心法者，所必墮之窠臼，致禪教律及淨土諸法，俱失綱宗，俱成實法，智者無所適從，愚人蔑棄一切，有自來也。佛言，若人專念彌陀佛，是名無上深妙禪。如今弄虛頭逞精魂漢，一味胡言亂語，定不如真實參究念佛底人。寧為上上人撥無淨土，令悟土即心，不應為中下人收作權乘，破壞真法。況法王於法自在，隨時應機，自無陳見，何必依他古宿，揚禪抑淨，伏乞豎吹毛劍，擊塗毒鼓，大轉法輪。如何是念佛門中通身入理向上一路，直踏毘盧頂上行作略。如何是學人初下手時，便離四句絕百非念佛。如何是念佛人最後極則淆訛處腦後一鎚。從來宗門語句，壁立萬仞，一涉淨土，定屬廉纖。冀和尚將向來自性彌陀惟心淨土等語，撇向一邊，親見如來境界，快說一番，震動大千世界。)

宗乘與淨土，二俱勝妙法。眾生根性異，不免隨機說。向上一著，非淨非禪，即禪即淨，才言參究，已是曲為下根。果大丈夫，自應諦信是心作佛，是心是佛。設一念與佛有隔，不名念佛三昧。若念念與佛無間，何勞更問阿誰。故參究誰字，與攝心數息等，皆非淨土極則事也。淨土極則事，無念外之佛，為念所念，無佛外之念，能念於佛。正下手時便不落四句百非，通身拶入，但見阿彌陀佛一毛孔光，即見十方無量諸佛，但生西方極樂一佛國土，即生十方諸佛淨土，此是向上一路。若捨現前彌陀，別言自性彌陀，捨西方淨

土，別言惟心淨土，此是淆訛公案。經云，三賢十聖住果報，惟佛一人居淨土。此是腦後一鎚。普賢十大願王，導歸極樂，誰敢收作權乘。憶佛念佛，不假方便，自得心開，誰謂定屬廉纖。但能深信此門，依信立願，依願起行，則念念流出無量如來。遍坐十方微塵國土，轉大法輪，照古照今，非為分外，何止震動大千世界而已。欲知納僧家事，不妨借中峰一偈，通箇消息。偈曰，

禪外不曾譚淨土，須知淨土外無禪。兩重公案都拈卻，熊耳峰開五葉蓮。

示念佛法門

念佛法門，別無奇特，只深信力行為要耳。佛云，若人但念彌陀佛，是名無上深妙禪。天台云，四種三昧，同名念佛，念佛三昧，三昧中王。雲棲云，一句阿彌陀佛，該羅八教，圓攝五宗。可惜今人，將念佛看做淺近勾當，謂愚夫愚婦工夫，所以信既不深，行亦不力，終日悠悠，淨功莫剋。設有巧設方便，欲深明此三昧者，動以參究誰字為向上。殊不知現前一念能念之心，本自離過絕非，不消作意離絕，即現一句所念之佛，亦本自超情離計，何勞說妙譚玄。祇貴信得及，守得穩，直下念去，或晝夜十萬，或五萬三萬，以決定不缺為準，畢此一生，誓無變改。若不得往生者，三世諸佛，便為誑語。一得往生，永無退轉，種種法門，咸得現前。切忌今日張三，明日李四，遇教下人又思尋章摘句，遇宗門人，又思參究問答，遇持律人又思搭衣用鉢，此則頭頭不了，帳帳不清。豈知念得阿彌陀佛熟，三藏十二部極則教理，都在裏許，千七百公案向上機關亦在裏許，三千威儀，八萬細行，三聚淨戒，亦在裏許。真能念佛，放下身心世界，即大布施。真能念佛，不復起貪瞋癡，即大持戒。真能念佛，不計是非人我，即大忍辱。真能念佛，不稍閒斷夾雜，即大精進。真能念佛，不復妄想馳逐，即大禪定。真能念佛，不為他歧所惑，即大智慧。試自簡點，若身心世界，猶未放下，貪瞋癡念，猶自現起，是非人我，猶自挂懷，閒斷夾雜，猶未除盡，妄想馳逐，猶未永滅，種種他歧，猶能惑志，便不為真念佛也。要到一心不亂境界，亦無他術，最初下手，須用數珠，記得分明，刻定課程，決定無缺，久久純熟，不念自念，然後記數亦得，不記亦得。若初心便要說好看話，要不著相，要學圓融自在，總是信不深，行不力。饒你講得十二分教，下得千七百轉語，皆是生死岸邊事，臨命終時，決用不著。珍重。

示念佛三昧

念佛三昧，名寶王三昧，三昧中王。凡偏圓權實種種三昧，無不從此三昧流出，無不還歸此三昧門。蓋至圓頓之要旨，亦三根普利之巧便也。眾生心性，一而已矣。只此一心，法爾具真如生滅二門。正隨緣而不變，名真如門，即不變而隨緣，名生滅門，依真如門說圓實教，依生滅門說偏權教，離真如無生滅，權是實家之權，故可為實施權，離生滅無真如，實是權家之實，故須開權顯實，為實施權。有藏通別教之三，開權顯實，統惟圓教之一。權實四教，無非念佛法門，所謂念自佛，念他佛，雙念自他佛，約四教成十二種念佛三昧。又常行等四種三昧同名念佛，一一三昧，各具十二，則四十八種。復次念他佛者，或念相好，念法門，念實相，以例念自念雙，亦可各三，廣歷四三昧，四教則一百四十四種，一一種，復有無量境觀差別，非言可宣。而持名一法，出佛說阿彌陀經，仍在前來種種三昧之外。觀經云，汝若不能念彼佛者，應稱無量壽佛名字是也。此持名法門，雖似曲為中下，仍復最頓最圓。蓋所持之心，無論解與不解，當體無非一境三諦。能持之心，無論達與不達，當體無非一心三觀。請嘗言之。六字彌陀，為因名故名，為因心故名，為亦名亦心故名，為非名非心故名。若因名故名，名應自持，何待心持，又名能自持，與心何預。若因心故名，是心本有名，則不持時，名何不現。若亦名亦心故名，名能有名，何待於心。心能有名，何待於名。又此名字，誰半屬名，誰半屬心，且不持時，名中半名雖無，心中半名應在。離既各無，合云何有。若非名非心故名，既非名非心，何能更有彌陀名字。如此推名，名字性空，緣生幻有。一名字性，即一切名字性，名字即法界。中道實相，舉一全收，無一法在名字外，所念境諦既爾。能念觀智，例此可知。復次束此境三，總名妙假，舉正報該依報，舉化主該徒眾，舉假名該實法，一句名號，三千歷然故。復次束此觀三，總名為空，以覓心無朕故。復次名若是心，復何為名。名若非心，心何持名。心若是名，復何為心。心若非名，名何預心。於其中間，無是非是，豈非即中。虎谿云，境為妙假觀為空，境觀雙亡即是中，亡照何嘗有先後，一心圓絕了無蹤。此之謂也。悟此理而持名，則一稱一念。頓圓無上菩提，縱未悟而捻珠記數，矻矻窮年，未嘗不暗合道妙。全在妙境妙觀之中，久久熏習，性德漸顯。如染香人，身有香氣，不假方便，自得心開。此蓮宗諸祖，所以極力弘揚也。誰有智者，捨此別求歧徑哉。

除夕答問

維那問，臘月三十日，請師直拈向上一著。荅，本具現成，不從人得。西堂問，本具現成，因甚欲證而不能即證。荅，何勞欲證。良久曰，欲證者稀。乃曰，文殊起佛見法見，世尊貶向二鐵圍山。高峰云，今日有起佛見法見，便應合掌讚歎。何以故，時節若到，其理自彰。世尊貶文殊，為誠心外求佛法者。高峰讚二見，為勸甘棄佛法者。惟達心外別無佛法，方可熾然求於佛法。古人不著佛法僧求，如是而求，豈似今人，才說求佛求法，便昧性具之宗，才說無佛無法，便欲全廢修證。偏邪之見，何預圓宗。眾居士問，大慧荅中庸首三句為三身，有過無過。荅，宗眼圓通，隨拈皆得，灼然無過。然是大慧之中庸，非子思之中庸也。進問，何故清涼國師謂，妄欲和融儒釋者，應墮無間。荅，儒是世間法，執同則謗出世法，所以犯墮。今稟華嚴事事無礙之宗，如遍行外道，同證解脫，又稟法華開顯之旨，治世語言，皆順正法，故無過也。惺谷禪師云，為門外人說同句不同，彼必反生疑謗，為入門人說異句，不異，彼必狃於舊習，為升堂人說雙亦句，令知差別源委，為入室人說雙非句，麤言細語，同歸第一義諦。儒釋但假立名字，有何同異可論哉。進問，且如喜怒哀樂之未發謂之中，與一念未生為同為別。荅，若熾然喜怒哀樂時，仍是未發之中，可謂一念不生全體現。若離現前一念，別求一念未生前，謂是向上，全墮滅相法塵。當知念即無念，故云未生，喜怒哀樂即無喜怒哀樂，故云未發。怎麼會得，方許說同，其或不然，四句俱謬。又問，菩提流支是大乘法師，何於達磨興毒。荅，南嶽思大師亦受七毒，此皆二義。約實則權位大士，不達圓乘，如增上慢四眾，打常不輕是也。約權則正顯南嶽達磨之妙，如調達真善知識是也。西堂問，既云教外別傳，何復云楞伽四卷可以印心。荅，教外別傳，即教內真傳，如因指見月，指非是月，不謂所指非月也。離經一字，即同魔說，不以經卷印心，何名傳佛心印。又吾宗乘妙處，奪情不奪法，執著文字，須云不立，若執不立，妙藥反成大病，卻是依文解義，三世祖冤，所以仍須以教印心也。凡看宗語，須具超方眼目。且如神秀偈，五祖教人禮拜持誦，依此修行，可作佛祖，六祖書偈，以鞋抹之云，亦未見性。人皆謂與奪互換，又詭護六祖。不知此時，佛法尚盛，人情尚淳，彼追逐者，皆英傑為法而然，絕非爭虛名虛位，何必如兵不厭詐之局，貽羞法門哉。當知秀偈，雖涉漸修，千穩百當，祖偈，雖甚圓頓，毫釐有差，天地懸隔，得則直超，失則永墜。五祖賞則真賞，罰則真罰，非詭態也。且必密付信衣，遣令他去者，正欲與六祖共扶圓門漸修之慧命，不忍使現在未來眾生，誤墮坑塹，乃為密護神秀，故致六祖備受逋逃驅逐之苦。使一時表彰，分以半座，何得有此。豈五祖亦曾受金幣故，法嗣不厭眾心，六祖亦以薦

書得法故，雖受源流，而心虛膽怯，不能登座揮塵哉。若能於語錄看出文外之旨，亦能於千經萬論看出文外之旨，便不是依文解義，亦復不離經論一字。如或不然，三藏十二部，千七百公案，皆標月指。認祖指為月，與認佛指為月，何以異哉。

為大冶

禪教律三，總非心外有法，是故分執之固謬也，合求之亦謬也。分執門諍滋生，合求泛濫無統，皆由不知痛為生死，直趨菩提，所以圖名不圖實，圖枝末不圖根本耳。夫禪教律，皆名也，真能自覺覺他，乃其實也。機鋒轉語，偈頌拈提，禪之枝末也。透脫識情，禪根本也。消文衍義，章句名相，教之枝末也。觀心入證，教根本也。著衣持鉢，錫杖芒鞋，律之枝末也。斷有漏法，律根本也。苟依禪透脫識情，何患不觀心入證，斷有漏法乎。苟依教觀心入證，何患不斷有漏法，透脫識情乎。苟依律斷有漏法，何患不透脫識情，觀心入證乎。不惟分無可分，亦且合無可合。分無可分，故古來大聖大賢，無不貫通三學者，合無可合，故古來真實知識，無不各專一門者。六祖南嶽等，未嘗為人授戒說經也。窺基長水等，未嘗為人捧喝授戒也。道宣懷素等，未嘗為人上堂講經也。降自近代尊宿，亦有古風可仰，如壽昌禪師，深知教律之意，終不授戒說經。雪浪法師，深知禪律之意，終不提拈授戒。大會示權二律主，亦知禪教之意，終不譚宗說教。至紫柏大師，學淹三藏，果證無生，道高德厚，杲日麗天，乃一生絕不上堂，不講經傳戒，祇令人真參實究，深入經藏，誓持根本五戒而已。其視法門中事，何等尊重。豈似後人，茫無所知，肆無忌憚，敢於輒自上堂講演傳戒，如賤丈夫之登壘斷，幾何不以如來正法，為戲劇之具也。嗚呼痛哉，江右大冶賢者，苦求一言，發明三學根源。予謂學人出門一步，先須痛絕眼前虛名小利，百年活計，必當置身千古聖賢之列，誓就現前一念，識取三學真正血脈，仍向紅爐烈燄中千錘百鍊，勿為躍冶之金，然後晦跡韜光，向古廟香爐安身立命，畢志不起一念浮動心，直俟絕後再甦。譬如冷灰豆爆，無秋毫意必固我，方可作陶凡鑄聖大冶矣。大眾珍重。

辛卯除夕茶話

諸方茶話，多說向上事。朽旭不然，與諸友說家常受用耳。佛制比丘，行六和敬，所以僧伽，名和合眾。身和同住，口和無諍，意和同悅，戒和同修，見和同解，利和同均，遵此六和，乃名僧寶，其

要只一慈心也。佛告比丘，汝等應當身業行慈，口業行慈，意業行慈，當知慈能關閉諸惡趣門，普生無量眾善。慈心之人，瞋者見之歡喜，怖者見之安隱，憂者見之開釋，苦者見之悅樂，乃至鳥獸見之不生毒害恐怖之心。試觀魔亦現佛相好光明殊特，而令見者恍惚不安，以無慈心也。佛亦現明王相，忿怒威猛，而令見者拔罪生善，以有慈力也。朽旭生平，不曾為一人薙頭，亦不曾為一人改名，凡同住者，十方彼此，法道為親，情無適莫。但願諸友，各修慈心三昧，不可隨俗徇污，亦勿矯強立異，恪遵佛戒，痛革妄情，除得一分習氣，是一分修行，融得一分偏私，是一分學問。朽旭德薄緣淺，誓不圖熱鬧門庭，世諦流布，須各為大事，念報深恩，互相砥礪，力挽頹風，庶不辜同住一番。最後臘月三十日到來，保有真實受用，不至如落湯螃蟹也。珍重。

靈峰蕩益大師宗論卷第四之一

靈峰蕩益大師宗論卷第四之二

說

作法說

破戒雖惡，覆藏尤惡。無過雖善，改過尤善。改過一塗，三世諸佛，證菩提之通津也。故五悔法門，凡夫迄等覺，無不藉為進趣方便。憂悔吝者存乎介，震無咎者存乎悔。禍福無門，唯人自召。世人正造罪時，實是大惡。不以為恥，向人發露，善中之善。反以為羞，甘於惡而苦於善，遂成惡中之惡，永無出期。顛倒愚癡，莫此為甚。眾中懺悔，能使不犯者倍加警策，已犯者深生慚愧。或亦發心懺悔，學好者增長善根，譏笑者亦植遠因，兼可消我夙罪，誠我未來。如來立法，決定不錯，違佛語者，非佛弟子。矧造已能悔，即是猛勇丈夫，可敬可畏。勇改一念，成佛正因，非具真信心深善根，不能將此法門流通人世。凡能此者，皆當與勇施比丘同垂不朽。合掌而說偈曰，

罪性本無生，何須復覆藏。覆藏罪成有，不覆罪乃空。嗟彼無慚人，藉口觀實相。作法尚不能，豈達無生理。若實了無生，罪相即實相。罪既即實相，故無可覆藏。如因病求藥，乃獲得仙丹。輕身而飛舉，勝無病凡庸。不捨作法懺，而入無生理。後後固具前，前前亦通後。慎終能如始，深達諸緣起。不欺於三寶，及護法天龍。將此真切心，自度復化他。回向安樂邦，是名大乘道。

妙安說

三界無安，猶如火宅。惟深入火光三昧者，能轉煩惱業報之火為智慧火，於中遊戲出沒自在無礙，乃名妙安。夫煩惱火與智慧火，體一而異名者也，非煩惱滅而智慧生。以無智慧時，煩惱決不滅故。亦非智慧生而煩惱滅，以有智慧時，煩惱已先謝故。如暗時無明，明時無暗，暗不障明，明不破暗。二法從不相到，以明暗無體，同以虛空為其體故，如是智慧煩惱無體，同以心性為其體故。如火大緣於糞境，臭氣逼人，緣於栴檀，馨香遠徹。心性亦爾，緣利為三塗，緣名為修羅，緣五常十善為欲界人天，緣四禪四空為色無色界，緣無漏偏真為聲聞緣覺，緣六度萬行自利利他為菩薩，緣於實相則名為佛。夫心雖隨緣具成十界，其性仍非十界，猶火隨緣具有香臭，其性仍非香臭也。夫十界法外，別無自心，而一一界心，還出十界，猶香臭草木外，別無火體，而一一草木火種，還燒一切諸草木也。法華三乘人天，龍女闍提，無不授記作佛，以一切草木之火，同一火性故也。能知一火一切火，一切火一火者，不於煩惱火外，別求智慧火，不于業火外，別求神通三昧火，不于苦報火外，別求法性真火，併世間聰明而置諸佛法，是謂即煩惱火成智慧火。用推人之手扶人，毀人之口讚人，怨憾人之心愛人慈人，是謂即業火成解脫火。知此根身器界，一一唯心，不作彼此人我種種情見，則鑊湯爐炭劍樹刀山，皆納僧家樂意三昧，何況人閒小小逆境惡緣，寧非磨礱性真之具。是謂即苦火成法身火，是謂火光三昧。偈曰，

迷時妙法成生死，悟後三千性寂然。寂然元不落空亡，生死何嘗有實體。為實施權說迷悟，開權顯實迷悟絕。迷情絕處悟無棲，權實二名亦無寄。非權非實法之本，心佛眾生性匪殊。依此建立權實門，及以本跡不思議。譬如蓮華不異時，四微亦復無差別。而說華因蓮為果，果又生因不可盡。若人識得心蓮華，長在三界非界攝。便能恆轉如是經，百千萬億無數卷。序正流通及勸發，一彈指頃功圓滿。

謙光說

易曰，謙，德之柄也。謙尊而光，卑而不可踰，此與當仁不讓於師之旨無殊。經云，心佛眾生三無差別。眾生與佛平等，不應輕於一切，故示以謙。佛與自心平等，不應諂能於佛，故策以不讓。不讓故無卑劣慢，謙故無增上慢，及我慢邪慢，此謙之實義也。欲契此實義，應諦觀現前一念心之自性。適言其有，覓不可得，適言其無，應用無盡。以為在內，周遍六虛，以為在外，覺滿身際。以為即身，夢不俱寐，死不俱滅。以為離身，除卻四大六根，畢竟便無

形相。是知凡夫終日在妄之心性，即離過絕非之心性，不俟成佛而後離過絕非也。夫我心性本自離過絕非，何得讓能於佛，一切眾生心性亦罔不離過絕非，何得稍生忽慢。由不讓故，上合十方諸佛，與佛如來同一慈力，由不輕故，下合十方眾生，與諸眾生同一悲仰。是謂尊而光，卑而不可踰，君子之終也。

孝聞說

世出世法，皆以孝順為宗。梵網經云，孝順父母師僧三寶，孝名為戒。蓋父母生我色身，師僧生我法身，三寶生我慧命，是故咸須孝順。而欲修孝順者，尤須念念與戒相應。如曾子云，無故而殺一蟲蟻，非孝也。無故而折一草木，非孝也。世孝尚爾，況出世大孝乎。以要言之，真能孝順父母師僧三寶，決不敢犯戒造惡。經言孝名為戒者，正欲人以戒為孝故也。夫世間孝，以朝夕色養為最小，以不辱身不玷親為中，以喻親，於道為大。出世孝亦如是，勤心供養三寶，興崇佛事，小孝也。脫離生死，不令佛子身久在三界淪溺，中孝也。發無上菩提心，觀一切眾生無始以來皆我父母，必欲度之令成佛道，此大孝也。舜，盡世間大孝之道，玄德升聞於堯而為天子。今出家兒，盡出世大孝之道，玄德聞於法界，必成無上菩提明矣。

洗心說

夫心性本自離過絕非，靈明清淨，祇由無始無明，迷理為咎，妄有三惑。譬如浮雲，翳彼太虛，然浮雲決不從太虛外來，以虛空性無外故。則無明三惑，亦豈從心性外來，而心性豈有外哉。心性無外，何有能洗所洗，當知既約全體成迷，假說能翳所翳。亦約全迷歸悟，假說能洗所洗。全體成迷，猶全水成冰，冰即翳水而不令流動也。全迷歸悟，猶全冰成水，水即融冰而不令質礙也。於一心中，既妄成三惑，了彼三惑，即成妙三止矣。體真止者，了知十界無非一心，能融界內界外見思之惑。方便隨緣止者，了知一心具足十界，能融界內界外塵沙之惑。息二邊分別止者，了知一心十界十界一心不可思議，能融根本無明之惑。由能融惑也，三止皆有止息義焉。由能了知也，三止皆有停止義焉。由惑與理無二體，能融所融，能知所知，無二致也，三止皆有不止止義焉。三止各具三義，則是九義。九義祇是三止，三止祇是一心。一心本無能洗所洗，而能洗所洗宛然不濫。易傳曰，聖人以此洗心退藏於密，義極於此。大經曰，三德若縱，亦不名妙，三德若橫，亦不名妙，三德不縱不

橫，名祕密藏，乃名為妙。契此妙密，功在於智。發此妙智，不離於心。心智既發，則三惑融泮，如湯消冰，假名為洗。請更以佛頂證之。經云，指皆是物，無是見者。此明妙心離一切相，體真止也。又云，微細發明，無非見者。此明妙心即一切法，方便隨緣止也。又云，此見及緣，元是菩提妙淨明體，云何於中有是非是。此明妙心離即離非，是即非即，息二邊分別止也。即此一章，宛具三止。即彼三止，各含三義。若向此處真實體會，不泥語言文字，亦不悖語言文字，從見色聞聲處分疏得下，從語言文字中照剖得來，方知一代時教，千七百公案，說來說去，無不是者箇道理，千變萬化，總是一條線索。一條線索，具足千變萬化，便可坐微塵裡，轉大法輪。剖一塵，出大千經卷，以大千經卷，收入一塵。亦不見有大千相，亦不見有一塵相，亦能使大千一塵，各各宛然，不相妨礙，不相映奪，是謂至顯至露，至微至密。是謂非顯非密，亦顯亦密。是謂無可洗而洗，是謂若欲淨土，當淨其心。隨其心淨，則佛土淨矣。

慈濟說

佛道曠濟，以孝為宗。孝該萬行，以慈為要。慈心三昧之力，毒藥可為甘露，刀杖化為天華，誠救劫濁之良藥，解冤業之神咒也。嗚呼，四大同體，覺性無差，何彼何我，孰怨孰親。由迷強故，橫計是非，由執重故，妄成憎愛。愛則相生不斷，憎則相害不息，順則憎復成愛，逆則愛復成憎。憎愛遞來，怨親互作，別業同造，劫感刀兵。設不修行大慈，何以濟茲大難。誠能設七境以繫心，施三樂而調意，乃至上怨緣中，與以上樂，心生喜悅，無復嫉惱。以此定向刀山，刀山必折，以此定向火湯，火湯必滅。故知普門究竟無畏神力，不離吾人現前一念慈心也。設滿閻浮人，盡修此慈心三昧，娑婆不即轉為淨土者，三世諸佛即為誑語。縱大地造殺，一人獨修此，一人未嘗不獨得清泰也。唯智者能深信之。

念佛三昧說

全城章絜之述乃翁宇衡生平實行，臨終念佛坐逝，及其先慈武碩人，得秉歸戒，正念善終因緣，乞予一言，莊嚴淨土。淨名經云，若欲淨土，當淨其心。二先尊心既淨矣，土安得不淨乎。且居士孝思不匱，深向法門，心又淨矣，土安得不加淨乎。是何俟予言，而予始可以言也。妙宗鈔云，五濁輕則同居土淨，體空巧方便土淨，圓三觀實報土淨，究竟證寂光土淨。夫淨土之道，若大路然，固不

難知，淨土之理，若大海然，豈一蹴盡乎。令先人五濁習輕，同居之淨，蓋可必也。至於淨方便實報寂光，善繼善述，全賴君之孝思。居士但諦審諦觀此一念孝思，在內邪，在外在中間邪，過去邪，現在未來邪，青黃赤白邪，長短方圓邪，自生邪，他生共生無因生邪，有邪，無邪，亦有亦無，非有非無邪。如是觀已，於心無所取，於法無所著。了知孝思，當體即空即假即中，即空故見思淨，即假故塵沙淨，即中故無明淨，三惑淨故，三土亦淨。自心三土淨，故父母三土隨淨，以無心外之父母故。如觀一念孝思，任運能淨三惑，觀一切善念，一切惡念，一切無記念，亦復如是，是名覺意三昧，亦名念佛三昧。以知自心即空，得見化身佛，知自心即假，得見報身佛，知自心即中，得見法身佛。如觀自心，能見三佛，則念三佛，亦即顯發自心三德。故曰，觀身實相，觀佛亦然，觀佛實相，觀身亦然。生佛不二，父子一體，能度所度，俱不思議。慎毋曰，但向父母未生前薦取也，饒你說箇父母未生，早已有無邊生死，而只向現前一念覷破，何嘗是父母生的。故曰，十世古今，始終不離於當念，了卻目前，更無剩法。深思之。

孕蓮說(亦名求生淨土訣)

癸未冬，予弘法華於普德，李石蘭居士，忘其齒爵，最先皈依，時有求子凡情，予名曰淨育。越三年，則轉其求子之心，塑佛像朝夕戀慕，一意求生淨土矣。予語之曰，世間生育，膿血雜亂，安得稱淨，唯蓮華化生，乃真淨育，居士當別號孕蓮，予更請以要訣券焉。古人謂愛不重不生娑婆，念不一不生極樂，居士既不求子，則愛已輕，又能塑佛，則念已一。乃更有要訣者，蓋莫切於是心作佛，是心是佛二語也。夫梅檀不過世間木耳，燒則成灰，雕則成像，豈非隨心所作乎。既成像矣，朝夕禮拜瞻對，朝夕在心目中，心外無佛，豈非即心而是乎。若知所雕佛像，的的心作心是，則知極樂彌陀，亦的的心作心是也。若知極樂彌陀，心作心是，則知十方三世一切諸佛，亦的的心作心是也。若知一切諸佛心作心是，則知一切淨土，亦的的心作心是也。以唯心淨因，育唯心淨果，無生而生，生即無生。操此券而猶墮疑城，斷不可得，悟此訣而猶謂淨土法門，不至圓頓，尤不可得矣。

陳子法名真朗法號自昭說

詩曰，既明且哲，以保其身。夫身非七尺肉團之謂也。聖人以天下為一身，以萬古為一息，故必天地位，萬物育，而後謂之保身。大

學明明德於天下，論語一日克己復禮天下歸仁，皆此理也。王陽明超漢宋諸儒，直接孔顏心學，一生示人，唯有致良知三字。良知者，性德靈明之體，大學之所謂明德，論語之所謂已，詩之所謂身也。致者，稱性圓照之功，大學之所謂明，論語之所謂克，詩之所謂保也。苟不悟良知，則何所用其致，苟不用致之之功，則良知何由全體顯現得大受用。故吾命汝名曰真朗，即直指汝良知本體，欲汝全性起修也，又命號曰自昭，欲汝念念致其良知，不向外求，全修在性也。果能顧名思義，何難憲章姚江，祖述洙泗，又何難遠溯熙河，朝宗於香水大海也哉。

法器說

盈天地間，皆器也。天為覆器，地為載器，日月為照明之器，虛空為容受之器。夫誰為不器者，其唯形而上者乎。然形而上者，使離於天地，日月虛空萬物，不幾為兔角龜毛哉。縱天地日月虛空萬物外，果別有一法，名之曰道。其誰見聞之。設可見聞，又一器而已矣。何名不器，吾是以知形而上者謂器即不器。器即不器，乃可稱法器耳。子以四教，文行忠信。文行忠信，古之學者以之為道，今之學者以之為器。顏子博文約禮，而欲從末由，則何器非道。由求赤各得其偏，而富強禮樂，則何道非器。惟吾佛門亦然，三藏十二部，佛之以文教也，四等六度，佛之以行教也，至誠心深心，回向發願心，佛之以忠信教也。文為般若德，行為解脫德，忠信為法身德。般若有三，謂文字觀照實相，亦三德也。解脫有三，謂性淨圓淨方便淨，亦三德也。法身有三，謂自性受用變化，亦三德也。三三不為多，一三不為少，不縱橫，不並別，隨拈一法，諸法頓彰，何器而非道，何道而不具足一切器。先儒謂物物一太極，太極本無極，庶幾近之。蓋以太極為太極，則太極亦一器矣。知太極之本無極，而物物無非太極，則物物無非道矣。以此持戒，名無上戒，以此念佛，名無上禪，以此閱教，名甚深般若，以此禮拜持誦作諸善事，名普賢行門，將此隨類度生，名遊戲神通。若未悟此，而勤修行門，祇名有漏有為。若離諸行門，而別求向上一著，祇名龜毛兔角，亦名捉影捕虛。故不曰不器，而曰法器。夫器以法稱，不逃空於器外，不局有於器中，非有非空，超諸戲論。真儒邪，真佛邪，吾不得而區局之矣。

聖學說

佛祖聖賢之學無他，求盡其心而已。盡其心者，不於心外別立一法，不於心內欠缺一法。是故為子臣弟友，止孝忠順信，充惻隱辭讓羞惡是非之心，而仁義禮智不可勝用，造次顛沛必於是，可以久處約，長處樂，皆由了達心外無法故也。六祖云，法法皆通，法法皆備，而無一法可得，名最上乘。今人甫欲通備一切法，必捨自心而求諸外，甫說法皆無實，必固守癡頑，而不知藉境鍊心，無怪乎不墮枝離之學，便落暗證之坑也。夫不知萬法唯心，泛求諸事事物物，安得不罔，不知心具萬法，獨取一昭昭靈靈，安得不殆。嗟嗟，昭昭靈靈，尚不可取，況昏昏墨墨哉。真志佛祖聖賢者，素位而行不願乎外，凡富貴貧賤，種種境緣，皆大爐鞴，一切時中，動心忍性，增益不能，然後富貴不淫，貧賤不移，威武不屈，如松柏亭亭獨秀於霜雪間，而天地之心賴此見矣。吾悲儒釋真風，今日盡皆埽地，良由學儒者急富貴，學佛者在利名，元無佛祖聖賢襟期，故學問操履行門，皆適助其虛妄。如良田然，種未植，莠未芸，而灌以糞膩，益增蕪蕪而已。學者但向心田中保護菩提嘉苗，芟刈名利莠草，隨時灌溉，勿助勿忘，守到白露秋分，自見秀而且實。至於旱則車水，潦則開渠，雖神農復興，亦不能使歲時無旱潦也。以此方便，自養善根，令成熟度脫，便堪以四悉檀益物，令其番番種熟脫，盡未來際，無所不度。而吃緊關要，只在今日最初一步。蓋南其轅則步步近楚，北其轅則愈趨愈遠，縱能久後覺悟改轍，不唯所傷既多，亦枉卻多少功夫，豈不可惜。此苦口良藥，勿但作文字看過，道理解過，直滴滴入口，從咽喉灌入臟腑，三百六十骨節，八萬四千毛竅，皆為藥味所透，庶幾也已。

文最說

天下不治，由人心不明。人心不明，由聖學不講。聖學不講，由功利不忘。功利不忘，由自待菲薄。君子莫貴厚自期待也。誠念念自厚，則大行不加，窮居不損，有何功利不忘。功利既忘，凡接對師友，誦讀詩書，專為身心性命，有何聖學不講。聖學既講，行一不義，殺一不辜，而得天下不為，有何人心不明。人心既明，正己而物正，有何天下不平治也哉。今之文學，吾惑焉，不求於自心，不合於聖學，惟趨時襲取科甲為志。苟遂厥志，則恣其人欲之私而莫知返。無怪乎世道人心大壞，而不可救也。雖然，非文之咎，文不知其最者之咎也。出世之文，迦文為最，治世之文，文宣為最。迦文捨身求得半偈，文宣遇難曰，文王既沒，文不在茲乎。此皆於文而知其最者也。文之最者，始於大聖大賢，極於諸佛菩薩。誠以聖

賢佛菩薩自厚，舉凡道德文章功名富貴，皆非五霸假之，皆非義襲而取。吾所以勗文最者無他，惟以文最厚自期待而已。

藏野說

易曰，聖人以此洗心，退藏於密，吉凶與民同患。又曰，同人於野，亨。蓋不藏不足以致用，而不於野，不能為大同。乾之初九曰，潛龍勿用。潛即藏也。藏者，道之體也。歷見惕躍飛而不改其本體，故曰不變塞焉。知進退存亡而不失其正也。世但謂乾為陽物，坤為陰物而已。孰知一陰一陽之謂道，即形而下是形而上，其君之也，即所以藏之。其藏之也，即所以君之，元非偏屬者乎。故又曰，乾坤其易之蘊邪。蘊即藏也。藏乾坤於易，易外無乾坤，藏易於乾坤，乾坤外亦無易，又以易與坤而藏於乾，乾外無坤與易也，以乾與易而藏於坤，坤外無易與乾也。斯之謂物物一太極，太極本無極也。

恥菴說

恥者心耳。心之精神是謂聖，聖人不過有恥而已。富貴，庸人所嗜也，豪傑恥之。功名，豪傑所矜也，聖人恥之。恥至聖賢，大行不加，窮居不損，能以道援天下。禹稷顏子，易地皆然，此世閒之行已有恥也。出世之道，何莫不然。人天五欲，色無色定，凡外所嗜，三乘賢聖恥之。偏真涅槃，二乘所尚，諸大菩薩恥之。出假神通，菩薩所宗，圓頓行人恥之。故世出世最有恥者，莫尚圓頓行人矣。名字以未登五品為恥，觀行以未淨六根為恥，相似以未證法性為恥，分真以未滿本體為恥，所以立躋妙覺，而不見其功也。恥之於人大矣，信哉。

柴立說

一切名號，無不性空。性空之義，則不可盡，不可盡空，即是第一義空。故一一號體即法界，不當以世出世事局取之也。然惟超越世閒出世閒，則能遍入世閒出世閒。世閒柴者，孔子所謂柴也愚也。世閒立者，孔子所謂立於禮也。子羔足不履影，啟蟄不殺，方長不折，避難而行，不徑不竇，乃能見恩於被刖之人，非所謂其愚不可及乎。出世柴者，釋迦為降苦行外道，示現雪山苦行六年，其骨柴現，而不顛仆，故名柴立。夫苦行雖非正道，然借此降伏外人，則自立立他，皆在此矣。今居士欲為世閒聖賢，當學子羔，欲為出世

佛祖，當學釋迦。苟能學此世出世間之道，則能超越世出世間獲二殊勝。你有拄杖子，與你拄杖子，你無拄杖子，奪卻拄杖子，縱橫殺活，無不自在，喚作柴立亦得，不喚作柴立亦得，三千性相，百界千如，盡向柴立二字中炳然齊現。柴立為法界，一切法趣柴立，是趣不過，柴立尚不可得，何況更有趣與非趣。迷此柴立法界，則無始流轉生死，悟此柴立法界，則速證安樂妙常。故知六凡法界，原在居士身中自取輪迴，四聖法界，亦在居士身中放光動地。居士會麼，堂堂獨露無他物，莫認摩尼作水晶。

茶毘說

人之受生，識壽煖三而已。識，業所牽也。壽煖，識所變之相也。依出入息名之為壽，即風大，煖即火大。識外無壽煖，業外無識，妄想外無業。業為受生之因，識壽煖三為受生之果，因果總不外於妄想。妄想無性，則因果亦並無性明矣。眾生於無性因果法中，慣起妄想，種種計著，謂有實我實法，枉受輪迴。大覺愍之，為設方便，生則教以觀我法空，令永斷苦因，死則教作茶毘佛事，令速脫冥滯。蓋火葬者，所以裨二空觀慧也。凡夫執情重，見理不分明，語以茶毘，則詫為不情。楚石大師，示寂於洪武三年，時禁火葬，師欲遵佛制，太祖特為開例。噫，聖賢明達若此，復何疑哉。宜之老居士，捨所卜兆宅，入棲霞常住，發願必遵火葬，非深觀我法二空者不能也。

持名念佛歷九品淨四土說

若欲速脫輪迴之苦，莫如持名念佛，求生極樂世界。若欲決定得生極樂世界，又莫如以信為前導，願為後鞭，信得決，願得切，雖散心念佛，亦必往生。信不真，願不猛，雖一心不亂，亦不得生。云何為信，一者信阿彌陀佛願力，二者信釋迦文佛教語，三者信六方諸佛讚歎。夫世間正人君子，便無妄語，況彌陀釋迦六方諸佛，豈有妄語，此而不信，真不可救。故須先生深信，勿起疑惑。云何為願，一切時中，厭惡娑婆生死之苦，欣慕淨土菩提之樂，隨有所作，若善若惡，善則迴向求生，惡則懺願求生，更無二志，是名為願。信願既具，則念佛方為正行，改惡修善皆為助行。隨功力之淺深，以分九品四土，纖毫不濫。只須自己簡察，不必旁問他人。謂深信切願念佛，而念佛時心多散亂者，即是下品下生。深信切願念佛，而念佛時散亂漸少者，即是下品中生。深信切願念佛，而念佛時便不散亂者，即是下品上生。念到事一心不亂，不起貪瞋癡者，

即是中三品生。念到事一心不亂，任運先斷見思塵沙，亦能伏斷無明者，即是上三品生。故信願持名念佛，能歷九品，的確不謬也。又信願持名，消伏業障，帶惑往生者，即是凡聖同居淨土。信願持名見思斷盡而往生者，即是方便有餘淨土。信願持名豁破一分無明而往生者，即是實報莊嚴淨土。信願持名持到究竟之處，無明斷盡而往生者，即是常寂光淨土。故持名能淨四土，亦的確不謬也。問曰，如何持名能斷無明。答曰，所持之佛名，無論悟與不悟，無非一境三諦，能持之念心，無論達與不達，無非一心三觀。只為眾生妄想執著，情見分別，所以不契圓常。殊不知能持者，即是始覺，所持者即是本覺，今直下持去，持外無佛，佛外無持，能所不二，則始覺合乎本覺，名究竟覺矣。問曰，既始覺合本，則當下即常寂光，如何亦說往生。答曰，若達當下即常寂光，又何妨說箇往生。蓋往即非往，非往而往，生即無生，無生而生。文殊善財之生西方者，此也。咄哉男子，無措思惟。

文

戒姪文

人知殺生之業最慘，不知邪姪業尤慘也。人知殺生之報最酷，不知邪姪報尤酷也。蓋種種受生，肇端姪欲，種種造罪，托因有生，姪為生本，生為罪本。是故三塗劇苦，人世餘殃，姪意才萌，一切俱起。姪習難斷，如火燎原。於極臭處，謬為香美，於極穢處，謬為潔淨，隨處苟合，何異畜生，非道染觸，過於雞犬。此在稍有良心者，便應痛絕。柰何聰明學識之士，甘此喪心無恥邪。一念欲心，是鐵床銅柱因，一念愛心，是積寒堅冰因。況具行非法，滅理亂常，塵沙劫數，不足盡其辜，千萬億言，不足數其惡。須發大慚懼，大誓願，寧火炙刀剗，終不與一切男女欲心相觸，寧碎身粉骨，終不與一切男女汙穢交邁。設忘正念，更犯前非，必遭毒害橫災，生身陷入地獄。以茲猛決，善自要心，時時懺除往業，切切悔過自新，庶白法可修，而又勤觀經論格言，以策廢忘，精修對治觀行，以除毒本。不然，縱有多智禪定現前，必落魔道，永無出期，矧世智辯聰，曾非大器，隨業直墜，百劫千生，受諸燒煮，尚不成魔，安能成佛，尚失人道，安能往生。請於靜時，仔細思之，於對境努力防之。不然，諸佛無下手處，善友其柰爾何哉。

勸戒殺文

自佛法東流，人知殺生為首戒，垂為勸誡，充楹積棟矣。而猶多未悟者，冤業虛妄結集，不能頓解也。經云，除奢摩他，及佛出世，不可除滅。嗚呼，懵懵斯世，將何抵極，殺業既厚，劫成刀兵，寇賊紛然，干戈不息，釋迦往矣，彌勒未生。設欲拯救，惟力修奢摩他耳。奢摩他此翻妙止，止一切惡，從止殺始，若能止殺，即是止一切惡。又止有三義，一體真止，觀此身惟四大合成，毫無實我可得，我既無實，何得殺彼生以養之。彼我皆無實，即是同體，何忍殺之。二方便隨緣止，觀一切靈蠢無始以來，恆與我互作父母妻子親緣眷屬，隨業改形，所以不識，若殺害之，是殺我過去六親也，安得不種種方便而救護之。三息二邊分別止，若但觀生空，悲心不熾，但觀緣屬，慈心未周。今直觀蠢動含靈，皆有佛性，皆得作佛，無論大小升降，本覺平等，終無有二，豬牙中現化佛，蛤蜊中現大士，毒蛇聞偈而轉身證果，鸚鵡念佛而焚得舍利，當知蜎飛蠕動，鱗甲羽毛，或是過去諸佛，或現在如來，或未來世尊，那有可殺之理。能修此三止，即成三慈，三慈既成，名佛出世。一人修之，轉化多人，多人修之，轉化無盡，傳傳廣化，普遍十方，庶最慘殺業可停，刀兵劫濁可救也。修元性沙彌，幼持齋戒，癸酉忽萌一食肉想，夢至陰府，備見殺生者受報楚毒，歷歷分明，乃革心自矢，蓋以深知過患，方敢孜孜勸人。予為申其說而獎助之，普願仁人君子，體天地好生之德，推聖賢惻隱之心，必使殺機永斷，天下歸仁。而又念娑婆之苦空，企樂邦之常淨，一念十念，咸彰三觀妙修，自戒戒他，悉合三慈妙行，止觀不二，福慧俱崇，虛妄結業，如湯消雪。則釋迦含笑於寂光，彌勒授手於兜率，無量壽在其頂門，觀世音為其勝友矣。

惠應寺放生社普勸戒殺念佛文

夫物雖至微，未有不貪生惡死者。此貪生惡死之心，全是煩惱，亦全是靈知靈覺所發現也。吾人貪生惡死，情與物同，苟充此情，所欲與共，所惡勿施，安得不是靈知靈覺。苟昧此情，但知我生可貪，不知他亦貪生，我死可惡，不知他亦惡死，安得不是煩惱。是故若欲放生，先須戒殺，欲拔生死煩惱，必須深心念佛。深心者，自救救他之心；佛者，靈知靈覺之極致。深心念佛者，以自救救他之心，契於靈知靈覺之極致，令若自若他，念念解脫者也。以此為正行，以不殺大悲放生大慈助嚴之，必生極樂，蓮華化現，永脫輪迴之苦。所以修曇禪友，公路居士等，盡心竭力，普皆勸請也。有緣遇此佛圖，便請專精受持，展轉勸人，功德尤為不可思議。當知

生佛同體，佛者無上眾生，眾生者即未來諸佛，一念一切念，一切念一念可也。

靈峰蕩益大師宗論卷第四之二

靈峰蕩益大師宗論卷第四之三

偶錄一

梵室偶談(共五十五條)

只貴子見地，不貴子行履，謂有見地，必有行履，有行履，未必有見地也。今負狂解，而蕩德喪檢，痛哉。

因戒生定，定生而戒愈完，因定發慧，慧發而戒定愈勝，故名三無漏學也。今甫習定，戒先蕪矣，甫學慧，定先汨矣。以後後廢前前，猶豎梁掘圯基址，覆椽截去梁柱也。欲優游寢處其下，得乎。夫惟得其神者，能遺其跡，亦惟失其要者，必染其病。故今之持律者十人九陡，演教者十人九流，弘宗者十人九妄，得神遺跡，百無一矣。

戒定慧三學，佛法大綱，出苦要徑也。今也見律師陡遂廢戒，見法師流遂棄教，見宗師妄遂置禪，何因噎廢飯，甘守餓而死也。

有戒無定慧，有定無戒慧，有慧無戒定，非真戒定慧也。有戒無定慧，墮欲天，有戒定無慧，墮色無色天，有定無戒慧，墮土木金石，或空散銷沉，有定慧無戒，墮邪魔神鬼，有慧無戒定，不免三惡道苦。或曰，若是則古人取乘急戒緩何居。荅曰，緩之云，非無也。且豪傑之士，與其急乘緩戒，墮惡道而方昇，何如乘戒俱急，常近佛而無退。又因戒生定，因定發慧，急戒即急乘之階梯，若藉經教為名利本，托話頭為優免牌，戒不唯緩而且廢，乘雖名急而實緩，甚非古人料揀之心也。

予居徑山，始受一食法。有禪者曰，定共戒，道共戒是務。茲在所緩矣，予不屑荅也。嗚呼，隴侗瞞肝，病通斯世，解文識義，能復幾人。若在所緩，應云定奪戒，道奪戒。共之一字云何通。

古之受戒者，修心之基也。今受戒者，我慢幟也。古之習教者，學道之戶也。今習教者，破戒由也。古之參禪者，增上之要行也。今參禪者，捨戒別名，謗教塗轍也。革弊防非，在豪傑士矣。

因地不真，果招紆曲，何謂也。方受戒，志為律師矣，方聽經，志為法師矣，方參禪，志為宗師矣。不為律師法師宗師，無所用其受戒聽教參禪也。猶應院不為嚬施無用經懺，俗儒不為作宦，無用舉業，娼優隸卒不為利，無用眩色俳演，承迎趨走也。雖然，以世法

圖利，事雖卑無大過也，讀書規富貴，得罪宣尼矣，佛法博虛名，玷污正教矣。

古者透最後關之謂宗匠，博通三藏之謂法師，塵業不侵之謂持律。今也稍解羶淺機緣，則以宗自鳴，略知流通教典，則以教自負，但護根本四重，則以戒自滿。根器狹劣如此，誰與荷擔正法。

予寓龍居，有老僧看寶積經云，若先看此經，和尚做不成。予曰，若不看此經，和尚做不成。謂不成和尚法故，謂無所取於為和尚故。噫，可為知者道，難與俗人言也。

予甫受菩薩戒，發心看律藏。闍黎古師試曰，汝已受大，何更習小。對曰，重樓四級，上級既造，下級可廢邪。師曰，身既到上層，豈緣下級。對曰，雖昇他化，佛元不離寂場。

一花拈於三藏既說之後，達磨來自佛法盛行之時。龍畫就，一點睛則飛去也。今龍影尚無，睛何處點。

邇來宗教大失，在為正法之心不切，為門庭之見熾然。詎知為正法，門庭不期高而自莫及，為門庭，正法以爭抗而愈玷污也。

古者大宗匠之埽教為義學，認指為月，不見真月也。彼已具通教理，但不能親證親到，故奪其依解，俾入真通。今之學者，尚未夢見教理，何所用埽，不幾謗法之罪乎。

如來應世，教隨機設，故大小兩乘，並行不悖。其小乘者，出家受具，先以學戒為基，次讀誦坐禪，隨修一法，不必兼行。其大乘者，亦必以戒為基，次讀誦坐禪，雖隨根各分主助，而要兼修，決無一往禪思不通了義，一往持說不事觀心者。不通了義，味禪之犯必成，不事觀心，說食之譏何濟。迨夫末法三學，分張尸羅，僅成人天之福，而持犯未達，猶未保其人天，禪思每墮無聞之謫，而戒慧兩荒，多見淪於惡取，持說每為名利之媒，而戒定俱廢，罕不落於空談。噫，安得豪傑士，一振其頹者乎。身為床座，所深願焉。末法衰敗，良以邪正不分。丁斯時者，未暇較深淺，急須甄邪正。如以深淺，則如來三昧，迦葉不知，迦葉三昧，阿難不知，乃至六群比丘，猶勝馬鳴龍樹。正法尚爾，末法可求全責備乎。如以邪正，則頻伽在轂，已勝餘鳥。砒毒少許，便能傷命，安得不辨於幾微乎。故其人正，淺亦可依，其人邪，深愈當斥。正人雖淺，必害少而利多，邪人雖深，必害多而利少。欲辨邪正之致，未有出於教理二種定量者也。

宗者無言之教，教者有言之宗，至言也。三藏十二部，默契之皆宗也，既無言矣，安得謂之教。千七百公案，舉揚之皆教也，既有言矣，安得謂之宗。故不以說證分宗教，第以門庭施設者，啗糟漢也。

數見教病則思禪，數見禪病則思教。然有當互救者，亦有可各自救者，良以病在當人，非法門咎也。何謂各自救，實義虎，決不以畫餅充饑，真禪人，決不墮惡取空見。三藏十二部，無一法不勸修行，今之不修行者，皆叛教人，非學教人也。西來大意，直指人心，見性成佛，今之不務見性成佛，而妄逞邪解者，皆謗禪人，非參禪人也。既云見性，安得撥教律於性外，既成覺者，安得置教律於不覺。即或未能，且以一句話頭作見性成佛方便，權置萬行門頭。必須信得及，守得定，是非莫管，身世俱忘，憤同殺父，急似燒眉，寒暑饑渴，尚無暇知，律檢教門，又何暇謗。直以一門深入，未及兼修，亦以一鏡既懸，能含多影。故舉起話頭，萬緣俱捨，即檀，十惡俱息，即戒，境風不動，即忍。綿密不斷，即進，更無異緣，即禪。真疑歷歷，窮義路之淵源，詣離絕之境界，尋伺無棲，能所雙絕，即慧。若不能捨緣息惡，不動綿密，更無異緣，真疑歷歷者，當知不名真提話頭也。既不真提，獨以之為優免牌，且為邪見本，豈法門咎哉。故知教禪，法無優劣，特因地不真，利名奪志，不免作獅子身蟲耳。果求其本，則禪亦無病，何求救於教，教亦無病，何求救於禪。又學人因地雖或不真，若遇正師，自能中養不中，才養不才。唯師匠白眼未明，自事未了，盲引深坑，雖正因之士，猶被其荼毒，況適相叩者哉。吾故曰，法門之壞，撐法門者壞之也。

唯真宗匠，可呵教家空言，唯真義虎，可斥宗乘儻侗，否則自救不暇，何堅固門諍為哉。

今人患不在提話頭，患不知所以提耳，患不在廢萬緣，患廢不盡耳，亦不患教人提話頭，患不知所以教耳。且萬緣既廢，身心世界何以依然不廢。廢惡不廢善，猶在人天，廢善不廢惡，報必三惡，捨人天而趣三惡，謂之有智可乎。又身心世界，既不能全體放下，則真實話頭，必不能直下承當。以悠悠泛泛心，而提儻侗話頭，自誑也，於悠悠泛泛人，而儻侗教提一話頭，誑人也。以誑人之師，誑自誑之弟子，法門抑何罪乎。故雲棲曰，人以為佛法復興，吾以為宗風大壞也。

唯三種人可參話頭。一者，夙具靈根，著手便判，身心世界，全體放下，金剛寶劍，當下提起，直待大事了畢，然後或見知識，或觀契經，印證自心，接引後學。二者，雖道路未甚明白，能依真實具眼宗匠，死心參究，到歧塗處，自能為我指點，到根節處，自能為我解關，到轉關處，自能為我拶入。三者，既未深明道路，又無真師，必洞徹教理，方死心參究，雖不能通三藏眾典，楞嚴一部，不可不精熟也，譬如獨自遠行，若不預問路程，斷斷必有錯誤。除此三種，其餘悠悠泛泛之徒，欲參禪悟道，敢保十個，錯有五雙。

憨大師，以話頭喻敲門瓦子，至言也。識得本無實法，方能用法，而不被法縛。或有病其說破，令不生切心，則金剛筏喻，圓覺標指，亦有過邪。且惟說破，知瓦非寶，亟在敲門，若不說破，必忘敲門，終日玩瓦。救病神丹，而人顧病之，得無愚且狂乎。

歸元性無二，方便有多門，然則參禪念佛止觀，皆方便也。既謂之門，安得同，若知全性起修，全修在性，則三皆一致，安得異。故真修止貴就路還家，說同說異，增益戲論。

憨大師方便語，曲為末世開助道門，契理契機，善之又善者也。或非之曰，正道不得力，更修助道，教門則可，宗乘斷不可。噫，若論向上一著，話頭亦用不著。既許話頭，已屬方便，安得獨廢助道。必不許持咒為助，先不許提持話頭，以話頭為宗而許，是謗宗，以持咒等為教而不許，是輕教。輕教謗宗，何止得罪憨師，三世佛冤耳。

今之知識，每於利者令參禪，鈍者教念佛，是參禪唯被上機，念佛唯為中下也。夫禪不曲被中下則謗禪，念佛不被上機則謗教。禪教俱謗，扇以成風，遂令禪作虛名，念無實行，可悲也。詎知參禪念佛及修教觀，各有夙根。一一根性，各分三品。禪門第一品人，觸著便了，更無餘事，夙具靈根，如時雨化。第二品人，直下不疑，深藏密養，直待瓜熟蒂落，大用現前，龍天推出，任運利生。第三品人，具大疑憤，如殺父怨，判盡平生，究明此事。念佛第一品人，頓悟自心是佛，念念圓明，第二品人，深信自心作佛，念念入理，第三品人，深信佛力無量，念念滅惡。此復四種，謂念佛自性，念佛相好功德，念佛名號，念佛形像。此四各通三品也。教觀第一品人，創聞圓理，頓發初心，成正覺於剎那，示八相於百界。第二品人，信一境三諦，淨生身六根，伏住地無明，摧見思塵垢。第三品人，發圓覺於聞經，修五品之觀行，習三觀以成熏，伏五住而趣覺。由此言之，法無優劣，應病則是藥皆靈，機有淺深，執方則因藥成病。

身病知憂，家不給知憂，年不熟知憂，方隅不靖知憂。獨大事未了則不憂，佛法將漸則不憂，眾生業重則不憂。或雖憂而不知所以憂，或復倍增其可憂。噫，憂寧有已時也。

宗乘所以超勝者，具諸功德而無所住故也。若以不具為不住，何異家無斛米兩金，而曰超勝千金之子。

古者相宗易，性宗難，故玄奘捨性習相，演教易，證宗難，故神光立雪斷臂。今也不然，以宗自鳴者，教茫然也，以教自負者，相宗紊然也。嗚呼，難其所易，而易其所甚難，不能舉一羽而能舉百鈞，不能見輿薪而能察秋毫。五尺童子，不為所欺矣。

予遊歷諸山，備覽人情物態，顛倒最多，卒難悉舉。且如飲食衣服，塵勞也，惟恐不勤，持誦禮拜，勝業也，惟恐不惰，三聚淨戒，出世正因也，深厭煩瑣，百年活計，生死根本也，常虞缺略。為佛法慢幢高起，求貨利體面頓忘，乃至同一語也，謂出某經論，則棄如怨敵，謂出某語錄，則愛如珍寶。世緣中事，與道無妨，律檢教門，有違向上。嘻，吾不知其所趣矣。

何謂教，何謂宗。語言施設之謂教，忘情默契之謂宗。故宗也者，雖云教外別傳，實即教內真傳也。如以指指月，認指為月，不可也，謂所指非月，亦不可也。且諸佛言教，皆指，諸祖語錄寧獨非指。不認佛指作月，何獨認祖指也。又祖所指是月，佛所指寧非月。信祖之所指，何獨不信佛所指也。甚矣，人之顛倒也。

發大心猶易，具正見更難，具正見猶易，勤修習更難，勤修習猶易，除心病更難。然心病不除，安事修習，修習不勤，安取正見，正見不具，豈真大心。則直謂之發大心難。

利關不破，得失驚之，名關不破，毀譽動之。既為得失毀譽所轉，猶以禪道佛法鳴乎。

不見己短，愚也，見而護，愚之愚也。不見人長，惡也，見而掩，惡之惡也。

或問予，汝何願，願生西方。更何願，願入地獄。曰，是何心哉。曰，西方則上事諸佛，地獄則下度眾生。佛從彌陀始，願王勝故，生從地獄始，悲心切故。

有禪者問予，作何功夫。曰，念佛。曰，念佛何為。曰，求生西方。禪者嗤曰，何不薦取自性彌陀，唯心淨土，用是妄念妄求為。予曰，汝謂阿彌陀佛在性外，極樂國土在心外邪，心性亦太局隘矣。即汝所謂不念不求者，非惡取空邪。

善知識者，猶良醫乎。良醫能兼療諸病，亦有專治一病者。兼療則應病與藥，專治非其病不醫，故皆能壽夭而生死也。若伎倆唯一，欲眾疾普收，其傷害多矣，況一伎未精哉。

語云，真人前說不得假。今也假人前說不得真。悲夫。

語云，三日賣不得一擔真，一日賣得三擔假。吾曰，寧使千日賣不得一擔真，不願一日賣得千擔假。

人謂參禪則悟道，不必求生西方，念佛則生西，未必即能悟道，不知悟後，尚不可不生西方，況未必悟邪。又禪者欲生西方，不必改為念佛，但具信願，則參禪即淨土行也。又念佛至一心不亂，能所兩忘，即得無生法忍，豈非悟道。故參禪念佛，俱能悟道，俱能生西也。但有疑則參，無疑則念，在人下手時自酌耳。

古人自牧愈卑，品愈高，今人自視愈高，品愈卑。古人自處愈小，道愈大，今人自視愈大，道愈小。古人自考愈歉，德愈完，今人自

恃愈完，德愈歉。是謂不揣其本，而齊其末。

小人以己之過為人之過，每怨天而尤人。君子以人之過為己之過，每反躬而責己。夫不謂人過謂己過，有四觀焉。眼見惡色，耳聞惡聲等，皆自業所感，非關他事故。惡境紛紛，皆唯識所現，虛幻不實故。眾生煩惱無量，應度應斷，已分事故。眾生修惡，即是性惡，眾生性惡，即己性惡故。

法性本常住，云何分正像。正像之分，全在人耳。嗚呼，時丁末季，去聖時遙。為利者十之九，為名者十之一，為己生死發二乘心者百千中一，為大地眾生發無上心者，萬萬中一。此止就禪和料簡耳，應院及俗人，又不必言矣。佛法將安恃邪。

生西方以三種心，至誠心，深心，迴向發願心，此三直至成佛。流俗人亦三種心，輕心，忽心，將就心，此三常遊五趣。嗚呼，前三百千中或一有，後三百千中或一無，奚怪口言求生者多，真實往生者少也。

末法中病，有三不可救，喜守不喜攻，喜略不喜廣，喜同不喜異。交友有三大惡，喜順不喜逆，喜口是而心非，喜不如不喜勝。學問有三大錯，好多不好精，逐末不求本，求解不求證。

古人疏經論，必為發幽微，示指歸，出綱要，明修法。故隨依一典，可了生死，上弘下化。後世畏其繁而廢棄焉，雖似善變通，實大傷教眼，如五霸尊周，周益受削。嗚呼，攀枝忘幹，罪元不在先賢，因噎廢飯，訓豈可遺後裔。扶教者曷深思之。

予見學士堂與務下互輕也，學士曰，彼不知教，不知理，貿貿然勤作而已，非我等，叢林無光輝，縉紳莫酬對矣。務下曰，我竭力而作，彼袖手而食，戒德不守，學業不成，安用是浪蕩子為哉。予傷之，私念曰，彼學士，胡不念務下之勞，實我外護，我無實行，坐享難消，即一切作普賢想。彼務下，胡不念我等障重，無聞熏種，彼等聰利，皆由夙因，即一切作導師想，叢林不幾盛乎。復見禪堂與藏堂相輕也，禪輕藏曰，彼鑽故紙，圖嚙施耳，使進而坐香，安可得，亦安可能哉。藏輕禪曰，彼坐食而身不勞，守癡而心不用，叩以了義，茫無所知，警其昏沉，瞋心震發，悟道無人，著魔接踵，何如看經種般若因，作務得人天福邪。予倍傷之，復代念曰，我堂大事未了，滴水難消，彼應和有外護功，閱藏為思修本。設我念念親切，法行亦無超于信行，儻悠悠自縱，禪誦反高出于坐禪。而藏堂人，胡不念明理不修行，說食終不飽，發心欲坐禪，勝十方論師，況謝絕萬緣，併除昏散，專心向上，窮究本參。我等散心，豈能彷彿，則法門不亦光乎。唯貢高各蘊於懷，忌剋每形於吻，致令是非蜂起，體段兩傷，皆獅子身蟲矣。

凡智利宜慧行，力強宜定行。亦各有二種，慧行二者，一單從慧入，明極則誠，不煩修定而自得定，此夙因深厚，習氣微薄故也。二能發聞解，不能即證，必依解起行，行起解絕，若不猛做一番，不能親證親到，故須定力濟之也。定行二者，一單刀直入，便能徹法源底，此亦夙因深厚正見力強故也。二但能死守，不能權變，每墮空見，或耽味禪，求脫反縛，求升反墜，必慧行濟之，方免墮坑落塹也。復有智力並備定慧雙圓者，如佛在世時，聞法得道，及六祖等是也。若夫借宗教資牙後慧，托話頭為優免牌，慧行定行，兩無所當，皆獅子身中蟲矣。

雲棲大師發揮念佛法門曰，有事一心不亂，理一心不亂。說者謂持名號是事一心，參誰字是理一心，亦何訛也。夫事一心者，歷歷分明，不昏不散是也，理一心者，默契無生，洞明自性是也。是參時話頭純熟，猶屬事門，念時心佛兩忘，即歸理域，安得事獨指念，理獨指參也。又參誰字，謂之究理則可，謂理一心不可。然非其人，即究理亦未可輕易。何以故，事有挾理之功，理無隻立之能，幸審思之。

甚矣二見之為害也，煩惱菩提，生死涅槃，同依於一心，而判然為二。宗乘教乘，同傳於一佛，而判然為二，法性法相，同秉於一音，而判然為二，慧解行門，同詮於一教，而判然為二。二見紛然，正見滅矣。

坐禪名一，實則有六，謂圓頓禪，次第禪，利慧禪，鈍修禪，世俗禪，假名禪也。圓頓禪者，創聞正法眼藏，涅槃妙心，不可思議，微妙理性，而發其心。此復四，一者，乍聞即悟，頓證自心，不落階級，具足智德，二者，以未頓證，便大疑憤，罣塞虛空，當下依正兩忘，凡聖坐斷，昏散無棲泊處，智理無湊合處，儼如有氣死人，直待冷灰豆爆。三者，未能直下成片，實信得及，疑得定，雖被無始業力所纏，種種昏散障緣，不退初心，或一向單提，或道品助成，畢生不起名利心，不起餘乘心，約機即鈍，約根亦名圓頓種子。四者，先於教典留心，討明理性，隨起觀行，名為乾慧，次得相似理水，名入信心，次乃發心，名入正位，即與頓悟同一智德。須知頓悟，本多生熏習，故初心不可不於至教厚植種子也。次第禪者，先以空慧修一切智，觀一切法無不皆空，次以假慧修道種智，觀一切法從空建立，後以中慧修一切種智，觀一切法非空非假，即第一義心。利慧禪者，達一切法如幻如夢，當體全空，非空故空。鈍修禪復四，一者，為得神足行菩薩道，修根本四禪，依之發通，二者，深觀十二因緣，坐斷無明，三者深觀四諦，剎那斷惑證真，四者，雖深知苦諦，必九次第定，漸次斷惑證真。世俗禪復二，一者，凡夫以欣厭心，修上八定，二者外道計彼涅槃，修習彼定。假

名禪復三，一者，雖聞圓頓名言，慕名不會義，強提一話頭，尚未解盡話頭義路，況義路窮處，是人以一句話，作優免牌，盡廢他善，死在繫驢橛上，雖稍卻昏散，且未得世俗禪定，安望圓頓。雖無大害，卻失聞熏無量功德。二者，於諸祖機緣，深求道理，廢寢忘餐，或得一義路入處，輒認為有所醒發，便作得本不愁末想，是人雖不撥萬行，常躲身無事甲裏，且以解行分作兩橛，是名謗真般若。三者，但好虛名，以機緣資牙慧，胡說亂說，自害害人，或挂虛名，言參話頭，偷安藏拙，昏散不除，憎愛恆熾，空消檀施，敗壞法門。已上六種中，共成十有五等，若再料簡，差降更多。嗟哉末季，徒取其名，莫稽其實，柰何宗教不埒地也。

古謂虛舟飄瓦，則不生瞋，今亦生瞋矣，鵲噪鴉鳴則不分別，今亦分別矣，逆順境緣，安望其脫然邪。

法門有七壞相，六興相。何謂七壞相，一懼命天，知命孤，以家貧故，令出家，二避難無聊，激氣求安樂故，自出家，三求清高故自出家，四以好名故受戒，五好名故聽經，六藏拙故參禪，七好名故參禪。七種雖高低不等，優劣判然，同為因地不真，壞法門一也。何謂六興相，一為生死故出家，二為大菩提故出家，三為修行基本故受戒，四為修行門路故聽經，五為了生死故參禪，六為得種智故參禪。六種雖大小不等，偏圓有殊，同為因地真正，能興正法一也。噫，凡吾同類，尚自考之。儻因地真，幸善自保持，俾終正而不入於邪。或因地未真，則痛自改悔，速反真而無溺於偽，庶幾自救，亦救法門耳。

正人觀邪法，邪法亦成正，邪人觀正法，正法亦成邪。深人觀淺法，淺法亦成深，淺人觀深法，深法亦成淺。圓人觀偏法，偏法亦成圓，偏人觀圓法，圓法亦成偏。道人觀俗法，俗法亦成道，俗人觀道法，道法亦成俗。嗚呼，今之正成邪，深成淺，圓成偏，道成俗，往往矣。試各自簡點，苟知其病，必知其藥，深望之。

有名同而實異者，如佛言道，謂三種菩提。老言道，謂虛無自然，儒言道，謂五常五倫，未可同語也。有名異實同者，如台宗謂之一心三觀，賢首謂之一真法界，相宗謂之勝義唯識，禪宗謂之向上一著，未始少異也。譬一帝都曰北京，曰燕都，曰順天府，有盛譚北京，鄙燕都為陋劣，或譚燕都，鄙順天為陋劣，吾知其必被嗤也。彼性相分河，南北豎黨，何以異此。

松江李居士，寓天封寺，猛欲出家。予問汝欲出家，曾看經否，未也。看語錄否，稍看。何以看語錄不看經，曰，經則煩細，語錄爽快可觀。予曰，爽快可觀，無如水滸傳，三國志矣。

偶書二則

諸佛修稱性之善，故能化身千百億，自在度眾生。眾生造稱性之惡，故能一一身遍滿八萬四千大地獄，一日一夜具受八萬生死之苦。然則佛境界不可思議，眾生境界亦不可思議，祇由現前一念，本自不可思議耳，有智者宜安從邪。

四凶居堯舜之世，而不能自安其生，孔孟丁春秋戰國之亂，而不足以改其樂，故知得失全由自心，外境何與焉。今人不治心而問境，無乃惑乎。

閱陽明全集畢偶書二則

君子小人，良知之體，未始不同也。一蔽於私而不能致，遂嫉功忌能，誣忠陷良，無所不至。吁，可哀矣。唯君子昭曠如太虛空，絕不與較是非，辯得失，故小人卒無所騁其毒，而陷溺未深者，猶可化為君子。一與之抗，則其去小人不能以寸，而玉與石角，玉必先敝矣。通此佛氏二無我觀，妙旨泠然。孰謂世閒大儒，非出世白茅哉。或病陽明有時闕佛，疑其未忘門庭，蓋未論其世，未設身處其地耳。嗚呼，繼陽明起諸大儒，無不醉心佛乘，夫非鍊酥為酒之功也哉。

學無論儒釋，其貴真賤偽一也。學果真，雖一時受讒被抑，精光終不可掩，學苟偽，雖一時欺世盜名，醜態終亦必露。故曰斯民也，三代所以直道而行。夫直道即良知本體而已，致此本體，可建天地，質鬼神，俟百世，況斯世之民哉。顧斯世之民信之，而權姦獨誣陷之，俗儒獨排斥之。彼權姦俗儒獨無良知邪，特有以蔽之弗能致之耳。嗚呼，均此本體，但弗致則與瑾彬同惡，能致則與陽明同善，讀聖賢書者，宜何如慎其獨也。今世佛門，陷足於偽者亦多矣。吾為此懼，欲閑之而未能。閱此書，不覺感憤流淚云。

偶書二則

唯識以遍破我法二執為宗趣，故借立法為遣情之門。般若以會一切法無非妙理為宗趣，故借破執為立理之門。然則唯識宜名破相，般若宜名立法，而相傳反稱唯識為相宗，般若為空宗者，謬也。

鳥窠禪師為侍者吹布毛，止是初入信門方便，世多認為極則事，其為白香山拈諸惡莫作眾善奉行二語，正是徹骨徹髓，原始要終法門，世多認為淺近事。無怪乎解行分張，不達實相正印。

山客問答病起偶書

靈峰有五美四惡。何謂五美，一者泉甘且多，二者黜陟不聞，三者暑不酷，四者寒燒柴火，五者蚊少。何謂四惡，一者病時醫藥難，二者貧時借貸難，三者大風能飄瓦，四者地瘠多砂，所生穀菜味皆劣。客曰，敢問四惡亦可屏乎。山曰，可。客曰，請聞厥方。山曰，節口腹，慎寒暑，則少病，斯屏醫藥矣。少欲知足，則不貧，斯屏借貸矣。緊覆茅，泥治壁，糊窗閉戶，斯屏風矣。依佛教戒，於美惡食勿妄分別，趣療形枯，斯屏劣味矣。客拜曰，善哉受教，請畢世依君住。

解

致知格物解(約佛法為唐宜之說)

知者，明德之本體，乃中道第一義諦妙心，非空非假而實離一切相，即一切法者也。致者，一心三觀，了達此一諦而三諦也。物者，迷此知體，而幻現之身心家國天下，如水所結之冰也。格者，推究此身心家國天下，皆如幻影，並非實我實法，如以煖氣銷堅冰也。欲得水，莫若泮水，欲致知，莫若格物，冰泮水現，物格知致矣。物者，所觀之境也，格者能觀之智也，知者所顯之諦也。一心三觀名格物，一境三諦不令隱晦名致知，不可以致知為空觀，格物為假觀也(唐謬分故破之)。了知五位百法皆無實我實法為物格，轉第六識為妙觀察智為知致，轉第七識為平等性智為意誠，轉第八識為大圓鏡智為心正，轉前五識為成所作智，為身修。一身清淨故，多身清淨，乃至一世界清淨故，一切世界清淨。為家齊國治天下平，只一物格工夫到底，致知之學，始無虧欠，是謂究竟不離於初步也。

藏性解難五則

隨緣那名不變，不變那得隨緣(一難)。非不變之體，安有隨緣之用，非隨緣之用，安顯不變之體(一解)。

不變體常，隨緣用無常，還是一分無常，一分常(二難)。體不變故，妙用不變，體常用亦常，用隨緣故，舉體隨緣，用無常體亦無常。常與無常，二鳥雙遊(二解)。

正隨緣時，不變安在，悟不變後，豈更隨緣(三難)。正隨緣，隨緣即不變，別無不變所在，如二月外無真月，二月即是真月。悟不變，不變隨悟緣，了了常無迷惑，如淨眼見真月，更不見二月(三解)。

月是能隨邪，見是所隨邪(四難)。就月為喻，真月不變，一二皆隨緣。真月隨人見一見二，不變常自隨緣。見一見二，實無他月，隨緣常自不變，就見為論，見性不變，見一見二皆隨緣，見一是真見，見二是妄見。只一見體，而有真妄，不變常隨緣，真見妄見總是見，隨緣常不變(四解)。

月是能隨，即是所見，見是能見，即是所隨，名不二邪(五難)。此非不二，須知月不在天，見不在目。月在天，見在目，二物相遠，如何成見。又復月不來目，見不往天，月來目，天則無月，見往天，目則無見。然非月何見，非見何月。月若是見，復何名月，月若非見，云何見月。見若是月，復何名見，見若非月，月云何見。從此體會，方知能所不二。不二之性，即是不變。迷者謂二，悟知不二。總號隨緣，一性隨迷悟兩緣，迷悟總不改一性也(五解)。

靈峰蕩益大師宗論卷第四之三(終)

書一

(寄母)甲子正月三日，方外男智旭，敬然臂香刺舌血，白母親大人膝下。男幼蒙庭訓，少長便道學自任，寧不知父宜葬，母宜養。但生死一事，人人有之，靜夜深思，真可怖畏。如大母舅宦正濃而忽殞，虞表姪年未壯而早亡，身命無常如朝露，大限至老少莫逃，苦海茫茫，誰能免者。念及自身，已覺酸鼻，更念亡父老母，倍覺傷神。親身既然，眾生寧異。儻不早圖出世，正恐追悔無及。男憶二十一，至星家問母壽，言六十二三，必有節限。遂於佛前立深誓，唯願減我算，薄我功名，必冀母臻上壽。今既切思離俗，儻萌一待心，豈是求益母壽之念，男又安能保無中夭邪。生育一事，世間苦本，況與功名，皆有定數。且青雲得志，難敵生死，大母舅即是殷鑒。何如地藏大士，目連尊者，累劫親恩，皆蒙度脫之為孝也。男少年誦大士，賴母痛下鉗錘，今得改過從善。志在出世，恐母愛情難割，不得不硬卻心腸，潛行方便。又恐母日夜懸念，故於三寶前然香刺血，寄書遠達，伏祈勿事勞心，惟努力念佛，求出輪迴。親屬可化者，皆以此意示之。

(寄剃度雪嶺師)別忽三載，反躬無似，莫報師恩。方今像季，有三可痛哭，三可哀愍。毗尼法，三學初基，出世根本，僧寶所由得名，正法賴以住世，而罕有師承，多諸訛謬，遂令正法墜地，僧倫斷絕，一可痛也。三藏教，修行之徑，出苦之要，而依文解義，罔知觀心，廢先哲舊章，塗一時口耳，遂令禪門訶為葛藤糟粕，二痛也。宗門一著，本為上上根點鐵成金，今但作門庭施設道理商量，不墮狂罔無知，便墮雜毒知見。更有去施設埽道理者，多落闇證窠臼，盲修瞎鍊，實是險塗，無上妙法，流弊至此，三痛也。第一可哀愍者，借佛法圖名利，無實為人心。二者，但知己長，不知人長，但見人短，不見己短，株守一得，向無佛處稱尊，不能放下面皮，打破局量，從千萬人腳跟下穿過。三者，但為大以欺佛，不思三界無安，言淨土不必生，彌陀不必念，中郎判為唯心墮，圓實墮，確論也。時丁未運，非具大忍力，大願大智大巧便力，驢虞小補，何當至治。博山老師，雖見處未徹源底，實有苦功操履。不肖與互感得益，然不服其藥，大忍願智，便俟當請益也。

(上閩梨古德師)五夏以前，專精戒律。專精者，豈徒著衣持鉢而已。律中第一要務，在常一其心，念無錯亂，謂依四念處行道也。四念

處慧，佛法總關。無念處慧，著袈裟如木頭幡，禮拜如碓上下。六度萬行，皆同外道苦行，無與真修。若依念處行道，則持戒功德，現能獲四沙門果，乃至圓十地，剋獲無難。第二要務，在洞明二百五十戒開遮持犯之致，否則二六時，既掛比丘名，當結無量罪，言之駭聞，思之喪膽。此二不明，與邪戒何異。末世流弊，非有力大人，不能挽回。吾師德盛名顯，僧俗同欽。吾知諸佛所付託矣。

(荅茂林律主)經論二藏，說通五人。戒經如來自說，等覺猶非所堪，譬禮樂征伐自天子出。迦葉白椎云，是佛所制者不應卻，非佛所制者，不應制。千古不易之典也。承問逐人受戒，大難方許三人，過四便不得戒。不惟僧祇根本四分等皆有文，且得戒不得戒關係非小，敢憚繁邪。三衣止長三肘，闊五肘，過是步步結等流罪，若與佛衣等量，便結第三篇罪。今豎三橫六，致左臂疊作三重，又與迦絺那衣自不相干。功德衣五條十隔，受捨各有定時，豈可但持此衣，永當三衣。非時食戒，本無開聽，今稱七不過午，全無出處。律中八種十種開聽，調展轉食，別眾食，及不作餘食法而食，皆上午，豈非時也。時懷非想，猶結吉羅，服吐下藥，止許煮麥，不令頭破，漉汁飲之，不聞權開也。又離衣宿，結罪有文，不持鉢，結罪五部不載。又皮革氈毳，他經充類至盡之言，非為破戒，可不稱為大端。而過午之中受食，咽咽結第三篇，未便稱為小節。渡海浮囊，芥子不捨，況第三篇喻如手掌，可以為小邪。又五百問一書，與五百餘卷律藏全反，用五百問，必廢五百卷，遵五百卷，五百問不得不闕。若謂佛說，無容致議，則受生血盆高王等，不亦稱佛說邪。律學之訛，已非一日，宣公亞聖，為懷素所嫌，義淨大賢，受翻譯名義彈駁。故知如來以降，等覺猶未稱一切智也。俗不合聞比丘軌式，一出根本薩婆多部，一出戒因緣經。序根本部因緣，乃迦葉佛時外道子欲破法，假就比丘學。比丘告以俗得聞經論，毗柰耶教俗不合聞，外子權出家學習，然後破之。若俗不合聞，謂半月誦戒，則三藏具在，自可展閱，何待出家而學之。若謂出薩婆多，不出僧祇，則五百問，又豈出僧祇部也。

(荅志隆)不諱疾忌醫，誠末法優曇。既自知病，又知流俗之病，惟勇於自療，而即以療人，便是真實修行。否則知病不療，病源正在此耳。人必有超群拔俗手段，方有出離生死機括。人世愛見，稍或未忘，無上白法，如何希冀。紫柏大師云，情之所有者理必無，理之所有者情必無。古人云，識得一尺，不如行得一寸。夫閉戶看尊宿語以自警，難敵現境熟識。儻安守故轍，可坐進此道，豈五十三參之計拙，而三登九上亦唐勞邪。

(荅博山無異師伯)梵網戒本，是界外別圓二教。獨菩薩法，其界內藏通二教。出家菩薩，無別戒法，同秉比丘律儀。但發心自度即名二

乘，發心度人，斯名菩薩耳。然界內之機，不得捨本位而空希界外。界外大士，必須秉權法而遊於界中。故菩薩比丘，迴與菩薩士女不同。近世咸謂小乘所制，大乘悉開，比丘所執，菩薩悉融。皆屬流言，並非實義。

(答水林二書)既值事緣，又生厭苦，不免添一重公案。不涉本頭，加以幽憤，又是第三重公案。欲捨此刻念彌陀，四重公案。既云直往無算，又欲拂散疑雲，五重公案。公案愈多，相去益遠矣。識論云，一切唯有識，有種種相轉，彼依識所變。若識所變，不應自識逼苦自識。經云，阿彌陀佛，是法界身。則事緣非彌陀身中事邪。即此彌陀，即此念彌陀，胡彌陀身中抱一捨一。捨決不可捨，抱決不可抱，向不可捨抱處會取，則皎日當空，疑霧消散矣。(其一)

全身放下，蕩蕩空空，似則固似，是則未是。離生喜樂，初禪之全身放下也。定生喜樂，二禪之全身放下也。捨念清淨，四禪之全身放下也。不恆行心心所滅，無想外道之全身放下也。恆行心心所滅，滅盡定聖人之全身放下也。視那伽大定，尚不啻螢火日光，足下希心，當在何境。儻亦幸而妄想亂思遮障，使不墮坑落塹。如果驀直去，恐諸佛亦救不得矣。此事非一言可盡，能虛心意，不妨有相商分。

(寄了因)年未壯，世態惡，不可輕為去就。往往好心行腳，高者退道心，卑與俗俱化，非大智慧，大力量，罕能出類拔萃也。圓覺經云，一切眾生，身心皆是無明。欲求智慧，須親善友。然求善友於末世，亦甚難言。有少多行門者，智眼昏昧，有少多學識者，行業荒蕪。於中棄短取長，須自眼正，否則無不憤憤耳。

(與曹源三書)所謂直下承當者，須置身千古聖賢之列，不屑為隨波逐浪之人。言行相顧，心跡相符，方終始不二，幽明無間。憨翁云，學道第一要骨氣剛，次識量大，次生死心切。夫剛則不為情欲所靡，大則不被目前所轉，切則不順習氣所趨。即靈源禪師易世俗所難，而緩時流之急。此第一良藥，幸時服之，勿懼苦口，使積劫沉痾，終不療也。新師識論，獨有苦心，幸潛玩領其長處，能剿妄習，便是深妙。儻決定收功心，未若農夫望秋。雖析義如繭絲牛毛，祇麤淺耳。人不解此意，多墮數寶之誚，惟自勸。(其一)

不虞之譽，君子不喜。求全之毀，達人不辭。自反有愧，無怨於他人。自反無愆，更何嫌眾口。以此持心，不論時古時今也。(其二)人不難有志，難有忍。事不難有察，難有容。故曰，有容德乃大，有忍乃有濟。

(答曹源二書)懺悔殷勤，感佛光現，雖僅二寸，亦得戒前茅也。嗣嬰貴恙，是夙習交加，及向來口腹犯戒所致。然法華一部，悲懺二時，尚終不替，猛丈夫矣。(其一)

圓教從名字初心，便用佛知佛見修行。豪傑丈夫，具一切無明煩惱，偏向冰凌劍鋒上行，非冰凌劍鋒，不能鑄無明煩惱成菩提般若故也。天降大任，必先苦勞拂亂，令動心忍性。頑鐵不鍊不成鋼，美玉不治不精瑩，松柏不歷歲寒不挺秀，孤臣孽子不厲熏不達。豈有粥飯習氣，煖軟形態，可坐進此道者。夫小小境緣，便成事障，因平日無分毫契心恰意處耳。果達妙理，則現前極惡逆事，第一玄妙，為第一明師良友。若捨此等境界，何法可修，可悟可頓邪。兄平日學問，大率向語言文字上著眼，不向義理上體會，躬行處較勘。轉得此關捩子，方是大乘淨土因也。

(寄壁如兄)知參究無緣，便向有緣處入。歸元無二，方便多門，入手不同，到家則一，均佛祖法門，有何進退勝負可愛憎取捨，必區區搏一丈夫名邪。兄雲棲法系，曾事幽谿。雲棲教律兼修，幽谿教觀並舉。斯並津梁，寧非直指，特人心不了，願不大耳。生西方者，貴大菩提心寶。心寶若在，帶惑亦可往生，心寶若迷，參禪早已兩橛。若翻轉此關捩，真實不欺，正好真實參悟。若翻不轉，為舊習所汨，必須就教律大開慧眼，鍊就鋼骨，方始相應，請急著眼。又末世禪人病膽大，老兄病膽小。膽大肆無忌憚，直向泥犁，膽小顧後瞻前，不得自在。善惡雖殊，不能打徹一也。欲徹體清涼，將定散淨穢情見全體放下，始得。

(寄歸一兄)鳥必學飛也，而後毛羽成。舟必學操也，而後江河濟。松柏必歷歲寒也，而後貞幹堅。行人必以佛祖自期也，而後成佛祖。若以狐疑鼠竄之因，希獅行象顧之果，恐不可得。發大菩提心，使悲智調停可也。

(與瑩然)豪傑立身，決以破我法二執為準的。我執不破，定不能作千古至人。法執不破，定不能弘如來正法。才魄橫一世者，須開千古眼界，成千古學識，方不負己靈，否則僅同春草之榮，終非松柏之幹。

(寄不忘)學人第一要務，在克除習氣。誠以圓頓法淨治夙習，猛風吹沙，實無艱險。儻習染不除，則談玄說妙，有名無義。天台荊谿之道，恐不如斯。苦口良藥，同病皆堪服之，勿使如來慧命夭喪也。

(與攝三)每見多人於勝事種種障難，俗累病苦，親長眷屬，無量纏繞，阻斷良緣，空具信慕，莫遂雅懷。而得無障難者，反信慕浮淺，衣衫不整，觸手捉經，如措大對舉業相似。又復惟記名言，專喜貼句，依文解義，甘為三世佛冤，釣利沽名，永背一乘出要。不惟寶山空回，正恐袈裟難復，好因緣是惡因緣，此之謂也。如來說教，諸祖弘經，並開眾生眼目，作劫濁津梁。不向此中著眼，便是盲修瞎煉。今欲不犯末世惡習，不負往因現緣，一要信諸佛境界，吾人各具，本無差別，不生退怯。二要仰企諸佛，慚愧己靈，句句

會歸自己，不可說食數寶。三要虛心樂善，稍有長者，皆師友之。四要悲愍一切，凡堪以此意相警者，不惜苦口。五要恕人厚己，凡不如法，生哀愍心，勿見其過。近時學者，見他放逸，不與隨流，則生憍慢，皆增長生死，可懼也。

(與如是兄)兄斷欲去愛，固有辣手，調身護物，尚乏方便。望內則放開懷抱以養神，外則體察世情而惜福。此一病，未必非二利之緣也。

(寄陳旻昭二書)八月惺谷師西歸，九月壁如師辭世。一月奪二碩交，皆法門梁棟也，痛哉。每思大事因緣，非定慧莊嚴，悲智雙運，誠難一生了當。惺師慧力有餘，定力不足，壁師定慧調適，悲願未深，俱未免遺下公案。目下同袍，鮮有生死心者，況菩提心。天人減少，三惡充滿，將何底極邪。大廈將傾，一木難支，惟人定可勝天。誓當易世俗所難，緩時流之急，棄名利，絕囂喧，持以深心，要以弘願，操以恆久不變之力，庶無忝於嬰杵。願居士斷泛涉之心，省不急之務，篤志近思，深造自得，以圖共報佛恩，無以寶劍切泥，隋珠彈雀，是鄙衷所惓惓耳。(其一)

一芥翳天，一塵覆地，字經三寫，烏焉成馬。佛法之蝕，由來漸矣，非外道天魔能破。壞周室者，齊桓晉文也。治世嚴王霸之辨，操心分義利之關。視聽言動之復禮不真，克伐怨欲之不行何得。隱居求志，人定勝天。此實字字血淚。

(與韓蓮洲)韋提以逆子起淨業正因，慶喜以染緣為楞嚴弄引。惡因緣是好因緣，轉禍為福，在人著眼。儻隨遍計分別，雪上加霜，冤結有何了期，若達曠劫因果，則現在冤親，總非天降地出。以慈忍心調停解釋，以夢幻觀消遣情懷，未必非煉磨心性，透露真常之一助也。語云，跌法從他得，燈不剔不明，鐘不擊不鳴，他山之石，可以攻玉，汙泥生蓮華，神奇出臭腐。夫吾人本地風光，埋藏蘊宅，潛伏根門，無時不煞煞欲現，稍藉外緣一擊，便當迸裂騰輝，儻不肯向此際薦取，佛界便為魔界。如霜雪寒冰，松柏增妍，凡卉失色，咎在己不在境也。又仁者，雖捨比丘沙彌律儀，而大士木叉，自宜固守。仗此菩提戒光，方可禦侮消難。其說似迂，其事實邇，幸精思力行之。

(寄修雅法主)雲棲大師云，古人著述，多在晚年。良以道曠無涯，逢人不盡，上代疏論家，殫一生精神，博綜內外學問，得一二帙垂世，尚不免後賢彈駁，況一時口耳草料，欲流布人間邪。須見到養到，從居安資深流出，則輝天燭地，照古騰今，非分外耳。毗尼尤不容片言隻字有作，譬禮樂征伐自天子出，稍或僭竊，厥罪不小。傳佛心印記註，附呈清覽。此翁學識俱富，解行兩優，堪為近日作家。虛心玩味，知未易及耳。

(荅程季清)法門不衰於無外護，衰於無內守。主持法門，先盤星立正，然後隨時隨力。興隆幻事，皆屬普賢行門。稍涉世間名利心，佛法止成世法，深可悲也。

(復圓開)如來最後以扶律談常為宗，苟廢事談理，理成烏有。智者荊谿諸老，無不戒行冰霜，方堪垂範千古，豈可以毒器令貯醍醐。不肖始雖染指宗門，亦既遊心教苑，今不得不以持戒為第一急務。又見律學之訛，較禪教更多，爰為集要，以便訓蒙。捨舉世共趨之轍，遵時豪恥問之塗，知我苦心者，惟如來耳。仁者乘戒並急，當是如來所使，法運可回，喜不寐也。

(寄萬韞玉)貴地久乏聞熏，囿聞見。儻宋儒陳腐見識，一毫未淨，未可深談佛法，況坐陳腐障中，欲商真正宗教，誠難誠難。寧以百千刀刀刺其耳根，終不忍聞佛是方便說誑語人，寧百千刀刀斷其舌，終不肯言佛肯方便說誑語法，寧百千刀刀割裂心胸，終不可作佛經同寓言解。此言儻一字不從真心中出，不但死墮拔舌，現世舌當爛壞。當知宣尼大聖，若比於佛，的如小星比滿月，燭火比燎原，川瀆比大海，中尊比朝廷。若不能信此語，是謗佛人，不可謂信佛也。

(寄王簡在)古之君子，為立六合內事，尚一家非之不顧，乃至天下非之不顧，況圖出世大法，塵劫遠猷，可近囿一時耳口，曲徇流俗人情邪。居士非無志願，直欠識力。欲開千古識力，決須視歸戒如泰山，視世故如鴻毛，庶作中流砥柱，不然，未可稱豪傑也。

(寄潘戒如)財色瞋慢，清濁稍殊，同為十習因，同感六交報。若別配因果，慢屬修羅，瞋屬地獄，尤可畏。躬自厚而薄責於人，有諸己而後求諸人，無諸己而後非諸人。雪浪大師云，不可以聖賢律人，不可以率性自任。此皆居士對症良藥，幸時時服之，作蓮邦左券。

(與胡遠志)為禪林求主人者，弘護之願為一身商出處者。自知之明，竊以鮑老當場，不若舉賢相副。有季賢老師，雲棲嫡子，年德俱隆，慈願並廣，以禮敦迎，或當俞允。貧納與歸師，拈鬪洞庭，既許安居，律不容改，又已躬下事，靜動無妨，著書立言，必須靜境。納長於著述，短於應酬，儻從捨失措，則長短互乖。況律學之訛，已將千載，革非矯弊，與俗相違，僅可僻處深山，鳩真同志，作傳火計。即欲行之天下，以觸時諱，禍且不測。夫大乘弘誓，以寬成大，住持僧寶，以局表尊。既痛有名無實之弊，必守貴精不貴多之箴。設居勝剎，求戒必多，嚴擇則招怨之端，濫許則壞法之始，進退維谷，其何以堪。嗚呼，今天下稱圓稱頓稱大乘者，遍滿域中，獨聲聞一脈，不惟置諸高閣，亦且藐若草芥。抑思世尊拈花時，破顏微笑者，果誰人邪。靈源清禪師云，易世俗所難，緩時流

之急。納銘心此語久矣。愁人莫向愁人說，說與愁人愁殺人。居士具金剛眼，探法海源，當亦為斯言肯首也。

(寄金臺師)咒壇火浴緇素之口，其致非一。蓋清淨咒壇，不容女人得履，亦不宜緇素輒入，入者齋戒沐浴，方得合制。又咒心之說，起於長水，然疏中亦不敢確然自是。既經文無據，必宜遶壇行一百八遍為長。夫無上壇場，震旦僅有其二，天龍共持，諸佛共念。再造之後，幸錄此言。

(與戒明)汝今六時精進，欣慰。須知此世間第一福，第一受用，天魔鬼神所忌刻也。必折意降情，帶三分不如意境以自煉，方為法器，方可挽回定業。勉之。

(復靈隱兄)生則隱居求志，死則下下品生，是弟之定局。兄道眼明白，志力勇銳，此生必辦。但粥飯習氣，軟煖羶浮戲論習氣，思前算後習氣，一一直下斬截，方可立造聖賢閭域。此尤不肖惓惓於知我者。渠師萬望於淨土一門硬作主宰，如韓信背水陣相似，勿生一念恐不能生之心。至囑至囑。

(復錢元沖)均一法門，內外護其用各異。內護持邪正之辨，不得不嚴，外護膺金湯之任，不得不寬。一如良工之分玉石，一如投鼠之須忌器，總以弘護正法為懷，易地皆然耳。業障一事，不出因果，因果之理，統於十界。楞嚴以不生不滅為本修因，然後圓成果地修證，法華以一乘因果為宗，觀經明深信因果，不謗大乘，即上品中生。乃教家浪以因果資談柄，禪門謬謂因果非向上，事理俱迷，長夜莫曉，不惟昧佛旨，亦背儒宗。易稱積善餘慶，書稱作善百祥，豈皆為愚人說法哉。正誼不謀利，明道不計功之仁人，恰是修身俟命實學，斷不可謂立巖牆為知命也。今以勇猛善心，回往昔決定業障，如離弦之箭，通臂猿能接之。菩薩智猿亦復如是，以方便臂，接定業箭，令不墮地，亦不著身，此即真實懺悔。不但世法中所求如願，且增長正信，開發菩提。因病得仙方，非但卻疾，兼可飛昇矣。

(囑徹因比丘)吾望公甚高，勿自卑，甚遠，勿自近，甚廣，勿自狹，甚大，勿自小，甚尊，勿自褻，甚重，勿自輕，甚穩，勿自浮，甚密，勿自疏，甚微，勿自陋，甚妙，勿自羶。聖賢自期謂之高，無數塵劫謂之遠，遍周剎海謂之廣，超權越小謂之大，不染名利謂之尊，不輕去就謂之重，始終一致謂之穩，精察力行謂之密，窮理盡性謂之微，開佛知見謂之妙。嗚呼，律門衰敗，大法並危，不具前之十德，鮮克砥其頽波。勉之哉。第一須依念處行道，隨文入觀，觸事會心，心觀為主，看教為助。第二須專求己過，勿責人非。第三須作出生死學問，莫作趨時學問。第四須和光同塵，幸勿矜異。欲看教典，且完玄籤，次十不二門詳解，次律藏五百卷，并大乘律

五十卷，次止觀輔行，次阿含經等諸小乘經，然後及餘經論。或急於修證，唯律藏不可不閱，餘皆隨意。萬勿妄想出頭，惟真操實履，了當生死。不得為人改法名，剃度師與受戒教授傳法師，皆有父子之誼，改法名是蔑剃度師也，傷理背情，無道之甚。古來知識，不聞有法派之說，奈何末世以此為親。吾聞先受戒者在前坐，後受戒者在後坐。不聞先取名者為師兄，後取名者為師弟。既以法派為重，必以戒法為輕。叔伯弟姪，儼然與俗無異，可羞可恥，所宜痛戒。不得曲媚權貴，須如達大師家風，若不能，寧死不出頭。不得多收徒眾，多畜沙彌，多受依止，教訓不周，必有壞法之咎。切忌餽送白衣等事，切忌無恥喪心，到人家念經拜懺，漸成應赴。即檀越到山門作福，須示以佛法尊重，莫如近時叢林套子。亡比丘物，依律分與現前僧，切不可學估唱陋習。其餘諸事，不能枚舉，總以律為指歸，則無過矣。不聽吾言，非吾弟也。

(復胡善住)自利利他，須知彼知己，知時知勢。納每自反，世謂我持律第一，實增慚懼。無論三聚十支，八萬微細，即二百五十，未行萬一，又無論遮罪，除飲酒過午二條，餘皆未淨，即性罪七支，能免故殺，不能防誤，能不錯因果，不敢三寶物私取，而不能磚錢不買瓦如古人，執身不犯，不能夢寐清淨，不妄語兩舌，不能無惡口綺語。良由多劫乘急戒緩，習以性成，恥躬不逮。退居沙彌，更無弘戒之理也。宗乘中事，未出家已留心，苦參十載，頗辨真偽，不敢以教律為夾雜。教觀一塗，叨仗夙因，頗窺堂奧，不敢以真實而自疑畏。然此二者，皆背時宜，惟有山中苦行，代一切眾生求消夙業去障而已，非敢固也。路資本不宜領，寒威將逼，贖典冬衣，亦見因果不甚分明，戒律疏緩之一端矣。

(復卓左車)入山非石隱計，痛念大法傾頽，綿力難救，姑俟人定勝天耳。承謬舉於葉宗伯，謂宗說俱通，解行雙到，實增慚愧。以今時俱通雙到見稱，固未免[弗*見]然，儻擬古之俱通雙到，能勿蹴然哉。數年被道友所牽，虛名盛而實行微，多方作入山計，今始半遂，正欲深之又深，能為居士頓改節邪。葉公處以原束繳。

(復陳旻昭二書)大廈非一木所支，年來惟道友為命。而眾生習氣各有偏重，不能如水乳合，興言及此，血淚橫流而已。居常謂壞法門者，皆撐法門人。齊桓晉文，尊周適所以壞周，方痛懲不暇，奚忍蹈其覆轍。嗟乎，出家初志，急剋聖果，十五六年，竟成虛度，慚天愧地，夫復何言。即此十五六年行腳，打破面皮，放捨身命，僅於佛菩提，了知歸家道路。而形枯氣索，前進為難，欲傳得一人，勿令最後佛種從我而斷，亦竟未遇其人。嗚呼，痛心夢寐永泣而已。公所處頗艱，道念益固，深以為慰。每觀種種邪外，其智短，其說陋，猶簫鼓天下後世有述者，大底別有一段徹底精神持之耳，

況將此持正法乎。但自反自勵，不必他求也。船子身葬水中，夾山大弘其道，荊谿以居士身參學多載，後方出家，一世不登法座，書傳萬世，不可磨滅。宣聖木鐸，孟軻好辯，皆此類也。此意願與居士共之。未獲一第奚足憂，當勤心道業，誓續佛祖慧命為急務耳。

(其一)

大法垂秋，亂臣賊子遍天下，邇雖稍衰，而正法受其剝蝕，元氣殊覺難復，未可欲速也。納以孤孽之身，獨抱嬰杵之任，雖感傷切髓，不得不附虞仲夷逸之科，遣茲餘喘。居士竭力弘護，即大學問，大精進，貴自著眼而已。聖力智巧，雖筭筭相拄，非巧力所及，終亦不離巧力。何如，榔梅吳公，不敢浪通名字。

(復智龍)逃名萬死之後，已悔其遲。傳法一隙之天，倍見其拙，然生平受用，惟多虛不如少實一語，庶不致身謗三寶耳。退戒一事，亦以為今比丘則有餘，為古沙彌則不足，寧捨有餘企不足也。

(寄徐雨海)居士生長富貴，不知世間些小苦事，況此大苦。然雄才大略膽識高曠之人，負蓋世資，具千古學，懷聰明慢，眼空天下，世出世法，驕心浮氣，未入甚微細智法門，非此惡辣鉗錘，何由入聖賢閭域。佛祖堂奧，天降大任，必行拂亂。動心忍性四字，不妨十思百思，迺園中第一法藥也。乾之上九，亢龍有悔，而不食之碩果，轉為不遠之復。復之象辭曰，至日閉關，商旅不行，后不省方，即潛龍勿用之意。盈虛消息，通於至道，於通起塞，即塞成通，台觀所以貴善識也。日為居士持大悲咒七遍，脫難為期，萬自愛勉。

(寄靈隱兄)兄眼目志識，俱足千古，而不能千古者，欠剛骨也。挺出剛骨，以俯就幻緣，方可了辦大事。蒙許華嚴大鈔，意欲細閱一遍，求與台宗真出入處，悠悠門外之談，未足據也。聞於台宗教觀已有信入，尤願潛心討徹源底。流光如駛，衰老日侵，自反痛心，乃敢饒舌。

(復項淨性)和偈落在口頭三昧，大似初生牛犢不畏虎。居士本正信篤實，亦弄此虛頭邪。古人錯下一語，墮五百世野狐身，柰何妄談般若，作拔舌犁耕種子，萬祈戒之，勿視作等閒。夫詩偈可作也，儻侗套語不可襲也。帝鄉可遊也，歸戒之心不可忘也。紅塵堆裏學山居，風塵何能染人，人染風塵耳。

(寄徐雨海)到泉州一軒，即索居士歷年手札觀之，知苦緣中進益如此。貧納向歎台宗，居士未深入，今果然否。東中為如是師語，字字金鐸，恰與納為渠所發之願同，但不知為居士所發願，有當尊意否。夫知人者明，自知者強，自知者明，自勝者強。居士能知人矣，真自知乎。設自知，能自勝乎。台宗玄妙無暇論，大學修身正心，中庸居易俟命，請三思之。五欲八風，三教聖人同訶，一塵之

冀，徹體是穢，一毫砒霜，徹體是毒。勿以小善而不為，勿以小惡而不去，方不負再三稟受菩薩大戒也。台宗云，以前四戒為所觀境，後六觀之，事理相即。世人蔑事而欲尚深理者，驗知此觀孤虛無本，既虧事境，觀亦何從。此荊谿尊者語，幸加詳焉。

(寄徹因大德)真實比丘，寥寥無幾，不知何日五比丘如法同住，一展吾外護初心。興言至此，肝腸寸裂，所有不絕如線一脈，僅寄足下，萬萬珍重愛護，養德充學，以克荷之，勿為最後斷佛種人，使我抱憾千秋，至囑至囑。遠隔三千里，未審作何用心，苟不能念念與妙觀相應，則失聞熏琢磨之益多矣。

(寄恆如)語有之，胡越人之相仇也，當同舟共濟，風水險厄，其相救也如左右手。每念分段生死，不啻惡風巨浪。而出家諸人，所以互相忌刻，智不如胡越同舟者，無他，不曾痛念生死故耳。今既知痛念生死，豈復以世間名相為活計哉。

(與非幻)此事日親日近，日遠日疏，若無良友明師夾持，恐漸退其初心。今世如此，來世可知，靜言思之，能無懼乎。佛頂文句，須潛心玩閱，看不透也須苦看。老鼠咬棺材，定有穿日。即此是話頭，是參禪工夫，是摩訶止觀。須信得及，守得定，方有真實受用。勉之。

(復淨禪)淨土法門，本該一切宗教，普收一切群機。故從上佛祖聖賢，著述亦最富博。欲摘其精要，利益群品，須備採眾長，證以心悟，方可流傳。若此門未遵堂奧，宜事力修，無急急以著述為事也。度人要務，以智慧方便為本，有智慧則能究權實理，稱理而說，義無不周。有方便則能莊嚴文章，文如於義，觀者咸悅。今周集理致僅七八分，文章僅五六分，似宜遽養，更加錘鍊為妙。意周所熟玩者，但彌陀疏鈔，龍舒淨土等文，恐妙宗鈔一書，尚未窮研。乞勸細細尋繹，參以十疑或問，淨土指歸，寶王三昧，西方合論等書，畢竟更有大豁眼處。然後以慈悲心，觀此方此時機宜，採集一言半句，以利益之，功德更殊勝矣。

(寄王東里)此事雖直捷，亦甚委曲，雖簡夷，亦甚精細。吳公於簡夷直捷，已信得及矣。委曲精細處，須竿頭進步，此必居士陶鑄之力，方可升堂入室也。

(寄雪航法主)調護他人，正調護自己處，調伏得自己一分習氣，方調伏得他人一分習氣，視人猶己，捨己從人，血脈誠在此。朕躬有罪，無以萬方。萬方有罪，罪在朕躬。愛人不親，反其仁，治人不治，反其智，禮人不答，反其敬，三歲兒童讀得，八十老翁行不得。無怪乎受菩薩戒者多，行菩薩道者少也。

(復鄧靖起)參禪念佛，善用無非是藥，不善用，無不添病。又或執藥是病，或借病為藥，事非一概，未可片言盡也。生死事大，佛道玄

妙，縱一知半見，小小工夫，尚不濟事，況一味死在句下者乎。禪本無參，佛本無念二語，亦是醍醐，亦是毒藥。今之呼蒼天呵佛祖者，正墮無參無念坑中，若真參真念，決不作此狂態矣。

(寄程用九)日為居士持大悲七遍，五六年未嘗一日缺也。命持準提，當助百萬，但願篤信咒力，不可思議，杜絕夤緣妄想。設一念妄想未盡，是信咒不及，雖大悲準提二大菩薩，亦末如之何矣。不肖十二三，便知有聖賢道脈，今知與佛法到家雖別，入門實同，若世法稍違聖賢軌轍，則出世決不成真實佛祖。方今賄賂公行，丈夫寧終身寥落，誓勿蹈其鄙跡，庶砥狂瀾於萬一。若未免逐流，以圖一得，枉尋直尺之誚，其誰與歸，大非所望於高明也。夢天神授籤，乃大梵天王，非韋馱也。現有神策九十九首，在大灌頂神咒經中，南北藏皆恭字函，急取流通，勿以易林，苟且塞責。

(與行恕)憶自十二三時，以千古道脈為任，便囂囂自得，天子不得臣，諸侯不得友，況今廁僧寶，豈世閒宰官書帖可招致哉。何病深山，已無人世閒想，即今幻緣所牽，流浪漳泉，並不曾謁一宰官居士。若菖中不必用此世套，可容方外散人，專用佛法教化群品，則遣一確人，持足下一束來，即相赴，若不可為，毋強。

(與緒竺)三頌附覽，語言文字，標月之指，神而明之，存乎其人。際明生平傀儡，全露筆端，斷不在筆端上安身立命。看得仙人手中扇，鷓鴣子過新羅久矣。

(復王思鼓)老子為學日益，為道日損。易傳云，損德之修，益德之裕。居士精力雖減，而信心慚愧有加，即苦海津梁，不求進而無所退，豈在學問修持閒邪。凡夫無不好勝好進，不知以退為進也。迦葉願居人後，不為物先，乃成千古鼻祖。病是吾輩良藥，消盡塵寰妄想，覷破此身虛幻，深明苦空無常無我觀門，皆賴有病境耳。願寬心耐意，安忍無厭，作隨緣消舊業想。轉重令輕受想，代眾生受苦想，正不以不如人為愧也。

(與永覺禪師)法運日訛，老成凋謝，獸蹄鳥跡，交於中國，乳臭小兒，競稱宗主，拈花微旨埽地，至此，不惟可悲，亦可恥矣。惟老師耆年碩德，堅握壽昌不肯二字心印，不必頻呻哮吼，狐狂已為喪氣。茲者泉南隙地，羶風雖已時來，毒氣幸未深入，老師正應久住此方，防護外邪，養育善種，但令二三志士，得接老師法脈，將來魔黨敗後，泉南佛國，一燈可遍布天下也。不肖幻緣所牽，未能執巾瓶，猶冀法駕蚤臨，庶獲一晤慈顏，兼欲委陳生平苦心。故敢冒昧，輒助勸請。

(與周洗心)不可說破，恐塞悟門，是參究一塗別方便耳。宗門亦不妨直直說破者，況教觀，況淨土邪。淨土的旨，全在妙宗一書，縱持名不修觀，可不達四土橫豎之致乎。西方合論，亦淨土有功之

書。不肖圓通文句一則，收盡念佛三昧綱宗。但言簡義富，乃提綱挈領之學，非遍探一代時教，不足盡數千言中所包攝也。儻專辦己事，未暇利人，只晝夜彌陀十萬，且求往生。一切宗教眼目，不必作意求通，但得見彌陀，何愁不開悟。自是一論，若大悲為人，思垂言句，必令十分精瑩，庶可普利三根，不然，一法才立，一弊旋生。況末世禪教淨土種種語錄，充楹積棟，安事更以雜而未純之作，與流俗鬥富哉。法號漫作一文，其中理路頗為入道之要，當依義不依文可也。

靈峰蕩益大師宗論卷第五之一

靈峰蕩益大師宗論卷第五之二

書二

(簡韓茂貽)紫柏集點完。此老以博地凡夫，力戰煩惱魔軍，一生取辦，真踞地獅子，透網金鱗也。今觀其法語，精悍決裂，猶足令頑夫廉，懦夫立，柔情媚骨，不覺冰消瓦解。幸細細留心，必羹牆寤寐見之。

(復九華常住)向年托跡寶山，於一切精律行者，作地藏大士想，即一二不拘小節者，亦作志公濟顛等想。聖道場地，龍蛇混雜，凡聖交參，不敢以牛羊眼妄測，自招無閒重罪也。適聞山中，稍稍構難，雖大菩薩示現作略，然經云，寧破千佛戒，莫與外人知。又世典云，胡越人相為讎敵，及乘舟遇風，則相救如左右手。九華實地藏慈尊現化地，山中大眾無非地藏真實子孫，不知歷幾劫修行，到此名山福地，乃為小小一朝之忿，遂使智不若胡越同舟，非所謂一芥翳天，一塵覆地者邪。不肖智旭，少時無知，毀謗三寶，罪滿虛空，仗地藏大士，深慈厚願，拔我邪見，令廁僧流，故今日稱地藏孤臣，山中大眾，皆吾幼主。臣無輕君之念，而有諫君之職，惟是誠惶誠恐，稽首，頓首，遙向寶山，披陳忠告。惟願眾師，各各捨是非人我之心，念法門山門之體，同修無諍三昧，永播大士道風。古人云，官不容鍼，私通車馬。又云，家無小人，不成君子。縱有實非大士真正眷屬，亦須慈恕，令其漸種善根可也。

(與王季延)淨業障經，的是佛說，毫無可疑。請試言之。佛廣度一切眾生，如大醫王，亦如大仙，能起必死之證，非循行數墨者可思議也。大般涅槃，為阿闍世王懺罪，與此經同。所謂實相懺，無生懺，直枯罪源，罪流自涸。如翻大地，樹何所依。大佛頂經云，卻來觀世間，猶如夢中事，摩登伽在夢，誰能留汝形。又云，尚無不殺不盜不婬，何況更有殺盜婬事，皆是此旨。良由阿闍世王與今無垢光比丘，及過去勇施比丘，此三人慚愧恐怖急切，悔過之心無

異，故對治妙藥亦無異耳。良醫於無名腫毒，初灸不痛者，灸至極痛而止，初灸即痛者，灸至不痛乃止，不如是，病不能療也。毗尼藏中，訶破戒為斷頭法，是不痛者灸令極痛，此經及大涅槃經，明罪性本空，是極痛者灸令不痛。如是妙法但為無知誤犯者作救命神丹，非為談空行有者，資牙慧口實。所云觀於犯即是不犯等者，只此觀之一字，幾許慧解，幾許功夫。譬如鑽木出火，火出則木必盡，儻犯戒心分毫未盡，豈名觀於犯即不犯哉。固知此經，真大乘圓頓無上法門，祇就路還家，不改絃易轍，與華嚴法華涅槃等經，同一線索。是故能令犯者聞之，罪根永拔，未犯聞之，永不復犯。譬如靈丹一粒，不論有病無病，但肯服之，可輕身遐舉，何止延年益壽而已。儻讀此經，不永離姪殺等事，與不讀一般。如遇靈丹不服，身嬰重病，豈靈丹卻致病邪。設無慚人，欲援為例，請語曰，汝犯戒。亦如二比丘出不得已乎。既犯後，如二比丘恐怖發露，急切求哀乎。縱求哀如二比丘，遇佛菩薩，為說法乎。縱聞此法，如二比丘隨文入觀，頓悟無生，姪心永斷乎。彼達法空已，姪習永除，一成佛於未來，一成佛於現在。然殺人之報，或因中即償，或成佛方受，如金槍頭痛，理必有之。善夫古人曰，如何是本來空，業障是。如何是業障，本來空是。故知大徹悟人，但可不墮地獄，決無不償夙債之理。師子尊者，神光大師，僧肇巖頭等，歷歷可據。非遍閱大藏，深明教眼宗眼，未可輕議也。至現在無垢光比丘，偶與過去無垢光佛同名，如觀世音菩薩，與古觀音佛同名，迦葉比丘，與古迦葉佛同名，柰何混而一之。所云開元附秦錄者，唐開元重敘藏目，偶失譯師之名。相傳姚秦時譯，仍附秦錄，藏經失譯名者頗多，未必皆偽，不當以此為責。嗚呼，末世狂禪，罕知教典，依文解義法師，又無真正手眼，鼠啣鳥空，遍於寰宇。居士能如此留心，可謂優曇鉢華矣。然真正經王，須闡幽旨，以示未聞，方見維摩大士作略。儻羈浮涉獵，輒云可疑，魔王聞之，踴躍歡喜，關係亦不小也。

(與忍草)身病易治，心病難遣。古云，克己須從性偏難克處克將去。慈雲大師亦云，行人各有無始惡習，速求捨離。當自觀察，何習偏重，訶棄調停，取令平復，勿使行法，唐喪其功。夫惡習豈惟殺盜姪妄而已，二六時中，四威儀內，苟可動人念頭者，最能折福損壽也。

(復吳聿修)青龍鈔，豈可與妙蓮玄文同年而語。蓋未悟時，搜索擬議，決無當大道。故德山云，窮諸玄辯，似一毫置於太虛，竭世樞機，似一滴投於巨壑。丈夫出詞吐氣，真實不欺如此，可謂太煞明白，何反代為瞞昧，妄擬於如虛空如大海之玄文，且疑一燒一不燒邪。末世迷人看語錄，往往有此等惡習，不思比擬稍失當，金剛法

華皆可燒矣。謗法之罪，亦大可畏哉。請燒卻德山手中陳腐枯藤，此一言之失，不難知也。

(復閻淨士)文字性空，故淹貫三藏。元無一字，非以不識一丁為無字也。末世無聞比丘，借達磨不立文字，以掩其拙，亦可嗤矣。非知之艱，行之維艱，固然，又復應知非行之艱，知之更艱，不知而行，墮坑落塹。佛頂十卷，最勸修行，而以先開圓解為最初方便，圓覺經，文殊普賢二章，亦先開解，大乘止觀，摩訶止觀等書，無不皆然。參於學問思辨篤行之旨，若合符節矣。修行之法，如調琴絃，緩則不鳴，急則聲絕。勿忘勿助，庶循循進道也。正修行路，必以空觀為主，痛快直捷，莫若毗舍浮佛半偈，熟讀默思，使淪骨浹髓。紫柏全集，幸覓觀之，得此法印，可辨邪正，不被今時邪師所誤矣。

(與智龍)顛沛患難，是煅煉佛祖英靈漢一大爐鞴。能受煅煉，便如松柏歷歲寒而逾堅，不受則如夏草春花，甫遇風霜頹靡無似矣。夫松柏花草，稟質不同，不可強也。現前一念靈明心性，豈有定質。只貴當念自立，將身心世界一眼覷破，平日晏安粥飯習氣一力放下，便向刀山劍樹遊戲出沒，有何艱險。縱身心世界情見放不下，而身心世界未嘗不是空花，縱晏安粥飯習氣除不得，而業運臨頭，何處保得晏安粥飯如意。千經萬論皆磨礱習氣之具，習氣不除，學問何益。不能親明師良友，受惡辣鉗錘，徒覓幾部好佛法，靜靜閑坐，燒香啜茗，而披閱之。此措大學問，尚不可為世間聖賢，況佛祖哉。佛祖可如此悠悠而得，善財常啼，真千古極拙人矣。何為華嚴般若之榜樣也。

(與體境)出家大丈夫事，非王侯將相所能。然不難有始，難於有終。故因果之邪正，必四句料簡，應日慎一日，臨深履薄，期到真實受用處，萬勿大膽驕心，中塗狂惑，從袈裟下失人身也。切囑切囑。

(寄丁蓮侶)淨土一門，有名無義久矣。居士躬行實踐，為緇素標榜，此阿彌願光所映發也。但末世往往視作曲為中下，不知其至圓至頓，普被三根。須將妙宗鈔，及西方合論二書，深玩熟思，庶可破邪計耳。

(復轉依)指戒生來，具見接引。然納是岳武穆，非淮陰侯也。用九一向羈浮，墮時文惡窠臼裏。大乘性相，都作語言文字會去，待被禪宗菲薄，方思結制觀心。觀心之法，甚不易言。近代宗門，多發足問津，唯台衡知津發足，修證塗轍，不啻什伯相倍。只恐不是教下真種草，真種豈被禪宗菲薄，亦豈畏菲薄者。若是台宗真種，世語外籍，皆不相違，豈有輕唯識而不屑學者。可憐眾生情見封迷，絕無超方手眼，才入台宗，便染台宗重病，才入禪門，便染禪門重病。未得清，先得隘，未得和，先得不恭，求不沒於時流者幾何

人。大丈夫出家，不拌二三生理頭徹底，輒希十年二十年後弘教揚宗，修天爵以邀人爵，終必亡而已矣。

(復程用九)圓頓行人，春夏秋冬，無非觀心之期，晝夜六時，無非觀心之會，行住坐臥，無非觀心之事，說法聽法，無非觀心之緣。若必待冬期結制，而後觀心，則三時講演，仍說食數寶矣。講聽時不與心觀相應，觀心時亦決不與教理相應。若是縱百春夏秋冬講經，百冬觀心，到底是兩樞事。書生羶浮領略，無超方出格知見，出言鄙陋，從來可歎。經云，人命在呼吸間。儒云，才說姑待明日，便不可也。唯居士一向不肯當下隨文入觀，妄謂一切人皆不能當下隨文入觀耳。當痛思力改，莫作矮子看戲文句當也。

(寄善超)世出世法，孝慈第一。以慈心而修孝行，可順父母，格鬼神，況出世師長乎。勉旃，無任情率意也。

(寄王古學)丈夫不難高明，難於精細。苟精細，則儒理釋理，可分割同異之致，宗眼教眼，可坐證合一之源矣。

(與沈甫受甫敦)占察行法，蒙昆玉梓梵冊，而不肖屢結壇，俱不獲清淨輪相，此可信天下後世邪。今誓作背水陣，掩死關禮之。十二頭陀經，俟後或敢著筆，今沈船破釜時，未暇作空頭話也。

(與聖可)不肖三業罪過不少，雜亂垢心，豈致清淨輪相。爰發慚愧，退作但三歸人，誓不為師作範，誓不受人禮拜，誓不出山，誓得清淨輪相，不論百日千日，六年九年，畢死為期。辭嘉興事竟，嗣當辭留都事也。

(與了因及一切縑素)宋儒云，才過德者不祥，名過實者有殃，文過質者莫之與長。旭一人，犯此三病，無怪久滯凡地，不登聖階也。旭十二三時，因任道學而謗三寶，此應墮無間獄，彌陀四十八願所不收。善根未殞，密承觀音地藏二大士力，轉疑得信，轉邪歸正。二十年來，力弘正法，冀消謗法之罪。奈煩惱深厚，於諸戒品，說不能行。癸酉中元拈鬻，退作菩薩沙彌，蓋以為今比丘則有餘，為古沙彌則不足，寧捨有餘企不足也。夙障深重，病魔相纏，從此為九華之隱，以為可終身矣。半年餘，又漸流布，浸假而新安，而閩地，而茗城，檣李留都，虛名益盛，實德益荒。今夏感兩番奇疾，求死不得。平日慧解雖了了，實不曾得大受用。且如占察行法一書，細玩精思，方敢遵古式述成，仔細簡點，並無違背經宗。乃西湖禮四七，不得清淨輪相，去年禮二七不得，今入山禮一七，又一日仍不得。禮懺時煩惱習氣現起，更覺異常。故發決定心，盡捨菩薩沙彌所有淨戒，作一但三歸弟子。待了因進山，作千日關房，邀佛菩薩慈悲拔濟。不然者，寧粉此骨於關中矣。

(與沈敬園)聞楊乘乘與笑禪師齟齬。夫參知識，須領其所長，不責其所短。法門深遠，等覺未盡，況今時知識邪。法中起過，福反成

罪。幸同往釋此芥蒂，法門幸甚。

(復韓朝集)境苦生厭，此苦諦慧也。厭苦則不敢造業，此集諦慧也。因不生則果不生，此滅諦慧也。殷勤知悔，即道諦慧也。須陀洹所見，見此而已，阿羅漢所證，證此而已。捨戒不如法，不必疑，已捨矣。但有世間性罪，安更有犯法罪。受戒不如法，舉世皆然，亦不必疑。但如法行一日，便有一日功德，瑜伽師地論，言之甚詳，時當末世不可以正法為例故也。夫犯戒造惡，固有罪矣，念佛書經，獨無福乎。均是佛言，何一信一不信，甘墮憂疑坑中邪。悔得當，則名勝行，過其宜，則成悔蓋。千經萬論，只要人直下安心。安心無術，只知法無性而已。般若謂過現未來心不可得。華嚴云，心不妄取過去法，亦不貪著未來事，不於現在有所住，了達三世悉空寂。仁者聞之熟矣，胡不時時觀察乎。淨土痛快直捷，廣大圓融，至頓至易，無機不收，無罪不滅，仁初發心，便知歸向，胡三十餘年，猶半信半疑。特錄往生公案二則，以助信力，萬勿更躊躇也。但觀察現前一念緣起無生，罪源自涸。此事甚不難，人看得難耳。

(復唐宜之)妙宗鈔一書，不可動一字。蓋大小彌陀經，普被三根，註須通淺深。此經專被韋提希等圓頓大根，令現悟無生忍，儻作是一心之旨未徹，斷無依事修觀之理。雲棲謂心粗境細，妙觀難成，本諸善導等諸大祖師，信非臆說。旭謂宋時根性稍利，四明發揮猶略，若今大師復作，只可詳釋，何容節要。大匠不為拙工改廢繩墨，羿不為拙射變其彀率，此係不小。儻圓解不十二分透徹，便欲作觀，未有不招魔事者。唯持名一法，千穩百當，而圖經及妙宗鈔，姑與人結圓頓種。或眾生根性不可妄測，亦自有能解者。若解決不嫌多，若未解刪之於彼何益。且刪淺存深，初機益不能解，若刪深存淺，大違經宗。進退思之，萬勿萌此念也。

(荅蓮勺)翁出家，當紹蓮大師法脈。往者雪公，不耐鉗錘，甘心小就，楊生志大才美，因地欠真，皆作古人，良可歎悼。旭福祲障深，聊作村學究句當，賴二三童蒙，未染近時惡態，僅種金剛種子。儻先有成見者，任掉頭不顧而已。自愧百煉千磨，終未斷惑證果，而具縛凡夫，以肉眼作佛眼用，若教若宗，得無纖毫疑滯。故著述甚多，皆可考諸佛祖而俟百世，此真自信，非天下能瞞肝也。承示心經口義，別具見學富才華，儻欲壽梓，不妨再酌。法門至誼，無容獻諛，知不見罪耳。

(荅韓服遠)尊恙鬱痰所致，鬱又從勘境不破所致也。種種逆境，可動心忍性，增益不能，皆所以成就自己而已。世道交喪，儒門久已無人，願足下矢志為君子儒。近世學佛人，才聽講只思做法師，才不思做法師，便不肯究心佛法，學儒人，才讀書只思中進士，才不思

中進士，便不讀書。殊不知讀書，是為聖賢正路，研究佛法，是成菩提，生西方正路也。哀哉。然佛門猶有一二知成佛者，儒門絕無一人思為聖賢，世安得不亂，亂安得復治邪。足下果發起決定為聖賢心，而釋迦不暗中摩頂，孔子不晝夜擁護，無有是處。

(復張中柱)儒釋二學，到家雖別，入門大同。若云尊德性而道問學，即全性起修之謂也，若云下學而上達，即全修顯性之謂也，未有不圓悟心佛眾生三無差別。可言修證工夫者，亦未有不深修十乘妙觀，可階究竟極果者。是故近世苟簡法門，最易湊泊，最難到家，佛祖無上心印，最難入手，最易成辦。為山云，此宗難得其妙，切須仔細用心。可中頓悟正因，便是出塵階漸。生生若能不退，佛階決定可期。上古宗匠之言，類皆斟酌穩重若此，豈以一棒一喝，一句一偈，謬作極則者邪。承問諸書，大乘止觀，性相總持，實與佛頂玄文，唯識心要二書，相為表裏。苟留心既久，得其血脈，一代時教，思過半矣。小止觀，可依行持。摩訶止觀，淵深宏博，須輔行並觀。禪波羅密門，所詮禪法，工夫稍得力，即取看之可也。六妙門，維摩疏二書，久錮海東。儻仗鼎力，復照此地，乃千古奇事，日夜祝之。

(復陳旻昭)力疾草法華會義，七旬告成。然每一念及佛道深遠，未嘗不涕淚交流。昔為山三作國王，遂忘宿命，戒老一念偶誤，復為坡仙，證斷之難，固不待言矣。又憶經中阿難白佛，十二因緣，特易解耳。佛語阿難，莫作是說，除佛一人，餘不能盡因緣性海也。遂舉往事以訶之。昔有阿修羅子，語其父曰，大海特淺淺耳。父曰，我身長七千由旬，以幻術故，變為十六萬八千由旬，乃窮其底。汝年幼，身僅七百由旬，又未有幻術，何藐視此海邪。子不信，投身入海，沒溺洪波，幾至喪命。父以幻力接出，喘息僅存。佛語阿難，往昔阿修羅王，即我身是，阿修羅子，即汝身是，汝昔輕視大海，而受疲苦，今復於我法中，輕視十二因緣甚深法海，當招惡報。於是阿難慚愧改悔，誓不於法起輕易想，至如來滅後，方辦大事，傳佛心宗。此解悟之難，又豈容藐忽哉。念此二難，方切悲痛。謬辱獎譽，以為義句兼到，解行雙圓，不益令我置顏無地邪。

(復導關)吾人本分中事，如飲水冷煖自知。然有先飲水知令煖者，分毫瞞他不得。所以十乘觀法，須知次位，儻有觀無教，未有不墮增上慢者。既四楞塌地，不同迷時法華轉，便可恆轉是經。隨文入證，方名不雜用心。儻不看一字，則此一字仍是礙心之物，豈虛空已碎，一字尚未碎，大地已沉，一字尚未沉，看則便被他雜，不成一片邪。幸細思之，當噴飯滿案也。

(復達戒)勤心作福，不可但貪清閑。少年清閑，是不祥事，非折壽則損福。於清閑二字作毒藥想，方有少分出生死路。背經雖好，非出

家正務。周利不誦半偈，深證二種解脫。提婆在家，通十二韋陀，出家通八萬法藏，無救阿鼻地獄，三大劫苦。牛飲水成乳，蛇飲水成毒，智學成菩提，愚學成生死，不可不深思也。

(復松溪法主)癸亥春，拜見幽溪尊者時，正墮禪病，未領片益。戊辰冬，遇歸一兄，方悔向日當面錯過。曾刺血書一然香供師伯文，寄至台嶺，屈指二十二年矣。台宗一脈，我兄勇猛仔肩，次達月管公，亦復半壁。觀彼會合玄籤，一字弗敢稍易，知不墜家風也。如劣弟者，少年誤中宗門惡毒，放恣之習，淪骨浹髓。今雖痛革，餘習難除，故私淑台宗，不敢冒認法派。誠恐著述，偶有出入，反招山外背宗之誚。近述法華會義，因留都久染，知音大竅，酸臭氣味，絕不知權實本跡綱宗，況得觀心悉檀。四益語以三大五小，甫展卷，無不望洋而退。不得已，竊取文句妙樂之旨，別抒平易顯豁之文，聊作引誘童蒙方便耳。消文分句，不無小殊，教部時味，敢有他議哉。然置弟門外，不妨稱為功臣。收弟室中，則不免為逆子。知我罪我，聽之而已。

(與唐宜之)讀修行會義序，知有卓見。但曰修行須修般若，般若以實相為體，觀照為宗，無住生心為因，究竟種智為果。經云，於法實無所得，不可以三十二相得見如來，無有法得菩提。故然燈授記，皆指示初下手時，以無所得為方便之觀門，所謂應無所住而生其心者也。居士反判作第一義諦，一可商也。論云，不離佛世住，供給如來住，求佛教授住，皆點明菩薩位中，分得真實受用，所謂漸住究竟種智者也，居士反判作忠恕之語，二可商也。請以喻明，黃帝失珠，罔象得之，今於法實無所得等，皆罔象之求也，可竟喚作第一義諦乎。不離佛世，供給如來，求佛教授，皆玄珠之異名也，可喚作切實功夫乎。雖王文成云，喚戒慎恐懼，作本體亦得，喚不睹不聞作工夫亦得。然戒慎恐懼畢竟是達本體之工夫，猶所謂於法實無所得等，不睹不聞畢竟是工夫所顯之本體，猶所謂不離佛世住等。若直以實無所得等為第一義諦，何異偏空。不離佛世等為工夫，何異著相。以著相工夫，求偏空義諦，是背般若，豈修行般若哉。此等關係，迷悟攸分，儻肯細細理會一番，不唯更有一番真實受用。即古人鼻孔，亦決不向文字同異中卜度矣。納近重閱大般若六百卷，見其義趣愈博愈約，無法不從此出，無法不歸於此。六祖所謂法法皆通，法法皆備，而無一法可得者，正以無一法可得，故法法皆通，法法皆備也。無一法可得，最上乘下手工夫。法法皆通，法法皆備，最上乘圓滿本體也。設有一法可得，則被此一法所礙，不能法法皆通，法法皆備矣。如唐太宗，設不拌喪家亡身，何得富有天下。直至富有天下，即以天下為家，天下為身。亡身家者，為莫大身家。是故於法實無所得，則恆不離佛世。不以相見如

來，則恆供給如來。無有法得菩提，則能求佛教授。如此方名修行般若，方可降伏其心，方為住所應住。不然依文解義，三世佛冤。縱行六波羅密，百千萬劫，以有所得為方便，終名遠離甚深般若而已。向謬述破空論，破今人之得空故也。若無所得，則不得有，亦不得空，亦不得無所得，何所可破哉。

(答唐宜之二書)問意，請直言之。紫柏之問，為要問，切問，妙問，坐斷咽喉問，立斷命根問。向彼問處著眼，十個有五雙悟道。居士之問，為呆問，迂問，戲問，不達理路問，佛所不答問。若向此胡思亂想，十個有五雙發邪。經明不應思而思，不應問而問，反成毒智也。夫六百卷般若，心經該之，心經二三百言，照見五蘊一語該之，照見一語，色心二字該之。凡所照者，無非色攝。凡能照者，無非心攝，而能所無性，由妄念立故。瞥爾一念，則為色心本源。究此一念瞥起，起處無從，全依真性。然真非妄因，何因起妄，真非有外，妄豈外來。展轉簡責，畢竟此妄，從何瞥起。此銀牆鐵壁真疑情，真話頭也。不論年月時劫，只有此個疑團，眉毛與大地廝結，會須討個分曉，老鼠入牛角尖，定有倒斷處。又如鼠咬棺材，不穿不歇。如此疑去，勿忘勿助。機緣到時，噴地悟去，方知世界身心，本是翳眼空花。本來不生，不復更滅，那得更有無始劫前。最初起念之由可問，如癡人說夢也。就此噴地悟門，復分淺深邪正，須略言之。有人得此坐斷兩頭消息，便謂一空永空，無復修證可論，則為惡取空見，反墮大坑。有人得此了知身心世界皆如夢影，執著漸輕，修行漸進，則為乾慧。有人得此知身心世界雖如幻影，唯有真心不生不滅，為一切生滅所依，由是雲興六度萬行，助嚴真心，自他兩利，則為中道正信。有人得此了妄無生，全是性起。真性不生不滅，則一切法當下亦皆不生不滅。真性具一切法，造一切法，一切法亦皆具一切法，造一切法。遂見法法互融互具，互遍互周。雖復重重融具遍周，亦無所在。雖無所在，而無盡無盡，法法宛然。是謂具縛凡夫，能知如來祕密之藏，雖是肉眼，即名佛眼。從始至終，以此佛知佛見而為修行，直至圓滿菩提，歸無所得，中間永無諸委曲相。瀉山云，此宗難得其妙，切須仔細用心，可中頓悟正因，便是出塵階漸。生生若能不退，佛階決定可期。此之謂也。豈似後世講士，妄計積功累行，不明平等法性。又豈似今時狂禪，妄計即心即佛，不知差別義門者邪。然欲發妙悟，或從思入，或從聞入，事非一概。但先滌舊時知見，令淨盡無餘，方堪有新益耳。(其一)

狂言駭聽，乃蒙嘉納，且承不棄，賜以忠告，字字金錘，可銘可戴。嗟乎，惺兄逝後，久不聞直諒之言矣，今何幸得此於老居士哉。雖習氣深重，當數數念此良藥，漸有瘳也。生平過失多端，不

止動氣輕喜二種，尤望不吝直言，令我改革。但動氣一事，有大不得已處。夫五百弟子，各說身因，雖皆非佛意，而各稱善說者，以入門不同，到家則一，又未知佛實意，皆順佛權門，故不妨也。儻如楊墨充塞仁義，則孟子必為之懼，遑恤好辯之譏哉。所以慈明慢罵諸方，大慧痛訶暗證，罹大禍而不敢避，是或別有一道，不可以雲棲竹林之法例之也。雖然，不肖力學不怒之威，居士深諒折肱之苦，庶幾允當也乎。

(寄達月法主)尊者台宗獨步，不唯近接幽溪之緒，實遠繼荊溪之教，非同皋亭一派，有名無實也。曾聞台門多順子，乃即中之門，何以有躍冶之金邪。憶甲戌春，見金若采法華百問，時一笑置之。不意歷年七周，未摧斧鉞，今且梓成，何肆無忌憚至此。雖鄙陋淺惡，亦有一輩生盲，輒從其教，在尊者已不屑誨，其如害愚小何。昔世尊於提婆達多之逆，必遣舍利弗，廣向王臣說其過罪，尊能獨默然邪。某睹茲僭竊，悲出肺肝，自附於沐浴請討之科，姑直批彼邪問，呈諸方丈。法道陵夷，斯時為甚，壞正教者，不止一金氏。尊者向現居士身，已作人天重望，況今儼然沙門儀表。釋迦智者荊溪，實式臨之，何容諉其責也。

(與見月律主)律學之訛，將及千載。義淨懷素二師既沒，能知開遮持犯輕重緩急者，絕無其人。近世愍忠大慧律主，頗糾正小半，猶未復佛世芳規。旭又薄德尠福，不足取信於人。寤寐永歎，涕淚交流，大廈將傾，決非一木所支。邇聞座下奮金剛志，秉智慧炬，革弊遵古，喜而不寐，冀獲良晤，盡獻片長，以益明聖。塵歸大地，水入滄溟，座下既得盡善盡美，旭亦無遺珠刖璞之憾矣。今夏細商集要一遍，遂重治成稿，卷帙較舊不多，而刪繁補要，頗為精鍊，并聞之具眼者。

(與劉純之)此一大事因緣，積訛已久。伶俐人往往意見湊泊，氣魄承當，如余集翁輩，可為殷鑒。五燈花一書，豈不為千古具眼者笑邪。陳旻翁，深心弘護，肉身韋馱。但本分中事，有時精細巧妙，不愧古人，有時粗疏抹過，尚不堪與座主提草鞋，亦未經陶鍊耳。渠於法門極為在行，絕不承當悟字，甚討便宜。然微窺其意，遠不如做秀才時之虛心矣。世間科第，果能埋沒賢豪者邪。可畏也。

(復張中柱)承諭世俗通病，唯喜熱鬧道場。誠當世師資，頂門一鍼。晨昏佛號悲咒，便是宦海慈航，自利利他，法皆具足，只恐含元殿裏，更覓長安。然丈室留心圓頓教法，決不同近日伶俐士夫，得便宜處失便宜也。

(寄錢牧齋)今夏兩番大病垂死。季秋閱藏方竟，仲冬一病更甚，七晝夜不能坐臥，不能飲食，不可療治，無術分解，唯痛哭稱佛菩薩名字，求生淨土而已。具縛凡夫，損己利人，人未必利。己之受害如

此，平日實唯在心性上用力，尚不得力，況僅從文字上用力者哉。出生死成菩提，殊非易事。非丈室，誰知此實語也。

(復錢牧齋)濟雲門諍，不啻小兒戲。閱儒釋宗傳，竊議可付一笑矣。續燈事，遍集明朝語錄，乃可成之，非朝夕能辦，未填溝壑，當以三四年為期也。著述須實從自己胸中流出，方可光前絕後。設非居安資深，左右逢源，縱博極群書，遍採眾長，終是義襲而取，不可謂集大成也。大菩薩乘願力闡正法，須如馬鳴龍樹，智者清涼，立極千古。若圭峰長水輩，雖各有所得，猶未免為明眼簡點，況其餘哉。乞丈室裁之。憨大師性相通說，久為教家嗤笑，無能為害。達大師以能所八法所成釋性境二字，不過承魯菴之訛，習而不察，白璧微瑕耳。交光用根一語，毒流天下，遺禍無窮，非一言可罄。宗鏡對畢，乞寄還山中，所許通翼，亦乞慨付。

靈峰蕩益大師宗論卷第五之二

靈峰蕩益大師宗論卷第五之三

論

參究念佛論

原夫本覺妙明，真如法界。智理無能所之分，依正絕自他之量。祇因迷妄，遍計橫生。背覺性而九界雜陳，昧真境而三土幻現。勞我世尊，垂慈設教，隨眾生根性，示無量法門。或顯了說，或隱覆談，或曲接偏機，漸令入道，或直投圓種，頓使開明，或從一法中，分別說為無量，或以異方便，善巧助顯一乘。雖復教網萬殊，無非醒九界長夢，令復還元覺，了三土幻翳，令冥契寂光耳。然了義中最了義，圓頓中極圓頓，方便中第一方便，無如淨土一門。何以言之，隨其心淨，則佛土淨，見思淨超同居，塵沙淨超方便，無明淨超實報。故曰，唯佛一人居淨土，尚何不了之義。眾生心念佛時，是心作佛，是心是佛，以一念頓入佛海。故曰，一稱南無佛，皆已成佛道。若人專念彌陀佛，是名無上深妙禪，豈不至圓至頓。果德願力不可思議，因心信力亦不可思議。感應道交，文成印壞，以凡夫而階不退，未斷惑而得橫超。又復三根普被，四土橫該，五濁輕淨在同居，體空巧淨在方便，三觀圓淨在實報，究竟覺淨在寂光，尚無等者，矧或過之，是名不可思議功德。世間難信之法也。總其大要，須具信願行三。信則信事信理，信自信他，信因信果。知心外無土，土外無心，性外無佛，佛外無性，因必該果，果必徹因。願則念念回向，心心趨往。行則無量法門，會歸一致。而淨土正行，尤以念佛為首。顧念佛一行，乃有多塗，小經重持名，楞嚴

但憶念，觀經主於觀境，大集觀佛實相。後世智徹禪師，復開參究一路，雲棲大師極力主張淨土，亦不廢其說。但法門雖異，同以淨土為歸。獨參究之說，既與禪宗相濫，不無淆訛可商。嘗試論之。心佛眾生，三無差別，果能諦信，斯直知歸，未了之人，不妨疑著。故誰字公案，曲被時機，有大利亦有大害。言大利者，以念或疲緩，令彼深追力究，助發良多。又未明念性本空，能所不二，藉此為敲門瓦子，皆有深益，必淨土為主，參究助之，徹與未徹，始不障往生。言大害者，既涉參究，便單恃己靈，不求佛力，但欲現世發明，不復願往，或因疑生障，謂不能生，甚則廢置萬行，棄捨經典。古人本意，原欲攝禪歸淨，於禪宗開此權機。今人錯會，多至捨淨從禪，於淨宗翻成破法，全乖淨業正因，安冀往生彼國。問，淨土為主，參究可當念佛否。答，參念皆屬行攝，切則參亦往生，不切則念亦不生。又雖有切行，若信願為導則往生，無信願為導則不生也。問，徹悟人還須往生否。答，普賢願王，導歸極樂，初地至十地，皆云不離念佛。怡山發願，承事十方諸佛，無有疲勞。百丈清規，課誦送亡等事，無不指歸淨土。故天如云，若果悟道，淨土之生，萬牛莫挽。雲棲云，悟後不願往生，敢保老兄未悟。是知凡言不必生淨土者，皆是增上慢人，非真入菩薩位者也。問，念佛兼參究，可為助行，參禪兼願往，非偷心歟。答，無禪之淨土，非真淨土，無淨土之禪，非真禪。然淨土之禪，本不須參究，但一心不亂即靜，名號歷然即慮。若夫禪之淨土，必須證極淨心，非可以理奪事。從上諸祖，凡情已盡，聖解未忘，不妨隨機埽執。後世學人，雖有乾慧，染習未枯，自非發願往生，依舊隨業輪轉。永明四料簡，楚石十念不缺等，正所謂有禪有淨，豈偷心也。問，參究念佛，與止觀法門為同為異。答，理則互融，門實有異。止觀以信入，參究以疑入。止觀雖三根普被，而上根方真得明了，參究雖亦被三根，而上根始獲大總持。且如下根之人，或念佛，或參究，雖未達止觀深理，然理無不具。以置心一處即止，用心參念即觀。故中根之人，或借解而起念行，或塞解而發參情，雖隨機致用不同，亦皆不失止觀大義。惟上根之士，直下相應，境智一如，觀諦不二，斯時念與不念，皆得而究竟，更無可參。何以故，言前薦得，屈我宗風，句下分明，沉埋佛祖。故知參究念佛之說，是權非實，是助非正，雖不可廢，尤不可執。廢則缺萬行中一行，執則以一行而礙萬行也。高明學道之士，試熟計而力行之。

慈悲緣苦眾生論

自佛性之理不明，同體之誼斯晦。但知好善惡惡，罔知與樂拔苦，異類傍生，藐若草芥，囹圄罪苦，視作當然。誰知蠢蠢含生，知覺無別，賢賢惡黨，人類是齊，迷性靈而有意招愆，已為可憫，因夙障而無端罹網，尤屬堪哀。乃有目睹淒惶，耳聆哀叫，不惟漠不關懷，方且快稱應爾。嗚呼，悲名拔苦，捨此輩以何緣。慈名與樂，向善趣而奚益。戒本經云，菩薩於惡人所，起慈悲心，深於善人，良有以也。未探斯旨，藉口懲非，自恃暫居福報，邪慢盈懷。慶他劇受苦輪，羅剎無異。豈有稍悟常住慈心，而無同體切膚之痛者邪。或曰，慈悲與拔，乃果上之功能，慚愧勸懲，實因中之妙行。故尊崇賢善，名之為慚。輕拒暴惡，名之為愧。慚愧自嚴，方能斷惡修善。慈悲利物，乃是接世度生。何得初心，藉口大聖。噫，誤矣。天慈悲慚愧，同稱善心，因中乃可同修，果上方能同滿。若如子論，則菩薩不修四無量心，佛果不名具足慚愧。失既非細，罪乃彌天，詎知慈悲慚愧，恰恰相成。有慚愧者，方有慈悲。無慈悲者，即無慚愧。蓋由了達心佛眾生三無差別，觀佛即心，是生慚愧。觀生即佛，是起慈悲。尊崇本有賢善之性，隨願與一切眾生性德之樂，輕拒迷真暴惡之習，隨願拔一切眾生性德之苦。有一分慚愧，方有一分慈悲，有十分慈悲，方為十分慚愧。汝今見此同稟血氣，同抱靈覺之流，背自真心，枉受困苦，不思拯拔，反起傲心，不惟無慈悲，正屬無慚愧耳。儻悟明心性，確知生佛體同，見此未來諸佛，枉墮三塗八難，便當惕目傷心，胼手胝足，如饑食渴飲，欲罷不能，何忍視作泛常，反以救援為迂務邪。只恐前生之善報有限，他世之苦果無窮，既永隔於圓悲，諸佛亦難授手。今日所以笑傲苦倫者，他日復為苦倫所笑傲也。悲夫。

非時食戒十大益論

客問杜多子曰，吾聞殺盜婬妄，名為性罪，飲酒昏迷，失智慧種，食眾生肉，斷大慈悲，是以如來制戒，七眾同遵，固無惑焉。至於常食養身，有何過咎。而非時食戒，如此嚴邪，願聞其旨。杜多子曰，吾正欲申齋法之要，以軌行人。時哉，問也。夫齋法是十方三世諸佛弟子，通行大道，出生死法之要津也。愚夫逐逐口腹，甘為飲食之人，既畏此律檢，豈辨其利益。今原如來立制本意，盡善盡美，何能殫述。略而舉之，大益有十。一斷生死緣。經云，一切眾生，皆因婬欲而正性命。又云，三界眾生，皆依飲食而得存活，所謂段食，觸食，思食，識食。由此觀之，婬欲固生死正因，飲食乃生死第一增上緣也。均為五欲所攝，特資此毒身，借之修道，不能全斷，然設得時食，尚作曠野食子肉想，何容恣意於非時邪。二表

中道義。台宗云，午前進食，表方便道，猶似有法可得，過中不食，表除中道外，更無所需。此之理觀，全托事境，儻粗戒尚不自持，非同俗人。夜猶飲食，放縱之不及，即同外道。日啖一麻一麥之太過，行不適中，妙理何由契會。三調身少病。脾主信，數數食，最能傷脾，故玄門以戒晚食為養生善術，豈名忍餓。四道業尊崇。趙州云，二時粥飯，是雜用心處，二時已雜，況三四邪。儒曰，飲食之人，則人賤之。今恪守齋法，專精辦道，道業自隆。五堅固戒品。晚食助火助氣，增長姪心，今寂爾清淨，戒體堅牢。六堪能修定。斷其雜食亂想，身心輕利，取定不難。七出生智慧。晚餐助昏蓋，今清淨惺寂，不障觀慧，又於四種食，如法作厭離想，即能斷三界惑。八離鬼畜業。畜生午後食，鬼夜食，不持齋法，鬼畜無異，牽入其類，持此齋法，遠離二趣生緣。九不惱檀信。謂長乞食者，設午後更復持鉢，則終日但見沙門往還，必令施主生惱，今午後惟晏坐修道，能令僧俗皆安。十不擾行人。今時叢林晚餐，廚人惟事炊爨，終身碌碌，不異傭工，齋法若明，則無此煩擾，共修道業。是以諸佛出世，必立此制，乃至在家居士，猶令於月六齋日，受八關齋法，以種永出因緣，況沙彌比丘，可無慚無愧，非時受食邪。設有病苦因緣，佛自立非時漿，七日藥以濟之，斷無以晚食為藥石之理也。願高明者，深信而力行之。

念佛即禪觀論

或問蕩益子曰，參禪教觀，與念佛法門，同邪異邪。荅曰，同異皆戲論也，即亦同亦異，非同非異，亦戲論也。以三種法門，無不離四句故。若知一切法，無非即心自性，仍可四句而詮顯之。何者，梵語禪那，此云靜慮。靜即是定，慮即是慧，靜即止，慮即觀，靜即寂，慮即照，是故定慧也，止觀也，寂照也，皆一體而異名也。或謂寂照約性，餘二約修，止觀約因，定慧約果，不過一往語耳。夫吾人現前一念心性，雖昏迷倒惑，靈知終不可滅，雖流轉紛擾，本體終未嘗動，此豈非寂照真源，止觀血脈，定慧根據乎。究此現前一念心性，名為參禪，達此現前一念心性，名為止觀，思惟憶持此現前一念心性，名為念佛。蓋念者始覺之智，佛者本覺之理也。就此念佛法門，有念自佛他佛自他佛之不同。若單念自佛，與參禪止觀全同。若單念他佛，與參禪止觀，亦異亦同。若雙念自他佛，與參禪止觀，非同非異。夫念自佛者，是四念處觀，所謂觀身，觀受，觀心，觀法。若一切法門，不為四念處所攝，即外道法。故知與禪觀同也。夫念他佛者，或念相好，或法門，或實相，或不能作此三種念者，則但持名號。若念相好，一往似與禪觀異，然必止息

異緣，專觀彼佛，則仍與止觀同，亦仍與靜慮同也。念法門者，例此可知。若念實相，雖托他果佛為異，然終無兩種實相，究竟是同。若持名號，一往亦與禪觀異，然無論解與不解，而所持之名，當體無非一境三諦，能持之心，當體無非一心三觀。故曰，明珠投於濁水，濁水不得不清，佛號投於亂心，亂心不得不一。是則心無異緣即是靜是止，名號歷歷，即是慮是觀，亦究竟同也。夫雙念自他佛者，了知心佛眾生三無差別，乃托他佛，助顯本性，由悟本性，故與禪觀非異，由托他佛，故與禪觀非同。是謂勝異方便，無上法門。文殊般若經，般舟三昧經，觀無量壽佛經等皆明此圓頓了義，而妙宗鈔申之為詳。凡棲心淨土之士，不可不熟究而力行之也。

辯

戒衣辯訛

出家有戒衣，猶居官有公服也。戒既七眾不同，衣豈一概無別。佛為比丘，則制三衣，一僧伽梨本宜九條，或十二條。貧窶無措，事不獲已，乃用二十五條，名後後品，非上上品也，二鬱多羅僧，惟用七條。三安陀會，惟用五條。此三皆名袈裟，以是壞色，非彩色故，亦名田衣，以其形似水田，又僧為人世福田也。為比丘尼，則制五衣，三衣如上，加掩腋衣，浴衣也。為沙彌，則制二衣，一上衣，即無縫袈裟，亦名縵條衣，色與比丘同，制與比丘異，但直縫之，不許刺葉。故律部云，求寂之徒，縵條是服，輒披五條，深為罪濫。蓋沙彌雖已出家，尚未入僧寶數，是故五條，猶不許披，況七條九條等乎。二內衣，即掩腋衣之類，梵稱僧腳崎也。為菩薩優婆塞，則令畜無縫三衣，制與沙彌同，入壇行道，方許披之，平日不得披著，所以與沙彌別也。今時衣制，大違律法，其訛有十，請備陳之。受沙彌戒，便令具足三衣，一訛也。沙彌擅披七條，竟與比丘無別，二訛也。前人無知妄作，輒令優婆塞得披三衣，後人矯枉過正，并禁優婆塞不畜縵衣，三訛也。一切衣制，皆以豎三肘橫五肘為度，縱稍稍增減，咸須隨身隨臂，今豎三橫六，謬云摺時取方，四訛也。田衣但取形似畦畔，今謬云須通水路，五訛也。五條七條等，不過割截使異俗服，今謬云，表於須彌日月四天王等，六訛也。僧伽梨，本翻大衣，今謬稱祖衣，七訛也。三衣之制，千佛所同，故即名千佛衣，正訛集中已辯，今尚有繡佛在衣者，八訛也。一切出家所用衣服臥具，以壞色故，總名袈裟，今返以五彩為之，九訛也。佛與大迦葉以衣貿衣，所以彰其頭陀勝德，令持衣遠

待彌勒，所以助成龍華佛事，達磨傳衣二祖，所以表信，令人不疑，今有不受戒律，但付衣者，進無正法眼藏心印可傳，退無比丘沙彌名位可守，不惟僅成世諦流布，亦且大亂聖賢幢相，十訛也。嗚呼。僅一戒衣，其訛若此，奈何正法不淪替邪。有志之士，請頭頭法法，咸遵佛制，期於自利利他，勿謂此是著相，躲身於無相坑中也。

法派稱呼辯

客問蕩益子曰，出家法派，族姓宗譜也，子為不然，何邪。荅曰，世間至親，莫如滴血，出世至親，莫如法道。法道本離名相，豈以名字為派哉。佛雖曰，四河入海，皆失本名，四姓出家，同稱釋子。此但一其姓耳，豈必更一其名，是故憍陳如，大迦葉，目犍連等，皆俗氏也，阿難陀，莎伽陀，阿那律等，皆俗名也。出家證果，當時咸以此稱之，後世亦以此傳之。然則別命法名，已非律制矣，況法派乎。其在東土，五祖下出二人，南曰惠能，北曰神秀，馬祖下出三人，西堂曰智藏，百丈曰懷海，南泉曰普願。且南嶽既名懷讓，百丈為其嫡孫，未嘗避之，宗門果有派乎。北齊師也，南嶽徒也，師名慧文，徒名慧思，慈雲四明，同師寶雲，一名遵式，一名知禮，天台果有派乎。又宗門有大本小本，天台有大威小威，法名果足論乎。降而近世，雖法派之說已行，高尚者，猶然弗屑。如密藏名道開，介山名傳如，對峰名真弘，澹居名法鑑，寒灰名如奇，皆不失為紫柏弟子，善知識果有派乎。巢松名慧浸，一兩名通潤，蘊璞名如愚，皆不失為雪浪弟子，法師果有派乎。惟其道無足傳，法無足授，不知戒律之當尊，不知紹繼之正務，為師者但貪眷屬，為徒者專附勢利，遂以虛名互相羈繫，師資實義埽地矣。豈不痛哉。客曰，法派之非，既聞命矣，法門兄弟，緇素無閒邪。荅曰，同門列為兄弟，豈惟不知出世法，亦不知世法者也。且如公卿也，百寮也，胥吏也，萬民也，皆天子臣庶也，然百寮不得呼公卿為兄弟，乃至萬民不得呼吏胥為兄弟，何也。分異故也。佛法亦爾，比丘之法，多已十夏者，為與和尚等，多已五夏者，為阿闍黎等。比丘尼之奉八敬法也，雖百夏禮初學比丘足。夫比丘尼已入僧寶數，特以比丘為上眾，尼為下眾，其禮數懸絕如此，況式叉摩那。但學法，未預眾僧法事者乎。又況沙彌，沙彌尼，但同僧利養，未入僧數者乎。欲稱比丘為兄弟，何異有司稱宰輔為兄弟也。又況優婆塞等，并無僧相，不得同僧利養者乎。欲稱沙彌為兄弟，何異民庶稱有司為兄弟也。且佛之初出世也，提謂長者，先受五戒，稱佛為師矣。五比丘後方師佛，提謂非兄，五比丘非弟乎。乃

佛之授與三歸也，則曰，歸依未來僧，是不惟不敢以五比丘為弟，并不敢以五比丘為兄，以其歸依僧，則一切僧皆我師也，乃至最後須跋陀羅，亦我師也。今世俗士，擇一名德比丘禮事之，竊竊然矜曰，吾某知識某法師門人也。彼知識法師者，亦竊竊然矜曰，彼某居士某宰官歸依於我者也。噫。果若此，則應曰，歸依佛，歸依法，結交一大德可也，可云歸依僧也與哉。須達多之初聞佛名，夜趨見佛也，甫聞說法，即證三果，已入勝義僧寶數矣，既而造精舍於祇桓，供佛及僧。凡新出家未知佛法者，須達多日為教授，必禮出家人足已，然後說法，寧惟不敢以教授師自居，不敢以兄自居，并不敢以弟自居，而兄視新出家人也。羅睺羅之出家也，以舍利弗為和尚，均提之出家也，亦以舍利弗為和尚，羅睺為比丘，均提尚為沙彌，不聞其稱羅睺為兄也。則住持二寶之體最嚴，亦猶朝廷之禮故也。朝廷無禮法，上下不辨，而天下亂。佛法無律儀，七眾不辨，而化道絕，可弗辯乎。

議

儒釋宗傳竊議(有序)

大道之在人心，古今唯此一理，非佛祖聖賢所得私也。統乎至異，匯乎至同，非儒釋老所能局也。剋實論之，道非世間，非出世間，而以道入真，則名出世，以道入俗，則名世間。真與俗皆跡也，跡不離道，而執跡以言道，則道隱。故曰，形而上者謂之道，形而下者謂之器。又曰，君子上達，小人下達。嗚呼。今之求道於跡者，烏能下學而上達，直明心性，迴超異同窠臼也。夫嘗試言之，道無一，安得執一以為道。道無三，安得分三教以求道。特以真俗之跡，姑妄擬焉，則儒與老，皆乘真以御俗，令俗不逆真者也。釋乃即俗以明真，真不混俗者也。故儒與老主治世，而密為出世階，釋主出世，而明為世間祐。至於內丹外丹，本非老氏宗旨，不足辯。然則，言儒，而老與孔皆在其中矣。言釋而禪與教皆在其中矣。故但云儒釋宗傳竊議。

儒之於道學也久矣，上古無文字，無可徵，可徵始於堯舜。堯允執厥中，舜危微精一，皆心外無法，故天地賴以位，萬物賴以育，貫徹古今萬世，不能踰其道也。嗣禹，皋陶之見知，湯之聞知，不過還知此心此理而已。知之則近見亦可，遠聞亦可，不以遠近為親疏也。乃韓愈云，堯以是傳之舜，舜以是傳之禹。嗟嗟，是何物也，可互相傳乎。譬諸射樹，的而專注之，先有巧力者先中，後有巧力者後中，或在同時，或在異世，貴各中的而已矣。的非可傳也，巧

非可傳也，力非可傳也。謂之曰見知聞知則可，謂以是相傳可乎哉。

見知不唯禹皋也，凡稷，契，伯益等皆見而知之者也。聞知不唯湯也，伊尹耕於有莘之野，樂堯舜之道，則於湯為見知，於堯舜禹等亦為聞而知之者也。

文王既沒，武周又逝，柱下史聞而知之。孔子問禮，歎為猶龍，則於老聃又為見而知之，門人推崇厥師，不復齒及老氏，孟子亦蹈其舊轍耳。

顏於孔，誠見知也，但繼孔學，又先孔亡，不同太公之於文王，伊尹之於湯，禹之於舜也，故孟子不言之。

顏淵死，子哭之慟，再歎今也則亡。故古人云，顏子沒，而聖學亡，非虛語也。孟子曰，然而無有乎爾，則亦無有乎爾。蓋亦不敢虛妄承當者歟。

老氏之學，蓋公等得其少分以治漢，漢則大治。孔孟之學，漢代絕響。

北宋周濂溪定性書云，性者剛柔善惡中而已矣。太極圖說云，太極本無極也。細玩二語，真得孔顏心法者也。後儒紛紛解釋，罕有知其語脈者。且云，定性書可以不作。噫，可哀矣。即及門之士，明道似曾子子思，伊川似子夏而已。

南宋陸象山，先立乎其大者，乃得孟氏心法者乎。然不信太極無極，展轉撥之，紫陽又展轉救之。吾觀撥者救者，皆非實知周子也。

王陽明龍場大悟，提致良知三字，為作聖真訣，雖曰顏子復生，不亦可乎。

釋之於道學也，十方三世無不徹也，此界此時，則始於釋迦，繼於迦葉難陀等也。其在震旦，則遠公造法性論，羅什歎其未見佛經，能知佛理。北齊慧文大師，讀龍樹中論，悟圓頓心宗，二並可稱聞而知之。菩提，達磨大師，受記東化，可稱見而知之。

遠公後，凡修淨業得往生者，皆見知聞知之流類也。有人僅立蓮宗七祖，但約行化最專者耳。然四明尊者，慈雲懺主等，何嘗不以淨土行化。而智者大師十疑論，飛錫法師寶王論，天如禪師淨土或問，楚石禪師懷淨土詩，妙協法師念佛直指，尤於淨土法門有功。至若近世，則幽溪師生無生論，袁中郎西方合論，皆遠公之裔也。

達磨傳至六祖，乃有南嶽青原二甘露門。門似二，道無二也，二則毒藥，非甘露也。又數傳而為五宗，人有五，宗非五也，五則枝條，非宗本也。譬如阿耨達池，一水流為四河，歸於大海，河有

四，水無四也。今不知池之一，不知水之一，不知海之一，獨從四河闊狹曲直遠近起見，互相是非，可謂智乎。

繼北齊者，有南嶽思大師，出大乘止觀法門四卷，真圓頓心要也。次有天台顓大師，出三種止觀，法華玄義文句，及維摩，仁王，金光明，普門品，十六觀等疏，於是教觀大備。歷五傳至荊溪，其道中興。又八傳至四明，道乃重振。此後裂為三家，漸式微矣。

唐玄奘法師，遍遊天竺，學唯識宗於戒賢法師，盡其所知，旁搜其所未知，廣大精微。真彌勒天親之子，釋迦文佛之遠孫也。慈恩基師，雖實繼之，然觀所撰法華玄贊，則靈山法道恐未全知。無怪乎唯識一書，本是破二執神劍，反流為名相之學，亦可悲矣。

賢首法藏國師，得武后為其門徒，聲名藉甚，疏晉譯華嚴經，經既未備，疏亦草略，故不復傳。所傳起信論疏，淺陋支離，甚失馬鳴大師宗旨，殊不足觀。方山李長者有新華嚴經論，頗得大綱。清涼觀國師，復出疏鈔，綱目並舉，可謂登雜華之堂矣。後世緇素，往往獨喜方山，大抵是心粗氣浮故耳。不知清涼，雖遙嗣賢首，實青出於藍也。圭峰則是荷澤知見宗徒，支離矛盾，安能光顯清涼之道。

禪宗自楚石琦大師後，未聞其人也，庶幾紫柏老人乎。壽昌無明師，亦不愧古人風格。

台宗絕響已久，百松覺公稱為鳴陽孤鳳，僅出三千有門頌略解，及楞嚴百問耳。幽溪繼之，一時稱盛，然唯生無生論，足稱完璧，而自所最得意圓通疏，殊為不滿人意，何哉。但能趺坐書空，作妙法蓮華經字，脫然西逝，則誠蓮華國裏人矣。

雲棲宏大師，極力主張淨土，讚戒讚教讚禪，痛斥口頭三昧，真救世菩薩也。憨山清大師，擴復曹溪祖庭，晚年掩關念佛，晝夜課六萬聲，故坐逝後，二十餘年，開龕視之，全身不散，遂與六祖同留肉身，人天瞻仰，得非蓮宗列祖乎。

或曰，佛祖之道，必師資授受，方有的據，否則法嗣未詳，終難取信。無名子應之曰，譬諸世主，桀非傳自大禹，紂非傳自成湯者乎。身苟無道，天子而不若匹夫矣。今之雖有師承，顛覆如來教戒者，何以異此。漢之高祖，明之太祖，並起草莽，誰授以帝位乎。苟得其道，匹夫而竟開大統矣。今之雖乏師承，能自契合佛祖心印者，亦奚不然。必如子論，是但許有見而知之，不許有聞而知之者矣，可乎哉。且子又不聞，有師資具足，皆不足齒及者乎。譬如俳優及相搏者，豈無師資授受，然不過戲劇及鬥諍法耳。吾故曰，執跡以言道，則道隱。譬諸射者，期各中的焉耳。十方三世，唯此一，常住不變，何俟於傳。巧之與力，存乎其人，父不能得之子，子不能得之父，有何所傳。或見而知之，或聞而知之，及其知之一

也，正知其不可傳者也。謂有可傳，則不至於戲劇鬥諍不止，非佛祖聖賢之道也已。

記

介石居記

自寂光之性，翳於五住塵勞，一切含識，鮮有恆居，雖四禪四空，及方便土，亦屬旅泊。然以正法眼觀，則世閒相即常住相，妙在不為物轉，便能轉物。故楞嚴云，見與見緣，并所想相，如虛空華，本無所有，元是菩提妙淨明體。蓋惟達無所有，方契菩提。儻逐境生情，流轉從茲相續矣。予讀豫之六二曰，介于石，不終日。未嘗不掩卷太息也。夫六道豫有，二乘豫空，藏通菩薩，豫於度幻，別教大士，豫於但中。皆未了法界隨無明流，豈若圓頓初心，悟因緣即空假中。法本無住，物亦不遷，是則幾之微也，不容一瞬，況終日乎。無生剎那，名之為介，常自寂滅，喻之以石，融剎土於毫端，會古今於當念。以三無差別，而獲二殊勝，不諂不瀆，義極於此，誰謂宣尼心學僅在六合內，而牟尼法要不在日用閒哉。權可居士，額其居曰介石，因記之。

遊鴛湖寶壽堂記

甲申中秋前四日，廣若姚居士，邀予遊於別室。室在鴛湖濱，去五龍橋數武。其地幽勝，紅蓼夾徑，無階砌排耦之繁，荷葉滿池，蓮香尚馥，池北屋宇，皆朴素古簡。循廊而東，則寶壽堂在焉。廣若語予曰，此堂昔本僧居，先君時淪為俗舍。後因重事覆苫，於梁閒得金剛經一卷，工人異之，持以告予。予先夜曾得夢，夢至一破廳，有僧募予三百金，予未許。僧云，當以事證。遂指其地，忽有塔從地湧出。告予云，汝本欠此塔緣三百金，須填還也。次日忽聞梁中得經，遂往視之，躡梯而上，覲面真如塔隨身湧現，宛同夢中所見。故今復為僧舍，以奉吾母，并淨侶數十人，咸此熏修焉。予嘗謂夢之一法，至幻而至靈，一夕中普能現三世事。試觀法華安樂行品，始初心終妙覺，總不出如夢三昧。故知三界諸法，誠無非夢也，成佛之夢，豈真夢幻也哉。廣若居士，信夢醒無二，便能踐夢中諾，而捨園為菴，且成出世大孝。今日遊此堂聞此語者，皆印入於廣若之一夢，而予復夢為之記如此。

端氏往生記

乙酉冬，全城章絜之，以二先人行實乞言，予拈念佛三昧印之。今居士追憶二先人之信佛，實由乃室端氏，更乞一言表彰，兼欲決其所疑。蕩益道人，生平不浪為人作傳，獨往生傳，則不待請，然必見聞彰灼乃作。予與絜之交未久，此山去全成遠，予又未履其處，似未可附見聞彰灼之科。但絜之篤信謙謹，非肯誑語者，且於大法有疑，可不為決，請即其言而導其意。其言曰，亡室端氏，年十七適某家，即與某同志茹素。好惠施，無私積，不喜珍飾綺服，不恚罵給侍人。孝事翁姑恐不逮，知不生育，遂買妾事某。專心持珠念佛，一載有餘，病篤，請姑同聲念佛。欲辭去，姑高喚令住。俟胞弟端尚卿相會，乃延至次日，與弟訣別，聲如男子，劇談禮義孝友大節，半日不倦。至暮復請姑助念佛，三日不沾飲食，不發餘言，以崇禎癸未八月二十九日，吉祥而逝。某父因此感發，越七日坐逝，次年秋某母復秉歸戒而終。適聞觀經疏鈔，謂臨終十念成就，亦得往生，未審亡室，獲往生邪。蕩益道人聞而嘆曰，甚矣，心力不可思議，佛力不可思議，夙世善根信根不可思議也。鸚鵡鵲，猶得往生，謂念佛人不得往生，可乎。吾輩生於末世，既無天眼，又無宿命智通，佛語不信，更信何語。苟於佛語諦信無疑，則娑婆何啻旅邸，淨土何啻家鄉。獨怪夫聰明伶俐納子，曾女流之弗若，深可悲耳。予少年猛志參究，視佛祖果位，猶掇之，冀欲以此報父母不報之恩。中歲多障多病，今乃一意西馳，而散心弘法，計功定位，僅堪下品下生。每一念及法界父母，不禁血淚交流，反不如端氏女，先享蓮宮之樂，且拔其舅姑同出苦輪，成出世大孝。居士但求之己，若不疑己心即是佛心，即更不疑佛語。若於佛語不疑，即於善女之生淨土，亦不疑矣。嗟乎，此事絜之家事，此語絜之親語，而得生不得生之疑，尚徵於予乃信。後之讀斯記者，可不速諦信自心，如端氏女之操往生左券於不忒哉。

祖堂幽棲禪寺大悲壇記(并銘)

如來顯密二教，並具四種悉檀，而密教尤重壇儀。蓋全理成事，全事攝理，直以事境為諦觀，本非僅托事表法而已。觀世音菩薩，慈遍剎海，於娑婆世界更有大因緣，其所說咒，藏中最多，唯大悲心咒，流通獨盛。有宋四明尊者，法智大師，佛子羅睺再來，專修密行，依天台教觀，創立大悲三昧行法，十科行道，十乘觀心，並是佛祖祕要，萬法總持，豈徒以音聲色相為觀美哉。近世武林流通特廣，謬亂多端，予不得已，特為之辯訛矣。祖堂湛持如公為遠痕禪師高足，雪浪大師法孫，曩在真寂，躬修此行，凡歷四期。次住匡山豆葉坪，奉為日課。後因師兄如幻行公，偕護法二白蔡居士，登

山邀請主幽棲事，遂發願云，設欲某服役禪堂，必建大悲懺壇，以踐聞熏聞修實益。於是拮据七年，始獲就緒。壇在藏經閣右，佛像南向，大悲像東向，壇右為觀堂，及齋堂浴室侍者寮等。大功既竣，請予為記，令後裔有聞。予惟湛公，久參耆宿，不主先入之言，毅然聽予改正積訛，真大豪傑。而公且囑予曰，某生平精力，竭在茲壇，恐後裔無知浸假，又訛而為逸老堂也，亦必藉一言預為之正。予懼，爰秉筆勒詞曰，大悲三昧，含靈本具。曠劫迷之，輪迴諸趣。菩薩弘慈，方便巧度。文字性空，演妙章句。如法誦持，靡不感赴。四明行儀，萬古流布。久而失真，吾為此懼。辨訛初宣，群小爭怒。勇矣湛公，不迷岐路。築此淨壇，龍天呵護。維此壇室，千秋一日。齋法肅恭，食時勿失。禪侶熏修，勿令老逸。冬夏安居，春秋努力。行願相資，同歸淨域。虛空可盡，弘誓不息。若有違者，法門敗德。持咒神王，必相排殛。仰乞威靈，證茲真實。百億其年，永垂芳式。

祖堂幽棲禪寺藏經閣記

依文解義，三世佛冤，離經一字，即同魔說，宗教不容兩分彰矣。摩訶迦葉，西土初祖也，佛示寂，不供養舍利，惟事結集法藏。菩提達磨，東土初祖也，力埽依文解義之習，仍以楞伽印心。豈似後世僭竊位號，爭去王室典籍，恣其吞併暴虐哉。祖堂幽棲寺，本融祖習坐觀心地，後得四祖點悟，遂傳大法，其道遠播雙徑。芙蓉峰下，寥寥久矣。正德年間，有臨濟子孫，號海天者，來居此地，嗣有雪浪大師，乃慈恩再來，於時受法者，為瑞麟諸公。而紫柏大師亦曾杖笠相訪，蓋自有唐以來，未有盛於斯際者也。雪師寂，高足遠痕法主繼守叢席，遠公逝，高足如幻法主又繼守之，以授乃弟湛持如公。湛公久參真寂聞谷老人，隱居匡嶽，既應請，遂放下身心，專營佛事，七八年來，未有閒。今諸願已畢，惟藏閣功僅將半，適予應請弘演法華，湛公調宜一言以紀其事。予於大悲懺壇，先有記銘，今藏閣雖未告成，實予心所最急者。蓋佛祖慧命，全賴三藏始傳，緬惟宋朝藏板有十餘部，今僅存南北二藏，頗模糊。嘉興書本藏經，猶未全足，真九鼎一絲之懼。且鼠即鳥空輩，視經典如怨家，儻不力為護持，將有不忍言者。湛公之急急以此為務，其如來所使，行如來事者邪。請即以此語，告我同仁，必當共發勝心，請即留此語，勒之堅石，必當俟百世不惑也。

明慶寺重建殿閣碑記

像教之設，肇自佛世，來自漢時，大盛於南北六朝，歷唐宋來，未嘗稍替。故琳宮梵剎，星布九州，凡名山勝地，無不有住持三寶為世福田者。由覺法和合之義，民之秉彝，非可泯也。然住持三寶，本從一體三寶建立，而一體三寶，必藉住持三寶顯明，明則成已成物，自慶慶他，所以暫廢還興，無非全性起修之妙應耳。松陵西南隅，七十餘里，有麻溪焉。溪南為明慶寺，宛在水中，形如菡萏，背縹渺，面曠野，左右兩漾，群流合襟。開山者，為晚唐智詵禪師。宋乾符閒，有祕謚師，建益友堂。其言曰，凡三藏之士，斂跡於斯，皆我益友也。則尊賢取善之風可想矣。宣德年，納子廣善，擴其址，規模弘敞。萬歷甲戌，殿閣禪堂，一夕灰燼，歷四十餘年，僅睹瓦礫。逮戊午年，本寺順蒼郁公，矢志恢復，身董其役，不辭勞苦。於是蓮宇松澗等，竭誠助之，一時緇素響應，財施力施，勸讚隨喜。未幾，大殿鼎新，山門廊廡，香積僧寮，漸次畢舉。其閒輸粟布金者，未易悉數，而仲繼峰居士為最。書本大藏，則寓中念公獨成之。自是安居者，有尊像瞻禮，有法寶展玩，雲水者夜可息，晝可啜，儼復唐宋舊觀，永甲松陵眾剎矣。竊思創業難於勇進，守成利於堅貞，非勇進莫能為先，非堅貞無以善後。今之片瓦一椽，莖薪粒米，無非前人捍勞忍苦所致，檀信減割身口所成，是宜記厥始末，以告未聞，庶幾善繼善述，久久勿替者也。

靈峰蕩益大師宗論卷第五之三(終)

緣起

毗尼事義集要緣起

毗尼藏者，佛法紀綱，僧伽命脈，苦海津梁，涅槃要道也。粵自雞園初唱，召善來而戒體斯成。迨夫鶴樹潛暉，申顧命而木叉是重，必因犯以乃遮。體則協於無作。若緣開與隨制，用復契乎妙圓，實大小之通塗，詎聲聞之獨轍。堪嗟像季，罕達真宗，愚者昧於罔聞，狂者置諸弗屑。以禪機而巧遁，或方廣為駕言，並屬依文，誰思實義。且如能師既佩心印，胡闡化曹溪，猶用登壇受具。觀師大弘華嚴，胡範模朝野，必須十誓律身。蓋大雄御極，法僧二寶，咸由正覺揚輝。而善逝藏機，佛法二尊，同藉僧伽建立。儻惟十重眾輕，即與在家奚別。自非五篇七聚，安知離俗高標。是知梵網戒經，五道齊收，但除地獄，則以通而成其大。毗尼法藏，止許人倫，猶遮諸難，正以局而成其尊。必使仰慕大乘，不甘小節，自可畜髮捨衣，作火中優鉢。如或情悲末法，有志住持，豈得恣情蕩檢，為師子身蟲。智旭自念障深，復悲生晚，痛隙駒莫贖，捨慈母以披緇，思樂土可歸，羨蓮師而私淑。綱宗急辨，每懷紫柏之風，護法忘身，願續匡山之派，睹時流以長歎，讀遺教以增哀。爰於甲子季冬，禮無量光塔，倍復發增上心，乞古德闍梨，證明學菩薩戒，次即備閱大小二律，輒宗四分，并採餘家，錄為事義要略。漫率愚蒙鄙見，難似大方，擬作巖谷資糧，無心兼利。戊辰春，遇雪航楫公，有志嚴淨因念，向以入山心迫，所錄猶多疏漏。迺就龍居，再檢藏文，本部他宗，凡切要者，悉皆錄出。深詳輕重之宜，備顯開遮之準，兼參大律，委示別同。俾畏拘執者，不招謗小之殃，喜儻侗者，難開藉大之口。考訂成帙，更名為毗尼事義集要。復同壁如歸一二友，商確參訂，備闡其致。嗚呼，斯集也，雖於妙高之體，不啻微塵，其在驚劣之資，已稱竭力。所憾解慧疏庸，躬行缺略，仰愧往哲，俯忤後賢。惟願同學善友，鑒我苦心，愍我不逮，一意秉持，共扶法運，庶報佛恩於萬一爾。

靈峰寺淨業緣起

嘗觀淨土之為勝異，正不在寂光實報方便，而在同居。蓋三土斷惑乃生，惟同居直以信願相導。感應道交，五濁之習稍輕，三界之苦斯脫，而又即此西方極樂，豎徹方便實報寂光。故下愚皆可登其闕，上智終莫踰其闕，三根普資，四悉咸備，正法住世，諸祖已共弘揚，末運迷津，四依能無獨讚。乃世之駕言直指者，以西方為鈍置。學語大乘者，以淨土為退休，不思不假方便，自得心開。安有如斯曲徑，妙華盛祴，遍供億方。安有如斯小乘，且既悟直指，是名見性成佛，何故拒彌陀於自性之外。既乘大願，必須嚴淨佛國，何故揀極樂於剎海之中。夫聲聞權教，不聞他方佛名。四果神力，僅周三千界內。彼十萬遐方，尊特善逝，非勝進大士，勇猛丈夫，孰能親近承事，甫育蓮臺，便階跋致。較矢心參究，期剋三生，已悟心宗，猶曰生生不退，佛階可期者，難易遲速，皎然可知。六方調御，同口讚揚，遍吉文殊，誠心勸發，豈欺我哉。法流震旦，禪律性相，皆法久弊生，勢窮須變，惟茲玄猷，始匡嶽，訖五雲，或刻蓮漏於六時，或發妙宗於三觀，或導萬善以同歸，或融一心於事理。法無不收，機無不攝，故得法流益久，法道愈光，聲化所洽，遠及山谷。鄆南靈峰講寺，石峨頤公，請雪航楫公結社茲山。復有抱一粹沙彌，季清程居士，共稟彌陀弘願，同闡勢至法門。佛聲浩浩，偕松風鳥語並顯圓通，僧德雍雍，率牧豎耕夫同入三昧，橫超三界，無煩九次第修，豎徹寂光，不俟三僧祇證，誠劫濁津梁，昏衢寶炬也。

八關戒齋勝會緣起

祖意不明，出世無正眼。教法不講，修行無正路。齋戒不持，踐履無正功。末法通弊，其來久矣。予嘗謂有志之士，非明祖意，不足與論教法，非精教法，不足與課戒齋。此理悟事修之說也。若夫因戒生定，因定發慧，如來一代教門，不由斯戶，終難入室。樵李善信，倣佛制作六齋會，六日各修一行，初八放生，先充同體大悲，十四禮懺，其淨自他三障，十五誦經，種圓頓之聞熏，廿三究義，開自心之覺路，廿九坐禪，悟一心之本源，三十念佛，淨唯心之四土，終而復始，永矢弗諼。未種善根者，今當令種。已種善根者，今令增長。展轉誘化，漸次深入，熟於斯，脫於斯，原始要終，未嘗離此八戒齋法，庶幾末運為之一轉已。

退戒緣起并囑語

智旭生於萬曆己亥，二十四歲壬戌，為天啟二年，痛念生死事大，父未葬，母不養，決志出家。時紫柏尊者已寂園中，雲棲老人亦遷安養，憨山大師遠遊曹溪，力不能往，其餘知識，非予所好。乃作務雲棲，坐禪雙徑，訪友天台，念念趨向宗乘，教律咸在所緩。後因幾番逼拶，每至工夫將得力時，必被障緣侵擾。因思佛滅度後，以戒為師，然竟不知受戒事，何為如法，何為不如法，但以雲棲有學戒科，遂從天台躡冰冒雪，來趨五雲，苦到懇古德法師為阿闍梨，向蓮池和尚像前，頂受四分戒本。此二十五歲，癸亥臘月初八也。甲子臘月二十一，重到雲棲，受菩薩戒。乙丑春，就古吳閱律藏四旬餘，錄出事義要略一本，此後仍一心參究宗乘矣。戊辰春，雪航楫公，留住龍居，再閱律藏一遍，始成集要四本。己巳春，送惺谷壽公至博山薙髮，無異禪師，見而喜之，即欲付梓。予曰，未可也，是冬同歸一籌師，結制龍居，更閱律一遍訂成。庚午正月初一，然臂香刺舌血，致書惺谷。三月盡，惺谷同如是昉公從金陵回，至龍居，請季賢師為和尚，新伊法主為羯磨闍梨，覺源法主為教授闍梨，受比丘戒。予三閱律，始知受戒如法不如法事。彼學戒法，固必無此理，但見聞諸律堂，亦並無一處如法者。是夏為二三友盡力講究，不意或尋枝逐葉，不知綱要，或東扯西拽，絕不留心，或頗欲留心，身嬰重恙，聽不及半，其餘緣眾，無足責者，予大失所望。解夏後，結壇持大悲咒，惺谷以此書呈金臺法主，隨付梓人。次年予入壇持大悲咒十萬加被之，然已發念退休。越二年癸酉，安居作八關供佛像前，然香十炷。一夏持咒加被，自恣日更然頂香六炷，拈得菩薩沙彌鬘，深自慶快，願永作外護，奉事如法比丘。孰意末運決難挽回，正法決難久住，予又病苦日增，死將不久。追思出家初志，分毫未酬，數年苦心，亦付唐喪，撫躬自責，哀哉痛心。恐混跡故鄉，虛生浪死，故決志行遁，畢此殘生。以手書集要全帙，謹付徹因海比丘。仍涕泣而囑曰，嗚呼，佛法下衰，斯時為盛，毗尼一脈，不絕如絲。教道禪宗，尤為混亂，予數年苦心，未能砥狂瀾於萬一。僅成此書，并問辯音義各二卷，一文一字，罔敢師心，一義一法。咸符聖教，蓋不惟律部精髓，亦禪教綱維，由斯戶可升堂入室，執斯鏡可照膽辨邪。惜公根性稍鈍，僅知開遮持犯條目，未達三學一貫源委，且福相未純，智慧力薄，缺於辯才，短於學問，豈能即弘傳斯道。但念公之從予遊者五夏，有三事足取焉，幾番惡辣鉗錘，難堪難忍，絕無退心，縱未頓改舊觀，番番略有進益。有人如法受具，未肯細心行持，惟公聽集要後，輕重諸戒，悉思躬行。予癸酉甲戌，匍匐苦患，公獨盡心竭力相濟於顛沛中，毫無二心。充此三善之致，何必不可荷擔正法。但須解行雙修，戒乘俱急，虛其心，實其志，擴其眼界，牢其腳跟，盡在我

修持，任外緣自集，萬勿輕舉妄動，貽羞法門。儻煩惱未伏，慧眼未開，辯才未具，學問未充，縱有福運，須力卻之，況作意邀求邪。苦身形，堅願力，依念處而精進行道，以律藏為法身父母，臨深履薄，守茲一脈。儻遇英哲，當殷重付囑之，無其人，寧供塔廟尊像中，慎莫授非人也。天定能勝人，人定亦能勝天，予運無數苦思，發無數弘願，用無數心力，不能使五比丘如法同住，此天定也。然此思此願此心此力，豈遂唐捐，公若善繼吾志，敬守之，以俟後賢，庶幾亦可稱人定乎。始終不忘吾囑，千里同風，否則塵劫永隔矣，勉哉。

化持地藏菩薩名號緣起

吾人最切要者，莫若自心。世間善明心要者，莫若佛法。然佛法非僧不傳，僧寶非戒不立。戒也者，其佛法綱維，明心要徑乎。慨自正教日替，習俗移人，髡首染衣，不知比丘戒為何事。一二弘律學者，世諦流布，開遮持犯，茫無所曉，況增上威儀，增上淨行，增上波羅提木叉乎。又況依四念處行道，增心增慧，以成三聚五支者乎。嗟嗟，三聚五支不明，謂大乘僧寶，吾不信也。僧既有名無義，謂傳持佛法，明了自心，吾尤不信也。堅淨信菩薩憫之以問釋尊，釋尊倍憫之委責地藏大士，大士更深憫之，爰說占察善惡業報經。經曰，惡業多厚者，不得即學定慧，當先修懺法。所以者何，此人宿習惡心猛利，現在必多造惡，毀犯重禁，若不懺淨，而修定慧，則多障礙，不能剋獲。或失心錯亂，或外邪所惱，或納受邪法，增長惡見，故先修懺悔。若戒根清淨，及宿世重罪得微薄者，則離諸障。又曰，雖學信解，修唯心識觀真如實觀，而善根業薄，未能進趨，諸惡煩惱，不得漸伏。其心疑怯怖畏，及種種障礙，應一切時處，常勤誦念我之名字。若得一心，善根增長，其意猛利。當觀我及諸佛法身，與己自身，體性平等，無二無別，不生不滅，常樂我淨，功德圓滿，是可歸依。又觀己身心相，無常苦無我不淨，如幻如化，是可厭離。如是觀者，速得增長淨信之心，所有諸障，漸漸損減。此人名為學習。聞我名者，若雜亂垢心，誦我名字，不名為聞，以不能生決定信解，但獲世間善報，不得廣大深妙利益。嗟嗟，由此觀之，戒不清淨，二觀決不易修。二觀不修，一實何由證契。而欲戒根清淨，捨懺悔持名，豈更有方便哉。且持名一法，自其淺近言之，愚夫愚婦，孰不能矢口，自其深遠言之。不達法身平等，雜亂垢心，不得名為聞矣。故知以二觀為指南，能修二觀，方為聞菩薩名。以聞名為方便，真實持名，便是圓攝二觀，故名聞障淨。障淨戒得，戒得定慧發生，定慧而一實證入矣。明心

見性，是真僧寶，真傳佛法。吾輩生末葉，聞此真法，宜何如努力以自勉也。

成唯識論觀心法要緣起

夫萬法唯識，驅烏亦能言之。逮深究其旨歸，耆宿尚多貿貿。此無他，依文解義，有教無觀故也。然觀心之法，實不在教外。試觀十卷論文，何處不明心外無法。即心之法，是所觀境，了法唯心，非即能觀智乎。能觀智起，則二執空而真性現，所以若境若教若理若行若果，皆名唯識。而五位五觀，一以貫之，紛而不雜，蹟而不亂者也。慨自古疏失傳，人師異解，文義尚訛，理觀奚賴。鈍者既望洋而退，利者復蔑裂而求，四分之旨未諳，一心之宗徒設，三性之理未究，二諦之致安歸。賴有開蒙問答，梗概僅存，大鈔宗鏡，援引可據。而溯流窮源，則瑜伽顯揚諸論，尤黃河之有宿海。於是紹覺法師音義，一雨法師集解，宇泰居士證義，無不殫精竭思，極深研幾。然教道已明，觀道未顯。嗣有新伊法師，為之合響，力陳五觀，冠罩諸家。尚未刊行，僅獲染指。適二三同志，擬從能變所變差別之塗，以開性具性遍圓融之鑰，漫爾饒舌，兼命管城，不敢更衍繁文，祇圖直明心觀，隨講隨錄，用質大方。

序一

尚友錄序

予十二三即思尚友，廿四出家，益願得同學善知識。然但以直諒多聞為貴，正不念中孚之在虛，而夬履之貞厲也。碌碌七年，我不知人，人亦不知我，麗澤之懷，且為豐蔀所蔽，幾不自覺矣。舊歲夏初，惺谷壽公，見予白牛十頌，遂傾締千古，而予罔知有惺公也。半年餘每發諍論，我不能受益，公亦無由益我。仲冬再遇歸一籌師，方能照我所短，而奪我所守，然後日有開發。及新正又遇雪航楫公，我三人見其有可切磋處，遂力屈其我慢，拔其諂曲，頓令知有正修行路，彼益既大，我益倍深，歸惺二師，受益亦甚，從此始知友朋真樂。嗟乎，友道豈易得哉。惟心虛則明，明則能知人之長，知人而後直相與諒相信，多聞相熏。儻陳見橫於胸中，人不能益我，我亦不能益人，僅可作悠悠泛泛之交，安所得直諒多聞之實也。且如雪公與我久盟交五雲，歸師與我向識荊台岳，惺公與我亦既辯論於夏秋，而締盟雅契，皆俟今日始定，豈非昔者不虛為咎邪。然非歸師，不能令惺公益我，非惺公亦不能令歸師益我，而非

我，亦不能令歸惺二師互相得益，非我等三人，不能大益雪公，而非雪公，又不能令我三人皆得大益。生我者父母，成我者朋友，詎不信然。今以往樂多賢友，更何容生厭足心。是以錄唱和願文諸稿，用作尚友前茅。凡欲為千古極則人者，當不以辭之拙，而忽其心之苦也。

廣孝序

舜孝稱大，武周孝稱達。大以德為聖人，達以繼志述事，此世間孝之極致也。引而伸之，觸類長之，可論出世孝矣。出世孝，非聖中聖不能盡，惟大雄世尊，從初發心，深達曠劫因緣，觀六道眾生，皆我無始以來父母，而迷暗輪迴，頑嚚何止倍於瞽嫗。故僧祇妙行，直欲盡眾生界令其底豫，無不允若，則夔夔齋慄，又何止倍於大舜。是以正覺初成，木叉首唱，必以孝順為宗，此出世第一大孝也。次地藏大士，目連尊者，發僧那願，地獄頓同解脫，設盂蘭供，亡母即得生天，繼先人未有之志，述先人必應之事，此出世第一達孝也。我等既已發菩提心，行菩薩道，緬思各各生身父母，或生時不聞三寶，或雖聞不信，或雖信不解，或雖解不修。迨生從緣謝，報逐業遷，升沈九有，歷嘗三苦。斯時捨拔濟，更何所志，捨歸依，更何所事，繼之述之，責在當人。旻昭陳居士，廣修孝思，以真釋心行，作真儒事業，為二先大人，設妙供，行放救，取法名，求法語。此之薦度，豈僅一生七生父母得解脫，將盡法界一一塵中有一切世界海，一一世界一切眾生海，一一眾生一切眷屬海，無不解脫者。何以故，以同體故。此同體法性，悟之以為放生主，以報受生恩，以說無生話，迷之不克自全，而乞恩於賢達善信。人之所以異於禽獸者幾希，豈欺我哉。言念昔者，喪慈父而捨悲母，跡固異，心實同。睹茲勝舉，愴然在懷。有廣孝一偈，不免為居士拈出，空中幻色惟蝴蝶，靜裏閒聲有竹雞。莫道故園消息斷，落花流水滿前谿。

長干寶塔放光序

世固有極真之事，偽士疑之，則竟成偽矣。亦有極偽之事，真士信之，則竟成真矣。真偽本無實法，唯是當人自心現量。試觀四果證於沙彌之戲擲，空法悟於乞士之默逃，學道之於真信尚矣。末世眾生，濁智熾然，偷心常轉，既不自信，亦且疑他。談人過則神動色飛，稱人善則反脣露齒，無惑乎念與悲隔，愈趨愈冥也。大報恩塔，莊嚴為天下第一，天龍所翼，眾生善根所依持。故落成而顯奇

瑞，載諸國史，隨感而舒寶光，傳諸耆老，本非怪誕，安所狐疑。獨於碧輝上人，求光得光一事，則群然誹之。夫上人見光，有同見者，藉曰大眾共感，不應獨擅。豈不知同體法性，如鏡光相攝，互入互融，世尊處眾會，人人各對於佛，咸謂如來獨與說法，上人謂塔獨與放光，亦何過焉。復有舉上人生平以議者。予曰，得見塔光，即夙因深厚，設欲疑上人，柰何并疑塔乎。予則以信塔，而并信上人。偈曰，

佛光本常住，如月在虛空。眾生心水淨，隨方影現中。信為水清珠，能清濁智水。懺悔既深誠，感應無方軌。善哉碧輝公，心通妙翠堵。燈像現如雲，蓮花下如雨。此名真實光，此名常寂光。未明真幻義，安事漫籌量。我知一切法，無假亦無真。但願信得及，攜手光中行。

沙彌持犯考序

楚生員署冥府第七殿，閱冊，見妻盜鄰雞，急令相還，罪款遂失。夫俗人造罪，是其分內，猶莫逃陰鑒如此，況沙彌隨佛出家，同僧利養，十種淨戒，盡壽誓持。柰何不時時自考，乃令冥府司權邪。然則斯格也，上士雖不必記，正不妨記，中士必勤記之，下士實不能記，乃藉口於不必記，夫烏知有記之者矣。

大比丘持犯考序

浮囊五喻，正喻比丘五篇，是宜輕重等護。而世顧藐為小乘，戒身既損，定慧何從，無惑乎行果俱喪，竟成末運也。經云，持者不作像法滅盡想，能令正法永不斷滅。豪傑之士，無待而興，佛既不以遠近論親疏，又豈以先後分時劫。願我同志，各念比丘體尊，毗尼難值，幸獲堂堂僧相，應遵別別木叉。先悔過，後誦戒，方合長淨之科，僧輪增盛，佛法得弘矣。但比丘戒相獨繁，且罪名罪種，並不合與未受人知。故祇列篇次數目，其持者自應熟四分戒本，及律藏全書，茲不詳。

刻淨土懺序

無淨無穢，儻侗真如，即穢即淨。顓頊佛性，信釋迦之誠語，悟法藏之願輪，始知若律若教若禪，無不從淨土法門流出，無不還歸淨土法門。予初志宗乘，苦參力究者數年，雖不敢起增上慢自謂到家，而下手工夫得力，便謂淨土可以不生，逮一病濱死，平日得力

處，分毫俱用不著，方乃一意西歸。然猶不捨本參，擬附有禪有淨之科。至見博山後，稔知末代禪病，索性棄禪修淨，雖受因噎廢飯之誚，弗恤也。於今專事淨業，復逾三載，熾然捨穢取淨，與不取捨元非異轍，較西來祖意，豈不更直捷邪。每痛末世狂禪，鳥空鼠即，不惟撥無淨土，亦乃謗讟宗風。季清居士，因佛日寺，刻六宗，遂任淨土一門，即從懺儀始。此書十科行道，五悔練心，徹事理之源，極性修之致，如然和香一丸，飲海水一滴，何香不具，何水不沾。爰為之序。

雲麓居士持金剛經序

五度如盲，般若如導，行如足，慧如目。目足並運，入清涼池。此金剛般若經，所以為萬行司南，大乘正戶也。世不達實相印，妄談無相宗，謬執即非一語，罔識是名指歸。萬行既無，正解亦喪，讀誦講說，皆為誹謗。可歎矣。譬自刖其足，致遠何由。遺棄眾盲，導師何用。於法不說斷滅相，佛語昭然，胡弗思也。夫色即是空，非撥色覓空，無有法得菩提。而授記作佛，四句百非，直下頓絕，奚勞用龜毛帚，埽虛空花影邪。持戒修福，於此章句，方能生信心。後五百歲，如是受持讀誦始得。

刻寶王三昧念佛直指序

念佛三昧，為如來勝異方便，凡聖均收，利鈍悉被。以一念直歸佛海，至圓至頓，第一了義故也。而迷義徇名者，見五逆眾惡十念往生，反以為專攝凡劣，但化鈍根，可謂昧佛妙旨，謗讟深經矣。予慨末世行人，多疑多障，難悟難開，於深妙法門，非著事忘理，必執理撥事。著事者猶堪下品生因，執理者竟淪惡取空見。至此而直指之道，翻成斷滅深坑。非藉金錙，誰抉翳膜。妙協導師，法紹宗乘，教興蓮社，應永明角虎之記，暢寶王三昧之談，境觀並彰，纖疑悉破，闡唯心之致，依正宛然，示自性之源，感應不忒。俾達者以理融事，而理非事外，愚者因事入理，而事挾理功。誠除惑前茅，生西左券也。二百餘年，流通機塞。蓮大師欲見未能，而願力不磨。韓居士從萬融禪師處得之，予獲借讀，如飫醍醐。悲劫濁方殷，喜津梁有在，急謀付梓，以廣厥傳。普願見聞隨喜，種樂土圓因，讀誦思惟，證寶王法印，轉相曉悟，共脫沈淪，庶不負希有良緣已。

印禪人閱台藏序

教觀之道難言矣。尚慧辯者，汪洋若大海。其流弊也逐流忘源，令鈍根增望洋之歎。崇修證者，致精如鐵櫪，其失意也守株待兔，令無聞招暗證之譏。惟智者悟法華三昧，得旋陀羅尼，九旬談妙，極教網之幽深。十乘修心，備觀門之攸致。燈燈相續，祖祖相傳。駕賢首慈恩而獨盛，並黃梅少室而爭芳。心印昭於日月，傳習遍於華夷。而部帙最大者有三，曰法華玄義，法華文句，摩訶止觀。玄義文句，教正觀傍。止觀一書，教傍觀正，永無說食數寶之愆，高超暗證無聞之禍。荊谿大師闡揚之，翼玄義曰釋籤，翼文句曰妙樂，翼止觀曰輔行。誠佛祖慧命，眾生眼目。古云，台教存，則佛法存，台教亡，則佛法亡，非欺我也。末世行人，障深根鈍，學淺志劣。鹵莽滅裂，僅塗口耳。惟消文貼句，將就苟且，作名利資糧。語佛法淵源，聖賢道脈，咄嗟曰，人生幾何，能作窮年皓首活計邪。不思隙駒幻影，名利何裨。苟可契於真源，尚當矢之永劫。況法無繁簡，迷悟在人。一句不了，勞匍匐於千山。曠劫緣臻，得總持於瞬息。稍有血性者，決不忍自暴棄，失此甘露門也。

寓菴序

聲聞四枯，菩薩四榮。正眼觀之，名為八倒。有句無句，雙亦雙非，悉檀說之，名為四門。通此可論六合之內，議六合之外矣。法華經云，三界無安，猶如火宅。又云，大火所燒時，我此土安隱。靈鷲一峰，果在三界外，抑在三界內邪。是故四依大士，具論四種淨土，必先明橫豎之致。豎則土土相殊，橫則土土相即。惟其殊也，故見思未盡，不離同居。塵沙未盡，不離方便。無明未盡，不離實報。惟其即也，故九界眾生，應念能睹佛境。圓滿妙覺，時時應現十方。應地獄以惡逆，有閒無閒是其寓。應餓鬼以慳貪，曠野山澤是其寓。應畜生以愚癡，水陸空界是其寓。應修羅以憍慢，須彌大海是其寓。應人道以五戒，四洲諸處是其寓。應欲天以十善，地居空居是其寓。應色無色以禪定，四禪四空是其寓。應聲聞以諦智，應緣覺以還滅，方便有餘是其寓。應菩薩以六度萬行，實報無障是其寓。彼能應者，隨寓而安。迺所應者，則隨寓皆著。是故凡夫永劫沈三界。二乘恒墮無為坑。地前大士，同滯有餘。入聖高流，猶在果報。方其寓也，不知其寓也。嗟嗟，故鄉之夢，尚未全醒。客次之居，寧為究竟。惟有秉隨智教，作稱性觀，悟寂光於介爾，始可辨寓義之真實矣。夫謂之寓，則一切法趣寓，身土一如，理事平等。斯亦究竟寓也。一究竟一切究竟，實報方便同居無非真淨。降此而分證，而相似觀行名字，淺深之致異，所達之理同。苟昧此理，則誤認真實，固屬凡情。了知如幻，終名偏解，豈有當於

寓義耶。映渤開土，名其室曰寓菴，毗邪丈室，彌勒寶樓。予拭目俟之矣。

修淨土懺并放生社序

淨土法門，原為眾生迷本自性，不知常寂光理，生死浩然，無有休息，故藉彌陀勝願為增上緣。因其淨土，有寂光實報方便同居四種。而上三土，非斷惑不生，還同豎出三界之義。故特指西方安養同居，使利根即此頓淨四土，鈍根亦依此先脫苦輪。雖誠簡易，亦非草草。彌陀經云，不可以少善根福德因緣得生彼國。一日乃至七日，執持名號，一心不亂，即得往生。夫一心不亂，縱未斷惑，可不伏惑邪。儻娑婆事業，在在牽繫，遇五欲時，如膠如漆。遇逆緣時，結恨懷冤。而欲命終彌陀接引，此決不可得之數也。又觀經云，逆惡之人，臨終十念皆得往生。夫臨終十念，必深植善根。今逆順境緣，便不復有正念，何況臨終。且臨終苦現，止藉善友提撕。今青天白日，尚不能於明師友真實格言，信受奉行，當臨終時，安休善友現前。設現前開示，神識昏迷，而欲求其信解，此又決不可得之數也。至五悔法，本為無知造罪，無可柰何，教以發露披忱，修來改往，逆順十心，痛切懇到，非可視為悠悠泛泛者。兼以四法助成此行，勸請滅謗法魔障，隨喜滅嫉妒重障。迴向滅慳貪著三有障，發願滅退失喜忘誤障。更有作法取相無生三種懺義。作法依律所說對首懺悔。取相嚴淨道場專求感應。無生深觀實相斷煩惱源。儻旋懺旋犯，作法之所不許。既不能依律作法，必不招賢感聖。既不睹聖賢一色一相，又何能頓證聖賢清淨法身。故三種法，前前不兼後，而能通後，後後必具前，而不廢前也。由此觀之，淨土法門，藥也。娑婆愛瞋，忌也。五悔法門，藥也。不斷相續，忌也。甫服其藥，又觸其忌，可乎。慈雲大師合此二種巧妙方便，述為往生懺儀。且云行人各有無始惡習，速求捨離，勿使行法唐喪其功，藥忌昭然，亦可思矣。或謂聞白毫名字，功德不可限量。聞一佛二菩薩名，滅無數劫罪，豈現前惡法所能較敵。噫，誤矣。不觀占察經邪，經稱地藏菩薩大悲願力，諸大菩薩皆不能及。其言曰，能聞我名者，謂得決定信，利益行故。若雜亂垢心，稱誦我名字，不名為聞，以不能生決定信解故。蓋雜亂則無定，不與奢摩他相應。垢則無慧，不與毗婆舍那相應。不與二觀相應，則不知地藏法身，諸佛法身與自己身，無二無別。故不名為聞也。智者大師釋十六觀經題，必約三德祕藏。釋法華經題，乃以九旬談妙。故曰若聞首題名字，所得功德，不可限量。若不如所解釋，安獲無量功德。今雜亂垢心，聞猶不聞。現行煩惱，熾然不息。以此脫苦，杯水投

車。逮臨終無驗，翻疑佛法不靈。自誤誤他，墮謗法罪。如服藥食忌，反致喪身，遂謂醫王殺人，顛倒至此極矣。獨放生一事，捐所愛資財，以贖彼命，弊端略少。然或重視大形，於微細蛆蟲邊，生下劣想。或多視微物，於現前屠宰者，起慳吝心。或留意異類，偏於人中妄隔怨親，愛憎不息，既昧平等慈心，無以為念佛禮懺之本。智者大師云，雖入道場懺悔，惡心不轉，惡業不壞，無益苦行，唐喪劬勞，確曰上下，竟有何益。雖舉手低頭，皆成佛道，戲著袈裟，猶為遠因。豈六時勤苦，全無功用。但緣因力弱，不能敵現業流注耳。象巖開士，結往生懺社，買放生命，悲智並運，將此菩提心，為往生正行。予申其說而示之。

聞修社序

麗澤之誼不講，性命之學必荒。儒重以文會友，以友輔仁。佛稱善知識者，是得道大因緣，全梵行。世出世法。未有不以友朋為急務者。時之衰也，社以詩酒登臨，縱耳目之欲，長放逸之門，不惟儒者為然矣。嗟嗟，剃髮染衣，群居終日，將欲何為。縱不至耽花嗜酒，而尋章摘句，僅塗口耳，幾時識心達本源邪。或者因噎廢飯，遂單尚蒲團活計，未明道眼，又乏切磋。設非釘椿搖櫓，空喪天日，必至起見起慢，落塹墮坑，暗證邪禪，病尤甚於說食數寶。自非真實有智慧，徹底為生死者，孰能出此二種牢關，別作一番究竟也。一乘開士，法海求寂，目擊流弊，心切遠憂。締一法社，每季三日，導以懺摩，質以經論，目足並運，速入清涼。向予問名徵序，予合掌隨喜，目曰聞修。聞生實慧，如膏助火。聞法不修行，如聾奏音樂。今自修於九旬，互聞於三日。三日猶不廢修，九旬自不缺聞。從聞起修，思不待言矣。三慧自淑，三慧相勉。以三慧堅其志，虛其心，實其腳跟，防其流弊。正法再朗，此一舉也。

淨信堂初集自序

丙寅夏，先慈捐世，即焚棄筆硯，後因閱藏暫開。荏苒復經八載，日積月累，狼藉遂多。門人好事輒隨錄之，不足存，亦不足毀也。夫孺羊茹退，物之至賤，隔日瘡者，塞鼻便痊。今天下寒熱於愛見者多矣。予言無似，安知不可與羊矢同奏功乎。迺刪繁蕪，始未出家一二殘稿，止丙子入山前，名淨信堂初集。儻以耆婆眼視，亦當置藍空回，曾何非藥之可採哉。

刻三千有門頌解後序

北齊大師，得龍樹中論之道，一傳南嶽，再傳智者，而教觀始著，權實理明，解行俱妙，真傳佛心印，冠羣宗者矣。唐荆溪，宋四明，咸稱中興教主，故使火宅蓮華，同服甘露，梁肅陳瓘，皆其人也。元明以來，此道不振，或有教無觀，如貧數寶，或有觀無教，以凡濫聖。神廟初年，妙峰老人起而唱之，一齊眾楚，傳不勝咻。開之馮居士，乃力請解有門頌以為士君子風，師辭達理瑩，緇素翕然向化，於今又六十年，古板不復睹矣。予念重闢草萊，實賴妙師開之二大士，故復較梓，以報法恩，并附瑩中上明智書，互相發明。讀者苟知介爾有心，即是不思議有，即是妙假，即是圓教初門，即是法界，具足三千諸法無欠無餘，豈非直指人心，見性成佛，豈非不思議境，圓具九法，成一大乘，不生退屈，不生上慢者邪。噫，苟不讀此，安知三大五小之妙。苟不精熟三大五小，亦安知此頌此解之妙也哉。

四書蕩益解自序

蕩益子，年十二談理學，而不知理，年二十習玄門，而不知玄，年二十三參禪，而不知禪，年二十七習律，而不知律，年三十六演教，而不知教。逮大病幾絕，歸臥九華，腐滓以為饌，糠粃以為糧，忘形骸，斷世故，萬慮盡灰，一心無寄，然後知儒也，玄也，禪也，律也，教也，無非楊葉與空拳也，隨嬰孩所欲而誘之。誘得其宜，則啞啞而笑，不得其宜，則呱呱而泣。泣笑自在嬰孩，於父母奚加損焉。顧兒笑則父母喜，兒泣則父母憂，天性相關，有欲罷不能者。伐柯伐柯，其則不遠。今之誘於人者，即後之誘人者也。儻猶未免隨空拳黃葉而泣笑，其可以誘他乎。維時徹因比丘，相從於患難顛沛，律學頗諳，禪觀未了，屢策發之，終隔一膜。爰至誠請命於佛，鬻得須藉四書助顯第一義諦，遂力疾為拈大旨，筆而置諸笥中，屈指十餘年，徹因且長往矣。嗟嗟，事邁人遷，身世何實，見聞如故，今古何殊。變者未始變，不變者亦未始不變，尚何一分無常，一分常之邊執也哉。今夏述成唯識心要，偶以餘力閱舊稿，改竄未妥，增補未備，首論語，次中庸，次大學，後孟子。論語，孔氏書，故居首。中庸大學，皆子思所作，居次。子思先作中庸，戴禮列為第三十一，後作大學，戴禮列為第四十二。大學章首在明明德，承前章末予懷明德而言，本非一經十傳，舊本亦無錯簡，王陽明居士已辨之矣。孟子學於子思，故居後。解論語曰點睛，開出世光明也，解庸學曰直指，談不二心源也，解孟子曰擇乳，飲其醇存其水也。佛祖聖賢皆無實法綴人，但為人解粘去縛，今亦不過用楔出楔，助發聖賢心印而已。

序二

梵網合註自序

大哉，梵網經心地品之為教也，指點真性淵源，確示妙修終始，戒與乘並急，頓與漸同收，約本跡橫豎俱開，兼華嚴法華之奧旨，約觀行事理俱備，攬五時八教之大綱，文雖僅傳一品，義實統貫全經。緬惟智者大師之時，人根尚利，既廣宣教觀法門，乃僅疏下卷戒法。大師精諳律宗，文約義廣，點示當年之明律者則易，開悟今時之昧律者則難。千有餘年，久成祕典。雲棲為之發隱，於疏仍多闕疑。又下卷雖獲流通，上卷猶未開闡。嗚呼，四依大士，於法豈有吝心，眾生緣薄，罕邁希有法門耳。智旭幼崇理學，千古為任，但恨障深慧劣，執東魯而謗西乾。後聞自知錄序，并良知寂感之談，始發信心。嗣聞地藏本願，聽大佛頂，猛圖出世，矢志參禪，逃家行腳。雖數發悟解，剋證無期，賴有慚愧正因，不敢錯下承當，生增上慢，以蹈邇來大妄語之覆轍，爰念宿因力薄，應兼戒兼教以自熏修。於是探法華玄義，摩訶止觀等書，私淑台家教觀。而毗尼一藏，細閱三番，梵網一經，奉為日課。遂於發隱闕疑，渙然冰釋。即上卷文古義幽，昔稱不能句讀者，妙旨泠然現前。因擬合註，補前人之缺。此志雖發，緣障多端，六七年來，悠悠未遂。客歲大病，方遁入山，適如是昉公，從閩來尋，為其先師請講此經，同志歡喜。由是力疾敷演，不覺心華開發，義泉湧沸，急秉筆而隨記之，共玄義一卷，合註七卷。註成，序本末以告來哲。蓋夙有微因，今復久誦，半生淹洽，不無千慮一得，故於理觀事相，不惜一一指陳，誠可勸開解篤行者之半臂也。後之覽者，勿以繁瑣而厭忽之，俟解行雙圓，歸諸筏喻可耳。

讚禮地藏菩薩懺願儀後自序

大法久湮，人多謬解，執大謗小，舉世皆然。然地獄眾苦，已隨其後，瘖啞餘報，復更難窮。故地藏慈尊，大集會中，現聲聞相，世尊廣歎勝德。且較云，假於彌勒妙吉祥觀自在普賢殞伽沙等大菩薩所，百劫至心歸依，稱念禮供，求諸所願，不如一食頃，歸依稱念禮供地藏菩薩，以久修堅固大願大悲，勇猛精進過諸菩薩故也。蓋末世駕言大乘甚易，躬行僧行實難。寧知廢小談大，并大亦非，悟

大用小，即小本勝。故法華誠弘經者，必依四安樂行，涅槃極談常住佛性，尤扶戒律，大士功德獨盛，得非亦在此乎。智旭深憾夙生惡習，少年力詆三寶，造無閒罪，賴善根未殞，得聞本願尊經，知出世大孝，乃轉邪見而生正信。仍以謗法餘業，辛勤修證，不登法忍。每展讀大士三經，輒不禁涕泗橫流，悲昔日之無知，感大士之拯拔也。因念濁智流轉之日，同此過者不少，敬宗十輪并本願占察二典，述此儀法，庶幾共滌先愆，剋求後果，不終為無依行乎。未登無生正位，皆可修之，無論初心久學也。

安居止觀山房序

予商大佛頂經，至五卷云，佛法從因緣生，非取世閒和合粗相，頓悟法華佛法從緣之旨。二經妙指，何巧出一轍也。智者證法華三昧，攬本跡十妙，圓歸介爾一心，示摩訶止觀法門，與今經妙奢摩他三摩禪那，若合符節。後箋斯典者，無慮數十百家，捨摩訶止觀，別立宗塗，轉趨轉遠。良以摩訶止觀，的是如來大事因緣，非世閒和合粗相。請言之。性覺妙明，本覺明妙，寂而常照，照而常寂，非止觀不二之真源乎。迷此真源，寂體成昏，照體成散，是不變之性隨染緣而成九界。悟此昏散，散既本寂，昏亦本照，是不變之性隨淨緣而成佛界。雖成佛界，真源不增，雖成九界，真源無減，是隨緣之理，歷染淨而終不變。夫隨緣即不變大事之因也，不變即隨緣大事之緣也。故曰如來發明世出世法，知其本因，隨所緣出。知其義者，方知心佛眾生，三無差別，亦知六而常即，修非性外。即而常六，性不廢修。修非性外，不墮因緣。性不廢修，不墮自然。世有徒聞止觀之名者，妄謂但屬修成，豈識性修不二真趣邪。予出家行腳，取益無方。於此經不曾掛一字腳，不曾離卻一字。後讀台教，每引占察經。占察示一實境，則一大事因。示二種觀，則一大事緣。愈信如來密因，菩薩萬行，一門超出，無二無三，誠不我欺。每拈此義，點示未聞，隨其根性，各獲法喜。噫，儻吾與諸友不同具此因，則法性了不相關，不久種此緣，則說聽豈能投契。智者遙禮此經，十八年不獲見。後百餘年，般刺密諦剖膊傳來，二大士苦心，豈為行墨者添葛藤哉。必教觀齊彰，因指見月，由斯典而通止觀，由止觀而徹信吾言不誣。則今九旬結夏，真塵劫緣因矣。更拈一頌，以裨妙觀。頌曰，未歇狂心頭亦在，已瞻華屋戶寧窮。密因徹悟無生滅，萬行方知究竟同。

絕餘編自序

生平行履，百無一長，獨大菩提心，忘身為法，捨己從人，則堪質三世慈尊者也。自庚午至甲戌，五年中，幾經困衡無退。迨乙亥仲秋，志終不伸。丙子春乃遁。塗中大病，逗遛九華，哀禱地藏本師，仍得閱藏著述之決。嗟乎，文字性空，性空即是實相。實相離一切相，即一切法，豈離文字而解脫哉。昔棄筆硯絕而不絕，今也不絕而絕矣。姑名絕餘。

勸持大佛頂經序

三因性德，絕待遍常。悟性成修，名為圓通。現在惑業苦三，便是教行理經正體，而迷強者日用不知。故依實相而垂文字，依文字而資觀照。觀照文字，皆實相也。實相觀照，皆文字也。文字實相，皆觀照也。當體實相，當體文字，當體觀照。實相常，文字觀照亦常。實相遍，文字觀照亦遍。實相覺，文字觀照亦覺。實相尊，文字觀照亦尊。實相不可見，文字觀照亦不可見。實相不可無，文字觀照亦不可無。嗚呼，已悟實相者，容可不藉文字。未達實相者，寧容不勤觀照哉。已深觀照者，知無實相外之文字。未精觀照者，安知文字中之實相哉。然雖不知文字之實相，而實相未嘗不即文字也。大佛頂經，智者大師拜之以畢身，般刺尊者傳之以剖膊。非以實相觀照，均藉文字為緣邪。或曰，聖人與其不可傳者往矣，所傳者糟粕耳，則未達實相觀照文字互即互遍之旨者也。昔算師以訣授子，子誦不能用。有人從學句讀，算與父勒，謂訣有巧乎，何子誦弗知。謂訣無巧乎，何人學能算。且無子之誦之，人又烏從學之。吾固不願人厥子若也，然若厥子猶勝於不誦者也，況法力不可思議，佛力不可思議，性覺之力不可思議。不思議熏，不思議變，其為成佛真因，豈算訣所能喻哉。

勸持梵網心地品

夫有心者皆得作佛，則皆為佛戒所攝。既為佛戒所攝，胡容不誦此戒法。此戒法名為心地品者，心外無法，法外更無心也。故又云，不受戒者，如木石無心，名為外道。噫，可思矣。今人高談心性，妄謂戒不必受。逮肯受者，又茫不知心性為何物。一義甫晦，兩病旋生。狂談之心，固非真心。愚稟之戒，亦豈真戒。但事能挾理，戒善猶可遠作緣因。理不孤立，空談適為邪見張本。所以涅槃後唱，扶律為宗。梵網初成，本又先結。心地一品，尤末劫津梁，昏衢寶炬哉。予憫了因果沙彌福慧俱缺，勵以日課斯品，稍沾法喜，思勸同仁。經云，菩薩常應化一切發菩提心。若不發教化眾生心

者，犯輕垢罪。果也勉之，堅其神，強其志，恆其操，篤其行。盡大地有情，咸歸心地法門，莫以三千為畢竟也。

化持大佛頂神咒序

摩訶悉怛多般怛囉無上神咒，既入支那，習為日課此方大乘緣種，可謂強矣。但積訛相傳，有稱悉怛多般怛囉六字為咒心者。有謂此是咒名，別取哆姪他以下數句，為咒心者。杜撰無據，抗佛慈旨，均可痛也。經極談咒心功德，而謂昏未能誦者，當書供禪堂，或帶身上，初不聞以數句為咒心也。儻僅數句，何至心昏不憶，以書寫供佩為佛事邪。蓋十卷明文，顯示如來藏心，五會神咒密詮如來藏心。顯密雖殊，心性理一。全心成咒，全咒傳心，故名心咒，亦名咒心耳。解天禪人，廣勸真信力行之士。或全持，或全寫，以自供佩及轉施人，期借神力顯發自心一振末世之訛，同登灌頂之記。阿難為眾重請，如來放光重說，護法述願請加，金剛藏王曠劫隨逐，收功皆在此矣。

周易禪解自序

蕩益子結冬月臺，禪誦之餘，持韋編而箋之。或問曰，子所解是易邪。余曰，然。復有視而問曰，子解非易邪。余曰，然。又有視而問曰，子解亦易亦非易邪。余曰，然。更有視而問曰，子解非易非非易邪。余曰，然。侍者笑曰，若是乎，墮在四句中也。余曰，汝不聞四句皆不可說，有因緣故，皆可說乎。因緣者，四悉檀也。人謂我釋子也，通儒能解易，則歡喜焉。故謂易者吾然之，世界悉檀也。或謂釋子何解易以同俗儒，知所解之非易則善心生焉，故謂非易者吾然之，為人悉檀也。或謂儒釋殆無分也，若知易與非易，必有差別，雖異而同，雖同而異，則僂佻之病不得作焉，故謂亦易亦非易者吾然之，對治悉檀也。或謂儒釋必有實法也，若知非易，則儒非定儒，知非非易，則釋非定釋，但有名字而無實性，頓見不思議理焉，故謂非易非非易者，吾然之，第一義悉檀也。侍者曰，不然，若所解是易，人謂易可助出世法，成增益謗。若非易，人謂師自說禪，何嘗知易，成減損謗。若亦易亦非易，人謂儒原非禪，禪亦非儒，成相違謗。若非易非非易，人謂儒不成儒，禪不成禪，成戲論謗，烏見其為四悉檀也。余曰是固然。汝不聞人參善補，而氣補者服之立斃乎，大黃最損，而中滿者服之立瘥乎。天之育萬物也，物固有遇春而爛者，夏之長養庶品也，草亦有夏枯者，秋之肅殺也，而菊有花，冬之閉藏也，而松柏青，梅英馥，如必擇有利無

害者而後為之，天地不能無憾矣。且佛以慈眼視大千，群機已熟，然後示生，猶有魔波旬亂之，九十五種妒之，提婆達多思中害之，豈惟堯舜稱猶病哉。吾所由解易者無他，以禪入儒，誘儒知禪耳。縱不得四益，起四謗，如從地倒，還從地起。置毒乳中，轉至醍醐，厥毒仍在，遍行為外道師，薩遮為尼犍主，意在斯也。侍者再拜謝曰，此非弟子所及也，請筆而存之。

大佛頂經玄文後自序

至矣哉，大佛頂經之為教也。依妙性而開妙悟，起妙行而歷妙位，成妙果而歸妙性，永超七趣沈淪，不墮修心歧徑。戒乘俱急，頓漸兩融。顯密互資，事理不二。誠教海司南，宗乘正眼也。旭年二十三，歲在辛酉，創獲聞熏，決志離俗。次年剃染，坐禪雙徑。每遇靜中諸境，罔不藉此金鐔。乙丑丙寅兩夏，為二三友人逼演二遍，實多會心，願事闡發。以志在宗乘，未暇筆述。己巳春，與博山無異師伯盤桓百日，深痛末世禪病，方一意研窮教眼，用補其偏。雖遍閱大藏，而會歸處不出梵網佛頂二經。越七年丙子，抱病竄居九華。次年有同志數人，樂聞此經要旨，一番商究，會心更多。戊寅結夏新安，重拈妙義，加倍精明。今夏弘法溫陵，誦帚昉師，及一切知己，堅請疏解，發前人未發。予謂此經舊解多矣，多指益復眩眼耳。昉曰，不然。藥無貴賤，起病者良。法無精粗，救時為要。痛茲末世，宗教分河，盡謂別傳實在教外，孰知教內自有真傳。縱令截去指頭，依舊不曾見月。每聆吾師豎義，痛快直截，實與本分宗旨相應，並不蹈襲前人窠臼。始信不離文字而說解脫，非欺我也。何忍祕此妙悟，不以全體示人，吾師於法有慳心乎。於時復有修白慕公，若水輪公極力勸成。予感其意，兼理夙願，述為玄義二卷，文句十卷，固不敢矯古人而立異，亦不敢殉古人而強同。知我罪我，聽諸高明而已。

悅初開士千人放生社序

予幼崇理學，知天地之大德曰生，惻隱為仁之端，翻疑釋氏侈談無生，不近人情。稍長見儒者雖言民胞物與，及其恣口肥甘，則競託遠庖廚為仁術，曾不能思刀砧號叫之苦也。雖不忍一念，必不可滅。然為貪忍異說所蔽，終不能伸。而放生嘉會，每創自釋子。且推歷劫親緣，視以同體四大，究極以皆有佛性。其為好生懿德，必使大地含靈，盡證無生而後已。噫嘻，由此言之，非達無生，曷能好生。非真好生，曷證無生也哉。從此不顧名教，飄然薙髮。蓋誠

有見於出世大慈大悲，方是大忠大孝，大仁大智，故不肯以夜郎自封也。悅初開士，誓勸千人放生，同修慈心三昧。予謂此三昧，當使剎塵共證，何止千人。千人云者，且就凡夫現前分量所及而已。千數既畢，頂禮千佛，俾六道悲仰，與諸佛慈力，果徹因該。供養千僧，俾悟事理和融，生佛不二，好生無生。若事若理，皆已豎窮橫遍矣。

贈衍如兄序

嘗慨末世士，機械日深，去道日遠，名相之心日以重。取益之方日以微，求忘機械，略名相，熙怡自得，不為習俗所染者，衍如琳公，其庶幾乎。公鄞南名族顏氏子，剃染於虎磑，遂舉千古垂廢之道場，而鼎新之。住持十五載，百務俱備，乃發足操方。初至武林，參似空金臺諸法主。次至吳中，晤漢月頂目等諸禪德，稟沙彌戒。次達留都，詣古林菴圓戒。理歸裝，邂逅雪關閭公，登黃蘗山謁隱元琦公，最後乃師事聞谷老宿，定法名，習禪坐，重證戒品。而掛錫開元之甘露戒壇，適余至，公大慶，為余率眾解制。余到岱山，公先往，俟講事完，力拂虎磑仙亭諸子之請，仍與予岱山結夏。每觀世人，稍營一窟，便欲作久安計。今虎磑仙亭，皆表表名剎，公飄然不以繫心，豈無所見而然哉。然遊戲解脫，蕭然物外，僅可自利，未可利人。且公廣參知識，以聞谷老宿為宗，又憾晤余之晚，余無似，姑置。公試思，今時學人，罔不未得言得，未證言證，而聞老偏把定要津，坐斷狂禪舌頭。故智者有言曰，真寂之於雲棲，譬有若之於孔子也。公何不紹其芳規，兼律兼教，以念佛求生淨土為指歸。設有宗門種草，不妨令其苦參實究，但痛戒其捕影掠虛。漳南佛國，深望公一振其頽，寧直作散聖家風，圖無事累心而已。

贈純如兄序

眾祐有言曰，善知識者，得道大因緣，是全梵行。夫隨其所修一種法門，自利成就，足範後昆者，教授善知識也。辦真實出世心，修三乘出世法，所志無乖，所見無戾者，同行善知識也。善護三業，克供四事，俾行人得安心辦道者，外護善知識也。予自壬戌出家，於今十九年矣，學無常師，交無常友，根鈍力微，每藉境緣自鍊，見善思企而罔及，見惡內省而多慚，於三種善知識中，惟教授最多。蓋三人行必有我師，況世出世法各有所長者乎。又況久相結契，如曹源之勤學，雪航之婆心，惺谷兄之辣手，誦帚師之篤信，

歸一師之孤峭，修雅師之恬退者乎。又況會事參謁，如無異師之慈悲廣大，聞谷師之謹嚴鎮靜，無盡師之弘揚教觀者乎。又況湛明師引進雪嶺師剃度，戒宗師授沙彌戒，古德師授菩薩戒，乃至憨大師之書問慰誘，夢寐神交，頻相策發者乎。若同行善知識，生平止得一人，譬如鎬兄是也，外護善知識，於松陵得一人，曰鑒空寧公，於吳門得一人，曰竺璠淨公，今丹霞得一人，曰純如白公。寧公之護予默關也，身為侍者，不令緇素一人，輒來擾予。淨公之護予結壇也，百一所需，無不畢具，然猶曰子爾微軀，主道尚易易耳。今同志數人，結夏岱山，相與專辦己躬下事，二時課誦，亦不應酬。令我同志，無不優遊坐進斯道，較前二公，已為大難。且淨公僻在密滲之禪，寧公雖趨向持戒，力所瞻者，不過營福一塗。公則尊賢容眾，雅量冲懷，已足補吾所短，而虛心樂善，雅慕佛法，尚可慰吾同行之思。豈寧淨二公所能及哉。昔楊歧直院十年，兒孫滿地，四明一學人，請教觀於法智大師，命理常住事三載畢，重申前問。師震威一喝，頓悟性具圓宗。實力比丘，迦葉佛所，願於釋迦佛時知僧臥具第一，乘本願力，以童子出家祇園，見客比丘來去紛雜，重發願云，我年二十進具戒後，當理此事。及進具證果，念空無相無作三昧，此願將息。佛以夙願責之，遂畢世知僧臥具。客比丘來，皆親授房舍。初更時到，放一指光。二更時到，放二指光。乃至五更時到，放五指光，普為十方大眾諸佛菩薩之所稱歎。念念入定放光，念念出定慰客，所謂善入出住諸禪三昧者也。然如此神通作用，究竟豈離吾人現前一念。故云能觀心性，名為上定。純公於此，驀然薦取，則實力四明楊歧鼻孔，乃至三世諸佛鼻孔，俱可一串穿卻矣。

刻惺谷禪師筆語序

語曰，眾惡之，必察焉。人雖至愚，苟顧名圖利，亦何肯以一人招眾惡，至招眾惡弗恤，則別有苦心可知矣。吾友惺谷壽師，廣參博訪，足跡幾半天下，凡所住處，愛而畏之者十一，厭而疑之者十九。雖接物失於方便，然鐵石心腸，真欲自他同躋正覺，斷斷乎不可泯也。今觀其遺書，攻人短，不掩人長，用己長，不諱己短，直抒血誠，無所避忌，亦無所文飾，苦口良藥，固末世所不能服，寧非末世所急當服哉。壽師既沒，惟誦帚昉師，佩其嚴憚切磋之恩，舉生平往來手札，輯為筆語，方欲繡梓，昉師復沒，高足還一本公，力謀剞劂。嗟乎，以壽師一生苦心，惟昉師能知恩報恩，以昉師半世勤懇，又惟本公為繼志述事。然則壽師固藉昉師以不朽，昉

師亦得本公以終傳也。孝順者必食其報，詎不信然。予與壽師交最厚，互相益處最多，而今而後，真不可復得矣，爰涕泣而序之。

閩遊集自序

自丙子臥病九華，無復人世閒想。戊寅秋，踐吾友帚師之約，幻遊閩南，擬掩關靜坐耳。詎意鼓兩片皮，作座主活計邪。流浪溫陵霞漳間，幾及四載，種種家醜，播揚略盡，二三同志，苦欲災木。余惟賦性僻拗，不近人情，所有言句，多觸時諱，流通之者，殆非愛我者也。然業將身命，付諸龍天，誠復不敢自愛。遂弁數語，以聽知我罪我於天下後世云。

靈峰蕩益大師宗論卷第六之二

靈峰蕩益大師宗論卷第六之三

序三

入法界序(贈程季清)

夫法界者，不思議解脫境界也。法華云，治世語言，資生業等皆順正法。皆順正法，皆不可思議矣。學者以思議心入之，何以通達法界哉。然不通法界，未嘗不即法界也。何以故，思議心，本不可思議也。知一切思議心，本即不思議心，則一切思議境界，本即不思議境界。達思議即不思議，迺可與發菩提，發此真正大菩提心，迺可與入法界。不觀華嚴乎，善財參知識也，必云我已發菩提心，知識示善財也，必說所證解脫境界。德雲等無論已，婆羅門之刀山火聚也，長者之調和香也，船師乘船入海，女人借欲離貪，童子之菩薩字智也，何嘗離思議境界，別有不思議解脫，又何能於不思議境界，強置思議乎。十願居士程季清，久發菩提心者也。其自入法門也，始參徑山禪，既習唯識教，嗣修佛身觀。逮和光利物，護法道而誘群靈也，惟指示風水，決判陰陽而已。夫風水陰陽則非邪因緣無因緣也明矣。覺明空昧，相待成搖，風自始也。寶明生潤，火光上蒸，水自出也。是故華藏莊嚴世界海，一絕大風水也。動為陽，靜為陰，動靜相乘，物有生成變化。動靜相奪，界有成住壞空。統而論之，不過吾人心識之相分耳。全體虛妄，而全妄依真。因緣生法，即空假中。故琉璃光，觀風動性，合十方佛，傳一妙心，月光習水觀得無生忍，圓滿菩提。蓋性水真空，性空真水，性風真空，性空真風，雖隨心應量，循業發現，各各不同，未嘗不即清淨本然，周遍法界也。夫堪輿綱要，莫若二十四山。儻就蓮華臺藏而

觀，歡喜國為震，安樂國為兌，寶相午位，成就子宮，迺一娑婆界，復具二十四山。此四天下，在華藏東，卯位也。約四天下，南閻浮提，離位也，復就一閻浮提，仍具二十四山。震旦在南洲東北隅，蓋震艮閒耳。而兩京十三省，又自論二十四山。且就一省中一府，府一縣，縣一家，家一室，乃至室中一坐具，罔不各具二十四山也，則罔不各具天地盤諸吉凶神曜也。又此一坐具，東看則西，南觀成北，從彼彼坐具，互互視之，無一毛頭許，不具二十四山全體大用。此毛頭二十四山，即華藏界二十四山，無二無二分，無別無斷。所以云，一微塵之法界不小，法界之法界不大，是可思議不可思議邪。不變隨緣，舉法界為一毛頭，隨緣不變，一毛頭全具法界。如此方知可思議之風水，本不可思議。季清本證此現量，不離風水陰陽之說，具說一切法門。不知者，以為風水也。孰知以大菩提心，觀不思議境，即以此滿菩薩行，趨入普賢道乎。他日佛坐道場，有南詢者，十願居士當告之曰，我惟知此風水善巧法門，如諸菩薩摩訶薩，智慧如大海，願力如虛空，具證法界差別性相，遍知一切無差別法。而我云，何能知能說彼功德行，汝當次第參請，乃至得見一生補處時，蕩益道人伸右手摩其頂矣。

贈調香居士序

蕩益子曰，六塵之體，無非法界。可熏發菩提心者尤莫若香。然香即法界，何止熏發菩提，直謂菩提可也。又既謂菩提，亦可謂十界染淨百界千如。又既謂百界千如，則不必更謂之香。又不謂香，亦何必謂百界千如。香也，百界千如也，皆名字也。名字性空，一名一切名，一義一切義，何所謂行布，何所謂圓融。而行布圓融二義，不期成而自成。所以總別同異，成壞六相法門，直向一塵中辨取，如一香塵，一切諸塵，一切諸法無不爾，通此可入鬻香長者解脫門矣。世衰道微，魔外充斥，舉凡戒香禪香慧香，乃至淨土香王，盡埋沒於鮑肆。而裨販之徒，競自標榜，刻人冀為栴檀。顧安得超方士，一辨其真贗者。然真香王，決非伊蘭能混，一任顛倒鼻根，捨此取彼，曾何減於馥鬱。所痛久安溷廁者，無出離想耳。苕水茂貽居士憫之，欲與優華長者同出一手，遂號調香居士。夫象藏十香王，各各名字，各各形相，各各生起，及各各根本，隨舉一種，可燒可塗，亦可為末，奚俟調和，方稱異美。然分擅其芳，合乃益妙。儻朽木合腐材，多徒增臭。又多香雜臭木，併香亦臭。夫香且臭，況實無香者乎。古律學之盛也，律儀戒，定共戒，道共戒，舉一全收，不必別求禪教，禪教全在其中，謂自性成就固可，謂和合所成亦可。禪教亦然。教云，身口意淨，隨文入觀，非即律

與禪乎。禪云，法法皆通，法法皆備而無一法可得，非統律與教乎。今也不然，持律者不惟禪教茫然，扣以三千八萬，亦茫然也。演教者，不惟禪律缺然，責以依教觀心，亦缺然也。參禪者，不惟教律未通未備，覈以無實法之綱宗，仍作實法死法會也。若然，支那國裏，安所得妙香而調和之。而十大香王，元未嘗不在娑婆國土，只今現前身口，即戒香種，心知寂然之體，即定香種，覺了靈明之念，即慧香種。戒定慧之種備，則禪教律之本得矣。居士試取而調之，使馨芬郁發，一人清淨故，多人清淨，一世界清淨故，多世界清淨。俾此五濁惡世，人人得無根信，如伊蘭木出栴檀香，誰謂苕水非熙連河，長者非即毗盧遮那法界藏哉。

觀泉開士化萬人畢生念佛往生淨土序

出世之要，莫尚願力。願者，信所鍾，行所出也。無信則無願，不願可云信乎。無願則無行，願相續，非即行相續乎。所以法藏比丘四十八願既發，阿彌陀佛四種淨土斯嚴，從是以來，願願相續，即是燈燈無盡。蓮宗諸祖，堪為左券。觀泉一法友，刺血書法華，翹勤禮大悲行法，畢生日念佛萬聲，今欲化他，謂萬聲局難取必，無論千百十，下至一聲，但終身不替，便決定橫超。寶王三昧，謂一念得生，不我欺也。余嘉其說，即此是往生公據，佛祖階梯。弁語以勸登斯籍者，便作標名蓮蕊想，不必別求圓頓，一念已超佛地矣。

能乘所乘序

夫性修之旨不明，由惑於忘能所之雄談，未達能所實義故也。有善御者，駕千里之馬，服千里之服，而繮牽長，不取千里矣。設繮牽不長，不善御者御之，可取千里哉。然御無他術，惟車馬相忘而已。人不忘馬不御馬，馬不忘車不運車，謂人忘車馬，馬忘人車可也，謂無人無車無馬可乎哉。圓頓行人，知正因真性軌之為車體，了因觀照軌之為良馬，緣因資成軌之為具度也，此三不一不異。故相須而相忘，遂舉性三，以為修三，能乘聞慧，所乘教乘，能乘思慧，所乘行乘，能乘修慧，所乘理乘，從性訖修，能所歷然。而相忘於不二，是謂全性成修，全修即性者也。菰城楊智琴，潛心台教，號乘乘居士。夫教行理乘，如上古瑤琴，若無妙指，妙音不發。必以三慧乘之，方知教觀不二也。

惠應寺放生蓮社序

能儒氏之為教也，大而博，深而不可晦，極六合內外不為迂。余昔拘虛程朱之學，不惟望洋，復興斥鷃，今乃駸駸然入於其中。異哉能儒，如來觀音地藏巧以勝異方便，轉我邪心，令生正信也。予因得仰承如來威力，作師子吼，遍破一切外道邪心。夫物雖微，誰不愛命，只此愛命之心，便是真常佛性。此心不在內，不在外，不在中閒，非過去，非現在，非未來，非有，非無，非亦有亦無，非非有非無，本自離過絕非，不可思議。迷此心性真常真樂真我真淨，妄認四大為自身相，六塵緣影為自心相，是故於中分人分物，起愛起憎，惑業苦輪，循環不息。若能直下諦觀現前一念心性，似局四大緣影中，實非四大緣影所能區局。如心佛亦爾，如佛眾生然，便知心佛眾生，的的三無差別。殺生即殺自心未來諸佛，放生即放自心未來諸佛，若放自心未來諸佛，即真念佛三昧。修此念佛三昧，是恆轉妙法華經，百千萬億部也。我釋迦如來之道，未墜於地，良由含靈抱識，無不各具全體大用。今舉此全體大用，而為社，為文，為詩，為種種法語，豈復有文獻不足徵之歎哉。故題其編曰能儒文獻，而為之序。

重刻破空論自序

經云，寧起有見如須彌山，勿起惡取空見如芥子許。蓋空見撥無因果，能斷五乘善根故也。然般若如大火聚，四邊不可觸，觸則被燒。苟不取著，則溫身熟食除冥，以喻四門皆可入道，又何為獨破空哉。須知空句破，則四句皆破。破空句，正所以顯空門，空門顯，則四門皆顯。菩薩欲具一切佛法，當學般若。般若何止破相始教而已。且如此經，一則云，有持戒修福者，於此章句能生信心；再則云，應無所住而生其心，應生無所住心；繼又云，以無我無人無眾生無壽者，修一切善法，即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乃至云，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者，於法不說斷滅相，是豈非實相大乘之正印乎。此論初發意於武水，次成稿於霞漳，一刻溫陵，再刻茗城，茲復刻諸留都。予喜王城緇素，咸於甚深般若有大因緣也，弁數語於首。

楊輔之乞金剛集解序

一代時教，皆生死海中廣大津梁，而般若尤為迅航。菩薩未有不學般若，成無上菩提者。般若一十六會，會一切皆摩訶衍，共則三乘同進，不共菩薩獨修。惟第九金剛之會，直指無住生心妙旨，故云為發大乘最上乘者說。蓋圓頓極談，實相正印，所以黃梅印心，六

祖悟道也。世之解者，僅以無住無相為其宗體，豈知般若如大火聚，四邊皆不可取，四門皆可入乎。嘗玩經中較福，每舉捨財捨身，頗似般若功勝，布施功劣。乃經初云，菩薩於法應無所住，行於布施。又云，菩薩不住相布施，其福德不可思量。由此言之，布施即般若，非離布施別談般若也。彌勒無著天親功德施，四大菩薩造論，皆謂布施具三檀，三檀攝六度。後人縱有註釋，豈能過四大菩薩，更出奇見哉。宣聖云，有德者必有言。予亦云，修般若者必修布施。今人不然，高談般若，無不點胸，語以修捨，則心驚怖，反駕言不必著相，詎知不著布施相，早著慳貪相矣。設慳貪無慳貪相，何不布施無布施相之為妙也。經云，法尚應捨，何況非法。著布施是著法，著慳貪豈不著非法邪，此所謂無德無言者也。然佛法如栴檀林，入者有心無心，皆染香氣。古今諸解，雖未必盡當，亦無不有般若妙香存焉。此集解之所為作歟。

重刻大佛頂經玄文自序

性相二宗，猶波與水，不可分隔，其流弊也，至分河飲水。此豈文殊彌勒之過，亦豈馬鳴護法之旨哉。謂真如受熏，譬劫火洞然，虛空安得獨冷。謂真如不受熏，譬劫火洞然，虛空何嘗爛壞。故知得其語，合則雙美，失其宗，離則兩傷。大佛頂云，虛空體非群相，不拒諸相發揮。只此一言，兩疑冰釋。善夫。智者大師有言，偏執法性生一切法，何異自生，偏執黎邪生一切法，何異他生。例而推之，縱謂法性黎邪和合生一切法，何異共生，非法性非黎邪生一切法，何異無因緣生。此之四句，無非是謗。儻妙達無生，不起性計，四句雖不可說，有四悉檀因緣，亦可得說。謂真如不思議熏生一切法，黎邪是可熏性生一切法，皆無不可。乃知智者，真悟權實祕要。於經未來，懸合旨趣若此，經來智者不可作。習台宗者昧唯識，習法相者迷圓理，所以眾解咸失綱要，究義理之攸歸，蚊咬鐵櫬，判文字之下落，鑿孔栽鬚。旭未薙髮，曾研此典，每翻舊註，迷悶實多。後因雙徑坐禪，始解文字之縛，復因數番講演，深理葛藤之根，並探二宗，融以心鏡。直至溫陵弘法，方得取筆疾書。脫稿未幾，剗剗旋畢，板留甘露戒壇，不能攜至江外。茲遊普德，略露臆私，諸友重刻，復述片言，剖千古未破之藩籬，犯從來嚴設之禁忌，位卑言高，安免於罪，然出世君子，諒不以人廢言也。

刻大乘止觀釋要自序

大乘者，心性之異名也，止觀者，寂照之異名也。世顧離心性別覓大乘，離止觀別談寂照，何異騎牛覓牛，丙丁童子求火乎。儒者之道，有見而知之，有聞而知之。佛道亦然。北齊大師，悟中論四句偈義，直接龍樹心印，一傳南嶽，再傳天台。天台述為摩訶止觀等書，由是止觀法門，盛聞於世。頓漸不定，三法並圓，乃南嶽所示。曲授心要，世皆罔聞，今試細讀，實為圓三止觀總綱，文不繁而義已備。獨慈雲懺主，五百年後，序而行之。迄今又將五百餘年，微言將絕。予愧不敏，未能聞道，姑效盲人摸象，述為釋要，以助其傳。李石蘭張孺含二居士，集眾緣付梓，大乘緣起，為弁簡端。

警心居士持地藏本願經兼勸人序

惟聖罔念作狂，惟狂克念作聖，此危微的傳也。佛法亦爾。一念迷常寂光土便成阿鼻地獄，一念悟阿鼻地獄便是常寂光土。所以地藏本願，直與華嚴同一血脈。試觀華嚴世界，即空即假即中，不可思議，地獄眾苦，亦即空即假即中，不可思議。華嚴明自心本具之淨土，令人知歸，地藏明自心本具之苦輪，令人知避。一歸一避，旨趣永殊。而歸亦唯心，避亦唯心，心外決無別法。儒所謂道二，仁與不仁而已。危乎微乎。善利分舜跖之關，去存為人禽之別。熟讀本願經，不思自覺覺他，出地獄歸華藏者，必不仁之甚者也。警心居士憫之，遂畢世受持，兼以勸人。予謂適發此心，地獄苦輪，便當頓息，歡喜為序，代法界眾生普勸云。

贈石淙掩關禮懺占輪相序

佛法無他，與世情相反而已。心觀無他，與妄想計著相反而已。今學佛法者，率借佛法以助世情。說觀心者，率因心觀而益想著。正法埽地，僧輪轉絕，可痛也。近代傳孔顏心法者，惟陽明先生一人，傳佛祖心法者，惟紫柏大師一人。旭生也晚，習儒時，不得親炙陽明，後學佛不得躬承紫柏。所以雖於儒釋源流，略窺一線，知與世諦流布之理學禪機，迥然不同，而障厚慧弱，福薄習強，遂爾半生誤於虛名，罔臻實詣。曩覺比丘多慚，退為求寂，今更愧沙彌真義，僅稱但三歸矣，敢更以空言贈人。然竊玩占察善惡業報一經，原屬釋迦大聖徹底悲心，地藏菩薩格外方便，三種輪相，巧示業報因緣，無疑不決。二種觀道，深明進趣方便，大乘可登，以五悔稱為發軔先容，以一實境界為平等歸趣。夫五悔者，敵體反世情者也。二觀者，敵體反妄想計著者也。懺悔發露，永斷相續，滅

業障。勸請說法，滅魔障。隨喜功德，滅嫉妒障。善巧回向，滅著有障。發堅固願，滅退忘障。唯心識觀，先知外境本虛，皆心所現，次達內心如幻，了無真實。真如實觀，深達若境若心，統惟法性。法性不生不滅，故諸法皆當體不生不滅。如千漚萬波，統惟溼性，千器萬像，統惟金性。五悔翻破無始事障，二觀翻破無始理障。二障既淨，成真應二身，三聚淨戒，一念圓發，而三輪清淨之相，特表示取信，以顯住持僧寶，絕仍可續。孟軻所謂豪傑之士，無文王猶興，聞而知之，不異見而知之云爾。嗟乎，予能知占察大旨，依經立懺，而未能自得輪相，人誰信之。此實說藥不服，咎不在藥也。良方良藥，昭昭具在，地藏菩薩，決不我欺。我已知不服之咎，誓將服之。而石淙法友，先得我心，亦將掩關，以祈清淨，願各努力，日夜塗抹，并慎藥忌，避風寒。他日紹舍那真胤，靈峰片石，當與靈鷲第一峰同時點首矣。

緣居序

世出世法，皆緣生也，緣生無性，故惟至人，能隨緣而不失其真。真也者，即緣非緣，非緣而不礙諸緣者也。善夫李方山之言曰，一念頓悟緣起無生，超彼三乘權學等見。蓋凡夫貪著幻緣，不能捨離。二乘厭離生緣，不能遊戲出沒，皆由未了無生，妄成取捨。若諦觀染淨緣起，四性無生，無生則無滅，無滅則無聚無散。何法可欣，何法可厭，是以素位而行，無人而不自得。經云，極樂修行一劫，不如娑婆修行一日。吾亦云，出家修行一劫，不如在家修行一日。在家多惡因緣纏繞，而能不忘三寶，不捨正念，是火中蓮花，希有難得。出家離於塵坌，安處林野，上者耽空滯寂，不念人世之苦，下者靜極思動，反羨市朝之榮，豈若濁水摩尼，任汨流而清光如故者哉。冶堂居士，易讀書禪，曰緣居，知緣斷不作實想，知不實斷無貪著，亦無厭絕，惟隨緣消舊業而可矣。蕩益子，枯坐北天目之藏堂，聞而隨喜，漫書此以相印，居士當為再撫掌也。

蓮漏清音序

經云，若欲淨土，先淨其心，隨其心淨，則佛土淨。此事理因果並彰之旨，自他權實不二之談也。而昧者一迷緣影為心，決定惑為色身之內，不知色身外洎山河虛空大地，咸是妙明真心中所現物。是故西方極樂世界，即唯心淨土，現在樂邦教主，即自性彌陀。四明妙宗鈔云，應佛顯，本性明。托外義成，唯心觀立。豈似愚人，妄認六塵緣影為自心相，遂置十萬億剎於心性之外哉。顧惟現前一念

心性，覓不可得，是即空義。炳現萬法，是即假義。心外無法，法外無心，是即中義。迷心即空，名見思惑，迷心即假，號塵沙惑，迷心即中，稱無明惑。三惑既熾，四土斯穢。今一心念佛，不計我所，即空義顯。隨念佛時，佛隨心現，便知十界皆惟心造，即假義顯。不惟是心作佛，亦且是心是佛，即中義顯。一心三義既顯，便能圓破三惑，圓淨四土，仍於無次第中，假說次第。觀行破惑，同居土淨。相似破惑，方便土淨。分證破惑，實報土淨。究竟破惑，常寂光土永得清淨。即中故常，即假故寂，即空故光。又復三諦皆常，三惑皆寂，三智皆光。此一非一，舉一即三。此三非三，言三即一。不縱橫，不並別，不可思議，名祕密藏。阿彌陀佛先證此也，一切眾生久迷此也，吾人現前注念此也，是謂念佛三昧，是謂心淨土淨。先悟後修，名理一心，理一事亦一矣。先修後悟，名事一心，事一理亦一矣。文殊一行三昧，普賢十大願王。遠公刻蓮漏於東林，雲棲號蓮池以明志，皆歸極於此也。丁蓮侶老居士，深信篤行之餘，遍閱古今淨土法要，摘最警者，目為蓮漏清音，始法勝，終現應，凡二十五章，條理井然，群疑冰釋。夫疑非可強釋也，由本無可疑故也，因僭為序如此。

重刻成唯識論自考錄序

三界唯心，萬法唯識，此性相二宗，所由立也。說者謂一心真如，故號性宗，八識生滅，故稱相宗。獨不曰，心有真心妄心，識有真識妄識乎。馬鳴依一心造起信論，立真如生滅二門，生滅何嘗離真心別有體也。天親依八識造三十頌，明真如即識實性，與一切法不一不異，真如何嘗離妄識別有相也。龍樹中論，指因緣生法，即空假中，是生滅外無真如。楞伽云，心意識八種，俗故，相有別，真故，相無別。相所相無故，是真如生滅非一異。而護法菩薩於識論中最出手眼，直云，為遣妄執心心所外，實有境故，說唯有識，若執唯識真實有者，如執外境，亦是法執。噫，苟得此意，何至分河飲水哉。嘗論之，性隨相轉，何性不相，設不遍達諸相，無量差別，安知妙性具足如斯染淨功能。相本性融，何相不性，設不深知一性圓頓滿足，安知諸相無非事事無礙法界。故台宗劇談實相，必約百界千如。夫五位百法，獨非百界千如之性相邪。百界千如，無非實相，五位百法獨非實相邪。若不分別五位百法，真俗假實，種現差別，種種不同，則所云點如明相，迤邐不同，一假一切假者，不幾儻侗邪。護法剋論心心所法，各具四分。夫相分各各不同，可也，見分可一向不同邪。即見分各各不同可也，自證分證自證分可一向不同邪。若使一向不同，則心王八，心所五十一，將一人果有

五十九自證證自證分，抗然角立，互不相知，不幾割裂紛糅邪。然使心王心所惟同一自證證自證分，又安得云，心心所法，各皆四分所成。不幾墮用別體同之執邪。更就相分論之，且如拈一莖華，此華本質，如來大圓鏡智之相分也。佛眼所見華，成所作智之相分也。佛智所知華，妙觀察智之相分也。此三為一為異。若定異，何處別有三華。若定一，佛眼不視時，但滅成所作智相分，餘二仍在，佛智不緣時，但滅妙觀察智相分，本質仍在。又眼見華時，有眼識相分，聞華香，嘗華味，覺華觸，各有鼻舌身識相分。佛一人既爾，迦葉復有三華四微，百萬人天各各皆有三華四微。如是無量三華四微，同在一處，似如一鏡，不雜不亂，無二無別。於百萬人天中，隨拈一人相分時，必攝一切諸人相分。於眼等識中，隨拈一識相分時，必攝餘諸識相分。重重無盡，無盡重重，是可思議邪，不可思議邪。一華既爾，物物皆然，色塵既爾，六塵皆然。相分有質尚爾，見分寧獨不然。見分通三量尚爾，自證證自證分唯現量豈反不然。後世弘相宗者，何為自設藩域，曾弗一深思也。是故習性不習相，未有不瞞肝者，習相不習性，未有不膠滯者。唯南嶽思大禪師大乘止觀一書，出識論未來前，具闡性相幽祕，蓋深證無師智耳。厥後欲明心要，須藉文言，當知成唯識論，大裨性學。惜慈恩沒，疏復失傳，僅散現大鈔宗鏡諸書，及開蒙二卷，稍存線索。國初以來，竟成絕學。萬歷初年，紫柏大師接寂音之道，盛讚此宗，爰有俗詮證義集解諸書。而紹法師音義為長。音義未全，故不流通。基法主續補成疏，亦頗簡要。惠法主謂疏多訛，復出此自考錄。予謂此宗，至方而至圓，至蹟而不亂，至深細而非幻罔，至詳明而有綱要。設非妙悟，莫窮底裏，諸家著述，固未立極，亦各擅所長。苟因是而求之，深造自得，觸著性相源頭，不離只今現前一念，則知三乘十二分教，皆吾心識註腳，與馬鳴天親同一鼻孔出氣，何俟予言而知深淺得失也。

廬山香爐峰重結蓮社序

佛法之入震旦也，大小並陳，權實雙著。求三根普被攝機最廣，義門最圓頓者，莫若淨土。什師初譯阿彌陀經，遠師隨結東林蓮社。於時十八高賢，表表人傑，濟濟一堂，陶謝諸公，瞠乎其後，餘可知矣。香爐峰去東林五里，而近高賢。有愛其幽勝者，結茅以居，爰稱靈域。唐白香山築草堂峰側，名高賢結茅處，為遺愛寺。世廟時無盡燈禪師掛錫，示寂後，至今全身不散，如入禪定。燈師得法於天奇瑞師，實高峰第九代孫。神廟閒，雪浪恩法師，化道大行，爭尚慧解，有石門紀法主居此，獨以精進修行紹之，雅為愍師所

重，顓愚師所最敬仰，亦坦焉遷化於峰前。香山遺愛，始惟高賢一人，今得燈紀二師，而成三矣。紀師法孫，拂塵泰公，久侍顓師，出入禪講，旋歸淨土。願續遠師芳躅，重開蓮社玄門，徵予一言弄引。予與泰公交未久，然大悲壇同事懺摩誠篤真懇，非泛泛庸流。逮結夏商究止觀，頗多會心，誠蓮盟長也。吾願士民聞風興起，凡聖各秉堅誠，俾東林盛事，不得專美於前，則後五百年佛事，倍為希有難得，功亦百千萬倍於當年也已。

勸念豆兒佛序

心之本覺曰佛，心之始覺曰念。顧本覺之在人心也，似異而恆同，乃始覺之隨人用也，雖同而恆異。是故背塵合覺，便名始覺，背覺合塵，便號無明。無明無體，即以始覺為體，始覺無相，即以無明為相。是故眾生念五欲時，即名欲界無明，念四禪四空，即名色無色界無明，念斷常，即名邪見無明，念涅槃，即名界外無明。唯有念佛之時，即名始覺，故曰諸佛正遍知海，從心想生，眾生心想佛時，是心即是三十二相，八十種好，是心作佛，是心是佛。是故一切法門，無不從此念佛法門流出，無不攝入念佛門中。一念相應一念佛，一日相應一日佛，直捷圓頓，離見超情。馬祖即心即佛，蓋深得乎此也。夫知即心即佛，斷無不念佛時矣。而迷者誤認緣影為心，又妄謂心既即佛，便不須念。故不得已，轉為方便，曰非心非佛，又曰不是心，不是佛，不是物等。此曲為中下解粘去縛，非直指人心，見性成佛之本旨矣。後世逐塊韓盧，反以非心非佛，乃至種種險句為奇特，以即心即佛為平常，何異嗜巴豆大黃，吐棄膏粱美味者也。桐城有二人結伴為客，一死，伴葬之。攜貲還其婦，婦疑。伴憤甚，往屍處陳祭哭訴。鬼與伴問答，如生前，乃同歸作證。中塗遇事，偶一念阿彌陀佛，鬼大喚，何放光怖我。更速轉數念，鬼懼曰，汝一念，胸輒舒五色光十餘丈，眩我心目，不能復近汝矣，歸語我婦，令自來，當為汝雪冤。伴因此醒悟，出家為高僧。嗟嗟，甫舉一念，光輪便舒。故壽昌大師云，念佛心，即是佛也。豈今時念佛，他時成佛哉。惜鬼不種善根，不聞佛名，故驚怖。儻本念佛人，仗此良緣，寧不頓超樂土邪。畢貫之居士參盡天下納僧，乃死心念佛，求生淨土，兼勸人以豆念佛結佛緣。人身一豆耳，當念佛時，身即放光，所謂佛身充滿於法界者，非乎。今以豆念佛，豆必放光，以放光豆，作放光食，入眾僧腹，無論其人念佛不念佛，皆必恆放光明。令遇斯光者，有心無心，皆得解脫，光光相照，成無盡燈，則生界頓空，更不必別談向上，便是向上極則

公案矣。僧問趙州，如何是毗盧師法身主。州云，阿彌陀佛阿彌陀佛，請以此誠言為證。

放生社序

佛以殺生為首戒，儒以好生為大德。成湯解網，子產畜魚，凡全吾惻隱而已。充惻隱之心，仁不可勝用，引伸觸類，便是大慈大悲。人心佛心，有二心哉。人心不異佛心，則娑婆不異極樂，誰謂劫濁不可轉也。欲即人心證佛心，轉劫濁成淨土，術莫妙於放生。放生一法，唯擴與久，一杯水不救車薪火，設人各一杯焉，一杯不已，再一杯焉，杯水多，車火未有不滅者。今殺運紛紛，並同分惡業招感，非慈三昧水，孰能熄之，非知宣尼心學，瞿曇心法者，孰能行之。濟生菴放生社，絕而復續，續之者皆儒門高足也。誠以弘毅，接忠恕之傳，使此社由擴而久，則經天緯地，旋乾轉坤事業，盡在其中。苟不負此社，斯不負孔門道脈，靈山付囑，究竟為不負本有惻隱之心矣。

刻重訂諸經日誦自序

佛世比丘，或習禪坐，或行頭陀，或事梵唄，或專說法，趨涅槃道，初無定轍，然皆遵佛明誨，未有妄率己意者也。法流東土，始亦如是。自馬祖建叢林，百丈立清規，世相沿襲，遂各出私見，妄增條章。如藏中百丈清規一書，及流通諸經日誦三冊，杜撰穿鑿，不一而足。寧惟罔知正修行路，祇早晚課誦一事，參差失款，惟事唱讚鼓鈸，大可歎矣。雲棲和尚，較刻定本，古杭諸處，多分遵行，而留都積弊，分毫未革。邇與幽棲學侶，力正其訛，重謀付梓，再刪繁蕪，獨存切要，并於律藏，取警策身心有益初學者，略補一二，以公同志。願高明者守禪觀之清雅，庶可隨文入證，莫羨瑜伽音響也。

悲華經序

大悲釋尊，能為難事，較十方三世佛，遍稱勇猛，而悲華一經，敘述尤詳。此經亦名大乘大悲芬陀利，經謂攝取淨土菩薩如餘華，唯大悲苦行菩薩，如芬陀利華也。然釋尊成佛，剎海微塵數劫，為眾生故，於恆沙劫前，示作寶海大臣。其長子成佛，名寶藏，既勸輪王千子，及諸小王，供佛發心，各取淨土，後獨發悲誓，願取穢土。嗚呼，我輩垢重障深，久為十方佛所擯棄，聚此五濁世間，自

非釋尊徹底大悲，何由得聞出世法要。當知今日四眾弟子，無非昔日飲大悲血，食大悲肉，受用大悲頭目髓腦，及餘身分者也。釋尊捨無量血肉身分，令我輩成菩提種，我輩猶復不思報恩，尚可為人乎。經云，菩薩有四法懈怠，一願取淨世界，二願於淨眾作佛事，三願成佛不說聲聞辟支法，四願成佛壽命無量。有四種精進，一願取不淨世界，二不淨人中作佛事，三成佛說三乘法，四成佛得中壽。此經宗要，概不出此。然懈怠菩薩，如恆河沙，而精進菩薩，迄今不滿十人。故釋尊雖自取穢土，仍勸穢土眾生，求生極樂，苦口叮嚀，不一而足。吾輩信大悲語，即同大悲心，生極樂已，方可速入不淨世界。於不淨人中，說種種法，數示生滅，為第一精進菩薩。吳興唐宜之甫讀是經，不禁感泣，山東耿闇然，適聞是經，便誓流通，此皆釋尊真實眷屬，一切人中芬陀利華也。此經久行世間，五濁不難度盡，深心隨喜為之序。

成唯識論遺音合響序

至矣哉，成唯識之為教也，破遍計我法，情見頓空，顯依圓真俗，妙諦斯立，故以唯識二字命題，五觀已全彰矣。天親為頌，護法等為論，三十行不為少，一百卷不為多，實觀心要訣，大乘初門也。瑩師糅成十卷，授基師，基疏失傳，遂成絕響。有紹覺承師，具無師智，聞而知之，述為音義八卷，一簣功虧，忽爾西邁。於是及門高士，各出手眼，如辨音基師之疏，靈源惠師之自考錄，亦既各竭精思，殫才力，然皆升堂有餘，入室未足，故使學斯宗者，無由詣極。惟新伊真師，紹師嫡胤，執侍最久，聞熏獨深，遂能繼志述事，博學詳說，依開蒙為指南，搜宗鏡大鈔為證據，溯源於瑜伽顯揚諸論，而成遺音合響，力陳五觀，詳示三支，蓋參訂二十餘年，稿三易矣。余壬午夏，獲染指先嘗，雖未卒業，即竊請於師曰，梓成願贅片言勸發。今時逾五載，地隔千里，余亦恐大法之就湮也，勉述觀心法要。而新師刻且垂成，忽移東以徵夙願，誼不容辭，不揣為序。後世學人，苟能因余之明白簡易以入門，然後觀師之集大成者以盡奧，欲不謂之金聲玉振，得乎。

孟景沂重刻醫貫序

大醫王有言曰，一切凡夫，妄認四大為自身相，六塵緣影為自心相，故有生老病苦。夫妄認四大為身，四大本非身明矣。妄認緣影為心，緣影亦非心明矣。緣影尚不名心，況肉團乎。然大佛頂云，汝身汝心，皆是妙明真精妙心中所現物。則四大緣影，何莫非心之

相分也哉。周濂溪曰，無極而太極。又曰，太極本無極。太極者，心為萬法本原之謂。無極者，覓心了不可得之謂耳。惟心不可得，四大緣影亦不可得，四大緣影不可得，病亦不可得，至病不可得，殆無所用其醫矣。降此有心則有身，有身則有病，有病必賴醫藥，故佛制四事供養，醫藥居一。又以無醫藥，及服非藥者，為九橫中第一橫。甚矣，醫之有關身心性命也。顧人之受病也，不由身外四大，由身內四大，不由心內有形四大，由身內無形之四大，又不由無形四大，而由非有形非無形之心。心也者，覓之了不可得而非無，具造天地萬物而非有者也。非靜非動，能動能靜。一念動為無形之風大為天，天者積動所成也，象為乾。一念靜為無形之金名地大，地者積靜所成也，象為坤。乾坤立，動摩於靜，為無形之火。火者天之用，而水之根也，象為離，在天為日，火蒸於金，為無形之水。水者地之用，而火之配也，象為坎，在天為月。無形水火相遭，有形水火斯立，水火立而五行備，於是有心肝脾肺腎，名為五官，與五星五嶽列為三才，皆妄心所現之相分也。是故治於有形，不若治於無形，治無形不若治於動靜之原，此出世大醫王之至論。然調理無形四大，為拔苦與樂之增上外緣，良以後天成質，不可復調故，必調無形水火，以順天地之用，以扶五行之本。此趙養葵醫貫一書，為得其樞要，馴致之，耆婆可階，進求之，藥王圓通可證，申而極之，能仁之大醫王，亦可成矣。景沂孟居士，得醫貫聞知之傳，悟人致病，皆本勞心，獨以扶植無形水火為要務，不似庸流逐末迷本。余多病，名醫鮮應手愈者，獨景沂，每投一劑，隨即霍然。又復篤信佛理，好道而進乎技，更較梓是書，嘉惠後學，其益天下後世多矣，特此以助其傳。

淨信堂續集自序

壬午從閩至吳興，奉三寶命，志在傳一隙之明也。艱阻沓出，捨鐵佛而遊櫺李之天寧，捨天寧而居鄣南之靈峰，歷普德濟生而結社於牛首之幽棲。虛名日盛，志終不行。已矣乎，佛祖心印將安寄乎。古人云，三折肱而知醫，閱人多而曉相。予肱之折，不止三矣，啗我以名者，不能責我以實，吾將為名乎。恕己而尤人，不如反躬而自悔，悔雖遲，猶愈於不悔者乎。故從壬午夏，迄丁亥冬，結為淨信堂續集，因未完閱藏著述之願，姑未戒筆云。

靈峰蕩益大師宗論卷第六之三

靈峰蕩益大師宗論卷第六之四

序四

贈劉今度序

孔子曰，聖人吾不得見，見君子斯可矣。又曰，君子哉，蘧伯玉，邦有道則仕，無道則可卷而懷之。伯玉當衛靈之世，烏睹有道則仕者。然寡過未能，述於使者，冥不改節，信於南子。伯玉之為人，千載下，居然可見也。秣陵劉今度，殆吾世伯玉哉。居士少以文學馳名，魏國四子咸師事之，儻志青紫，如拾芥也，淡然恬退，以道自樂。歲丁巳，見無異禪師，即畢志歸依，取法名曰道澂。癸未予應普德請，復與同志秉受八關齋法，今復年三長齋，且永事蔬食矣。然蔬食稱道人者，世亦不少，吾何獨以居士為君子哉。君子非有意異人，人自弗能同也。處困而亨，敦仁尚禮，貧能施，為善無倦。護持正法，不露圭角。是非賢否，了了而不形諸口，功成不居，恂恂若木訥。而為人謀必忠，與人交始終若一，視橫逆境，似飄瓦虛舟。雖曰未悟，吾必謂之幾於道矣。何俟拈拂豎指，著語頌古，而後稱宗，摘句尋章，分科釋義，而後稱教也邪。為高必因丘陵，為下必因川澤，居士充君子之基，優入聖域，夫何難。此予所佩之深，而望之切者，書此為贈。

贈張興公序

論語開章，即明時習之學，而孔門稱好學者，不過顏子一人。學之道，固難言哉。老聃謂為學日益，為道日損。夫學與道，果可岐也，何以稱大學之道也。不遷怒，不貳過，損乎益乎，親民止至善，益乎損乎。風雷益，君子以見善則遷，有過則改。山澤損，君子以懲忿窒欲。懲忿窒欲，改過之大者也。過改則復於本善，名為遷善，非別有善可遷。故明損益不二者，可知為學為道之一致矣。世之言學者不然，習詞章，攻舉業，以取富貴也。摹字帖，精詩文，以成名士也。考古今，博典籍，以驚多聞也。究兵法，商政治，以立事功也。尚氣節，敦廉信，以明高潔也。談名理，闢釋老，以續儒箴也。看公案，著語錄，以附禪宗也。守丹田，調呼吸，以固形神也。嘻。天下國家可均也，爵祿可辭也，白刃可蹈也，聖賢仙祖，亦可襲而似也，顧孔顏之學不存焉。故曰，中庸不可能也。然中者，喜怒哀樂未發之謂，庸者，喜怒哀樂發皆中節之謂。發皆中節，則恆止恆一，不違於未發之中。不遷不貳，則戒慎恐懼，善復於止一之體。夫止一之體，聖凡平等，故為天下大本。而中節之和，必從戒慎恐懼，乃克致之，是故孔子大聖人也，猶以德之不修，學不講，聞義不能徙，不善不能改為憂，豈故作謙辭，誠知心體本妙，學力未易窮盡耳。故曰，發憤忘食，樂以忘憂，不

知老之將至，五十以學易，可以無大過。天台師云，研真窮妄，名之為學，真窮妄盡，名為無學。嗟乎，無學非可浪階，則斯學寧有已時，逝者如斯之歎，孔子之言學也深矣。通乎晝夜之道，而知死生尚無二致，豈以老少異其心哉。予己巳見居士，知為志學之士。癸未應普德請，居士日來聽法，諮請尤多，然舉業未放下，學力蓋未專也。乙酉冬，予居祖堂。丙戌春，居士來晤，始專以斯學為務。今望六之年，更覺津津有味，欲罷不能。予於金陵緇素，求年彌高志彌篤，不肯自封於一得者，居士一人而已。居士之好學，惟予喜之，而予之言學，亦惟居士能深信之。予安得人人如居士者，與之言學，近可忘靈峰之癖，遠可緩極樂之歸。乃如居士者，不可多得也，予是以念念思極樂，時時憶靈峰也。子與居士不隔者學脈，居士縱不能偕於靈峰泉石，必將同我極樂珍池也夫。

金剛經偈論疏註序

佛以一音演說法，眾生隨類各得解，得解雖別，證理則同。蓋三藏偏真，已具四門四悉，況無上圓詮，摩尼普應眾色者乎。如來於大般若中，特宣金剛般若，為發最上乘者說也。最上乘，何疑不破，何住不臻。疑能障理，疑破則理自明。理實無住，悟理則住斯立。是故無著約住位釋，天親約斷疑釋，互為表裏，非止各出一見而已。然兩論若不相蒙者，由疑疑皆能障住，住住皆有餘疑，未可一往豎配云耳。獨後世讀者，若句義難通，遂駕言直指，以不立文字為高，或徇逐講宣，以私意附會為便，如來微旨幾不可見矣。疏園何老居士，久遊紫柏大師之門，故能獨取偈論，沈思會通，爰為疏註，嘉惠後學。述而不作，信而好古，真如來所使，行如來事者與。予嘗謂無著天親，深知佛法非等覺已下所能盡，故於明住斷疑，各示一隅，用顯引而不發之妙，後人知未冥理，行未階真，去無著天親遠甚，乃欲妄自豎義，不失諸著相滯名，則流於掠空捕影，幾何不成謗法之愆，豈若即偈論而求之之為近也。予生平研討經論，必本四依，不喜近時意見穿鑿，茫無根據。故於疏註，輒深隨喜，亦願後之讀是書者，因指得月，不必紛紛更從事於異說，而哆以為博也。

金剛般若會義序

甚矣，般若之難言也。非言之難，修行難也。夫修行既難，言之益不易已。世未有目足不具，能安隱入清涼池者。然足力強，目力或短，目力遠，足力或衰，足強則到而後見，目遠則望而先知。解行

之道，何以異是。故吾於古來釋金剛者，不能無歎息焉。如來一代時教，以般若為宗要，迺利根者，聞四十九年常說般若，鈍根者，須歷阿含方等方始得聞。若金剛一分，又在大會八分之後，如來為發最上乘者說，其深遠微妙，何啻橫嶺側峰，無著顯住，天親斷疑。雖復難兄難弟，春蘭秋菊，於此經時行物生之全體，亦僅一斑而已。後人所證，固不及西域二難，所悟又不逮天台智者。言愈繁，道愈晦，旨益淺，辭益枝，欲會真宗，徒勞筆舌。善夫宜之唐居士，獨拈修行為會義之本也，果能修行般若，念念觀察諸法非法，無非實相，則種種文字皆糟粕，亦皆可化為神奇矣，是可與無聞比丘作頂門鍼也。若夫棄水擇乳，則在菩薩鵝王，予奚敢饒舌哉。

西方合論序

唯大徹大悟人，始可與談念佛三昧，否則百姓之與知與能，猶遠勝仁者見之謂之仁，智者見之謂之智也。達磨西來，事出非常，有大利必有大害。嗚呼，先輩幸得大利，今徒有大害而已。誰能以悟道為先鋒，以念佛為後勁，穩趨無上覺路者邪。袁中郎少年穎悟，坐斷一時禪宿舌頭，不知者以為聰慧文人也。後復深入法界，歸心樂國，述為西方合論十卷，字字從真實悟門流出，故絕無一字蹈襲，又無一字杜撰。雖台宗堂奧，尚未詣極，而透徹禪機，融貫方山清涼教理無餘矣。或疑佛祖宗教，名納老宿，未易遍通，何少年科第，五欲未除，乃克臻此。殊不知，多生熏習，非偶然也。傳聞三袁，是宋三蘇後身。噫，中郎果是東坡，佛法乃大進矣。余每謂明朝功業士，遠不及漢唐宋，理學則大過之。陽明一人，直續孔顏心脈。佛門居士，唐梁肅，宋陳瓘，明袁宏道，蓋未可軒輊也。忠肅因初年偶疑金剛為泥人揩背語，遂為禪者所笑，試讀彼三千有門頌，可復笑乎。中郎少年風流灑落，亦為縉素所忽，試讀彼西方合論，可復忽乎。嗚呼。今人不具看書眼，何怪乎以耳為目也哉。特集吳門所刻標註，并為評語，以表彰之，重謀付梓，用廣流通，普使法界有情，從此諦信佛法門，至圓至頓，高超一切禪教律，統攝一切禪教律，不復有泣歧之歎也。

台宗會義自序

或問蕩益子曰，吾聞講法華者，莫善於台宗。智者大師，妙悟後，以不思議四無礙辯，宣玄義文句，章安尊者記為各二十卷，不異阿難結集。迨荊谿尊者，又轉翼以釋籤，及文句記，於是教觀大明，

稱為中興烈祖。依之修證，得道如林，聖人復起，不能贅一辭矣。曩見子綸貫跋，亦云黃鶴樓詩，李白閣筆，今無故復事管城何哉。蕩益子曰，噫，此予萬不得已之苦心也。方予寓溫陵述綸貫也，欲誘天下學人，無不究心三大部也。屈指十餘年矣，舌敝耳聾，曾不得兩三人。正事教觀，輒以浩繁而興望洋之歎，儻不稍事節略，則玄籤妙樂諸圓頓法，甘使其終置高閣乎。曰，若是，但節錄文句及記，例如妙玄節要可耳，何更科易文，竄入己意，直名為會義邪。曰，是尤不得已也。古者疏與經各行，若經義奧，發揮不厭深詳，經文顯，分科點示而已。後人強以疏合經，遂使經文句讀割裂，今欲隨文演義，而仍不傷經文血脈，科安得不稍更乎。智者大師辯才敷演，章安結集，雖全合大師之義，未必皆是大師之文，故筆力古朴，不事雕巧，惟久讀方知其妙。初心之士，對卷茫然，文安得不稍易乎。荊谿尊者，精金百鍊，文義俱深，然微有六朝風氣，稍拂時機。至其闡洩言外之旨，並非尋行數墨者所能知，不幾亦為竄入己意乎。夫法華經藏深固幽遠，智者大師契其源，豈盡宣其委，章安尊者記其概，豈盡錄其詳，即荊谿尊者闡其要，亦豈盡析其曲折哉。茲以凡愚，千慮一得，用逗時機，安得避背古之嫌，不竭寸明，附竊取其義之科也邪。知我者其惟會義，罪我者其惟會義已。

重治毗尼事義集要自序

予生於萬曆己亥五月初三日亥時，至壬戌五月七日薙髮出家，是為二十四歲，次臘受具戒於雲棲和尚像前，又次年受菩薩戒於和尚塔前。二十七歲春，閱律一遍，錄出事義要略，僅百餘紙。次夏第二閱律，錄成四冊。次冬第三閱律，成六冊，計十八卷。三十二歲夏，為壽昉楫三友，細講一遍，添初後二集，共八冊。次年金臺法主，梓於皋亭之佛日寺。是冬在靈峰，僅講七卷，次夏方續完，聽者十餘人，惟徹因比丘能力行之。次夏在金庭西小湖寺，徹講一遍，聽者九人，能留心者，惟徹因自觀及緣幻大德耳。次冬在吳門幻住菴，又講一過，聽者五六人，惟自觀僧聚二比丘，能力行之。三十八歲入九華，四十歲入閩，四十四歲至苕城，從此十三年，無有問者。徹因自觀僧聚三人，又皆物故，毗尼之學，真不啻滯貨矣。五十一歲冬，從金陵歸臥靈峰，次夏乃有發心學律者十餘人，迫予重講。因念向所輯，雖諸長並採，猶未一一折衷。又問辯音義二書，至今未梓，不若會入集要而重治之，兼削一二繁蕪，以歸簡切，庶鈍根者，亦不致望洋也。

重刻寶王三昧念佛直指序

念佛三昧，所以名為寶王者，如摩尼珠，普雨一切諸三昧寶，如轉輪王，普統一切諸三昧王，蓋是至圓至頓之法門也。始自華嚴，終至法華，一代時教，無不讚揚此寶王三昧。始自文殊普賢，乃至永明楚石，一切菩薩聖祖，無不修證弘通此寶王三昧。而世之昧者，猶以為自性彌陀，非即樂邦教主，唯心淨土，不在十萬億西，妄認六塵緣影為自心相，全不知十方法界，一一無非即心自性也，可不哀哉。元末明初，鄞江有大善知識，厥名妙協，深憫邪見，述為念佛直指二十二篇，世久失傳，雲棲老人欲見之不可得。神廟年間，古吳萬融禪伯，偶於亂書中得此遺帙，與唐飛錫法師所撰寶王論，同為一編，皆雲棲老人所未見也。韓朝集先刻寶王論於雲棲，予續刻此板留佛日，今車菴菴居士，更續刻於長干，特記之以告後賢。

偶拈問答自序

憶癸酉秋，過菰城季清程居士家，遇雪庭禪師。庭謂予曰，禪者教之綱領，教之根本也，今教家不信有禪，猶取網而無綱，攀枝附葉而無根本，抑何惑哉。予應之曰，師真至言也。夫禪者教之綱，教者禪之綱也，禪者教之領，教者禪之襟裾袖襪也，禪者教之根本，教者禪之枝葉花果也。教家捨其綱領根本，固為大惑。今禪士復棄綱而獨存一綱，棄襟裾袖襪而獨存一領，棄枝葉花果而獨存一枯樹樁，不尤惑乎。庭無語。嗟嗟，禪與教如何可分，從上諸祖，未有敢離經一字者，從上諸大教主，未有不透徹心宗得大機用者，奈何末世視作兩塗，真可哀矣。予每講次，必極力拈提綱領根本以示人，而罕知薦取，又曾作三頌露此消息，而昧者猶謂尚是教意，未是宗意。嗚呼，宗意果離教意，不竟同魔說乎。今更捏資團作胡餅，以療呱呱之泣，且道畢竟是宗是教。咄，癡人前不得說夢。

贈鄭完德念佛序

嘗讀十六觀經云，諸佛正遍知海，從心想生，是故眾生心想佛時，是心即是三十二相，八十種好，是心作佛，是心是佛。噫，此真念佛三昧之祕要也。蓋但言作佛，不言是佛，則謂佛非固有，何異權乘。但言是佛，不言作佛，則謂佛非修證，何殊魔外。故大佛頂經發明世出世法，知其本因，隨所緣出。夫知其本因，則十界無不即心而是，謂佛界非心是乎，隨所緣出，則十界無不由心而作，謂佛界非心作乎。予己巳，晤千里鄭老居士，見所繪聖像，微細精妙，巧逾天工，恍悟心作心是之旨。長公完德，尤窮工極緻，完德久參念佛是誰公案。予謂苟信是心作佛，是心是佛二語，而更參誰字，

可令人捧腹大笑。大集經偈云，若人但念彌陀佛，是名無上深妙禪。至心想像見佛時，即是不生不滅法。大勢至法王子云，憶佛念佛，現前當來，必定見佛，去佛不遠，不假方便，自得心開。永明禪師云，一念相應一念佛，一日相應一日佛。壽昌禪師云，念佛心，即是佛。夫何疑哉，夫何疑哉。

鄭千里老居士集序

人不立志為聖賢佛祖，則富貴淫之，貧賤移之，威武屈之，遇得意欣然志滿，遇失意紛然怨尤，求能自反自訟自安自得者鮮矣，況隨事自覺覺他也哉。吾細讀千里老居士稿，知其非山人詞客，蓋謫仙而歸心大覺者也。生平繪普門像最多，像必有讚，布袋像亦然，讚必警發迷情，其詞切至，令人毛骨悚然。次多達磨像，像讚必敲擊向上一路，令人因指見月。繪山水必詠，詠皆清脫迴超情累，非詞句能到也。而予尤服膺者，則在自勸自警自悔自咎諸句，良以其心念念欲入山修道，幻緣未遂，不免齎志長往。嗚呼，苟不與老居士同一出世胸懷，安知其生平之苦。苟不知其生平之苦，又安知其真思出世哉。長公完德，知父志，令予次其稿傳之。首普門讚，次布袋讚，次達磨讚，次題畫諸詩，其他鞭影圖，天鼓音圖等，繡棗別行，茲不重出，試展玩之，真謫仙歸心大覺，決非世閒山人詞客也。嗚呼，佛道長遠，只在目前，雖在目前，曠大劫行，終不可盡。世有不知其難者，恐未曾實悟其易者耳。千翁已知其難，雖欲不謂之已悟其易，豈可得乎。善論人者，謂千里品格丰致，不在與可南宮下也。

江寧紀賑後序

心性一耳，而危微異焉。異者猶冰之與水也，溼性不可得而異也。惟異故，上智安富尊榮，下愚貧窮困苦。惟不可得異故，上智必以下愚為興慈運悲之地，下愚必藉上智為救苦免難之主。華嚴云，因於眾生而起大悲，因於大悲生菩提心，因菩提心成等正覺。一切菩薩，若無眾生，必不能成無上菩提。旨哉，其言之矣。辛卯春，長干浹旬霪雨，民不聊生，蓋自作之孽也。制臺馬公，及王危諸公，憫茲無告，設賑粥場一十餘所，凡經百日，共捐萬金之外，濟饑民七十餘萬。嗟乎，非仗此不可得異之性，何由使命將絕而仍續，身濱死而復生乎。且食粥頃，縱頑冥無不知口稱佛號，心感慈恩者。只此一餐，便結未來成佛勝緣，金剛種子，決不可壞。非普門示現宰官行菩薩道，奚能轉罪為福，轉災為祥，若此神速也。雖然，民

未厭罪，天未厭亂，上挽天意，下拯愚民，惟有力大人是賴。予既深慶是舉，尤望恆有是舉，尤望莫不如是舉，則庶幾風雨順時，可永無用是舉矣。

維摩經提唱略論序

經云，諸佛解脫，當於眾生心行中求。顧眾生心行，萬別千差。心行多，解脫亦多，解脫不可思議，心行亦不可思議。乃世之求解脫者，罔不墮在思議窟中，釋迦安得不示生，維摩安得不示疾哉。示生示疾，至法華而權實始融。乃正法既遠，像季學者，各師其心，各安所習，視不二法門若冰炭然，縱有證悟，法執未忘，猶將性相分河，南北異幟，況依通者乎。嘗觀古來註述，有得大綱似漢者，有得萬目似唐者，至欲追成周禮樂，捨智者大師一人，指未易屈。似漢者，能提醒人，使直下受用，其弊狂。似唐者，能軌範人，使平易穩當，其弊支。是故兩家著述，合則雙美，執則無非病耳。明神廟年間，維揚真一道人，號無用者，居武林法華山，名其菴曰西方。法嗣未詳，種種著述，大似方山手筆。儻無夙根及悟門，斷不能湊泊一字，惜未遇本色鉗錘，不免為漢雜霸道。然痛快直捷，較近世著述，什伯過之。維時一二大老，並矜細行，能令推崇者眾，如紫陽及門士，反以象山為禪學而排斥之。嗟嗟，象山不可泯，於後世無用，何可沒其生平哉。試平心易氣，勿主先入之言，讀此維摩提唱略論，謂非方山法脈，吾不信也。白璧不以微瑕掩，合抱不以尺朽廢，大醇小疵，非譏譏文字之學可比也。感深今昔，歎息為之序。

楞伽義疏後自序

猶憶初發心，便從事禪宗，數年後涉律涉教，著述頗多，獨此楞伽，擬閱藏畢方註。壬辰結夏晨谿，無處借藏，乃以六月初三日舉筆，至八月十一日閣筆，於長水南郊之冷香堂，僅閱七旬，而佛事魔事，病障外障，殆無虛日，易三地而稿始脫。嗟嗟，屈指諸述何順且易，楞伽一疏，何其逆且難也。得無自覺聖智法門，正破末世流弊，有以激波旬之怒邪。然波旬能俾予席不暇煖，而不能撓予襟期，阻予筆陣，則予必當化彼波旬，同成佛道，維摩所謂邪魔外道，皆吾侍者，豈不信哉。予愧為虛名所誤，犯達磨明道而不行道之記，然猶愈於說道而不明道也。賢達苟能因語入義，如燈照色，庶不負予損己利人之苦心耳。

刻較正大阿彌陀經後序

阿彌陀佛，以法界藏身，示居西方樂土，只此微塵樂土，含攝華藏無邊剎海不可思議。所謂權實不二法門，遍入一切眾生心想，不墮一切眾生情計者也。十方諸佛，同共稱揚，寶積大會，叮嚀勸往，別本流行，凡經四譯。有宋王龍舒居士，未睹寶積善本，輒會四譯，棄短取長，名大阿彌陀經，舉世流通，千餘載矣。壽生菴萬融尊宿，得坊間舊本，較南北二藏，文理俱優，公諸孫刻之。此即法藏願輪，古今一致者也。書經者為貞明王居士。予過吳門，為正其句讀云。

合刻彌陀金剛二經序

非淨非穢，般若之體，知淨知穢，般若之照，取淨捨穢，般若之用。是故不以般若為導，能生淨土者，未之有也。不以淨土為歸，可稱般若者，未之聞也。或曰，彌陀部屬方等，金剛部屬般若，時教既殊，旨歸豈一。余曰，甚矣，見之固也。如來一代教法，除聲聞藏，餘皆名大乘方等經典，般若安得非方等乎。從成道夜，至泥洹夜，於其中間，常說般若，方等安得非般若乎。況淨土玄門，理無不該，事無不攝，從華嚴寶積，大集般若，乃至法華，無不導歸安養。只此安養，具足橫豎四種淨土，而四種淨土，並不離現前一念介爾之心，非橫非豎，亦橫亦豎。是故經云，莊嚴佛土者，即非莊嚴，是名莊嚴，此唯心淨土之誠證也。末世執迷，不達心性，本來無外，說唯心便撥淨土，說淨土便昧唯心。安知西方極樂，廣徹華藏，華藏莊嚴，不出心性也哉。無我開士，合刻彌陀金剛二經，特序之。

鮑性泉天樂鳴空集序

予讀易傳，至天地閉，賢人隱，未嘗不掩卷長歎息也。自金神現夢，正法東傳，大善知識乘時利見者，不可悉數。降自宋元，則冒竊名位者日多，得正知見者日寡矣。故雲棲老人，每歎支那國裏，覓一須陀洹人不可得，亦有激言之也。竊謂求果證於眾所知識，誠不易，苟求於隱跡韜光，或不無，但愧乏濟勝具，未能遍歷寰區以訪之耳。邇來禪道僭濫，余不忍見聞，無論果證絕響，雖路頭端正者，亦不易得，每每中夜痛哭流涕。故獨於袁石公西方合論，深生隨喜，謂之空谷足音。客冬過樵李，王止菴以鮑性泉所著天樂鳴空集見示。性泉，山陰人，鬻楮。初禮紫柏大師，師教以熟讀楞嚴法

華。遂乞名筆，書細楷梵冊，鏤板流通。嗣復肆志於華嚴合論，大乘止觀，傳燈宗鏡諸錄。與湛然禪師盤桓，後乃歸依雲棲大師，坐脫超登蓮土。噫，甚希有矣。集為陶石梁居士所閱，付其友錢永明。永明臨化，以授止菴。止菴攜之隨身，往還塗將萬里，時逾十年，謀梓未就。故予得展閱原稿，方信正知見人，雖難得於眾所知識，猶不無隱跡韜光者也。其立論，大約以明心見性為急，以悟後修行為正，蓋深得合論之旨，兼登宗鏡之堂，堪與末世狂禪為頂門鍼。無怪乎狂禪惡其害己，反謗為別一路頭耳。嗟嗟，鮑君在安養國，遙聞此語，當亦為之解頤也夫。

西有寢餘自序

楚石大師示寂，謂夢堂曰，我去也。堂曰，何處去。曰，西方去。堂曰，西方有佛，東無佛邪。師震威一喝而逝。予愧無楚師之德，切有楚師之志。然四十九年之非，悔已無及，今年五十，猶寢言不止，不亦可哀邪。莊生云，且有大覺，而後知此其大夢也。既未大覺，寧免夢語。大佛頂經云，譬如有人，熟寐寢言，是人雖則別無所知，其言已成音韻倫次，令不寐者，咸悟其語。予殆似之。生平著作，自丙子春前，哀為淨信堂初集，戊寅秋前，哀為絕餘編，壬午夏前，哀為閩遊集，丁亥冬前，哀為淨信堂續集，皆寢言也。戊子孟春，寓蕩華塢，凡筆興所至，隨付侍者存之，名曰西有寢餘。百世而後，有不寐者，未始不旦暮遇之也。

選佛譜自序

選佛之語，始於禪客點悟丹霞。而選佛圖，傳創自捺麻僧也。學士解縉，作升官圖。故捺麻僧作選佛圖，必應博諳教乘，深知禪律，未有不達法門中事，輒敢師心自創立者。惜其失傳，無從得見。萬歷己未，曾於留都購一升佛圖，絕無倫次，甚為可嗤。癸亥於武林隨喜一選佛圖，乃幽溪無盡大師所作，具顯十法界升沈之致，足稱盡美。乙丑於松陵睹一圖，統收三教，而理致不清，亦無足取。己巳幻寓靈谷，有別以一圖相示者，云是捺麻作，而文理尤為不通，恐決非舊物，特愚妄者之託名耳。事不獲已，訪幽溪意，自製一圖，兼增凡聖因行，及種性差別，以彰不一之機。設無根信位，及大權護法，以開圓轉之路，逆惡猛心，準觀經而許歸淨土。阿鼻極苦，依華嚴而徑登兜率，諸天有降德貶墜之苦，無色有窮空輪轉之殃，皆本教乘，非出臆見。又幽溪僅用佛般一輪，故升沈迴隔，此用四輪齊擲，故轉變無方。辛未梓行，吳地流通已廣。次於古杭西

山，別見二圖，亦未全美，故皆不傳。辛巳寓漳南，每思吳門所刻，猶有未允當處，復改一圖，擲用六輪，方得一界還造十界，一擲備顯升沈，癸未刻之樵李。然六輪一擲，六字紛陳，準折詳明。方堪行動，粗心浮氣之人，每以為苦。辛卯冬，歸臥靈峰，深念此圖利益，能使人即遊戲間，頓知六道往還之疲苦，三乘出要之差別，猛切念佛，求出苦輪，誠為不可思議。而幽溪一圖，則失之簡，予向二圖，並失之繁，展轉反側，竟夕不寐。爰思但用二輪以為擲行，方便既易於行，仍多轉變。復手書一圖，緇素咸稱盡美盡善。且啟予曰，此圖行，真足令人通達一切佛法，請更著譜，以申明之。庶俾愚者，亦藉此了知世出世間道理，雖有智者，亦不敢妄加增損於其間也。予聽其說，述譜如左。

裂網疏自序

佛祖之道，以心傳心，菩薩造論通經，亦唯此一大事。故云，十方諦求，更無餘乘。縱曲為群機，從實施權，說種種道，如三草二木，受潤不同，而能潤之雨，原只一味。故云，如食石蜜，中邊皆甜。又云，粗言及細語，皆歸第一義。豈應封文失旨，橫執名相，剖判虛空也哉。且如彌勒世尊，跡居補處，本必難思，無著天親，既是龍華輔弼，與文殊普賢何異。至馬鳴龍樹，並金口授記，傳佛心宗，其所著述，定不互相乖異。乃後世講師，輒妄判曰，天親識論，立相始教，龍樹中論，破相始教，馬鳴起信，終教兼頓，並未是圓。嗚呼，其亦不思甚矣。夫天親宗瑜伽，而立唯識，先以唯識破我法二執，次明識亦如幻，非真實有，故亦名破色心論。目之為立相教可乎。龍樹依甚深般若，遍蕩四性情執，以顯法性。故曰，欲具足一切佛法者，當學般若。又曰，若以無此空，一切無所作，以有空義故，一切皆得成。目之為破相教可乎。馬鳴以一心真如門，顯甚深般若，隨智說，以一心生滅門，顯瑜伽八識，隨情說。真如即一真法界，統事理而泯絕事理者也，生滅即全理所成之事，全事無性之理也。二門不離一心，無一生滅非全體真如，無一真如不全具生滅，即事事無礙法界也。謂其不同唯識中論，仍非圓極一乘可乎。況經論中，並謂真如與一切法，如水與波，不一不異，誠證具在，何容偏執。蓋若言定一，則真如不生滅，應一切法亦不生滅，或一切法生滅，應真如亦生滅，固不可。若言定異，則真如非即一切法之實性，應在一切法外別有方隅，不常不遍，尤為不可。故起信謂真如受熏者，譬觸波時，即觸於水，所以破定異之執，初未嘗言真如隨熏轉變也。唯識謂真如不受熏者，譬波動時，溼性不動，所以破定一之執，初未嘗言別有凝然真如也。（唯識論云，不同餘

宗，離色心等，有實常法，名曰，真如。又云，真如，即是唯識實性。明文彰灼若此。後人乃以凝然真如，誣謗唯識，罪何如哉。)然則，唯識所謂真故，相無別，即起信一心真如門也，俗故相有別，即起信一心生滅門也。楞伽經云，諸識有三種相，調轉相，業相，真相。宗鏡釋云，起心名轉，八俱起故，皆有生滅故，名轉相。動則是業，八識皆動，盡名業相。八之真性，盡名真相。由此觀之，起信唯識，皆宗楞伽明矣。宗本既同，則諸名義自不相違。註疏家不能以義定名，漫爾依名定義，致令二論，乖同水火，可不哀哉。此大乘起信論，藏有二本，唐本更文顯義順，舊既流通梁本，私心弗敢自專，敬以鬪決於佛，拈得宜解唐本，遂殫一隙微明，剖盡兩宗迷執。門人成時，請名為裂網疏。

幻遊雜集自序

癸巳之春，單丁行腳。戒子堅蜜，邀入新安結夏。冬於歙浦，覽湯泉白嶽之勝。於深秋，甲午春，從武林孤城而入靈峰。屈指匝一歲中，大半禁絕應酬。唯今春筆墨汗漫，而存稿十不及三。既臥藏堂，偶一簡視，不滿四十紙。故不復分門別類，唯依時之先後以為次第，名幻遊雜集云。

閱藏知津自序

心外無法，祖師所以示即法之心，法外無心，大士所以闡即心之法。並傳佛命，覺彼迷情，斷未有欲弘佛語，而可不知深究佛心，亦未有既悟佛心，而仍不能妙達佛語者也。今之文字阿師，拍盲禪侶，竟何如哉。嗚呼，吾不忍言之矣。昔世尊示涅槃，初祖大迦葉白眾云，如來舍利，非我等事，我等宜先結集三藏，勿令佛法速滅。嗟嗟，儻三藏果不足傳佛心，初祖何以結集為急務邪。竊謂禪宗有三藏，猶奕秋之有棋子也，三藏須禪宗，猶棋子之須活眼也。均一棋子也，善奕者著著皆活，不善奕者著著皆死。均此三藏也，知佛心者，言言皆了義，不知佛意者，字字皆瘡疣。然為懲隨語生見，遂欲全棄佛語，又何異因噎廢飯哉。夫三藏不可棄，猶飲食之不可廢也。不調飲食，則病患必生，不閑三藏，則智眼必昧。顧歷朝所刻藏乘，或隨年次編入，或約重單分類，大小混雜，先後失準，致展閱者，茫然不知緩急可否。故諸剎所供大藏，不過僅存名句文身，封緘保護而已，無由令閱者，達其旨歸，辨其權實。佛祖慧命，真不啻九鼎一絲之懼。唯宋有王古居士，創作法寶標目，明有蘊空沙門，嗣作彙目義門，並稱良苦。然標目僅順宋藏次第，略

指端倪，固未盡美，義門創依五時教味，粗陳梗概，亦未盡善。旭年三十，發心閱藏，次年晤壁如鎬兄於博山，諄諄以義類詮次為囑。於是每展藏時，隨閱隨錄，凡歷龍居，九華，霞漳，溫陵，幽棲，石城，長水，靈峰八地，歷年二十七祀，始獲成稿，終不敢剖判虛空，但藉此稍辨方位，俾未閱者，知先後所宜，已閱者，達權實所攝，義持者，可即約以識廣，文持者，可會廣以歸約。若權若實，不出一心，若廣若約，咸通一相，名為閱藏知津云。

法海觀瀾自序

子輿氏曰，觀水有術，必觀其瀾，況大藏法海，甚深無量，不得其術，何以觀之哉。統論修證法門，浩若塵沙，非止八萬四千而已，然五門收之，罄無不盡。何者，欲遊佛海，先資戒航，戒淨則解行可遵，行圓則祕密斯證，證入則依果自嚴。故首律宗，明造修之始，次諸教，明開解之塗，次禪觀，明實踐之行，繼密宗，明感應之微，終淨土，明自他同歸之地也。中峰本公，謂密咒如春，教乘如夏，南山律宗如秋，禪宗如冬。一往似當，再研未必盡然。剋論諸宗，當究旨歸，不取跡象。禁咒祕密如冬，令生意含於未發，豈全似春。戒為佛法初門，儒不學禮無以立，釋不受戒不許聽教參禪，如春令草木萌甲，安得似秋。豈謂佛制毗尼，似蕭何制律，遂擬以肅殺之氣邪。禪於無修證中妙論修證，無證而證，則體含萬用，可擬冬，無修而修，則刊華就實，正似秋耳。教乘如夏，吾無閒然。只此四門，罔不以淨土為歸，亦猶土之寄王四時也。夫大小兩乘，皆首戒律而大必兼小，小不兼大。南山不敢自稱大乘，不應以南山名宗，但云律宗如春可矣。教亦自有大小兩乘，西土每分，此土晉魏以來，或分或兼，今皆獨弘大乘。復有三家，一天台宗，二賢首宗，三慈恩宗。天台教觀齊舉，教可如夏，觀即如秋。賢首教多觀少，清涼收禪為頓教，圭峰自立三教以對三宗，則三教如夏，三宗如秋。慈恩弘唯識，自修兜率觀門，基公略示唯識五觀，未嘗剋實勸修，然夏後定有秋，是在學者自知領會而已，故且云諸教如夏也。禪亦自有大小兩門，於大乘中，復分頓漸，小及大漸，此所不論。達磨承佛教盛行之後，特來指示心要，如畫龍點睛，令其飛去，乃至六祖，無不皆然。雖藉楞伽金剛印心，未嘗廢教，而貴行起解絕，不許坐在知解窠臼，故與台宗圓妙止觀同如秋也。密宗唯大乘法，身入壇結密印，口誦密言，意專密觀，名三密法門。若論初修之者，必先持淨戒，發菩提心，解法界理，方許入壇，剋期取證，亦由春夏而入秋。今約諸佛所說神咒，不許翻譯，唯令持者，立地證入，又令聞者，乃至遇影蒙塵，皆成究竟解脫種子，故

但云密宗如冬也。淨土者，三德祕藏，常樂我淨，究竟安隱之處。所謂常即法身，寂即解脫，光即般若，非一非三，而三而一，不縱不橫，不並不別，不可思議，不二而二。故全依即正名為佛身，全正即依名為淨土。祇此常寂光法性身土，全體迷之，而為三界六道，偏證取之，而為聲聞緣覺，權位菩薩，隨分悟之，而為三賢十聖。所以諸佛為實施權，不動法性，垂下三土為接三賢十聖，示實報淨土，為接聲聞緣覺權位菩薩，示方便淨土，為接三界六道凡夫，示同居淨土。而諸眾生，根性不同，樂欲亦異，或因持三聚戒，而淨四土，或因習教解甚深義，而淨四土，或因禪觀直悟自心，而淨四土，或因專修三密傳持咒印，而淨四土。或唯一門而淨四土，或二門三門四門而淨四土，如世閒草木華果，或生長熟脫於冬，或唯經一時即熟脫，或經二時三時，乃至具經四時得熟脫，故須云淨土如土，王四時也。夫八萬四千，乃至塵沙法門，未有不具戒者，未有不正解者，未有不篤行者，未有不證密者，未有不歸淨土者，故曰，五門收之，罄無不盡也。然則無解行之戒，非戒也，無戒行之教，非教也，無戒教之禪，非禪也。無戒行及禪之密，非密也。非戒非教非禪非密，則非淨土真因也。非有四種淨土，則戒教禪密無實果也。非真因實果，則不顯非因非果之心性也。不顯心性，則無以觀法海甚深無量。而徹其涯底，故以五門之瀾，為觀法海之術，願與同志者共之。

幻住雜編自序

憶自辛未冬初，入靈峰，今閱二十四載矣。幻緣不定，出入多番，僅於此結。辛未冬，壬申夏，癸未夏，甲申冬，己丑冬，庚寅夏耳。癸酉甲申之春，及辛卯冬，皆暫入旋出，席不暇煖，不亦深負山靈也乎。甲午仲春晦日，從新安歸，始克痛謝他緣，畢志安臥。客歲名幻遊，今應名為幻住也。偶有所述，名幻住雜編。靈峰蕩益大師宗論卷第六之四

題跋一

題對峰禪師血書受戒文後

心佛眾生，本無差別。以不達自性清淨，為客塵所汙，遂有三界升沈。故欲出苦輪，莫先持戒。欲淨戒根，莫先悔過。經云，波羅提木叉，是眾等大師。又云，有二種健兒，一自不作罪，二作已能悔。乃末世既毀梵行，復事覆藏，戴高山履巨海，雖遇真善知識，安能救濟哉。對峰弘師血書誓文，歷年幾四十載，手澤如新。一傳鑒空寧公，再傳智度泓公，匪藉堅固大願，弗克有此。梵網謂明人忍慧強，能持如是法，詎不信然。此文當與戒性同其不壞，普令未來見聞，同悟自性清淨戒體，不異親稟紫柏大師前也。

刻十二頭陀經跋

頭陀以抖擻塵勞為義，具十二法。迦葉尊者，終身奉行。世尊謂正法住世，全賴此人。迨茲末運，妄以鬚髮當之，尚不知比丘戒為何事，矧頭陀法邪。予雖根劣，僅持一二，然一番展讀，輒一番愧疚。例諸賢達，想亦當爾。重錄梓行。伏願見聞隨喜者，發增上心，少多奉持，庶重興正法，不日可望耳。

血書經品跋(為鉅沙彌)

每念大法難值，如優曇花。戊辰秋，瀝舌端血，書梵網地藏等經。今僅得數品，合為帙。首決定明誨，次安樂行，十二頭陀，八大人覺及大乘戒經。所以息眾惡之源，廣慈悲之道。次寶華敷會，得聞十方佛名。終勢至圓通，攝歸西方淨土。噫，具諸戒行，讀誦方等，上上品生，斯其券矣。然天台云，一一生因，皆判九品，隨治惑淺深，分位次高下。是則三階，四土，寶地疑城，問心不論事，是在不負最初歡喜頂受之一念而已。合掌跋。

水心持金剛經跋

自五祖以金剛般若印心，此經遂為世寶。然世人依語生解，一味蕩相明空，大失無住生心之旨。經云，後五百歲，有持戒修福，於此章句，能生信心。又云，發菩提者，不說斷滅。噫，只此二語，可思矣。蓋無住超凡外之著有，生心超二乘之沈空。無住則十界俱非，生心則十界俱即。遮照同時，生佛不二。中流兩岸，一齊坐斷。當知文字般若(萬象萬行，與音聲點畫同名文字般若)，與觀照實相非一非異。如此受持，可救空宗之失矣。

刻較正梵網上下跋

梵網之流通東土，自羅什始。而下卷之獨弘，傳自智者。始智者之時，道法盛而根性利，人淹教典，博洽大乘，故獨揭重輕戒相，以便行持。今人根日鈍，學日荒，登壇受戒，徒挂虛名。心地法門，茫無所曉。既不能廣學多聞，并上卷尚未寓目，安能於三十心中，一一解其次第法用。一一不解，一切法不知，即為自誑，亦誑他人。儼稱菩薩戒子，寧不汙於至教乎。予濫膺法服，憂切杞人，擬合註上下，兼謀梓梵本。但上卷久秘，魯魚猶少。下卷傳世，亥豕實多。唯雲棲古本，雅合義疏，的可依承。又義疏，從偈頌開章，而經名梵網因緣，已指上卷乃藏本上卷，終十地，將付囑奉持之文，反置下卷首。今細玩文義，從賢劫品中說以上，確是上卷結文。從爾時釋迦以下，確是下卷序分。敬用每朝刻藏，分一卷為二卷，合二卷為一卷之例，以義定其節段。至於重輕戒相，本是疏家科文，藏本原無，不應竄入經中，但可別列經後。又此戒相，傳自先賢，智者仍之，已有不定。今依律藏推析，不無更有可商。爰註各條下，以便酌取。普願見聞隨喜，讀誦受持，同悟梵網明珠，頓契本源心地。

刻頭陀遺教與梵網同帙跋

蓮洲居士，書梓梵網，復合刻頭陀遺教。議者曰，大小兩乘，教道既別，旨趣天殊。梵網利生涉俗，不捨塵勞。遺教頭陀，物外蕭然，唯祈自了。離之雙美，合乃兩傷。今併一函，不令誦者泣岐乎。解者曰，兩乘雖別，金口是同。日月照臨，並行不悖。又解者曰，菩薩有二種，智，增上者先空後假，悲，增上者先假後空。方便多門，歸元無二。嘻，此皆未達聖教微旨，未識流通至意者也。夫從井救人，宣尼所否。甕外運甕，舉世所知。豈有自疾不療能療他者。嬰兒病行，聖梵同符。天行未明，徒增戲論。故華嚴二普酬倡，名離世間。非豎精進幢，奉遠離戒，何能深入心地，把臂三賢

十聖，不被愛見吞噬邪。菩薩戒本經云，聲聞深樂涅槃，畏厭煩惱，百千萬倍，不及菩薩深樂涅槃，畏厭煩惱。謂諸聲聞但為自利，菩薩不爾，普為眾生。彼習不染汙心，勝阿羅漢成就有漏，離諸煩惱。讀此一章，群疑頓釋。三經恰恰相成，非前非後。合則雙美，離乃兩傷。願讀誦者，以無著心行菩薩道，以菩提心修遠離行。如普門示現，照五蘊皆空，而度苦厄，地湧高流，住下方空中而弘法華，不唯春蘭秋菊，正是一鼻孔出氣也。

寄南開士血書法華經跋

血書一法，攝歸普賢行海，條列梵網戒章。特所以然之故，未有揭示，致狂慧之徒，蔑為有相。夫無始生死根本，莫甚身見。出世妙法，莫先摧破薩迦邪山。薩迦邪見破，則生死輪永息，是名尊重正法，是名以法供養如來。法華楞嚴，深嘆然臂指及然香功德，亦以此耳。或謂斷煩惱臂，然無明身，豈在區區血肉間。不知眾生結習濃厚，虛幻血肉，如翳眼中脂，當體即是無明煩惱。僧問紫柏，如何是生死根本。曰，只汝身是。云恁麼則死了便出生死。師震威一喝。嗚呼，大人作用，豈義學所知。蓋實從半偈悟徹，故示人自親切也。人能刺血然香，縱未明理，亦破敵前茅。儻高談理性，不入行門，身見高山，何由摧碎。予每見此妙行，必深心隨喜。況妙經開權顯實，舉手低頭，皆成佛道，人能盡發此心，行此行，不但靈山未散，安知支那邊地，不三變而成淨土也。寄南開士，即紫柏孫，必能悟一喝意。他年坐道場，紫柏當湧寶塔以證之矣。

雲麓居士持金剛經跋

大般若云，有菩薩成就開智，一句中解無量義。有成就演智，一句義作無量說。所以般若一法，或說六百卷，或說三十卷，或說一卷，或說一章。廣略雖殊，與甚深般若相應一也。苟得開演二智，多少無礙。若但作文字觀，只般若二字，已自葛藤，非直攀枝附葉者為有過也。末世法師，心無實悟，徒向口耳邊起見，或喜繁文，或喜簡略，總名遍計情執，何由入佛智慧。佛智慧者，如人有目，日光明照，見種種色，一中解無量，無量中解一。荊棘林中，橫身直過。潔白地上，掉臂不留。又何捨一從一，始誇直捷哉。維摩云，無離文字說解脫。法華云，言辭相寂滅故，知四依大士，弘演科章，橫說豎說，皆與般若不相違背。未達者，自繞葛藤，非說法過。設埽之而眾生處處生著，於要言中，愈滯情塵。古人云，若以不立文字為高，只不立二言，即是文字。廢多執少，癡執彌深。願

由心經一章，進之金剛一卷。又進之摩訶般若三十，大般若六百，於三藏十二部，透盡言說差別之旨，總歸理性般若之宗。則文字觀照實相，舉一即二，言三即一，左右逢源，不可思議，孰為根本，孰為枝蔓。視固守簡易，自稱直截明白者，不啻夜郎王矣。偈曰，太阿藏匣已驚神，舉向當陽不用硃。錯節盤根迎刃解，虛空割碎豈留痕。

白牛十頌自跋

學道既不可廉纖，亦無容鹵莽。諸佛說法，有片喻，有全喻。牧牛公案，可喻宗乘現世機緣，亦喻佛道僧祇修證者也。況圓人善超，六而常即。豈以圓融礙行布，而必懷增上慢於理性，方名不落階級邪。有病此頌位位分配，不似衲僧氣象。予謂之曰，且喜老兄會祖師禪，如來禪未夢見在。

重定授菩薩戒法自跋

竊觀比丘受戒，律有定式。五部雖殊，大同小異。故應專遵四分，削後竄之繁文。菩薩受法，經論各異。梵網瓔珞，地持善戒以及心地觀等，被機既別，詳略互殊。是以制旨教行等，各抒己意，增設科條，雖辭美意詳，並殫其致，然或義因文隱，反不若經論之痛快直捷也。今梵網受法，已失其傳，僅存影略。唯地持瓔珞，的可依承。敬酌三家，會成一式。庶俾詳簡適中，而授者受者，皆得明白簡易，以免紊雜之過耳。

梵網合註自跋

夫本源心地，含生共有。無染性戒，日用不知。翳目而華舞太空，夢蟻而尋羶階下。然晴虛之體依然，輪王之身如故。哀哉妄惑，枉受幻輪。勞我慈尊，現身同患，示成不倦於八千，垂化無偏於塵刹。一滴之心地既敷，積劫之沈迷立醒。而琅函久錮，半珠僅呈。繫我愚蒙，得探全寶，竭思殫機，塵培泰嶽。思法緣之匪易，輒涕泗以滂沱。願我同仁，深思力學，解行同遵，自他俱利。庶得上報佛恩，不負己性矣。

積如開士刻般若照真論跋

般若無名，一切法皆般若別名也。一切法無體，般若即一切法自體也。一切法不可名，故般若亦不可名。般若無別體，故一切法咸無別體。世有欲借語言，絕語言而顯般若者，皆未達甚深般若圓融三德者也。何謂圓融三德，一實相般若，名法身德。二觀照般若，名般若德。三文字般若，名解脫德。此三非三，亦非定一，以一切皆實相，皆觀照，皆文字故。是故六百卷非多，二百六十餘言非少。乃至後賢述作，無慮數十百家，了得即字字解粘，不了則字字加縛。澄公照真論亦其一也。願見者當下與甚深般若相應，不更作借言絕言會。若於此不借不絕，則六百卷一大藏，悉不借絕。一星之火，遍燒原野矣。

血書法華經跋

一切佛語皆群靈眼目，千聖慧命也，況無上妙法乎。一切讀誦受持，皆般若真因，度苦寶筏也，況刺血為墨乎。掠虛禪者，高談名理，罔知實行，彼未悟理耳。設真悟理，則一切行無非妙理，有何事相可薄，理性可尊邪。況眾生無始，我執恆重。若宗若教，對治咸急。正宜借此微因，充至三祇大行，俾正使習氣，一齊破盡。可謂即事而理，即漸而頓矣。奈何棄此真實，以空談當妙悟哉。乳生法友，夙植正信，年方應法，作此不思議功德，是故歷參知識，不染近時禪病。將來親見靈山一會，方知血肉點畫，全體法華三昧，無相安樂行，果不在有相安樂行外也。

蘊謙書法華經跋

此經五種法師，受持，讀誦，解說，書寫也。夫受持，讀誦，解說，能生解成觀，自軌軌他，謂之法師固宜。彼書寫胡亦稱法師哉。然書寫尤可自軌軌他，尤易生解成觀。請言之。均一紙筆墨也，一手腕也，以此寫姪辭豔曲，成三塗因。寫世間典籍，成人天因。寫阿含三藏，成出世因。寫大乘方等，成菩薩因。寫妙法蓮華，則唯是佛因。儻紙墨筆手不能寫妙法者，亦必不能寫姪辭豔曲以溺人也。儻能寫姪辭豔曲者，亦必能寫妙法以昭人也。是同一性靈也，一緣助也，一功能也。十界升沈，不分而分，如此矣。且姪辭豔曲，雖三塗因，亦具十界。如聞他若無心我也休，頓明心地，非佛因乎。佛尚具，他可知矣。妙法蓮華雖佛界因，亦具十界。如經明謗斯經者，獲罪無量，非地獄因乎。地獄尚具，他可知矣。嗟嗟，手腕功能一也，紙筆墨緣助一也，性靈知覺一也，十界非此俱不成，十界因此遂互具。既成而互具矣，則必有如是相性體力等，

百界千如，炳然在一紙墨閒，一手筆閒，一性靈閒。性德三因，修德三因，性修相成，性修不二，可洞然於實相淵府矣。又示讀誦者，俾解成觀發，非自軌軌他之最勝者乎。願寫者閱者，薦此性具實相妙理，以為妙修之本，毋曰姑結遠因於久後也。妙法之師，當仁不讓，其在是與。

願彌血書法華經跋

如來一切經典，法華稱王。行人一切供養，血書為最。蓋五時八教，至法華而理無不盡，機無不收。所以一句沾神，一言作種，必至成佛，矧全經功德乎。吾人難捨，莫若己身。至刺血為墨，而殷重極矣，身見破矣。與藥王之然身臂，豈有二焉。每慨末世，專尚虛解，口頭三昧，遍傳寰宇。四安樂行，置若弁髦。開士非時食戒，嚴似遠公。萬善莊嚴，勤同壽老。又發勝心，成此功德。豈五種十種供養，所能較量哉。

達權書法華經跋

此經名平等大慧，亦名諸經中王。夫慧平等，法亦平等，何故獨稱王哉。蓋法雖平等，眾生迷故，妄見差別。故一代時教，巧逗迷情，於無差中作差別說。至靈山極倡，方明差本無差。是會一切法皆成佛法者，全由法華之功。回視華嚴兼，阿含但，方等對，般若帶，皆無與並者。況本門極倡三世益物。番番種，番番熟，番番脫。前非始自大通威音，後不窮於薪灰火盡。凡如來豎窮橫遍之化工，施設教網之綱要，徹底顯示，罄無餘蘊，所以難遇過於優曇，受持功齊法界也。然佛法妙，生法妙，不離心法之妙。現前一念妙心，是名蓮華。悟心蓮華，一切法無非蓮華。心是經王，心是平等大慧。達此實義，方名達權。勉之哉。

三學血書華嚴經跋

一代時教，華嚴為根本法輪。以為實施權，流出無量法門，開權顯實，還歸法界性海故也。然法門權實，雖復不同。而性修要旨，初無少異。此經首題大方廣者，即直指吾人現前一念三德秘藏之性。佛華嚴者，即指稱性所起圓頓修德之功。不達性體三德，萬行何所莊嚴。不以佛莊嚴而為莊嚴，性德何足貴重。佛華莊嚴者，戒定慧三學而已。戒學定學福德莊嚴，無上慧學智慧莊嚴。慧固佛慧，福亦佛福。迴異舊醫三法，高超權教三修，一一皆名佛華。經不云

乎，具足受持威儀戒法，能令三寶種性不斷。戒既全體佛戒，定慧何莫非佛。以圓頓佛華，莊嚴大方廣之心性。斯則全性起修，全修在性。而遮那身土，不離下凡一念心矣。儻高推聖境，漫云我是凡夫，則何謂心佛眾生三無差別。儻執性德，漫云實齊諸聖，則我大方廣性本自平等，又何以高超九界，成等正覺邪。禪師三學，血書經王。余為發明三皆佛學，俾滴滴血，皆從普賢毛孔中流出。一一滴中，具大千經卷。無別有也。

法華綸貫自跋

李白登黃鶴樓，見崔灝詩，遂閣筆，知不可勝也。智者大師，親證法華三昧，光宅尚破，餘家可知。後人紛紛置喙，未具青蓮學識耳。諸友請余解法華，堅以此意辭之。適達際督梓梵文，欲撮全經大旨，以便初學。敬依玄文，節取大綱，名為綸貫。庶述古而不妄作云。

妙玄節要自跋

一字法門，海墨不盡。九句譚妙，奚足云多。且九句四辯，文義何限，章安所記略矣。乃末世鈍根，猶畏其繁。望妙玄而如海，甘蛙守以不前。無上醍醐，罔沾一滴，可痛也。竊聞大智度千卷，羅什十倍略之。摩訶止觀全書，荊溪錄其大意。因倣厥旨，輯為妙玄節要。凡二卷。庶幾一嚮染指，漸充法味。然後遍討玄文，深證法華三昧。斯舉也，未必非循循善誘之一術也。若僅守節要，終置全珍，予固智者章安之罪人，而彼又予之罪人矣。

題若水關主手卷

文殊起佛見法見，貶向鐵圍。高峰云，今有起佛見法見，合掌讚歎。何故，時節若到，其理自彰。此出格超方手也。宗門作略，與大醫王相似。急治標，緩治本。又有順治逆治之不同，期於起病，不執陳方，責其無驗也。末世禪學，謬自立宗，不知了因緣因，恆相資藉，固有了因性發，緣因頓具者，亦有緣因性熟，了因忽發者。如舟與水，相資有濟，不可謂水可緩，舟應急，舟可緩水應急也。若水關主，久閱大藏，盡了了否。若了了而仍未瞥，則佛見法見應貶鐵圍。若未盡了，是聞有餘而慧不足，正可向此求開慧性。所謂時到理彰，逆治之不可，則順治之也。試揣平日對經卷時，與上蒲團提話時，孰得力，孰不得力，孰能克除習氣，孰不能。夫發

藥治病，聽諸良醫。有效無效，還須自檢。昔有人素服砒，因久缺遂病。醫醉，誤投以砒，霍然病起。今三藏雖如砒毒，恐既久服，未必不以此得霍然也。

題至孝回春傳

儒以孝為百行之本，佛以孝為至道之宗。蓋報恩心出於萬不可解之情。如黃會卿，以割股療母痼疾，母享年八十有二，皆真情所感也。是情也，謂為世法，實是菩提之基。謂為出世，不過愛欲之妄。君子於此，不可不學，不可不達。昔曾母嚙指而子為心痛。達此可悟同體法性，知唯心法門，即世孝成出世孝矣。

題獨省編

余幼事理學，輒以闢佛為任，惡異也。稍長，又輒以為同。習久始知亦同亦異。今也知其非同非異，仍不妨說同說異矣。永邑周子，儒而玄，玄而禪，禪而又儒者也。退藏之暇，出獨省編。夫不睹不聞，儒所謂獨也，而大本達道存焉。玄之又玄，老所謂獨也，而眾妙之門在焉。覓心了不可得，釋所謂獨也，而百界千如具焉。此真混而弗齊，類而弗隔，要亦為未省者言耳。省之何一何異，何獨非獨。寂然不動，獨亦不可得。感而遂通，至蹟不可亂。正寂時萬感炳現。正感時當體寂然。天下歸仁之後，更無操存舍亡之懼矣。子其省之。

觀泉開土血書法華經跋

經云，譬如高原，鑿井求水，若漸至泥，去水必近。菩薩發大心，亦復如是。若得逢此法華經王，即近阿耨菩提。儒亦云，有為者，若掘井九仞，不及泉猶為棄井。噫約教論泉，則五時四教，無如法華。法華即泉也。約觀論泉，則文字如土，聞慧如溼，思慧如泥，而修慧泉也。開土若以阿含為土，方等為溼，般若為泥，應於此經一文言，一滴血，皆作清冽香泉觀。若求修慧之泉，應隨文入觀。正如不離高原，施功及水，鑿之既久，幽泉必迸。亦莫離此文言滴血，令成棄井也。

蓮洲書佛頂經跋

經云，一念將此法門，於末劫開示未學，是人罪障應念消滅，變其所受地獄苦，成安樂國。顧一念至微，何力用如此。須知一念之性，本豎窮橫遍。一切事理性相，從不在現前一念之外。故一念迷生死浩然，一念悟輪迴頓息。試思平日，起惑造業，畢竟是誰。今書經懺悔，又畢竟是誰。此造業懺悔之念，在內在外在中間邪，青黃赤白長短方圓邪，過去現在未來邪，果覓之了不可得，則罪福無主，名真懺悔。阿難所以頓獲法身，性比丘尼所以成阿羅漢也。若於無可得中，妄計有心可得，則旋犯旋悔，既悔仍犯，如隔日瘡，有何了期。然大乘緣種，不可思議。勉強力行，功無虛棄。出世善根漸勝，世間漏種漸消，如明破暗，亦決不誣也。

題靈異雜錄

子不語怪力亂神。怪神如力亂，非無也。百姓紐於見聞慣習，偶一事出慣習表，則怪之。詎思只今一身，眼耳胡以見聞，口足胡以嘗與語，止與行不亦至怪與。佛證心性之妙，不為慣習所局，亦何靈異。百姓視之，不勝靈異矣。謂佛靈異，此不知心性本妙者也，并佛靈異之跡而不見不聞不覺不知，此又井蛙夏蟲之甚者也。雖然，井蛙夏蟲孰非靈異，唯靈異之性原等，故仍得以靈異覺之。覺此靈異，又覺此即非靈異，可與語不語之語矣。

推古題辭

聖人往而經史存。經史固不足傳聖人之心，而善會聖心者，初未嘗離經史也。既於經史會聖心，謂聖人果往，可乎。文王沒，文在茲，天不能喪，人不能死。吾是以知不善讀經史者，古未嘗不今。善讀者，今未嘗不古也。今而古，則言即無言，文即無文，勿起二見可矣。

毘舍浮佛偈跋

紫柏大師云，生平持毘舍浮佛半偈。句半熟，半句未熟，更熟此半句，生死脫然矣。毘舍浮，此云遍一切自在，結莊嚴劫之終，開賢劫之始。故此半偈，最為良藥。眾生病雖不一，其源不過妄認四大為自身相，妄認六塵緣影為自心相而已。今以四大觀身，知身非身。以緣影觀心，知心非心。既達妄計之身心，即非身心，焉往而不自在。然則毘舍浮佛，不在莊嚴劫，在吾一念無身心之智而已。

果達身心本空，奚止舍浮不離當念，盡十方世界過現未來諸佛，皆不離當念也。

血書金剛經跋

論云，菩薩觀智，所守者約，而觀境遍，剋果大。故喻金剛兩頭闊，把手處細也。是故菩薩，但觀一念心性，覓之了不可得。炳現萬法，無能無所，無是非是，則達三般若，皆如金剛，是真能把者。行幻佛子血書最上乘，此金剛邪，抑已善能把邪。佛子莫作二視，可也。

題牧牛圖

牧牛喻修證，本諸經論，非創談也。然畢竟牛是何物，牧者何人。普禪為頌，雲棲鉅圖。葑中法友，又繪成卷。予更下一註腳，如牛入窗櫺，頭蹄都過了，卻有尾巴過不得。且道此尾白邪，黑邪，有邪，無邪。會得者箇消息，不妨雲邊月外與汝相見。

重刻三頌自跋

不信教外別傳，是謗宗也。謂教外果有別傳，是謗教也。抑不信教外別傳，是謗教也。謂教外果有別傳，是謗宗也。捨此二塗，作何折合。不見道，恁麼也不得，不恁麼也不得，恁麼不恁麼總不得。又道恁麼也得，不恁麼也得，恁麼不恁麼總得。雖然，毫釐差，天地隔。山納甘墮無閒，漫作三頌，未審教外邪，教內邪，別傳邪，非別傳邪。儻遇無眼人觀，無耳人聽，必有能辨之者。

性學開蒙自跋

此別答十問之第四問也。良以兩家性學，世罕兼通。儒未必習佛，習亦難窺堂奧。佛未必習儒，習亦不肯精研。予年十二就外傳，麤知書義，便以道學自任，於居敬慎獨之功，致知格物之要，深究之。年二十，看顏淵問仁章，竊疑天下歸仁語，苦參力討，廢寢忘餐者，三晝夜，忽然大悟，頓見孔顏心學真血脈真骨髓。因識孔子聞知之傳，誠待其人，非漢宋諸儒能擬議也。越四年，知出世大法，發心離俗。先參少室禪宗，後學天台教觀，不啻皆如渤海相似，十五六載，僅沾一滴，方為向若之歎。反觀向所悟孔顏心學，又今一滴中之一滴矣。嗟乎，道曠無涯，為若此也。世之沾沾自足

者，何啻井蛙也哉。然又知一滴之性，即大海性。故身為釋子，喜拈孔顏心學示人，知與不知，任諸旦暮。此問同志未諳，固請予略明梗概，遂於一滴海中，復出滴許。如此，知必為大方所笑。然神龍得之，安知不即此興雲澍雨，又安知不藉此騰歸滄溟也。

遺教解自跋

旭未出家，讀遺教，便知字字血淚。既獲剃染，靡或忘。所憾障深，廿餘年空無剋獲。非道人，又非白衣，方撫心極愧，而甫敦沈居士固請解此經。嗟夫，予不能臻修世出世功德，徒以文言作諸天說法鳥邪。然一隙或明，弗忍終吝。藉此功德，破障策新，普與同患，回向西方，仍作迦陵頻伽，代彌陀廣宣法要可矣。

彌陀要解自跋

經云，末世億億人修行，罕一得道，唯依念佛得度。嗚呼，今其時矣。捨此不可思議法門，其何能淑。旭初出家，亦負宗乘而藐教典，妄謂持名曲為中下。後因大病，發意西歸。嗣研妙宗圓中二鈔，始知念佛三昧，無上寶王，方肯死心執持名號，萬牛莫挽也。吾友去病，欲令此經大旨，辭不繁而炳著。予方願普與有情，同生極樂，不可辭。舉筆於丁亥九月二十有七日，脫稿於十月初五日。所願一句一字咸作資糧，一見一聞，同階不退。信疑皆植道種，讚謗等歸解脫。仰唯諸佛菩薩攝受證明，同學友人隨喜加被。

周易禪解自跋

曩遊溫陵，有郭氏問易，遂舉筆屬稿。先五傳，次上經。而下經解未及半，以應請旋置。今商大乘止觀之餘拈示易學，始竟前稿。嗟嗟，從閩至吳，地不過三千餘里。從辛巳冬至今乙酉夏，時不過千二百餘日。乃世事幻夢，萬別千差，交易邪，變易邪。至歷盡差別，時地俱易而不易者，依然如故。吾是以知，日月稽天而不歷，江河競注而不流，肇公非欺我也。得其不易，以應其至易。觀其至易，以驗其不易。常與無常，二鳥雙遊。吾安知文王之姜里，周公之被流言，孔子息機於周流而韋編三絕，不同感於斯邪。因閣筆，復為之跋。

唯識心要自跋

宗鏡云，智慧合其多聞，終不執詮認指。多聞度其智慧，免成孤陋面牆。設一微塵未了，此猶有無明在，以不了處為障翳故。況自身根門之內，日用之中，有無量應急法門，全未明一。若欲為人，憑何剖析，只成自誑，反墮無知。自眼未明，焉開他目。須三量定其是非。真修匪濫，四分成其體用，正理無虧，然後十因四緣，辨染淨之生處。三報五果，鑒真俗之所歸。若不達三量，真妄何分。不知四分，體用俱失。又云，一心實相悉是諸法。諸法所生，皆從現行，善惡熏習。第八識含藏種子為因，發起染淨差別報應為果。若不微細剖析，問答決疑，何由到一心總別之源，徹八識性相之際。提綱意在張網，不可去網存綱。舉領意在著衣，不可棄衣取領。故事理雙明，方通圓旨，教觀齊運，始達一乘。又云，不因教所指，何由識自心。設不因教發明，亦須憑教印可，不然皆成自然外道。闍證禪師，直饒生而知之，亦多生聞經熏種，諸聖本願冥加。嗚呼，永明大師，以法眼嫡孫，悟齊諸祖，而苦心苦口，勸誡若此。誰謂成唯識論，非佛祖傳心要訣乎。予憾障深惑重，不能剋證，而性相源頭，頗窺一線，誠或諸聖冥加，故亦不敢自秘，聊竭隙明，和盤托出。舉筆於丁亥三月廿五日，脫稿於五月廿五日。閱兩月，述成觀心法要十卷。伏願見聞隨喜，不退菩提，若信若疑，咸成妙種。同生極樂淨邦，先覲阿彌陀佛。還人龍華初會，影響彌勒世尊。盡未來，廣度含識眾生盡，方證涅槃。

書慈濟法友托鉢養母序後

戊子仲秋，慈濟法友乞余重書前序。余於是反躬自責，不勝涕淚交流也。予少有養志之願。年二十而喪父，恨徹終天。廿四出家，捨母不養。蓋欲剋期取果，用報親恩。不謂廿八歲，母復捐世，哀哀之痛，肝腸寸裂。然猶曰，矢入深山，冀得一當，或可贖彌天罪愆耳。逮三十一，被道友牽偈，漸罣名網，而潛修密證之志，益荒矣。今者年滿五十，先人棄我足三十年。既不能如目犍連之自獲果證，每思結一淨壇，邀十友修淨土懺法，無柰囊鉢蕭然，拙於行乞。每向中夜，展轉悲號。而慈濟乃以一鉢千家，承歡膝下，真不思議樂也。善達緇素，乃以粒米莖薪，助渠孝養，真不思議福也。余無此福，故無此樂，宿生業重，夫復何言。敬於此福此樂，深生隨喜。以此隨喜善根，普施法界有情，同得此福此樂。直至累劫報親恩，積因成正覺，永離不肖無福無樂之苦。於是拭淚而復書此。

靈峰蕩益大師宗論卷第七之一
靈峰蕩益大師宗論卷第七之二

題跋二

貝林師書大佛頂經跋

予聞貝師善梵書，為芥菴凡夫諸友所欽。適沈甫受示師手書大佛頂經，每書一字，必致一禮，精誠端楷，千古罕見其儔。至梵文及明王像，不異五天親授。蓋真得諸定中，非聊爾也。師棲神安養，誓願弘深。示寂荼毘，骨皆五色。甫受專修淨業，與師臭味最合，故得手澤最多。嗚呼，世藐教乘，薄淨土，安得如師者以主之。又安得人人如甫受者，而得其所主也。

題玉浪施茶冊

性水本然，周遍法界。隨心應量，或為鑊湯沸尿，或為膿血清泉，或諸天甘露之藥，或淨土八功德水，皆循業現，非因緣，非自然性也。夫性真既舉體隨心應量矣，則凡鑊湯八德等，何非本然周遍法界乎。而遍計情執，橫於性真中，分水，分火，分寒熱，饑渴。故諸佛權智隨情，不與世諍，因寒熱而溫涼之，因饑渴而飲食之，因所見水火而調濟之，遂開施食，施茶種種法門。只此法門，有味因果者，又出三塗法界。著相計我者，出修羅法界。勉為善者，出人天法界。了本空者，成二乘法界。深入緣起廣演行門者，成菩薩法界。通達實相無入不自得者，成諸佛法界。雖依此法門，具出十法界已，仍於事相不增減，亦於法性不增減。是故不變常隨緣，理具還成事造。隨緣常不變，事造還該理具。是故能施所施及受施者，悉具兩重三千。此所謂三輪體寂，緣起無生，三千無性者也。豈離現前日用，別有向上一著哉。玉公作此不思議法，徵文於蕩益旭子。旭為拈曰，不了則受此茶者，墮阿鼻地獄，施此茶者，亦墮阿鼻地獄。了得則施者成無上菩提，飲者亦成無上菩提。雖然，此猶迷悟情量邊語。畢竟超情過量不屬迷悟，又作麼生。不妨借趙州老婆舌頭，徐徐荅曰，喫茶去。

憨大師書唐修雅法師聽法華經歌跋

甚矣，心之妙也。三世佛依此成道，十二類依此輪轉，山河日月依此幻現，文字音聲依此發宣。心不可以言語形容，然言語未嘗不即心也。隨一一語，必攬心之全體大用。然盡未來際，演無量言語，亦不罄一念心之妙也。人各具妙心，得釋迦老子法華妙經，庶幾註腳。法華妙經，得修法師聽法妙歌，庶略讚揚。此歌絕妙好詞，得

吾慙翁絕妙手筆，庶稱二絕。世有不知自心妙法華妙及此歌之妙者，但珍慙翁妙筆，日夕玩之，安知不因字知歌，因歌識經，因經悟心也哉。然則妙字，妙歌，妙經，無不從妙心流出，無不還歸妙心。誰謂心外有法，法外又別有心也。

十大礙行跋(十大礙行出寶王三昧念佛直指)

佛祖聖賢，未有不以逆境為大爐鞴者。佛四聖諦，苦諦居初。又稱八苦為八師。苟稍存喜順惡逆之情，終與夏草同腐而已，安能如松柏之亭亭霜雪閒哉。美玉不琢不成器，頑金不鍛不致精。鐘不擊不鳴，刀不磨不利。豈有天生彌勒，自然釋迦。欲為聖賢佛祖，必受惡罵如飲甘露，遇橫逆如獲至寶，方名素患難行乎患難，方可於穢土植淨土因，方如蓮出淤泥，超登不退。儻無事則駕言念佛求生淨土，一遇不如意，輒悔慍咨嗟，吾恐三昧不成，生西未保。須於此十大礙行，一一自驗，果於病時難時，乃至被抑時，唯增念佛心，明苦空觀，不尤不怨，庶蓮萼日滋，稱三昧寶王矣。

唐氏女繡金剛經跋

世之繡花鳥者，曰綾與線也，手也，心也。以美綾，細線，靈心，妙手而繡花鳥，則花鳥矣。轉而繡般若，則般若矣。謂般若與花鳥異，綾線心手果且有異乎哉。謂花鳥與般若同，昇沈苦樂果且有同乎哉。以美綾細線繡花鳥，猶云法身流轉，名眾生也。即以此繡般若，猶云苦即法身，為實相般若也。以靈心繡花鳥，猶云菩提即煩惱也。即以此繡般若，猶云煩惱即菩提，為觀照般若也。以妙手繡花鳥，猶云涅槃即生死也。即以此繡般若，猶云結業即解脫，為文字般若也。夫三般若只在一轉關間，而綾線不轉，心不轉，手不轉。謂轉三障為三德可，謂即三障是三德可。六祖所云但轉其名，無實性也。使無綾線，無心手，不可繡般若，亦豈可繡花鳥。謂花鳥非美綾細線靈心妙手所成，吾不信也。知此則蛄蜣六即，思過半矣。唐善女，所見金甲神，即自心所具執金剛神。乃徹悟此心，三般若無二體，而以同體大悲願力，護此文字般若，令法界眾生，因斯起觀照，而證實相者也。覽者信唐女之感應，便可信自心感應。信自心感應，便可信感應即非感應。非感應則無所不感，無所不應。是謂應無所住而生其心，是謂感應道交難思議，是究竟般若，是究竟花鳥。

去病公書大佛頂經跋

如來藏不變隨緣，舉體為善惡。善惡隨緣不變，舉體即如來藏。如日出天下明，日沒天下暗，虛空隨明隨暗，非明暗能增減也。去病公因一念迷而破犯，今一念悟而力疾書大乘，日已出矣。心性依然無恙，請勿更疑，則更不迷暗矣。

四十八願卷跋

大般若云，恆沙菩薩，發無上心，或一二得不退者。蓋無善巧方便，雖多劫勤行六度，不免退墮聲聞辟支佛地，況不能勤行六度者乎。然法華云，若聞一句一偈，我亦與授阿耨多羅三藐三菩提記，又何也。須知法華乃原始要終之論。縱墮塵劫，後必成佛。以無人出佛性外故。而大通佛時結緣眾，今有住聲聞地者，乃至未來聲聞弟子，猶十六王子所化。則般若所明退墮之多，讀法華而益驗矣。夫一聞佛名，畢竟成佛。退不退遲速天淵。然退墮之緣，在一時耳。乃流轉五道，動經無量百千萬億恆河沙劫，受無量苦。試一深思，能不寒心喪膽也哉。釋尊成道，以佛眼觀過去同發心者，或在三塗，方嬰劇苦。或在人天，正耽欲樂。或生色無色界，固守癡頑。或證聲聞辟支，保空滯寂。嗟嗟，與釋尊同發心者，尚爾稽遲。從王子初結緣者，何疑久墜。吾人旦夕稍有病苦難緣，尚覺難忍。乃甘一念之錯，招長時頭出頭沒之殃，豈非人無遠慮，必有近憂者哉。何謂善巧方便，般若明觀一切法空，度一切眾生是也。觀一切法空，何名利之足縈懷。度脫一切眾生，何苦行不能黽勉。觀空不度生，墮二乘地。度生不觀空，墮愛見慈。況恣我慢并無世慈。貪利名并障偏理，一芥翳天，一指蔽目。摩尼願寶，長隱淤泥，甚可惜矣。然一芥一指，亦何難撤，不肯撤耳。果念念緣此願王，不負初心因地，杲日當空，霧靄消滅。法藏比丘所以速成正覺，由此而已。

張興公喬梓梅花詠借題

予少酷嗜梅實，噉輒數百，然竟不知梅花丰韻也。今齒力漸衰，而談說醋梅，口中水出，態猶如故。且知梅花清芬逸雅，歲寒獨秀，其見賞於高人才士又如此。嗟夫，噉其實，不知其花。知其花，不復能嗜其實。竊怪夫今適知花，詠花者競出奇調，向久嗜實。詠實者，曾無一人也。昔世尊以蓮花巧喻妙法，天台大師以權實義釋之。為實施權，如為蓮故花，意在於實。開權顯實，如花開蓮現，意須於權。噫，昔嗜實無詠實者，病在不施權。今知權而多詠權者，功在於能忘實乎。顧權實之不易辨也甚矣。為實施權，則權外

無實。是故執權為實者非也。泥權為權者亦非也。開權顯實，則實外無權。是故離實求權者非也，捨權談實者亦非也。今天下有談實者，大似說梅止渴，曹瞞伎倆已耳。夫以梅為梅，不若以非梅為梅也。以非梅為非梅，不若以梅為非梅也。梅一恆河也，恆河一梅也。捨魚龍人天所見，固別無一河。捨諸君子所詠，豈別有一梅哉。諸君子各詠梅花，自是梅花各鋪天匝地矣。興翁之沈毅，僧持之穎拔，復從而後先賡之。若俱發明，則有俱現。云何復問不相容者，斯之謂與，斯之謂與。諸君子既借梅花，各寫所欲言，予借借而戲為之題。

法華會義自跋

嗚呼，圓頓妙法，曠劫難逢。繫我愚蒙，何緣幸遭。每一披閱，恍若夙聞。豈非普賢威力及釋迦守護之功邪。智者大師，不可復作。後賢堅執，鬥諍滋生，圓融絕待，法門幾成彼此是非情見。弘之者，城塹益高益深。望之者，疑畏日新日盛。耳聞目擊，扼腕痛心。不揣疏庸，聊為介紹。舉筆於己丑十一月初五日。甫成一序，病臥半月。至十九日，方得勉強從事。旦夕孳孳，手不停書，目不停閱。臘月二十六日，僅完會義八卷，歇節三日。庚寅元旦隨試筆，又歷一月告成。共計會義一十六卷，足運心力六十八日。嗟嗟，古人一炷香，朗誦華嚴一部。旭也鈍，矻矻乃爾，可嗤矣。然誘接初學，令得漸悟法華實相，不終按劍，亦不望洋。則釋迦普賢，及與智者，必愍旭之鈍置，而益鑒旭苦心也夫。

占察疏自跋

憶辛未冬，寓北天目。有溫陵徐雨海，法名弘鎧，說此占察妙典。予特遣人往雲棲請得，展讀之，悲欣交集。癸酉冬依經立懺。乙亥夏講演分科。是時即有作疏之願。病冗交沓，屈指十五年來，梵網，佛頂，唯識，法華皆已註釋，獨此夙願，尚未填還，可歎也。今庚寅年，閱世已五十二歲，百念灰盡，偶同志數人，仍來結夏北天目，究心毘尼。予念末世，欲得淨戒，捨占察輪相之法，更無別塗。爰命筆於六月朔，越十四日成稿。輸一滴以益大海，捧一塵以培須彌，雖無補於高深，庶善鑽於乳酪，公我同志，共享醍醐。

菩薩戒本經箋要自跋

予述梵網合註，已將此經所有開遮持犯，盡會入十重四十八輕矣。比因黑白月誦此本，有堅請箋釋者。予恐犯重繁過，辭之再三。更請曰，末世鈍根，或不能遍閱合註。若不令誦者略知大意，豈不犯無知罪乎。於是勉箋其最切要處，以便初學。若夫菩薩比丘，自應遍學大小律藏，即菩薩沙彌及優婆塞，亦應廣學大乘經律。豈容守此一滴而棄大海哉。

金剛經跋

金剛般若大旨，應無所住而生其心一語，足以蔽之。蓋無住，正所謂應住。生心，正所以降心也。而生心二字，尤為下手工夫。以凡外不生出世心，故恆住生死。二乘不生上弘下化深心，故恆住涅槃。唯菩薩不住六塵而行六度，故能如所教住，名第一義住，亦名住於佛住。試玩經中勸生心處，不一而足。如云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又云應如是生清淨心。又云信心清淨，則生實相。又云為利益一切眾生，應如是布施。又云以無我無人無眾生無壽者，修一切善法。乃至於法不說斷滅相等，而中間一處，直云應生無所住心。由是觀之，若不生心修六度，則住斷滅相矣。故余嘗謂此經，以實相為體，觀照為宗，文字為用。舊云無相為體，無住為宗者，非也。

題畫

見山忘道，古人所訶。況著意描山水，作古董玩具邪。畫者求者，各領三十棒。雖然，心外無法，滿目青山。果然會得，一切法趣畫，坐畫道場，轉畫法輪，度畫人物，證畫佛像。則予三十棒，便是普賢廣興供養矣。

題邵石生集陶近體三則

古今奇絕詩文，無非各從良知變現。而昧者以為定屬古今，不知皆吾自心影也。故為詩文所用，不能善用詩文。此集真善用陶者乎。雖曰陶詩，實邵影耳。(其一)

戛玉敲金，非以其工也。鎔凡鑄聖，非以其才也。苟壅其血脈，臂不能使腕，腕不能使指。況身外物乎。苟達其性情，龍可豢，虎可馴，況詩句乎。雖然，龍虎特易伏耳。不善用詩句，則詩句之怒，殆有甚於龍虎者矣。(其二)

邵非不知自律也，集陶者忘其自也。邵非不知仍陶也，為律者，忘其陶也。忘自陶亦自矣，忘陶自亦陶矣。天下有不忘而能用者乎。手忘故持，足忘故履，目忘故視，口忘故語。莊子云，魚相忘於江湖，庶幾近之。夫忘其用，乃為大忘。亦忘其忘，乃為大用。邵君其當進於此乎。

題鐵心橋冊

大佛頂經明眾生色陰，不過堅固妄想以為其本。夫妄想謂之堅固。則非堅固明矣。是以山可移也，海可竭也，金石可令流也，世界可壞空也，乃至虛空可消隕也。何有於區區一橋者乎。橋有鐵心，猶人肉團耳。鐵尚可盜，則肉團可易奪，益不難矣。肉團一期質礙，尚不難易奪，則緣影之乍生乍滅者，尤不難矣。是故緣影非唯不是真心，亦復不是妄想也。夫妄想者，無體無相，無方無所，而遍為五陰作本者也。是以雖甚不真，亦甚難奪也。眾生無始以來，用此妄想，牢不可奪，唯佛能不奪而奪。所謂令其妄想作佛，妄想念佛，唯以不可奪之妄想，即令還念不可奪之本性，此所以為究竟堅固首楞嚴王三昧也。儻捨妄想，別覓真心念佛，何處更有真心可得。儻以不念為真，則又墮在空散消沈，及枯槁妄想窠臼中矣。故曰，斷除妄想重增病，趨向真如亦是邪也。若以妄想心，熾然念佛，是謂舜若多性可銷亡，爍迦羅心無動轉。

題之菴凍雲圖

經明一切因果，世界微塵，因心成體。夫心既舉體為一切因果世界微塵矣，更喚何者為心，又喚何者非心。故心也者，不可為典要，唯變所適者也。然唯變所適，而終不可變也。宣聖有得乎此，知此心性，不唯不可目為器，亦復不可目為道，但云智及之，仁能守之而已，知之，好之，樂之而已，我非生而知之，好古敏以求之而已。學而時習之。學之，問之，思之，辯之，行之而已。涉江居士目其菴曰之菴。問廬山靜主湛公曰，如何是之菴景。公曰，納囊住仰天坪，雲凍於山腰，雨霽於山足，日朗於山頂。其之之變態乎，涉江喜，遂圖之。予曰，吾人介爾一念，頓具十界，百界，千如，理具事造，無餘無欠，炳然齊現，而無事安排也。如一念，一切諸念亦如是。如心法，一切色法亦如是。如實法，一切假名亦如是。是謂之菴，之凍，之雲，之筆，之墨，之紙，之腕，之主，之客，之緇，之素，之能，之所，一一無非之之全體大用也，五眼不能盡

觀也，五耳不能盡聽也。無之而非菴，無菴而非之也。湛公，涉江各各大笑，而以之圖，歸於念之，佛之子若。

恆正上座受持朱元介所書經跋

世之宰官，略有五類。一乘大願輪，上弘下度。此已悟無住生心之旨，能普門示現，恆以八大人覺，自覺覺他者也。二已有省發，未斷習染。一念之誤，偶墮洪福，仍能不忘本因，在欲思脫。山谷東坡是也。三夙向三寶，植福根深，今享宰官，雖未頓悟心源，而極力弘護。陸五臺是也。四宿為苦行僧，道眼未明，塵心未斷，見榮貴境，深生欣慕。雖乘苦行善根，遂獲如願，而縱恣五欲，不能自拔，則朱元介是也。五本不信三寶，因信福善，獲宰官身，往往自高自大，不知皈依奉持戒品。其仍行世善者，復受修羅鬼神雜報。若恣行諸惡者，永墮三塗而已。大集會一切菩薩，向世尊痛哭流涕，發大誓願，未證無生法忍已前，懇佛加護，寧墮地獄，不為王臣宰官。蓋深見富貴過患，墮落十不啻九，昇進百無其一故也。嗟乎，富貴浮雲耳，何能陷人。朱元介之陷溺，不在為狀元時，在為匡山老僧時矣。然陷溺中，猶能書此法寶，所稱食少金剛，畢竟不消者，非邪。此經謂如來說一切法，皆是佛法。又謂佛法即非佛法，是名佛法。元介能知此義，將錯就錯，就路還家。富貴陷溺之塗，何異普門示現之像。惜元介往矣，予為跋所書經，聊作未來得度因緣。所願後之閱是經，見是跋者，未為宰官，勿欣其榮，蹈其覆轍，已為宰官，急用此為殷鑒，早圖就路還家可也。恆正上座，日持此經，兼念阿彌陀佛，專求淨土，豈有誤墮之懼。恆公不墮元介覆轍，元介必隨恆公登樂土矣。予損己利人，未階一心不亂，獨宰官窠臼，勘破已久。將來必與恆公元介共晤言於珍池寶地。記取今日此語，共印之世尊大士，何如何如。

題樂愚尊宿付囑朱本蓮十八高賢卷

出家大丈夫事，非王侯將相所能。念佛又極圓頓事，非尋常禪教律師所能也。遠公髫年，文名藉藉。出家後結社東林，天子不能屈其節，真萬古高蹈。無怪乎十八高賢，同心宗仰。而陶謝名士，僅曳裾門外也。後世釋氏之學漸衰，禪講律師，無不仰一二宰官，售知人世。嗚呼，以視遠公何如哉。己巳秋，曾晤樂愚尊宿。觀其稜稜骨氣，猶有先輩風。較近時齷齪寒酸，及趨炎附勢者，勝百千倍矣。公有志中興蓮社，從匡山攜得此卷，不付緇門徒輩，獨付朱居

士本蓮。或深見緇門無可付囑，而居士素有出塵志。又二子皆先薙髮，三人中有一人焉，能脫時流惡習，復振遠祖家風者乎。

余一素居士楷書華嚴大典跋

大方廣佛華嚴經者，直顯吾人現前一念之心性也。心性體無對待，故大。相無欠缺，故方。用無邊涯，故廣。心性本無不覺，曰佛。本無不含，曰華。本無不顯，曰嚴。眾生迷此，枉受輪迴。如以大千經卷，閉微塵中。諸佛菩薩悟此，得大解脫，如剖微塵，受用大千經卷。是以正覺初成，海印炳現。十會不離剎那，一處頓周剎海。重重無盡，似帝網明珠。法法互融，若秦鏡涉影。隨舉一字，悉具六相十玄。苟悟片言，必徹千如百界。圓融行布，分之而愈合。事理性修，混之而愈著。吞教海之萬流，混同一味。派禪源之涓滴，廣注百川。故龍樹始謂利根，自許超佛。既睹龍藏，不覺喪吾。況末世之譏譏者邪。邇年周籍湮埋，諸侯僭竊，甚至陪臣執命，全未聞禮樂影響。竊為大言欺世曰，善財五十三參，正眼看來，未免刺首入膠盆。超脫漢子，那得有如許落索。噫，此野夫吃脫粟飯，笑傲王公，寧止夜郎王而已。一素既能莊嚴此現前一念，華嚴性海，豈有不直下承當，又豈有得少為足哉。

西有寢餘自跋

戊子幻寓葉園。名漫藁。為西有寢餘，蓋雖念念思歸樂土，而利人之夢仍未忘也。己丑秋。歸臥靈峰。庚寅冬辛卯夏，復鼓脣祖堂長干兩地。逮壬辰秋，波旬效力，助破夢中利人之想。萍漂吳水，梗泛吳波，寢語從此息矣。此後如孤雲野鳥，雖同在無明長夜中，別是一番幻夢。縱有啼笑，不容復續此編。

較定宗鏡錄跋四則

聖賢示現出世，覺悟群迷，不得已而有言。言此無言之旨，即文字非文字，不離文字而說解脫，豈非實相，觀照，文字三般若，本非一異並別可思議哉。永明大師，相傳為彌陀化身，得法於韶國師，乃法眼嫡孫。宗眼圓明，梵行清白。睹末運宗教分張之失，爰集三宗義學沙門於宗鏡堂，廣辨台賢性相旨趣，而衡以心宗，輯為宗鏡錄百卷，不異孔子之集大成也。未百年法涌諸公，擅加增益，於是支離雜說，刺人眼目。致袁中郎輩，反疑永明道眼未徹，亦可悲矣。予生也晚，不遇先輩宗匠，但留心己躬下事，已三十餘年。又

時尋了義至教，頗窺一線。閱此錄已經三遍，竊有未安。知過在法涌，決不在永明也。癸巳新秋，刪其蕪穢，存厥珍寶。卷仍有百，問答仍有三百四十餘段，一一標其起盡。庶幾後賢覽者，不致望洋之歎，泣岐之苦矣夫。(其一)

西土諸祖，宗說兼通，故能續佛慧命，普利人天。此土如北齊南嶽智者杜順，未嘗不以禪關為本。達磨六祖，五宗諸老，未嘗不以聖教為印。斷未有師心自是名禪，算沙數寶可名教者也。降至唐末五季，禪教相非，性相角立，台賢互訕，甘露反成毒藥矣。永明大師於是乎懼，爰成宗鏡百卷，以詔後人。雖被法涌雜糅，然具眼者觀之，金沙可立辨也。如百兩真金，投以十兩鋁石，頓失光彩。一斛白粲，投以數升稗穀，遂覺蕪穢。苟去其鋁稗，金之光彩如故，米之精粹不改也。嗟嗟，後賢未獲差別法眼，慎勿於先聖著作，妄事增益也哉。予手點此錄，於今四遍。每尋討必有新益，實是觀心之助，斷不可作世間文字道理會也。雖然，愁人莫向無愁說，說向無愁總不知。俟之子期而已。(其二)

古人云，依文解義，三世佛冤。離經一字，即同魔說。蓋至言也。自禪教分門，佛冤魔說遍海內，非古佛現身，實未易救。細讀宗鏡問答引證，謂非釋迦末法第一功臣可乎。然唯徹悟無言之宗，乃能曲示有言之教。今人須藉其言，以契無言，始不死於言下。儻直以是為宗，而不知離指得月，縱解悟了了，仍是三世佛冤耳。昔宋太祖欲伐江南，後主遣一辯士謁見曰，江南事陛下如事父，奈何以父伐子。太祖曰，父子異居可乎。辯士愕然，無以為對。噫，讀宗鏡不悟心，吾恐遇閻老時，其為愕然者多矣。然設使棄而不讀，又何異因噎廢飯也。(其三)

教下人不肯坐禪，與坐禪人不肯學教，雖其師匠之過，亦由人未發真正大菩提心也。夫大菩提心，未有不知痛為生死大事者也。果為生死大事，安肯以文義相對，以暗證自守乎。如欲至長安，口必諏道，足必不停。諏而不走，終不能到。走而不諏，必遭岐曲。今之封文義者，何異諏弗走，守暗證者，何異走弗諏邪。嗚呼，以是求出生死，成無上道，難矣。宗鏡一錄，既示厥道，復加痛策，可謂徹底慈悲。設復借之以資談柄，是猶據榻看皇輿考及長安志，廣向村儂誇說途中都中諸事，非不可感動愚夫。吾恐一遇曾到長安之人，必不勝慙懣者矣。

裂網疏自跋

起信論者，佛祖傳心之正印，法性法相之總持也。如來以大乘阿毘曇付彌勒，摩訶般若付文殊。般若破執有而顯妙有，毘曇破惡空而

顯真空。一音所宣，曾無異旨。佛滅五百年後，異見滋生。馬鳴大士，應佛懸記，重興正法。始則示為計我外道，後乃廣顯二空妙宗，作無我大師子吼，破凡外二乘偏執，宗百洛叉大乘經典，造略論，申暢一心二門。即生滅而顯真如，收般若真空不空之妙旨。即真如而辯生滅，闡毘曇幻有不有之玄詮。厥後龍樹依般若而造中論，還以空義成一切法。護法依毘曇而解唯識，還以幻有顯二種空。故知馬鳴龍樹護法三大菩薩，同契佛心，無稍乖異。奈何依文解義，泥名相而昧旨歸，伐異黨同，豎門庭而堅門諍，謬談聖旨，錯解真乘，千百年來竟同長夜。哀哉末葉，誠可痛心。旭業障深纏，未登正位，夙因微善，遊刃圓宗。客歲盡散學人，志圖修證。今春入新安，寓歙浦迴龍，竊解茲論，凡十一日草疏成。是役也，上藉諸佛菩薩馬鳴大師加被力，略無疑滯。又賴允持循法主外護，無他緣。至於性相關頭，種種問辯，則戒子堅密時公之啟予者多矣。

吳大年居士書法華經跋

法華經藏，深固幽遠，無人能到。非不能到也，於無人中，妄計有人，所以終日行而不自覺也。苟達一切法無我人眾生壽者，無法相，亦無非法相，則微塵剎土，十世古今，總是一部妙經。佛子住此地，即是佛受用。常在於其中，經行及坐臥，又何能到不能到之可分別哉。靈山會上，深歎一念信解，及受持書寫功德，非虛話也。大年居士，書妙典至三部。孫粲如珍藏供養。蕩益道人展閱隨喜。到邪，未到邪，勿措思議可也。

書吳孟開居士泊岸卷後

分段為此岸，則有餘無餘二種涅槃為彼岸。變易為此岸，則無住大般涅槃為彼岸。夫唯無住，則無所不住。亦唯無所不住，方成無住。故曰，不彼岸，不此岸，不中流而度眾生。又曰，在天同天，在人同人。審如是，何往非岸，何岸不可泊哉。是故不必問所泊何岸，第問能泊何法耳。以愛見泊，所泊無非生死岸也。以空觀泊，所泊無非二乘岸也。以六度萬行泊，所泊無非菩薩岸也。以甚深般若泊，所泊無非實相法界岸也。孟開之築泊岸軒也，蓋孝思也。有世間孝，未離愛見也。有出世間孝，空觀幻度相應者也。有出世間上上孝，甚深般若是也。孟開齋戒已久，非甘為世孝者。由出世孝，遵出世上上孝，則是軒也，其般若舟乎。願居士乘是舟，以佛度為桂棹，以佛行為蘭橈，以諸佛洪名為高帆，以往生諸佛淨土弘

願為迅風，則必與尊人同泊華池珍岸，然後盡十方世界，無非樂土矣。

書知足歌後

木必具火，遇緣乃發。心具般若，亦復如是。老病死生，皆發般若之勝緣也。愚夫習氣重，善根薄，如溼木不能發火。唯往昔久種善根，生平惑業輕眇者。雖不見其勤修，而千年暗室，一燈頓破。讀濟翁知足歌，信矣。子孟開，篤信三寶。孫真信，幼而茹素，般若心燈，正未有艾也。錫類之義，孝慈皆然。吾深為之助喜。

靈峰蕩益大師宗論卷第七之二

靈峰蕩益大師宗論卷第七之三

疏一

化持滅定業真言一世界數莊嚴地藏聖像疏

釋迦佛謂定業不可救，所以寒造罪之心。地藏菩薩說滅定業真言，所以慰窮途之客。旭少習東魯，每謗西乾。承觀音大士感觸攝受，後聞地藏本願尊經，始發大心，誓空九界。今得與僧倫染神乘戒，皆慈願冥加，不可誣也。爰念娑婆弊惡，惑業苦三，如惡叉聚。無上醍醐，悉成毒藥。持律者唯事衣鉢，作犯止持，茫無所曉。習教者唯事口耳，禪那理觀，瞢無所得。參宗者流入機境，播弄精魂，心佛真源，毫無親證。淨土一門，稍切時機，亦苦多成退托，未合不思議大乘。良由業重障深，濁智流轉，雖有聖者，末如何也。唯地藏慈尊悲深願重，專愍剛強，尚能轉我當年殷厚邪心，使得正信出家，豈難轉大地眾生無知過犯，使歸真際乎。故於三寶前發心，欲造萬佛銅殿，中供大士，永鎮九華。爰受一食法，結百日壇，持滅定業真言五百萬。又化大心緇素，或持十萬，或百千萬，共成十萬萬，表三千大千世界數，以其總數，供大士像中，作盡未來廣化十方左券云。

造毘盧佛像疏

世人侈談無相理，不達實相印，謬以豁達空為清淨法身。誰知微妙淨法身，具相三十二，托事表法，華藏玄門。此所以末法時，以造佛形像為第一功德也。莊嚴土木，即莊嚴法身。十身相海，全在一微塵裏。是故一塵之施，可以入如來無盡相好光明。而一瞻一禮，

可以證如來無邊功德海藏。某開士既欲塑毘盧像，但作如是觀，不患助緣無人。諸上善，設欲悟如是理，但種此緣因，不患正因不顯。此緣若就，此觀若成，方信毘盧遮那佛，願力周沙界，熾然說法，無有閒歇也。

寫書本大藏疏

爰自法流東土，綿延千五百餘年。三藏所攝，幾七千軸。巍巍乎雪山王，眾藥皆備。浩浩乎大海水，眾寶悉充。健步者不能躋其巔，善遊者不能測其量。又奚怪仰視而足心酸澀，望洋而驚怖無極者哉。然普賢行願品云，書寫經卷，積如須彌。夫過量事，唯過量人能辦耳。說者曰，佛法無多子，何用此一落索為。咄，無離文字說解脫也。果薦無多子佛法，一大藏亦豈屬多否。即令不識一丁，正自落索不少。當知多少有無，俱是虛妄分別。嘗慨習教者，置向上於罔聞。坐禪者撥佛法為外物。何異療饑畫餅，之楚北轅邪。龍居月心開士，於此事已信得及。自謂根性駑劣，機緣未偶，乃以持戒為要行，淨土為指歸，并欲悉書一大藏教為助緣。此真今時不思議事也。學禪不毀戒，是今第一不思議。又不非淨土，是今第二不思議。又不埽教，是今第三不思議。又大藏閱者罕竟，何況能書。是尤古今大不思議也。如是發心，已入過量人數。當見一鎰一銖，莊嚴法海，即檀度而為般若。是名不思議檀。一點一畫，悟入真源，即書寫而為修證，是名不思議書。如是若檀若書，本因果報，同入不思議解脫境界。而余以數量人，言此過量事，亦復不可思議也。

刺血書華嚴經疏

予讀華嚴，至善財見普賢一毛孔中，悉有微塵數佛刹，海會圍繞，遊歷經微塵劫，終無有盡。抑何身相之不思議也。及普賢自述願王，則云，剝皮為紙，刺血為墨，以髓為水，析骨為筆，書寫經卷，積如須彌。故知非殊勝大行，無以嚴毘盧法界。非一乘妙法，無以圓廣大願王。苟於一乘妙法，深信解，依解起行，當知華藏莊嚴，豈唯在普賢一毛孔中明見，亦即於吾人介爾心內薦取。此月心開士所以矢志刺血書寫也。八十一卷，可八月奏成。於中若紙筆、若香、若莊嚴成就、若飲食供饌，須十三金。表此世界，適當第十三重也。每金作十緣，表十界也。每緣作十分，表十願也。一一願，咸攝十界。一一界，總周刹海。俾施者受者，互融於帝網光明。而若法若財，交映於雜華瓔珞。

永慶寺平治道塗疏

持地菩薩平地待佛。佛摩頂謂之曰，善男子，當平心地，則世界自平。此為事度人，示唯心法門，令因事入理也。唯茲事理二塗，混不類，分不開。以平地之法平心，一切唯心。以平心之法平地，一切唯地。唯心雖妙，猶待於麤。唯地之妙，始稱絕待。且如永慶山前一條大路，本來坦坦，何須更平。然高下之見未忘，斯平治之功可效。功雖有作，行實無為。行積於無量劫波，心開於一言摩頂。因該果徹，唯是一乘。儻離地談心，心復烏有。畫空作繪，非圓頓乘。是役也，一磚一礫，同證究竟寂光。一兩一銖，悉入首楞三昧。

靈巖寺請藏經疏

一切如來，從無言說道，方便說法。一切菩薩，從語言三昧悟入無言，言說性空，是真解脫。若離文求理，即暗證癡禪，非正法眼藏也。予本棄儒學佛，亦妄謂單傳之道，實出教外，一味作蒲團活計。一切經論置諸高閣。後見真寂、博山等耆宿，反照古今得失，方知末世禪病，正坐無知無解，非關多學多聞。與唐宋學人厥證相反。依文解義，三世佛冤。離經一字，即同魔說。善知識語，誠不我欺。學而不思則罔，思而不學則殆。儒宗實語，亦於此益信。乃發心遍閱大藏，備採眾藥，自療療他。適欲先註梵網，提律學綱宗，以鬪問佛，定安居處。乃九鬪中。獨得靈峰山靈巖寺之百福院。擬於此一年註經，仍向他方，完閱藏初心。有六具周沙彌，捐資若干，倡請大藏，留予久住。雪航法主，為集眾緣，令此無佛法地，忽作六種震動，冤與魔而並遣，罔與殆而雙祛，佛印儒宗，交蘆倚樹。信心縑素，誰不為之助喜也。

化念阿彌陀佛同生淨土疏

自唯心本性之理不明，學道者率尚玄理而薄事相，甚至認斷空為寂光，疑西方為非實，相與判作權乘，視同烏有。於是不可思議功德，終成難信之法，長溺迷津，可勝痛哉。不知事理一致，生佛同源。八萬四千相好光明，顯然在十萬億方，即灼然居一真心內。心既豎窮橫遍，土亦豎窮橫遍，佛亦豎窮橫遍。既不信佛土之實，又寧知心性非虛。若真悟心性本源，則了達十界染淨，咸由一心。心染故六趣昇沈，娑婆之惡境宛然。心淨故一道清寧，極樂之莊嚴法爾。奈何於娑婆則見其有，於極樂則惑其無。又高稱圓頓，哆談無

礙，以忻厭是迂塗，取捨為兩橛。然果悟圓宗，忻厭何嘗不圓，果證無礙，取捨亦豈有礙。必欲離淨土而談唯心，捨彌陀而言本性，橫隔自他，割裂事理，如實料簡，僅成惡取空見。豈若熾然存念，決定求生，了則念即無念，生即無生。不了亦無念之念，無生之生。以諸佛心內眾生，念眾生心內諸佛，不問智愚，咸歸覺海。一念相應一念佛，念念相應念念佛。佛是本覺，念是始覺。始本相合，當下究竟，能所歷然，能所性絕，至圓至頓，真實無礙，超越一切法門，名為三昧中王。此六方調御，所以極力稱揚，歷代祖師，所以盡心修勸也。勝超大德，矢修淨業，欲使大千眾生，各各承當此事，爰立大冊，廣勸緇素。或自念，或轉請，或以口讚，或別冊襄，自念則念念吻合佛性，化人則人人頓會菩提，用心善且廣矣。特序之，為同有佛性者告。

象巖禪人化齋十萬八千僧疏

人但知佛法重，不知僧之重也。但知僧以佛法重，不知佛法以僧重也。無僧則法輪息，法輪息斯佛慧命絕矣。故較福田於末世，無尚供僧也。僧固不同，有真實僧，有清淨僧，有啞羊僧，有無慚僧。夫真實名勝義，清淨名世俗。非勝義則世俗不尊，非世俗則勝義無寄。故應真大士，地上菩薩，每現身世俗中。不但同修清淨，亦且混跡無慚。所以警肉眼凡夫，令知僧相不可忽也。是故為僧者，應善自料簡，誠無慚、啞羊之行，由清淨而進真修。供僧者，應一切恭承，視啞羊、無慚之儔，如真實之偕淨侶。然後觸目所遇，罔非勝田。職此之由，感賢格聖。儻心生分別，雖供五百羅漢，不如值一凡夫僧矣。象巖開士，欲置僧田百畝，歷三祀未成，因詢余所以難成之故。予為屈一指曰，僧田置，必代得善繼，否非廢則私。又為屈第二指曰，一畝半畝人畏不前。又為屈第三指曰，菴田不遍十方，狹且陋。開士憬然曰，然則當如何。余曰，莫若放開懷抱，直下消豁，普化若腴若瘠之人，等供在彼在此之眾。一文一粒，總投勝田。杜未來愚人私廢造業之愆，開現在是人多寡隨心之善。馴致之數奚止十萬八千，地奚局江左浙右，時奚限三載告完。念念中普與法界含識供養法界僧寶，盡未來際，無有疲厭，一一檀那，一文一粒，悉能遍供一切僧伽。一一僧伽，一齒一頰，悉能遍受一切供養。論施福洪纖無礙，論受用凡聖交參。只此現前日用，的是普賢所行境界。其諦信力行之。

募刻校正梵本諸大乘經疏

竊觀初祖傳道，楞伽印心。五葉流芳，金剛證悟。蓋真能解脫文字者，方為寂滅言辭也。西來大意不明，東土群兒失眠。以魔說而擬解佛冤，以不通而妄稱不立，自他俱誤，宗說兩傷。嗟乎，昔日欲豁醒沈酣，祇貴點開生面。今日欲力振時弊，必須率由舊章。譬如為聖為賢，舍六經四書無準的。成佛作祖，唯大乘經典為司南。顧法道陵夷，淆訛匪一，不但不能如教起修，抑且不能善解義趣。不但不能善解義趣，抑且不能校正文言。如梵網戒經，僧徒傳誦，而錯謬尤多。金剛般若，舉世受持，而增損愈甚。法門衰替，有自來矣。嗚呼，末世行人，根日鈍，障日深，空腹高心，盲修瞎鍊。既同夜郎之謔，且落無聞之殃。非具總持者，校其差遲，正其文義，何以開發妙解，策進真修也哉。蓮洲居士覓此諸經，校正善本，手書重梓，用廣流通。誠希有良緣，最勝法喜也。大心緇素，感深今昔者，其蚤暮速成之。

化鐵地藏疏

洪鐘具無邊音性，一擊而頓徹鐵圍。地藏圓同體大悲，瞻禮而頓蒙與拔。幽冥之覺悟可期，現在之障緣宜轉。靈峰心懷禮公，既已鑄鐘打鐘，復思是像作像。雖丹青刻畫，咸皆性同虛空，而鍊就純鋼，可表堅固不壞。四德非塵，藉一塵而圓顯。三身無像，即影像以妙彰。寄語高賢，共行檀施。助鐵者，如正因心發，法身妙果可登。助炭者，如了因心發，般若光明可悟。助食用者，如緣因心發，解脫神通可基。從大士而發其心，正是全性起修。由眾信而成此像，正是全修在性。如是事，如是理，如因，如是果，真語實語，諦思諦行。

五蘊禪人掩關化供給疏

從古學人，未有不撥草瞻風，廣參博訪者。未聞枯守一室，能坐進此道也。然具眼乃可參方，力學方能具眼。顧力學之法，或決擇於師友，或藉境以鍊心。至若呶呶一室，又力學之變局也。五蘊禪人擬閉關習教律。從關轉關，在禪人決當，由世界而忽悟。對治之益，因事成事。在善信正可借外護而密操教授之權，直待翻轉關捩子時，方信自他功德，皆不誣矣。

涵白關主禮懺持咒募長生供米疏

迷真起妄，誰不造業。業有輕重，果報隨之。於中轉重令輕，轉輕令盡，獨賴有懺悔一門耳。重業而能深悔，業遂冰消。輕罪而不革心，終成定業。故經歎二種健兒，一不作罪，二作已能悔。不作罪，固是穩當。作而能悔，悔力若深，彌稱勇健。三世諸佛，始從名字初心，極至等覺後際，罔不以五悔為進修方便。當知作法懺，能滅業障。取相懺，能滅報障。無生懺，能滅煩惱障。三障圓滅，三德圓成，三身圓顯，直捷痛快。所謂屠刀放下，便成佛也。涵白開士，痛念前非，善思補過。擬掩關普為法界眾生，改往修來。當知甫發此心，定業已轉。予為授大悲心咒行法，并授地藏菩薩滅定業真言，總為淨除根塵習氣種子之良藥，勤行之六時不缺，一心不亂，則自度度他，法皆具足。勿憂助道乏緣也。人誰不有無量業，誰不欲與真實行人同入懺摩清淨海中。隨喜一法，無俟他人勸也。

玄素開士結茅修正觀助緣疏

教觀之道不明，天下無真釋。如學思之致不講，天下無真儒也。儒之道在盡心知性，故篤行一事，必在學問思辯之終。大易略思辯，益以寬居。寬居即思辯異名也。以其心領神會，故曰寬以居之。以其善巧決擇，故曰慎思明辯。聖學淵源，必須向此關透去，方無鹵莽滅裂之虞。佛道以見性明心為指歸，以信行法行為方便。信行秉教，豈廢觀心。法行觀心，豈容離教。是以西天諸祖，無不貫通三藏，深入諸禪。南嶽天台，弘通般若法華，亦未嘗不以觀心為要。目足並運，入清涼池，否則鑽他故紙，終招說食數寶之譏。冷坐蒲團，未免暗證無聞之禍。學不思則罔，思不學則殆也。法流東土，門庭漸岐。立法者本屬一時救病權宜。展轉相傳，遂成水火。宗教相非，性相相角，台賢相排。原其故則各是，執其辭則並非。而又教下之人，罔思修證。宗乘之士，多落險塗。致令行果無成，教道幾熄。惟台嶺一宗，始從智者章安，中歷荊溪四明諸老，近復得妙峰幽溪諸大師，相繼而興，教觀雙舉，信法兩被，故能超賢首慈恩諸教之觀道寥寥，亦勝曹洞、臨濟等宗之教法貿貿。東南一絲，信可繫佛法九鼎於不墜。末世津梁，捨此安從邪。玄素開士，儒林雋雅，忽悟無常，頓從剃落。依棲台嶺，足不出幽溪之戶者數年。抱病參求，晨昏不廢學問思辯之功，可稱弗得弗措者矣。篤行一事，今正是時。擬遵如來顧命，以頭陀行，住阿蘭若。但欲正修，先須方便。五緣之內，四事為先。是在有志為真儒者，助成此真釋事業。余每謂非真釋不足以治世，是以一切三寶，常能擁護世間，而真儒亦足以出世。是以一切有道國王大臣長者居士，常能憶持佛囑。具正眼者，必能深達此意，知世閒福田有在矣。

刻占察行法助緣疏

易曰，積善之家，必有餘慶。積不善之家，必有餘殃。書曰，惠迪吉，從逆凶，惟影響。作善降之百祥，作惡降之百殃。因果報應之說，未嘗不彰明較著於世間也。但儒就現世論，未足盡愚者之疑情。自釋典入支那，備明三世果報，益覺南宮所悟，及孔子尚德之稱，事理不誣。然三藏權詮，祇明因緣生法，未直明因緣無性。故云，佛能轉一切業，不能轉定業。逮大乘會中，始廣明格外深慈，建勝異方便。依萬法唯心、緣生無性之理，設取相無生二懺，以通作法之窮。然後罪無大小，障無淺深，依教行持，悉堪消滅。如赫日當空，霜露頓收也。昧者謂重罪許懺，開造罪門，蓋不惟罔識佛菩薩之弘慈，亦豈知儒者之了義。孔子曰，過而不改，是謂過矣。憂悔吝者，存乎介。震無咎者，存乎悔。蓋明示人以自新之端矣。夫罪有重輕，事非一概。世法不能治，佛法治之。作法不能治，取相治之。取相不能治，無生治之。則究竟離苦解脫之法，不得不歸功佛門。又不得不歸功觀音地藏諸大士也。觀音應十方世界，尤於五濁有緣。地藏遊五濁娑婆，尤於三塗悲重。如父母等愛諸子，而於幼者及無能者，尤所鍾情。此占察善惡業報經，誠末世多障者之第一津梁也。堅淨信菩薩殷勤致請，釋迦牟尼佛珍重付囑。三根普利，四悉咸周。無障不除，無疑不破。三種輪相，全依理以成事，故可即事達理。二種觀道，全即事而入理，未嘗執理廢事。又復詳陳懺法，即取相，即無生，初無岐指。開示稱名，觀法身，觀己身，頓同一致。乃至善安慰，說種種巧便，不違實理。此二卷經，已收括一代時教之大綱，提挈性相禪宗之要領，曲盡佛祖為人之婆心矣。予依經立懺，程用九居士捐資，并募善信助成之。此正欲立立人，欲達達人之極致也。誰謂學佛非儒者分內事哉。

萬鉢緣疏

一滴水耳，龍得之為雲為霧，普洽寰區。其功果在水邪，在龍邪，抑非水與龍之功邪。謂功在水，則均此一滴，胡遇曝炙而遂乾，渴人飲之不潤其舌。謂功在龍，則置諸高原，尚不免熱砂之痛，宛轉之苦。謂功不在龍與水，胡二物相遇，遂得相成，龍既不可思議，水亦不可思議。噫，此可悟法界妙理矣，而更可喻修證要門。蓋水猶福也，龍猶慧也。水龍之性，即真如法性也。儻水性非真如性，本不能周遍法界者。縱遇真龍，豈能令其騰波湧浪。儻龍性非真如性，本不能神明出沒者。縱遇真水，豈能令其變化飛騰。惟以稱性之龍，御稱性之水，龍靈而水亦靈。以稱性之水，得稱性之龍，水

妙而龍更妙。福慧二塗，亦復如是。修福不修慧，福則有漏，有為，有分劑，有窮盡。修慧不修福，慧則無光，無燄，無力用，無莊嚴。惟以稱性之福，資稱性之慧，如得水之龍，雖小亦不可欺。稱性之慧作稱性之福，如遇龍之水，雖少亦不可盡。而福慧二輪，又以同一法性故，皆不可思議。儻一塵福聚不等法界，胡能使二錢微供，頓超匿王四十里燈。儻一念真明，不徹全體，胡能使一放屠刀，便預賢劫千佛大數。是以修慧必須真，莫類蛇虺之不能騰駕。修福不須擇，莫如海鱉之但誇水多。然慧門嚴真偽之辯，取捨貴精。福門融大小之岐，隨緣愈妙。所以出家三學，討究歸於師友。日用四事，供膳托於檀那。師友必擇而後精，檀那必等而後普。欲行等慈，誠莫若萬鉢緣之設矣。人輸一鉢，為力甚易。集眾成萬，為福甚多。如一室中具足萬燈，一一燈明，各遍室內。當知施一鉢者，即已圓具萬鉢功德，又況燈燈相續，燄燄轉明。熟食除暝，功遍一切。寧止萬鉢功德而已。多亦法界，少亦法界。少法界故，一鉢不必愧其薄。多法界故，無數鉢不宜見其奢。古人云，善人行善，惟日不足。華嚴云，十大願王，無厭無足。請於此法性海中，興大法雲，注大法雨，滴滴總歸大海。莫問斯水何來，亦莫問斯水何去矣。

蘊空精舍募建華嚴閣疏

法流震旦，經帙琳琅，最富莫若華嚴，最簡莫若心經。究其指趣，廣略互收。如心經照見五蘊皆空一語，人皆知之，未審以何為照也。若照以邪慧，謂死後無相為空。照以聲聞般若，則六分推析，覓我了不可得為空。照以緣起般若，則體虛無性如幻如夢為空。照以不共般若，則二邊亘得離過絕非為空。惟照以甚深般若，則色等諸法，全即法界，體絕纖塵，量窮橫豎。遍具遍含，無障無礙為空。依此修觀，則法法隨心，名觀自在。塵塵圓具，亦名普賢。妙智融徹，亦名文殊。大慈普覆，亦名彌勒。法身真常，亦名毘盧。上中下三部華嚴，一語可蔽。巍巍寶閣，煥乎在心目間。何俟謀諸土水邪。然華嚴六相明宗，不有壞之，孰成之。不有別，孰彰其總。不有異，孰顯其同。則土木一案，正十玄門所謂托事表法生解也。惺凡，請以此自惺惺他。

海燈油疏

劫初人有身光，不假日月。身光漸減，日月出生。而日月有時不照，則繼以膏火。此膏火功德，不惟等於日月而已。日月屬悲田，

燈火供養，悲敬雙具。又況地藏大士，以無緣慈力，同體悲心，示居九子峰頭，遍救塵沙含識。肉身靈塔，四海歸依。由是有海燈之供。當知一莖光照，全彰自性妙明。緣善既孚，正了同顯。儻謂是事相是塵緣無關修證者，則離事談理，離境覓心。理若龜毛，心同兔角。誰與萬善莊嚴成兩足果哉。昔有盜寺物剔佛燈者，尚感多劫身光之報。況以好心施供，藉大士慈悲，俾燄燄普燭幽塗，方將續如來慧燈，耀法界寶炬。若自若他，同開長夜幽關。又豈止生死中樂報已邪。請速發心，毋貽後悔。

九華芙蓉閣建華嚴期疏

子每謂地藏本願一經，當與八十一卷華嚴並參。華嚴明佛境界，稱性不可思議。本願明地獄境界，亦稱性不可思議。一則順性而修，享不思議法性之樂。一則逆性而修，受不思議法性之苦。順逆雖殊，全性起修，全修在性，一也。一念迷佛界不思議性，則常寂光土，應念化成刀山劍樹爐炭鑊湯。一念悟地獄不思議性，則泥犁苦具，應念化成普光明殿，寂滅道場。迷悟雖殊，性德無增無減，又一也。然性德雖無增減，非逆順不屬迷悟。而迷之為九界逆修，遂感分段變易二死苦報。悟之為佛界順修，遂成菩提涅槃二種轉依。迷為三惑，悟為三智。逆修為十惡五逆，順修為六度萬行。生死為三界四相，轉依為三身四德。苦即法身，惑即般若。業即解脫，諺謂推人扶人，只是一手。讚人毀人，只是一口。大佛頂謂如水成冰，冰還成水。詎不信然。然則芙蓉九朵，信可與華嚴九會同其表法。豈謂地藏本願經，僅談地獄因果事相而已。況華藏世界，安住大蓮華中。如來成道，亦坐寶蓮華。而優鉢羅波頭摩等地獄，亦復名青蓮華赤蓮華。可見一名一喻一事一法，皆悉具足十界。在當人迷悟順逆何如耳。不思議法性，體非群相，不礙諸相發揮。又奚閒於地獄及寂光哉。願諸開士，率諸檀越，即以此為順修因緣，開發正悟，則鐵圍兩山，即是金剛菩提道場，無令火燄幻作金蓮。斯大妙矣。

九華山營建眾僧塔疏

福田有二，曰敬曰悲。敬田以田勝。悲田以心勝。供舍利而福等虛空，敬田也。澤及枯骨，萬世稱為仁主，悲田也。一田功德，已不思議，況悲敬具足者乎。夫羅漢四果，證入無生，永離我執。既入涅槃，不愛枯骨。凡夫比丘，未斷思惑，儻尸骸暴露，則神識不安。神識不安，可悲也。堂堂僧寶，可敬也。矧凡聖莫測，神聖淵

府，龍蛇混居。安知肉眼所謂凡僧，非即大士曲示乎。是故隨供一骨，罔不具悲敬二田。九華為天下第一名山，迺荒原暴賂，悚目傷心。予初到山，首以此事經懷。適有眾耆快為鼓舞，不揣陋拙，倡作先聲。其有見聞隨喜，無論若縑素，若少若多，既投最勝之因，必克無上之果。敬則成佛道而有餘，悲則度眾生而無量。係以偈曰，

僧相堂堂，福德之海。縱令朽骨，福性奚改。起塔供養，應至梵天。況復丈許，詎云不然。大士示形，遍在生死。青淤朽骨，黃金鎖子。彈指合掌，的的真因。誰為證佐，妙法華經。

靈峰蕩益大師宗論卷第七之三

靈峰蕩益大師宗論卷第七之四

疏二

募造敬字菴疏

娑婆世界，以音聲語言為教體。故一一文字，皆佛祖慧命，聖學源流所關也。敬字即敬文宣至聖與迦文世尊。其開昏憤而培智種者，豈淺鮮哉。溫陵為文獻之邦，素稱佛國。今者有敬字菴之設。此洙泗道源所濬，亦西竺心光所映也。人皆可以為堯舜。凡有心者，皆得作佛。請從事於斯語，則凡點畫紙墨之委棄者，皆可見堯於牆，見佛於瓦礫矣。抑更有告焉，一切字紙斷斷可與六經三藏同觀，而六經三藏斷斷不可與一切字紙同視。菴成請勒斯語。

淨然沙彌化念佛疏

經云，一稱南無佛，皆已成佛道。此言正因佛性，人人本具。故稱性所起緣了二因，必與正因同得究竟也。是以念佛三昧，名為三昧中王，普攝一切三昧。修此三昧，凡有三種。一者惟念他佛，二者惟念自佛，三者自他俱念。修雖有三，成功則一。一念他佛者，托阿彌陀佛果德莊嚴，為我所念之境，專心注意而憶念之。或憶名號，惑想相好，或緣四十八願往昔洪因，或思力無畏等現在勝德，或觀正報，或觀依報。總名為念他佛。貴在歷歷分明，一心不亂，則三昧功成，徑登淨域。如東林諸上善人，即其證也。二念自佛者，觀此現前一念，介爾之心，無體無性，橫遍豎窮，離過絕非，不可思議，具足百界千如，種種性相。與三世佛，平等無二。如此觀察，功深力到，圓伏五住，淨於六根，豁破無明，頓入祕藏。如西天四七，東土六祖，及南嶽大師，天台智者，即其證也。三自他

俱念者，了知心佛眾生，三無差別。眾生是諸佛心內眾生，諸佛是眾生心內諸佛。托彼果上依正，顯我自心理智。如觀經云，是心作佛，是心是佛。由我心性本具功德不可思議，諸佛果中威力不可思議，故感應道交，自他不隔，極果圓因，稱理映發。如永明壽，楚石琦所修法門，即其證也。方便多門，歸元無二。隨行一轍，俱得到家。切勿疑慮，自隔要津。今淨然沙彌棲心淨土，兼以此法廣化有緣，當知只此一念，便可作大勢至法王子眷屬。慎無自輕自屈。更願見者聞者，深心隨喜，共登蓮籍。亦慎無自藐藐他，庶幾同圓種智，而五濁可空也。勉之哉。

忍草沙彌化念佛疏

彌陀如來，以四十八願，攝化十方。勢至大士，以念佛三昧，遊此世界。當知末世眾生，捨淨土一門，而求脫生死，不可得矣。佛法無多子，久常難得人。一時勇猛，不若終身無倦。所以慈雲大師，示晨朝十念法門。飛錫尊者，闡一念得生妙旨。今忍草沙彌，發心普勸緇素，修此念佛三昧，每日從十萬起以至一百，或惟十聲，下至日念一聲，不拘數之多寡，但以終身不間斷為則。將此饑餐渴飲工夫，用作寶地珍池左券。儻能一念中頓破無明，便超寂光淨土。頓斷塵沙，便超實報淨土。頓斷見思，便超方便淨土。縱未斷惑，五濁漸澄，佛光漸露，登同居淨土，永脫輪迴，固無惑矣。普願見者聞者，於此便作東林勝會想，於一切登名蓮簿者，便作十八高賢想。則一心普念三世佛，而念佛三昧了了現前矣。

建盂蘭盆會疏

予觀世出世至德要道，皆無有勝於孝慈者也。世間非孝慈，無以成聖賢。出世非孝慈，無以作佛祖。顧孝慈之名一耳，實則有四焉。養父母育子孫，令皆得歡喜者，世界悉檀也。前可繼，後可傳，令皆得生善者，為人悉檀也。順幾諫，嚴庭訓，令皆得滅惡者，對治悉檀也。底豫允若，佑啟咸正，令皆得入理者，第一義悉檀也。又一世之父母固然矣，推而極之，不有無始以來歷劫生身之重恩乎。一家之子孫固然矣，擴而充之，不曰法界含靈皆猶吾赤子乎。是以儒者且盡其道於目前，佛氏并充其致於累劫。儒者且舉其端於宇內，佛氏并窮其量於剎海。儒非故為拘虛，而佛非故為荒誕也。儒者引而不發，以示厥始。佛氏充無不盡，以究其終，不啻如金聲玉振焉。所以自大法東漸，千有餘載，達人高士，罔不會心。至若昌黎晦菴輩，雖極力詆之於前，不免傾心味之於後。良以孝慈宗旨，

終無閒然故也。今七月十五日，為大目犍連度母設供之辰。夫目連果證應真，六通第一，而欲報慈恩，尚須三寶眾僧之力，況吾輩乎。吾輩生匪空桑，心非頑石，念罔極之深恩，懷終天之永感。自非托事孟蘭，曷以略伸積愆。所言孟蘭盆者，此翻解倒懸器。蓋冥塗之苦，不啻倒懸。今以淨器備陳佳供，能令劇苦永脫故也。凡厥孝子慈孫，慎勿徒為大言，以自飾曰，吾父吾祖，靈應在天，何當久滯三塗。噫，難言之矣。既未聞出世四諦法門，又未必遵行三歸五戒十善，輪迴之苦，誰能免者。儻於此日，懸懸致望子若孫之福濟，而竟置之漠然，於心安乎。且經又言之矣，若父母現在者，福樂百年。若七世父母，自在化生，入天華光，此則功德利益，又不止於僅解倒懸而已。仁人君子，宜何如努力以共成斯會也。詩曰，孝子不匱，永錫爾類。吾甚為儒之希聖賢，釋之希佛祖者望之。

敷先開士守龕助緣疏

有世間孝道，有出世孝道。世間之孝，就養無方，立身行道是已。出世之孝，精修道業，廣度累劫是已。至世出世孝，兩擅其美，如黃梅睦州者，殆不多得，今於敷先開士見之。開士青山名族，世習東魯禮樂。方壯之年，發心學佛，遍遊真寂博山之門，以法力願力，勸其乃尊，長齋修道，躬奉甘旨二寒暑。又勸以圓現僧相，幾一載而西逝。蓋年已八十六矣，仍停龕虎丘麓，日夕梵唄。將以愧天下之為人子而不孝者，并一洗佛門無父之冤。噫，惟學佛然後知儒，亦惟真儒乃能學佛。不肖出家，父未葬，母未養。本圖大事既明，然後作織屨計，而夙障深重，致令慈母捨我西馳，終天之憾，寤寐永歎。開士獨能生盡其養，死盡其誠，旭也真愧死無地矣。方外雲蹤，不能稍助薪水，聊贅空言，遍為仁人孝子宣此至情。其有喜心樂助，俾開士完此一段最後孝思，亦錫類弘慈也。

善生開士飯僧功德疏

買死馬頭，則千里之馬至。飯尋常僧，則三乘聖僧格。此必然之理，無足怪者。世人妄生分別，競欲捨凡取聖。而郭永定居士知凡聖一體，自發心飯萬僧，復化人飯萬僧。非自行檀施，不足轉化他人。非廣化結緣，不足滿自願力，可以勸矣。

重修觀音菴疏

普門示現，無刹不是全身，何成何壞。須知示壞示成，皆與吾人作增上緣耳。苟向大士施一文一粒，譬如投滴水於大海，頓同海體，盡未來時，決不消竭。茲者躬逢大慈悲父，借大板巷傾頽之古觀音菴，為說法處，借恆元開士為說法人。恆元深達此妙借法門，又借予代為普門說法。予謂恆元曰，有助此嘉猷者，弗問多少，汝悉與授阿耨多羅三藐三菩提記可矣。

大悲圓行疏

觀音大士與娑婆最有因緣。而大悲陀羅尼，尤為密傳心印祕要法門。蓋以不思議心，持不思議語，則不思議熏，不思議變。真如螟蛉咒子，不覺其尚之速也。顧此咒自四明尊者設立行法後，從元至明，未嘗絕倡。一傳於天台，再傳入武林。壇儀供具，於斯為盛，而法式理觀，不免有字經三寫，烏焉成馬之虞。余向遊吳越，每欲稍正其訛，乃久誦水潦鶴者，競嫌昏耄，付諸永歎而已。祖堂湛持開士，思如法構壇嚴像，余喜此方緇素，未染訛習，猶可與正其始也。爰贅片言，使壇儀供具，如法先成，庶法式理觀，次第畢舉。如是則若顯若密，若禪若教，皆一以貫之矣。

結社修淨業兼閱華嚴大鈔助緣疏

阿彌陀佛，以法界藏身，示成道於極樂，則有四十八願，廣攝群機。毘盧遮那佛，亦以法界藏身，示成道於娑婆，則有普賢十大願王，導歸安養。是故欲求生淨土，須究華嚴宗。欲識華嚴宗，須求生淨土。或笑曰，華嚴事事無礙法界，當處即常寂光，何為捨此求彼邪。應之曰，既事事無礙，即於此求彼，又何礙也。既當處即常寂光，即西方亦常寂光也。常寂光固無可捨無可求，亦何礙捨何礙求。如是捨寂光穢，求寂光淨，生則決定生，去則實不去。生則實不生，去則決定去。何礙之有。其人罔措，余曰，汝若不會，請問之毘盧遮那。汝若不能見毘盧遮那，請問之普賢願王。汝若不能見普賢願王，請向十字街頭合掌，語諸人曰，乞施我一文錢，當必有告汝者矣。

募刻憨山大師全集疏

此方之機，以文字為教體。故儒號文宣，佛號迦文。由性天垂文章，文章可聞，即性天可聞也。由文章達性天，性天不可聞，即文章亦豈可聞哉。佛法入支那，漸事義解。達磨初來，直指人心，見

性成佛，一洗文字習氣，可謂灸病得穴，然仍以楞伽印心。文章性天，未始判然為二明矣。數傳後，楞伽一經，又復流為名相。於是諸大宗匠，競出手眼，拯濟挽回之。要皆超情離見，解粘去縛，破盡凡夫心識，令與修多羅合而已。未有敢違背佛語，自張見幟者也。流至今日，五宗公案，不幾又成名字學問乎。惟吾憨翁大師，乘夙願力，本從西方再來，始出長干，發足行腳，便有香象截流氣概。後五臺雪裏，絕後再甦，沛若江湖，落筆無滯。憫末世無聞暗證，既昧佛語，亦失佛心，故多有著述。而法語詩文等四十二卷，皆老人隨自意語，尤多醒發人處。法眷虛中繕寫成帙，呈諸牧齋錢太史。一無賴沙門，冒從太史公處詒稿而去。今高足某，繼乃師志，乞余一言，轉白檀信。余感師翁夢中接引深恩，愧無以報，爰涕泣書此。

廬山五乳峰法雲寺重造大殿疏

華嚴經云，若人欲了知三世一切佛，應觀法界性，一切惟心造。蓋自無始以來，直至盡未來際，惟此一心，無有一時一刻不造種種五陰，造種種世間，造種種國土者也。造而成也，無所從來。造而壞也，無所至去，可不謂惟心乎。故世有達惟心者始可與商所造，亦惟有善所造者，始可與悟惟心耳。今人局視此心，曾不能知心外無法，又復卑視事造，曾不能知事外無理。故語以莊嚴佛剎，輒云不必著相。嗟嗟，相固不必著矣，非相又安可著邪。若達惟心，則相即非相。是心造殿，是心是殿，何著之有。設不以其心造殿，又將以其心造種種敝惡依正，安得頃刻有不造時。而造殿為佛界妙緣，緣因若熟，了因必發。了因若發，正因必彰。方知造即非造。回視枉此心力，造餘雜業，駕言無造，終不免輪迴者，豈可同年語哉。匡廬五乳峰法雲寺日遂頽圯，其徒某不離吾人心內，創此良緣，而吾為緇素之願造佛界，不願造九界者告如此。

念荳兒佛疏

雪山有藥，名毘伽摩。眼若見之，眼得清淨。鼻若嗅之，鼻得清淨。身若觸之，身得安隱。若以塗鼓，軍中擊之，所有毒箭，應身拔出。嗟嗟，一莖草耳，何以厥功若此。愚者未免疑之。阿彌陀佛，萬德尊主，因積僧祇，果圓十劫。願王無盡，福慧無窮。散心一稱其名，亦滅八十億劫生死重罪。彼疑一莖草者，又安能深信無惑哉。有念佛者，不紀以珠紀以荳，又將荳供海眾，使其淪肌膚浹骨髓，乃至遍身毛孔，咸放佛光，八萬四千戶蟲，咸得度脫。此之

功德，難議難思。念豈施豈，功德平等。豈為法界，十方諸佛，三世導師，皆在一粒豈上轉大法輪，現寶王刹。此豈邪，非豈邪，非豈非非豈邪。能信此一粒豈者，可以無疑於一莖草矣。重說偈曰，此豈泥丸突出難分割，非豈咽下分明無處躲。非豈非非豈，大家傾出摩竭斗。

金陵三教祠重勸施棺疏

三教深淺，未暇辯也，而仁民愛物之心則同。夫仁愛非外鑠也，行於荒原曠澤，見骸體縱橫，枯骨狼藉，未有不愴惻隱者。充惻隱之心，仁不可勝用。儒以之保民，道以之不疵癘於物，釋以之度盡眾生。如不龜手藥，所用有大小耳。故吾謂求道者，求之三教，不若求於自心。自心者，三教之源。三教皆從此心施設。苟無自心，三教俱無。苟昧自心，三教俱昧。苟知此心而擴充之，何患三教不總歸陶鑄也哉。心足以陶鑄三教，乃名能盡其性，亦能盡人物之性。盡人物之性，乃知民不止吾胞，物不止吾與。是故一民饑，我之饑也。一民寒，我之寒也。一枯骨未葬，我未葬也。合天下之苦，以為己苦。合天下之善，以為己善。故莫大乎與人為善。俾一滴善，同歸至善海中，無分劑，無窮盡。斯可與言盡性之道也已。金陵三教祠，自癸亥倡施棺，主其事者，為了玄大德，二十年施三萬餘具。了玄去世兼值變更，事遂寢。今流離獨，倍於昔時，狐狸蠅蚋，遍於野壑。仁人君子，急議續行，亦此心萬不容己者。而吾因得引其說而申之。昔孟子謂孝子掩親誠是，然仁人過之。雖非親友，顙亦必泚，視亦必睨。當知一切有情，本來同體，是名一本。然則視父母同路人者，惡之至也，薄之極也。視路人同父母者，善之大也，慈之厚也。一人善，致天下祥。一念慈，回宇宙泰。況合眾善為善，普眾慈為慈，功德可思議哉。昔天帝與阿修羅戰，乍勝乍退者再。由世有一人，欲作善事，輒欲止者再故也。或問予曰，匹夫一念進退，何遂關天帝勝負。予曰，如天平，兩處各二十兩。儻以一分益彼一處，彼則偏重矣。故曰，天下者，天下之天下。又曰，以身觀身，以天下觀天下。今各捐分文銖兩，俾澤及枯骨。觀身觀天下胥在此已。

水陸大齋疏

佛祖統紀云，梁武帝夢神僧告曰，六道四生，受苦無量，何不作水陸大齋，拔濟之。帝問沙門，無知者。唯誌公勸廣尋經論，必有因緣。帝即遣迎大藏，積日披覽，創立儀文，三年而成。乃建道場於

夜分，親捧儀文，悉停燈燭，而白佛言，若理協聖凡，願拜起燈燭自明。或體式未詳，燈暗如故。言訖，一禮，燈燭皆明。再禮，宮殿震。三禮，天雨華。天監四年二月十五日，就金山寺修設，帝臨地席，詔祐律師宣文。當時靈響，不能備錄。周隋之際，此儀不行。至唐咸亨中，西京法海寺英禪師，夢泰山府君，請往說法，獨坐方丈，見異人前告曰，向於泰山府君處，竊睹尊容，世有水陸大齋，可益幽品，文是梁武所集，今大覺寺吳僧義濟得之，願師往求，如法修設。師尋詣大覺，果得其文。遂於月望修齋。齋畢，向之異人，與徒屬十數，來謝曰，弟子秦莊襄王也。又指其徒曰，此范雎，穰侯，白起，王翦，張儀，陳軫，皆秦臣也。咸坐本罪，囚幽陰府。昔梁武金山設會，前代紂王之臣皆得脫免，弟子是時亦暫息苦，以獄情未決，未獲脫。今弟子與此輩，并列國君臣，皆承法力，得生人間，言訖而隱。自是英公，常設此齋，流行天下。至有宋咸淳年間，有謂金山越王疏旨，專為平昔仕宦，報效君親，未見平等修供之意。力挽志磐法師，續成新儀六卷，繪像二十六軸。自宋至明，又歷五百餘歲，雲棲大師，依此儀稍事改削，行之古杭。智旭曾於雲棲躬逢盛舉，見其壇法精嚴，事理備明，羅十法界於一堂，運三觀心於剎海，真不思議功德也。丙戌，遊金山，索彼儀文觀之，汗漫模糊，不可尋究。蓋由磐公較定後，行於四明，世稱南水陸。而金山舊儀，被宋元以來世諦住持，附會添雜，但事熱鬧，用供流俗士女耳目，世稱為北水陸也。雲棲大師具擇法眼，故不從北從南，每設供結界密護，除主壇一人，表白二人，齋主一人，香燈五人外，餘人例於幙外瞻禮，不得入內壇。壇內人出入，必皆易衣澡浴，所以得名如法供養。不似諸方濫張聖像，任男女雜沓遊觀，致使飲酒食肉，吞煙噉蒜之人，皆得熏蕙尊儀也。新都鄭千里長公完德，三藏殿主人七淨，新都楊長公，江寧陳旻昭樞李譚埽菴，欲令此法重得流通，津度靡極，顧此法源流，惟旭頗能考知其詳。敢僭述緣起，為賢達告。

靈峰蕩益大師宗論卷第七之四(終)

傳

瑞光了一源禪師傳(并贊)

了一禪師，長洲縣周氏子，少以俠聞里族。年二十三，忽思出世，禮瑞光寺藍園遠公，命名定源。因見踏著稱錘硬似鐵語，甚疑之，晝夜無閒，有省。又疑如何是鬼神搜不破之機，留心多載，更有悟入。雲門湛然禪師遊吳，師呈所見，湛印可。嗣後惟誦圓覺經為夜課，晝則閱大般若。應事接物，依然如故，略不表異也。萬曆丙辰臘月十六日，謂竺瑤淨公等曰，吾將長逝。因取曆選二十六日。且曰，人止一死，不足奇，吾先作死法，汝等隨喜。乃結跏趺坐，從足至頂，漸皆如冰。約一時，復甦曰，人怕死無別況，如溫水中浴，煖被中睡，只懶得起耳。至期合寺各有付囑，命合髻三載，後開視之。又謂其學人無雲曰，吾平日教汝法華，且道紙是法華耶，字是法華耶，誦是法華耶。若會，無邊寶藏一時領去，不會，則更讀三十年。仍喝一喝云，且道此一喝，與全部法華，是同是別。又喝一喝，大笑趺坐而逝。眾奉全身塔於本寺土山，世壽四十有六，僧臘二十有四。以依四安樂行，不畜徒眾，衣鉢無嫡傳。今淨公配入祖祠，春秋不忒云。贊曰，宗門中事，妙在潛修默證，吻合教乘。彼解一機一境，便滿盤賣弄，蔑視經典者，適培生死根苗耳。源公去來自在，豈僅蒲團參悟之力，良由般若圓覺以印心，和光同塵以應世。故雖無出世機緣，而末後光明，已照天地也。增上慢人，聞師之風，愧矣。

武林萬安雲禪師往生傳

吉祥寺萬安禪師，諱大雲，杭仁和郭氏子。弟婦吳氏，完節苦修，師因感發，往永慶寺出家。受具於雲棲，居北郊，篤志淨業，相依者眾。湛然源靜主，欽其素履，捨菴為十方院。師按此地，古有吉祥寺，率諸善友，力復舊觀。不數年，佛宇僧寮，燦然畢備。共住規約，一秉雲棲之制。往來禪侶，接待殷勤。不營田產，不置柴山，百一所需，悉任外緣。弗涉邪命，痛革時弊，力追古風，叢席稍成。示微疾，即絕飲食，減語言，專修淨業，凡閱一月。婦并女曹省視之，訶曰，彌陀不念，念我何為。臨終語上足智經曰，為我

灑埽，佛來迎矣。扶身趺坐，念佛而逝。世壽五十九，僧臘十一夏。婦大法，弟婦大海，男智首，女智音，甥女智真，並出家修道云。

吳興智福優婆夷往生傳(并贊)

優婆夷智福，姑蘇盧氏子，適新安程季清。季清篤信佛法，流寓吳興，力營福業。盧盡內政以助之弗倦，好惠施，無私積，心言皆直，謹身節用，不喜御珍飾奇服，不恚詈給侍人。茹素，持珠日課佛名二三萬，視世間法如嚼蠟。壬申年三十九，嬰篤疾，急請古德法師受歸戒，諮淨土法要，乃一意西馳。遇痛苦，惟勤稱佛號。季清為讀華嚴大經，至遍參知識處，一一解說，亦一一領會。復策之曰，百劫千生，在此一時，努力直往，勿猶豫也。於是勵聲呼佛者半月，見二高僧次第來。轉加精勤，徹夜猛念。厥母欲泣，厥女慰。俱遣之云，無亂我心。次日辰時，親見化佛蓮華，遂覺精神恬適，目色鮮明。急索香水沐浴，西向叉手，連聲念佛，吉祥而逝，則十一月初八日正午時也。日暮，遍身冷，頂門猶熱。贊曰，

哀哉三界，愛欲為根。根株不拔，奚望西生。蓮華國土，永離塵情。此緣能斷，彼質斯成。勇矣智福，女中之英。快逢勝友，皆由夙因。一日一夜，淨念功殷。華臺接引，眼識分明。子母恩愛，枯木寒冰。吉祥善逝，長辭苦輪。我悲含識，纏使所嬰。戀此幻世，曠劫迷真。謬圖出要，罔知勝津。計取空果，違妙淨因。誰能正信，闊步高登。我今隨喜，願共群靈，頓除疑網，證入玄門。

松陵鑒空寧禪師傳

方外史曰，世有大才小用者，舉世共稱之，其人終不傳。如松陵沈氏，鑒空如寧禪師，貌古骨勁，志超夷等。以萬曆丁亥年，禮懷林茂公，出家方尖觀音禪院。茂棄世，師年十七，形影弔，日受侵擾，不去。對峰宏禪師，見師年少而志堅，力扶之。語長者敬菴陸公，捐資修葺。申文定公聞之，遊其地，手為題額，方獲安處。師唯誅茅力耕，絕無資緣。延至天啟丙寅，囊有餘貲，捐之。像貌堂宇，煥然改觀。戊辰遊普陀，歸憩聖壽寺之藏殿。時南關接待寺乏人，徵師理庫事，越一載主之。整廢墜，肅清規，作事先勞，享用平等，別開學人信宿之單。按律制，無盡藏田畝日增，積弊悉杜。經四載，空囊稍實，復捐修大殿，不數月工成。遂示微疾，絕湯藥，點常住事，纖悉分明，與眾永訣。上首墮淚。訶曰，老老大

大，作兒女態耶。命送骨歸普同，上首請鎮方尖，默許之。次日寂然無聲，吉祥而逝。眾撿其囊，無分文。世壽五十有九，僧臘九夏。既往而芳名益著，議者誰不曰，師於接待第一功臣，於方尖中興烈祖哉。嗚呼，此皆非知公者也。方公之力耕方尖也，喟然歎曰，不意為茲地埋沒半生。天啟乙丑，予偶同二三法友，結夏菴中，商大佛頂要義。師既聞出世法門，猛省昔願，頓以菴事付實上足，從茂林律主受戒。偕予結夏承天，究律學。予以先慈捐世，將隱。師招掩關，以身護。其海上之遊，亦侍予也。欲檢律，嚴淨毘尼，故歸憩聖壽。斯時也，舌不味非時之肴，手不釋圓明之珠，送想西方，不復知有人世閒事，將謂初志遂矣。不意接待之緣，漸漸逼身，兩翻皆再三力辭，檀護再四堅勸。萬不獲已，荷之，而志實大拂。臨終命送骨入六和僧海，蓋矢學於來生矣。至許方尖之請，不以語以默。是默也，與昔力耕時倚鋤長喟何異也。師不遂深入法門之志，故兩地之勳，人雖嘖嘖，而自視愈欲然焉。非大才小用，何能功成不滿哉。予知師，傳之以為幼而有志者告。

璧如惺谷二友合傳(并贊)

璧如禪師，諱廣鎬，台州王氏子，俗名敬穀，號伯無。父士琦，為大同開府，以廉名。師弱冠，即有出世志。禮雲棲蓮大師，受五戒，有今名。萬曆丙午，舉孝廉，時二十七歲。越兩大試，慨然就選。為急完仰事俯育之累，圖出世也。令新淦，愛民如子。因居官，戒德稍疏。戊午入覲，舟次荻港，夢鬼使攝見，冥王責以破戒事，驅入獄。傍有冥官代請，取破戒後諸事省之，善多惡少，釋不入獄，鑿蒲萄朵，釘柱上。及寤，雙目乃矐矣。醫進藥，復夢為冥王所訶，更以二鎔入兩眶，大痛，失聲而醒。遂不服藥，告歸。築室台山高明寺傍。日課金剛般若，并大悲心咒。行法不一年，漸復明，諸親友勸令再仕。歎曰，人生幾何，猛求出世不暇，猶作蝸角蠅頭活計乎。惟太夫人在，未忍去。然思既欲離俗，復以母在為礙，豈可不願母臻上壽耶。時有人因子出家悲泣，太夫人故笑之曰，第一好事，應慶幸，何泣為，設在吾，吾決不作此態也。師由是安心遠遁，剃染楚中。單身行腳，備嘗諸苦，登戒品，掩關閱律，并書華嚴大法。次歷匡廬諸處，到博山隨眾參禪，人無知者。予適同歸一師，送惺谷至博山薙髮。師在高明，曾與歸師交。歸一日眾中執其手曰，公是回生王伯無否。不容諱，始實之。日見予，與無異禪師論受戒事最悉。因歎近來律學大淆，本以破戒親受冥譴，久欲留心此道。而歷叩名德律主，罕不瞶瞶者。予出毘尼集要示之，亟讀亟賞，歎未曾有，遂與盟千古交。又知予方事閱藏，以

啟囑曰，三藏義類，宜總為一書。三藏酌要，諸宗集要，佛事稽古正訛，宜各別為一書。發菩提心集，六度集，宜為二書。毗尼中衣事鉢事，及授戒說戒羯磨諸事，日用閒宜行者，當輯附集要後。梵網經，雖有二大士發明，宜補以彌勒戒本，及諸經有相發者，集附本條之下，然後自出手眼，以補前人之缺，亦不失為二大士忠臣。勿以避嫌，失此勝事。沙彌戒、優婆塞戒，俱要少有發明，附於集要。已上八則，弟往讀契經，薄有微願。恨齒逼遲暮，精已銷亡，近又作蒲團活計，不能填也。幸逢郢匠，敬附當機，儻三昧酒消，尚冀奉襄半臂。不爾者，當結縞帶於來生矣。予唯唯謝曰，弟亦夙有此志，不謀而合，第六第八兩事，業已為之矣。未幾，掩關東峰靜室。次年太夫人以其故二訃，乃歸省。太夫人語曰，予謂子出家，吾不悲泣，今果然否。勉矣，吾自善養餘年，汝子亦善學，勿以此妨出世大事也。師奉慈命，遊武林，與新伊法師莫逆。時予入孝豐，取道武林。師曰，集要雖預參訂，實未淹浹。擬從師授講服習之，不令付諸空言。今遇華嚴法席，不能隨。餘生若在，明歲入山結夏耳。不旬日，嬰微疾，預知時至。命侍者寫囑言，貽二子，攝心念佛而去。嗚呼，以師之敏而好學，解而能行，具出世正因。懷菩提大願，謙光厚德，飲人以和，無愧蓮師法脈。天竟不假以年，非法門大不幸乎。師生於萬曆庚辰，卒於崇禎辛未，世壽五十有二，法臘五年。示居學地，故衣鉢無傳，唯回生紀一卷行世。佛日金臺法師，塔其全身於皋亭山麓。

惺谷禪師，諱道壽，溫陵何氏子，俗名啟圖。為文學時，閱憨山大師楞伽記，且讀且泣，發出世心。捐舉業，專究宗乘。因父在，不得出家，以居士身與道友如是雨海等，日相砥礪。泉南久乏聞熏，緇林無人知參方行腳事。師鼓一二英傑，破格遠遊。閩中緇素，始稍稍有發心北學於江浙者。初至匡山，謁憨大師。見其規模闊大，於商究生死一事不甚切。捨之，之博山，博山居以別室，勉以參究年餘。每與異師論甚厲，異師不以為怪，知其別有長也。然異師法門，必先定後慧。師自揣種性，應先慧後定。藥病不投，莫能相療。東遊武林。訪無盡法師於天台，見故友歸一師，德業俱進，疑法師必有出格鉗錘。依之，得閱妙宗鈔等極則教理。回視昔時慧解，倍覺精細。劉大參延至吳門，從吳門遊杭，抵龍居。時予在龍居閱藏，一見即問有著作否，以白牛十頌示之，大悅。遂欲盟千古交，予未以為然。相聚既久，每與予破格大諍，予謂此居士也，未必細察余言。後因歸一師同結冬，偶商及耳根圓通法門，歸師持公論，是師非予。予因虛心再研，舊諍負墮處大半矣。乃共締千古盟，激令早現僧相。師以舊禮博山，不忍背。歸師與予欣然送之到博山，異師手為薙髮，而未受沙彌及比丘戒。蓋受戒事，曾與季賢

師約，必復古制故也。庚午春，予病滯龍居，然臂香刺舌血作書與之。師同如是師來，禮季賢師為和尚，覺源師為教授闍黎，新伊師為羯磨闍黎，力復如來舊規。如法受沙彌及比丘戒，唯菩薩戒不重受，以為居士時，曾受之博山也。結夏安居，聽毘尼集要。師久習宗乘，得其大益，亦未免染其流弊，不能留心律學，但恐負予苦心。知佛日金臺師，虛懷好善，以集要力請流通。辛未秋，疾終佛日。嗚呼，師亦最奇人也。為法門每觸時忌，為道友每忘自身。慧眼超群，機辯峭拔，往往以短兵取勝。雖名禪宿德，欲與之戰，大似撼岳家軍。馴致之，兜率覺範豈多讓焉。予方謂博山有子，青出於藍，何入滅之速耶。師生於萬曆癸未，世壽四十有九，法臘二年。金臺法師荼毘之，塔其骨與璧師鄰。如是師以受師益最多，輯師平日手札，名為筆語而流通之，述行紀，執弟子禮於身後，為天下後世重名相而輕法恩者愧云。

方外史曰，二師皆予最善交也。璧慈而溫，惺悲而厲。璧聰俊而詳明，惺沈毅而精銳。璧日讀數卷，過目了了，惺涵泳一偈一句，經旬月不置。是故惺服璧之博暢，璧服惺之瑩徹。璧所屈，人皆愛之。惺所屈，人皆畏之。璧惟欲受人益，未敢益人，故以能問於不能，以多問於寡。乃至臨終，猶合掌問法，令侍者泥首。惺惟欲益人，即名自益。故從閩至江右，從吳至武林，無不以好辯貽譏叢席。乃至臨終，憶念故友，如是勸宜自顧，猶厲聲大叱，謂千古安有自私自利聖賢。噫，孔子謂不得中行，必也狂狷。孟子稱伯夷柳下，同為聖人。二師春蘭秋菊，各擅其美。奚必兩融，始名全德也。其與予交也，璧師欲受予益，不得不稍以微辭益我，惺師欲益於我，亦不得不稍受予益，皆生平破格處也。可痛者，璧師欲學毘尼，有志未遂，惺師既學不能力。如來正法，誰共仔肩歟。嗟乎，一月間，二師相繼而歿。予雖有一二同志，但能受益，不能益我，或可相益，而喜願惡逆，不能結眉於紅爐烈焰中，撒手於冰凌劍刃上。如二師者，大事因緣，尚不免留下公案，矧不及二師哉。予是以浩然永歎，甘沒齒於深山也。

誦帚師往生傳

師諱宏思，一字如是，晉江溜[泳-永+粵]人，族姓陳。髫年入郡之開元寺，禮湛然精舍尚滿全公為師。薙髮後，喜詩文，不理錢穀。氣節昂然，縉素咸敬憚之。年二十七，忽發出世心。盟月臺心默師及惺谷何居士，為生死交。朝夕參究大事，忘形破格，風雨寒暑，弗替也。時溫陵佛法久荒，聞熏乏種。師獨與惺谷鼓舞數人，謁博山無異禪師。受具戒，苦參無字，脅不著席者三年。異師愍其勤，

恐致病，說調琴喻勸之。稍稍晏息，終不解衣。師志遠大，縱有省悟，不自足，亦不輕舉似人。同輩視師若木訥，師固是非了了，洞如秦鏡矣。離博山，游浙直，習教觀於幽谿。鑒末世暗證之失，遵永明角虎之訓，遂神棲安養，期以萬善同歸。迨惺谷薙草，師以受惺谷教益最深，欲推為先臘，且博山受戒不如法。遂捨前所授，禮季賢師為和尚，覺源、新伊二法師為阿闍梨。次惺谷進比丘戒，兼進菩薩大戒，結夏聽予律要。次年惺谷師西逝，師以全公年邁，歸侍，創八關社，接引居士。從此溫陵緇素，始知有如來正戒。師自視欲然，惟明師良友是念。越五載，復逃江外。踏冰雪，尋予九子峰頂。未幾，全公變，厥孫泣挽回泉。乃訂予續至紫雲，作掩關計。逮予踐約，未及一載，師遂示疾。召予助其念佛，命侍者除髮浴身。浴畢端坐，舉手而逝。正念分明，神清氣定。越二時，頂[寧*頁]尚煖，托質蓮蕊無疑也。師生平自奉甚約，破衫補履，數十年如一日。予嘗笑謂之曰，舜視棄天下猶棄敝屣，師棄敝屣猶天下也。師愀然曰，某非故作慳態，愧薄德不堪消受檀信耳。甘淡薄，忍疲勞，精勤禪誦，夜寐夙興。雖劇病臨危，亦不懈廢，誠有古人風。至於親信師友，受惡辣鉗錘，如飲甘露，於古人中，亦不多得。假以數年，近可匹休異巖，遠可追蹤斷崖。惜乎生年僅五十，戒臘甫十夏。自度固已有餘，利他功未及半。痛哉，與士夫往復，必隨其病渴，飲以苦口。師侍者，錄成帙，予戲題為老婆禪，便有偈頌詩詠數十首。未示疾前一月，忽焚之。嘗取律中一偈，銘諸座右。偈曰，名譽及利養，愚人所愛樂。能損害善法，如劍斬人頭。師未嘗不與鄉紳賢達交，而心固覷破如此也。猶憶其詠菊絕句云，籬菊數莖隨上下，無心整理任他黃。後先不與時花競，自吐霜中一段香。此可窺其概矣。師自謂神根稍鈍，晚稱誦帚道人。志在掩關，專修淨業。又號藏六比丘。其道昉一諱，則異師所命也。按紫雲開士傳，已得八十人，今當續稱第八十一云。

自觀印闍梨傳

方外史曰，法道之盛也，一人敗之有餘，逮其衰，多人扶而不足。豈魔力果勝道力哉。同分妄情，順易逆難故也。於此有人焉，易世俗所難，緩時流所急，雖大志未遂，厥用未光，亦足為中流砥柱，屹然稱傑。自觀法友，殆庶幾乎。法友名照印，應天江浦人，俗姓姚。年十二斷酒肉，出家大報恩寺之竹浪菴。曾祖雲臺公久習禪思，知為法器，與祖西輪公玉成之。解字義，即喜習詩文。祠部劉田諸公，並加矜重，為童子師。董訓嚴正，事耆宿盡禮。闍寺先臘咸器重之。年二十三，忽發出世心，棄鉛槧，參雲谷老人，請問法

要。顧多病，瘡痂久蝕其膚，未遑遠遊。丁卯棲霞除夕偶琢句云，此際欲何言，燈花凡幾箇。吟未罷，燈光忽掩，少頃燼乃復明，不覺汗流浹骨，猛省無常。從此視世閒事，益如枯木死灰矣。己巳秋，予遊棲霞，始與法友晤。贈以偈云，舉世不知真，吾獨不愛假。羨君坦夷性，堪入毘尼社。法友領之。壬申春，遂入靈峰結夏，予為秉羯磨授具戒。專精聽律，隨解隨行，不肯付諸空言。學侶競設問難，唯法友默訥如愚，真操實履，無外飾餘習。丙子，予病隱九華，法友居武水，遍閱律藏全書。丁丑尋予九子別峰，商證梵網佛頂要旨。予見其躬行有餘，慧解不足，設壇中十問拶之。廢寢忘餐，深思力索，經秋及冬，有省。乃知此事，甚大且遠，更自勵，韜光慎持。戊寅予往溫陵，法友歸，遵遺教依律藏住，依四念處行道，不以世法干懷。時同參者，以通方自負，每嗤之，夷然弗顧也。逮壬午，予從溫陵返，正擬與法友共建法幢。乃先一年辛巳，法友逝。嗟乎，三宗角立，法道陵遲。各驚名高，咸無下基。苟告以三學源委，佛世芳規，未有不掩鼻笑，返脣譏者。法友信我於舉世非毀之際，從我於九死一生之時。及戊寅一別，咻者眾楚，傳無一齊，而能子爾自淑，至死弗移。凝神觀佛，正念以歸，直至身歿。緇素方追思而憶之，豈不卓哉。大報恩寺神廟閒，傑出二人，一為憨山大師，一為雪浪大師。印子初度，即志前徽。乃生年僅滿四十，法臘十夏，猶虧一時。知嚮服者，鄭中丞，錢京兆，鄉達凌官球，陳旻昭居士，陳非白，張興公，數人之外無餘焉。予謂為二老不易，為印子更危。設無深慮遠識，誰肯捨舉世共趨之好徑，偏履草深一丈之甚夷耶。昔孟軻尚論古人，首陽殍，與商阿衡魯士師同聖，誠不用世諦為品題也。予以憨雪兩大士與印子，並稱為報恩三傑，夫疇曰不宜也歟。

妙圓尊者往生傳(并贊)

尊者妙圓，諱如會，燕都譚氏子。世襲萬戶侯，幼茹素。三十九歲出家，誓行頭陀，脅不著席。前後共然六指，燒頂煉臂無算。初至南方，唯事苦行。牛頭住持，激以究理，大為感發。一心念佛，遂得豁忘身世，而不自稱悟。見一切緇素，不作寒溫語。單己獨行，不畜餘長。夏棄冬衣，冬盡捨夏。天下名山，歷覽殆遍。心慈而色厲，凡開示人，必猛厲懇切，不順庸情。丙戌，晤尊者於石城之隈，次同住濟生菴，盤桓數日。公喜予朴實，予敬公戒德禪定，每行坐必推讓之。戊子秋，過淮安清江浦，眾見其儀容不凡，留供養。未幾，以一衲贈萬德菴主人，且囑之曰，吾不久將去，特一事相託。主人曰，和尚方來，何遽言去。荅曰，西方去耳，可以遺身

付江流中，普與魚蟲結淨土緣。主人辭不敢。尊者曰，若然，茶毗後，以骨和麵粉，為我結緣何如。主人曰，可。因命辦大燭好香，眾莫測其意。至十月十九夜，四鼓，忽呼主人曰，為我大開各門，燒香點燭。主人點燭竟，寂然坐逝。四方皆聞異香，爭來禮拜供養。遵命茶毗，作餌樂與江中。世壽七十有一，僧臘三十二年。尊者曩在水草菴，謂劉道澂曰，一心念佛求上品上生，便是向上第一義諦，汝輩若不肯信，試看我將來得生淨土，便當信也。噫，今果然矣。贊曰，

淨土橫超，圓頓希有。佛祖贊揚，異音同口。生盲罔知，猶將別扣。妄擬融通，終成塵垢。唯我妙公，作師子吼。一句彌陀，博施約守。末後光明，機緣非偶。稽首同歸，誓弗敢後。

蓮居菴新法師往生傳

法師諱大真，號新伊，武林東城周氏子也。父某，母劉氏。師在襁褓，即能合掌稱南無佛陀。逮就外傳，不伍群兒，聚沙畫地為佛塔，或趺坐觀鼻。九歲，父母議聘葉氏女，師泣辭。詣蓮居紹師受歸戒，遂依座下。紹師督課甚嚴，師根性稍鈍，屢受惡辣鉗錘，堅無懈退。年十五，薙髮為沙彌。二十入雲棲受具戒，是夕夢著僧伽梨，登高座演般若，徵其實得無作戒也。是故與師同時宏戒演法者雖多，而童真入道，必推師為第一。服習紹師所演教法，人一己百，人十己千，夜以繼日。慈恩台岳宗旨，每多遊刃，而心益虛，志益勇。無論先賢著述，即生在師後，如惺谷壽之禪，歸一籌及管正見之教，不肖旭之律，壁如鎬之儒，師皆取諸人以為善，如大海不拒眾流也。師父母春秋高，先後禮紹師出家，異廬而居，父名方舟沙門，母名順修菴主。師就養無方，數十年如一日，與紹師同稱至孝，有古陳尊宿風，故護法者額其室曰睦堂焉。紹師去世，師治後事畢，感違緣，飄然遠舉。桐廬覺源法師延之，往依焉。與木石居，與鹿豕遊，無復人世閒想。既易寒暑，檀護書幣迎歸，重主蓮居，力宏紹師之道。著唯識合響，兼授金剛寶戒。復建大悲壇，嚴課事理二懺，而教觀始並舉矣。年七十一，遍囑及門士，傳持教觀。自擇翠堵波地，新秋示微疾。自恣後三日，趺坐憑几，再申遺教。并集居士弟子，囑以護持正法。越七日，沐浴更衣，就寢復起，命取座置榻前，跏趺其上，手持數珠，與眾同稱彌陀佛號。頃之，聲息俱寂，鼻垂玉箸過尺許，踰時頂相猶熱。是為庚寅年七月二十五日午時，法臘五十有三。先是優婆塞周氏，夢天樂迎師西逝，急偕戚屬數人，來受歸戒。菴主道聲，預以元日，夢師坐蓮臺上。師之往生淨土，夫何疑哉。贊曰，昔佛以正法眼藏，付大迦

葉。迦葉於佛滅後，首集千阿羅漢，結集三藏，故知傳佛心印者，必須三學並宏，性相兼徹，即如達磨以楞伽印心，六祖必登壇受具，餘可知也。至於華嚴大集寶積法華諸大乘經，無不弘讚淨土。馬鳴龍樹諸大祖師，無不神棲極樂，豈止蓮宗十祖而已。師祖雲棲，父紹覺，教以澡神，律以滌愛。勤修五悔，遍學三宗。無怪乎印壞文成，如入三昧也。彼鼠啣鳥空，慣為大言以欺佛者，聞師之風，亦可以少愧矣。

新安程季清傳(并贊)

季清居士，新安程小溪，第三子也，名文濟，法名通慧。讀書西天目，偶謁高峰大師塔，不覺痛哭。翦臂肉寸許奉供，遂矢志參究。禮雪嶠禪宿為師，逼拶既久，漸有入處。既遊太學，因長兄嗜堪輿術，習之，遍為叢席經營，自比司馬頭陀。至博山，無異禪師甚敬愛之，臨別步送五里。居士謂末世禪流，不達教理。建六年講社於蓮居，請十法主輪次登座。又以修行要門，須達法相。延自平法主至丈室，為菰城善信，再演成唯識論。撥冗諦聽，曉夜究心，深得慈恩綱要。每讀華嚴大典，及發菩提心論等，輒聲淚俱下。自號十願居士，凡放生濟獄，禮懺弘法，無不以身先倡，鼓舞成之。京兆錢元冲喪子，居士相與大興福業，幾至三十萬金。京兆卒，居士亦喪子，猛感無常。乃閉戶謝客，專修丈六佛觀。始懵懵，既隱隱漸現佛身，明對心目，唯色黎黯。重加苦切，凝想不已，忽空中有聲教曰，若欲見金色身者，須於佛身，先作紅想。依教想之，果獲閉目開目，咸得了了。佛身光明，映室四壁，室中什物，皆成金色。出定視世間人，如死灰矣。一日正趺坐，佛觀現前，家人排戶作聲，忽驚出定，乃不復見佛。因悟佛從想生，本無來去，而亦不捨觀門。但涉事既繁，功遂漸減，每以為恨。庚寅春，謂予曰，邇來始悟生西要訣，須是放得娑婆下耳。予甚然之。蓋居士雖修佛身觀，猶思後身作帝王弘法，或作天神護世，每遭予痛斥也。辛卯秋，嬰腹疾，即囑後事，屏雜緣，繪接引聖像以助觀力。至九月初二日，吉祥而逝。居士生於萬歷戊子，閱世六十四年。先後舉十一子，僅存二。謂予曰，生平每夢行軍征伐，執旗揮眾，當是夙世殺業太重，故所舉多不育耳。元配盧氏，法名智福，先登樂土云。居士捐世，長女哀慕不已，至一七夢居士曰，吾已向吳門四十里外，作大叢席護伽藍神矣。方外史曰，季清蚤歲參禪，復精唯識，歸心淨業。如此，而以風水名家，卒為護伽藍神，未登地菩薩，不能盡伏現行煩惱。世故有不足季清者，乃其大菩提心種，豈可得而掩哉。

影渠道山二師合傳

影渠師，樵李孫氏子，出家本府之施菴，法名清沼。道山師，一字靈隱，武林孫氏子，出家普陀之靜室，法名永闐。天啟初年，有抱璞蓮法師，兼受龍池禪學，建期武康淨名菴，二師同堂相聚，盟世外金蘭，從是形影相隨者二十餘年。影沈靜，寡言笑，靈爽朗，多恢諧，似不相侔。而謹身節用，孤峻少合，則出一轍。故始自叢席，終迄住靜，不啻如水乳也。既參抱師之禪，復聽古德法師之教，古師為予授戒闍梨。而予生平不入講席，與二師雖同門，初不相識。至乙亥春，阻雨祥符，始相傾信。是年冬，二師獲閱法華玄義，及摩訶止觀，大悔見此二書之晚。知台宗圓頓法門，直指人心，見性成佛，誠不異單傳正印。而六即簡濫，尤足救末世狂禪之失也。蓋影師久習禪坐，頗通教典。靈師曾在淨名堂中得箇省處，每歎諸方禪學，展轉訛偽，無可並譚。僅寄情詩句之間，與雪嶠秋潭諸名宿酬倡。視斯世同流合汙輩，若將浼焉。甘淡薄，守枯寂，凜凜乎若冰雪之寒，矯矯乎若雲外之鶴。今讀其詩，猶可想見其眉宇也。辛巳九月初八日，影師示寂，享年五十有五。次年壬午九月二十五日，靈師示寂，享年四十有七。遺骨共歸西溪普同塔中。影師從行腳後，遵頭陀行，每事任靈師為之，唯拱默靜修而已。靈師僅薙度兩人，一名福具，字戒心，久從予遊。一名福定，字止林，長師一歲，而出家在福具後，即今督梓詩稿者，亦能勤修禮誦，不墜家風。二師生平最落落寡合，而一與之交，則道誼最切，每令人念之不忘。從來不事干謁，不營世務。樵李緇素，每追慕其高風，誠末世優曇華也。何俟登壇豎拂，方名人天師範哉。

靈峰蕩益大師宗論卷第八之一

靈峰蕩益大師宗論卷第八之二

壽序

壽延壽院新伊法師六秩序

予自壬戌出家，往來雲棲雙徑間，即獲與師識荆，至忝為忘年交。自庚午歲始，每一聚首，輒曉夜盤桓佛法弗置。予退休求寂，遁跡深山。二三學人，從予遊者，皆令稟沙彌戒於師門。比丘果海，則師指示令其學於不肖者也。己卯孟冬，值師六十壽誕，諸戒子謀所以稱師壽者。予惟出世法門，觀色身與太虛等，觀塵劫與彈指等。奚事頌岡陵稱浩瀚，與世諦競稱延壽哉。夫勝義三寶，常住法身，無量無量，何所論延。若住持三寶，則諸佛慧命，從來藉人以傳。

故梵網云，佛性常住，戒卷流通，三世一切眾生，化化不絕。而大經扶律談常，稱為贖常住命至寶，豈非甘露戒法，實佛界延生妙藥，令九界頓同佛位者乎。昔紹覺法師，遨遊教海，遍探大蘇慈恩宗旨，講演之餘，手輯毗尼珍敬錄，以範後昆。師童真入道，為紹公長子，性相二宗，無不克受其傳。服習毗尼，視紹公尤加焉。初受大戒於雲棲時。便得登座演法之夢。二十餘年，久默斯要。直至惺谷力請，方肯破格一稟羯磨。從此後學雲仰景從，事不獲已，乃開甘露法施，普令四眾，皆得服膺。師為人天宣暢道化，數十年來，未嘗暫廢。而舌不味過午之肴，身不御珍奇之服，性遮俱淨，解行並美。且復建立壇儀，則功深五悔，趺坐習靜，則觀成十乘。此其所以砥柱狂瀾，續佛慧命者，為何如哉。每慨如來正法，一蝕於說食數寶之流，再蝕於闇證無聞之侶，乃至近世狂禪，惟以鼠啣鳥空相馳驟。而羶羊比丘，又往往無解作師，適為踰閑蕩檢者嗤笑。予是以避地避色，狀如顰蹙。惟師密養既厚，聲名自溢，其源遠者其流長。吾知師光明壽量，直與無邊莊嚴香水海同其深廣，種種光明蕊香幢同其高大，豈世間岡陵浩瀚所能擬其埃滴也。

壽莊母道昭優婆夷蘇碩人八秩序

夫十世古今，始終不離於當念，所以世尊入剎那際三昧，八相成道。既頓示，復互示，良由時劫之性，即是實性故也。然惟證時劫之實性者，自能遍現種種時劫。善夫天台之言曰，實無量而言無量，法身之壽命也。實無量而言量，報身之壽命也。實有量而言無量，應淨土身之壽命也。實有量而言量，應穢土身之壽命也。至於即穢而淨，即應化而法報，又隨機各見不同，豈思量擬議所能及哉。宣尼氏謂仁者壽，是不僅以色身論壽，不妄從延促起見也明矣。醒一莊子，儒而禪者也。母蘇氏，年登八旬，不問序於名公大人，獨泥首啟予曰，先大父，少塘公，筮仕於粵，囊無宦資。先君子鑑塘公，從事性命之學，恥為貨殖，吾母繼事先君子，從劇貧中，撫前母郭氏所生一男一女，無二心，既育予小子，不令以貧廢學，教愈篤。後永覺禪師至開元說法，母曰，苦當思脫，率予小子而歸依焉。今躋八秩。予小子為貧母兒，未知所以報母者。山納笑荅之曰，子不聞佛世有須賴居士乎。貧於財，不貧於法，波斯匿王，不敢與較富也。子又不聞昌黎之問大顛壽乎，顛舉數珠云，晝夜明珠一百八，昌罔措，舉問首座，座叩齒，再問顛，顛亦叩齒。昌曰，原來佛法只是一個道理。顛即召首座，連棒趕出。嘻，若向此處穿得大顛首座鼻孔，不惟昌黎熱鼻孔無處出氣，并三世諸佛歷代祖師赤骨歷冷鼻孔，皆無出氣處，便可向莊母稱無量壽矣。

壽陳旻昭居士六秩序

博山老師曾謂予曰，吾每與講主相見，必叩以事事無礙法界。儘力答來，止說得事理無礙而已，從未有說得事事無礙者。予應聲曰，事事無礙，豈真在事理無礙之外哉。惟其全理成事，所以全事即理，唯其全事即理，所以全事即攝一切事耳。且如舉一毛端，必具法界全理，非是法界少分之理，以事外別無理故，此事理無礙也。既此毛端已具法界全理，亦必遍攝法界全事，非僅法界少分之事，以理外別無事故，此即事事無礙也。師遂首肯。予復曰，佛為初機之人，必深談理性，欲其以理融事，不滯於事也。若為深位菩薩，必廣談事相，欲其以事攝事。不滯於理也不滯於事，則一事通達一切理，名事理無礙。不滯於理，則一事通達一切事，名事事無礙。師大然之。居士博山大弘護也，今六旬華誕，予請以博山點首者，為居士壽。惟居士弘護大法三十餘年矣，凡今事門頭，布施持戒忍辱精進等行，亦既積集廣大矣。即向上一著，亦必點胸自肯矣。豈非已入事理無礙法界者耶，其去事事無礙幾何。居士好奕，請以奕喻。夫黑白二子，勝負歷然，了知勝負，皆無實性。不於勝負，起我法二執者，事理無礙也。能於一一著中，透盡三玄三要，五位九帶，九十六種圓相，乃至百法明門，六相十玄，三千性相，無不究竟明了者，事事無礙也。居士依仁游藝，蓋欲深入事事無礙法界，豈僅以一奕娛情。予故謂居士必欲究竟此一著子，須再向三玄三要，五位九帶，九十六種圓相，百法明門，六相十玄，三千性相等，一一葛藤窠中，游戲出入，俾無纖毫不透盡處，然後得成無上妙奕三昧，然後執善財手，摩善財頂，而告之曰，我得菩薩解脫，名曰善奕。我於一一著中，見無量佛，聞無量法，親近供養無量眾僧。又於一一著中，圓滿念處，正勤根力，覺道三十七品，菩提分法。又於一一著中，入空無相無作法門，普見諸佛剎土，不以二相。又於一一著中，具足六度四等，四攝萬行，不可思議，福智資糧。又於一一著中，成就十力四無所畏，十八不共佛法。又於一一著中，莊嚴三十二相，八十種好，流出身雲，遍十方界。又於一一著中，降伏諸魔，制諸外道，破我法二執，顯二空真如。又於一一著中，隨諸眾生，有種種欲，種種解，種種根性，種種煩惱習氣稠林，悉順其機。而為說法，以四無礙解，具足諸佛四種悉檀。令諸眾生，各得歡喜，各得生善，各得滅惡，各得安住第一義諦。善男子，我惟得此善奕三昧，乃至微塵剎土，自他不隔於一著。十世古今，始終不離於一著，釋迦如來，於此一著上轉大法輪，彌陀世尊。於此一著上淨四種土。則宣聖之耳順，便可與觀音之耳根圓

通，同入首楞嚴大定海中，庶不負居士自所期許，亦不負普天之下所期許於居士者矣。是為祝。

壽張幼仁五秩序

張子韶有省而說偈曰，子韶格物，妙喜物格，欲識一貫，兩個五百。予在家時，心竊疑之。後讀大經滿字半字之喻，恍然會心。夫格物者，吾佛半字教也。物格者，吾佛滿字教也。為實施權，則半助於滿。開權顯實，則滿融於半。半助於滿，半外無滿。滿融於半，滿外無半。一貫兩五百，豈不信哉。幼仁，子韶後身也，已悟諸相非相，而為如來寫出三十二相，幾及萬軀。夫悟諸相非相，此格物半字教耳。三十二相，莊嚴法身，豈非物格滿字教乎。今年新秋朔日，半百初度。幼仁先已證入滿字法門，則兩個五十，便是一百，夫何疑耶。於此百年之中，流出佛身相好，更當無量。是謂十世古今，始終不離於當念矣。

壽優婆夷馬母宋太碩人七秩序

法身壽量，無始無終。報身壽量，無終有始。應身壽量，隨機示現。如此理會得，猶是循行數墨見解。若知一體三身，不一不異，則知一切壽命，總唯心量，是故得心自在，得法自在，壽命自在，能以一日為永劫，能以永劫為一日。當念之性，即十世古今之性，一切含靈亦同此性，無量壽佛亦同此性。覺此性者謂之佛，詮此性者謂之法，順此性者謂之僧。護此性者謂不殺，全此性者謂不盜，守此性者謂不婬，宣此性者謂不妄語，明此性者謂不飲酒。不忘此性謂之念佛，觀察此性謂之念法，隨順此性謂之念僧。以此性示人謂之念施，以此性自範謂之念戒，以此性為畢竟所依，謂之念第一義天。若人深信此性，乃名具足三歸五戒六念，若人能受歸戒，能修六念，乃能隨順證入此性。今優婆夷宋太碩人，為馬氏昆玉七人之母，年滿七十，兒孫滿堂。且令嗣光世居士，因信禪而兼信教，太昭居士，因學儒而兼學佛，餘子若孫，亦各表表成立，能為出世色養。太碩人一無所慕，獨以歸戒為樂。劉姚諸君子，與光世太昭善，謀所以壽太碩人，問於山納。納曰，太碩人所樂者，正如布帛菽水，互古互今，淡而不厭。子別無山肴海錯，諸君子亦何必別覓鳳髓龍肝也哉。

壽車母牛碩人八秩暨次公居士六秩序

現前一念之心，互古互今，故名無量壽。靈明洞徹，故名無量光。阿彌陀佛，不過先得我心之所同然而已。是故吾人果能念念執持阿彌陀佛，即是念念證無量壽，放無量光。古聖既爾，今人亦然，至心既爾，散心亦然。法華云，一稱南無佛，皆已成佛道。大聖金口，豈欺我哉。末世障重，別求玄妙。欲速^反遲，惟罄蓄車居士，篤修淨業，心無異趨，晝夜彌陀五萬聲，以此功德，仰祝萱親，發願同證阿彌陀佛究竟果德。而牛碩人，亦已長齋三十五年有如一。居士舉三子三女，而三子又得蘭孫九人。今稱壽，不用世間歌舞，惟用佛號經聲。使普天下人，盡若車氏眷屬，豈不即娑婆是清泰，即分段親因是菩提法侶乎。居士謂現前兒孫，雖已聞三寶名，欲更以此念佛祝壽法門，垂之奕世，化化無窮，特乞山納一言。夫現前無量光壽之一念，人所同具也，而昧之亦人所同感歎也，同具則非異也，同感則非可已也。以同具之心，感於其所不可已之情，夫獨非人子也歟哉。

樂如法姪四十壽語

予壬戌夏，出家行腳。首至雲棲，即與雪航楫兄盟出世交。逮壬午夏，幻寓菰城，方識樂如法姪。姪蓋雪兄所剃度也，自幼持齋，十二三歲即歸依雪兄。直俟歷試，堪持淨戒，乃肯離俗。其視出家非等閒事，已勝尋常千萬倍矣。邇來住靜道峰之麓，和光同塵而不易其介。且篤信淨土法門，渴慕圓頓宗旨，故於客冬，不惜勞苦，隨予祖堂，入法華會。予每慨末世學人，止圖入耳出口，欲如法姪之但求密默受用者，尤為不可多得。但淨土法門，必以大菩提心為宗要。大菩提心固不可以意氣承當，亦不可以姑待自諉。昔孔子於四子侍坐，必借曾點化三子之著有，借三子實曾點之忘情。雪兄昔日，熾然以法門為己任，有似子路。老姪今日，澹然以守靜為家風，有似曾點。則老姪固可為吾雪兄之藥，而我雪兄亦未必非老姪之當所學也。今冬值老姪四十初度，同門子若證真二弟，特乞余一言為祝。予惟老姪真為一大事因緣出家，從來非好諛者，故直書此，以作無量壽之左^券。

祝沈母張碩人節壽序

吾聞壽者，受也，自造其因，自受其果，非天降，非地出，非人與者也。故宣聖謂仁者壽，又謂大德必得其壽。壽豈心外法哉。壽既非心外法，舉凡父子夫婦親友子孫，皆非心外法也。是故人能盡其心於仰事俯育忠孝節義之間，斯上壽自可必矣。又能推此心本寂本

照之體，而克復之，斯無量壽，無量光，亦可證矣。沈東起之母張碩人，初適悅軒老居士也。舉東起，僅三月，悅軒捐館。碩人冰檠其操，撫育東起，以至成立。後嬰篤疾，東起懼，割股為藥，得以無恙。予是以知東起之心，即張碩人之心也。碩人之心，即千古聖賢之心也。千古聖賢之心，即十方三世諸佛之心也。諸佛之心，即人人固有之心也。勿喪此固有之心，則為賢者。擴充此固有之心，則為聖人。極盡此固有之心，則為諸佛。參禪者參此者也，止觀者觀此者也，念佛者念此者也，格物者格此者也，致知者致此者也，明明德者明此者也。碩人與東起，蓋皆能弗喪之矣，知皆擴而充之，充類至乎其極。一念相應一念佛，念念相應念念佛。證無量壽，放無量光，度無量眾，成無上覺，何莫非一心中事耶。昔波斯匿王，年六十二，創聞如來發明不生滅性，與諸大眾，踴躍歡喜，得未曾有。今碩人年六十二，余為說此不生滅法。碩人與東起之踴躍歡喜，必不在波斯匿王下矣。

壽姚廣若居士三秩序

佛法之要，在戒定慧。儒門之德，在智仁勇。淨土之訣，在信願行。此三非三，三祇是一。此一非一，一必具三。能知戒定慧之缺一不可者，智也。躬行戒定慧者，仁也。不被貪瞋癡所奪者，勇也。知三德之在物在我，本來平等者，信也。以我因中三德，仰企果上三德者，願也。直將果上三德，成我因中三德者，行也。此所謂三法妙也。孔子三十而立，立乎此也。釋迦三十成道，亦不過成乎此也。予憶壬午冬，初晤廣若，廣若甫二十一歲，今冬值居士三十初度。古人云，道曠無涯，逢人不盡。宣聖雖三十而立，猶不敢居聖仁，釋迦雖三十成道，猶不捨穿鍼之福。唯其立乎此，成乎此，所以盡未來際不捨乎此也。於此究竟無捨，斯謂至誠無息。勉之。予將與居士共遊安泰之邦，師無量壽，友觀自在，及無邊光矣。

壽新伊大法師七秩序

師壽六十，戒子之從旭遊者，謬以旭言稱壽。今師七十，高足復以壽序見託。旭猶憶辛未春，同師禮大悲懺於蓮居，程季清甫議六年法社。旭於觀堂中，夢十字街頭一大涼亭，懸燈十有餘盞，須臾風作，僅存一燈，孤明歷歷，維時妄意，厥祥在師。今果為蓮居獨存之一燈矣，然存此一燈非偶然也。師以童身給侍紹翁，備受惡辣鉗錘，乃克為晚成大器。生平戒律精嚴，梵行超卓，懺摩禪觀，靡不

深習。而尤妙在虛懷好問，壬午旭從閩出，即以唯識合響，殷勤下問。逮客歲以束寄旭，仍命校讎。師於唯識講演二十餘遍，尚不恤下詢鄙夫。以視今之妄自滿足空腹高心者，為何如哉。易曰，謙尊而光，卑而不可踰。無量光，無量壽，胥在此矣。盡未來際，常住世間，劫風起時，此燈愈熾，區區南山北海，可以喻師光壽也乎。

達源禪宿六秩壽序

昔無異禪師入石城，一日登座，萬壽菴達源師出眾問云，如何是無量壽。異云，烏龍潭裏浪滔天。進云，若是則有量也。異云，天池一滴水，豈與眾流同。師遂禮拜歸位，予時獲識荊。逮辛未春，師敝屣菴業，飄然一納。遊武林，復與予遇於蓮居菴，則志泛教海，并近日禪者氣象而忘之矣。親近新伊老法主既久，乃拗折拄杖，獨居華塢之定慧菴。菴久不蔽風雨，師就其地誦法華千部，施綫口千堂。數年有如一日，始感檀護鼎新之。師為人坦夷率直，無芥蒂，無涯岸。而勤修真實行門，蓋不惟得力於天池滴水而已。師自述志學之年，即知奉佛，將弱冠，禮別傳尊宿薙髮。別公與紫柏老人同時，孤標獨邁，罕有能承事者。師曾托鉢奉養十年，朝夕親炙，所以猶有古人風格。雖近世宗匠，咸申參請，而終不襲其家法也。泥多佛大，源遠流長，唯師有焉。

白法老尊宿八秩壽序

嘗聞出家，有三事業，曰坐禪也，讀誦也，營福也。坐禪猶國有武備，名為定輪。讀誦猶國有文事，名為慧輪。營福猶國須理財，名為福輪。此三並以戒為基本，猶國之若司馬，若司吏，若司農等，並奉律憲。初未嘗以禪教律列為三宗也。又有三種善知識，曰教授也，同行也，外護也。夫教授以先覺後，猶可教學相半。同行共所趨求，祇期麗澤相資。惟外護善知識，必須諳悉通塞，委曲維持，故從古每以為難。且就法華五品觀行言之，同行則初二品可為也，教授則第三品可為也，外護則非第四第五兩品，弗能任也。昔密藏大師，棄儒學佛，既從紫柏大師薙染。大師謂其初入法門，未有福業，命復長水楞嚴古剎，流通書本大藏，續佛慧命，創千古大事因緣。密師既隱，大師復寂，佛殿經坊，漸至冷落。至壬戌冬，禾城眾護法，敦請白翁，主禪堂事。俾山門廊廡，煥然一新，流通大藏，永成規畫。十年後，以餘力建營泉古剎。又越六年，歷武林之橫山昭慶，及武水之幽瀾為社主。逮癸未年，再蒞楞嚴堂，凡三載。時遇鼎革，兵戈沸騰，而師之慈心忍力益著。至丙戌夏，壽七

十一，退居紫柏院中，冬建漏澤古剎。己丑仲秋，主東塔，鼎新廊廡，曾不辭勞。蓋生平孜孜營福，真所謂三十年不改家風者矣。予每謂紫柏大師，重繼永明芳軌，宗說俱通，解行具足，撤性相之藩籬，指歸一轍，懲禪講之流弊，導使尋源。觀其半偈功成，去來自在，可謂徹法源底矣，未嘗拈槌豎拂，踞曲盂床也。於天台賢首方山慈恩，可謂會通差別矣，未嘗昇座雲集，稱人天師也。口無雜味，齋不著席，可謂頭陀勝行矣，未嘗授戒傳錫，稱大和尚也。由其不敢裂禪教律為三，故能深知正法之難，故慎重若此也。或議白翁，三十餘年為叢席主，未嘗請一師匠宏宗演教說戒，以為缺典。豈知此正白翁具大手眼，非聊爾也。彼三學一源者，益無望已。今天下宗主，能如紫柏之徹法源底乎。今天下法主，能如紫柏之會通差別乎。今天下律主，能如紫柏之頭陀勝行乎。觀於海者難為水，白翁之不請轉法輪，乃其所以護正法輪也，不忍莠亂苗，鄭亂雅也。且紫柏之以流通大藏為急務，誠不異刪詩書，定禮樂，贊易，修春秋之苦心也。密師契之，猶孔門有顏子。翁繼其任而擴充永遠之，猶孟子也，其功偉矣。今年已七十有七。長予念三歲，而精神比予倍強，豈非續佛慧命所感之現果也。從茲大藏法燈，永永無盡，翁住世亦永永無盡。何異十六大阿羅漢，承佛敕命，擁護流通三藏法寶者哉。

預祝乾明公六十壽序

佛法之盛，不存乎能宏通，而存乎能固守。蓋宏通則近於名聞，由名聞致利養，由利養致匪人，易生有漏因緣。佛世十二年後尚爾，況末運乎。唯固守，則遯世無悶，確不可拔，可以迴既倒狂瀾，留正法一線，繼往開來，續佛慧命。如六祖隱於獵群者十六年，荊溪一生不登法座，而曹溪天台之道，並垂千古，豈非存佛法之明驗歟。予生也晚，弗及受先輩鉗錘，忝為愍翁法屬。顧所私淑，則雲棲之戒，紫柏六祖之禪，荊溪智者之慧也。柰障重習強，未階法忍，僅開名字佛眼，竊述法華台宗會義，庶幾不被法華轉耳。辛卯夏，結制長干。當解期日，已有決不應請之誓。而乾公所請，乙未年冬法華道場，猶在未誓之前。予初意入山四年，或得功夫稍進，法運亦可稍回，故不敢決意固辭。詎料兩載有餘，阿蒙如故，加以法門鬥諍方始，其餘斗筲之士，又皆各就一方，託言演教宏宗，網取微利，大有不忍聞者。此時設非急流勇退，不幾於水益深，火益熱乎。乾公長干之耆宿也，秉戒於博山禪師，則亦私淑雲棲者也，出家於大報恩寺，則亦私淑愍翁者也，敦律行，勤持誦，則法門翹楚也，重然諾，樂福業，則人天標榜也。其塵法門遠憂，實與予

同，決不以言必信行必果責予。予亦安敢執硜硜小節，務踐一諾，而貽法門羞哉。公以丙申二月十五日，為六十初度。予今季春始歸靈峰，至公壽日，未滿二載，何能走賀。茲為謀梓楞伽起信選佛三種著述，遣堅密蒼暉二子，往董厥役，請即以流通法寶功德，預為公祝。公其令獲奏績，則諸佛慧命，俟百世而不惑，皆公無量光明之所被也。視百日敷揚，僅供千人耳目，功德大小，為何如哉。況公與予，誼在世外。菩提宏願，塵劫弗緩。猶憶向年修報恩塔，公主其政，不煩廣募，不事攀緣，唯以真心實行，彈指告成。較雪浪法師當日修塔因緣，事半功倍。此其諳練世出世法，深知無住生心之旨，有不俟予言者。予之祝無量壽若此，公必以為然矣。

靈峰蕩益大師宗論卷第八之二

靈峰蕩益大師宗論卷第八之三

塔誌銘

樵雲律師塔誌銘

予在江外，即聞樵雲關主，以苦行實修，為八閩敬仰。戊寅冬，渡洪塘，趨溫陵，擔役愚夫，皆能言其為眾之切，自課之勤也。未幾，聞訃，恨緣薄，不及一晤，賦短章哀之。越二年庚辰，予至漳南，高足如田，遵遺命營全身塔於石室之嶺，請予銘。按師為澄邑新安周氏子，出家漳之開元寺，法名真常，樵雲其別號也。兒時以瓦缶竹木列為餅錫，父知其志，捨入寺。寺為羅漢琛禪師道場。師剃度時，即有慕琛之心。謁南山閑寂老人，稟尸羅要旨，咨淨土法門。既於堆雲嶺頭建亭施茗，每經殘月下，一虎當塗，師以杖叩云，此往來要道，慎毋面目憎人，虎馴去。次於三台石室，瓦釜繩床，課經枯坐。閱三載，擬欲他往，聞空中有聲留之，乃啟建佛殿，結構僧寮，額其巖曰閑雲石室，蓋閑寂老人曾於此棲遲故也。閉關峭坐，寢食俱忘，道風日著，檀信日歸。嗣是設華嚴堂，闢接眾舍，延待十方，盡心盡禮。爰感五臺無靜律師，為不請友，飛錫關前，為師圓具。從此葺三山之大藏，興支提之辟支，參無盡法師於天姆，覲普門大士於普陀，乃至遊歷南華，尚六祖栴檀之像，復歸石室。又以行腳多年，律學疏曠，北登五臺，重咨心地。然後開甘露戒品，於溫陵古莆諸處，而一以淨土為指歸。師一生篤實苦行，普心接納，於禪講名流，尤虛懷靡間。蓋其樂取人善，年彌高而德彌謙，故不必揮塵豎拂，已可扶宗教之衰矣。世壽八十有三，法臘五十有奇，剃度若干人，戒子不啻萬指。銘曰，

先哲既逝，人情日浮。掠虛逞見，誰懷遠憂。海南佛國，淪為荒丘。髡不稟戒，兵奴獄囚。挺生樵老，愛河之舟。廣設行筏，度彼迷流。走遍天下，乃集勝猷。尸羅再揭，樂邦橫截。不似諸方，證龜作鱉。

紫竹林顓愚大師爪髮衣鉢塔誌銘

金陵紫竹林顓愚大師，丙戌仲夏六月坐脫。門人以陶器奉全身，供於林之山陽。次年弟子請歸雲居，於是金陵緇素，以所存爪髮衣鉢，就山陽建塔供養。徵銘於旭，旭愧學未師安，言無足重。然人之相知，貴相知心，旭既謬辱愛敬，迴逾世情，又安敢以無文辭。謹按譜，師諱觀衡，顓愚其字也。順天霸州人，姓趙氏，昆季四人，師居仲。母夢大士攜童子入門，急抱之，覺而有娠。萬歷己卯年，八月十八日亥時生，白衣重袍，狀異凡子。年十二，即茹素，喜事觀音大士。年十三，翛然有出塵志。年十四，堅欲入道，父母不許，乃潛逸。塗遇五臺山圓照寺惠仁師，懇求剃度，依住四載。年十八，聞清涼山師子窟空印大師名，潛逸往參，投誠篤事，居侍寮三載，咨決心疑，仰學至德，始終如一日也。年二十二，隨空師入燕都，侍楞嚴講席，進菩薩戒，參紫柏大師。自念習聽義學，未是出家大丈夫事，潛逸南行，參雪浪雲棲二大師。獨住天台華頂峰，讀楞嚴經，破諸疑網。時高明無盡大師，登華頂訪智者遺蹤。見師子處茅菴，少年精進，托宿作竟夜談。越三年，移住匡山乾罡嶺。每一飯輟，坐數日。至第三年，月下經行，忽有省悟。三十歲，進曹谿禮六祖。次夏四月，謁憨山大師於端州，一見相契。秋仲辭去，登南嶽，住石廩峰。三十三歲，誤食草烏，中毒濱絕，離山就醫。憨大師特至南嶽，歎曰，禪門下衰，幸得一箇半箇真為生死學人，與之周旋，稍慰寂寥，今斯人而有斯病，豈龍天厭薄法門乎。三十八歲，結五臺菴於邵陵，覲憨大師於湖東，參侍半月，大師示以法語，大意謂身病已瘳，切不可被禪病侵。蓋眾生身病本乎執取，而禪病亦本乎執取，若法執不忘，己見猶存，亦是病。直須將從前參禪執守功勳，并玄妙知見，一齊唾卻，定不可被他養作病根。其語切，至幾數千言，今親筆手卷，尚供林中。故知顓師從來開示學人，隨機圓活，不似諸方認定一死貓頭。其得力於憨大師者誠不淺也。師曾以授戒法問憨大師，大師答云，老朽未閱律部，於諸戒相，實未細詳，今惟遵梵網，以心地法門為宗，以十重為要。其四十八輕，亦未能細說，但令行人半月半月誦持而已。近時學人，識淺心驕，多虛少實，求其果能精持如古人者，所未易見。而弘律者，原非學人事，多杜撰，難可為準。公處若有藏經，幸一詳

檢律部，有以示我，望之望之。維時師亦無暇閱律，但宗楞嚴四種清淨明誨，開示後人，令持心戒，兼令專禮觀音大士。著有圓通懺法，流通最廣。居五臺菴，二十年足不越戶外。度弟子千餘人，授記署名者幾三萬人。至年五十九歲，特登匡山五乳寺，埽愍大師塔，建報恩道場，寺眾請主法席，固辭不可。仲秋下匡山，登雲居，禮祖塔，寺眾亦堅留主席，黎明潛逸。中塗疾作，不能行，闔山比丘往返虔請，乃復登雲居。至六十五歲秋，離山登舟，山為再震，師於此山夙緣深矣。是冬泊石頭城，次年冬十月，卓錫紫竹林。林本城北荒地，師住未幾，蔚為叢席。師發心深為生死大事，故於父母師長，皆不辭而行。然秉性至孝，每遇親師忌日，設追薦道場，必極誠愍，竭哀慕，觀者無不感發。生平儀容古朴，不事矜飾。廣頤豐頤，平頂大耳，脩髯如戟，短髮覆肩，目光炯炯射人。終夜露坐，不畏大風，或雷雨亦坐大傘下，故學者稱傘居和尚云。衣服不御寸帛，日惟一粥一飯，絕不雜食，每作務必兼人。其接物也，上自王公大人，下逮田夫牧豎，禮不異節。溫溫言笑，靄若春風。而學者見之，不威而懾。隨所到處，僅一輛草鞋便行，來不先通，去不先辭。錫駐之地，縑素雲集，求戒問道，殆無虛日。然未嘗自立涯岸，別建門庭。蓋既得空印大師之教，又得愍山大師之禪，又復匯歸於雲棲大師之淨土。故其開示法語，直捷廣大，似紫柏，應機禪語，輕便圓活，似趙州。又眼界雖甚高曠，口角不輕雌黃，謙光盛德，慈念虛懷，真令人目擊道存也。所著有楞嚴金剛四依解，及紫竹林全集行世。法臘五十四，生年六十有八。長旭二十年，兼親侍愍山大師，誠為法門先輩尊宿，乃不惟忘年下交，而每致書問，必反稱辱教某某。嗚呼，旭真慚悚無地已，合掌墮淚為之銘曰，

佛法如大海，潛流注百川。達者知浩浩，昧者泥涓涓。三宗爭鼎足，五葉分單傳。不有超方志，誰懲鬥諍愆。師承普門願，憫濁來施權。奮然脫愛網，習教還修禪。放生廣檀度，說戒結深緣。慈容藹冬日，機辯赫炎天。德重如岱嶽，懷虛若沖淵。足跡遍寰宇，操持脫言詮。握拳念大士，撒手宅金蓮。舍利鎮祖窟，爪髮留福田。照此石城地，永永百千年。

祭文

然香供無盡師伯文

不肖初遊台嶺，即睹慈輝。但欽溫恭之德，罔窺法海之涯，方且甘暗證而蔑義塗，因門庭而昧堂奧，造罪意地者，匪希矣。後出入禪

林，目擊時弊，始知非台宗不能糾其紕。台教存，佛法存，台教亡，佛法亡，誠不我欺也。顧於老伯，猶半信半疑。自締盟籌兄，乃甫傾向，而老伯已往生珍池矣。徒增悲仰，竊聆化儀，慚懷悔志，擬將何裨。嗚呼，師弦絕響，野干競鳴。演教者，捨醇醲而取糟粕，參宗者，先發足而後問津。孰能依教起觀，一洗說食數寶之陋，知津發足，解脫盲修瞎煉之紛。老伯實中流砥柱，杲日中天也。憫予小子，不沾法乳於生前，不修微供於歿後。敬以三炷臂香，深達懺摩。三炷臂香，遙伸印手，惟老伯不起寂光，現覺三有，鑒法門嬰杵之憂，錫初心止觀之佑。苟機感之不訛，必含笑而攝受。

弔不忘文

比丘智旭，居靈峰山，聞不忘音公棄世，敬誦梵網戒經一卷，金光明空品十卷，滅定業真言千遍。并為文遙向而弔之曰，嗚呼，千古聖賢，必從豪傑中來，而千古豪傑，必以聖賢為的。捨聖賢之準繩，尚豪傑之意氣，誤矣。認豪傑之意氣，當聖賢之品格，益誤矣。公豪傑自期者也，始予交臂而失，既而肝膽許之。然予之許公也，擬欲進乎聖賢。而公之自許也，終未捨乎豪傑。逮行法華三昧，予訪關次，作竟夜談。時為公羨，亦為公憂也。公初惑圓談，妄謂乘急而戒可緩，及警心於乘鶴渡海忽折一翅之夢，方知戒亦應急，而未達戒即是乘。是以雖行事懺，理境不彰，況調身失其方便。進道每任己情，重障造於前，掉悔逼於後。善友隔於他山，聞解局於文字，以此滅罪悟心，難矣。然公未徹者，乘戒源頭，而不迷者，出世因果。源頭未徹，感現在惡疾而終。因果不迷，定可免將來異熟。予為公悲，亦為公幸，公亦可自慰於冥冥也。嗚呼，末世修行，多敗少成。公其諦信法華威力，及阿彌願輪。頓除愛見之私，速往金蓮之津。迨予報盡，垂手來迎。同覲慈尊，共秉梵音。回視西湖殿裏，接引像旁，披誠發露，盟以肺腸，可謂果因交徹，久要不忘者矣。

奠影渠靈隱二兄文

嗚呼，世固有相愛不相知者，此其愛非道愛也。亦有知愛而不相期責者，此其知非實知也。二兄之相知相愛相期責也二十餘年，如形影焉。乃予與二兄為莫逆交，僅自乙亥春始。憶其時，未嘗有投契之思。特以天降靈雨，為吾三人作意外介紹。故靈兄詩曰，只此十日雨，傾予半世懷。噫，奇矣。是冬予遭篤疾，二兄盡力調治，不

啻昆季母子也。逮予住九子遊八閩，二兄夢寐予，猶予之夢寐二兄也。今春予從閩中聞影兄之變，痛切肺肝，念佛十萬以悼之。夏五月，予出莒城。秋七月，靈兄冒酷暑，相訪殷殷出世大事。不兩月忽嬰疾，急手書召予，予馳赴，未及百里，竟捨我先逝。嗚呼，自惟解行俱荒，瑕疵非一。謬蒙信許，過於常情。又承治命，欲予演觀無量壽佛經首題名義。予既奉命，復念佛十萬為增上助緣。嗚呼，當病苦切身，而大事殷殷之意，生死一如若斯。予無似，若冀壤之助嘉禾，則庶幾矣。每思影兄之沈靜，靈兄之爽朗，俱堪千古。至其戒行冰霜，慧性穎悟，正信力強，出世心苦，誠堪立地超佛越祖。而大願未克，齎志長驚者，其故何哉。大約身見稍重，遷延晷景，不能向冰凌劍刃上遊戲出沒，不肯從荊棘瓦礫中掉臂屠脛，致使無生法忍，必俟淨土花開始領也。然此幻軀，不可保信，縱令愛惜，曾不少矜。養怨入塚，誰曰不然。二兄誠能瞥然覷破，憬無餘情，彈指蓮華可敷，不復更俟半劫一劫，乃至剎塵矣。然後為我仰白慈尊，常以慧光折攝我心。幻緣一盡，垂手而迎，是予所深望於二兄者也。

祭顯愚大師爪髮衣鉢塔文

嗚呼，人不難相愛，難於相知，翁真知我者哉。世縱有一二愛且知者，而志操相攜。旭雖不敢擬翁泰山之德，幸三事略無違焉。尚質朴，詘虛文，不肯苟合時宜。註經論，讚戒律，不肯懸羊頭而賣狗脂。甘淡薄，受枯寂，不肯受叢席桎梏，而掣其羈縻。嗚呼，以法門耆宿如翁，而旭過蒙知愛，又志操相合如此，其能已於懷也。翁所證深淺，非旭能擬，而生平最傾心處，請略紀之。當今知識，罕不以名相牽，利相餌，聲勢權位相依倚，如翁古道自愛者有幾。當今知識，罕不以掠虛伎倆，籠罩淺識，令生驚詫，如翁平實穩當者有幾。當今知識，罕不侈服飾，據華堂，恣情適意，如翁破衫草履茅茨土階者有幾。當今知識，罕不精選侍從，前列後隨，如翁躬自作役，不圖安享者有幾。當今知識，罕不同流合汙，自謂善權方便，慈悲順俗，如翁不肯苟殉諸方，甘受擔板之誚者有幾。故凡聞翁之風者，頑夫廉而不濫，懦夫立而不傾。伯夷之隘，所以為聖之清也，豈似枉尋直尺，詭遇一朝者，身雖存名已先淪也哉。旭每悲如來正法，一壞於道聽塗說入耳出口之夫，再壞於色厲內荏羊質虎皮之徒。其父報讎，其子必且行劫，尤而效之，何所不徑。翁之爪髮衣鉢幸存，則翁之道風未滅，必有聞而興起者，庶共砥狂瀾於末葉乎。

祭在庸維那文

嗚呼，公之從予遊也，顓大師命也。公初聽大乘止觀歸，顓師叩大義，公能略荅。故顓師再命公登祖堂，予即煩公襄理僧事。然予深取於公，不唯能聽經，能職事也。聞公同顓師住雲居，努力眾務，不惜身命。逮顓師疾，公炎暑不解帶者六旬餘，雖大孝事父母，何以加焉。顓師寂，公復以職事來研教理。予且大病，公執侍不異事顓師。嗚呼，以公如此心地，如此精神，豈應年未三十，遂爾奄逝。無怪乎公之戀戀，不欲西馳也。雖然，公之見地未遠大矣。吾人無始以來，捨身受身，何止剎海微塵。今幸遇明師良友，聞西方淨土，無上圓頓橫超勝異方便，惟恐歸家不早耳。乃必欲於幻身百年內，做學問，開叢席，名滿天下，然後快心。曾不思西方有大學問，大叢席，名滿十方三世，得非欲速見小之為害乎。公其盡將生平事師孝德，及無始善根，一一攝取現前，回向阿彌陀佛大願海中，決志直趨極樂世界，更無疑貳。予不久幻緣既盡，佇望公隨三聖，招予同浴七珍池也。

祭了因賢弟文

嗚呼，了因，爾遂至此耶。爾自幼發願，竟不滿其願耶。予將玉汝於成，汝不及再見我耶。嗚呼，予方悼十子憶汝，汝又復為予所悼耶。嗚呼，汝見我已來，二十五年，從予遊十九年矣。汝之長處，我盡知之，短處我亦盡知之。我急欲去汝之短，汝則疑畏，捨我而去。我必欲成汝之長，故時時禮拜持誦而保佑汝，乃汝竟不能自保。嗚呼，此夙業耶，抑現緣耶。猶憶汝與徹因初侍我也，我即苦口勸二人互相師，汝宜師徹因立志，徹因宜師汝朴實，是後徹因長於律學。終以不朴實而喪身，不謂汝微會入於台宗，亦終以不立志而死於房頭耶。夫煩惱力強，此我短處。信心慚愧，我長處也。不肯諸方宗教，此我短處。獨具宗教隻眼，不肯自足，日研日進，我長處也。善學者，學其長，捨其短。故孔子見賢思齊，見不賢而自省，擇其善者從之，其不善者改之。汝乃不學我之慚愧，不學我之研求進入，此豈稱善學耶。嗚呼，汝半塗而廢，罪誠在我不在汝。獨哀汝幼志未遂也，哀汝師叔苦心成就不獲大成也，哀汝於圓頓大法，甫入門，不能升堂入室也。哀汝獲惡病歿在房頭，未知臨終正念現前否也。哀我諸子可充一椽一柱者，相繼去世，不為我聊存一線也。嗚呼，法門之衰，非一日矣，眾生障重劇矣。佛慈如日，生盲不瞻。佛慈如雨，覆盆不沾。汝既稍瞻，亦既稍沾。柰何中輟，弗竟勉旃。為汝禮懺，為汝誦經。汝靈不遠，應知我忱。歡喜領

受，助汝西生。汝西生已，為我白佛。願以慧光，照我幽窟。俾我開曉，有善無忒。旦晚命盡，早歸淨域。與汝同觀，七珍八德。自行早圓，化他無極。虛空可消，願輪不息。嗚呼哀哉，尚饗。

寄奠新伊大法師文

嗚呼，宗說之不明於世也久矣。古人得宗說之源，故雖分之而愈合。今人拾宗說之似，故雖合之而愈分。此其可痛哭長歎息者，何止若三若七而已。旭生也晚，不及親炙雲棲老人。暨紹覺尊者，猶幸獲與老師為忘年交者，幾三十年，不異得見雲棲紹公兩尊宿也。方今法道淆訛，日甚一日，紫亂朱，鄭聲亂雅，大似刻人冀為栴檀。獨賴老師以耆年碩德而默鎮之，宏法宏戒，身為律，聲為經。正不必如孟軻好辯，野犴狡狐，已自褫魄。今何不幸示寂如此其速耶。客歲效華祝，方擬一二年猶得拜見慈顏，歷陳衷曲。而今竟不可復得，豈不痛哉。老師久已鑑旭苦心，故破格下交於旭，今又高據蓮臺，洞開慧眼，必倍知旭之艱苦。而茫茫斯世，旭安敢更以知己望他人哉。伏讀老師囑語，字字堪為末世金錫，及門諸賢，必能恪遵而宏擴之。自利利他，法皆具足，可謂度人事畢，無復遺憾。柰法日既沒，舉世皆盲，旭能不為後流未度眾生，興悲感耶。

靈峰蕩益大師宗論卷第八之三

頌一

大方廣佛華嚴經頌一百首(并序)

剎海入微塵，不是一多相即。毫端呈法界，非干小大相容。祇緣法爾如然，所以不容思議。分凡聖，較淺深，大似邀空華結果。埽語言，諱修證，無端禁石女生兒。睹明星而了悟，栽成眼上兩莖眉。遍眾會以敷揚，繪出空中千色彩。然雖今事門頭，覓一塵而無朕。不妨實際理地，炳萬法以齊彰。大哉，絕對待之假名。方矣，泯分滿之殊相。廣則毛孔邊際，等虛空之莫窮。佛則介爾凡心，即真常之妙覺。華乃因果同時，嚴乃能所不二。是以若通若別，可軌可持。十界並遵，三世一轍。然一丸而眾香悉具，飲一滴而諸河頓嘗。普請露柱燈籠，聽取葛藤絡索。

(世主妙嚴品第一。頌曰)萬國衣冠拜冕旒，御筵香染繡羅裘。不觀上苑枝條茂，那信蒼穹雨露周。踏破波濤渾是水，織成縷線漫稱紬。莫嫌山谷泉聲小，大海何嘗擇細流。

(如來現相品第二。頌曰)眾齒光明遍剎塵，十方雲集主中賓。眉閒足下出還入，極果應知即正因。蓮現何曾離本際，勝音寧復是他人。殷勤聽取伽陀句，白牯狸奴知最親。

(普賢三昧品第三。頌曰)運水搬柴足可娛，藏身三昧阿誰無。擬求佛手來摩頂，翻昧衣中如意珠。尺鏡遍含空界影，寸雲堪灑剎塵枯。勞他依正同宣偈，喚出滄溟月影孤。

(世界成就品第四。頌曰)大覺空生海一漚，一漚拈起海全收。休將十事為他事，認卻鬚鬚失卻頭。

(華藏世界品第五。頌曰)鼻孔下垂，眼睛橫布。毛竅玲瓏，皮膚連附。地種無殊，森羅草樹。獅子全威，奚分象兔。欲知華藏莊嚴，不離剎那安住。擬向心外覓玄，昧卻介爾性具。

(毘盧遮那品第六。頌曰)閻浮本是輪王地，幾度征誅始定疆。曾聽胡笳月下曲，不須鶴唳亦悲傷。

(如來名號品第七。頌曰)十千名號任他呼，那個男兒不丈夫。借問而今說法者，文殊還有幾文殊。

(四聖諦品第八。頌曰)藥病相連頭緒多，一番提起一番訛。無生無量歸無作，大海從來具眾波。

(光明覺品第九。頌曰)故園消息斷多秋，夢裏尋思淚未收。驚蟄一聲啼鳥亂，不堪覽鏡倍生愁。

(菩薩問明品第十。頌曰)白雪陽春和者稀，弟兄且自協壠簾。華周妻子三年哭，引得齊人盡皺眉。

(淨行品第十一。頌曰)棒打石人頭，老翁入場屋。憐兒嚼飯未為醜，上大人書勸熟讀。一朝讀到可知禮，錦繡文章充滿腹。

(賢首品第十二。頌曰)認影迷頭歷劫行，狂心歇處鼻分明。神珠拈出隨君用，衣不蠶兮食不耕。

(升須彌山頂品第十三。頌曰)平地風波浸殺人，漫傳不動又高升。佛身充滿無來去，金屑休教著眼睛。

(須彌頂上偈讚品第十四。頌曰)成群作隊弄精魂，破盡家私滅盡門。倡得哩嚩哩曲，大家扶起舊砂盆。

(十住品第十五。頌曰)瞿曇一指不肯剝，央掘摩羅追不歇。忽然放下手中刀，失卻娘生一頭髮。

(梵行品第十六。頌曰)打破一桶做一桶，顛仙此話非僞侗。鄱陽大戰定江南，聖皇也賴三軍勇。

(初發心功德品第十七。頌曰)三際覓心不可得，擬從何處發菩提。東風一夜傳春信，花滿園林泉滿谿。

(明法品第十八。頌曰)子孝父心寬，臣賢君位安。創業固不易，守成尤自難。車輪鳥翼喻，明月照人寒。

(升夜摩天宮品第十九。頌曰)天名時分地如雲，孔雀鵝王化久聞。特地任公更垂釣，牽翻海底浪紛紜。

(夜摩宮中偈讚品第二十。頌曰)律呂宮商無別調，都俞喜起聖明時。堯天舜日同欽戴，卻歎巢由總不知。

(十行品第二十一。頌曰)萬卉莊嚴功德林，鳥啼花落影森森。夜行不許明須到，才出門來草已深。

(十無盡藏品第二十二。頌曰)克家須是破家兒，撒潑黃金似爛泥。餓殺鄧通由命薄，天朝雨露本無私。

(升兜率天宮品第二十三。頌曰)賣盡風流不著錢，桃花如燄柳如煙。笙歌畫舫酣明月，見說今年似舊年。

(兜率宮中偈讚品第二十四。頌曰)家醜何勞向外揚，未曾作賊便招賊。邊城多少離家客，刁斗初鳴轉斷腸。

(十迴向品第二十五。頌曰)水滿長町霞滿天，村中處處起寒煙。耕牛自解尋歸路，不用山童努力牽。

(又頌)懸梁刺股揣摩成，說得燕王與趙盟。何似當年赤帝子，入關先已縛秦嬰。

(十地品第二十六。頌曰)坤儀厚重德無疆，能載能生直且方。看取四微非異性，不妨十嶽各稱王。伶俐衲，細思量，微塵刹土漚中

影，莫負眉間毫相光。

(十定品第二十七。頌曰)有出有人非正定，試問剎那有何性。假饒覓見普賢身，依舊重添普眼病。君不見，女子跏趺佛座邊，文殊空把神通震。棄諸陰蓋下方來，鉢盂端的元無柄。

(十通品第二十八。頌曰)饑來喫飯困來眠，不用安排信自然。消盡幾多閒日月，止留秋水與長天。

(十忍品第二十九。頌曰)立錫無地並無錫，飲痛吞聲祇自知。忽解白拈閒活計，終朝袖手有餘貲。

(阿僧祇品第三十。頌曰)介爾心王絕數量，僧祇數量轉分明。微塵法界全成壞，五眼如何算得清。

(壽量品第三十一。頌曰)黃梁一夢過名關，箇事分明迷悟閒。欲向勝蓮分晝夜，且從極樂問迴還。

(又頌)蟪蛄眉上多巖谷，結冬度夏居堪卜。任憑劫火洞然燒，此地清涼有餘緣。

(諸菩薩住處品第三十二。頌曰)色色塵塵盡道場，何勞剝肉別成瘡。賺他無數癡男女，東走西馳昧故鄉。

(佛不思議法品第三十三。頌曰)一念緣起無生，九界空華敗壞。多年枯木爛藤，慣會成精作怪。正許擬議思量，不許占龜買卦。(壞叶惠，怪叶貴，卦叶至。)

(如來十身相海品第三十四。頌曰)佛說非身是大身，百花枝上露全春。癡人猶計九十七，獨勝尋常四八倫。

(如來隨好光明功德品第三十五。頌曰)千輻輪光圓滿王，獄中菩薩鼻昂藏。三重十地雖圓頓，鈍置人閒放逸郎。

(普賢行品第三十六。頌曰)一念無瞋即普賢，說時容易用時難。世閒多少弄潮客，不解撐船淺水灘。

(如來出現品第三十七。頌曰)遍界本無藏跡地，家親無故常為祟。眉閒毫相播精靈，口裏光明作魑魅。分明賣弄屋中金，帶累兒孫向外覷。假饒入得手中來，明朝不是今朝事。

(離世閒品第三十八。頌曰)花枝隨處短長，春色元無高下。觸著一孔毫毛，惹得通身害怕。縱然餅瀉雲興，終難說盡者話。蓮花本自水生，不用描空作畫。

(入法界品第三十九。頌曰)師子頻申三昧，從來何曾覆蓋。坐在水中渴死，祇因畏溺為害。自從認得郎君，更不沿途乞丐。兔子角上翻身，烏龜毛裏作會。憑他水盡山窮，寸步不居門外。(蓋害丐皆叶記，外叶偽。)

(普賢行願品。頌曰)十大願王，導歸極樂。末後牢關，和盤直拓。擬議躊躇，千錯萬錯。說性譚心，無繩自縛。親睹如來無量光，方知此語非嬉謔。寄語參玄學語流，休將向上閒穿鑿。

(福城東莊嚴幢娑羅林文殊師利菩薩。頌曰)眾生住地無明，諸佛根本實智。從來但一月真，云何有是非是。既發無上菩提，豈更迷名失義。歷盡煙水百城，寸步不曾相離。

(勝樂國妙峰山德雲比丘憶念一切諸佛境界智慧光明普見法門。頌曰)演若達多狂始定，十方國土明如鏡。鏡中現出無數頭，一聲喚著聲聲應。

(海岸國海雲比丘普眼法門。頌曰)大海境界隨思念，湧出如來光燦爛。一句難將海墨書，留與無聞作鍼砭。

(楞伽道邊海岸聚落善住比丘，普速疾供養諸佛，成就眾生無礙解脫門。頌曰)大地本來無寸土，空中行住未為難。幾多悲智莊嚴事，一枕南柯夢欲殘。

(達里鼻茶國自在城人彌伽妙音陀羅尼光明法門。頌曰)叨作輪王親胤，坐受公孤謨訓。傳來輪字莊嚴，頌向九州百郡。

(住林聚落解脫長者如來無礙莊嚴解脫門。頌曰)無邊佛刹莊嚴，清淨身中顯現。悲歡離合滿場，究竟皆從一線。說破只是自心，免使別求神變。

(閻浮提畔摩利伽羅國海幢比丘普眼捨得三昧。頌曰)殊形異狀，遍體出生。六月六日，播弄精靈。喚作般若，嬰兒喪明。

(海潮處普莊嚴園，休捨優婆夷離憂安隱幢解脫門。頌曰)見聞同住不唐捐，吸盡西江未足傳。向若歎洋慚濯叟，鐵圍山外有香泉。

(那羅素國毘目瞿沙仙人無勝幢解脫。頌曰)摩頂執手，東奔西走。眨得眼來，天長地久。落花紅處象王迴，芳草綠時師子吼。

(伊沙那聚落勝熱婆羅門無盡輪解脫。頌曰)刀山火聚足清安，只是全身投入難，拼得一條窮性命，觸體孔裏夜光寒。

(師子奮迅城慈行童女般若波羅蜜普莊嚴門。頌曰)清淨法身，牆壁瓦礫。種種異門，何莫何適。欲知百萬陀羅尼，好向莊嚴宮殿覓。

(三眼國善見比丘隨順燈解脫門。頌曰)風和日暖魚尋餌，楊柳桃花夾岸新。多少長安美公子，翩翩裘馬惜芳春。

(名聞國河渚自在主童子一切工巧大神通智光明法門。頌曰)童子無聊，聚沙為戲。算來算去，有名無義。漚滅空無，是一是二。雖然怎麼舉揚，不免眼中添刺。

(海住大城具足優婆夷無盡福德藏解脫門。頌曰)一器幾何，十界供普。吞時脹殺人天，吐時餓殺佛祖。問取童女十千，畢竟作何去取。

(大興城明智居士隨意出生福德藏解脫門。頌曰)仰視虛空，所須悉下。分明各自帶來，何故向他酬謝。識破者點機關，便解逢緣不借。

(師子宮大城法寶髻長者無量福德寶藏解脫門。頌曰)奏樂燒香迴向因，十重樓閣報分明。可憐歌舞場中客，荒卻良田不肯耕。

(藤根國普門城普眼長者令一切眾生普見諸佛歡喜法門。頌曰)知病識藥，將錯就錯。和合諸香，無作為作。只恐城東老母來，不用許多閒絡

索。

(多羅幢城無厭足王如幻解脫。頌曰)從古護生須是殺，直教殺盡始安居。慈悲嗔恚兩舌語，暮四朝三撫群狙。

(妙光城大光王大慈幢行。頌曰)曾母指疼，曾參眉蹙。非因天性相關，只為一般皮肉纔涉擬議思量，不啻大唐天竺。

(安住王都不動優婆夷求一切法無厭足三昧。頌曰)堂宇光明普耀，霧變深山文豹。自在平等總持，不離音聲笑貌。貪觀佛刹道場，卻被浮雲籠罩。

(無量都薩羅城遍行外道至一切處菩薩行。頌曰)小兒啼哭只因饑，拈得饅頭當米餐。一飽自然無病痛，不勞他處別尋醫。

(廣大國優鉢羅華長者調和香法。頌曰)長者如何慣鬻香，不知誰處得真方。天涯海角多知己，莫歎孤零落異鄉。

(樓閣大城婆施羅船師大悲幢行。頌曰)暴虎馮河吾不與，長年舵手最知幾。波斯到岸因風便，采得明珠滿載歸。

(可樂城無上勝長者至一切處修菩薩行清淨法門。頌曰)無依無作逞神通，誰信鄉風處處同。賣盡拙時留下巧，蘆花依舊宿漁翁。

(輪那國迦陵迦林城師子頻申比丘尼成就一切智解脫。頌曰)一有多種，二無兩般。眾會不迕，園林不寬。依正繞旋無量匝，明星初涌夜更闌。

(險難國寶莊嚴城婆須蜜多女離貪欲際解脫。頌曰)梅檀樹下足虵蛇，蓮花池畔蜂充塞。曾向嵩山社裏來，始知跌法從他得。

(善度城鞞瑟胝羅居士不般涅槃際解脫。頌曰)一座梅檀佛塔，信手隨身開闔。見得三世分明，也是空華雜沓。明朝便是新年，今夜且稱殘臘。

(補怛洛迦山觀自在菩薩大悲行解脫門。頌曰)遙見連忙倡善來，也知年老惜嬰孩。待他立德揚名日，始信而今滿面灰。

(東方正趣菩薩普門速疾行解脫。頌曰)曾聞著靴水上立，馬到長安靴未溼。走遍虛空盡未來，普賢毛裏高相揖。

(墮羅鉢底城大天神雲網解脫。頌曰)長舒四手取海水，洗面無端摸著觜。借婆衫子拜婆年，孤兒本是趙家子。

(菩提場安住主地神不可壞智慧藏法門。頌曰)寶藏相隨宿善根，勞他指示語溫溫。分明福地生靈種，幾個男兒解報恩。

(迦毘羅城婆珊婆演底主夜神，破一切眾生癡暗法光明解脫。頌曰)日沒西陲鳥宿林，滿天星斗映江岑。漁翁綸線垂將盡，釣得金鱗大幾尋。

(菩提場內普德淨光主夜神寂靜禪定樂普遊步解脫。頌曰)古鏡磨來徹體明，山河國土炳然呈。不因走遍天涯路，豈信居家腳底輕。

(菩提場右喜目觀察眾生主夜神大勢力普喜幢解脫。頌曰)未到酒家香十里，開樽轉覺醉醺醺。不知昔日耕耘苦，便擬無錢賒幾斤。

(普救眾生妙德主夜神普現一切世間調伏眾生解脫。頌曰)猛火何能燒得木，木中出火自能燒。眉閒光照君看取，火種傳來是幾朝。

(寂靜音海主夜神念念出生廣大喜莊嚴解脫。頌曰)樹根依地果依空，培得根深果實豐。波利質多人不信，諸天日夜挹香風。

(守護一切城增長威力主夜神甚深自在妙音解脫。頌曰)洪鐘隨扣便隨鳴，聲性何關四性生。杜口也知非得已，不堪重舉似群盲。

(開敷一切樹華王夜神菩薩出生廣大喜光明解脫。頌曰)賢其賢而親其親，樂其樂而利其利。承流宣化不違時，便是循良方正吏。

(大願精進力救護一切眾生夜神教化眾生令生善根解脫。頌曰)摩尼現色元非色，日影無來示去來。夢裏墮河雖是妄，一翻提起亦添哀。

(嵐毘尼園。妙德神菩薩於無量劫遍一切處示現受生自在解脫。頌曰)十種受生藏，積年行貨帳。討時沒分文，算時有多樣。直教除盡算盤珠，十尺元來是一丈。

(迦毘羅城釋女瞿波觀察菩薩三昧海解脫。頌曰)塵劫追隨非偶然，染因緣是淨因緣。鴛鴦帳裏調琴瑟，喚醒寒鴉樹上眠。

(佛母摩耶大願智幻解脫門。頌曰)無生無不生，幻法元非法。腹同世界寬，身似浮雲杳。調御天人師，收來做一匣。擬將普眼觀，赤瞽生眉睫。

(正念天王女天主光無礙念清淨莊嚴解脫。頌曰)過去無邊事，何勞更憶知。只因生處熟，熟處更難移。

(迦毘羅城童子師遍友。頌曰)謬為人師，尸位曠職。問他法門，推向子息。若不勘破，一錢不直。

(善知眾藝童子菩薩字智。頌曰)天籟地籟，休教錯會。入得門來，不妨在外。(會叶膾)

(婆咄那城賢勝優婆夷無依處道場解脫。頌曰)有盡無盡，無依有依。道場三昧，雲駛花飛。

(沃田城堅固解脫長者無著念清淨莊嚴解脫。頌曰)既名無著，何更勤求。若言一串，終成兩頭。

(妙月長者淨智光明解脫。頌曰)宅有光明，奚稱淨智。雖不說明，早相鈍置。

(出生城無勝軍長者無盡相解脫。頌曰)見無量佛，得無量藏。問取善財，是相非相。

(法聚落最寂靜婆羅門誠願語解脫。頌曰)揭諦揭諦，除冥抉瞽。足趾血乾，胞胎落地。

(妙意華門城德生童子有德童女幻住解脫。頌曰)海外青山雲外霓，體中權實漫分枝。同條生不同條死，更問龍華調御師。

(又頌)果覺因心事不殊，丁寧終始意無餘。曾為浪子方憐客，不是波斯莫獻珠。

(海岸國大莊嚴園，毘盧遮那莊嚴藏樓閣彌勒菩薩，入三世一切境界不忘念智莊嚴藏解脫。頌曰)乾闥婆城鏡裏呈，無邊色像倍分明。去來彈指閒家具，未瞥徒勞瞪眼睛。

(普門國，蘇摩那城文殊師利遙伸右手按頂。頌曰)若來已，更不來。若見已，更不見。忽然摸著鼻頭，端的高高在面。

(又頌)身經百戰定封疆，遍界成平返故鄉。馬上幾多驚險事，不堪說向夜郎王。

(如來座前普賢菩薩。頌曰)剎剎塵塵性本融，非關作意顯神通。阿誰身上無毛孔。忍使伽餅局太空。

(善財菩薩一生圓滿。頌曰)歷代相傳舊祖基，分明稚小被他欺。京城府縣都曾訴，土地城隍到處祈。終訟總之非得已，贏來那別有便宜。愁人莫與無愁說，說與無愁總不知。

(全部總頌)讀遍神農本草書，根莖花果辨無餘。採來件件都堪用，看去般般總不殊。必死祇應疾尚諱，可生終賴藥相扶。大黃能補參能瀉，莫效庸醫守一隅。

大佛頂首楞嚴經二十五圓通頌三十一首(并序)

一真亡影待，七花八裂析栴檀。眾聖失把鼻，萬別千差歸渤海。正令全提，假饒茅屋牖邊，鼠雀豈容穿過。旁通一線，任你含元殿裏，庶民亦可往來。所以道，得之則黎奴白牯，動地驚天，失之則諸佛如來愁眉鎖目。此大佛頂首楞嚴王三昧，二十五圓通法門者，聲聲毒鼓，喪盡根塵識大命根，法法醍醐，灌醒空假中道血脈。可謂通身是病通身藥，是處有穴是處鍼。縱令遁入膏肓，難免耆婆妙手。捻餅作團，饑兒之啼哭可止。鍊酥成酒，猛光之痼疾堪醫。且看木馬嘶風，漫道泥牛入海，觸著痛處，自身有苦自身知。掘得寶來，大家有福大家享。由是各系一頌，以為利根鞭影云。

(憍陳那於佛音聲悟明四諦。頌曰)鹿苑初陳門外車，諸天餓鬼辨河沙。東風一夜傳春信，開盡黃梅嶺上花。

(優波尼沙陀悟諸色性以從不淨。頌曰)傀儡登場怖偃師，楚王一怒體分離。目成從此無消息，坐聽寒林啼子規。

(香嚴童子觀香意銷。頌曰)幼婦初裝倚翠樓，新郎曉起尚含羞。無端召作征遼將，向月胡笳起暮愁。

(藥王藥上因味覺明。頌曰)嘗遍娑婆藥萬千，箇中何味可延年。神農牙齒都零落，報道砒霜最直錢。

(跋陀婆羅忽悟水因。頌曰)剝破虛空血迸流，石人撫掌碧山頭。春光甫見花成市，一葉梧桐已到秋。

(摩訶迦葉唯以空寂修於滅盡。頌曰)六塵變壞眼培花，空寂徒傳月裏
艇。微笑至今賊證在，太平天下事如麻。

(阿那律陀樂見照明金剛三昧。頌曰)失目翻成有見，照明奚似緣塵。爍
破大千世界，豁開無漏真精。心眼俱挂壁上，桃花梅花笑人。

(周利槃特伽調出入息得大無礙。頌曰)天地猶如橐籥，不須一句伽陀。
生住異滅無性，平沈佛國山河。自從打失鼻孔，爭說安那般那。

(憍梵鉢提一味清淨心地法門。頌曰)有時醍醐毒藥，有時毒味甘露。祇
因弄巧成拙，不免將迷作悟。喚出餅裏大夫，直教手指無措。

(畢陵伽婆蹉純覺遺身。頌曰)泥裏果然有刺，痛外何嘗見身。虛空百
雜粉碎，白雲橫封渡津。欲知不痛消息，跛鰲盲龜較親。

(須菩提曠劫知空。頌曰)芥子須彌罣塞，何處轉身出息。偶然解得藏
機，彈指幻成百億。相隨樹倒藤枯，笑破色空空色。

(舍利弗心見發光，頌曰)九緣不借一靈孤，更向金錚徹體剝。戳瞎眼
睛明箇事，剎塵身土鏡中圖。

(普賢菩薩心聞發明。頌曰)毛端剎海同簫鼓，特地勞他白象王。金翅
食龍如食麵，一般也是塞饑腸。

(孫陀那難陀觀鼻端白。頌曰)苦瓠甜瓜一概拈，更將無味白藤添。縱
饒洞照十方界，鼻孔依然臉上尖。

(富樓那彌多羅尼子因師子吼成阿羅漢。頌曰)義身較比文身切，出楔何如
用楔親。野干昔年曾膽裂，孺羊漫擬效顰呻。

(優波離持戒修身。頌曰)持犯開遮三聚成，式又何法不圓明。不龜手
藥隨君用，無作誰留凡聖情。

(大目犍連心光發宣。頌曰)澄濁成清不較遲，黃河入海正奔馳。攜來
淨器君須識，莫負嵩山碧眼師。

(烏芻瑟摩火光三昧。頌曰)一星便可燎須彌，休把螢光問魯齊。拈起
秤錘渾是鐵，空教積劫墜污池。

(持地菩薩平地心開。頌曰)圓融絕待妙蓮華，須是還他古作家。馬後
驢前無數客，等閒同駕白牛車。

(月光童子修習水觀。頌曰)一滴源流徹底清，無端猶被水當情。觸體
枯盡全身露，浸殺從來佛與生。

(琉璃光法王子觀群動性。頌曰)與奪全機暗裏明，啾啾千界器中聲。春
風吹散寒威後，臘有梅花映水晶。

(虛空藏菩薩觀察虛空無邊。頌曰)晦昧情忘空界銷，毛端剎海境偏豪。
寶珠圓鏡閒家具，何物拈來價不高。

(彌勒菩薩唯心識定。頌曰)繩上無蛇性自麻，趣真斷妄轉紆斜。風停
波息澄如鏡，處處清光映紫霞。

(大勢至法王子念佛三昧。頌曰)服盡軒岐百草丸，阿伽一味信神丹。五
宗八教橫羅列，未死偷心孰肯餐。

(觀世音菩薩從聞思修入三摩地。頌曰)酒病還須酒藥醫，推門落臼正當時。神通妙用尋常事，莫使重栽眼上眉。

(十方如來放光總印。頌曰)大地覓來純是藥，耆婆空手挈籃回。從今徹體光明藏，始覺從前事可哀。

(文殊師利選擇圓通。頌曰)海錯山肴難療饑，文殊嚼飯喂嬰兒。多門一路君看取，人不和兮家道衰。

(阿難大眾得大開示。頌曰)雷雨無私萬卉蘇，故鄉他國路寧迂。推開長夜山河枕，病起精神也較臞。

(性比丘尼成阿羅漢。頌曰)緩治本兮急治標，無端芽種乍成焦。鏡中半露娘生面，今日方知行處遙。

(頂光化佛重宣神咒。頌曰)萬種名香擣一丸，胡言漢語最宜參。頂光照破虛空也，聽取前三與後三。

(金剛藏王，發願護持。頌曰)慈威折攝足良模，同體悲心痛切膚。滅度已知無可滅，大家且把剎竿扶。

妙法蓮華經品頌三十三首(并序)

花簇簇，錦團團，一塵不立。赤條條，淨裸裸，萬法齊彰。盡瞿曇，四十九年老婆舌頭，提掇不來。憑列祖，千七百箇生鐵埤埤，打併不去。除非摸著自己鼻梁，方能踢倒從來窠臼。荊棘林內，慣解掉臂橫行。潔白地中，不妨轉身直過。唯我天台智者禪師，發妙悟於大蘇，睹靈山於言下。縱一旋陀羅尼力，宣四不思議辯才。究權實之攸歸，闡本跡之深致。玄義五重，頂門打破髑髏寒。文句四釋，遍體鍼流毛孔血。戳瞎講家肉眼，爍開禪士幽關。師弦震而飛走俱逃，毒鼓過而遠近皆喪。特以圓音卓絕，鈍識如盲。義海汪洋，葉舟欲蹶。山僧不惜眉毛，每品為拈一頌。大似助桀為虐，平地重添葛藤。不會則拔楔抽釘，會得則喪身失命。

(法喻為名。頌曰)心佛眾生撥不開，三玄三要事難猜。一莖拈作金身用，惹得頭陀笑滿腮。

(實相為體。頌曰)函蓋乾坤未足奇，四微原不隔根枝。分明舉似諸方也，又道如來祇自知。

(一乘因果為宗。頌曰)眾流截斷事如何，滴滴歸源不較多。踏遍十方香水海，靴頭幾處犯清波。

(斷疑生信為用。頌曰)逐浪隨波最可憐，明中有暗意偏玄。毘嵐吹散雲千朵，放出孤輪一夜圓。

(無上醍醐為教相。頌曰)分明一樣牛身味，轉變番番不借功。飽食會須脾力健，莫教傷卻小兒童。

(序品第一。頌曰)白毫舒照半提時，萬八東方蠟印泥。擬向文殊辨端的，重栽眼上兩莖眉。且道作麼生是全提，咄，逢人切忌錯舉。

(方便品第二。頌曰)頻伸出窟威風別，象兔搏來同見血。誰知昔日金剛王，今日翻成繫驢橛。

(譬喻品第三。頌曰)門外何勞覓大車，錯將三界認為家。火光燒爛虛空也，誰解回頭叫阿爺。

(信解品第四。頌曰)客作從來非賤人，冀除未盡自迷津。卻憐五十餘年別，此日相逢覺倍親。

(藥草喻品第五。頌曰)地雨何曾有二心，根莖花果漫森森。四微終始元無別，莫向枝條大小尋。

(授記品第六。頌曰)體露金風樹葉凋，四人生死久同條。禹門無數金鱗躍，莫向澄波月影翹。

(化城喻品第七。頌曰)塵點劫前曾服毒，至今猶覺自麻木。彈指歸來較是遲，癡人還問西天竺。西天竺，化城寶所誰家屋。錯認他方五百旬，窮年竟歲空勞碌。且問只今在什麼處。咄，看腳下，錯錯。

(五百弟子授記品第八。頌曰)成群作隊鍊饑寒，衣裏明珠煞欲穿。可惜而今醉臥客，再逢親友是何年。

(授學無學人記品第九。頌曰)大小都盧一網收，蝦蟆猶欲竄前流。饒他蟠結滄溟窟，依舊還吞呂望鉤。

(法師品第十。頌曰)大地從來依水輪，高原穿鑿莫辭辛。著衣坐臥尋常事，還道如來是別人。

(見寶塔品第十一。頌曰)古佛婆心事太多，土田三變意如何。雖然明得聲前句，不免重添浪上波。

(提婆達多品第十二。頌曰)碎身粉骨結成仇，不是怨家不聚頭。一粒寶珠光燦爛，南方又起未來愁。

(持品第十三。頌曰)此土他方波浪闊，長年舵手精神別。巨鼃一搭上鉤來，傍岸猶憐風力掣。

(安樂行品第十四。頌曰)護命靈丹只一丸，身經百戰朔風寒。明珠解髻親收得，幻網光中夢未殘。只今還有作夢者麼，可憐大唐國裏，盡惺惺地。

(從地湧出品第十五。頌曰)慣作白拈難認覓，一般手段兩般刀。莫嫌子老父偏少，馬腹驢胎知幾遭。

(如來壽量品第十六。頌曰)莫言箇事無頭尾，特地勞他數剎塵。好藥但教諸子服，病除始睹劫前春。

(分別功德品第十七。頌曰)太空丈尺誰堪測，鵬徙依稀九萬程。昨夜眉毛偶饑急，誤將華藏煮盈鎗。

(隨喜功德品第十八。頌曰)摩尼雨寶正穰穰，半世饑虛此夜忘。莫怪城邊多旅夢，幾人曾嗅返魂香。

(法師功德品第十九。頌曰)無位真人六不收，放光動地轉生愁。離微語默閒家具，何處潮聲非海流。

(常不輕菩薩品第二十。頌曰)惡水澆人罪不輕，頓教平地死屍橫。獨悲未入阿鼻者，今日猶開鬼眼睛。

(如來神力品第二十一。頌曰)掀天揭地欲何為，箇事元無成與虧。認取指音并舌相，莫將黃葉誘嬰兒。

(囑累品第二十二。頌曰)年老情偏戀子孫，幾人能得起家門。殷勤記取靈山敕，鏤骨銘肌報此恩。

(藥王菩薩本事品第二十三。頌曰)然身然臂施中最，妙法何嘗隔苦功。歎息東施累西子，因噎廢飯還成風。伶俐漢，莫匆匆，經王收入無縫塔，萬別千差一路通。

(妙音菩薩品第二十四。頌曰)十界宏經讚妙音，色身普現去來今。為山五字深深意，留與諸方作眼簾。

(觀世音菩薩普門品第二十五。頌曰)自從證得圓通常，慣將生佛同叉聚。藥珠身，毒天鼓，與樂會須先拔苦。聲聲只叫觀世音，何時識卻主中主。要識主翁也不難，路頭盡處須迴武。一番逗入無畏城，不消更問雲門普。

(陀羅尼品第二十六。頌曰)煙雨濛濛渡古村，夜深杙影似人形。天師一道靈符到，彈指扶桑已浴溟。

(妙莊嚴王本事品第二十七。頌曰)禍出私門實可哀，破家亡國未稱災。一回追憶山中日，愧殺從前滿面灰。

(普賢菩薩勸發品第二十八。頌曰)昨夜雷驚娑竭羅，頓令雨點如車軸。須臾浸沒梵王宮，數滴空勞首羅目。四法重敷萬古傳，塵塵剎剎燈相續。

靈峰蕩益大師宗論卷第九之一

靈峰蕩益大師宗論卷第九之二

頌二

白牛十頌(有引并述。○此頌若作圖者，須一一如頌中各句，及頌後小字而作。儻少不合，則大背宗旨。其第九圓相一圖，或并不作圓相，但存一白幅亦可)

向有二種牧牛圖行世，一從未牧，至雙泯為圖。十牛，自黑漸白，以至於無。一從尋牛至入廛為圖，亦十牛，始終皆白。雖云

大同小異，旨趣固自別矣。禪觀之暇，偶為會通。稍稍更定，作十頌。非敢求異古人，冀自冥心一轍耳。

白牛原不遠山童，無奈山童面向東。柳綠桃紅空戀惜，凝眸塵劫好懵懵。(白牛在西面東，童子在東面東。)

右失牛，配理即佛也。所謂一切眾生，具有如來智慧德相，但以妄想執著，而不證得。

主人忽問牧童牛，回首茫茫何處求。賴有來人指往路，白牛端的在西頭。(主人問牛所在，童子失措。更一人自西來，以手遙指。)

右尋牛，配名字即佛也。謂從經典，或善知識，創聞心佛眾生三無差別之理。發心願求，返本歸源。

驀直追尋路漸西，荒原踏破是牛蹄。一回瞻視知端的，信步前行不復迷。(童子面西急走，田中多有牛跡。)

右見跡，配觀行即佛也。謂圓五品位，依圓解修圓觀，圓伏五住煩惱。

橫穿九十六煙村，忽睹牛王露地蹲。從此腳跟輕快也，假饒氣急不須論。(白牛隱臥田中，童子遙見歡喜。)

右見牛，配相似即佛也。謂圓十信位，相似得法性理水。六根清淨，見思先落。證位不退，塵沙亦落。證行不退，但猶未證無功用道。

水窮山盡不辭勞，趁到牛邊功已高。歎息無端成久別，而今方得解天弢。(白牛從容起立，童子喜撫其背。)

右得牛，配分證即佛也。謂圓初發心住，破一分無明，證一分三德。入祕密藏，生如來家，得念不退，乃至十住，皆此中攝。

雪山香草甚甘肥，清冷流泉可療饑。不羨稼苗盈野綠，悠然飽足度餘暉。(童子閒坐石上，白牛飲潤自適。)

右護牧，亦分證即佛也。謂圓十行，一行一切行，稱性功德。夕陽將盡晚霞稀，就路還家不用揮。一曲無生吹短笛，餘暉猶自照庭闈。(夕陽在山，白牛歸宿。童跨牛背，吹笛自樂。)

右騎歸，亦分證即佛也。謂圓十迴向法界願行。事理自然融合，迴入平等法界海。

白牛何處本無蹤，牧豎高歌明月峰。萬象光含秋露冷，桂枝猶自影重重。(明月在天，牧童拍手自歌。)

右忘牛，亦分證即佛也。謂圓十地，純智忘理。猶如大地，能生一切佛法。荷負法界眾生，普入三世如來智地。

逸多彈指閣門開，笑殺當年小善財。煙水百城空自歷，人牛絕跡夢初回。(人牛俱不見，唯一圓相。)

右雙泯，配究竟即佛之根本智也。謂始本不二，理智一如，徹證三無差別之性，亦無能證所證可得。

依稀何處現人牛，垂手相將入市遊。借問人牛還似昔，云何無失亦無求。(童子向東前行，白牛相隨在後。)

右入廬，配究竟即佛之後得智也。謂佛果後普賢行，乃盡未來際常然大用之門，能同流九界，廣度含識，實無加於雙泯之體。

頌仰荅高峰大師六問六首(有小序)

高峰大師，勵頭陀行，力扶祖道之衰。有參學者，必先令然指受戒，方乃授以心要。其砥柱狂瀾之志，亦甚切矣。今觀室中垂問語，無非因病發藥，痛處加錐。近來禪德，每作一色邊事會去，辜負祖意，不既多乎。不揣疏愚，敬為仰荅，兼系一頌。醍醐毒藥，毒藥醍醐，一任具舌者之自辨也。

(問，大徹底人，本脫生死，因甚命根不斷。)

仰荅，猶有徹底者在。

頌曰，

理極情忘退步難，轉身一句葛藤繁。石人撫掌歌明月。寄語禪流莫浪看。

(問，佛祖公案，祇是一箇道理，因甚有明與不明。)

仰荅，為是一箇。

頌曰，

千差萬別勢隆穹，樵子休商窮與通。側看是峰橫看嶺，只因身在此山中。

(問，大修行人當遵佛行，因甚不守毘尼。)

仰荅，邪法難扶。

頌曰，

解脫翻成荊棘因，暗中觸寶漫傷身。自從撈入波離室，梵網光流劫外春。

(問，杲日當空，無所不照，因甚被片雲遮卻。)

仰荅，瞥。

頌曰，

緣見因明被暗欺，晴空何礙片雲移。欲從遮照分賓主，豈借毘嵐努力吹。

(問，人人有箇影子，寸步不離，因甚踏不著。)

仰荅，踏著即非影子。

頌曰，

認影迷真最可憐，不堪忽後又瞻前。晚來演若狂心歇，童子南詢腳底穿。

(問，盡大地是箇火坑，得何三昧，不被燒卻。)

仰荅，火光三昧。

頌曰，

火光三昧最芬清，切忌從他覓化城。烹熟法身冬至後，黃鐘重奏一陽生。

三觀蓮華頌(有引)

一心三觀，即妙法蓮華也。本非定三，豈應分頌。然亦非定一，姑妄分之。讀者幸勿以辭害意。

(空觀蓮花頌曰)覓心覓佛了無蹤，一葉荷香裏太空。消盡涅槃生死夢，相看仍在寶池中。

(假觀蓮花頌曰)蕊幢葉葉含塵界，光影相吞孰可窮。歷盡普賢毛孔後，始知生長福城東。

(中觀蓮花頌曰)劍樹刀山覲面呈，蓮花青赤倍分明(按經中云有優鉢羅地獄，此云青蓮花。復有波頭摩地獄，此云紅蓮花，故云)。遮那身土從來遍，擬議思量轉似盲。

北天目靈峰寺二十景頌(有序)

靈峰山，古稱為北天目。辛未冬入山結制，即有偈云，靈峰一片石，信可矢千秋。甲申秋，從樵李入山，復有句云，靈峰片石舊盟新。不謂乙酉春，偶遊石城。直至己丑深秋，方獲歸臥也。俯仰泉石，勝概縱橫，紀其大者，略有二十，聊當化城，畢茲餘喘，自非樂土，終弗與易矣。

鷲嶺遙傳祇一枝，由來吾道貴聞知。但從龍樹通消息，不向黃梅覓破衣。(大雄峰○群峰之中，巍然端坐，為山正主。)

應據當陽顯別傳，較來仍是正中偏。馬駒踏殺人無數，畢竟還他懷海賢。(百丈峰○大雄之東，危巖傑峙，俯臨萬竹。)

大壑風吹匝地寒，芙蓉削出翠難看。幾翻倒嶽傾湫後，方識孤危卻自安。(獨立峰○大雄之西，峭壁千仞，有若天門，亦名海日幢。)

九品何須一一求，戒乘俱急已前收。須摩去此洵非遠，觸目標心寄玉浮。(五蓮峰○獨立峰前，五峰行列，於寺之西，並似青蓮。)

秀出雙雙巽岫高，不隨春色醉仙桃。山中薄有天廚供，傭向人間問紫袍。(二乳峰○在寺東南，迴顧梵剎，情同慈母。)

度他何必起風波，莫怪齊東傳事訛。縱使鐵船終不爛，幾人能聽屈原歌。(神舟峽○俗稱靈巖豁，兩壁峭立，相傳為神舟行處。)

虛空為虞大地炮，無問自說聲有無。喚醒癡禪計離絕，但觀一諾還一呼。(天鼓坪○大雄百丈兩峰之間，行時皆逢逢有聲，震動巖谷。)

兩澗泉聲夾竹岡，恍疑羅帶曳琳琅。經行飯後無餘事，一任跣趺送夕陽。(碧玉坪○在藏堂東，修竹巨石，可行可坐。)

聞說從來道不孤，萬筠叢裏臥瑤株。鳳兮未肯甘衰德，早向深林避網罟。(映碧坪○在藏堂西，與碧玉坪相對，皆從大雄峰而發，如兩瓣青蓮華葉，是為梵剎內護。)

不是因緣不自然，大雄特地露言詮。剎塵演說雖無隱，水性終須飲者傳。(祕藏巖○在映碧坪北，大石三座，如伊字三點，不縱不橫，不並不別，其前可結小茅。)

四性無生八不該，誰將宗說強分開。但看滴滴歸滄海，始信源從阿耨來。(龍樹泉○舊名龍泉，祈雨最靈，載一統志，山由此得名。正在大雄百丈兩峰之中，堪表中道，如龍樹大士，造中觀論傳佛心印，其味醇正，潤益無窮。)

百丈峰頭涵蓄深，冷然東國沁禪心。維摩摘取雖非遠，未許貪夫著意斟。(歡喜泉○出百丈峰之東，冬夏不絕，飲之甘美。)

忍土塵勞不可噬，能仁格外垂恩濟。引取珠王十四枝，來向山中宣妙偈。(安養泉○出大雄峰之西，味尤醇美，猶若醍醐。)

歷盡青山數十層，盈科聊就此中澄。長空如洗標孤影，不向污流別覓朋。(澡月池○在碧玉坪西麓，積龍泉所成也。)

未必神舟是戲詵，坐聞泉水日喃喃。滿慈久已成獅吼，暗證徒將口舌緘。(談經石○俗呼神舟石，在安養泉左，可坐廿餘人，時泉聲淙淙。)

大雄久欠兒孫債，劈取須彌安此界。賓頭末敢向空旋，米芾不妨頻下拜。(跣趺石○大雄峰之麓也，相傳大風雨時，從峰頭迸墜。在藏堂東北隅，群木交映，堪坐數人，遠望前山，疊翠數重，並相環拱。)

舉世昏昏恥獨惺，亂山深處且埋形。夜來風雨摧殘鼎，唯有修篁不改青。(萬竹塢○舊名上房塢，今精舍名攝香居。)

藏身之處沒蹤跡，沒蹤跡處莫藏身。東風誤報春光好，香色分明舉似人。(千梅塢○由萬竹塢東上，怪石崎嶇，人跡罕到，野梅無數，開則半山遍白，香風遠傳。)

何必高誇雞足山，箇中趺坐亦安閒。純陽飛劍心機錯，好向黃龍問過關。(金仙洞○舊名仙洞，在龍樹泉下，載一統志。每為苦行衲所居。)

獨據東南最上頭，天空海闊一浮漚。饒君先入如來慧，爭柰群機攝未周。(華嚴洞○在二乳峰左，而外向東南，日出則先照之。)

自頌法華堂問答六首

一問，步步不曾離著他，因甚麼舉似不出。
答，舉則不似。

(頌曰)演若迷頭向鏡馳，狂呼歷劫未曾癡。朝來摸著娘生鼻，到底雙雙兩下垂。

(又答)分明舉似。

(頌曰)分明舉似不爭差，步步何曾離著他。更問之乎並者也，胡人月下吹胡笳。

二問，說得了了分明，因甚麼用他不著。

答，說底是甚麼。

(頌曰)家常茶飯日三餐，一飽渾忘饑與寒。只恐鮮能知此味，別圖鳳腦與龍肝。

(又答)步步不曾離。

(頌曰)分明步步不曾離，日用尋常盡是伊。怪底春光遍桃李，東風消息幾能知。

三問，三身與三自性。是同是別。

答，且道是同是別。

(頌曰)三性三身別復同，分明指示不須融。獨憐村裏三家犬，月下喤喤吠草叢。

四問，一切法皆可作四句，且如三身，各四句如何作。

答，四句歷然。

(頌曰)無性緣生觸處通，有無情理互含容。一微亦必存方分，儻侗如何達此宗。

自頌除夕問答二十首

一問，如何是為實施權。

答，家家有路透長安。

(頌曰)治水功成定永圖，荒要侯甸各分符。始皇吞併非良策，眨眼秦嬰已獻俘。

(又答)病多藥多。

(頌曰)病多藥亦多，須是問耆婆。黃龍湯一味，那得起沈痾。

二問，如何是開權顯實。

答，借婆衫子拜婆年。

(頌曰)禮到何勞漫費錢，大家恭敬賀新年。面門歡喜心安樂，不羨無懷與葛天。

(又答)子等心等。

(頌曰)子等心亦等，況復貲無盡。周給本非難，只愁不自肯。

三問，如何是本跡雖殊，不思議一。

答，歲歲黃鶯啼綠柳。

(頌曰)春光一度一番新，賺得嬌奴起怨情。獨有東村王大姐，依依猶憶舊時人。

(又答)萬古碧潭空界月。

(頌曰)萬古碧潭月，盈虧時出沒。撈攬非有無，大辯終須訥。四問，如何是觀心若起，本跡俱絕。

荅，泥佛填官路。

(頌曰)路邊掘土成尊像，要走還將尊像填。只恐傍人眉墮落，漫同院主怨天然。

(又答)兩箇泥牛鬥入海。

(頌曰)泥牛鬥入海，木人齊喝采。堪笑石女兒，猶向波閒待。五問，如何是止觀不二。

荅，天昏地陷。

(頌曰)混沌鑿開分兩儀，成形成象漫猜疑。虛空消隕知何許，正是訛傳盤古時。

(又答)古鏡挂高臺。

(頌曰)古鏡挂高臺，何妨胡漢來。秀公空拂拭，拂處轉多埃。六問，如何是具縛凡夫，能知如來祕密之藏。

荅，幾處報讎身不死。

(頌曰)一自椎秦博浪沙，轉逢黃石圯橋斜。素書雖作劉家用，與赤松遊路未賒。

(又答)跛足長年牢把柁。

(頌曰)專心牢把柁，跛足難行路。看風便使帆，滄溟頃刻過。七問，如何是初發心時，便成正覺。

荅，千場縱博家仍富。

(頌曰)梢羈膽壯賭場雄，破盡寒酸士子風。一擲便輸千億界，陶朱雖富未堪同。

(又答)一線銀鉤光遍地。

(頌曰)銀鉤光遍地，一線天邊麗。初夜漏聲寒，影向千江漬。八問，如何是不斷生死而入涅槃。

荅，大瀉山水牛肥。

(頌曰)不是冤家不聚頭，自身有債自身酬。牧童若解深深意，莫把繩鞭強繫留。

(又答)七金香水浪滔天。

(頌曰)香水浪滔天，潛流注百川。誰能嘗一滴，卻病且延年。九問，如何是續佛慧命。

荅，依舊可憐生。

(頌曰)果然依舊可憐生，拄拄撐撐直到明。普請大家同著力，莫教倒卻葡萄棚。

(又答)饑來喫飯。

(頌曰)佛命不可斷，饑來須喫飯。一日要兩餐，莫學餓死漢。
十問，如何是臘月三十日用得著的。

荅，銀馬金錢接灶神。

(頌曰)銀馬金錢接灶神，殷勤禮拜祝虔心。一門和氣生千福，四季平安抵萬金。

(又答)困來打眠。

(頌曰)臘盡事清閒，困來便打眠。一夢猶未足，爆竹慶新年。

頌荅如母問二首

(問，人問祖師，百年後甚麼處去。祖云，檀越家作水牯牛去。學人隨來得麼。
云，須銜一莖草來，水牯牛即不問。如何是一莖草。)

荅，即是自己喫的。

頌曰，

生死路茫茫，輪迴正未央。須銜一莖草，切勿借他糧。

(問，滄山遇寒拾，拾虎吼三聲。又拈杖云，喚者箇作甚麼，意旨如何。)

荅，忘卻了也。

頌曰，

兩度拈來一總忘，何須平地別商量。同條生不同條死，愁聽寒鴉度夕陽。

禮舍利塔頌(塔在歙縣，豐南吳大年乃孫粲如家)

無量戒定慧，莊嚴淨法身。法身非非色，非色未可名。碎作八斛珠，顆顆全性真。是以廣流布，在處呈光明。善哉大年翁，獲此出世珍。善根不可盡，亙古恆新新。照此正信家，允作菩提禪。寧唯一家寶，人天所共尊。頂禮成緣種，分明樂土津。

銘

梵網室銘

問予何所矢，恆參梵網旨。坐斷百非源，方知唯此是。不離最初心，即是舍那髓。漸頓寧有歧，一多豈異軌。驗果愈明因，托事益顯理。莫謂浮囊微，堪作中流砥。諦觀心地門，應信室非邇。

德林座右銘

以冰霜之操自勵，則品日清高。以穹窿之量容人，則德日廣大。以切磋之誼取友，則學問日精。以慎重之行利生，則道風日遠。故曰，忠以行己，恕以及物。又曰，修其天爵，而人爵從之。

淨社銘

持戒為本，淨土為歸，觀心為要，善友為依。

杖銘四首

中虛而實，節厲而溫。助爾神足，游戲法門。追遺蹤於前邁，導景從之後昆。（歸一兄，木竹杖）

放去柱地擎天，拈來磕頭碰腦。同上須彌峰，共行長安道。咄，若非撥草并瞻風，不二法門何處討。（為蔣水新）

有首不昂，有趾不驚。將欲向前，退後一步。（為靈隱兄）

人謂爾虛，我知爾實。我扶爾行，爾為我弼。相對無言，非千意密。驀入千峰，依然一室。（自用木竹杖）

淨信堂銘

我所住堂，皆名淨信。輪相初開，破疑前陣。五悔功成，至心發軔。二觀圓融，隨機善進。平等法身，三昧中俊。觀察己心，念佛心印。決定應離，雜亂垢燼。三忍四佛，康莊非峻。

梵網室銘

我所住室，即名梵網。十方佛法，猶如觀掌。文字性離，非默非響。更言不立，無端成兩。心地法門，戒光森爽。性修交成，實相斯朗。法報化身，體方且廣。華藏莊嚴，鏡中現像。

方竹杖銘四首

藏虛於實，寓圓於方。拄天匝地，隨君舉揚。咄，轉身何處尋蹤跡，驀直歸家夜未央。（贈葆一）

直中繩，方中矩。欲問來由，賓中識主。（贈如是兄）

不存軌則，聊示方隅。肩雲戴月，逸塵而趨。（贈知卜）

母刖汝體，母露汝端。捨之慄慄，用之跚跚。（自題）

拄杖銘

有時拄地擎天，塞斷聖凡鼻孔。有時擔雲荷月，挑開佛祖眼睛。
欲問何年骨董，依稀煙水百城。

箸銘三首

法味盈齒，不煩染指。離卻單傳，白拈嚙矢。
用有待，體無三。爾知味，我何貪。
單不立，隻難擎。借籌畫，擬調羹。

王學古座右銘

浩然之氣，人皆性具。何以養之，集義是務。義非可襲，爰稱正路。坦坦周行，不憂不懼。立命知天，非域氣數。閉門造車，出門合度。道之所存，非毀何顧。道之不錄，榮名何慕。熟寐終夕，彈指便寤。南溟北溟，任爾遊寓。嗤彼昏盲，蠅趨螭附。夏則喜風，冬乃貪燠。悟性成修，力用斯裕。摩尼在幢，眾寶普樹。此外尋玄，五十百步。

四無量心銘四首

視人之善，猶己之善。視己之善，猶人之善。念念同觀，亙古無閒。法界偕遊四德城，方滿最初宏誓願。(慈)
視人之惡，猶己之惡。視己之惡，猶人之惡。猛省力除，無令愧作。法界眾生三毒除，彼我同歸無上覺。(悲)
視人之樂，猶己之樂。視己之樂，猶人之樂。所欲與共，嫉妒永卻。法界同欣法喜充，不向偏空尋略約。(喜)
善惡性具，善惡性空。何喜何怒，如空御風。默持機感，妙應無窮。大圓鏡智照不疲，豈似權乘作意通。(捨)

妙嚴室銘為庸庵作

忘羈斯妙，不飾斯嚴。慎爾幽獨，自牧以謙。干將匪利，口斧誠銛。君子自返，慧日普瞻。

戒心戒方銘

悔過不如防過，惜福尤宜積福。佛法深妙無窮，切勿自棄自局。若要熟處漸生，先須生處漸熟。

艮六居銘

一念迷妄，六塵頓陳。結根盤錯，流逸奔塵。造業招苦，三有逡巡。遂經曠劫，茫弗問津。遭此痛苦，悟身非身。拔妄內伏，不見其人。思不出位，庶幾返真。

箴

止觀十二事箴

法無去來，妄情徒撓。了行非行，大拙至巧。(行)
中立不倚，未是深禪。了住非住，乃知不遷。(住)
身心未忘，終成掉悔。了坐非坐，入三昧海。(坐)
萬善未圓，忍墮癡獄。了臥非臥，夢行乃足。(臥)
搬柴運水，體自如如。無作而作，白牛大車。(作)
名字性空，何法何語。不取於取，諸佛所許。(語)
空華水月，何去何來。無見非見，切勿亂猜。(見色)
空谷傳響，正法恆宣。聞所聞盡，貫花湧泉。(聞聲)
栴檀伊蘭，何美何敝。鼻孔依然，已超人世。(嗅香)
夢享酥酪，醒不拭吻。段食性空，奚勞欣慍。(受味)
離既非有，合亦何關。無痛痛覺，刀火閑閑。(覺觸)
法由心生，心隨法幻。覓之無蹤，月沈古澗。(知法)

詞

祈雨詞

春苦雨，夏苦晴。一晴一雨，唯識所呈。識無主宰，隨業所縈。吁嗟業兮，同分相成。感此酷毒，民弗聊生。匪龍王之失德，豈天帝之弗情。由予德之不類兮，違誓鎧之深宏。今竭志而悔過兮，扣大士之宿盟。悲下民之莫拯兮，雲四合而雷轟。霈甘泉於大地兮，俾溪澗以淵泓。農欣穫於秋實兮，盜弭跡而安平。荷三寶之恩濟兮，漸去邪以歸正。并翹請於天龍兮，鑒予懷之懇誠。同輔弼於菩提兮，共遄造乎覺城。

靈峰蕩益大師宗論卷第九之二

贊一

釋迦牟尼佛像贊二首

百萬人天眼本明，拈花無語並傳真。飲光一笑生波浪，直至如今未太平。(拈花相)

塵點劫前生計絕，慣從人世弄風魔。世閒不解乾城影，漫說須從者裏過。(雪山苦行相)

阿彌陀佛像贊九首

一指光，周法界。十念成，皆自在。感應道交，生佛無礙。討甚自性彌陀，只此豈屬心外。

光明壽量無倫匹，慈眼悲心徹底呈。隻手長舒塵點劫，一般也是惜兒情。

觀常作佛，佛常在觀。心想遍知，同條共貫。

如來法界藏身，遍入眾生心想。譬如月印千江，一切有目同仰。若欲離此覓真，何異捨聲索響。總云者個便是，依舊無端成兩。極樂大聖，法界醫王。入慈悲定，放智慧光。盡未來際，恆照十方。眾生念者，攝取不忘。以如幻力，應物現色。妄想稠林，相好百億。即影即真，不二不忒。嗟彼生盲，覲面弗識。別覓玄機，翻墮見惑。我今稽首，滿月萬德。願共含靈，歸安養國。稽首宏願四十八，一一願光不可盡。果徹因源恆度生，蓮華國土如明鏡。睹影聞名創發心，頓入寶王三昧印。但勤瞻禮莫辭勞，紙墨元同法界性。緣生當體空假中，四德三身不別並。況復澄空月正圓，心水澄清月自映。

兩朵蓮華足底安，一雙空手悲心切。覲面相逢法界身，虛空大地流鮮血。(血書接引)

諸佛正遍知海，不離眾生心想。是故眼見耳聞，盡是彌陀聲像。癡人捨此別求，喚作法身向上。誰知棄有覓空，一體無端成兩。若知兩既不存，畢竟一何須尚。熾然禮拜稱名，即是超方伎倆。稽首西方須摩提，無量清淨平等覺。乘於六八大願輪，示現八萬四千相。相有八萬四千好，好有八萬四千光。一一光中照法界，普攝念佛諸有情。猶如慈母念一子，是故入此三昧王。名為普現一切相，畫師承此三昧力。紙筆為緣妙相生，此相即是因緣生。生即無生具三諦，三諦三身既宛然。四德應知無缺減，所禮既即

諦與德。能禮應知即止觀，諦觀名別體復同。是故能所性空寂，稽首如空無所依，是即自性無量覺。

一佛二菩薩像贊二首

麻麥漫充饑，平地風波險。瞥悟本來心，無端石火閃。跨師執如意，佛祖供褒貶。乘象閱大經，何曾有一點。喚作佛菩薩，虛空不受染。禮拜任眾生，盡禮原非諂。咄，直饒恁麼舉揚，也是白圭之玷。(出山相)

稽首阿彌大導師，觀音勢至同悲智。願輪無盡等虛空，歷劫長行不思議。生界不空行不休，此是四宏無作誓。生界本空行非行，誰知二諦是一諦。二由一有一莫守，非一非二非三四。三二宛然顯一真，大聖以此垂恩濟。但願眾生悟自心，自心那復存橫豎。橫豎無非法界心，法界亦是強名字。即知自心三聖人，本與眾生體不異。覲面三身四德新，紙墨筆腕非他事。身命歸依能所忘，雙忘雙照恆如是。(西方三聖行像)

三大士像贊

成群作隊，無風起濤。騎師跨象，何足稱高。鍊得身形似鶴，祇是自苦自招。忽然遇著文喜，畢竟如何解嘲。咄，楊柳垂垂春盡綠，清明時節雨如膏。

地藏慈尊像贊五首

同體大悲，無緣宏誓。千佛之祖，群生之裔。定入剎塵，珠懸三際。輪相破疑辯才顯諦，欲令戒學重明，頂禮莫存分劑。

人但知其地獄救苦，不知其無處不現。人但知其臨終扶持，不知其無時不念。三部經王，二種妙觀。十輪重匡末法，三輪盡裂疑罣。此無量門中，第一神速法門。從來若逢不逢，似見非見。不肖子，一生極力舉揚，獨許歸信無閒。尚有一事懷疑，問取法身莫辨。

眾生墮落地獄，皆由破戒重障。大士入獄救苦，獨現聲聞戒相。不解剖判法身，偏解拈提向上。此是無作妙色，眾生性具家當。握珠堅強戒身，地藏人人地藏。

五乘該盡孝慈心，最是醫王願力深。百草根莖皆不棄，贏來大地足知音。

涕出何須更著慚，館人相識恨長含。一哀偶遇橫流淚。處處臨喪欲脫驂。

普賢願王像贊二首

介爾一心，萬行具足。表以象王，支七牙六。除爾瞋心，便轉妙轂。法界宗師，昭彰耳目。遠證讀誦，近嚴幽獨。覓即不見，見即受毒。

十大願王，導歸極樂。塵塵華藏，從此彰燦。不昧因果，法界開拓。問取棗柏，玄珠在索。

文殊師利法王子贊二首

稽首大智德勇健，表於無畏師子王。能照八萬四千律，皆作甚深般若光。手執如意摩尼寶，所遊自在妙吉祥。怖魔破惡亦除饑，大乘僧義難測量。巨石喬松恆演法，無是非是身堂堂。

一片青山，無邊波浪。動靜不生，奇形異狀。湧出寶蓮，文殊在上。大智勇猛，識風鼓盪。若欲思量，命失身喪。

普門大士像贊二十四首

一滴軍持，汪洋非淺。灑盡三千，不虧不衍。生界若空，斯行迺轉。(行像)

白者是紙，黑者是墨。何處是紫竹林，甚麼是磐陀石。希有大士，無作妙德。不向空中現影，偏借靈於手筆。識海波澄月影寒，蒲團葉翠苔痕碧。南海波斯到岸來，明珠價值微塵國。

如意縱橫，蓮經燦爛。師資追隨，虛空彼岸。欲識兩人真面目，一般是有血性漢。(血書觀音善財相)

取草為座，名曰吉祥。定共道共，總此浮囊。無非佛行，象顧師行。普門示現，比丘中王。(比丘相)

磐石宴坐，無得無說。妙法兩函，紅爐點雪。手足分明，機關迴別。擬議思量。證龜作鱉。

蒲團寂寥，雲衣綽約。大悲法門，借病作藥。教苑筌蹄，禪河略約。顧問善財，南詢路漠。

佛法無多，商量浩浩。說則不周，行則不到。怒目揚眉，逢強須暴。一炷名香，魔軍永埽。

寶蓮本向真空湧，月面還從性海昇。踏破波濤全是水，不勞彼岸較先登。

風浪千尋，神通一味。遊戲翩翩，何拘何繫。踏破須彌萬朵雲，眾生見者咸如意。

入定何如出定時，亭亭甘露浸楊枝。大千無地留煩惱，剩有空拳誘小兒。

一顆摩尼，光遍法界。卷之舒之，隨心自在。倚坐危巖，忘形絕待。甘露楊枝，妙協兼帶。喚作禪機，空拳捏怪。獨許童子追隨，鸚鵡依然雲外。

巍然獨坐大雄峰，度盡眾生不見功。描出虛空千色彩，依稀未睹紫金容。

稽首大悲自在覺，圓滿無礙陀羅尼。慈威折攝不思議，定慧莊嚴無等倫。頓悟一念具千法，通身手眼炳然彰。方便智慧皆無作，一切念中亦復然。念念顯現不增減，塵塵法性亦復然。是故尺楮寸毫間，悉具大悲圓滿相。有人獲睹此慈容，便悟法身真相好。此是普門示現力，莫作紙墨影像觀。(大悲像)

得根本圓通，現三十二應。十四無畏力，遍療眾生病。塵刹盡分身，紙墨皆真性。覲面太分明，發光同海印。更問大士誰，鉢盂重討柄。

碧眼修眉，長顙方頰。革屣蒲團，軍持祕笈。與彼應真，示同一業。是大比丘，清淨卓傑。(梵僧相)

松株若龍，重巖似屋。趺座蓮臺，楊枝嫩綠。善應群機，如響荅谷。眼色耳聲，非一非六。莫教錯認古觀音，俗人帶髮僧頭禿。菩薩慈真，眾生病假。煩熱場中，楊枝遍灑。徹體清涼，不知為者。此便是無二無分，無別無斷的血脈，更何用鑽龜打瓦。咄咄，佛法雖妙，執之則粗。龍鬼雖俗，現之則雅。若云觀音必具妙相，笑殺東村大姐。

音聞性清淨，聲字何須埽。執卷視群生，普施摩尼寶。智士悟根源，愚人打之遶。童子挈魚籃，只為金鱗少。二尾價一錢，未審誰能曉。

一葉蓮舟，翩翩獨邁。歷盡塵寰，不離鍼芥。分明日用尋常，超越千奇百怪。識得其中一線真，斯則名為觀自在。此是三十二應，十四無畏，四不思議，無作妙德的全體大用。徹底和盤舉似人，不許擬議思量，只許翹勤禮拜。

終朝掐數珠，聲聲觀自在。常然大用門，未來終不改。眾生若肯自念，何勞諸佛披鎧。祇因覲信不真，坐在飯邊受餒。

眾生迷本聞，循聲妄流轉。正在流轉時，聞機元不遠。大士纔返觀，方知性自善。圓通復真常，觸目菩提滿。遍應十界音，機成便能感。寂爾坐巖阿，熾然濟群染。非是大士功，亦非心念力。兩皆不思議，所以終無忒。自性無自性，情識非情識。覲破真妄

關，方知法界德。以我虛妄想，投彼寂滅國。如薪入火叢，如冰遇湯沸。無明不動智，兩名唯一實。
執佛珠，緣九界。上下合，慈悲債。欲悟圓通，但勤禮拜。思彼思憶，不思議最。(思憶相)
自性光明圓滿輪，巍然露出紫金身。分明色相離情謂，何必重拈物外真。
葉作蒲團布作衣，默然趺坐待群機。眾生界盡悲無盡，不自觀音那得知。

阿羅漢像贊二首

咄哉者自了漢，夢墮大河不憚。曲肱舒腳熟眠，豈問中流兩岸。
遇著希運禪師，又添一重公案。(渡海眠相)
證得無礙解脫，豈畏文字葛藤。拈來句句漏逗，埽去亦自非真。
不如隨分消遣，青山何礙白雲。(閱經相)

布袋和尚像贊三首

不離兜率，幻遊人世。布袋頭開，逢場抽稅。笑口呵呵，無邊宏誓。
臨行自說姓名，誑殺幾多後裔。
盡問袋中何所有，誰知笑裏自藏刀。浮沈人世無人曉，塔院初成身已逃。
咄，八萬歲時重舉似，此行端的付蓬蒿。
一箇布袋，千如百界。性具性造，互生互在。搬出搬入，了慈悲債。
笑臉呵呵，兒童多賴。縱令覲面不識，同到龍華三會。

寒山拾得子像贊三首

一真實地，不解屏息。十字街頭，慣作浪客。國清寺裏無人曉，鼓掌揚眉。
閭丘太守忽相迫，潛蹤遁跡。雖然罵破老豐干，不免兩處皆狼籍。
天台垂跡誰能發，尚賴靈山兩作家。主伴莫分前後示，依然一會說蓮華。
一處一時同撫掌，當知夙有大因緣。願王豈復違共主，智海安能出義天。
俄爾藏身非偶爾，漫然饒舌匪徒然。生平無限傷心句，盡付滄茫落日邊。

達磨大師像贊五首

問渠何往，本自無家。一葦初折，毒鼓已搗。風恬浪靜從君渡，可惜兒孫盡帶枷。

一句安心語，萬劫繫驢橛。轉得鼻孔來，虛空出鮮血。怪底東施強效顰，卻令西子蒙不潔。何如分付老雲門，早與瞿曇同打殺。驀地西來，大似風前浪起。更加折葦，不免眼下眉添。饒君面壁九年，落得弄巧成拙。賴有楞伽四卷，且喜救得半邊。咄，逢人切忌錯舉。

震旦大乘機緣熟，勞君遠自西天竺。蕭公不識真得髓，渡江疑殺人閒僕。神光斷臂始心安，楞伽四卷開眉目。誰知法立弊旋生，五家分派空勞碌。明道者多行者少，說道者多明者獨。只今江上蘆花寒。堪使屈原歌且哭。

面壁非由心不安，梁皇不識意多端。神龍睛點應飛去，跛鰲徒悲行路難。行路難，仔細看。守株待兔知何日，緣木求魚被熱瞞。老胡雙碧眼，孤炯照人寒。

幽溪開山始祖融禪師像贊

鵬養威，遙天瑞。勞導師，迢迢至。拶破坐觀心，掀翻佛名字。何物復何人，者箇原非二。真風雙徑寒，幻跡牛頭賁。負米豈云勞，垂涕奚關寐。橫一枝，今未墜，雞籠月影芙蓉翠。

四明尊者法智大師像贊

教觀久失墜，佛子乃再來。法界何次第，片語聲如雷。首座尚辭喪，況復諸庸才。餅水既灌口，智首亦操回。蜷蛭論六即，陰妄豈塵埃。理毒與性惡，圓頓無疑猜。唯心亦唯色，至理從此開。大悲傳祕印，指要剖迷胎。一喝悟直院，機用非安排。中興集大成，萬古猶堪懷。

紫柏尊者達大師像贊二首

破盡流俗知見，豁開宗教眼睛。不是門庭施設，極力剿絕識情。契心印於覺範，救暗證之生盲。法道是重，一身為輕。試驗園中瞑目地，始知半偈已功成。

此是紫柏老人，佛法不作人情。闡明性相宗旨，爍破盲禪眼睛。何必師資授受，自契佛祖心精。何必上堂說法，隨處廣度群生。堪使頑廉懦立，百世聞風若新。

憨山師翁清大師像贊三首

有謂此像太像，是見嶺南之姿。有謂此像不像，是見匡嶽之儀。予謂師宗不宗教不教，正以像不像而得其皮。且道是讚伊，是毀伊。咄，且看眼上一雙眉。

偉貌豐神，堅勇大勢。空定凝神，光明初霽。憂在法門，禍福寧計。掣電奔雷，德山臨濟。密用潛行，圓中海際。知之者謂是隻手擎天，不知者謂是英雄欺世。誰知其甘處於非宗非教之間，不與時流同逝。

生平不識師翁面，夢中接引曾三見。今日欣瞻卷上容，彷彿慈悲親示現。忘身為法古來稀，荊棘林閒慣血戰。萬里炎荒作戰場，未審何人追後殿。

雪浪大師贊

埽蕩支離，不拘軌則。瀟灑風流，露疵縮德。分明是玄奘再來，怎怪得肉眼不識。

雲棲和尚蓮大師像贊三首

威而不猛，和而不同。慈心濟物，梵行明功。追蹤往哲，啟迪群蒙。彌陀一句，橫互豎充。禪關把定，永鎮魔風。我來禮塔，恍睹遺容。咦，私淑未須言嗣法，聊將嗣德附蓮宗。

世競貴奇特，師耑守平常。人盡尚高峻，師獨存謙光。旋萬法而指歸淨土，憫五濁而廣作津梁。聞慈風兮寬鄙敦薄，積善化兮源遠流長。仰遺規以私淑，愧嗣德之未遑。

此是雲棲老漢，肚裏最多思算。諦觀末世法門，百怪千奇沒幹。饒他梵語華言，不出威音那畔。所以旋轉萬流，直指西方彼岸。只圖腳底著實，何必門庭好看。八十餘年暗室燈，聞風猶使頑夫憚。

博山無異師伯像贊二首

貌偉神豐，心慈體勁。向空觀以入門，從壽昌而斷命。堅持不肯家風，痛洗今時禪病。既存徹困婆心，何必單提正令。只嫌一句葛藤窠，留與兒孫作話柄。沒蹤跡處莫藏身，老婦依然猶歎鏡。此是博山老漢，肚裏絕無思算。逐出魍魎山精，送與群魔作伴。雖然未得兒孫，卻勝諸方雜亂。咦，把定牢關不放人，至今聞者

猶驚憚。

靈隱兄像贊

淨明菴裏，打失半邊鼻孔，猶未全露敗缺。台嶽書中，摸著一箇秤錘，到底硬如生鐵。呵呵呵，會也麼，同條生不同條死，莫怪巖頭口太多。

誦帚律師像贊

冷面熱腸，銅頭鐵額。不徇時情，專圖破格。涉水登山，禪關講席。勝友良朋，風朝月夕。嘗遍神農百草丸，彌陀一句成安宅。

雪航法主像贊二首

一世老婆心切，未免弄巧成拙。臨行穩蹈蓮衢，也是今時豪傑。西方公據現存，何必豐干饒舌。好個伶俐漢子，慣要拖泥帶水。雖然滿地兒孫，未審阿誰得髓。臨終不忘舊交，千里向予求毀。索性再罵一頓，果然是釋迦文佛的奴僕婢使。

鑒空寧禪師像贊

骨嶙峋，面冷落。嚴律檢，珍然諾。功成不居，因果不錯。咦，六十年來不炫奇，臨行落得心無作。

衍如禪兄像贊

欣欣厥容，謙謙厥德。無事縈心，有懷詣極。揖春風兮飲和，歷歲寒兮自得。時人是真時人，彌勒是真彌勒。

覺空老尊宿像贊

擲戟投戈禮覺王，獻花巖畔露神光。戒香獨紹五雲色，佛號偏宗十億邦。鎮日蒲團消客夢，半生崖壑絕行藏。陳如自昔稱僧首，百世猶聞眉影長。

宣聖像贊

空空無知，知我者天。聖仁豈敢，不貳不遷。一以貫之，初心方便。天下歸仁，最後玄詮。跡集帝王之後，本開覺路之先。寄微言於易象，推大聖於西乾。縱無大灌頂經之記，亦可信為普門示現之賢。

趙十五像贊

視物之生，猶己之生。視人之厄，猶己之厄。只此民胞物與心腸，便是大慈大悲血脈。欲知不二法門，更受山僧一擲。豈不見，博施濟眾，堯舜猶病。菩提初發，生界斯盡。會得個點玄關，便是維摩話柄。咄，覺路本來常坦坦，莫認偏鋒作正令。

沈母金太孺人往生贊(有引)

吾人現前一念心性，原與阿彌陀佛同體。而罕能直下知歸者，無他，未具信願行三故也。子嘗謂信如將，願如謀，行如軍旅，有將有謀，老弱亦可取勝。苟無將謀，雖勇壯亦潰矣。是故信宜專，願宜審，行宜無所不收。專且審，故圓頓直捷而至高。無所不收，故三根普被而至廣，此念佛三昧所以為橫超勝異也。邇來宗教之士或視念佛太易，以為曲被中下，或視念佛太難，以為齋戒須全。夫太易則不高，太難則不廣，豈寶王三昧之謂哉。今觀太君坐逝，洵可頓釋兩疑。合掌贊曰，人心佛心，本自無二。一念相應，欲仁仁至。卓哉沈母，信此實義。聖號喃喃，日時不離。但持十齋，慈祥愷悌。罕睹怒容，多瞻惠施。八十六年，淨業乃粹。集飲歡娛，大醒如醉。驀直西歸，坐脫若戲。欲顯真因，身香表瑞。信矣高圓，誠然廣被。匪易匪難，千秋永企。

沈翼薇趺坐圖贊

七年守土，愈殺愈慈。二載省方，恩威並施。朝中正立，奸魄潛魘。林下徜徉，知雄守雌。賢母念佛，端坐西馳。純孝繼德，取友親師。君不見，君家太君身示現，圓融直截超方便。假饒透盡千七關，五百元來只半串。直下聞熏莫更疑，長安豈離含元殿。

譚埽菴居士像贊

頭頂青天，腳踏實地。忘食忘憂，窮年竟歲。讀盡世閒好書，識盡古今奇字。不肯分佛分儒，何必為僧為吏。孔孟稱之為出世子孫，佛祖喚之為在家法裔。單得憨翁授記深，畢竟同歸第一義。

陳旻昭居士像贊

願廣悲深，心靈語豁。以法門之憂為憂，以群生之脫為脫。盡未來際，誓居學地。遙承壽昌，不肯二字真正衣鉢，見人一味合掌低頭，便是今時常不輕菩薩。

張玄超像贊

分宗判教兩無涯，吳越元來是一家。欲識聲前句後事，年年踏雪看梅花。

靈峰蕩益大師宗論卷第九之三

靈峰蕩益大師宗論卷第九之四

贊二

佛說阿彌陀經塔贊

稽首阿彌陀如來，攝受眾生不思議。稽首廣長舌相經，諸佛護念不思議。稽首執持名號人，徑登不退不思議。我曾發不思議願，欲以尊經作寶塔。綺迴漩洑妙莊嚴，令見聞者皆歡悅。善哉千里鄭居士，先得我心所欲為。巧思妙筆奪天工，梵文迤[這-言+里]無盈虧。我今合掌頂禮塔，願塔普放光無量。我今合掌頂禮經，願經住世壽無量。經典所在即是塔，塔影所在即是經。若人具有廣大信，始獲頂禮無餘情。若人得遇此經塔，畢竟當得廣大信。是故我今作贊頌，廣不思議佛慧命。

血書華嚴經贊二首

法界無礙，殊文異派。上中下座，同條共會。正眼觀來，圓融自在。隨沾一滴，滄海為隘。奇哉開士，發希有心。刺血書寫，字字精金。放紅毫光，照微塵國。遇影蒙塵，頓證妙德。(省中開士)刺血書成法界經，展時無字不光明。導歸無量光王剎，不墮狂禪鼠唧鳴。(澹居大德)

涵初開士持法華經贊

介爾一心，三千性相。權實同歸，圓明絕障。文字離微，兔角拄杖。即此離此，依然兩樣。能施能開，積年店帳。認取阿爺，當仁不讓。十妙淋漓，今古如斯。若本若跡，觀心便知。三法融徹，六塵無別。教行理經，同輪共轍。卓哉開士，心解口持。醍醐潤渴，甘露療饑。七萬餘言，言言實相。一任思量，眉元眼上。梵音清雅，法界同熏。一字染識，法王之昆。

兩白開士血書華嚴經贊(有引)

開士血書此經王，初懼大事難成也。先然香一百八炷，以求加被，僅兩年告完。不事世諦，作圓滿道場，獨閉門觀想。頓然三指，普供法界三寶。噫，力行出世妙善，而不彰其名，此真普賢勝行已乎。蕩益智旭，深心隨喜，合掌讚曰，為善妙在密，有德妙在謙。以此嚴性海，以此離世間。字字如來血，筆筆華藏泉。三禪猶可壞，萬德終不損。相將寶蓮土，再聽龍華詮。

恆生法主血書法華經讚(并序)

如來一代教法，唯法華為究竟之詮，以其直明設教之意，不止辯說法門綱目故也。是故法華明，則一代教法俱明，十方三世一切權實本跡俱明。如是則現前一念介爾心性，乃究竟明矣。智者大師親見靈山一會，儼然未散，正是自心現量境界耳。世之求法華者，既不知求諸自心，求自心者，又不知求諸法華。宗說分張，罔殆病等。求其教觀雙美，解行合一，捨天台誰歸哉。末代鈍根，障深慧淺，三大五小，不唯作望洋之歎，且視為異物。妙峰大師，不惑眾咻，力宏一實，正如鳴陽孤鳳。逮幽谿大師，其道始全，甚矣正法難聞也。檇李恆公，桐谿子，幽谿孫。淡食十年，掩關載半。刺舌端血，書七帙經，僅十旬而告成。噫，難行能行，真不可思議妙行矣。讀其緣起，迴向發願，字字與菩提心相應，當知亦必念念與不可思議境相應也。合掌讚曰，稽首妙經王，實相不思議。權實與本跡，究竟唯一事。稽首天台師，大蘇發妙悟。五玄與四釋，廓徹菩提路。約教揀偏權，觀心融怯怖。杲日麗中天，萬流歸本源。山外徒疑畏，誰知龍樹禪。佛命從茲續，心印從茲傳。故我恆開士，發心同普賢。身命誓不

惜，大願金剛堅。七軸七萬字，字字皆金蓮。佛身全在中，聞見結妙緣。不離此當處，因滿果亦圓。

卓無量普觀圖贊

會依報為蓮華，攝三身為自己。非以身往彼方，非移蓮花到此。欲識個中消息，問取無量卓子。

西齋淨土詩贊

稽首楚石大導師，即是阿彌陀正覺。以茲微妙勝伽陀，令我讀誦當參學。一讀二讀塵念消，三讀四讀染情薄。讀至十百千萬遍，此身已向蓮花托。亦願後來讀誦者，同子畢竟生極樂。還攝無邊念佛人，永破事理分張惡。同居淨故四俱淨，圓融直捷超方略。

十八祖像贊并序略(有引)

佛一心燈，百千分炷，苟可照長夜者，皆佛光也。不藉茲光覺自他，迺於燈檠分彼此，愚矣。夫火之所傳，雖不知其盡，推厥元始，各有攸承。儻知熟食除冥，功用無別，勤身等事，又奚擇焉。然欲廣祠，不勝其夥。由是每事止宗一人，依戒次為先後。不唯尚名專尚實，不唯崇先亦崇盛。庶幾慧照熾然，永爍昏窈云爾。

西土受佛付囑大迦葉尊者(第一)。王舍城，大婆羅門種，名畢鉢羅。身真金色，具三十相。娶紫金光女，了無欲意。出家自誓得戒，見佛竹園，聞法證果，以寶衣易佛糞埽大衣。畢生行頭陀行，佛嘗分半座令坐。涅槃會上，佛告比丘，我今所有無上正法，悉已付囑摩訶迦葉。當為汝等作大依止。佛滅七日，迦葉來赴，既茶毘訖，即共千阿羅漢結集三藏，宏持正法。二十年，次付囑阿難，入定於靈鷲山之雞足峰，持十三條金縷袈裟，待彌勒佛。贊曰，

願居眾人後，不為一物先。縱使不值佛，自成獨覺仙。根深枝乃茂，正法全仔肩。拈花領微旨，結集印真傳。三藏急先務，舍利憑人天。閻浮第二師，裕後亦光前。威德重無比，魔外聞遙蹟。安得再遊此，一滌野狐涎。(拈花事，出大梵王問法決疑經。宋王安石於內院見之藏缺，故禪者不知。)

西土持毘尼藏優波離尊者(第二)。五百釋子將出家，盡脫珍服與優波離。波離念，彼尚能捨，我何戀焉，先往求度。釋子後至，禮上座，至尊者前不禮。佛曰，寧說三世佛是下賤人，勿說優波離是下

賤人也，此人持戒第一，眾中綱紀，人天最尊。釋子禮足，大地六種震動。佛示滅後，迦葉白椎，請尊者登師子座，結集律藏。贊曰，

戒是佛真身，律是僧父母。正法賴此存，人天均恃怙。小大共遵由，何今復何古。稽首眾紀綱，萬世毘尼祖。持犯與開遮，精析超群伍。哀哉末葉中，事理多莽鹵。幸乘悲願來，再作龍蛇主。陶鑄聖凡儔，同為舍那輔。

西土傳持法藏阿難陀尊者(第三)。白飯王子，佛之堂弟，佛成道日生，面如滿月，為佛侍者，多聞第一。佛滅度，迦葉白椎，請登師子座，結集法藏。迦葉寂，宣化幾二十年。於恆河中流，入風奮迅三昧，身分四分，與帝釋，龍王，毘舍離子，阿闍世王，各起塔供養。贊曰，

佛法大海水，流入阿難心。橫莫測其際，豎莫測其深。始似畜聞誤，終得反聞鍼。除病不除法，點鐵便成金。如何生盲類，捨此復他尋。離經墮魔說，執石強作琛。楞伽金剛印，祖意良可欽。此言如不信，更問古觀音。

初來東土迦葉摩騰，竺法蘭二尊者(第四、第五)。東漢明帝夢金人，遣使西求佛道。遇二尊者，於中天竺大月氏，得佛立像，及梵本經六十萬言。載以白馬，達雒陽。於城西雍門外，立白馬寺，譯經四十二章。後五嶽八山道士，上表請試優劣，火焚道經，悉成灰燼。所有咒術，皆不靈應。唯佛經像，光明燦爛，五色徹天，分毫不爽。摩騰湧身飛空，現諸神變。法蘭出大梵音，宣明佛法。天雨寶花，大眾欣悅。摩騰卒，法蘭譯佛本行經等五部。贊曰，

堂堂震旦境，久已蒙佛影。猶俟千餘年，正法乃昭炳。卓哉二大士，神力真勇猛。感應不失時，定慧發深憬。除彼生盲人，誰能見弗省。折伏魔外心，掀翻愛見阱。萬古仰餘暉，碧潭圓月冷。何時復現神，家風頓重整。

初至江南建舍利塔康僧會尊者(第六)。康居國人。赤烏四年，見吳主曰，如來遷化，已逾千載，靈骨舍利，神應無方。吳主曰，舍利可得，當立塔，若無驗，國有常刑。師謂徒曰，大法興廢，在此一舉，當潔齋懇求。七日至三七，眾且懼。忽鏗然有聲，餅中舍利五色。吳主自瀉銅盤，盤即裂。火燒鎚擊，亦無所損。因起浮屠，置建初寺，名地曰佛陀里(即今大報恩寺)。贊曰，

無量戒定慧，莊嚴清淨身。堅固不可壞，應物現奇珍。誰能深諦信，懇到復精純。冥契究竟果，建立菩提因。靈骨文彩古，眾生耳目新。迴超思議表，恆示迷流津。長干佛陀里，塵劫開光輪。莫言此是幻，離幻別無真。

東土初受具戒，朱士行沙門(第七〇時出家者尚存俗姓)。漢魏以來，出家唯受三歸，大沙門無別高貴。鄉公正元元年，曇摩迦羅與曇諦，在洛出四分戒本，受戒羯磨法。沙門朱士行，為受戒之始。甘露五年，講道行般若經(講經之始)。歎譯理未周，乃發跡長安，至于闐國(沙門西遊之始)。得梵本般若，國禁不傳東土。士行請驗以火，無損。王信異，許傳。即寄經東歸，名放光般若。贊曰，

七種得戒中，白羯磨第一。僧寶久住持，最勝無倫匹。佛法入支那，昭彰匪一日。甘露獲先嘗，沙門稱首出。況復登座王，忍衣慈為室。發足始西遊，獲得希有帙。戒慧及神通，堪作群靈率。代遠罔聞知，聊為稽首述。

蓮社始祖慧遠法師(第八)。俗姓賈，雁門樓煩人。幼好學，博綜六經，尤善莊老。二十一歲，師事道安。二十四，大善講貫。晉孝武大元六年，至廬山，夢神告以^母他往。夕大雷電，林壑洞開，素砂布地，梗楠文梓充布地上。九江刺史桓伊，為建東林寺，殿名神運。嘗謂諸種三昧，其名甚眾。功高易進，念佛為先。結社者有十八高賢，及一百二十三眾，皆登安養。時江東經卷未備，禪法無聞，律學多缺。師令弟子，越蔥嶺遠求得之。著法性論，創明涅槃常住之理，什師歎其闇與理合。安帝時，桓玄令沙門拜王，師致書諫止，著沙門不敬王者論。師居山三十年，專修淨業。三見佛，不言。義熙十二年七月晦日，佛來迎云，七日後，當生我國。至八月六日，耆宿請以歧酒治病。師曰，律無通文。又請飲米汁，師曰，日過中矣。又請飲蜜水，乃披律尋文，卷未半，坐逝，壽八十三。贊曰，

念佛三昧寶，圓頓法中王。挺生神聖士，勇猛獨承當。香象截流度，擣丸集眾香。大德矜細行，禪律咸舒光。法性悟常住，僧儀超帝皇。才識邁前哲，密證不自彰。文成印乃壞，怡然返故鄉。高風千古在，歸命附慈航。

初往天竺求律，法顯沙門(第九)。晉安帝隆安二年己亥，從長安發足西往。義熙十二年甲寅，泛海而還。備嘗險阻，具在本傳。贊曰，

稽首勇猛士，發心求戒律。西行不惜身，安知勞與逸。往返十五年，經歷百千怵。但念觀世音，雲開復見日。愍此邊地苦，欲住還東出。去時多同行，來時僅存一。惠我毘尼燈，照我千年室。讀傳憶深恩，血淚如泉澤。

東土禪宗初祖，菩提達磨大師(第十)。南天竺香至王子。西土二十七祖般若多羅付以大法，囑六十年後，往震旦行化。梁大通元年，泛海至廣州。武帝詔見，問曰，如何是聖諦第一義。云，廓然無聖。問，對朕者誰。云，不識。帝不契，遂渡江入魏。止嵩山少林

寺，面壁九年。後付法與二祖慧可，并授袈裟表信。且曰，楞伽四卷，可以印心。往雲門千聖寺坐逝，葬全身於熊耳山。明年宋雲從西域回，遇師隻履手攜，翩翩獨邁。開墳而視，唯空棺隻履。贊曰，

震旦多大乘，昂昂千古英。譬如龍已就，待師一點晴。廓然無聖諦，楞伽印分明。不識真不識，同死不同生。得髓依位立，隻履仍西行。哀哉五葉後，宗說還分爭。經既成名相，坐復同聾盲。誰信安心訣，從來匪涉程。

天台教主智者大師(第十一)。名智顗，字德安，俗姓陳，父梁益陽侯。母徐氏，夢香煙五彩，入懷而妊。生時神光發屋，堯眉舜目，臥即合掌，面必向西。十七誓為沙門，十八出家，二十受具，精通律藏，常樂禪悅。二十三謁思禪師於光州大蘇山。思曰，昔日靈山同聽法華，即示普賢道場，為說四安樂行。昏曉苦到，如教研心，柏盡繼栗，月沒燎松。二七豁然大悟，三十歲遊金陵，三十八入天台。卜居於佛隴，降魔於華頂。陳少主復請住金陵光宅寺，講法華經。隋太子受戒，上師號曰智者。次於荊州玉泉，授關雲長神五戒。說法華玄義，摩訶止觀。五十八歸天台，年六十說諸法門，安坐入寂，藏龕於佛隴西南峰。煬帝大業元年開視，唯空床虛帳而已。生平造寺三十六所，造經十五大藏，造像八十萬軀，剃度萬四千人，傳法者三十二人，得悟者千餘人，三十年唯一納。贊曰，

歸命大教主，人稱小釋迦。本地不可測，示跡乃堪誇。靈相兼堯舜，神德動夷華。權實窮奧旨，歸宗在法華。四辯澍妙雨，兩足嚴大車。止觀傳心印，玄文伏偏斜。永劫述難盡，功若恆河沙。允矣無上士，奚止壓百家。

慈恩教主玄奘法師(第十二)。洛陽陳氏子。十一歲，誦通維摩法華。唐太宗貞觀三年，遊西竺。備嘗險阻，歷百三十國。凡如來化跡，無不禮敬。初欲學龍樹宗，其徒令服藥求長生，方可研宗旨。師本欲求經，恐負宿願，遂學法相於戒賢法師。賢已一百三歲，蒙文殊付託，忍死待師。貞觀十九年東歸，撰西域記，譯地論，唯識大般若經等。高宗麟德元年二月，令眾念彌勒佛，右脅而逝，是夕白虹四道貫并宿。贊曰，

法界無差別，差別無量具。五位百法門，數句非數句。欲悟真圓融，那得廢行布。所以古文殊，苦勸賢師住。奘師既西遊，此道迺有付。稽首瑜伽師，一生補佛處。覆實且施權，誠哉有遠慮。師已契慈心，兜率宮先據。

密教初祖，金剛智灌頂國師(第十三)。西土人，親傳龍智阿闍黎法。唐開元七年，抵廣州，詔入見，館大慈恩寺，圖七俱胝像，令自開

目。明年遷薦福，所至結壇作灌頂道場。二十年八月，告其徒曰，白月圓時，吾逝矣。至期，右遶毘盧像，頂安貝葉，坐逝。贊曰，顯密二種教，各具四悉檀。顯或可擬議，密更難仰鑽。授受有祕印，成就須淨壇。稽首灌頂師，懷道來真丹。圓頓超言象，雲物聊示端。菩提乃宗要，事理非偏安。傳至金剛手，醍醐佛所歎。遶像頂貝葉，萬古月同看。

清涼教主澄觀國師(第十四)會稽人，姓夏侯。十四歲誦法華經得度。先學律，次學論，次學賢首宗，次從荊谿學台宗，次遍學南北二宗。凡此土儒老，竺乾梵書，外部異計，四韋五明，顯密儀軌，莫不旁通。居大華嚴寺，專行方等懺法。講華嚴經，造新疏，及演義鈔。壽一百二歲，臘八十三。身九尺四寸，手垂過膝，夜日發光，晝仍不瞬。才供二筆，日記萬言。十誓律身，盡形一食。歷九朝為七帝師，講華嚴至五十遍，建無遮大會十五會，宏法弟子三十八人。贊曰，

華嚴法界海，萬派咸朝宗。不有大龍象，誰能力宏通。十玄啟深奧，六相明圓融。性相既非二，生佛豈異同。福慧超今古，儀表等世雄。宗說分復合，乘戒替還隆。重重十法界，馥馥十誓風。稽首調御師，千載開盲聾。

會歸宗鏡，永明大禪師(第十五)。名延壽，字冲玄。吳越王時為稅務，用官錢放生，當棄市，臨刃色不變。貸命，出家，得法於韶國師。九旬入定，鳥巢衣衾，行法華懺。見普賢執蓮花在手，特上天台智者巖，作甲乙二鬪，甲一生禪定，乙誦經萬善莊嚴淨土，七度得乙鬪，於是專修淨業。誦經三載，觀音以甘露灌其口，日課一百八事，未嘗暫廢。師以天台賢首慈恩三宗互異，乃館其徒之知法者，博閱義海，更相質難，而衡以心宗。又集大乘經論六十部，兩土聖賢三百家之言，證成唯心之旨。為宗鏡錄百卷，及萬善同歸集等。師坐逝後，有臨川比丘，病入冥，見閻王拜師像云，於西方上品受生矣。贊曰，

法法本唯心，何同復何異。哀哉罔殆流，執語迷實義。各隨遍計情，爭立我人幟。吾師集大成，萬善歸同智。向上最玄機，日課百八事。高登上品蓮，幽冥亦翹企。宗鏡照大千，生盲罕知利。安得師再來，重聞天樂瑞。

得戒和尚，雲棲大師(第十六)。諱株宏，字佛慧，別號蓮池。古杭人，姓沈，少為名儒。三十歲出家，參遍融等大老，密有契悟。住靜雲棲，不覺成叢席。專修淨土，敦尚戒律。不拈機緣，不稱方丈，不崇殿閣，不侈衣食。以平易老實，力挽浮風。凡警策大眾，開示出生死事，未嘗不聲淚俱下。放生結緣，施食作福，不計其數。年八十二示寂。旭少為邪師所誤，力詆三寶，聞大師自知錄

序，始轉邪心。廿四出家，入山作務，見規約中，有學戒式。遂發菩提心，胡跪大師像前，然香頂受二種戒本，以附私淑之科。贊曰，

宣尼讓聖仁，堯舜稱猶病。大道曠無涯，如何一蹴盡。嗟此澆漓時，人各爭高峻。言行每相違，欺世同梟獍。卓哉真導師，懲俗從先進。制作似孔周，謙退如臨浚。悲予發心遲，弗獲親慈訓。稽首奉遺容，願作蓮邦胤。

刻書本藏，紫柏大師(第十七)諱真可，字達觀，別號紫柏，吳江沈氏子。行腳時，因疑張拙偈大悟。參遍融尊宿，願嗣其德。師念大藏卷帙重多，遐方僻陋，有不聞法名者。倡刻方冊，以便流通。設遇輕謗，願自代罪。令處處見聞經法，作金剛種，皆大師力也。大法自任，絕無我相。心直口快，不顧時忌。發願入狴獄酬宿債，獄中度無量人。乃說偈坐逝，壽六十一。越十一年，愍大師荼毘之，舍利無數。生平專持毘舍浮佛偈，亦以示人。四十餘年，脅不著席，不見女人，常露坐不避風霜。重興梵剎十五所。古宿語錄，若寂音尊者所著論文，世所不聞，盡搜刻之。贊曰，

僧風久不振。挺生大聖賢。愛見一握斬，法道全仔肩。雄猛超龍象，悲誓證無緣。深知教外旨，終藉文字傳。創刻方冊藏，助顯直指禪。圓中酬宿債，來去胡翩翩。舍利鎮雙徑，半偈功已圓。愧我瞠乎後，何時受策鞭。

夢中接引憨山大師(第十八)。諱德清，字澄印，別號憨山，和州人，姓蔡。生時白衣重包，浴水異香，口如仰月，眉五彩，髮紺青色。十二歲出家，二十六入燕，盤山住月餘，身世豁空。胡順菴署中，入定一七，皆無取著。住五臺八年，夢法界圓融觀境，又夢昇彌勒樓閣，聞說識智差別之義。次住東海牢山，豁悟楞嚴觀境。後因方士流言，逮下詔獄，受種種刑，神色不異，夢大士安慰。以百萬生靈託之。遣戍雷陽，力清曹谿祖庭，為靈通侍者受戒。代戴督府出師征撫猺獞，果救百萬餘命。晚赦歸南嶽，次住匡山五乳峰。閉關念佛，晝夜六時，各課萬聲。庚申雪嶺峻師登山問安，旭寄香一瓣，蒙大師慈札獎導，偈語開示。辛酉大師復住曹谿，壬戌旭決志出家，三夢大師接引。恨駑劣不能遠趨，乃求峻師剃髮，以是大師所讚許也。癸亥冬，旭在天台打七，忽夢大師容稍憔悴，似有所囑。後知正屬示寂時矣。壽七十八，龕遷曹谿。歷年二十，開視之，全身堅固，衣服鮮明，爪髮俱長，皮膚黃白，光潤如生。遂金漆護之，同六祖肉身供養。贊曰，

長干佛陀里，閒出名世豪。氣宇似王者，筆陣若江濤。宗教任遊戲，真俗隨逍遙。履險不異坦，就卑能屈高。賢智望且怖，愚劣

親可翹。生平半疑信，末後始解嘲。示我歸路穩，哀哉甘自逃。
稽首慈誓力，終當為我招。

自像贊三十三首

謂爾為禪，門庭弗專。謂爾為教，瓣香弗宣。謂爾為律，標榜弗虔。形骸枯槁兮神情自豐，資性鈍拙兮詮辯自雄。觸著渠兮猛虎毒龍，識得渠兮和氣春風。據爾一狀自首漫云，憲章紫柏可，祖述永明壽。仔細檢點將來，不免萬年遺臭。

踢翻禪講窠臼，掀開佛祖頭顱。筆底轟雷掣電，舌尖餅水盤珠。只有一端可笑，依然具縛凡夫。

學無常師，交無擇友。重實輕名，慈心毒口。有時似孩提之童，有時似喪家之狗。不解趨吉避凶，安知推薄居厚。踏破谿山萬朵雲，人前處處揚家醜。

抱嬰杵之苦思，蒙李陵之垢辱。眼孔燦破太空，行履渾無可錄。廢既中清中權，隱居放言成局。讚毀一任諸方，智旭元是智旭。參禪禪不悟，看教教不深。持戒不具足，念佛不一心。慣掉掣空臂，出入荊棘林。訶佛亦罵祖，狎獸兼友禽。全身等微羽，片語重千金。支那國裏留個硜硜小人種，千古萬古未審誰知音。

咄哉鍾大郎，忒煞無拘束。日夜恣無明，增長貪瞋毒。自讚復毀他，指直還作曲。玩弄佛與魔，顛倒真與俗。舉筆動舌時，每使鬼神哭。人說你聰明，我說你木梔。孟浪過一生，究竟結何局。不是生西方，便是墮地獄。

單提極則正令，不墮今時窠窟。假饒黃蘗雲門，未免遭吾一擲。且道向上一句，畢竟是個甚麼。合掌稱云，南無阿彌陀佛。（念佛像，下八首同。）

不度德，不量力。妄欲砥柱中流，誰道連身汨沒。努力扒將起來，未免筋疲骨仄。賴有金剛種子，從來不受侵蝕。彌陀一句作津梁，阿鼻直達安樂國。

好個不唧溜漢，前後絕無思算。佛法講得許多，煩惱何曾少斷。雖然瑕不掩瑜，爭柰夜猶未旦。只有西方路熟，且喜救得一半。直待彌勒下生，方了者重公案。

信得是心是佛，乃信是心作佛。所以枯坐喃喃，豈念阿彌陀佛。偏要記串記千，不學瞞頂鶻突。無論專心散心，聲聲滅罪八十億劫。假使眾生界盡，虛空界盡，我此持名，終無休歇。

不願成佛，不求作祖。不肯從今，不敢畔古。念念思歸極樂鄉，心心只畏娑婆苦。六字彌陀是話頭，千磨百難誰能阻。天下元非手可援，且學顏淵權閉戶。直待西方去復來，普與塵沙擊法鼓。

願大不遺塵界，膽小怕墮地獄。見人嬉笑滿容，禮佛悲哀痛哭。終日輪串數珠，唯恐萬聲未足。縱有一隙獨明，且無片長可錄。只圖下品蓮生，便是終身定局。豈敢大言欺世，致使法門受辱。野性懶且癖，獨與竹石宜。泉聲演佛號，助我西方思。有時瞑目坐，遙隨落日馳。有時高聲呼，懸想母憶兒。頗信感應理，寧復惑他歧。須彌或傾動，我志不可移。哀哉生死夢，痼疾誰能醫。庶幾一丘壑，聊免蠅蝸癡。

生平少實德，此像何勞傳。獨有不欺心，較勝近日禪。願居眾人後，不為一物先。四儀持佛號，弗論散與專。信願終無貳，定育珍池蓮。與爾眾上善，歷劫形神聯。

不參禪，不學教，彌陀一句真心要。不談玄，不說妙，數珠一串真風調。由他譏，任他笑，念不沈兮亦不掉。晝夜稱名誓弗忘，專待慈尊光裏召。懸知蓮萼已標名，請君同上慈悲造。

徑山樓下，迷卻父母生身。永慶堂中，依稀指鹿為馬。九華靜室，曾喫腐滓糝糠。靈峰藏堂，又復違於時夏。而今向此枯樹裏，胡思亂想作麼。咄，忽遇樹倒藤枯，且喜相隨來也。(枯樹入

禪像)

若欲利人，何不向萬眾叢席揚名。若欲自利，何不向萬山深處藏身。看你進退失據，昧卻發覺初因。雖然被他簡點，且喜有理可申。不願一日賣得千擔假，但願千日賣不得一擔真。(說法相)

行年五十，猶未知非。七顛八倒，簸舌鼓皮。見惡不省，見善不齊。胡思亂想，惹謗招疑。踢破性相兩家界限，翻倒南宗北教藩籬。有時不恭，則濫同下惠。有時褊隘，則彷彿伯夷。獨得一點好訣竅，失便宜處占便宜。

毘盧頂上，不肯安身立命。跛驢腳邊，偏要尺退寸進。可憐五十年來，難得半時寧靜。未知性具圓宗，枉向鉢盂討柄。已悟性惡法門，元來即是病行。

猶憶十二三時，便要豎賢聖幟。而今五十餘年，何嘗知得天德。況進思三十未立，四十多惑。既不堪作宣尼子孫，又豈堪稱釋迦兒息。仔細簡將來，只是一個騙飯喫的老賊。

胸中沒半個字腳，筆下有萬卷詩書。肚裏無分毫芥蒂，舌頭有多少毀譽。好像一科大樹，只是其名曰樗。(著述相)

也是百萬人天知識，也是三家村裏學究。也是戒定慧的前茅，也是貪瞋癡的領袖。只因沒有的確師承，到底只是個八不就。

生平過失深重，猶幸頗知內訟。渾身瑕玷如芒，猶幸不敢覆藏。藉此慚愧種子，方堪送想樂邦。以茲真語實語，兼欲寄誠諸方。不必學他口中，爛翻五宗八教。且先學他一點，樸樸實實心腸。

昔年融師會裏，或曾燒火埽地。所以今在幽棲，妄拈第一義諦。不涉擬議思量，不離語言文字。人天大眾未免驚疑，賴有湛公堪作證質。切勿將此醜容，竄入百祖隊中。但可留與兒孫，作箇古董玩器。

註盡十二部經，不曾增減一字。講盡八萬律儀，不曾行得一事。釋迦如來，喚作不肖醜兒。彌勒世尊，訶為癡頑傲弟。獨有阿彌陀佛，藏垢納汙，金手接向下品蓮花安置。

稽首蕩益真，頂戴如來像。此像既非真，此真寧有兩。諦觀像與真，唯是自心想。心不屬聖凡，聖凡乃並朗。凡夫坐蒲團，聖應居其上。凡因企聖果，分明示諸掌。念念恆現前，形影終無爽。我亦信弗疑，爾亦安毋強。覲面語默忘，何勞復助長。鎮古但如斯，不覓時流賞。欲從亦末由，寧思更鑽仰。白日臨青天，遍界消魑魍。愚昧任譏嗤，龍神任稽顙。箇事絕成虧，十尺元一丈。但駕慈悲航，同搖般若槳。法界為津梁，直尋豈尺枉。更問古觀音，方知若應響。

蘊慈合掌問持戒，我說持戒須蘊慈。慈是下化眾生本，慈是上求佛道基。不殺不盜不婬妄，拔苦與樂功甚奇。專護性遮令清淨，仍須念佛求生西。設不求生極樂國，只恐仍遭隔陰迷。設能信願求彼土，雖曾有犯亦成機。是以我今但念佛，一句彌陀法界師。不勞學漱趙州口，不勞學奮雲門威。聲聲坐斷聖凡路，四句咸離絕百非。三身四德觀體露，爍破烏空鼠即癡。蘊慈蘊慈應諦信，佛號圓成八萬儀。

人知其貶古斥今，不思忌諱。不知其談教說禪，不立文字。上法座兮口若懸河，下法座兮目無所視。從朝至暮稱阿彌，矻矻孳孳將數記。三十年來不改弦，從茲堪盡未來際。十種可盡念無盡，一切三昧一三昧。具縛凡夫甚希有，決不妄言聖賢位。蒼暉若欲恆相隨，剎那勇發菩提志。

蒼雲傳我容，問我何行腳。我行苦且長，為君說其略。十二從外傳，立志為聖學。誤造謗法罪，幾至大墮落。十七聞佛言，幡然始改惡。二十丁父憂，悲極如夢覺。見地藏本願，且哭且欣躍。次年書懺法暉酒戒不卻。廿三聽楞嚴，急參者一著。廿四逃出家。處處遍尋摸。雲棲及雙徑，天台來往數。但自究根源，不問他人約。甫得門路清，遂遇境緣虐。虛名日已彰，功行日以弱。至年三十八，大病為良藥。高臥九子峰，糠滓堪咀嚼。甫註梵網經，遂有溫陵約。抱病述玄文，抉開千古膜。從閩至吳興，乃到長干郭。註述雖云富，將錯還就錯。今年五十三，依然是具縛。損己以利人，古聖所嗟愕。深悔亦較遲，靈峰聊暫托。一句阿彌陀，堪為良夜柝。汝但挹我清，勿更同予濁。

露出孃生半身，數出今生敗缺。慕憨翁之擔當法門，不能學其不避斧鉞。慕雪浪之力埽葛藤，不宜學其一味輕忽。慕雲棲之盛德謙光，不能學其廣作舟筏。慕壽昌之真參實悟，不能學其到底不歇。慕幽谿之中興台觀，不宜學其單守一櫬。慕顥愚之冰霜操履，不能學其大辯若訥。願學紫柏之宗教圓明，遠不及其純鋼鑄骨。噫，此是吳門不唧溜的鍾振之，而今又喚作北天目的老砣砣。幾翻鼓翼欲騰空，幾翻又向荒原蹶。只有一句阿彌陀佛認得真，源泉畢竟歸滄渤。

生平不解藏拙，露此賊私頑劣。說起彷彿依稀，覲面何嘗親切。賴有一串數珠，卻是生平祕訣。所以喚作蕩益，未是證龜為鱉。寄語理安法友，不必思量分別。但如丁蘭事親，管取刺之出血。此是蕩益道人，生平不善逃名。處處藏頭露尾，可恥聲聞過情。偶向豐南揚家醜，天鼓毒鼓仍齊鳴。勦絕百千歧曲路，直教同作蓮邦民。

平生自救不了，只為門前之遶。而今始解藏身，驀入靈峰深島。拋開世上繩鞭，取足山中水草。少室天台盡踏翻，東土西天皆觸倒。簡點身心過失多，徘徊今古知音少。畢竟誰為楊子雲，問取禾城姚廣老。

靈峰蕩益大師宗論卷第九之四

詩偈一

將出家與叔氏言別

世變不可測，此心千古然。無限他山意，丁寧不在言。

一筆句

湛海浮漚，起滅無端何日休。目瞥空花有，瞥盡花存否(㗎)。莫更往迷流，酸辛獨受。知妄無因，當體元如舊。因此把世界身心一筆句。

乙丑翻一筆句

海湛漚浮，本自無端豈更休。目瞥花非有，瞥盡花亡否(㗎)。及早悟真流，安然正受。知幻即離，那有新和舊。把甚麼世界身心一筆句。

結制

婁然一鉢別無能，沒伎尋常粥飯僧。結夏豈甘違佛制，譚經元不落聲塵。鑊頭青嶂堪埋骨，鏡面霜莖未有憑。預恣同仁相策勵，不須門外設三乘。

解制

結制暑方盛，解制涼風作。倏忽淹九旬，光華易殂落。田禾青漸黃，河水流且涸。緬想日用中，猶是倚與託。偃月譚了義，幽室病為藥。安居竟何益，況復將行腳。他山雖入夢，只恐原如昨。

丙寅季夏先慈捐世賦四念處以寫哀

恩愛迷情，四大緣生妄有身。膿血交相潤，臭穢常無盡(㗎)。饒你會莊矜，畫囊盛糞。一旦神離，不復堪親近，切莫把未爛骷髏

認作真。(觀身不淨)

妄想驅馳，吸攬前塵作所依。業感原無意，苦樂隨因異(㗎)。苦果實堪悲，酸辛難比。世樂雖榮，享盡愁還至，切莫把五欲塵勞枉自迷。(觀受是苦)

迷卻真常，緣氣紛紜集一腔。離彼前塵相，分別成何狀(㗎)。饒你會思量，終歸罔象。過未無蹤，現在原長往，切莫把流注心機作主張。(觀心無常)

藏性周圓，循業隨心法法全。和合因緣外，戲論須排遣(㗎)。外道枉糾纏，盲無慧眼。妙有真空，覓我同陽燄，切莫把十界依他作本然。(觀法無我)

解制自弔示諸友

舊年結夏彭水濱，今年結夏姑蘇城。舊年解制母尚在，今年解制徒傷情。出世大孝未有當，嗚呼今且為窮氓。剋期取果昔何狡，四載有餘徒自撓。忽忽不念死將至，辜負吾衣色用皂。清霄每自呻，腸轉向誰陳。名聞利養自昔不常在，袈裟一失千古萬古終沈淪。

戊辰春刺舌端血留別諸友八偈之二

教觀功難剋，橫超念最賢。一聲佛號處，已侍世尊前。參究雖云頓，嗟今倍復難。小安成大妄，何似用金磚。

壽兄得廣參博訪闡賦贈

覺皇時已邁，含識方遺本。執教逞空譚，依禪思多瞞。正法遺繁憂，疇作自心懣，有懷惺谷壽，與我同所忖。我以千古交，搜精用補袞。君以百城歷，取益開群饨。兩塗各馳騁，厥旨適非遠。知君飲法流，終不猶河鼃。願君有日益，我願能日損。

和歸一籌兄

破家蕩產英雄事，閨閣微貲婦寺憐。縱博萬場今日始，一塵便可注三千。

惺谷壽得出家闡，將往博山薙髮。二首

昔年相識五雲閒，何似今朝契更專。其過訟應深激勵，他山石不習柔便。春回頓改殘冬色，雪積逾增翠竹妍。從此共祛寒氣盡，悠悠舜日與堯天。

去年愛我亦芬芳，獨善為懷兌可商。破格一朝誠不易，匡扶千古豈尋常。芒鞋破處腳跟穩，拄杖回時手眼良。寄語守株門下客，同將祖道苦茗嘗。

次惠安

法林凋謝不能春，黃葉秋風嗌愈臻。圓頂方袍雖遍界，忘身為法果誰人。

曹溪行呈無異禪師(有序)

不肖旭，初信佛法，聞有等假稱悟道，誑惑世人，甚傷之。讀博山警語，竊喜正法猶在。私謂一種良方耳。後見山中禪客，惟一句死話頭。不為優免牌，便為繫驢橛。入理處尚不可得，況向上一著不住於理者邪。邇年狂罔，往往有謗博山者，方疑必有不同流俗處，故感惡言供養，訪於惺谷。谷曰，不能如大醫王，善療眾病，而破癰拔毒一科，所專精也。不能如主兵臣，盡征不服，而搜奸察偽守關老吏也。於是匍匐參請，方知大師乘大願，具大力，運大悲，擴大量，果與諸方不同。藐予小子，以禪治惑，以律扶衰，雖一刀直入，不能為嫡骨之兒。而三學相階，亦可作白茅之藉。況與惺谷壽交，於師有伯父誼，敬賦俚言。

法王示寂朝日冥，眾聖不住暮拂電。狐涎猩臭濺九州，獅猊喘息僅如線。此時不有至人弔，孰與群生摧怨敵。吾師愍此乘願來，直飲曹溪源一滴。一滴沾腹徹骨康，出窟嚙呻增威力。四望高吼聲未極，百獸踰[跳-兆+(滕-月)]驚避匿。堪嗟野干詐相親，拾取餘殘誑他國。自慚不具超方眼，以耳為目寧相識。今日相逢非偶然，嗣法無緣聊嗣德。願將一滴曹溪源，衍作百千大海減。願將法海百千流，匯作曹溪源莫測。九陞能令簾幙高，三宗莫作鼎足勒。藐爾予懷庶可舒，從茲共作能仁翊。

贈壁如兄掩關用博山原韻

蕭然一室勝嵩山，覷破禪機只等閒。但莫將心擬牆壁，去來何處不長安。

贈戒珠(有序)

戒珠禪兄，鳳陽天長馬氏子。割股救父，剖肝救母。迨二尊謝世，遂薙染，願入予淨社，拈此。
毘尼禪觀互莊嚴，攜手同歸極樂天。贏得孝思為行本，戒珠朗握照三千。

攝山

身棲碧霞外，目攝亂山峰。最是關情事，江帆萬里風。

贈澹居大德血書華嚴經

萬滴書成法界經，十王滴滴放光明。南詢末後一句子，不墮狂禪鼠唧鳴。

警遂徵

日照紙窗明，驀然起悲思。但有好順人，曾無剛烈志。猶如彼癡蠅，只向窗前滯。不肯猛回頭，云何得出世。

淨土偈十四首(有序)

博山禪師，拈淨土偈，每云淨心即是西方土，蓋以因攝果也。讀者不達，遂至以理奪事，幾成破法。予觸耳感懷，每拈西方即是唯心土，俾以事扶理，聊附補偏救弊之職云。

西方即是唯心土，無上深禪不用參。佛向念中全體露，更生疑慮太癡憨。

西方即是唯心土，離土譚心實倒顛。念念總皆歸佛海，生盲重覓祖師禪。

西方即是唯心土，得見彌陀始悟心。寸土不存非斷滅，堂堂相好寂光身。

西方即是唯心土，欲悟惟心但念西。舌相廣長專為此，更求玄妙抑何癡。

西方即是唯心土，無相非從相外求。擬欲將心取無相，靈龜曳尾轉堪憂。

西方即是唯心土，未識西方豈識心。逝子謬希圓頓解，拾將落葉作黃金。

西方即是唯心土，更覓唯心見已違。光影揣摩成活計，蓮邦何日薄言歸。

西方即是唯心土，擬撥西方理便乖。極樂一塵同剎海，假饒天眼未知涯。

西方即是唯心土，趁到同居第一關。但得九蓮能托質，寂光何慮不時還。

西方即是唯心土，土淨方知心體空。一切境風猶挂念，云何妄說任西東。

西方即是唯心土，莫把唯心旨趣誣。迷悟去來元藏性，謾言平等卻成迂。

西方即是唯心土，白藕池開不用栽。一念頓教歸佛海，何勞少室與天台。

西方即是唯心土，三昧中王道最微。瞥爾生疑千古隔，咬釘嚼鐵莫依違。

西方即是唯心土，慧日高懸第一機。事理雙融真淨業，現前何法不玄微。

和不我

每歎宗乘事已非，盲修瞎鍊欲何為。知君獨具超方眼，枯木巖前路豈迷。

示智恆字鑑如

鑑徹真如體，元光本自恆。瞥生明覺妄，幻作寂空塵。了了元無物，方宜拂拭勤。秀能親切旨，會得不須分。

示用恆薙髮

明心好向三皈始，立志還從五戒先。勤苦不辭成福聚，誦持無闕悟靈源。

示寶所

著有落人天，著空墮三惡。惟有西方土，超出有無縛。熾然求往生，莫復存疑想。介爾纔躊躇，偏邪見日長。思量分別法，謗於真智慧。永劫沈深坑，諸佛無能濟。種麥少蹋土，亦勿乘空取。中行踐實地，疾得到寶所。

過橋李東塔見人上堂有感二首

樹杪聲聲泣露哀，岸舟魚背漫相猜。宗乘頓逐東流下，觸目難禁淚滿腮。

一滴狐涎徹體腥，當陽鴉立法王庭。卻慚普眼能弘護，猶使天人掩耳聽。

聾人聽曲啞人歌，跛躄相將共伐柯。今日已成冥暗界，不知向後又如何。

己巳再閱律藏示歸一諸兄二偈

歲晚寒方盛，安居藉道暉。愛逾冬月日，箴比佩弦韋。顧命宜頻想，時艱願早揮。此緣良不易，幸勿更依違。

自愧非堅質，匡扶賴友朋。感茲英俊士，甘作劣庸憑。皈命猶嫌晚，忘身亦所應。服勤函丈內，佇望雅相矜。

贈參己

盡大地是箇自己，彌陀亦在裏許安身。盡法界不出彌陀一毛孔光明，自己更向何處著腳。念念彌陀念念己，自他不隔是真參。若從少室求端的，鈍置己靈深可憐。故今參己無別事，六時長憶紫金仙。

贈若雲

盡說乘為急，誰知戒不迂。缶餅難貯乳，魚目豈成珠。剎海遵遺教，朝宗向樂都。淨因期共勗，力挽末時趨。

警壽兄

蝨多不癢，債多不愁。世人昧昧，何足與儔。一芥翳天，一塵覆地。最要防閑，學人習氣。未預法流，止名乾慧。開眼尿床，倍堪慚愧。欲臻二利，須慎細德。輪翼不虧，高遠無失。

割股救惺谷兄

幻緣和合受茲身，欲剜千瘡愧未能。爪許薄皮聊奉供，用酬嚴憚切磋恩。

荅初平發願偈

有願無行，如人無足。有行無願，如盲無導。信步前行，嶮惡難保。丁茲末季，法弱魔強。縱有乾慧，猶難穩足。況雖立志，慧眼未開。今生不度，更待何生。阿彌陀佛，大願深慈。如母憶子，子何弗思。若不至心，早暮回向。悠悠緩縱，即逃逝人。非必訶謗，乃名逃逝。汝今已能，奮然自新。當知珍池，斯萌蓮蕊。從今數發，相續不斷。斯可名為，勇猛丈夫。如或未然，仍前習氣。始勤終惰，口向心背。既非菩薩，亦非二乘。常在三界，出沒輪迴。自未能度，云何度人。如被漂者，欲拯岸行。如癩病者，賣瘡癬藥。愚癡顛倒，舉世所嗤。汝既發心，我深隨喜。復為勸助，使得堅忍。同覲慈尊，共化塵刹。盡未來際，永矢弗諼。願汝精勤，先成佛道。我作文殊，助汝揚化。

示初平發心

莫謂菩提心難發，屠刀放下立成佛。莫謂菩提心易發，杯水豈停鼎內沸。欲明曠劫大因緣，先把生平懷抱拂。眼前活計若關情，本地風光終受屈。勸君速發難發心，為仁由己非由物。

聞謗

所言若有實，三根何名謗。所言若無實，不干亦豈謗。若以語言為謗事，後字未出前音沒。若以文書為謗事，白者是紙黑是墨。謗安在。云何忸，四大空，蘊非我。誰能謗，謗誰受，既無瞋憾，應發悲心。我由無始迷本覺，幻業積怨成稠林。是故今日惡口加，皆因往昔自業侵。又復修道未精確，威德尠劣致群疑。若不慚愧自克治，損彼損己罪所基。我因謗，增智斷，謗者速圓恩德。恩圓即是如來，智斷德滿成佛。謗為明鏡戚我醜，謗為甘露飲我藥。謗是炎時清涼風，謗是睡時大鼓角。謗為法界趣不過，謗謗共登無上覺。

輓惺谷壽兄

徹底婆心未肯休，當場業運已遷流。浮漚影逐虛緣散，熱血腥同實際留。射日果然難下手，為人須是再低頭。臨行贈汝無多子，一句彌陀作大舟。

示存朴

欲作法王臣，是玉善自養。止惡無刑懲，行善無穀獎。三業並緣慈，四儀恆勿爽。戒為勝瓔珞，忍是堅鎧仗。習氣漸漸消，定慧油油長。捨卻片時謀，方獲剎塵謫。彈指非昔人，速出娑婆網。

示諸四完

丈夫志氣在千秋，自立從容貴學優。斯語直教言下信，浮雲豈向世閒求。山河國土空中影，事業功名水上漚。觸著儒童聲慟處，蓮華寶地共遨遊。

示涵宏

欲求出世慧，先斷世閒愚。身界元非實，根塵性本無。聞思宜自勗，名利不堪娛。念莫馳情境，躬恆慎所趨。三歸知究竟，十戒握機樞。和忍成心德，精勤作勝謨。持經神在定，憶佛智能孚。曳轉從前履，超登最上衢。

警初平

末劫修行，少成多殆。慎勿師心，硬作主宰。觀色察言，如臨如在。謙恭牧己，毋思露彩。但省我非，不念人罪。八喻銘心，恆觀法海。虛矯未除，真味斯餒。

山中三首

幻境冥無定，菩提志自堅。已知身世累，寧被利名遷。宴寂箋書後，譚經受食前。懶從商四事，一鉢是良田。不問人閒世，惟參第一天。諦從觀境發，火必指薪傳。未識兼山艮，徒勞夕惕乾。塵緣能頓謝，正法可全肩。麗澤功非細，膏肓亦可痊。名言醒渴夢，快論入深禪。步履宗先哲，規繩啟後賢。摩尼奚足羨，戒月燭三千。

哭慧濟示權律主

永歎毘尼苑，於今久已荒。開遮誰實諳，輕重幾曾商。既切橫流痛，恆歌如玉章。天傾扶律者，誰與共譚常。

托鉢有懷

同盟有四士，二友已馳西。獨賴伯與仲，相期提且撕。慧基欣不遠，玄德憾猶睽。末後未明句，何時共醒迷。

卜居十八事(有序)

順歸師雅癖，奉大士慈命，誅茅西湖。不敢自暴棄，隨事拈一偈。

一般從地發，肥瘠為誰殊。信手和根取，僧前翠滿盂。(摘蔬)
油必先時用，鹽宜熟後加。何須覓香料，火到味能奢。(烹菜)
黃梁冷水下，白粲沸湯應。切忌無端動，氤氳任運騰。(作飯)
五沸占湯候，三投驗適時。從來清逸味，不許醉翁知。(點茶)
散專恆順勢，文武亦隨機。析盡薪窮際，灰從何處飛。(然火)
幾人新舊位，碗鉢數分明。只恐堂中客，貪嘗不溼羹。(行堂)
滌器先除滓，無令餘膩留。低聲歸本處，鍼咽未生愁。(淨碗)
帶水拖泥去，搬磚運瓦來。鮮魚與甕鱉，滿面且蒙埃。(直院)
果因真不昧，取與自無私。為問生薑辣，於今味孰知。(知庫)
問訊常先意，寒溫任所宜。現成茶一盞，莫受趙州欺。(待客)
隨智隨情說，同條復異枝。聲前一著子，留待當家兒。(答問)
強變機原異，剛柔克亦殊。氣平心息後，這著可曾輸。(調諍)
無上明王印，寒潭月一輪。八風吹不破，冰雪亦陽春。(持咒)
慈尊無量號，介爾有心含。生佛原非隔，深禪何必參。(念佛)
好事不如無，莫作死句會。一任能所分，從來非性外。(禮拜)
瞥爾依他起，來蹤何處尋。剎那生即滅，萬古自長今。(觀心)
乞士原吾號，巡家豈擇貧。不求應供果，等施倍關情。(托鉢)
高枕長舒腳，寧愁明日糧。幾多顛倒夢，醒後一齊忘。(宴息)

法臣歌為聞道侍者(有序)

密藏開禪師隱去，聞道尚未薙髮。從曾水部處歸，覓師不得，遂痛哭而殂。陸行之為予言之。

四大海水母乳盈，昆富羅山積骨均。荊軻聶政未稱英，田橫五百超等倫。何況投誠事知識，傳來半偈堪知津。雪山大士標榜在，可憐流俗多邪因。順之則喜逆則瞋，遠之則忘近始親。藏公隱去音如金，聞道孤臣身為塵。人謂生死乃永隔，寧知火傳非由薪。君不見，比丘畏渴飲蟲水，何如渴死先發真。

示戒明

慢為功德賊，勤為善法王。福水慧舟楫，無水舟不行。欲求真實慧，莫從口耳商。苦志勞筋骨，大任乃克將。福至心忽開，妙義能頓彰。深造既自得，世智誰可量。

胡勞歎

為問丈夫兒，胡勞發浩歎。娑婆本苦空，理欲原冰炭。矢作奇男子，空行已驚憚。沉復魔網稠，觸處皆危難。冥冥三界中，何時夜方旦。所以出世賓，每勤如幻觀。歲寒松柏榮，爐熾金聚燦。逆境是良師，止貴衷不亂。坐斷生死情，當處即彼岸。放下祖生鞭，拈起秦時鑽。為問丈夫兒，胡勞發浩歎。

病中寫懷十偈

俄爾西山俄爾東，依依師友念何窮。長空鴈影元無住，未肯終為舊阿蒙。
中原逐鹿苦無虞，一卷殘經且自劬。了得目前無剩法，威音那畔卻成輸。
三生玉食夢中灰，瞪發勞生孟浪猜。寄語靈山親付囑，夜光彈雀事堪哀。
宣文伎倆愧迦文，吹散青雲附白雲。堪歎緇林名傑士，落花流水亂紛紛。
萬藤多少倩誰刪，高駕長驅莫問關。飲器失聲猶未瞥，象王已過萬重山。
趨避因緣問六爻，祝人無計代烹庖。應真有骨遺荒野，賺得耆婆仔細敲。
誰將鴉臭立當陽，惹得兒孫日夜狂。滅卻本宗無實法，幾多熱鬧一時涼。
黃花鬱鬱竹青青，般若真如語太腥。見色聞聲隨分過，羞他矯強設門庭。
最苦娑婆邪見蒸，禪門如炭教如冰。生心無住金剛印，愧殺黃梅與惠能。
色裏膠青水裏鹽，依稀彷彿最堪嫌。黃連食盡無非苦，石蜜中邊盡是甜。

題夏貞婦卷

君不見，慚愧無衣赴火人，須臾具足梵天身。誠語誓出婦之貞，象王產難斯開頻。由來一死未稱英，嗚呼此意疇能真。侍孤親，腸欲斷。極樂邦，看冷暖。迴將血淚入珍池，不動凡區聖因滿。欄楯層層樹影重，何妨遍列娑婆伴。

懷魯仲連

戰國有奇士，高譚恥帝秦。抵掌解紛難，而非儀衍脣。千金笑不顧，終身居海濱。廉潔豈足慕，義重非甘貧。我悲士習陋，競作名利臣。醜扇與蛆蟲，簪笏而垂紳。讀史發永歎，滔滔千古淪。

示費敬齋

惡業雖本空，業緣每鬱鬱。不從作法門，終受幻罪籠。不觀實相心，魔宮無自動。慚愧既交攻，理事須一統。君不見，善星妄說法元空，長夜泥犁何日曠。涅槃會上未生怨，打破從前黑漆桶。

別友

湖海浮游十五年，腳跟芒屨幾番穿。守株緣木時師口，兔角龜毛教外傳。萬竅悲風號控地，千腸血淚浸稽天。殷勤付與同仁士，徹底掀翻且熟眠。

入山二偈

辯才如雨筆如雲，八兩依然是半斤。介爾一心誰信具，不如直下自聞熏。

眾生良藥無如病，病極形枯心亦灰。遍界春風放桃李，長肱猶似未聞雷。

靈峰蕩益大師宗論卷第十之一

靈峰蕩益大師宗論卷第十之二

詩偈二

山居六十二偈(有序)

抱病入山，了大事不暇。暇哦乎，然有不容默者，不向哦中來。儻得意忘言，未必非大事之一助也。

一自芒鞋破，從教萬慮慵。短衫堪度夏，敝襖復經冬。坐起餘長嘯，譚時僅短鋒。晨昏伴幽寂，崖上幾聲鐘。
一病五百日，形神並已枯。緇素偶相值，稱我為禪臞。禪臞竟何解，佛法從來無。倦眠醒便起，笑此空頭顱。
我愛山中行，安步不須馬。有時訪怪石，有時趨樹下。本無取境心，何勞更修捨。嗤彼世塗中，鑽龜復打瓦。
我愛山中住，觀化俯且仰。一法不當情，萬緣同鏡像。纔言獨露身，無端已成兩。笑破太虛空，巖谷爭酬響。
我愛山中坐，一日兩日永。頂雖鵲未巢，樹亦枝無影。既不耐誼譁，亦不味幽靜。形疲便起行，枯椿變浮梗。
我愛山中臥，易寐還易醒。醒寐惟幻形，誰實司肯綮。諦觀五陰身，非別亦非並。不知何所緣，猶然不自肯。
淵明嗜杯酒，不與蓮華盟。折腰既弗屑，麴糵胡偏醒。欲深天機淺，格言羨莊生。性學豈多術，無如理勝情。
壯士血氣盛，國步誇邯鄲。殺人不敢睨，一語盟肺肝。義勇洵絕世，仁慈體迺刊。圖窮露匕首，髑髏千古寒。
玉兔甫西逝，金烏復東昇。少壯日已去，衰病時時增。寐者終不覺，智者思自懲。但使冰成水，無令水結冰。
狐兔營其窟，烏鵲爭其巢。孰知咸在旅，生死均浮泡。茫茫苦海闊，欲渡須繫匏。莫使荒郊骨，還令梵志敲。
賤人登壘斷，巢許趨高岡。清濁固霄壤，取捨同膏肓。不知三界夢，剝肉強作瘡。一念悟無性，十虛任徜徉。
水氣每成虹，地蒸每作菌。介爾本無形，剎那已有朕。慎獨雖兢兢，豈達無生忍。一翳甫在睛，空華斯亂隕。
盛暑喜乘風，嚴寒愛向火。情性屢隨時，究竟誰為我。未出有無關，空勞此靜坐。莽蒼三返人，撫腹猶稱果。
風來萬壑鳴，月出千山皎。笑此頑虛空，常為明動擾。不動復是誰，豈居風月表。離此既雙非，問君了不了。胡弗畏深坑，徒憂打之遶。驀直轉欹斜，空爭內外紹。
荊璞未應剖，卞和徒自泣。雷鳴二月春，蠕動皆離蟄。屈伸信有時，何用勞汲汲。築碎太虛空，從古原無汁。
畫餅不充饑，美食不中飽。欲縛樹頭風，勤取龜毛紋。弄假豈成真，賣拙翻為巧。俱盧日落山，瞻部雞鳴卯。
聖訓恆諄諄，令觀五盛蘊。陽燄與空華，無我誰欣忿。生死靡暫停，幻質同朝槿。了知呼吸關，至道斯云近。
禦寒不緝績，糊口不耕田。佛制固如此，誰思共息肩。神王翻貝葉，形疲且穩眠。何須學枯木，失此無心禪。

有嘲不用解，有山不用買。泉流月影長，霧壓空形矮。起臥任所適，語默隨瀟灑。拽杖登巖阿，野鹿馴無駭。
律法如亂絲，禪宗更莽鹵。紛紛義學家，猶然水添乳。悠悠淨土門，事理分捨取。各披祖父甲，翻傲負嵎虎。哀哉復哀哉，坐致魔軍侮。
枝葉秋已摧，貞實冬無敗。所以真偽關，終莫逃爐鞴。欲使稻粱肥，殷勤先去稗。折攝似分塗，同歸調伏戒。
人侮非自侮，自侮非侮人。不受禮歸主，妙喻真且親。修羅慢幢折，帝釋勝幡新。忍為力中最，勝敵寧揚塵。
調心如大地，寵辱何關意。美玉良自珍，角石翻成瘁。遐哉睡虎機，千古稱難企。忍記歌利王，鹿苑成善逝。
言居佛祖先，行落凡愚後。漫抱法門憂，自疾甘無救。恥躬愧儒宗，歸嚮慚禦寇。莫誇日正長，瞬息聞更漏。
揠苗徒自損，溝澮盈還涸。九仞不及泉，枉向高原鑿。慎終亦謀始，所厚那堪薄。醍醐願共餐，善巧先鑽酪。
三十未始壯，四十今已老。徒爾費芒鞋，依然不聞道。既懲從井仁，豈學手援嫂。見彈求鴉炙，嗟哉計太早。
壁影本非魑，孩童疑作鬼。白日忽昇天，見徹無頭尾。秋深饒月華，春到多芳艸。根境未離藩，受用能有幾。
牛犢不畏虎，傷鳥怖虛弓。安畏雖異局，對境皆懵懵。何如見諦士，了了知無忤。遊戲逆順界，寧尸勝敵功。
鵲噪固無憂，鴉鳴亦報喜。聲性本非殊，聞機寧異耳。一耳聽兩音，兩忘一便止。無明從此無，始覺從此始。
咸臨吉乃利，倚伏洵多義。甫倡拔茅歌，旋生朋作祟。世事固應然，調心尤不易。難提起四禪，魔女偏相魅。
居德忌成夬，育德貴如蒙。大道曠無際，何以耳似充。出關驚枕夢，入場嗤老翁。熟讀霍光傳，方知養正功。
逐妄又尋真，揚灰復鼓塵。未悟賓中主，安知主裏賓。美食飽所棄，糟糠饑所珍。滔滔天下士，沮溺同迷津。
希顏復學孔，未出三界籠。步老復趨莊，依然舊漆桶。太極未生形，自心早妄動。石火電光機，何勞誇一統。
既慚德不修，又愧學不講。德學本同條，誰能作兩項。紫陽與象山，各喫三十棒。識取宣尼宗，方來證溝港。
童冠沂水遊，三子異其撰。一哂一喟然，黑豆換卻眼。央掘發誠言，胎難安然產。讀至不動章，大慧顏當赧。
前際不可窮，後際不可及。現前介爾心，邊際渺難測。明明法界宗，妙觀胡墨墨。奮起金剛拳，打破無生國。

欲雪先集霰，欲雷先掣電。如何欲成佛，福慧毫無片。流小石能穿，鑽息火難現。須教熟處生，擐甲同鏖戰。
星火燎荒原，一指蔽山嶽。周易誠履霜，宣尼貴先覺。未窮學地流，慎勿誇無學。泥在水非純，稍動還成濁。
濁水珠可清，暗室燈能破。惟有靛池公，獅吼終驚臥。跨下亦登壇，大將非從貨。悅草披虎皮，徒令千古唾。
狡狐能惑虎，木鷄難怖禽。可欺不可罔，神全乃莫侵。面南看北斗，端的誰知音。曾經勝熱燄，徹骨涼且愜。
崑崙非宿海，宿海非阿耨。滔滔萬里流，一滴源誰透。漫傳天上來，錯認銀河胄。賴此投海機，從前皆免究。
六塵本太平，六根亦非燒。問取六識身，蹤跡尤杳杳。誰為結使源，細覓終難了。試看餅內空，傾出知多少。
色色彰苦空，聲聲演無我。拈來法界鑰，開盡塵沙鎖。睹角便知牛，望煙豈惑火。若要船頭直，端卻船梢舵。
鯤潛知海闊，鵬徙知天高。十虛信寥廓，何如遍吉毛。縱步歷塵劫，徒令童子勞。迷此一隙理，今古同滔滔。
金屑不著眼，毒器不貯漿。王饌未敢食，華屋徒窺牆。垢盡明自現，胡勞羨色莊。春風一夜起，蘭蕊遍溪香。
芒鞋棄屋後，鉢袋挂茅菴。非敢濫無學，坐訪同行參。石蜜味中最，食乃知其甘。見月良賴指，寧復撈深潭。
語不競朝華，病應消夙業。獨愧衰朽身，難企尊者脅。法無心外傳，道自威音劫。明明梵網燈，未審誰先接。
直指西來意，楞伽心可安。說言同解脫，內守偏蹢跚。休戀聲前句，還思步外竿。不啻天下醋，那信一般酸。
學士畏枯寂，禪德怖繁文。繁文信無益，枯寂亦添癰。蛇繩見方熾，取捨徒紛紜。捉鼻謾高喚，燈照知非獮。
未明心與性，讀誦徒喃喃。甫欲思上達，暗證還自緘。不解順流棹，豈知逆風帆。呷盡四海水，到頭滋味鹹。
競為格外鋒，罔念昔時典。因護乃至吠，堪嗟梵志犬。財慳尚可回，法執誰能遣。五百野狐身，覆轍偏爭踐。
佛語即佛心，佛心非佛語。離此即非關，究竟誰為汝。一句了然超，萬劫合頭杵。若要舌本甜，勤取黃連茹。
心肝挂樹杪，此理從來少。離教覓單傳，癡鰲何時了。妙指發妙音，非內亦非表。側耳不會心，依然打之遶。
觀箭毒逾熾，問橋路逾遲。路遲日易暮，毒熾那堪醫。有藥不早服，有足不早馳。茫茫生滅海，誰與定歸期。
毒蛇勿捉尾，甘露勿添水。添水飲成病，捉尾螫人死。執項善調御，功歸豢龍氏。悟時轉法華，良哉惠能旨。

聽法不觀心，死至成狼狽。觀心不聽法，執刀還自害。未知說默源，同條卻異會。鼻孔向下垂，空讚威音外。
長語悟非多，雪填井便無。要言迷不少，小毒還生瘡。何勞妄欣厭，共把真宗誣。早修開演智，莫畫舊葫蘆。
執藥每成病，借病翻成藥。通塞靡定蹤，觸境須深度。知人勿昭昭，自照無莫莫。一言燭根元，千山勝行腳。
聚螢不熬草，聚雪不成山。鑽紙信無益，枯坐終癡頑。未歷羊腸險，安知行路難。千里始初步，休商最後關。
洪鐘叩乃鳴，美玉終須琢。不覓惡鉗錘，豈破無明殼。護茲煩惱情，忍使靈光剝。幽幽長夜寒，熟睡誰能覺。
烏焉忽成馬，展轉無非錯。佛滅曾幾時，哀哉水潦鶴。矧茲最後年，何地尋略約。斯文賴未亡，共聽能儒鐸。
日輪挽作鏡，海水挹作盆。照我忠義膽，浴我法臣魂。九死心不悔，塵劫願猶存。為檄虛空界，何人共此輪。

遣病歌

九華峰頭雲霧濃，三月四月如隆冬。厚擁敝袍供高臥，煖氣遠遁來無從。九華山中泉味逸，百滾千沸中邊蜜。拾取松毬鎮日煨，權作參苓療我疾。我疾堪嗟療偏難，阿難隔日我三日。豈向旦暮戀空華，悲我知門未詣室。是以持名日孜孜，擬開同體妙三慈。我病治時生界治，剎那非速劫非遲。

病餘寫懷四絕

一條拄杖兩芒鞋，海闊天空任往來。愛見慈悲終作疾，婆和學侶謾為儕。
宗庭獨力除荒草，教律誰能共執柯。雨露重時恩念少，鉗錘辣處怨情多。
勝心雖發足凡情，十載依稀舊路行。莫笑巴人猶少和，引商刻羽欲誰賡。
大小由來出路岐，無端埋沒好男兒。三年嘗膽嗤非久，須學華嚴塵劫思。

禮千佛於九華藏樓贈諸友五偈

非干苦瓠換甜瓜，處處慈尊並我家。念性枉勞參水月，低頭已駕白牛車。

堆山積嶽盡塵埃，力把慈風一夕摧。吹散鐵圍無暗地，何須拭目問明來。
昔年窠臼剎那掀，臘盡春回日已暄。欲信崑崙泉脈動，但看河凍不勝轅。
靈犀一點性元通，觸境逢渠道自融。驀地舉時聲歷歷，相看同在寶樓中。
一體橫分想與情，冷然性計即無生。功成五悔非留惑，莫替樓頭最後盟。

贈頂瞿師掩關念佛

阿彌陀佛聲歷歷，自他共離不可覓。是心作佛是心是，熾然感應真空寂。
驀直歸來莫問津，無明睡裏轟霹靂。醒來捫枕笑呵呵，夢墮大河誰實溺。
夢時非墮醒非超，一任凱風同奏勸。髻珠解處紹功成，內外空爭庶與嫡。
無生曲裏明月寒，白牛背上吹橫笛。

因拄杖折聯成舊句

縱橫北斗向南看，回首家鄉月影寒。拄杖折時手眼瞥，芒鞋破處足心酸。
不勞藏跡鉞鋒裏，偏解拋毬急水灘。鸞嘯忽傳林谷響，石人撫掌白雲端。

夢感正法衰替痛哭而醒寫懷二偈

魔軍邪幟三洲遍，孽子孤忠一線微。夢斷金河情未盡，醒來餘淚尚沾衣。
休言三界盡生盲，珠繫貧衣性自明。肯放眼前閑活計，便堪劫外獨稱英。

道過齊雲問訊真武

煙霞賸癖此中分，遙望名巒勢欲焚。柱杖石屏占瑞氣，袈裟金鼎挹香芬。
千尋曲澗鳴流水，萬朵青山綴白雲。予亦佛門為外護，何妨破格友真君。

四十初度

物論悠悠理本齊，年來漸覺脫筌蹄。拳開非實掌元在，瞥去惟空眼不迷。流水有心終匯海，落花無語亦成谿。剎那生處生何性，卻笑威音劫外提。

寄懷未能

文字離微影不留，玄機欲倡孰相酬。因憐屢中神猶隔，翻憶如愚益可收。九子峰頭標月指，千如鏡裏辯金鉤。靈犀通處知無朕，莫負持明助遠猷。

別玄覽

松嶺雨歇溼未收，怯露寒蟬聲如抽。同住九旬忽云別，不語孤懷偏悠悠。智士從大不從小，愚夫近慮無遠憂。愛惜皮囊捐荒丘，虛名赫奕奚可留。何如曠覽寰區表，闊步高登遵玄猷。吹醒循階夢，先參慈氏樓。君不見，翠柏霜殘青未已，灤灤蔓野今如燬。

贈黃可念

蟠結筍江溫陵西，溪滿潮流渚滿萸。遠駕浮梁如虹霓，悠然彼岸長者居。長者當年給孤後，於今欲作龍舒胄。萬善匪歸無別路，熾然取捨惟心土。塵培泰嶽巔，芻蕘為君傳。片念圓三聚，同擇紫金蓮。君不見，筍江月色白如練，桂吐秋隄興倍仙。

示持經沙彌

五濁朦朧夜未央，一聲雞喚漏偏長。但將緣種催殘夢，字字全彰佛頂光。

遊北山

嶙峋病骨愧知音，強倩籃輿學眺臨。怪石藏雲疑豹變，短松入暮解龍吟。泉南風景全歸鏡，海外煙波半滌襟。啼罷鷓鴣懸鼓落，滿天星斗燦江岑。

巢雲

驀入巢雲不見雲，泉聲流斷海南塵。卻疑春信從何至，已睹巖花滿日新。

和荅陳鶴岑

名傳佛國元非浪。笑我昂藏北地來。無法可令除妄想。有心堪共結蓮胎。宗風祇許龐公覲，教眼聊憑博地猜。拈出大千漚影喻，不須重說勒銘才。

慰陳弘袞

君不見，出世大丈夫，劫成劫壞等吸呼。又不見，世閒奇男子，功名富貴浮雲耳。陋巷天地寬，敝緼得身安。多少風塵客，方知行路難。莘可耕，渭可釣，卻憐學步邯鄲少。後凋莫鬥早春芳，空令松柏悲同調。曾懷竺典猷，業果解應優。一瞥勞雙目，空華舞未休。

誦帚師五十初度

泉南開士八十一，蹢躅濟濟稱紫雲。日月光華歷二百，石塔瑞氣長氤氲。中有比丘號誦帚，心慈貌古能超群。杖藜點盡千江月，芒鞋不帶五嶺垠。問君七夕何遲轍，庸人乞巧我愛拙。問君自恣何早生，世尊將喜我先悅。伯玉知非又日新，武公誦抑於今烈。甘露壇中味正奢，清心潔己舊名家。但看尊者當年脅，豈羨趙州住後茶。

輓如是師

昨夢東南隕氣星，傷心慘目還驚神。朝來合掌送師逝，翻悲此土仍迷津。正法僅如線，肩踵多魔民。律苑羊告朔，教家偏亡珍。直指向上事，虛響成邪因。悠悠大地競波逐，巖巖中流曾幾人。師今獨享華敷樂，哀哉遺我稱孤臣。

槐關

客夢紛紛盡寄槐，半間聊傍綠陰開。茶聲催醒南柯業，貝葉熏成彼岸胎。塵具大千應共剖，樹無纖影不須猜。朝來讀罷關中草，剩有餘光映月臺。

彌陀巖六人持非時食戒偈以志喜

舌端競嗜易牙羹，誰信真修貴逆情。齋法已成無漏種，戒根應傍有心生。輪中日晷誠能辨，額裏珠光自可呈。薦取緣因修勿退，化城寶所不關程。

觀老聃石像有感

無欲無名理近禪，瞞肝終古浪稱仙。猶龍一語能傳實，喻月三言反失權。片石不愁淫雨蠹，兩篇祇恐俗儒箋。笑看今日鬚眉白，尚是當初舞彩年。

冬日過虎崕訪衍如首座

石徑苔痕古，雲端隔市塵。泉聲流一線，虎口露全身。桂發原無隱，梅開不借春。東風消息近，又見樹枝新。

世道降人心漓野人憫之賦邈矣

邈矣太空，任彼狂風。坦矣君子，愍彼頑蒙。狂風吹兮，空匪虧兮。頑蒙危兮，君子綏兮。
草之菁菁，雷聿鳴之。水之英英，雨聿榮之。謂雨何苦，謂雷何怒。不尸厥恩，不嬰厥侮。
大塊之立，誰與成之。大塊之毀，誰與爭之。渺渺一粟，人競營之。彈指斯往，達士平之。
買山買山，陟彼維艱。曠云萬里，依然在寰。卷葉黈纁，蒲萄懸旒。君子有憂，君子有休。

偶成

指端翻覆為雲雨，世人抱負輕如羽。謀臣戰士日紛紛，朝欲之秦暮欲楚。百萬長城血未乾，始皇骸骨歸荒墅。喪家之狗悲絕糧，依稀馬麥聊堪償。所以顏陋融復懶，明詔宣時芋正香。道人有語止如此，取譬空疑端木氏。欲識媯姚兩病翁，問取巢居沛澤雙豎子。

壽月堂輝山首座

殿閣薰風涼意多，綠槐亙古影婆娑。榿椎自昔聲如吼，上座於今眉似珂。趙老芒鞋猶未止，脅尊禪誦已成科。分明倡出南山曲，惹動西池六鳥歌。

贈莊聖西

彌陀即是毘盧師，極樂即是華藏界。八萬四千相好中，一一具足剎塵相。西方一一微塵中，具足世界差別種。是故普賢大願王，究竟導歸安養土。同居淨故四俱淨，橫超自在甚希有。若人深信淨土門，始是深信法界理。若人已悟法界理，方肯熾然求往生。法界非往非不往，順悉檀故名為往。法界非生非不生，順悉檀故名為生。如是往生即向上，圓頓了義無倫匹。
靈峰蕩益大師宗論卷第十之三

詩偈三

樵李天寧禪堂度歲即事

彈指欣傳剎海春，裁噴小雨潤梅筠。薪爐燄熾開眉宇，鑼鼓聲繁滌耳塵。流接熙河分愈合，香來祇樹遠仍親。閒看嫩草庭前綠，蝴蝶莊周哆大椿。

寄吳西城先生

鳥出晨巒遶樹飛，十年回首故人稀。杏壇已悟浮雲影，蓮社今瞻落日暉。秀水盈盈湖水溢，吳山隱隱越山微。遙聞耆域多靈草，聊寄阿伽第一機。

士民失德亢旱不雨野人憂之賦四月

四月炎暑，憂心如杵。嗟此農夫，不遑安處。曉拭其眉，爰卜其礎。庶幾油油，甘露滑滑。
民之無聊，夕不謀朝。恣爾貿貿，爰積其慄。孽既饒止，悲亦遙止。式瞻前後，靡不焦止。
民之無知，競驚其私。病既孔急，曾莫爾醫。嗟彼達士，為則為儀。胡反自局，而無遠思。
亦有美乳，聿雜於滸。飲乳則樂，飲水則瘳。嗟彼達士，罔識去取。靜言思之，不如群羽。

維山有靈，維麓有淳。嗟彼達士，明德維馨。醒醒不寐，寧即於冥。惜爾雙目，一指所局。
平等平等，既生且並。下視其足，高視其頂。抱識含知，誰云或迴。溺此塗炭，曾莫之拯。
維金有冶，維柏有霜。日月有蝕，不減其光。嗟彼達士，厥用不臧。舍爾冰鑑，逐此驪黃。
我心憂思，何所求思。載觀宇宙，不可遊思。緬懷千古，誰與訓思。熙河泗水，浴彼流思。

和荅吳叔雅

十世何嘗離目前，剎那不住涅槃天。但觀心外元無法，莫謂師家別有傳。羅什譯經存寸舌，瞿曇誘子賴空拳。歸來共爾黃金地，擇取華池千葉蓮。

中秋後二日群鶴集於靈峰賦靈鳥

矯矯靈鳥集於山，娛我多士，終朝永閑。
矯矯靈鳥集於阿，娛我多士，雍雍以和。
有懷樂土，實多靈羽。羨此東林，式瞻西戶。送想功成，覲面斯睹。

用韻題背坐圖二首

世事無端忒認真，縱饒藏臉未藏身。分明少室九年意，畢竟誰能舉似人。
塵剎甘為出世逋，大千坐具一微圖。拈來短塵渾閒事，譚盡三乘半字無。

和陳非白三首

嚴冬落木轉淒淒，積雪平鋪茅屋低。舉世相看同敗北，幾人能解早歸西。
晨朝共覲慈悲父，飯後還要法喜妻。消盡劫波生死夢，渾然六字是全提。
莫厭多番徹骨寒，曉雞三唱夢初殘。迎風賴有仲由縕，飾體欣無季子紃。
觸境會心原不遠，離言覓旨卻成難。自從識得空王印，白牯狸奴古佛看。

才提正令已成旁，爾燄河中識浪茫。空劫劫前仍捕影，緣心心斷似吹光。朔風夜急松多韻，白霧曉開山自蒼。堪笑東村王大姐，強將塵坩作梳粧。

和張興公二首

枉直紛紛計尺尋，獨憐塵世欲泥深。也知昔日酥為酒，莫怪今時葉作金。字性本空香遍地，機先有句月穿林。子期側耳渾無事，共鑒高山流水音。

每慚少賤鄙能多，更歎初心漸似梭。白髮數莖悲鏡雪，孤懷半世付春波。蕪榛易用銛鋒削，鬥諍難將影響和。奮起一聲塗毒鼓，活人原不離干戈。

和荅宋量公

流芳五葉一枝花，未委根源莫浪誇。鍼芥投時初祖笑，機關轉處納僧嗟。無心擊碎情塵鎖，有句重添佛祖枷。識取自衣珠不借，朦朧鏡影漫相遮。

贈耦西

善財初發意，百城方盡南。一見普賢後，始知西更湛。十願導其往，深禪不用參。彌陀法界藏，介爾一念含。六字聲歷歷，皎月澄寒潭。未識岐塗苦，那知此道甘。上善共攜手，列祖朋盍簪。觀成一十六，生品列三三。任彼馳圓頓，方茲定有慚。

示偈六首

覓心無得便心安，誰解拋椿急水灘。落地枕聲驚客夢，月移花影度闌干。(示知安)

高山最早得曦光，懸鼓餘輝亦倍彰。海底立身如泰嶽，不愁冬至夜偏長。(示昱巖)

六年苦行老瞿曇，麻麥充饑事太憨。星夜抬頭明箇事，前三三是後三三。(示雪瞿)

密在汝邊安可傳，長年橈破水中天。華亭舟覆無消息，賣盡風流不著錢。(示密傳)

青蓮權實意分明，百萬人天較最親。獨有飲光賊未盡，瞥然一笑誤芳春。(示敷公)

洪鐘未扣已先鳴，不許耳聞許眼聞。泥牛吼月渾閒事，無限春光付白雲。(示靜含)

題謝在之扇頭

介爾心田足水草，隨他此外別尋討。君不見，大千三變土依然，龍女從茲出海島。

贈魏國徐燕超居士

愷悌慈祥古佛心，襟期爽朗芥投鍼。祇從安養遶拏萼，不向時流較釜鬻。一念便能嚴四土，十聲誰肯易千金。春來柳葉初含笑，把手同遊解脫林。

壽劉今度六旬

文章垂宇宙，歸戒印心王。耳順圓通旨，荷風殿閣涼。

五戒歌示愍月

受戒易，守戒難，莫將大事等閑看。浮囊渡海須勤護，一念差池全體殘。理勝欲，便安瀾，把定從來生死關。任他逆順魔軍箭，凜凜孤懷月影寒。不殺生，大慈仁，物我一體如長春。蠕動蜎飛佛性等，賢愚貴賤無疏親。不偷盜，充義輿，正直清廉明節操。心外無法可當情，菩提性具非他造。不婬欲，梵行篤，身心皎潔同珠玉。泰山喬嶽立清風，等閑超出娑婆獄。不妄語，誠相與，廣長舌相昏塗炬。矢口千金敵國欽，九界同歸作洲渚。不飲酒，離群醜，智慧照明獅子吼。衣裡圓珠豈更忘，免得親翁再苦口。三歸五戒果精明，觀音勢至為師友。

示昱巖

介爾一念心，橫豎不可盡。諦審復諦觀，本跡二俱泯。悟後亦非奢，迷時亦何窘。迷悟弗當情，乃達無生忍。

示馬光世

未知箇事難得知，已知欲忘亦不易。忘卻威音那畔底，今時方顯頭頭是。著衣喫飯弄神通，劍樹刀山任遊戲。念彌陀，算珠記，夫婦知能第一義。淨穢兩忘仍歷然，法界分明無礙事。一念圓彰四土嚴，三身頓證驚長寐。信得真，見得至，步步腳跟都著地。以茲自覺覺眾生，大智光明照十世。

施茶偈

心佛眾生無別理，冬日飲湯夏飲水。結得今時歡喜緣，須摩國內長相似。度盡含靈不見功，僧祇劫自剎那始。

楊輔之讀破空論

般若離微絕悟迷，還將五度作階梯。法元無法何煩埽，空若耽空亦有倪。秋至共看桐葉落，春深時聽子規啼。道人讀罷金剛論，瞥挾奚勞更覓錚。

題旻昭畫贈季筏

古木高巖映日暉，長年破浪帶綸歸。昇平曲罷無餘事，笑問金鱗幾許肥。

示君甫

直信現前心，覓之不可得。無法足當情，分別亦非識。

和荅宋量公

不將半日漫偷閒，辨妄窮真別有緣。識取夢中誰作主，便知火內亦栽蓮。楞伽已悟安心訣，棒喝多慚利口禪。珍重子韶仍格物，櫛牛出尾樹歸田。

學道偈

學道如彈琴，急則聲易絕，緩則不成音。學道如植苗，不芸雜荒草，助長致枯焦。學道如源泉，不見洶湧勢，流久石能穿。學道如白月，光頓照閭浮，明乃漸皎潔。先學律儀戒，能捉煩惱賊。次學定共戒，能縛煩惱賊。次學無漏戒，永滅煩惱賊。賊昔昌熾

時，本非他方來。今賊雖永滅，究竟無所之。譬如世亂時，處處皆甲兵。及其治平日，在在皆良民。但得心王正，根塵永肅清。十一善心所，如彼賢良臣。君能親用之，拔茅彙吉征。賢良善輔佐，邪惡自潛形。風行草必偃，何庸務力爭。

迴者隱納之深痛也

彼迴者蒼，胡然局止。彼廣者輿，胡復促止。欲卜於朝，氛孔毒止。欲卜於野，情亦曲止。問侶於玄，罔可錄止。載問於釋，不異俗止。俗猶嗜福，釋乃趨獄。

彼迴者蒼，遠豈無極。八萬由旬，感應一息。百爾開士，勿軼爾德。因果酬償，塵劫匪忒。瞥存其私，終嬰鬼殛。庶幾慎思，眚瞽是拭。目既清明，華元非色。

彼迴者蒼，匪維匪方。悟也故里，迷也異鄉。異鄉之曲，不可詳也。我愁孔亟，聞斷腸也。

我有慈父，示安於西。我久逃逝，耳罔可提。今既悔矣，癡猶未刳。載怨載慕，乃泣乃啼。

我病未已，遑恤於他。哀此同體，口滋其多。多言窮也，默可容也。自攻厥慝，無他攻也。

靈峰之麓，有室如谷。風巽於狀，雪沾於服。何伎何求，馬麥孔馥。誰肯我勗，載胥及淑。

入山四首

萬山隔斷市塵囂，日暮秋風吼竹濤。世濁未能融動靜，祇宜此地解天弢。

一夏炎威苦逼人，靈峰片石舊盟新。歸來泉味偏增逸，何必桃源覓避秦。

盈虧本自無增減，何故山深輝較揚。照此道人冰雪意，夏雲春露亦成霜。

一微涉動便頽山，棘滿梅林柰未刪。曉起不堪頻對鏡，大千無地置慚顏。

歷劫熏修誓未灰，半生殘喘尚徘徊。斬釘截鐵從茲始，忍使摩尼隱積埃。

寄壽幽棲主人

指天指地重陽節，桂菊呈妍明月臺。十里贈君無別語，四明一喝聲如雷。

知足偈

德薄難消供，雲泉意倍長。雪來珠滿案，風過葉盈床。一具蒲團穩，千家麥飯香。自憐身漸老，苦行未堪償。

七淨督梓大佛頂經玄文

憶我二十三，創聞真了義。涕泣每沾巾，願求無上智。逾年心益堅，黽勉從披剃。力埽葛藤纏，一意離文字。祇見鑿頭方，那識錐頭利。賴有劣善根，靡敢自暴棄。時復溫舊聞，展轉不成寐。竊思性相宗，豈必判成二。云何諸疏家，各妄分門類。研之罔可通，任之兩相戾。乃掀昔人窠，亦觸今時忌。直溯說默源，細繹指月譬。蛇繩麻匪殊，影光鏡寧異。原無法外心，安有理外事。妙旨既泠然，微言忽玄契。迎刃解全牛，不啻土委地。語語破執情，節節吐鬱氣。信有佛力加，私懷安忍昧。初刻在溫陵，山川阻迢遞。長干復剗剗，習公如來使。賦此券樂邦，將來同受記。

祖堂度歲寫懷二首

葉落柴枯病後身，肯將虛解博閒名。應憐五百初頽執，未忍孤單悻遠征。嬰杵面痕刊血淚，金蘭語臭結心盟。歲朝雨滌魔氛淨，邃谷傳開二鼓聲。

冽盡梅英始報春，今年仍是去年人。觀河不改渾生滅，交臂潛移絕舊新。愧我未嘗留隻字，勞他猶自睹雙脣。何如善吉巖中坐，帝釋攜來萼滿旬。

偶成三絕

急雨狂風雜晚鐘，冷然身世湛漚空。曉看碎玉鋪千嶂，如是浮幢第幾重。

少年逐隊各懽呼，獨坐孤峰萬慮枯。愧有一端情未瞥，強將殘羽覆新雛。

箇事何關虧與成，屍憑兩鬼攫分爭。朝來枕落催殘夢，贏得虛名較羽輕。

續夢中句(有序)

人之患，在好為人師。旭出家來，絕無為人師想。而為師十餘年矣。然每省，未堪作古人弟子。嗟嗟，圖旦夕名，忘塵劫誓，智乎。夢中得句，一鏡愁容髮漸白，半生名世事無成，不覺痛哭而醒。

一鏡愁容髮漸白，半生名世事無成。願輪欲共虛空轉，莫負當年樂土盟。

丙戌春幻遊石城，隨緣閱藏以償夙願。夜夢塑地藏大士，身首具，手足未成。感賦

積雨溟濛縛客思，鴿聲傳怨度新枝。千年學脈憑誰寄，萬古愁懷祇自知。鏡裏病容衰已甚，夢中慈相體猶虧。何時了卻文言債，驀入重巖就故醫。

雨窗偶成

世運若奔河，哲人日以迴。慧照衰式微，夙習恆在酩。嗟我欲拯懷，過涉幾滅頂。何時彼岸迴，飄然駕慈艇。光明煞爾彰，妙用仍衣袈。默要忍懣機，悲誓誰能並。識此方便宗，爰達度生絜。緬思華臺尊，胡為不自肯。

病中有感

四百四病互圍繞，八十八使鎮相隨。夢裏忽憶大士號，咨嗟感慕仍吁嘻。如意珠王誰蔑有，伶俜劫簸徒愚癡。念佛獨許三昧寶，聲聲圓彰無盈虧。上士一決一切了，狂邪翻覆生狐疑。安養一撮即華藏，彌陀十劫毘盧師。從今一信永弗迷，橫超那畏生盲嗤。

閱大智度論畢紀懷四首

雨多入夏夜偏寒，胡漢於今辯最難。擬絕百非還墜斷，欲離四句已成癢。分明文字元無性，卻怪虛空亦可刊。賴有橫超歸路穩，不隨年少學邯鄲。

般若何嘗獨尚空，通能成塞塞成通。菱錐佛事隨緣建，荷鏡魔軍任運攻。度盡眾生無可度，功圓妙覺不居功。應憐此日譚玄客，魚目摩尼妄擬同。

病在膏肓亦可醫，自慚積劫太憨癡。幾迴說夢仍添夢，祇是三思未再思。垢重愈知學不厭，懺頻終恃法元慈。筆端齒落催殘晷(舉筆忽落一齒)，送想懸輪更莫遲。

寒暑推人念念移，何須齒落始添悲。狼驚未得脂消盡，草益空令肉漸痿。搔首控歸無上士，撫膺披露有生疵。他年淨土華敷日，記取壇前痛哭時。

示庸菴比丘

瞋能蕩家寶，慈乃積法財。損益祇在我，胡以空徘徊。明鏡現妍醜，影像無去來。但宜躬自厚，慎勿責友儕。絜矩可為喻，恕己真昏聩。過去已無及，將來須創懲。深思忍辱行，割截心無病。瞋則兩俱傷，慈則並獲慶。釋迦果既圓，歌利因亦正。

丙戌生辰驟雨初霽偶成

四十不聞道，五十猶空老。縱滿百年春，奚足稱壽考。歲歲此日生，此生何日了。法門小比丘，律行多未曉。說時似惺惺，用時仍顛倒。數悔復數違，嗟哉恆痛抱。所恃格外慈，示我三昧寶。隨分度餘暉，雷雨還晴皎。

壽馬太昭四十

形而上者謂之道，形而下者謂之器。四諦分明舉似人，誰達緣生第一義。非斷非常非有空，法法頭頭絕思議。鄙夫問我我無知，時行物生天何示。肯從宣聖覓心源，便悟威音那畔事。昭老今逢不惑年，祝君聊舉金剛智。識取緣生無性宗，方知三藏非文字。

和荅張興公二首

僧祇豈是枉施功，獨怪郎王強異同。空界任從星布列，川流終向海渾融。分明萬物原非物，彷彿相逢卻未逢。介爾覓時雖不得，調心誰繼可師風。

道曠無涯莫計功，恆沙佛祖路皆同。隨情異見元非異，擬欲融歸便弗融。空劫劫前仍是物，有迷迷處亦相逢。喜聞不昧平生句，今日依然龐老風。

丙戌中秋懷淨土

皓月年年照客秋，夢中時動故鄉愁。兜羅綿手垂應久，優鉢羅華散未收。癡掉不除增愧色，貪瞋猶熾礙真修。長空鴈影蕭然度，寄我深思到寶樓。

丙戌重陽同湛公登祖堂山頂

秀出芙蓉接紫微，萬山匍匐競歸依。論文祇許盟千古，問諦無勞杜百非。江上風帆誰去住，峰頭雲物任翔飛。幾枝紅葉呈秋影，峻嶺寒空映晚暉。

悼予正法友

志士每難遇，胡為多夭傷。末運固莫挽，悲心寧肯忘。良由名根誤，說藥迷真方。止觀乏鍼砭，聞見滋膏肓。所以明心訣，翻作戕身槍。雖逐幻緣逝，金剛種未亡。先覲彌陀覺，邀予返故鄉。

輓旅泊大德

淨土迢迢不涉程，閻浮禮誦已功成。漚花頓滅千生影，德水初標九品名。酬債豈應嫌病苦，橫超寧復畏譏評。殷勤為我求慈父，何日同垂隻手迎。

示陳砥中

出家兒，求安寧，外寧必有內憂生。無量劫來虛妄種，慣向禪那靜裏呈。出家兒，求尊貴，虎背仙人難去住。成佛作祖帶汙名，戴角披毛推上位。出家兒，求無累，解脫深坑安可墜。蓮華原向汙泥生，陸地高原空鈍置。出家不在幾莖髮，先須煉就純鋼骨。勘破時流名利根，九仞未泉須再掘。從此路頭真，門庭漫問津。為山警策語，古德有真因。

靈奕生日以偈示之

有德即有福，無瞋即無禍。心寬壽自延，量大智自裕。應思老頭陀，願居眾人後。破納以遮身，持鉢度貧陋。

示別兩堂法友

世諦矜流布，哀哀古佛心。餽羊雖愛禮，拜上豈從今。共執驢鞍解，爭將柿蒂欽。引商刻羽後，寧敢望知音。

靈峰蕩益大師宗論卷第十之三
靈峰蕩益大師宗論卷第十之四

詩偈四

示豁一二首

若欲結制看經，須要會歸自己。心外更無別傳，萬勿但圖口耳。雲光不免負軛，何況今時稚子。第一要生信心，第二要懼生死。俛仰曠劫輪迴，畢竟如何得止。聽我血淚苦言，庶不終為糠粃。華嚴圓頓經王，普賢法界宗主。十願導歸極樂，便是玄極微旨。若更別扣祖關，都是奴僕婢使。果然奇特丈夫，卓信心作心是。念念相應不差，豈肯水中渴死。瞬息旋轉萬流，一句彌陀到底。

利濟寺禪堂放生念佛社偈(有序)

佛祖心要，悲智雙運而已。贖命，大悲下化也。送想西方，大智上求也。法門之妙，孰過於此。但靡不有初，鮮克有終。是宜堅其心，砥其行。庶珍池寶券，在我而不在人矣。諸法本無生，不生非實義。魚躍與鳶飛，明明佛祖意。迴向極樂邦，圓成無上智。歷劫矢勿諛，是名真利濟。

寄示禪關

魔界如兮佛界如，金剛寶劍用何為。分明平地生戈戟，錯認村歌社飲時。

庚寅自恣二偈(有序)

臥北天目，萬慮灰冷。有同志數人，以毘尼相叩。夫毘尼久為腐貨，仍過而問焉，不啻冷灰豆爆矣，安居竟，重拈自恣芳規，悲欣交集，慨然有作。

秉志慵隨俗，期心企昔賢。擬將凡地覺，直補涅槃天。半世孤燈歎，多生緩戒愆。幸逢鍼芥合，感泣淚如泉。

正法衰如許，誰將一線傳。不明念處慧，徒誦木叉篇。十子哀先逝，諸英喜復聯。四弘久有誓，莫替馬鳴肩。

和荅譚埽菴

肯將瓦礫易明珠，箇事從來形影俱。信得此心真佛種，任他咸作鈍根呼。

辛卯季秋重登西湖寺有感三首

風帆破浪陟危岡，轉憶交情空自傷。七十二峰明月在，千秋逸興付波光。

不須弔古論前後，且共尋今誰始終。秋色已隨楓樹老，晨曦仍似蓼花紅。

峰頭雲物去仍返，波裏山光住亦浮。讀罷維摩香未冷，又移清夢入禪樓。

阻雨福源用雪竇禪師白樂天韻

最是禪關轉處幽，洞庭煙水護神州。松名羅漢從唐宋，泉自真源映斗牛。穩坐佛龕消永日，懶尋漁父問孤舟。年來狐兔仍城野，簇簇群峰橫點頭。

屈指蕭梁路未更，庭前雙樹意明明。風搖紅葉機猶滯，雨溼青苔印已成。松古共咨呵護久，殿深贏得步行輕。主人不厭湖山客，朝摘嘉蔬暮又生。

和荅王季延

馬牛作隊盡如馳，誰破銜拳名相縻。千古覓來難得友，三人行處易尋師。虛空力壓終無汁，傀儡輕提亦有儀。借問何方自修育，阿伽一味不拘時。

送清源首座返江寧二偈

木樨香罷菊初黃，長水灘頭別話長。瓦釜雷鳴今倍甚，玄珠龍護正宜藏。愁看智巧多成鑿，喜聽顓蒙稍未戕。與爾共期泉石夢，靈峰逝景共徜徉。

形影相隨未是親，饒他擬議轉迷真。一生自訟嫌頻復，半世逃名幸遇津。愧昔譚經猶有石，欣今問字漸無人。他年莫負珍池約，頓洗從前愛見塵。

譚埽菴招同王止菴高念祖遊研山，予大病而返，漫賦二首

從昔假山終不假，於今真祖未全真。一番讀罷傳燈記，添得毘邪幾痛呻。

埽菴豆腐東坡肉，問味山儂總弗知。大抵聞韶千古案，還須見聖始無疑。

維摩無疾文殊疾，說是淆訛總弗淆。試看昔年明不二，苦空依舊作前茅。

壬辰仲冬雨窗有感

朔風吹大漠，群雀愁寒雨。戢羽訴無糧，競向茅檐聚。哀昔祇陀林，久喪樵人斧。誰為獅子蟲，最是輸金祖。納粟笑儒冠，輸金歎禪譜。握麈遍城村，覲面如軍伍。奚哉畫革囊，幻作羊質虎。救得眼前饑，留卻恆沙苦。達人鑒始終，頓吐虛名蠹。一笑老深山，不屑驩虞補。

送用晦還新安兼寄堅密三首

繁霜一夜萬林空，千里歸帆挂朔風。道在未嫌離別憾，情忘終藉琢磨功。恥觀野犴登獅背，遙囑潛龍寢梵宮。明月北窗催曉夢，坐聽蓮漏鼓逢逢。

五十餘年客作人，悠悠斯世幾知辛。早占牛順同羊逆，悔不狼貪易虎瞋。冰水本來唯溼性，空花從古絕陳新。相期盡拭朦朧眼，彈指瞻依樂土親。

澹泊忘機入道難，淆訛公案幾能看。無人踏得隨身影，有句旋成賣法奸。愧我跛翁唯坐歎，知君雛鳳可離竿。他年共浴珍池水，不負靈峰徹骨寒。

病起感時七偈

直捷根源道有餘，尋枝摘葉欲何如。葛藤千七無端設，之楚神駒北駕輿。

小見狐疑急轉遲，誤分根本與條枝。平平大道無難易，羊質徒勞挂虎皮。

左右逢源觸目真，才生取捨便迷真。家和鄰里難欺侮，分貝同田驗富貧。

牛皮穿透終難認，虎穴冥行暗未通。兩箇半斤皆八兩，吠聲籬犬共憧憧。
識情未轉無塵智，知有依然墮法塵。怖影迷頭空自擾，求真真露卻非真。
博文約禮孔顏心，箇事何容鑽仰尋。養氣知言通線路，拍盲告子豈知音。
王賊元從一著爭，如何佛法當人情。名聞利養空華事，痛煞求卿反得烹。

癸巳元旦過秋曙拈花菴四偈

曠劫陰移一剎那，滔滔法運駛如河。未明微笑非迷悟，誰向拈花辯佛魔。
雲外有聲知是鶴，燈前弄影便同蛾。羨君不入輸金社，好與山儂誦伐柯。
萬緣何啻似寒灰，擬入千山誓不回。瞥盡光含清淨目，情忘身育寶蓮胎。
珠王滴水能盈器，義賊戕材甫作桮。倒腹傾腸無別語，莫分少室與天台。
五十餘年夢幻身，寥寥斯世久無鄰。從頭覷破元非我，此外何容別有真。
寄宿不須求大廈，登舟正可就偏津。東風吹亂殘詩卷，未許人閒肉眼掄。
(時秋曙出乃祖寂生法主詩求選)
檐矮牆欹聊自安，肯將溫飽換饑寒。未經世路風波急，那信茅菴法界寬。
野老對譚知米價，扁舟舉棹睹回瀾。尋常聞見無疑滯，誰謂圓通剋證難。

吁嗟篇第六章(有序)

佛祖之道，戒定慧而已矣。戒即法身，直法身非法身也。定即解脫，直解脫非解脫也。慧即般若，直般若非般若也。弘戒學曰律師，果以般若解脫，嚴顯法身乎。弘定學曰禪師，果以法身般若，成就不思議解脫乎。弘慧學曰法師，果以解脫法身，趣歸般若乎。我思古人，實獲我心。我悲今人，不求其實而圖其名。正法埽地，相牽以淪。乃賦吁嗟，寫此哀情。
吁嗟律兮，豈曰虛文。一止一作，持犯斯分。為斷有漏，以破魔軍。三千八萬，蹟矣匪紛。護彼無作，協此緇群。煩惑乃怖，賢聖乃欣。自性清淨，萬法之君。律哉律哉，衣云鉢云。
吁嗟禪兮，豈曰鬥機。厥廣唯海，川瀆攸歸。操此一是，融彼百非。匪疾而速，匪翼而飛。理必無舛，行必無違。法法通備，門門入闡。逢源左右，何顯何微。哀此末季，唯拂與衣。

吁嗟教兮，豈曰言詮。明月之指，良驥之鞭。昏塗之炬，暴流之船。以簡邪正，以辨偏圓。法印所印，四依所傳。周道坦坦，乃實乃權。目足無缺，直往弗愆。哀此叔世，葉附枝牽。

吁嗟淨土，豈曰小補。圓頓之宗，萬靈之祖。厥旨唯心，厥門唯普。非自非他，亦橫亦豎。躍冶莫逃，弱喪亦撫。格外洪慈，異鄉親怙。龍樹摩肩，文殊接武。哀彼生盲，目為旁戶。

吁嗟大法，何正何像。何是何非，何偏何黨。悲此愚頑，各任厥想。逆之則非，順之則仰。率彼妄情，誰納忠讜。始情弗芸。繼唯助長。逐影迷形，鏤空捕響。哀矣群盲，爭趨見網。

維茲末季，亦豈無人。緇曰紫柏，素如陽明。暨楚之袁，西方指津。山陰之鮑，天樂以陳。可師可步，不驚其名。哀彼耳食，罔識斯真。爭馳虛譽，慕彼宵燐。何時憬覺，以卜我鄰。

西窗自喻步寂音韻三首

初志何能不自新，每嗟涉世未忘真。行慈依舊還成愛，責善無端已墮瞋。萬古是非渾短夢，十方淨穢總長春。西窗對月披殘卷，獨向先賢語笑頻。

五十五年過未寡，鏡中徒歎頭顱光。觀音十句淨業苦，佛號一聲超驪黃。歷盡寒酸無片實，由來悲喜空縈腸。蓮華叢裏清魂逸，消盡人間炎與涼。

綠水青山任往回，那堪睡眼未全開。十虛猶較微塵窄，一息非從曠劫來。才擬辯真徒瞋目，創觀唯識已亡埃。同仁欲和無生曲，但聽空山猿語哀。

和寂音尊者達磨四種行偈

三界有為，終歸敗壞。才有所求，便成窒礙。死安可憎，生安可愛。憎愛兩捐，便是三昧。(無求行)

十二牽連，如環輪轉。釋梵奚貴，乞丐奚賤。既難強求，復何希羨。俯仰塵寰，蕭然無戀。(隨緣行)

人我未忘，袈裟可醜。唾面勿拭，刀杖宜受。諦察法空，逆境何有。動心忍性，苦師恩厚。(報冤行)

生即無生，是名法忍。豈用自矛，還攻自盾。恆觀意言，遍計斯盡。後觸無得，依然本性。(稱法行)

將遊湯泉示三子三首

客氣消忘心便安，全身放下亦何難。分明萬象無藏覆，山自高高水自寒。

泰山不如平地大，陽明隻語度迷津。平平蕩蕩遵王路，莫效巖巖萬仞神。

相名分別本如如，真俗休將一異誣。萬水千山供見聽，直須超出是非塗。

容溪觀池魚

循環匝匝覓江湖，活水雖流活路無。長者不須重施水，好將金鼓應金桴。

帶雨觀白龍潭

石磴嶙峋未易攀，半谿煙霧鎖玄關。每哀獅座偏多染，卻喜鷗群儘自閒。塵累幸隨波已逝，鬢眉聊似草同斑。白龍何處潭如鑑，留與幽人照古顏。

登文殊院疾作而返

文殊遍界元無二，何必登高別覓真。興到便遊興盡返，任從夢裏梗萍身。

和荅吳絜如四首

深崖亦有淨名居，坐對龍潭勘掠虛。君擬賦詩超漢魏，我甘遜世傲孫吳。文殊已見不更見，能祖無書善解書。此日蓮華峰畔霧，應同天際卷還舒。

士也懷山不戀居，澄潭幽閣日憑虛。昔從鹿洞星瞻婺，今似牛刀學啟吳。已薦朝聞夕可意，勤觀約禮博文書。泉聲演偈百千萬，直下令人見網舒。

何事紛紛競覓居，大千不異一漚虛。蠅頭富貴燕盟趙，蝸角功名越報吳。舉世盡誇出格語，無人肯讀剖塵書。白龍潭內泉聲潔，滌去塵襟眼自舒。

白牛車裏肯安居，今昔相逢自不虛。澤老尋山方入越，龐公帶襍又稱吳。但能一博輸金注，何必三生鐫石書。瞥眼空花纔撤盡，此身何異岫雲舒。

坐狎浪樓二首

雨過三日瀑聲微，五色潭光映晚暉。坐久不知身在客，丹楓黃菊兩依依。
法門寥落少知音，偶與維摩論古今。莫怪泉聲太饒舌，低徊難訴老婆心。

坐西竺菴偶成三偈

燈光五色分明現，目眚無多未易亡。何處金鉀堪借力，洪名六字足良方。
兔角豈須爭曲直，龜毛不用辨黃玄。蟪蛄眉裏三千界，柳栗芒鞋任所便。
覓心不得復調心，最是神光祖意深。勤掐數珠頻換線，靈雞終許出餘燐。

示寶樹

修行無巧法，只要生死切。諦觀百年身，露電同生滅。千古大聖賢，皆從一念決。一念識重輕，群妄自超越。事不益真修，何能強屑屑。心逸乃日休，心勞乃日拙。六字大經王，勤誦無休歇。能念所念本無二，熾然能所相交徹。譬如萬里淨無雲，百千江瀆一輪月。不是渠兮盡是渠，非親疏處難分別。

臨塘寺閱埋菴集

象教維持世所難，可憐魔惱不成歡。埋菴一變已至魯，留與諸方作鏡看。
(埋菴有書名象教四維，頗箴時弊。)

荅無住生心義

生心復無住，兩箇木人同拽鋸。無住復生心，泥牛臥聽牧童吟。無住生心若有二，水波應辨東西位。生心無住若定一，日光照處應無色。亦一亦二兩相違，非一非二是何物。三世諸佛絕不知，何況嶺南賣柴客。

寄贈德水法主

剖盡籬籬見自心，去來諸佛足知音。支那國裏無相識，肯把鉅銅漫博金。

芙蓉苑

菡萏初標蓮社名，十千天子共尋盟。瑤階行樹垂珠網，寶岸樓臺映石城。無數妙華供佛事，幾多春色淡塵情。幢王最喜香河繞，趺坐時聞法樂鳴。

題大蘇菴二首

頽垣小露薜蘿門，田畔依稀見別村。月到不知檐外白，雨餘猶睹壁閒痕。一龕佛火明兼昧，半座蒲團冷亦溫。遍吉願王勤徹夜，香煙堆裏度清魂。
直向須摩禮願王，肯從塵世借螢光。門常晝掩室生白，齏作晨餐面欲黃。唯有貝多恆寓目，更無些子暫關腸。娑婆歲月消磨盡，周匝俱時火宅涼。

入山二偈

鬥諍哇喋不忍聞，蟪蛄眉裏盡浮雲。宗風斷續何關我，教網弛張一任君。蝕芥便窺空界迴，剖塵方信大千文。如來慧命同真際，笑殺從前河飲分。
染習難忘每自悲，調心無術幾人知。浮名何異斬頭劍，逆境誠為扶膜錡。骨肉首丘同野獸，袈裟登壘似優兒。山靈莫笑歸來晚，病未膏肓尚可醫。

雨窗偶詠二偈

一臥靈峰萬慮灰，檐聲滴滴印蒼苔。已忘世上狐蹤擾，但聽林閒鳥語哀。野老乍逢商稼穡，山農常共卜風雷。宣尼任斥樊須小，我較乘桴有取材。
浹旬風雨怯春寒，床折心安夢亦安。半世浮名同唾委，餘生課願與時完。展開古藏非文字，閱盡今時驗肺肝。天外舉頭誰似此，夜來高枕日加餐。

五月二十七日大病初起偶述三偈

山深日聽水漫漫，小暑依然似小寒。無意避人人已避，有心刊病病難刊。臥餘十晝甘隨死，痛徹千肌苦較寬。慚愧歸情猶未決，又從與餌獲輕安。
如何閱藏便招魔，慎疾偏令疾更苛。覷破革囊無一淨，贏來壞想略成科。虎銜犬子踰垣去，庭滿苔紋拒客過。絕後再甦渾似夢，夕陽斜映鬢眉皤。
及門諸子並天涯，擬作遺書筆欲斜。祕藏豈難開肉眼，會權終恐滯牛車。嗤他苦諍全迷筏，慶我偷安別有槎。病退身閒重展藏，珊瑚擊碎燦雲霞。

病起警策偈六章

幻身夢世，剎那遷逝。趨向死門，如囚赴薊。辯智神通，何能稍制。唯有持名，斯為上計。
四大六情，唯苦相撓。一句佛名，如篁出聲。虛空可隕，名德弗傾。不生不滅，本自圓成。
病苦既劇，涕淚悲號。類彼孺子，取謫同曹。夙業所致，寧敢自弢。庶幾慈父，哀此塵勞。
痛既難脫，發心代苦。已願代苦，何又求愈。性非異同，情遞參伍。脫則俱脫，籲我慈父。
革囊盛穢，有何可愛。況復瘡門，其惡彌倍。積劫癡迷，沉溺弗悔。一念聞思，魔軍永退。
嗟爾幻客，聽我誨言。勿恃慧解，疏此定門。日乾夕惕，成性存存。赴爾初志，報爾深恩。

閱藏畢偶成二偈

佛語何嘗離佛心，禪流義學枉沈吟。百千公案水洗水，八萬修多金博金。閱盡始知無一字，拍盲安可透稠林。馬鳴龍樹雖難企，智覺芳蹤庶許尋。
山房悄悄絕音書，縱有桃源恐不如。展卷分明唯一事，出門何用覓三車。黃花遍地鋪新景，翠竹參天擁舊居。般若真如休寢語，饑餐渴飲任狂疏。

雨窗自喻四偈(九月十九日)

萬仞寒巖枯木身，夢魂高揖謝芳春。佛名信是千生伴，梵冊元非五眼塵。食母婆和憐病子，乾坤老大笑畸人。閻浮何處尋知己，

獨寄清思落日濱。

盤曲樗材與世違，自欣從未蹈時機。興來舉首看黃葉，倦去支頤送落暉。無客不須商野饌，有風聊復被鶉衣。來甞盞飯天遺我，絕勝當年賦采薇。

百年瞬動計何長，郵寄紛紛客夢狂。來去未知生死寂，賢愚偏諍是非忙。梨華蛺蝶邀成果，柳絮毛毬佩作璫。輸與深山閒納子，數珠百八理歸裝。

極化窮神皆妄想，喚回妄想想如來。但令當念一聲切，便覺從前萬慮灰。截斷去來明暗句，結成實報寂光胚。唯心作佛唯心是，不假鍼錐正眼開。

獨坐書懷二首

剋期取果志，慚愧未能酬。病後知身苦，貧來幻想休。但將三際念，總附四弘舟。彈指歸安養，閻浮不可留。

半世傾腸腑，寥寥有幾知。庶幾二三子，慰我半生思。捨盡從前得，方開格外奇。殷勤末後句，奚啻黍離詩。

病中口號(十一月十八日)

夏病不知暑，冬病不知寒。夜長似小劫，痛烈如刀山。人間尚復爾，何況三塗閒。歸命大慈父，早出娑婆關。

病閒偶成(十二月初三日)

業緣叢簇病緣頻，痛苦呻吟徹暮晨。早發菩提猶若此，未全正信擬誰親。身經九死渾亡力，心本無生獨自甄。名字位中真佛眼，未知畢竟付何人。

大病初起求生淨土六首

閻浮百苦鎮煎熬，賴有摩提路匪遙。六字洪名真法界，一聲凡念海全潮。濁流寸寸清珠映，暗室塵塵寶炬招。千古東林風未墜，不須方便自橫超。

沈痾危篤是吾師，消卻從前多少癡。已破百年閒活計，定開塵劫大通達。遙瞻落日增哀慕，夢禮慈容長智悲。六八願王恆攝取，金蓮育質可無疑。

持名真實是單傳，念念圓成深妙禪。能所本來無二體，果因交徹即重玄。廣長舌相堅真信，周遍身光結法緣。太事分明唯此事，同仁共策祖生鞭。

病經累月皮纏骨，彷彿冥塗薜荔多。脾弱羨人甘六味，根羸廬我順三和。軒岐伎倆非雙善，忉利酥酤奈異柯。最是樂邦慈父願，含生永永離沈痾。

久向阿彌誓力深，浮生無柰染相侵。聞聲見色多忘念，計後思前轉昧心。痛極色聲緣自斷，病危前後影方沈。孤明六字全提出，百獸群中師子音。

乾慧初乾業未枯，病深無計可支吾。稱名不異兒號乳，懺罪何殊囚伏辜。乍慶此時方得主，更慚歷劫枉成逋。丁寧法侶勤相助，共解輪王髻裏珠。

贈王雪友

洙泗源從鷲嶺來，唯心一語正傳開。聖狂究竟由當念，舜跖何嘗稟異材。自昔靈根境既久，而今正信發應恢。文人慧業元無二，好把家聲續老裴。

甲午除夕

東西南北枉趑趄，乍息狂心復舊居。正喜竹泉不用買，那堪疾疢久難祛。力從枕席消磨盡，心向華臺畢竟舒。薦取寶池春富樂，從茲貧與病俱除。

乙未元旦二首

爆竹聲傳幽谷春，蒼松翠竹總維新。泉從龍樹味如蜜，石鎮雄峰苔似鱗。課續三時接蓮漏，論開百部擬天親。況兼已結束林社，同志無非法藏臣。

法藏當年願力宏，於今曠劫有同行。歲朝選佛歸圓覺，月夜傳燈顯性明。萬竹並沾新令早，千梅已露舊芳英。諸仁應信吾無隱，快與高賢繼宿盟。

(此書十卷，丙申歲後從新安梓三卷半。首其事者為葉淨衍（出二十兩），而助緣則有釋知循、李之韓（出十兩）、胡公著（出十兩）、鮑如憫、吳淨智等，嗣有葉真岸（出五十兩）、蘇開祚（出四十兩）、吳淨迪（出十兩）三公協力刻六卷半，而書於是乎成。感激法緣不易，略紀其姓氏如右。至丁福慧莊嚴，自有稱性功德在，非筆墨所能罄其萬一也。己亥冬月（戌時）合掌謹識。)

靈峰蕩益大師宗論卷第十之四(終)

CBETA 贊助資訊

[.https://www.cbeta.org/donation/index.php\)](https://www.cbeta.org/donation/index.php)

CBETA 成立於 1998 年，於 2023 年 8 月 7 日轉型成為基金會。成立多年來，一部部佛典在嚴謹控管中轉換為數位典藏，不只數量龐大，而且文字校訂精確可信，又加新式標點方便閱讀。「CBETA 電子佛典集成」不僅獲得國際學界的重視及肯定，也成為大眾廣為運用的公共資源，如此成果都是在廣大信眾及有識之士的支持下才得以實現。

對一個從事佛法志業的非營利團隊，能夠長期埋首理想、踏實耕耘是非常不容易的。如今，CBETA 運作經費日漸拮据，但「佛典集成」仍有許多未竟之功。因此，懇請大家慷慨解囊、熱情贊助，讓未來有更多更好的電子佛典。

您的捐款本會皆會開立收據，此收據可在年度中申報個人或企業的綜合所得稅減免。感恩諸位大德的善心善行，以及您為佛典電子化所做的一切貢獻。

信用卡線上捐款

本線上捐款與 netiCRM 及 NewbPay 藍新金流合作，資料傳送採用 SSL (Secure Socket Layer) 傳輸加密，讓您能夠安全安心地進行線上捐款動作。

不管您持有的是國內或國外卡，所有捐款最終將以新台幣結算，所以我們所開立的捐款收據也將以新台幣計。

線上刷卡支持定期定額與單筆捐款。（銀聯卡不支援定期定額）

[前往捐款](#)

劃撥捐款

郵政劃撥帳號: 5 0 4 6 8 2 8 5

戶名: 財團法人佛教電子佛典基金會

欲指定特殊用途者，請特別註明，我們會專款專用。

線上信用卡 / PayPal 捐款

PayPal 是一個跨國線上付款機制的公司，CBETA 引用其服務，提供網友能在線上使用信用卡或 PayPal 帳戶贊助 CBETA 。

PayPal is an online system of a global payment solution. CBETA uses its service to provide the uses to donate by using the credit cards or PayPal account to support the CBETA project.

相關收據開立事宜，由於付款幣別為美元，我們除了會依您所贊助之美元金額開立收據外，另我們會依捐款當日公告匯率開立台幣收據，此收據為國內正式合法報稅憑證。

Since the donation made is in US currency, hence all the receipts will be issued in the US dollars consequently. However for the domestic donators, a Chinese official receipt will also be made according to the foreign exchange rate for the purpose of tax deduction.

[線上信用卡 / PayPal 贊助](#)

支票捐款

支票抬頭請填寫「財團法人佛教電子佛典基金會」。

For donations by check, please write the check to
"Comprehensive Buddhist Electronic Text Archive
Foundation".
